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Ⅳ

가야 자료 총서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V

발간사

가야는 옛 기록이 많지 않아 온전한 모습을 밝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분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하는 『가야 자료 총서 1~7권』은 지금까지 축적된 가야에 대한 자료 가운데 문헌사료, 일제강점기자료, 발굴조사자료와 국내에서 발표된 논저도 함께 집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헌 사료편」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 및 일본서기, 삼국지 등 국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이 표제를 연도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 김해 회현리패총을 시작으로 1939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39호분(현 5호분) 조사까지 영남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가야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8개 시·군의 33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유적 조사 현황과 조사내용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 김해, 양산 등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야장 내용을 통해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은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의 3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638개 유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 가야의 조사 정보를 총망라하였습니다. 특히 유적의 좌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어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가야 논저 목록편」은 고대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야와 관련된 문헌자료, 금석문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등 기초자료와 주제별 논저자료를 모아 총 5,16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저자별, 지역별, 각 가야별 색인을 부록으로 붙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본 내 가야 유적·유물 자료, 국외에서 발표된 논저목록 등을 정리한 총서를 추가 발간하고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야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 총서가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대중적으로도 가야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많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총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집필과 수차례에 걸친 교정을 흔쾌히 맡아주신 집필위원님, 그동안 가야사 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모은 소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국·공·사립·대학박물관과 조사·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 삼 기

일러두기

1. 이 책은 『가야 자료 총서 3~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으로, 가야 관련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유적을 수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인 범위는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상지역에는 경남 양산, 부산, 대구 달성, 경북 성주, 호남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가야 유적 여부는 1차적으로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였다. 이밖의 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가야 유물 출토유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가야 유적은 총 38개 시 · 군 · 구에 소재한 473건 638개소이며, 가야 유물 출토유적은 총 32개 시 · 군 · 구 90개소이다.

2. 이 책은 자문회의와 편집회의를 거쳐 수록 대상 유적 선정, 집필진 구성, 편집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자문위원과 지역별 · 유형별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가나다 순)
   곽장근(군산대학교), 나동욱(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박천수(경북대학교),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이동희(인제대학교),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홍보식(공주대학교)

   집필자(목차 순)
   박천수(경북대학교, 개요, 강원 · 경북 가야 유물 출토유적),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함안 · 창녕 무덤유적), 이해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양산 · 의령 · 거제 생활유적),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창원 · 함안 · 의령 정치 · 국방 · 교통 · 통신유적), 이성훈(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무덤유적), 강석범(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생활유적), 권종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양산 · 밀양 · 창원 · 의령 · 거제 무덤유적), 권귀향(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밀양 · 창원 · 함안 · 창녕 생활유적), 이세영(부경문물연구원, 진주 무덤유적), 김주호(부경문물연구원, 진주 생활유적), 장상갑(현대문화재연구원, 합천 · 산청 · 거창 · 함양 · 하동), 공봉석(부경문물연구원, 고성), 유은식(부경문물연구원, 통영 · 남해), 김진철(부경문물연구원, 사천),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 달성 · 성주),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전남), 곽장근(군산대학교, 전북 · 호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강원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홍보식(공주대학교, 서울 · 충북 · 충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3. 이 책에 수록된 사진 · 도면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가경고고학연구소, 가온문화재연구원, 강산문화연구원,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상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성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 박물관, 고령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고령문화원, 관동대학교박물관, 국강고고학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보학술문화연구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군산대

학교박물관, 극동문화재연구원, 김해시, 나라문화연구원, 남도문화재연구원, 다온문화재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대동문화재연구원,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대한문화재연구원, 덕난문화유산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동서문물연구원,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양대학교박물관, 동양문물연구원, 두류문화연구원, 마한문화연구원, 목포대학교박물관, 복천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경문물연구원,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강문화재연구원, 삼도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서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림문화재연구원, 순천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조선대학교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한겨레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국문물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연구원, 한반도문화재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한화문물연구원, 해동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호암미술관

4. 유적은 지역별(Ⅰ권: 경남 동부 · 부산지역, Ⅱ권: 경남 중 · 서부지역, Ⅲ권: 경남 북부 · 경북 · 대구지역, Ⅳ권: 경남 남해안 · 전남 · 전북지역), 유형별(무덤유적, 생활유적, 산업 · 생산유적, 정치 · 국방유적, 교통 · 통신유적, 제의유적), 문화재지정별(사적,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재자료, 비지정), 행정구역별의 순서로 분류하였다. 단, 마산 진동유적과 같이 가야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정문화재(가야 유물 출토유적 포함)는 비지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 유적에서 2개 이상의 유형이 확인된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부록에는 해당되는 유형을 함께 표기하였다.

5. 유적은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건을 기준으로, 해방 이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을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보고서가 미발간되었지만,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였다.

6.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같이, 유적이 연차적으로 발굴된 경우는 전체 유적의 조사 현황을 개요로 설명한 뒤, 각 발굴조사 건별로 세부 조사내용을 수록하였다.

7. 유적의 주요 항목은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관, 조사기간, 주요 유적 · 유물, 조사내용, 유적 위치도, 관련 도면 · 사진,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하였다. 유적명은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유적의 경우는 유적명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다. 소재지, 조사기관명도 발굴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8. 각 지역별 개별 유적의 분포는 유적번호와 함께 위성사진에 표시하였다.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1권 가야 문헌 사료편

개요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사료
사료 표제
연도별 사료

부록 사료 목록

2권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개요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 유적

조사 자료
Ⅰ. 김해
Ⅱ. 양산
Ⅲ. 함안
Ⅳ. 진주
Ⅴ. 창녕
Ⅵ. 고령
Ⅶ. 성주
Ⅷ. 고성

부록 조사 연표

3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Ⅰ

개요 고고학으로 본 가야

경남동부 • 부산지역
Ⅰ. 김해
Ⅱ. 부산
Ⅲ. 양산
Ⅳ. 밀양
경남동부·부산지역 가야 유적 목록

4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경남중부 • 서부지역
Ⅰ. 창원
Ⅱ. 함안
Ⅲ. 의령
Ⅳ. 진주
경남중부·서부지역 가야 유적 목록

5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경남북부 • 경북 • 대구지역
Ⅰ. 창녕
Ⅱ. 합천
Ⅲ. 산청
Ⅳ. 거창
Ⅴ. 함양
Ⅵ. 고령
Ⅶ. 달성
Ⅷ. 성주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가야 유적 목록

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경남남해안 • 전남 • 전북지역
Ⅰ. 고성
Ⅱ. 통영
Ⅲ. 거제
Ⅳ. 사천
Ⅴ. 남해
Ⅵ. 하동
Ⅶ. 전남
Ⅷ. 전북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가야 유물 출토 유적
Ⅰ. 영남
Ⅱ. 호남
Ⅲ. 서울 • 충청 • 강원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부록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7권 가야 논저 목록편

Ⅰ. 기초 자료
1. 문헌 자료
2. 금석문 자료
3. 지표 • 발굴조사 보고서
4. 도록

Ⅱ. 논저편
1. 정치 • 군사
2. 사회
3. 문화
4. 경제
5. 외교
6. 지리 • 교통
7. 종교 • 사상
8. 유적
9. 유물
10. 고고이론 • 분석
11. 민속 • 신화
12. 어문
13. 기타

부록 색인

Contents

경남남해안 전남 전북지역

Ⅰ. 고성 011
Ⅱ. 통영 049
Ⅲ. 거제 057
Ⅳ. 사천 091
Ⅴ. 남해 119
Ⅵ. 하동 125
Ⅶ. 전남 153
Ⅷ. 전북 165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262

가야 유물 출토 유적

Ⅰ. 영남 273
Ⅱ. 호남 295
Ⅲ. 서울·충청·강원 415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430

부록

가야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437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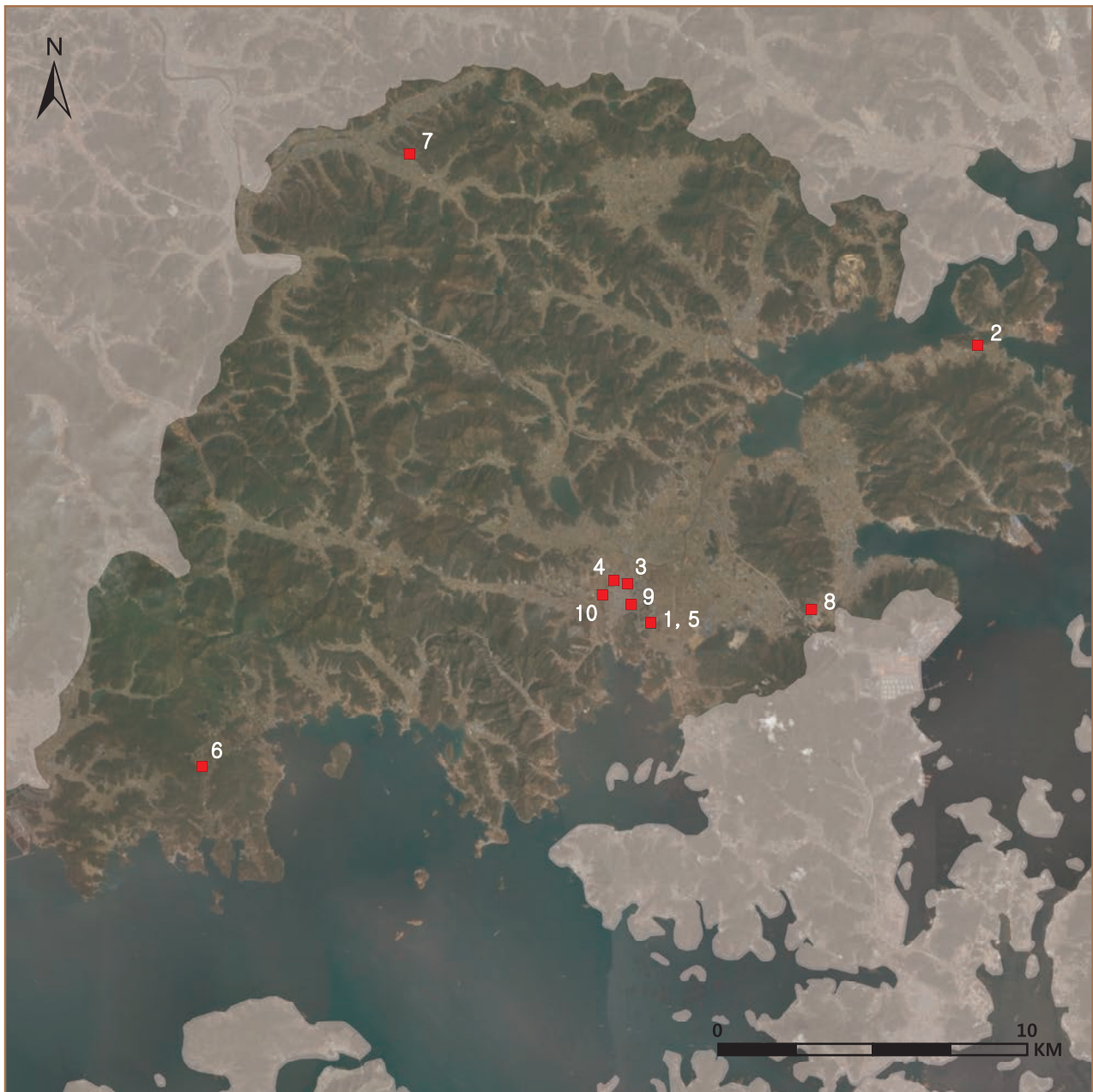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Ⅳ

경남남해안
전남
전북지역

Ⅰ. 고성
Ⅱ. 통영
Ⅲ. 거제
Ⅳ. 사천
Ⅴ. 남해
Ⅵ. 하동
Ⅶ. 전남
Ⅷ. 전북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積石山
永昌
牛背峙
栗川
無量山
圓城
松道
佛岩山
南山
濟民
南村
天峙
大酒
小酒
落時
文殊山
望林山
韓門
紙
海
唐浦
供需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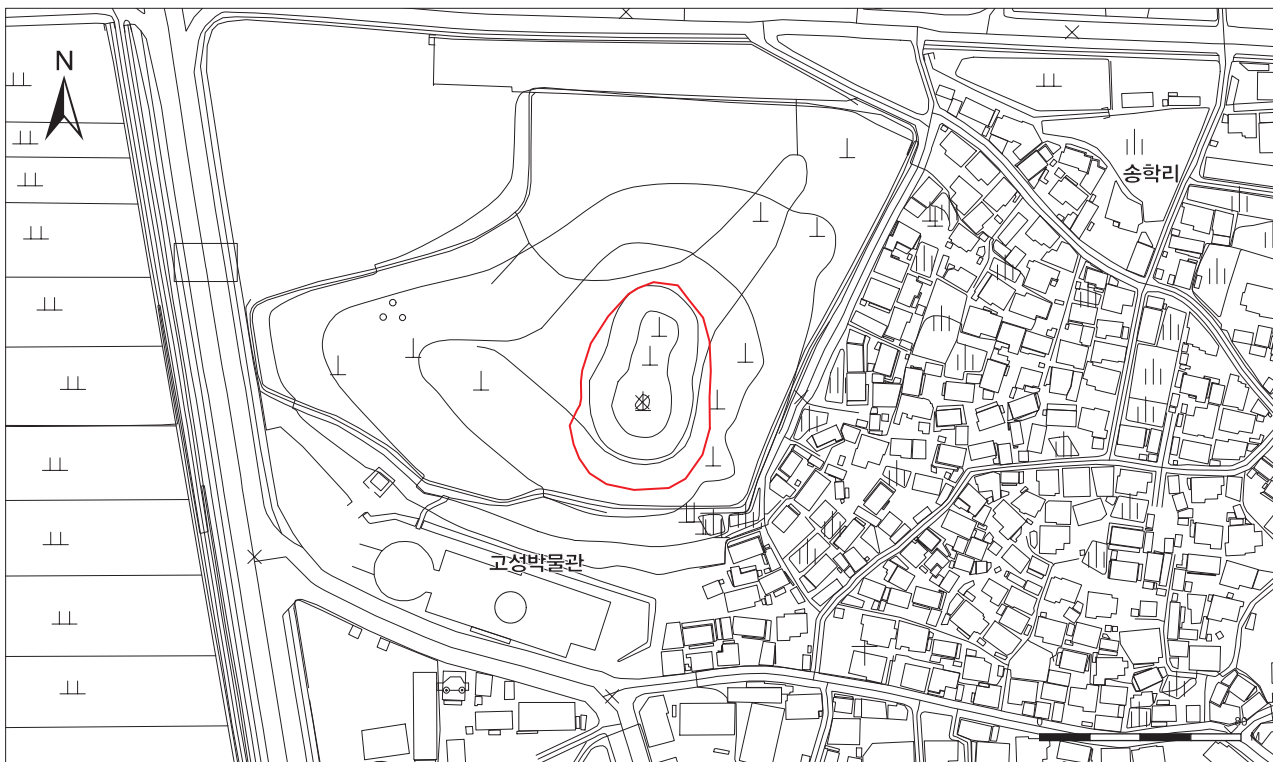
Ⅰ. 고성

01 고성 송학동고분군

| 사적 제119호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3-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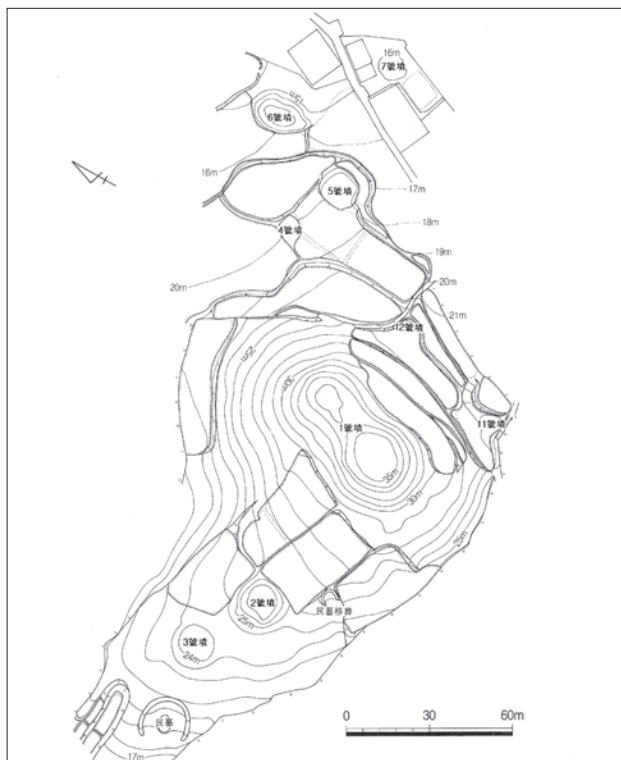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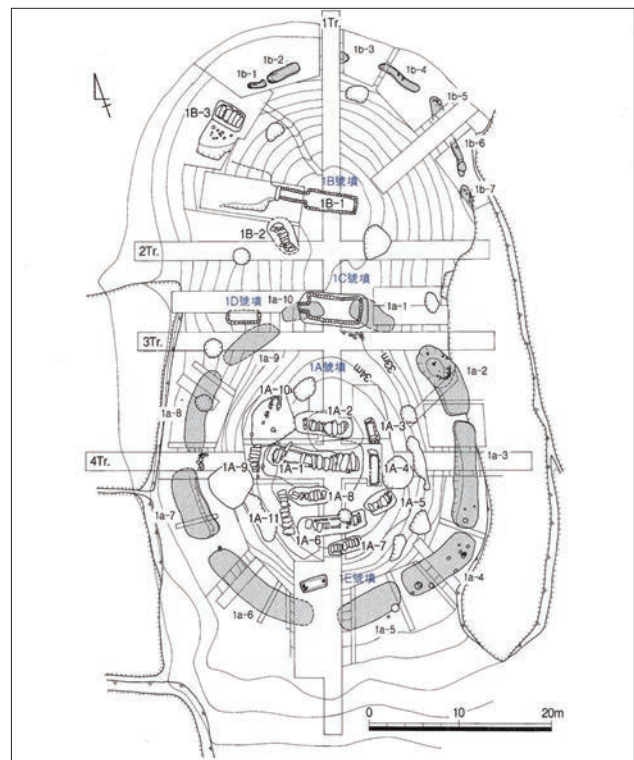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차 2000.7.~2000.10.
2차 2001.6.~2001.10.
3차 2002.3.~2002.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 / 고배,
개배, 광구소호, 등자,
행엽

유적은 고성평야의 서쪽 무학산이라 불리는 작은 구릉 정상부에 1호분이 위치하고, 1호를 주변으로 인접하여 소형 봉토분 8기가 배치되어 있다. 발굴조사는 1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송학동 1호분은 외형이 마치 일본 고분시대 무덤으로 알려진 전방후원분과 매우 유사하다는 견해가 일부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어 한·일 고고학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조사결과 구조와 시기를 달리하는 3기 이상의 원분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중첩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즉 1호분의 가장 남쪽, 소위 후원부로 알려진 1A호분이 먼저 설치되고, 다음 전방부로 알려진 북쪽 구릉 정상부에 1B호분이, 마지막으로 양 고분 중간에 1C호분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고분은 배장 또는 추가장으로 판단되는 소형 석곽들을 동일 분구 내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즉 1C호분 보다 선행해서 축조된 1D호분이 잔존하고 있고, 1A호분 성토층 하부에 위치한 1E호분은 1A호분이 축조되기 이전에 이미 축조되었던 목곽분으로 밝혀졌다.

유적 위치도

1호분의 분구는 구릉 정상부를 부분적으로 삭평하고 정지하여 평면 원형의 기반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점토와 산토를 이용하여 원추형 대지를 성토하였다. 대지 축조는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수평하게 쌓았는데, 주로 암갈색점토에 간혹 산토를 섞어가면서 유사판축 형태로 다졌다. 일부 석비레를 적갈색사질토와 섞어 쌓은 것도 확인되어 부분적으로 구획 축조가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구 조성 이후 성토된 대지를 파서 매장주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개석 위를 적갈색이나 황갈색밀봉토를 일정 두께로 덮고, 다시 회갈색점질토를 둥글게 쌓아 봉분이 반구형에 이르도록 하였다. 분구 가장자리에는 일정 간격으로 중간에 육교를 가진 단절형 장타원형 주구를 배치하였다. 1B호분의 주구 내부에는 적갈색원통형토기를 눕히거나 세워두었던 것이 파손된 채로 확인되었다.

1A호분은 분구 중앙에 위치한 동서 장축의 1A-1호 수혈식석곽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10기의 수혈식석곽이 상호 장축을 달리하여 배치된 다곽식이다. 유구의 배치 상태와 축조수법,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볼 때, 유구 상호 간 축조 시기를 달리하면서 축조된 소위 추가장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곽이라 할 수 있는 1A-1호는 길이 8.25m, 너비 1.05m, 깊이 1.15m이다. 일부 석곽에서는 장벽을 연장하여 추가장이 행해진 흔적이 확인되고, 구유형목관을 설치한 흔적도 있다. 축조 시기는 대략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1B호분은 중앙에 대형 횡혈식석실 1B-1호를 중심으로 분구 남쪽과 묘도 입구 북쪽에 인접하여 소형 수혈식석곽 1B-2호와 1B-3호 등 모두 3기가 확인되었다. 1B-1호는

유구 배치도

1호분 유구 배치도

동서 장축을 가지고 서단벽에 연도와 묘도가 있으며, 묘도는 부채꼴 형태를 이루며 가장자리 쪽이 넓고 낮다. 현문은 서단벽 중앙이고, 서벽 중앙 양쪽에 문주석과 그 사이에 문지방석, 판석으로 된 문비가 배치되어 있었다. 석실은 평면 장방형으로, 네 벽은 판석재를 이용하여 구릉 정상을 정지한 기반층에서부터 바른쌓기 수법으로 쌓아 올렸다. 석벽 상단부에는 판석 10매를 양 장벽 위에 수평으로 나란히 걸쳐 천장석으로 삼은 평천장 형태이다. 석실 바닥은 기반층 위에 회청색점토를 한 벌 깔았으며, 그 위에 평편석을 전면에 놓고 다시 율석을 전면에 걸쳐 한 벌 깔았다. 석실은 길이 6.7m, 너비 2m, 깊이 1.5m이며, 연도는 길이 3.3m, 폭 1.1m, 높이 1.3m이다. 석실에는 목제 선반과 휘장용 철못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석실과 연도 내부를 붉게 채색하였는데, 벽면은 황회색점토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붉은 칠을 한 데 반해 천장은 바로 도장하였다. 내부에 묘도 폐쇄 흔적과 바닥 상태, 유물 출토 위치로 보아 2회 정도 추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1B-1호은 구조, 내부시설, 채색고분 등의 주요 특징으로 보아 전남지방과 일본 규슈지방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는데, 당시 남해 연안을 통로로 삼아 상호 교류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기는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1C호분은 횡혈식석실분으로, 1B-1호와 유사한 형태와 구조를 띤다. 연도는 서단벽 중앙에 위치하고 평천장을 가진 터널식이며, 묘도는 나팔 모양으로 길고 끝이 넓은 형태이다. 석실은 동-서 장축의 평면 장방형이고, 석벽은 중간 부분부터 상단으로 갈수록 점차 내경하여 궁륭상의 천장 형태로 추정된다. 1B-1호와 달리 현문에 문비를 비롯한 문

1A호분

주석, 문지방을 갖추지 않았다. 석실은 길이 5m, 너비 2.65m, 깊이 1.2m이고, 연도는 길이 2m, 너비 0.65m, 높이 0.75m이다. 1C호분은 1호분에서 가장 늦게 축조된 고분으로 구조상 1A호분과 1B호분보다 늦은 6세기 전반에서 중반대로 편년된다. 한편 1E호분 목곽분은 3세기 말엽에서 4세기 초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매장주체시설과 분구, 주구에서 토기, 철기, 장신구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고배, 개배, 직구호 등 소가야를 대표하는 토기와 함께, 주변 지역에서 유입된 토기가 비교적 많이 출토되었다. 특히 합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개·소형 원통형기대 등이 있고, 신라에서는 유개고배를 비롯한 대부장경호·대부완·개 등이 있다. 백제에서는 개배, 대부완이 유입되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유공광구소호는 마한·백제지역과 일본과의 관련성도 예상된다. 철기는 안교, 재갈, 등자, 행엽, 마령 등 마구와 갑주를 비롯한 대도, 철부, 철겸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장신구는 이식, 경식, 천이 출토되었다.

송학동 1호분은 규모나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5세기 중반 이후부터 6세기 중반 사이 대략 1세기에 걸쳐 축조된 고자국古自國, 또는 소가야의 왕이나 수장급에 해당하는 무덤으로 추정되며, 그 피장자들이 주변의 제국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고성 송학동 고분군』.

1C호분 석실

1B호분 석실

출토유물

02

고성 내산리고분군

| 사적 제1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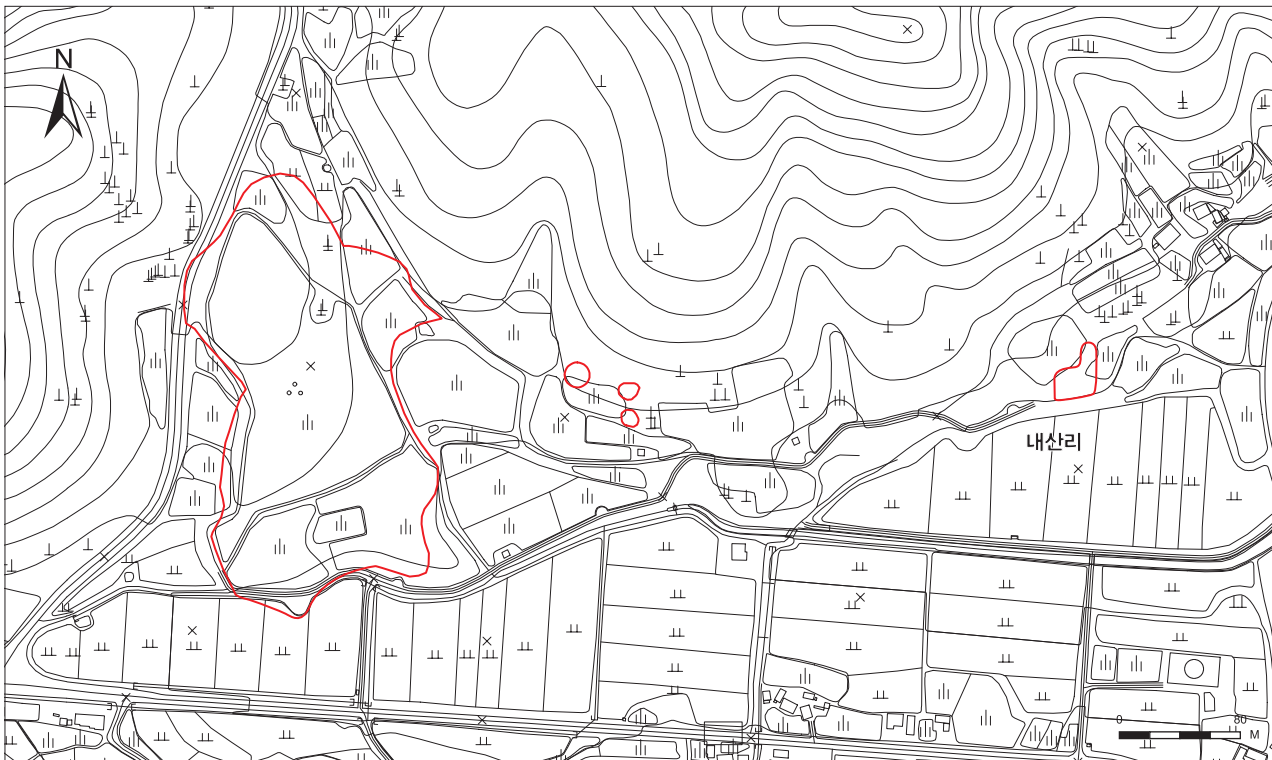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8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차 1997.11.~1997.12.
2차 1998.5.~1998.7.
3차 1999.3.~1999.6.
4차 2000.10.~2000.12.
5차 2001.3.~2001.6.
6차 2003.4.~2003.5.
7차 2005.10.~2005.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 / 고배, 개, 유공광구소호, 대부호, 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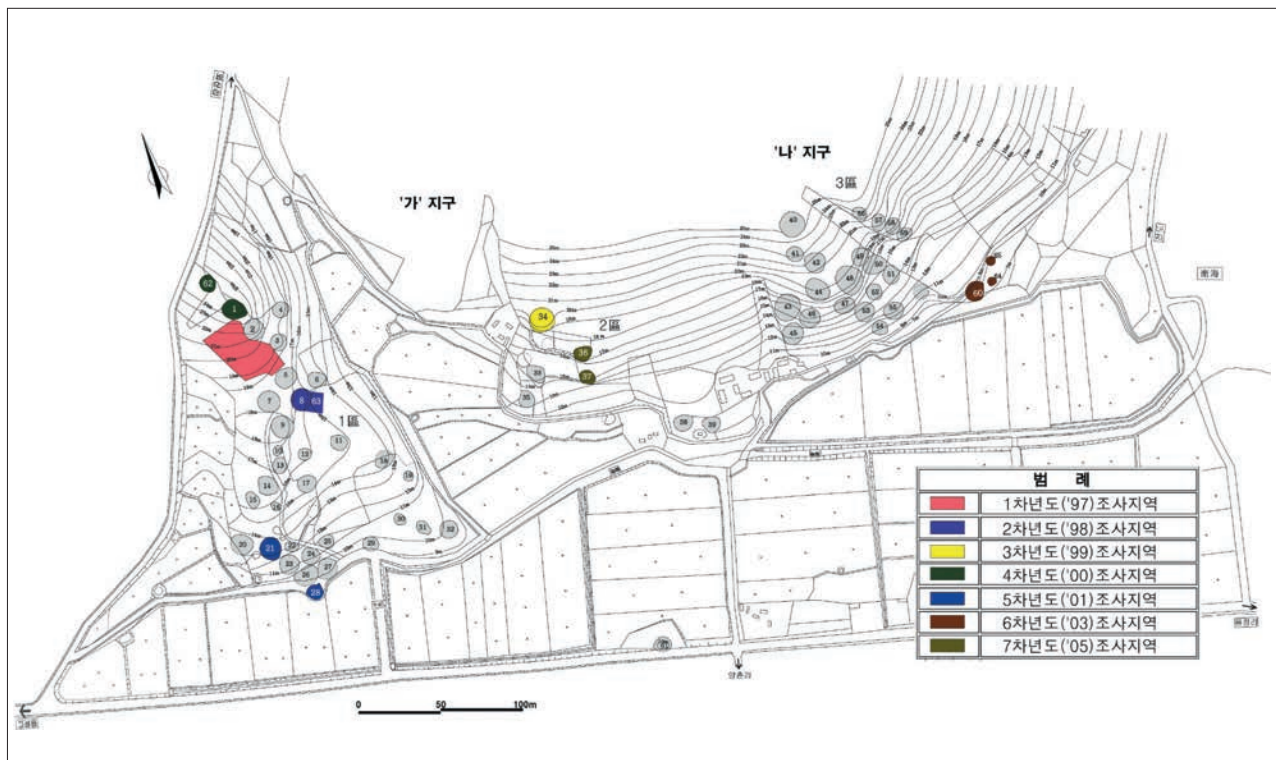
내산리고분군은 고성군 동해면 북쪽의 노인산과 남쪽의 철마산 사이에 형성된 낮은 언덕과 평지에 위치하며, 동쪽은 적포만, 서쪽은 당항포로 이어지는 좁은 해협과 연결된다. 고분군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적포만 해안 일대의 고래실이라고 불리는 해발 10~20m 사이의 낮은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60여 기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지름 15~20m의 대형 봉토분이 20여 기이고, 10~15m 정도의 중형 봉토분 40여 기로 구릉 하단부에 집중되어 있다.

발굴조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7차에 걸쳐 1호분, 8호분, 21호분, 28호분 등 대형 봉토분을 비롯하여 34호분, 36호분, 37호분, 60호분, 62~65호분 등 중소형 봉토분 10여 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고분은 구지표를 정리하고 10~20㎝ 정도의 흑갈색점질토를 깔아 정지층으로 삼았다. 정지층 위에 주변의 황갈색부식토와 적갈색점질토를 섞어서 어느 정도 봉분을 성토

유적 위치도

한 후, 성토된 봉분을 다시 파서 판상의 할석으로 매장주체시설을 축조한 이른바 분구묘墳丘墓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성 율대리 2호분, 고성 송학동 1호분, 고성 기월리 1호분 등 영남지방에서는 고성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되는데, 소가야지역의 독특한 유구 축조 기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구는 1호분, 62호분, 63호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크기는 너비 2~4m, 깊이 0.3~0.8m이다. 내부에서 개, 고배, 호 등이 깨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내산리고분군의 매장주체시설은 한 봉토 내에 수혈식석곽이나 횡혈식석실로 하는 주곽이 위치하고, 그 주위에 다수의 중소형 수혈식 석곽을 배치한 다곽식의 구조를 띤다. 대부분 하나의 봉토에 5기 전후의 매장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21호분은 15개의 석곽이 확인되었다. 봉분의 중앙에는 규모가 가장 큰 주곽이 주로 동-서향을 주축으로 배치되어 있고, 소형 매장시설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병렬로 배치된다. 이러한 다곽식 묘제는 봉토를 미리 만들어 놓고 매장시설을 일정한 기획 아래 배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축조하였는데, 내산리고분군 축조집단의 강력한 세력과 영속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제34호, 60호, 64호분 3기는 매장주체시설이 횡혈식석실이다. 횡혈식석실은 평면 장방형으로 연도부가 모두 서쪽으로 열려 있는 중앙 연도식 구조이다. 이러한 석실분의 예는 진주, 의령, 함안 등 서부 경남지역에서 주로 상위 계층의 묘제로 채택되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출토된 개배, 대부호 등을 볼 때 백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산리고분군의 축조 시기는 유구와 유물로 볼 때, 대체로 6세기 전반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은 토기류를 비롯한 철기, 장신구 등인데, 특히

유구 배치도

토기류는 개배, 고배, 수평구연호, 대부호, 파수부완 등 서부 경남 가야 후기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내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대외교류를 짐작해볼 수 있는 상태가 양호한 고고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8호분 주곽에서 출토된 영락부 대부장경호는 신라와의 밀접한 교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8호분 3곽 출토 유공광구소호는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토기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대가야계 개배류, 왜와 연관이 있는 철제 등자 등도 출토되었다. 이처럼 외래계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내산리 집단은 활발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함과 동시에 대외관계에 많이 의존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고성 내산리 고분군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5, 『고성 내산리 고분군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7, 『고성 내산리 고분군Ⅲ』.

21호분 전경

8호분

8호분 주곽 유물 출토모습

34호분

토기류

토기류 · 철기류

03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3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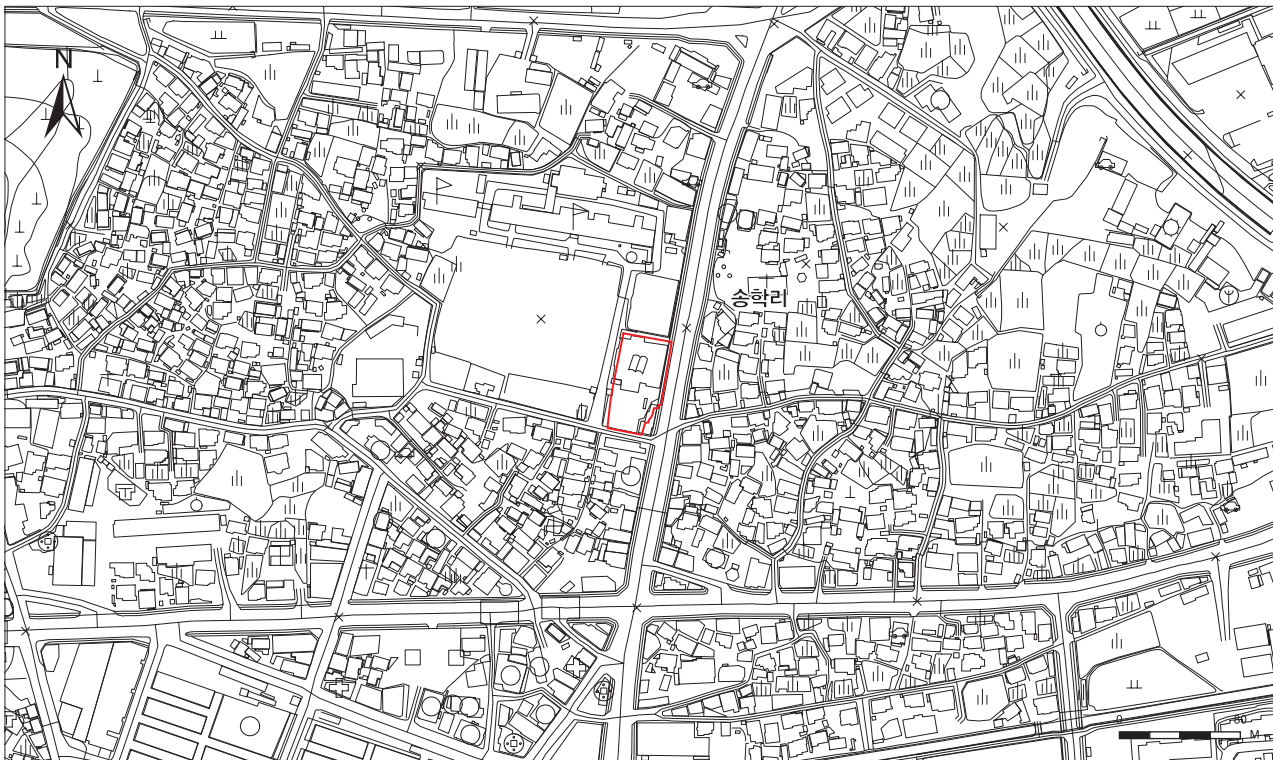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0.11.~2010.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
옹, 호

유적은 해발 약 15~16m의 북고남저를 이루는 완만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으며, 고성여자중학교 내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은 교내 체육관, 서쪽은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 동쪽은 남-북 방향으로 진행되는 동외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구는 삼한시대 주거지 1기·수혈 4기와 함께 조선시대 수혈 2기, 시대 미상 수혈 5기·구 4기·주혈군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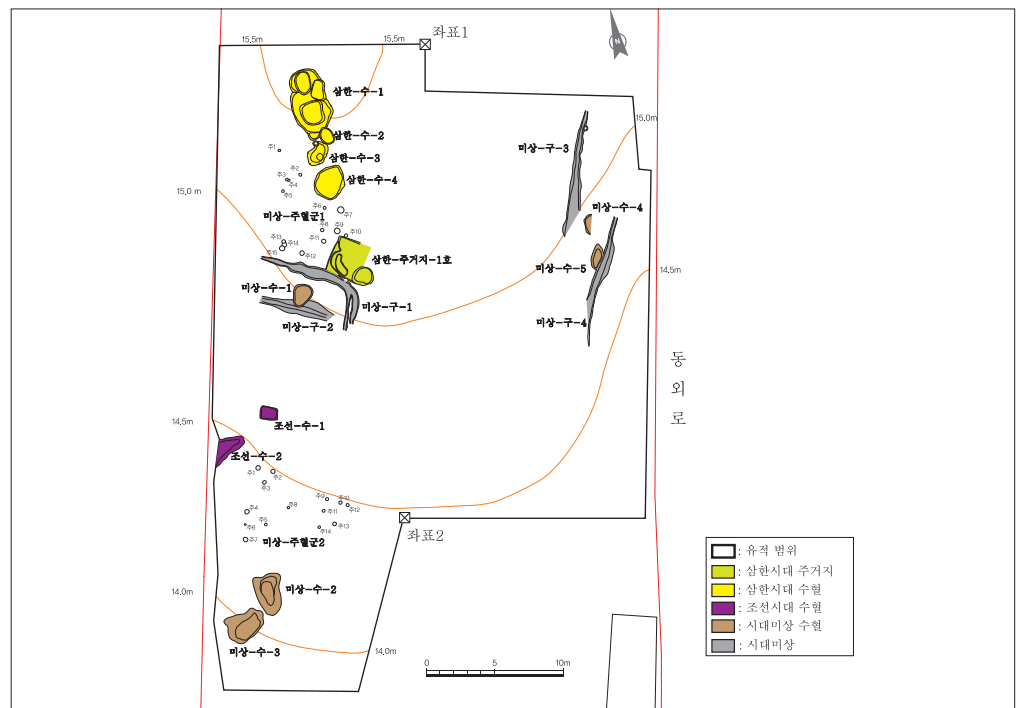
주거지는 평면 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잔존길이 3.4m, 너비 2.9m, 잔존깊이 0.15~0.2m이다. 주혈은 중앙에 집중되어 모두 3개가 확인되며, 주거지 남서벽 중간 지점에서 북서벽 모서리 부분까지 걸쳐 선반과 유사한 시설로 추정되는 너비 15~30㎝ 정도의 단 시설을 두었다. 이외에도 주거지 내부에는 구, 수혈 등이 확인된다. 유물은 연질 호 편이 출토되었다.

수혈은 조사지역 북서쪽에 남북으로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다. 특히 1호 수혈은 부

유적 위치도

정형의 크고 작은 수혈 수 기가 서로 중복 굴착하여 평면 장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약 5.9m, 너비 약 2.7m 잔존, 깊이 약 0.3m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혈이 인접한 고성 동외동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1호 수혈은 의례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모두 연질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기종은 호와 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유적의 시기는 기원후 2세기 중엽에서 3세기 전반대로 판단된다.

유적은 입지, 유구 구성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인접한 고성 동외동유적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에 보고된 바 있는 고성 송학리패총이 고성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생활유적일 가능성도 크다.

참고문헌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고성도서관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1~4호 수혈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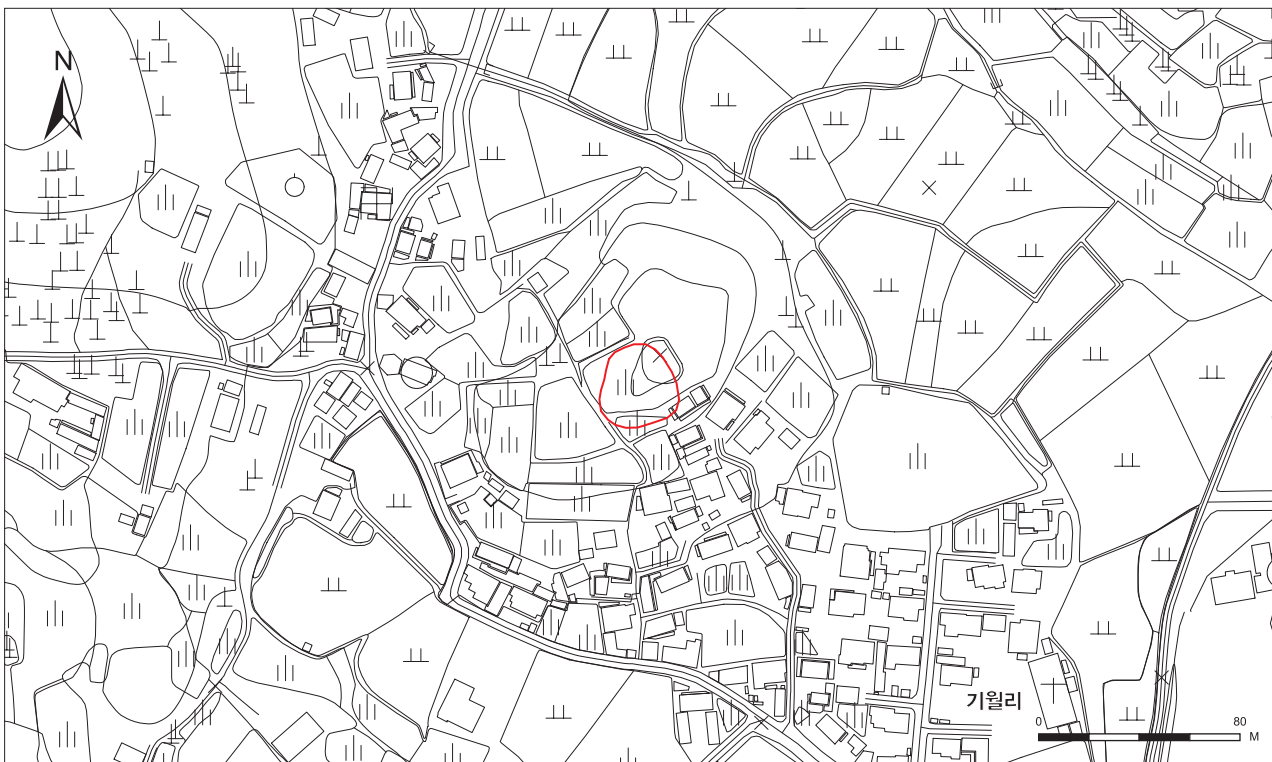
04 고성 기월리 1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419-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1.1.~ 2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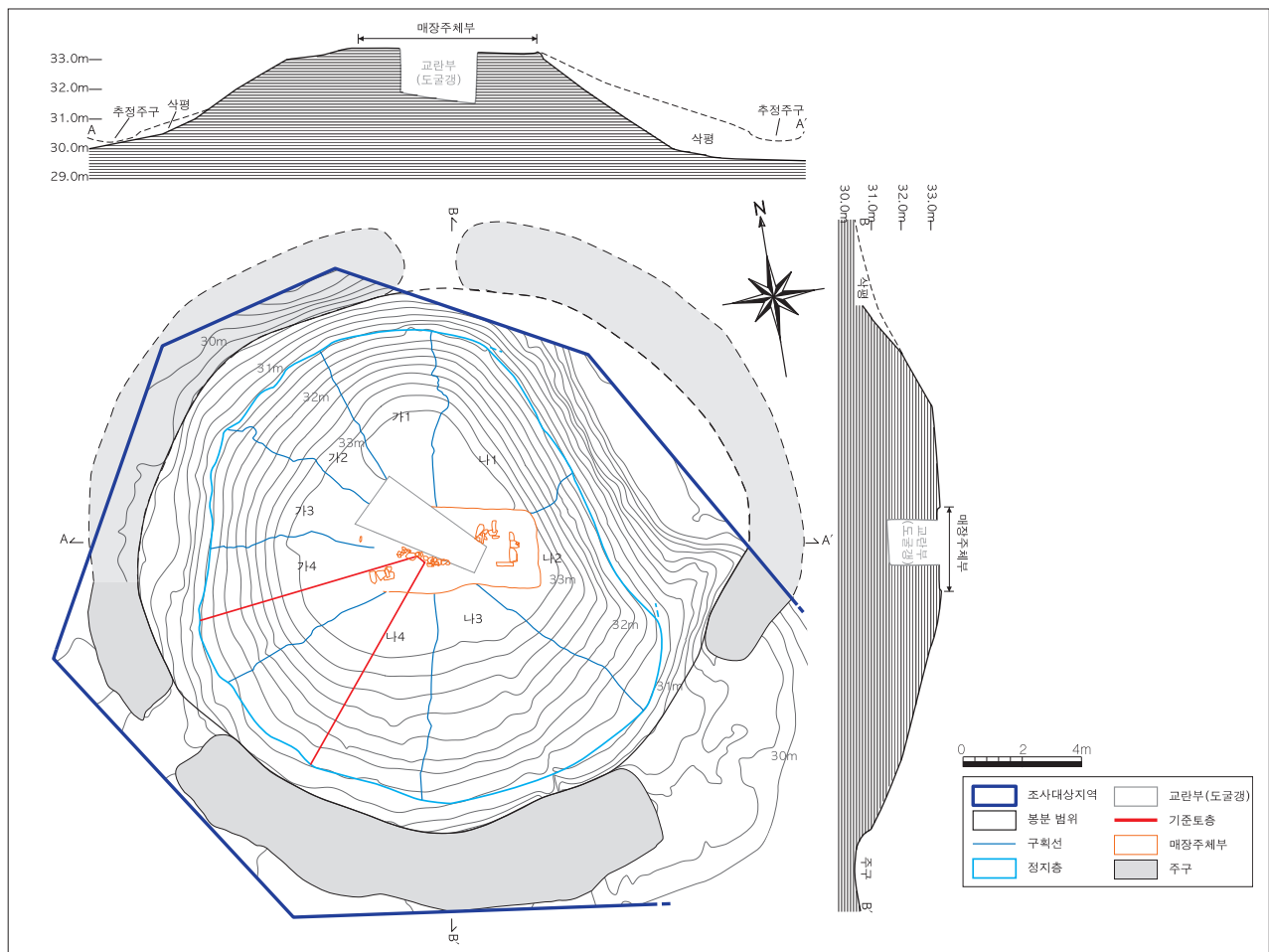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유공광구소호,
대호

기월리 1호분은 송학동 고분군에서 서북쪽으로 760m 가량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230m 떨어진 지점에 기월리 2호분이 있다. 야트막한 언덕 정상부에 원분으로 조성하였는데, 북쪽과 북동쪽 일부가 건물 조성과 밭 경작 등으로 절토되었다. 봉분의 상부는 삭평되어 평탄하며, 비교적 넓은 범위로 도굴 갱이 확인되었다.

기월리 1호분은 낮은 언덕 정상부를 묘역으로 선정하여 구 지표면을 정리한 다음, 봉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구를 설치하면서 묘역 조성을 시작하였다. 즉 봉분 성토 이전에 주구를 굴착하여 봉분의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성토에 사용할 토재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는 너비 2~3.5m, 잔존깊이 0.85~1.4m이고, 서쪽과 남동쪽이 끊어져 있다. 이후 봉분의 기저부에 해당하는 주구 안쪽 표토를 평탄하게 정리한 뒤, 그 상부에 암갈색 사질점토를 10~30㎝ 두께로 도포하여 정지작업을 완료하였다. 묘역 기저부를 정지한 후 본격적으로 성토작업을 하였다. 성토작업은 평면 8개 분면으로 방사상 구

유적 위치도

획성토가 이루어졌으며, 아래에서 위로 4개의 작업단위로 세분된다. 각각의 작업은 방사상구획부를 다시 횡방향으로 구획하여 중앙에서 바깥으로 성토하였는데, 횡방향 구획은 토층 상에서 지그재그 상의 교차 현상이 나타나고 구획 경계부에 20~40㎝ 크기의 깬돌이나 20~30㎝ 크기의 점토 덩어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였다. 이상 제 공정을 통해 성토된 봉분은 남-북 길이 약 17.5m, 주구 포함 동-서 길이 약 24m, 높이 약 2.5~3m이다.

봉분성토를 완료한 뒤 봉분 중앙 해발 33.2m 선상을 굴착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였는데, 매장주체부는 동단벽 최하단석 일부가 남아 있을 뿐 대부분 유실되어 형태와 구조를 알 수 없다. 묘광의 잔존 규모는 길이 730㎝, 너비 260㎝, 깊이 10~30㎝이다. 통상 매장주체부 축조가 완료되면 개석을 밀봉한 후 다시 성토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기월리 1호분의 경우 봉분 상부가 완전히 유실되어 축조 양상을 알 수 없다. 한편 봉분의 정지토 아래에서 청동기시대 분묘 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매장주체부 내에서 유공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주구의 남서쪽 바닥에서 연질옹과 남동쪽 단절부에서 호 및 대호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인접

1호분 평·단면도

한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주구 내 유물 출토 상태를 참고할 때 제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월리 1호분은 송학동고분군과 더불어 소가야 최고 권력 집단 분묘로, 후대 교란과 도굴로 인해 매장주체부와 상부 성토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봉토를 조성한 뒤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는 소가야 봉토분의 축조수법을 모델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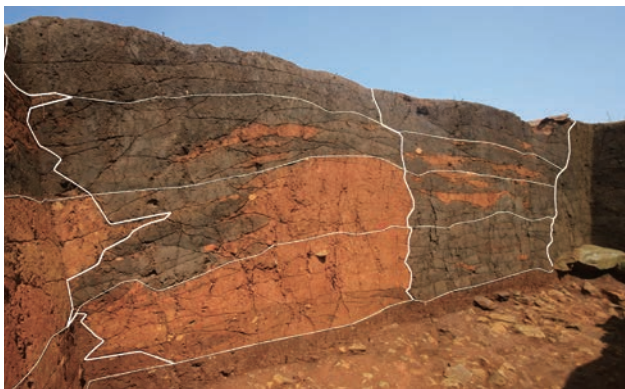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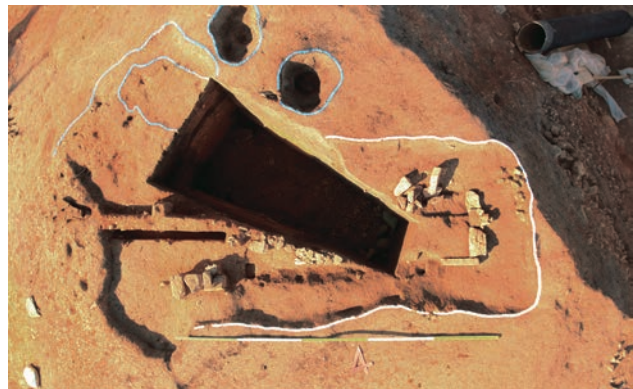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고성 기월리 1호분』.

2차 조사 후 전경

가-4분면

가-4분면 토층

나-4분면 토층

도굴갱 북동벽 토층

매장주체부

05

고성 율대리 2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78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진주박물관 /
1989.4.~1989.5.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대부장경호,
개, 등자

조사지역은 고성군의 남쪽에 위치하는 남산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여기에 4기의 봉토분이 있었는데, 이 중 1호분은 1972년 한전 고성출장소 건설 시 파괴되었고, 나머지 3기는 14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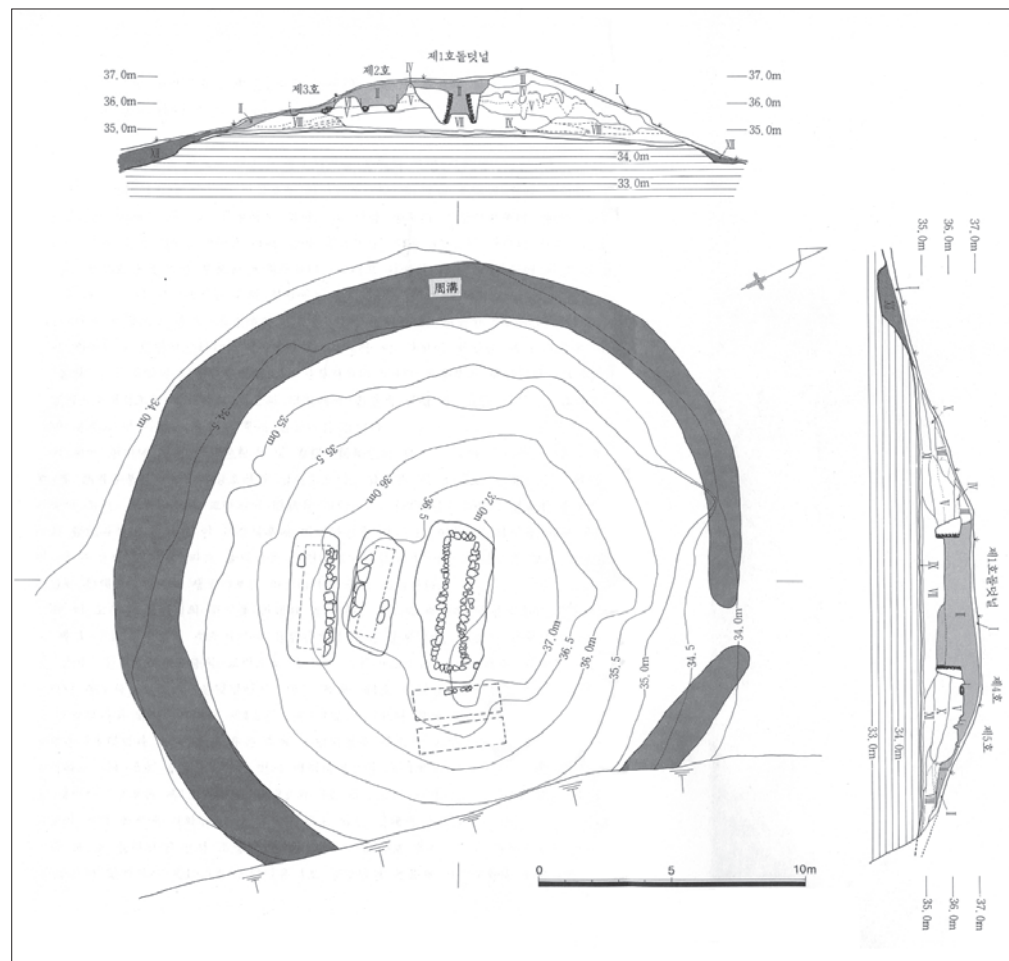
율대리 2호분은 14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봉분은 지름 22m, 잔존 높이 2.9m의 원형이고, 동쪽 일부가 기존 도로 건설 시 훼손되었으며, 정상부는 평탄한 상태였다.

고분은 하나의 봉토에 5기의 석곽묘를 마련한 다곽식봉토분으로, 봉토는 대략 3단계에 걸쳐 조성하였다. 우선 구릉 정상부를 편평하게 깎아낸 후 전면에 흑색 점토를 20~30㎝ 두께로 깐 다음 본격적인 성토를 하였는데, 봉토의 가장자리를 평면 5등분하여 봉토 중앙과 각 구획 사이를 비워두고 일정한 높이까지 쌓아 올렸다. 다음으로 흑색과 흑갈색점토를 이용하여 5등분한 각 구획 사이와 중앙의 빈 곳에 단단히 다지며 채워 넣

유적 위치도

었고, 이 위를 전면에 걸쳐 흑갈색 또는 암황갈색의 점토를 쌓아 올려 봉토의 대략적인 모형을 갖추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이 윗면을 다시 파서 수혈식석곽을 축조하고 상부 봉토를 덮어 마무리하는 단계이지만, 봉토 상부가 심하게 교란되어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 한편 봉토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구를 설치하였는데, 북동쪽 일부분을 입구로 설정한 듯 주구가 끊어져 있었다. 주구는 봉토 조성 시 정지작업 단계 전후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대략 깊이 0.15~0.8m, 너비 1.2~2.2m이다.

봉분 내에는 총 5기의 석곽묘를 설치하였다. 석곽묘의 배치 상태로 볼 때 봉분 중앙에 있는 1호를 먼저 조영하고, 그 남쪽에 2·3호를 1호와 나란하게 배치하였으며, 더는 남쪽에 공간이 없게 되자 4·5호는 1호의 동쪽에 장축 방향을 직교시킨 채 조영하였다. 석곽묘는 1호만 비교적 잘 남아 있을 뿐 대부분 도굴과 후대 교란 등으로 인해 벽 일부만 남아 있거나 바닥 흔적만 남아 있다. 축조 기법 상에 특징적인 것은 여타 석곽묘와 달리 성토된 봉토 위에 축조된 관계로 이를 튼튼하게 하려고 측벽 하단을 바닥보다 더 내리고, 그 사이에 보강석을 끼우는 등의 방법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장경호, 대부장경호, 고배, 개, 기대, 재갈, 등자, 천, 금제이식, 창, 철촉 등이

2호분 평·단면도

출토되었다. 특히 2·3호 석곽묘 출토 대부장경호, 장경호, 파수부발, 개, 기대 등은 고령·합천 등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대가야계 토기, 1·2호 석곽묘 출토 발, 고배, 개, 대부호 등은 신라 토기로 분류된다.

고분의 시기는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가야 토기와 신라 토기 등을 근거로 6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는데, 이 무렵 고성에서는 대가야 및 신라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소가야는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진주박물관·고성군, 1990, 『고성 율대리 2호분』.

2호분 동-서벽 토층

2호분 남-북둑 토층

1~3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서장벽

장신구류

토기류

06

고성 오방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524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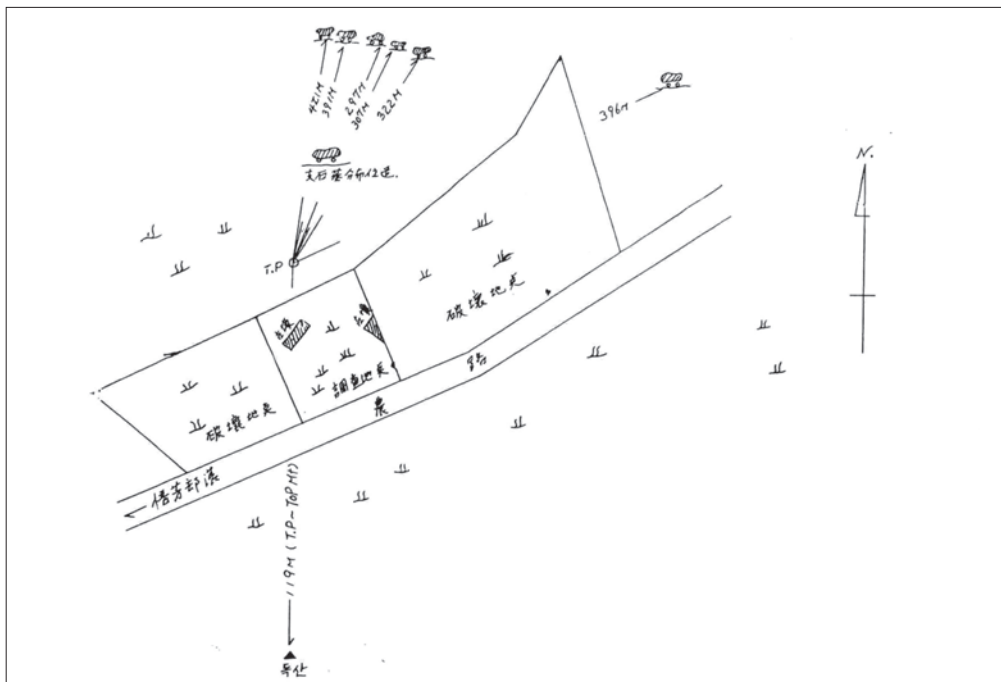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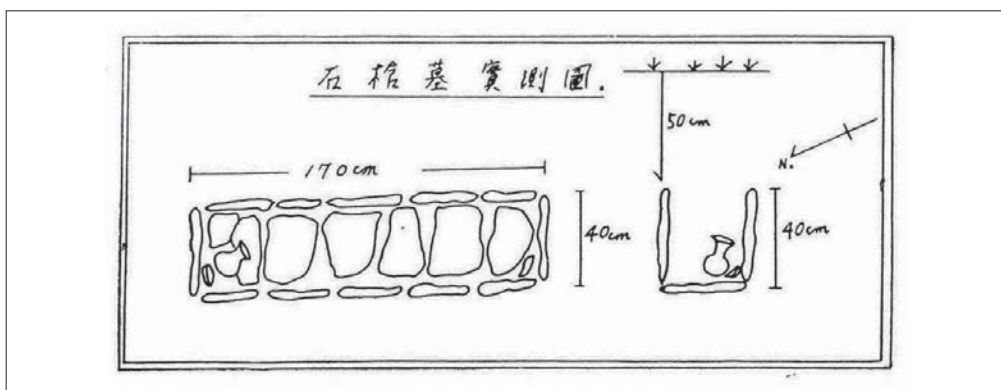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관묘 / 수평구연호

삼국시대 고분군은 대개 구릉의 정상부나 산 사면에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오방리고분군은 평지에 입지하고 있어 주목되는 유적이다. 고분군은 고성의 자란만쪽을 향해 있는 해안의 소규모 곡저평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오방들에는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1972년 이 지역 일대 경지정리 작업 중에 우연히 유구와 유물이 노출되어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다.

고분은 판석을 여러 매 세워서 벽을 조립하고, 바닥에도 판석 몇 장을 깔아 만든 일종의 석관묘의 형태를 띠는데, 청동기시대 석관묘와 거의 비슷하게 축조하였다.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규모는 길이 1.7m, 너비 0.4m, 깊이 0.4m이다. 출토유물은 수평구연호와 고배의 각부를 잘라 사용한 뚜껑이 전부이다. 석관묘 주변으로 무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유물이 산재 있는 것으로 보아 경지정리 작업 중에 이미 몇 기의 고분이 파괴되었다.

참고문헌

김동호, 1972, 「고성지역 고분 발굴조사보고」, 『고고미술』 116, 한국미술사학회.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석곽묘 실측도

07 고성 연당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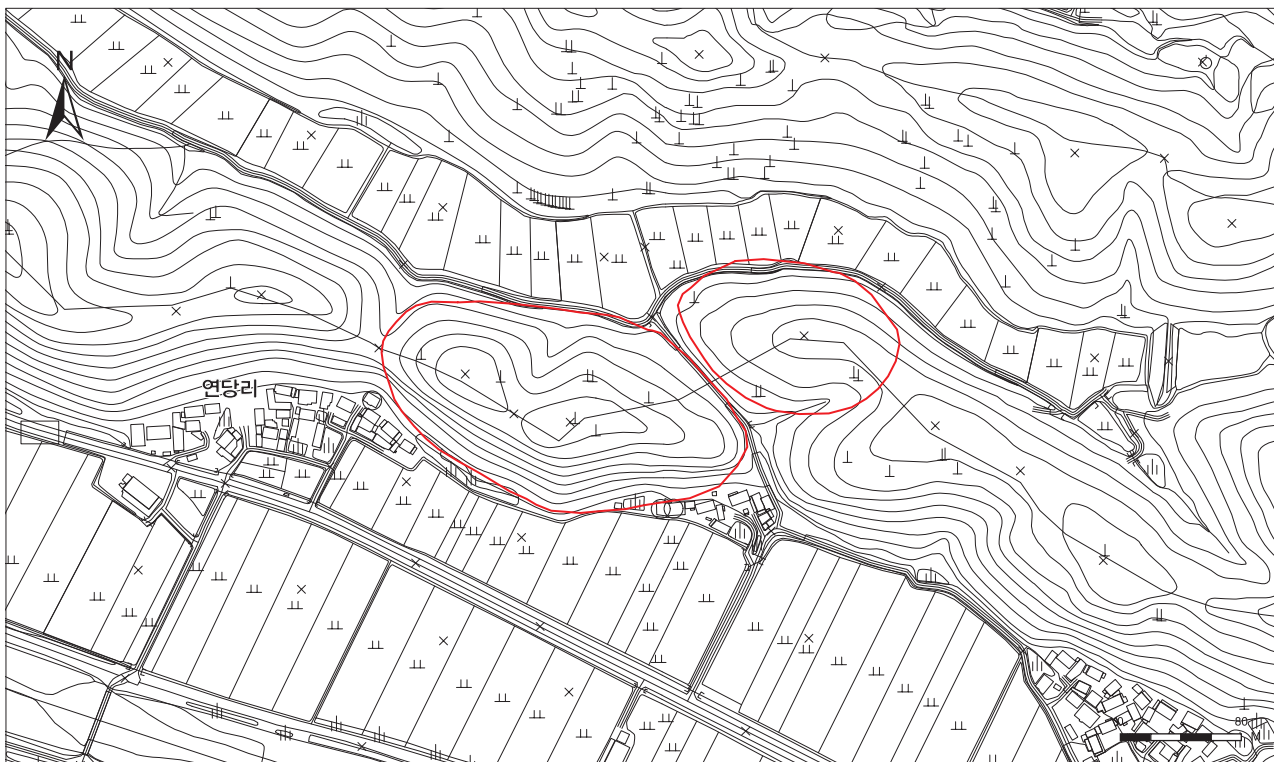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19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대학교박물관 /
1991.12.~1992.1.

주요 유구 / 유물
횡혈식석실분, 수혈식
석곽묘 / 장경호,
발형기대

고분군은 고성군 영오면의 북동단에 있는 선유산에서 남서쪽으로 분기된 지맥 중 개천면 소재지 부근에서 서쪽으로 뻗은 해발 100m 정도의 능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남강 지류인 영천강 상류의 소규모 곡저평야를 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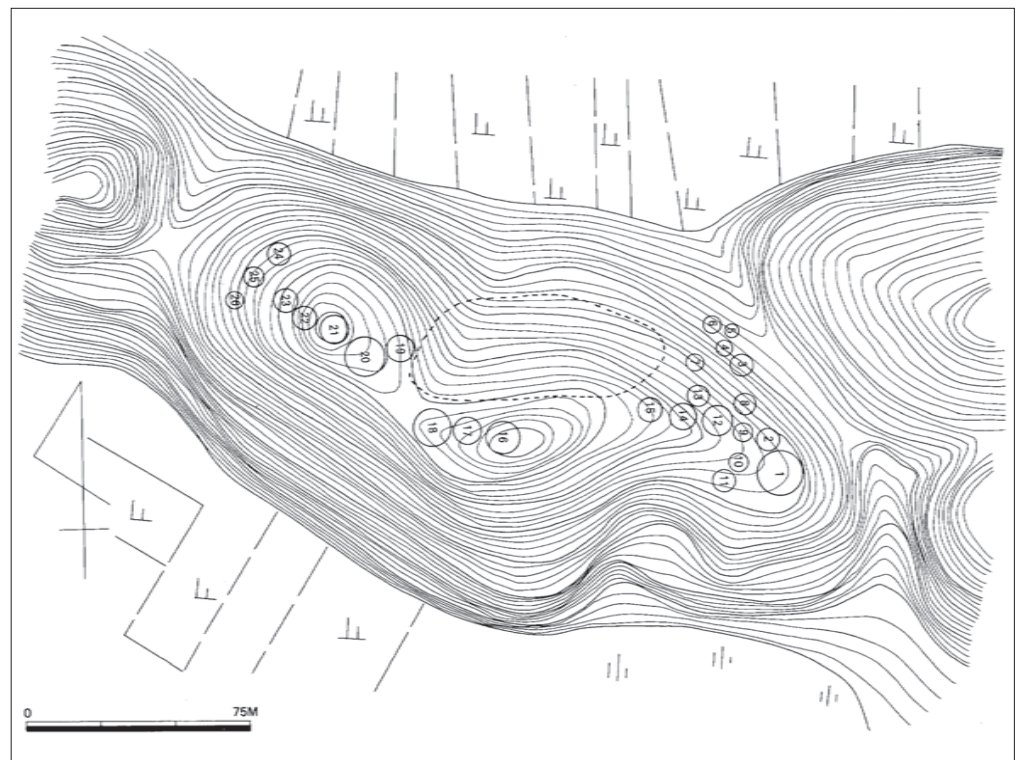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봉분은 24기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능선의 정상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능선 사면 일대에 소형 석곽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조사는 고분군 내에서 14호, 18호, 20호, 23호 등 4개의 봉토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18호와 20호에서는 2개의 매장주체부가 배치되어 있었다.

발굴조사된 고분은 모두 능선 정상부를 따라 배치된 봉토분이다. 봉분의 규모는 14호분과 23호분이 지름 11m, 높이 2~2.8m이고, 18호분과 20호분이 지름 12~12.8m, 높이 1.7m 내외이다. 봉토의 성토를 위해서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혈 15개가 18호분에서 확인된 바 있다. 14호분을 제외한 나머지 3기의 봉토 가장자리에는 너비

유적 위치도

1m 내외의 주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는 고배, 파수부배, 개, 옹, 장경호, 단경호, 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 대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를 파쇄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석곽을 매장시설로 한 고분은 14호분과 23호분이다. 두 고분은 유사한 방식으로 축조하였는데, 기반층을 굴착하여 판상의 깬 돌을 이용하여 평면 세장방형의 석곽을 조성하였다. 석곽의 크기는 14호가 길이 2.95m, 너비 0.94m, 23호가 길이 5m, 너비 0.82m이다.

횡혈식석실을 주 매장시설로 하고 석곽이 추가로 배치된 고분은 18호분과 20호분이다. 18호분은 봉분 중앙에 횡혈식석실을 배치하고 동쪽으로 치우쳐 수혈식석곽을 나중에 설치한 데 반해, 20호분은 석실과 동시에 석곽형의 부장곽을 설치하였다. 횡혈식석실은 능선의 정상부에 정지작업을 하여 묘역을 평탄화한 후 중앙에 반지하식으로 석실을 축조하였다. 석실은 모두 장방형이고, 한쪽 단벽 중앙에 연도와 묘도를 낸 구조이다. 천장은 남아 있지 않지만, 18호분 석실 내에서 개석으로 추정되는 판석 1매가 확인되었고, 석실 상부가 점차 좁아지고 있어 석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석실 내에는 대체로 목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1회 이상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내부가 심하게 교란되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

18호분은 석실 길이 3.9m, 너비 2m, 연도 길이 1.3m, 너비 0.8m 정도이고, 20호분은 석실 길이 4.2m, 너비 2.1m, 연도 길이 1.2m, 너비 0.75m로 대체로 연도가 짧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은 평면 장방형의 짧은 중앙 연도를 갖춘 횡혈식석실분은 백제와 관

유구 배치도

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예가 인접한 진주 수정봉, 함안 도항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유물은 4기의 고분이 모두 일제 강점기 이후 심하게 도굴되고 파괴가 극심하여 많지 않았지만, 매장주체부 내에 남은 유물과 주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대략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토기 양식상 주류는 재지계인 소가야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수평구연장경호와 그와 동반되는 발형기대, 일단장방형투창고배와 개가 있고, 고령계 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18호분 횡혈식석실에서는 신라지역에서 퍼진 단각고배와 대부장경호 등 외래계 토기만 확인되었다. 철기류는 낫, 도끼, 살포, 방울, 철모, 철촉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23호분에 부장된 환두대도는 고리부가 상원하방형에 가깝고 그 안에 이엽장식을 가미한 특이한 형태이다. 연당리고분군의 축조 시기는 묘제의 특징과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대체로 5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경남대학교박물관, 1994, 『고성 연당리 고분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18호 석실

출토유물

08

고성 신용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4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7.~2007.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호,
발형기대

조사지역은 Ⅰ·Ⅱ·Ⅲ 3개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거류면의 중앙에 위치한 문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완만한 구릉 사면부에 Ⅰ구역, 벽방산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사면과 정상부에 Ⅱ·Ⅲ구역이 인접해 있다. 조사지역 북동쪽에는 당동만이 위치한다. 삼국시대 유구는 Ⅰ·Ⅱ구역에서만 확인되었으며, Ⅰ구역에서는 석곽묘 14기·횡혈식석실묘 4기, Ⅱ구역에서 석곽묘 13기가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매장 유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분묘 등 여러 시대에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석곽묘는 대게 1기의 석곽이 단독으로 조영되는 예가 많지만, 단일 주구 내에 2~5기의 석곽이 병렬로 배치된 다곽식석곽묘도 총 8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산청, 의령, 합천, 진주, 하동 등지에서 많이 보여 주목된다.

석곽을 축조하는 방식을 보면, 석곽의 네 벽석을 모두 세워쌓기 후 2단 이상은 눕혀쌓기하여 축조하거나, 석곽의 양 장벽을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혼용하고 양 단벽 최하단

유적 위치도

석을 모두 세워쌓기한 형태가 높은 비율로 확인된다. 특히 전자의 경우 묘광 가장자리에 홈을 파서 최하단석의 기부가 바닥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수 기의 석곽에서 관찰된다.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삼각형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이단교호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광구호, 발형기대 등 소위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횡혈식석실묘에서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단각고배, 부가구연장경호, 대부완 등 신라후기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신용리유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중소형고분에서 다곽식석곽묘와 소가야양식 토기가 확인되는 점은 당동만 일대에도 6세기 전반 이후까지 소가야 집단의 활동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대가야양식 토기·신라양식 토기·스에키계 토기 등의 외래계 유물도 같이 출토되고 있어 신용리고분 조영 집단의 활발한 대외관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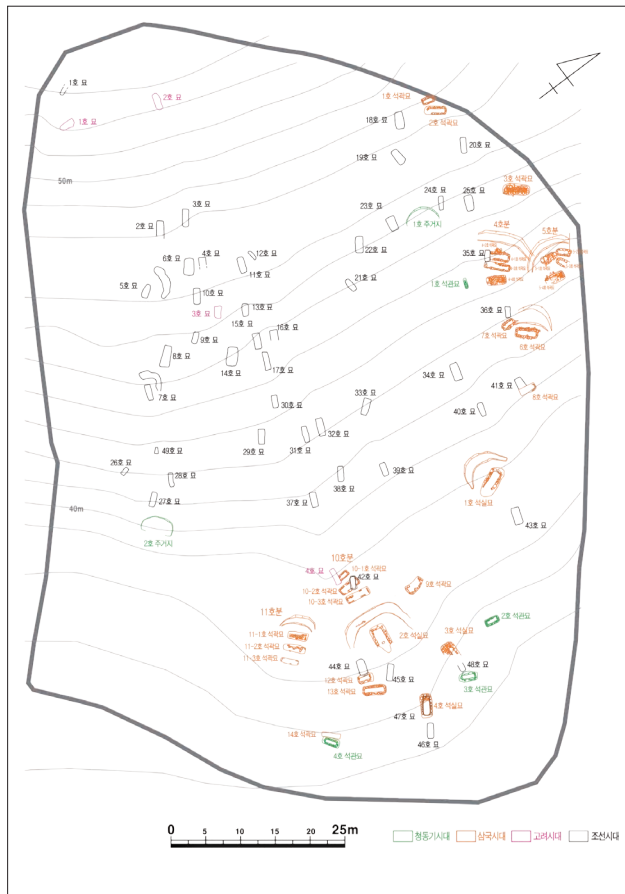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9, 『고성 신용리유적-고성 마동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I 지구 유구 배치도

5호분

8호분

09

고성 동외동유적
固城 東外洞遺蹟

| 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

동외동유적은 고성읍 중심지에서 남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해발 32.5m의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데, 구릉 전체가 동외동유적이다. 발굴조사는 평면 원형의 대지상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구릉 정상부를 포함하여 사면 일대에서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1969년과 1970년 2차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릉의 남서 사면 일부를 탐색조사하여 유적의 층위 파악과 유물을 수습하였다. 이후 1974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패총을 비롯하여 옹관묘·석관묘·토광묘 등 분묘와 야철지가 조사되었으며, 패총에서 광봉동모·한경 편, 한국식동검착장구 등의 금속유물과 인문도기·야요이계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1995년도에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구릉 정상부와 주변 사면 일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3~4세기의 주거지 17기와 의례수혈 4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의례수혈 내에서는 조문청동기가 출토된 바 있다. 2005년에는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구릉의 북쪽 능선 끝자락을 조사하여 6세기에 해당하는 의례유구로 추정되는 수혈과 고상건물지 등 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고성 동외동유적은 주로 원삼국시대에서 4세기까지 주거지, 패총, 의례유구, 분묘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구릉 북단에서 6세기까지 의례가 행해졌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구릉 정상부를 공지로 비워두고 그 주변에 주거지와 의례수혈이 각각 무리를 지어 있고, 남서 사면에서 분묘와 패총이 확인되는 등 유구 성격별로 공간을 구분하여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물은 토기를 비롯하여 금속유물, 골각기, 동·식물 유체 등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특히 광봉동모와 야요이계 토기 등은 원삼국시대 동외동 유적에서 이루어졌던 대외교류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성 동외동 유적은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생활유적의 하나로 고고학적 조사 예가 많지 않은 고성지역의 원삼국·삼국시대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고성패총	국립중앙박물관	1차 1969.12. 2차 1970.12.	고성패총 발굴조사 보고서(1992)
2	고성 동외동패총	동아대학교박물관	1974.6.	상노대도 附:동래복천동고분·고성동외동패총(1984)
3	고성 동외동유적	국립진주박물관	1995.9.~1995.11.	고성 동외동 유적(2003)
4	고성 동외리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3.~2005.4.	고성지역 조사, 고성 동외리 유적-고성 종합복지관 신축 부지 내 시·발굴조사 보고서(2007)

09-1

고성패총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4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중앙박물관 /
1차 1969.12.
2차 1970.12.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 호, 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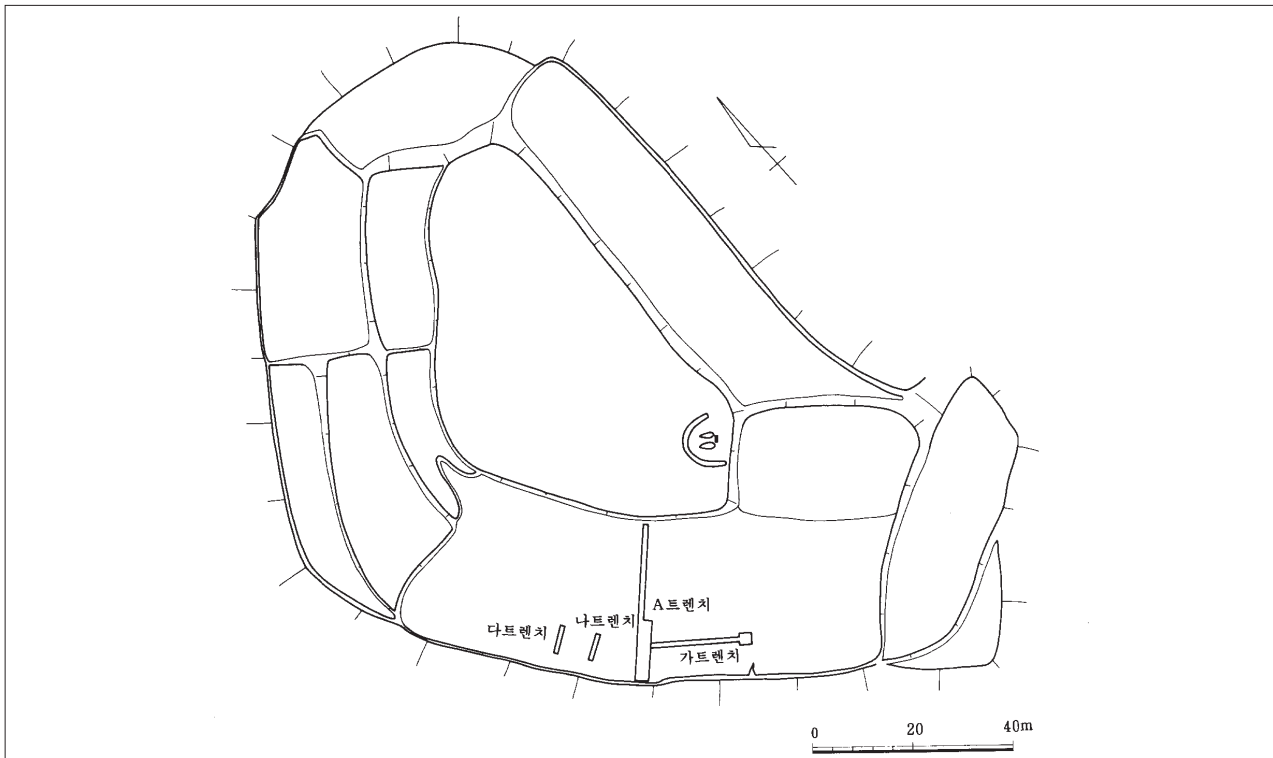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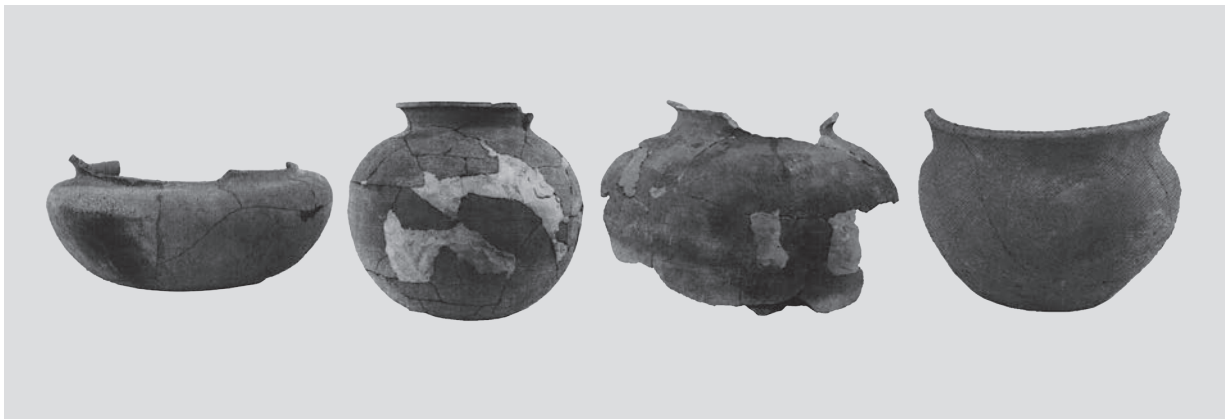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동외동유적이 위치한 해발 32.5m의 얕은 구릉의 남서 사면에 해당한다. 조사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층위를 파악하고 유물을 수습하였으며,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층위는 퇴적층이 가장 두꺼운 구릉 아래쪽에 설치된 트렌치를 참고할 때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표토층과 기반층을 제외하면 실제 4개 층이다. 유적 남단의 토층에 의하면, 지표 아래 약 0.8m 깊이에서 좁은 범위에 얇은 두께의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옥, 석제품, 골각기 등도 있으나 대부분 토기이다. 토기는 경질무문토기, 적갈색 연질토기, 와질토기, 도질토기 등이며, 이 중 표면이 목리조정된 적갈색연질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층위를 통해 나타난 적갈색연질토기와 도질토기의 출토 빈도를 보면, 상층부에서는 도질토기의 수량이 많았으나, 하층으로 갈수록 적갈색연질토기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여 맨 아래층에 이르러 도질토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 토기 간의 선후 관계에 있어 적갈색연질토기가 선행하며, 어느 정도 공존 기간을 거친 후 도질토기 단계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1992, 『고성패총 발굴조사 보고서』.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09-2

고성 동외동패총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404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74.6.

주요 유구 / 유물
석관묘, 야철지 / 광봉
동모

유적은 고성평야에 솟아 있는 해발 32.5m의 작은 구릉에 위치하는데, 구릉 전체가 고성 동외동유적이다. 발굴조사는 구릉의 남서사면 말단 일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는 지형에 따라 3개의 트렌치를 굴착하고, 1·2호 트렌치 일부에 각각 피트를 설치하였다.

패총은 1.5~2m 정도 두께의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상층 퇴적층은 제1문화층으로 삼한시대, 지반에 얇게 깔린 하층 퇴적층은 제2문화층으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패총에서는 토기류를 비롯하여 각종 금속유물, 동·식물 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소성 방법에 따라 노천에서 소성된 적색무문토기와 유사 야요이식 토기, 등요에서 소성된 인문도기, 회청색경질토기, 적색연질토기 등으로 구분된다. 청동유물은 광봉동모, 한경 편, 한국식동검의 착장구인 검파·검파두식·초금구 편 등이 출토되었다. 그 중 광봉동모는 반으로 절단된 상태였으며, 원형을 복원하면 길이 30㎝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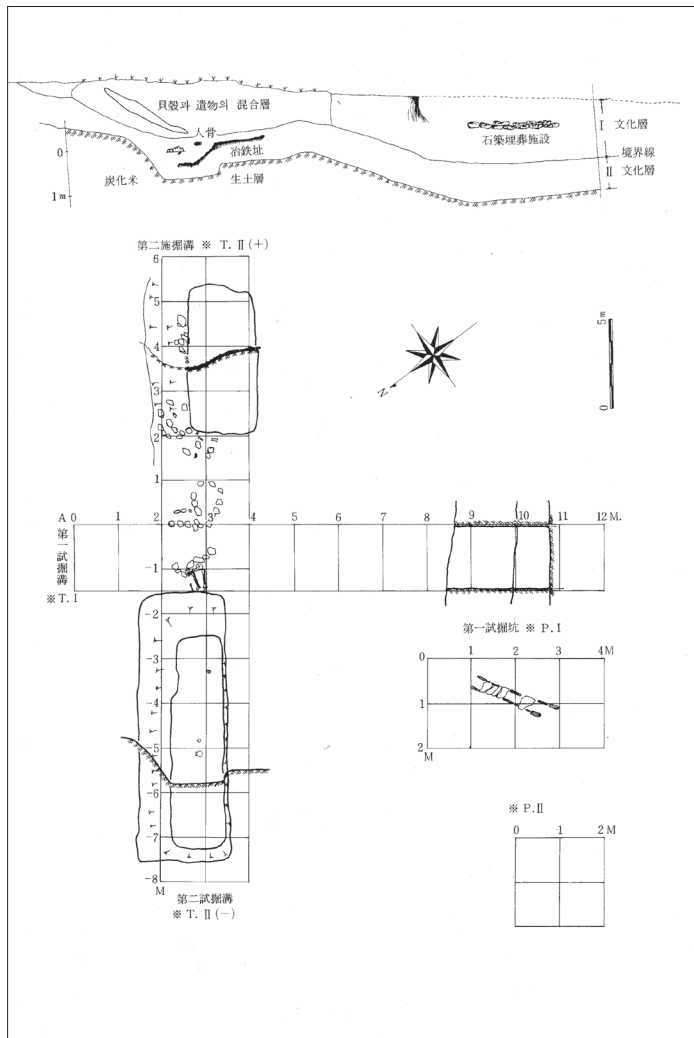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남부 지방에 출토 예가 있으나 그리 흔한 것이 아니며, 주로 일본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많이 보이는 유물이다. 이외에도 철기류, 각종 동물 뼈로 만든 화살촉, 탄화미炭化米, 인골 등이 수습되었다.

유구는 제1문화층에서 옹관묘 2기·석관묘 1기·야철지와 제2문화층에서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모두 깨어진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석관묘는 장축이 북동-남서향으로, 바닥 시설은 없고 개석이 5개 정도 놓여 있었다. 석관묘의 규모는 길이 2m, 너비 0.2m, 깊이 0.16m이다. 야철지는 유적의 한 모서리에 철재가 덮여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토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철재의 범위는 길이 3m, 너비 1.5m, 두께 2~5㎜ 정도이다.

동외동패총은 고성만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여러 패총 중 하나로서, 당시의 생활양태와 중국·일본과의 교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아대학교가 발굴조사 부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상노대도-附:동래복천동고분·고성동외동패총』.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출토유물

09-3

고성 동외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외리 25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진주박물관 /
1995.9.~1995.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의례수혈
/ 조문청동기

유적은 고성읍의 남동쪽에 있는 당산이라 불리는 해발 약 32.5m의 구릉에 위치하며, 발굴조사 지역은 가·나·다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가지구는 구릉 정상부의 평탄지이고, 나지구는 가지구의 동쪽 사면부, 다지구는 구릉의 남쪽 사면에 해당한다.

가지구에서는 구릉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부정형 수혈로 구성된 의례수혈 4기가 확인되었다. 의례수혈은 대·소 수혈이 군을 이루기도 하고, 3호와 같이 하나의 수혈로 이루진 경우도 있다. 이들 수혈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굴착하였고, 내부에 목탄이나 불탄 흔적과 함께 유물을 인위적으로 파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특히 1호 수혈은 26기 이상의 동일 성격의 크고 작은 수혈이 중복·연접해 있는데, 규모가 남북 13m, 동서 10m이다. 여기에서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었다.

나지구에서는 수혈주거지 17기만 중첩 조영되어 있었다. 수혈주거지는 경사 아래쪽이 삭평된 것이 많고, 깊이도 얕은 편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을 띠며,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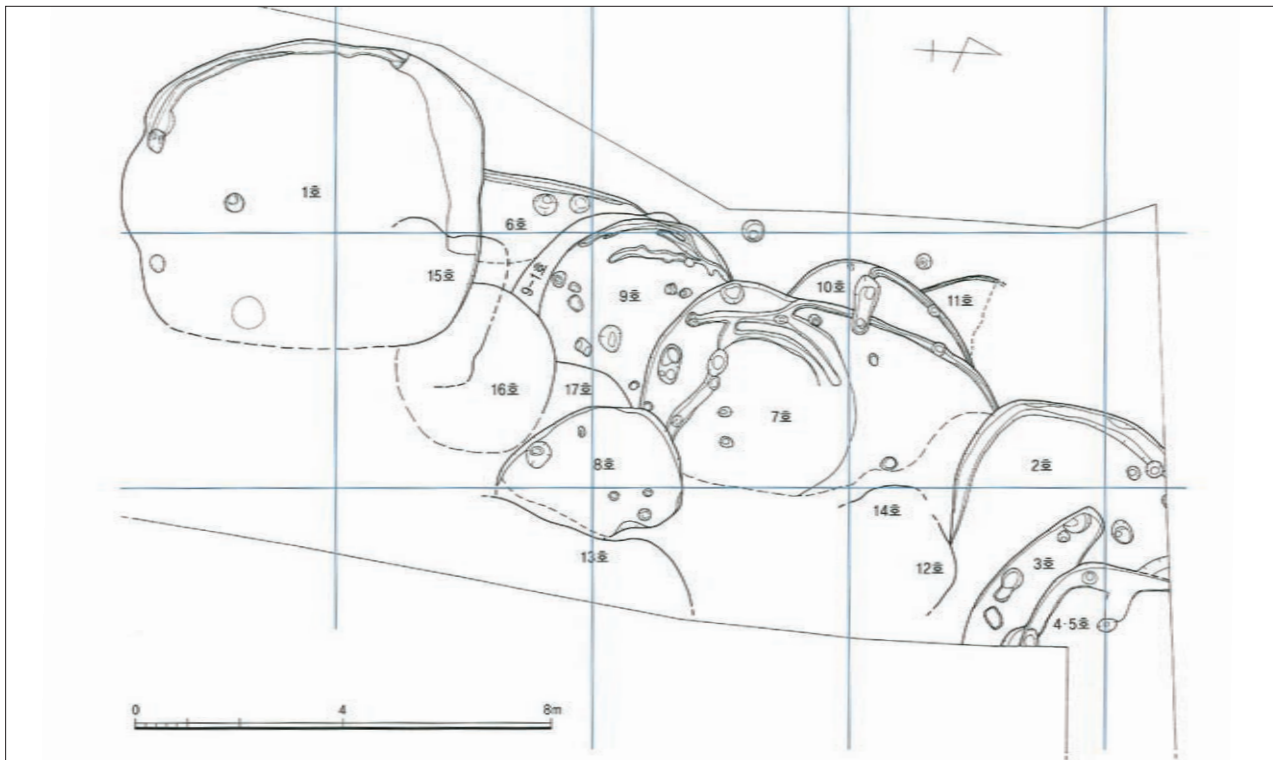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을 따라 도랑을 팠다. 주혈은 배치상의 규칙성을 찾기 어려우나 대체로 벽 주위에서 설치된 예가 많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노 시설, 출입구 시설, 선반으로 추정되는 시설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한편 다지구에서는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동외동유적 출토 유물은 토기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토기는 단경호, 장동옹, 옹, 시루, 고배 등 생활 용기가 많으며, 연질토기의 비율이 높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시기는 3~4세기대로 추정된다. 한편 가지구 1호 수혈에서 출토된 조문청동기를 살펴보면, 평면형태는 인부가 넓은 철부와 유사하며, 한쪽 면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청동기는 위쪽 양 끝에 구멍 2개가 있고, 그 사이 가장자리를 따라 5개의 구멍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맨 아래쪽 좌우에도 2개의 구멍이 있다. 그리고 좌우 양쪽에 6개씩의 고사리 모양 돌기 장식을 붙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한 곳에만 흔적이 남아 있다. 내부에는 선과 점열문으로 상하 2단으로 주 문양대를 구분하고 주 문양대와 주변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점문, 선문, 거치문, 고사리문, 조문 등을 장식하였다. 크기는 잔존 길이 8.92㎝, 최대 잔존 너비 6.5㎝, 두께 0.17~0.27㎝이다.

동외동유적은 구릉 중앙부를 비워두고 그 주변에 기 조사된 패총과 더불어 주거지, 의례유구 등 성격별로 유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적 차원에서 철저한 공간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국립진주박물관, 2003, 『고성 동외동 유적』.

나지구 유구 배치도

가-1호 수혈

나-7호 주거지

토기류

조문청동기

09-4 고성 동외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5.3.~2005.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발, 단경호

유적은 고성읍 중심지에서 남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해발 32.5m의 야산에서 이어지는 북쪽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기존에 발굴 조사되었던 고성 동외동 제 유적의 북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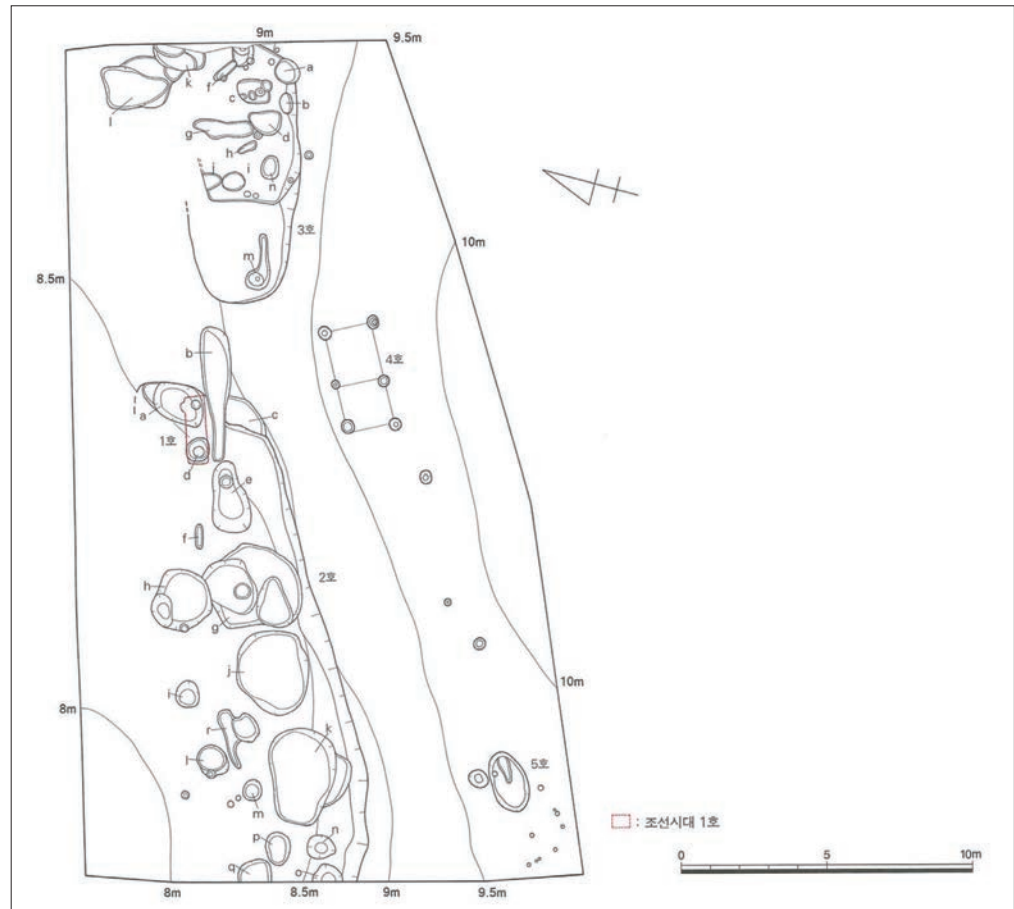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수혈 3기·고상건물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1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2기는 큰 수혈 내 특별한 규칙성이 없이 작은 수혈이 다수 조성된 부정형 수혈이다. 부정형 수혈의 조성은 외곽의 큰 수혈을 자연 사면을 따라 'ㄴ'자 상으로 0.4~0.8m 깊이로 파서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만든 뒤 내부에 작은 수혈을 설치하였는데, 사면 아래쪽의 북벽은 유실되었다. 큰 수혈의 잔존 규모는 2호가 길이 19.5m, 너비 5m이고, 3호가 9.1m, 6.6m이다. 큰 수혈 내부에는 작은 수혈 18개(2호), 14개(3호)가 각각 확인된다. 작은 수혈은 평면형태와 규모가 다양하고, 내부토에 목탄이 혼입되거나 불에 의해 다져진 흔적 등이 확인된다. 내부에서 유물은 개, 배, 발, 단경호를 비롯한 토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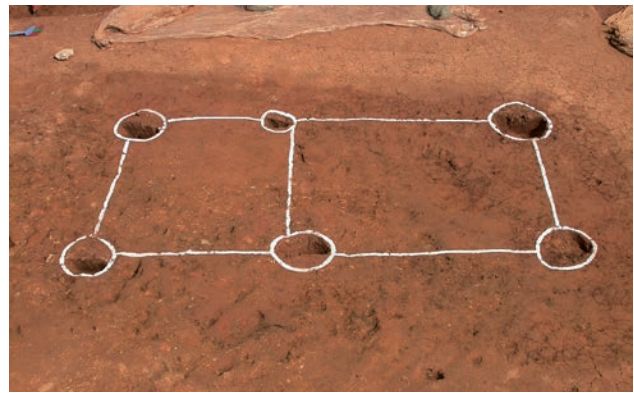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연부, 대각 편, 파수 등이 모두 조각으로 출토되었다. 이상 부정형 수혈군은 일반적인 생활유구와 차이를 보이는데, 1995년 진주박물관에서 조사한 동외동유적에서 의례용 수혈과 유사한 성격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평면 장방형으로, 주축방향은 동-서향이고, 정면 2칸, 측면 1칸이다. 규모는 길이 4m, 너비 210m이다.

유적의 연대는 수혈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대략 6세기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고성 동외리 유적 -고성 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내 시·발굴조사 보고서-』, 『고성지역조사』.

유구 배치도

2호 수혈

4호 고상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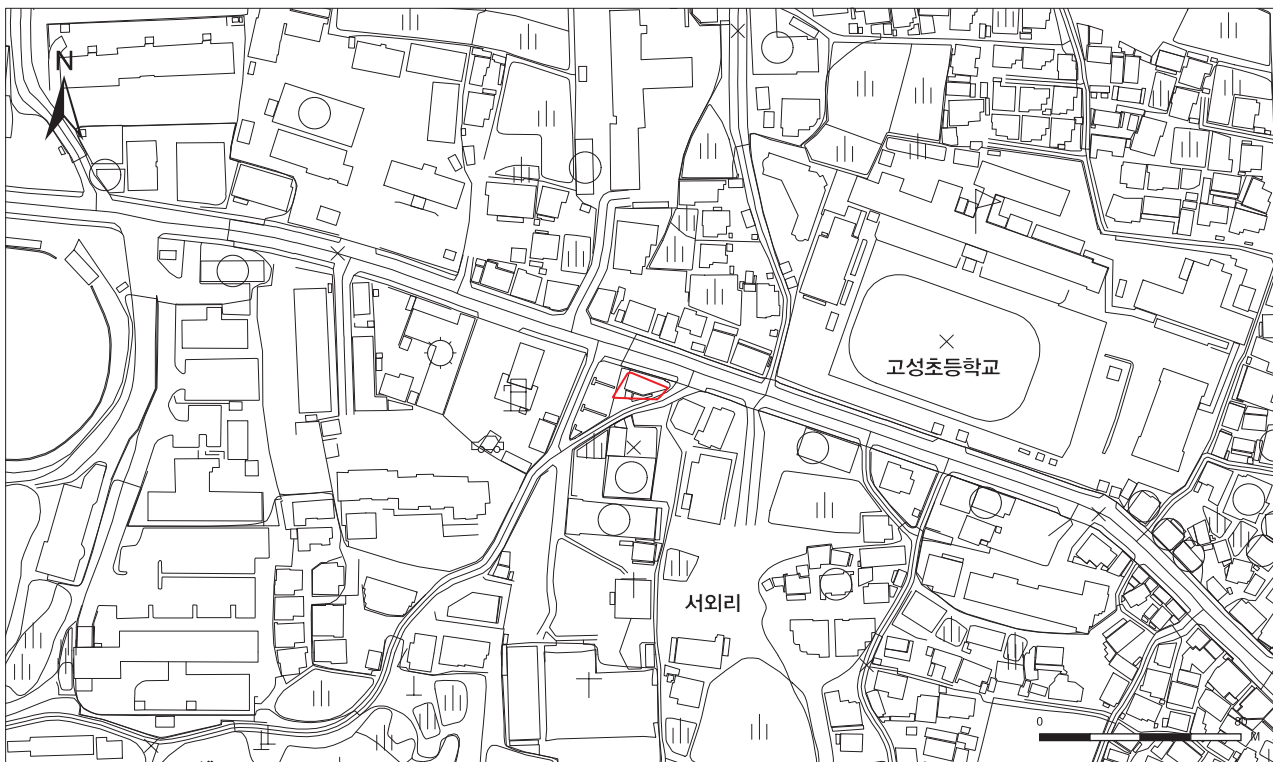
10 고성 서외리 158-10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58-10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0.3.~ 2010.4.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지 / 고배,
파배, 단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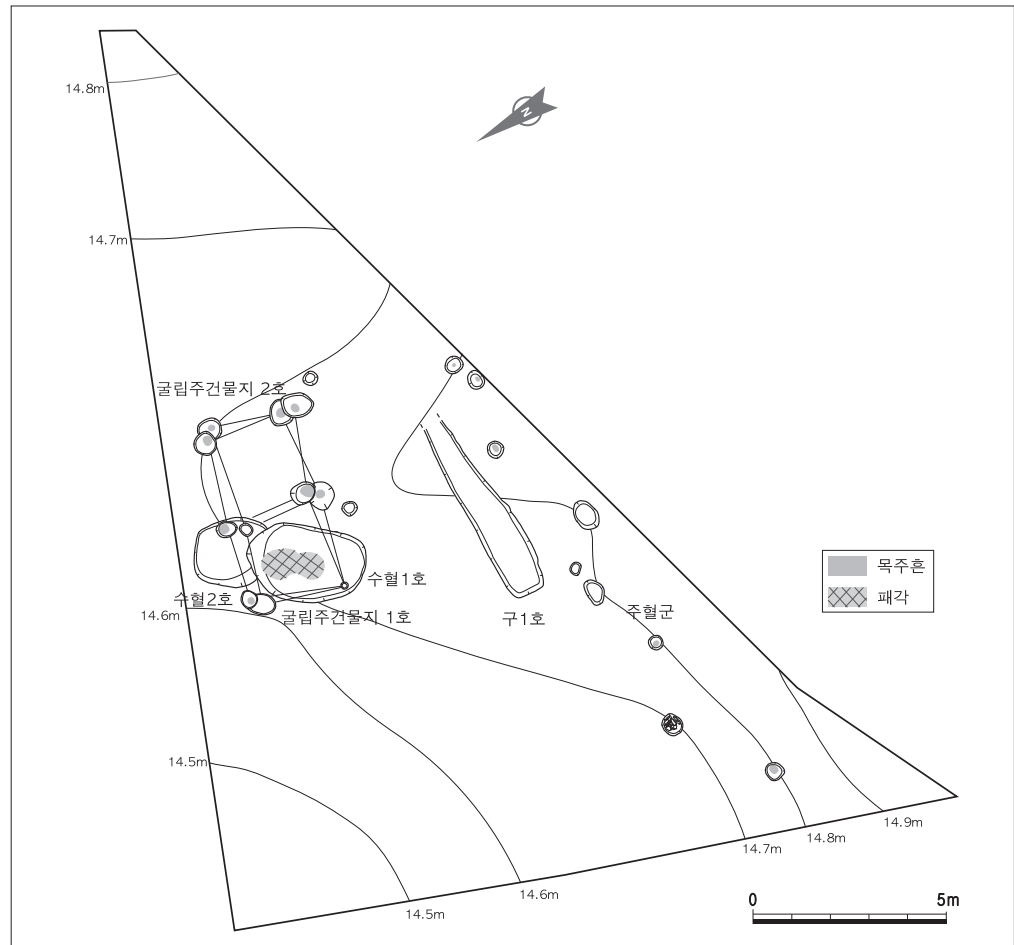
유적은 해발 고도 14m 정도의 완만한 구릉 사면에 위치하며, 조사 전 콘크리트 단층 건물이 조성되어 있던 곳이다.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고상건물지 2기·수혈 2기와 통일신라시대 구 1기·주혈군 1개소가 확인되었다.

고상건물지 2기는 서로 중복된 상태로 조성되어 있었다. 2호 고상건물을 먼저 축조하고 약간 축을 틀어서 1호를 조성하였는데, 1호는 2호의 주혈 일부를 다시 굴착하여 조성한 관계로 양 건물지의 규모와 장축이 거의 같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동-서향이다. 구조는 정면 2칸·측면 1칸이고, 주심 간격은 2.4m이다. 전체 규모는 1·2호가 각각 동-서 약 4.8m·5.3m, 남-북 3.3m·2.5m이다. 주혈은 지름 0.4m~0.7m이고, 내부에서 대부분 지름 0.2m 내외의 기둥 흔적이 관찰된다. 수혈은 2호를 파괴하고 1호가 조성되었다. 1호 수혈 내부에는 패각과 고배·단경호·기대 등의 토기편이 출토되어 폐기장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시기는 고배와 기대 편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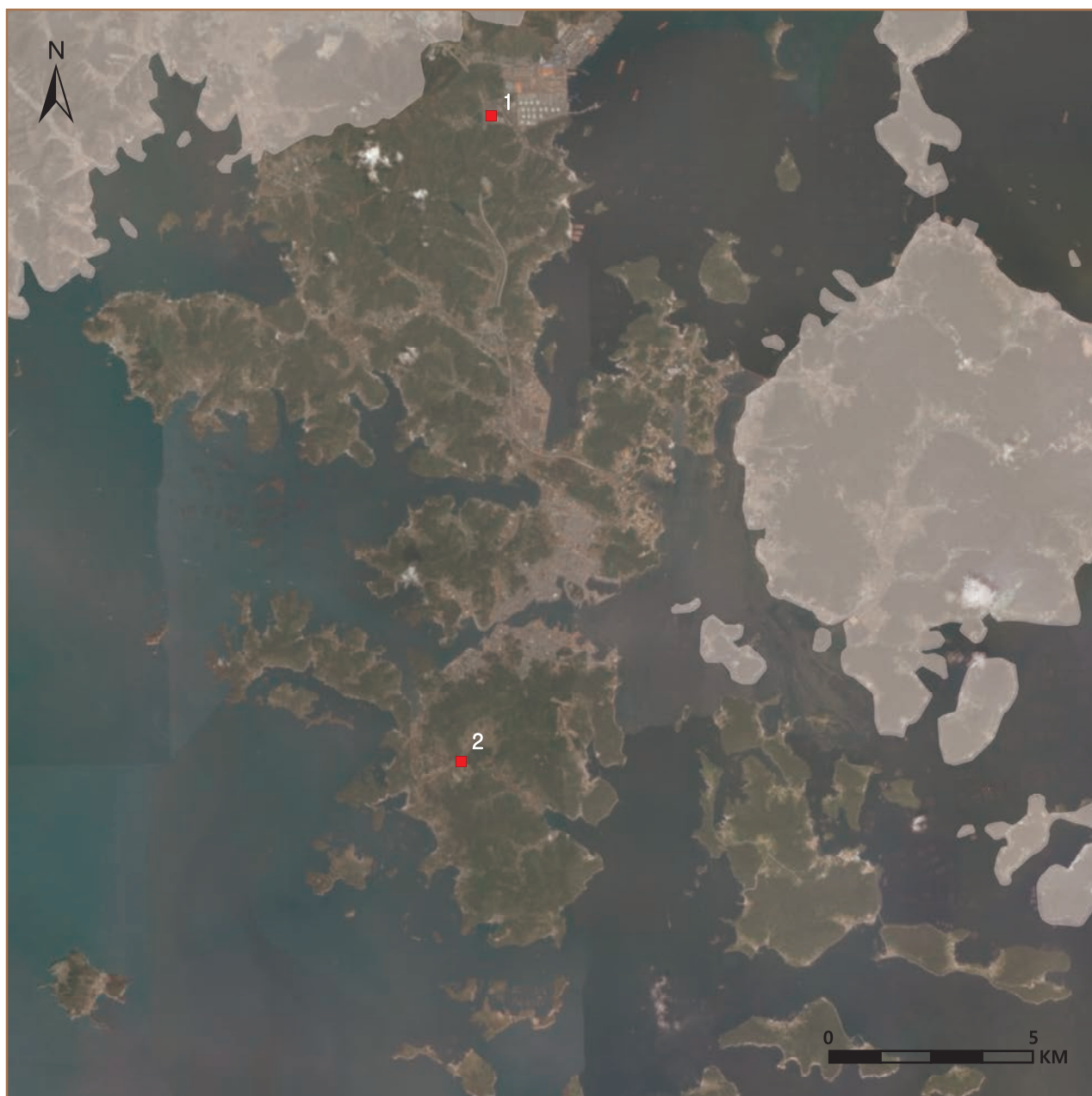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고성 서외리 158-10번지 유적』.

등의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로 판단된다.

비록 유적의 규모가 작고, 확인된 유구도 적지만 소가야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이어지는 고성지역의 역사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유적으로 기대된다.

유구 배치도

1·2호 수혈

1·2호 굴립주건물지

Ⅱ. 통영

01 통영 안정리고분군 _ 통영 안정리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074-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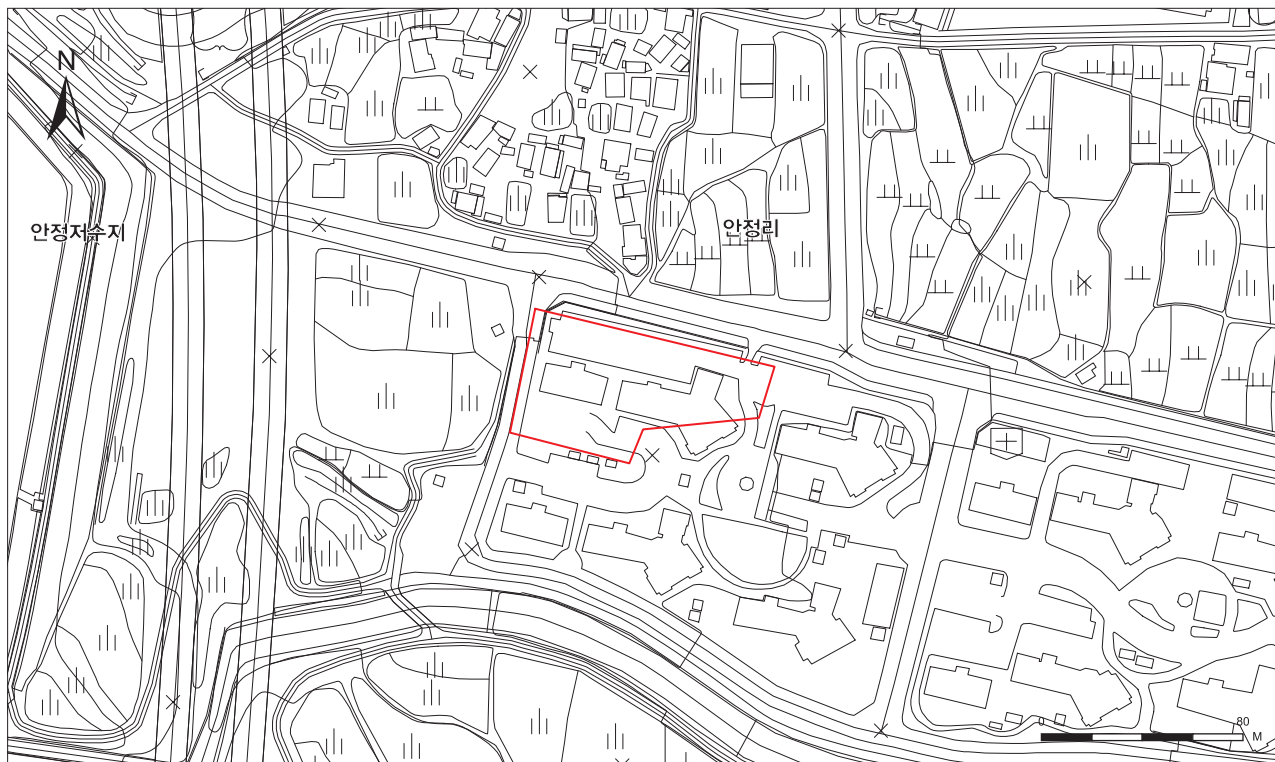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9.~2007.11.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옹, 대부완, 대도, 철겸

조사지역은 지형적으로 벽방산(해발 650m)과 천개산(해발 517m) 능선이 동쪽 해안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곡간부 선상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남쪽으로는 배후산지에서 발원한 안정천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의 북서쪽 경계지점에서 삼국시대 석실묘 6기와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고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옹, 대부완, 대도, 철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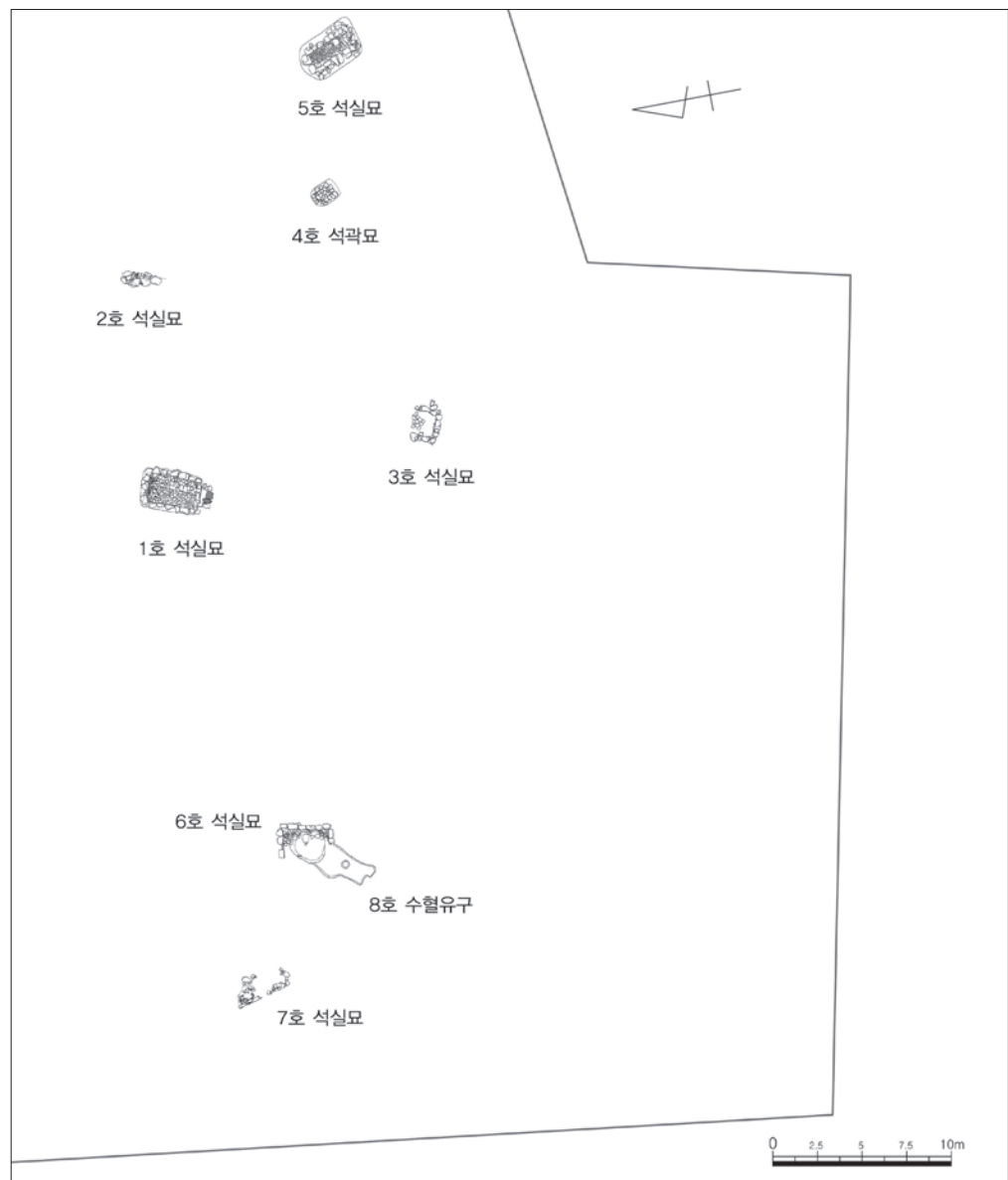
유구의 잔존상태는 후대 경작을 위한 경지정리와 경작 등으로 유구의 대부분이 유실 또는 파괴되었고 석실묘와 석곽묘는 시상석과 벽석의 하단 일부만 잔존하며,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는 유구도 3~4단 정도의 벽석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고자는 4호 석곽묘를 제외한 나머지 6기의 분묘를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의 석실묘로 추정하였다. 특히 1·5호 석실은 횡구부로 추정되는 시설과 폐쇄석의 흔적이 확인되고, 2~3차의 시상석이 확인되어 추가장을 상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횡구식석실묘로

유적 위치도

판단하였다. 그 외 나머지 4기도 1·5호 석실묘와 비교해 벽석 축조방법이나 시상의 축조방법 등이 유사해 횡구식석실묘로 추정하였다.

보고자는 안정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유구의 규모, 축조방법, 시상석의 설치, 두침석의 존재 등의 제 요소와 인화문토기·부가구연장경호·단각고배와 같은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신라의 묘제와 매장개념이 도입되어 정착하기 시작한 단계에 속한다고 추정하였다. 유구의 조성 시기는 소가야지역 석실묘의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변하고 시상석의 설치가 주축과 직교되게 설치되는 7세기 중반대 보다는 다소 이른 단계로 보고 있다. 더불어 출토된 유물을 통해 1단계(1·2·4·6호 석실묘, 7세기 전반대), 2단계(5·7호 석실묘, 7세기 중반대)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9, 『통영 안정리고분군–통영 안정리 공동주택사업부지내 유적–』.

유구 배치도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출토유물

6호 석실묘

6호 석실묘 유물 출토모습

02

통영 남평리유적 _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조성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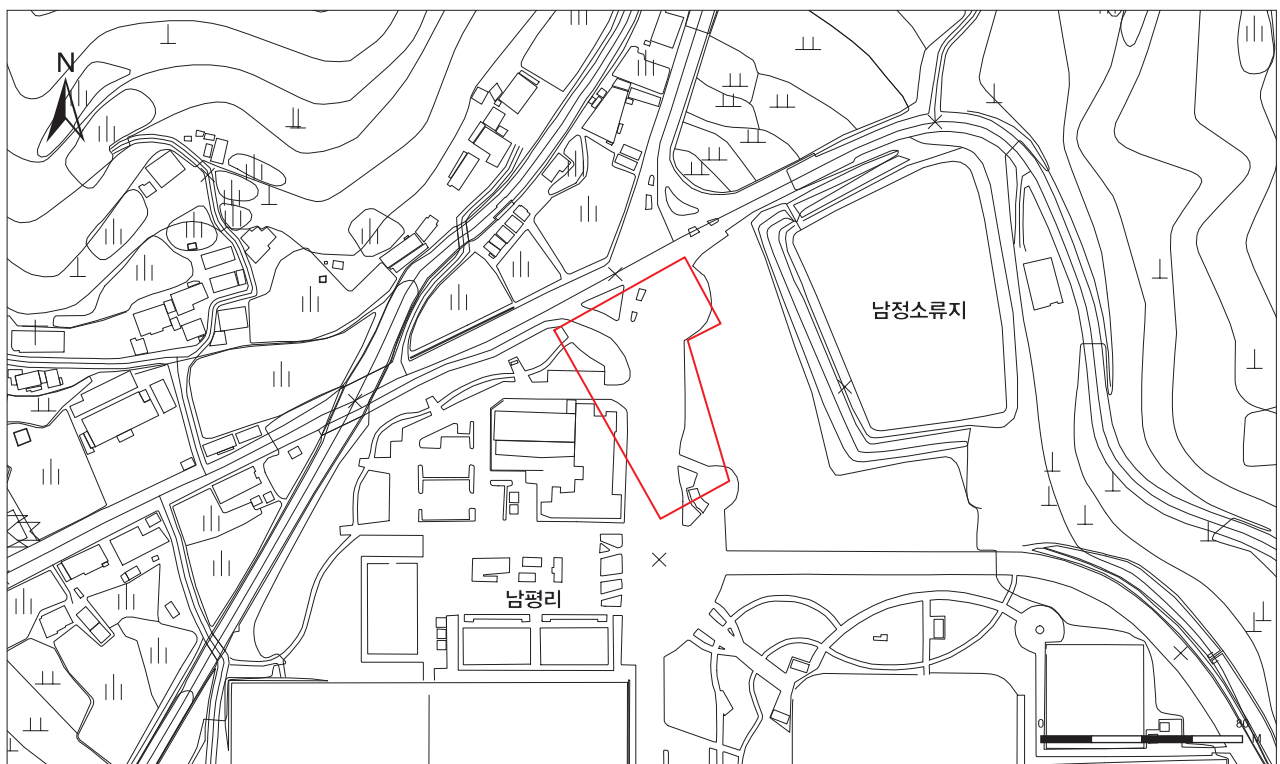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74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6~2007.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집석유구 / 고배, 파배,
장경호, 철검, 철정,
금동이식

유적은 통영시의 남쪽 해협에 통영대교로 연육되어 있는 미륵도의 서편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남평리는 미륵산(일명 용화산, 해발 461m)-미륵봉(해발 335m)-현금산(해발 341m)-구망산(해발 303m)-장군봉(해발 172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에워싸고 있으며, 미륵산에서 발원한 산양천이 곡저부에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은 산양천 동편의 남전소류지 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산양천의 퇴적활동으로 형성된 선상지 및 곡저평야에 해당한다. 현재는 지형을 따라 계단식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유구는 매장유구 15기, 고상건물지 1기, 수혈유구 2기,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삼국시대 유구는 목곽묘 11기, 석곽묘 1기, 집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청동기시대 매장유구가 위치한 곳에서 북편과 남편에 각각 분포하며 청동기시대 묘역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적 위치도

목곽묘는 대부분 잔존 깊이 10㎝ 이내로 유구 확인시 유물이 노출되며, 청동기시대 매장유구의 북서편과 남편에 각각 분포하고 석곽묘는 1기(1호 석곽묘)가 청동기시대 매장유구의 북서편에 분포하고 있다. 목곽묘는 목곽과 묘광 사이에 할석을 채워 보강한 것이 확인되며 대부분 거의 바닥만 잔존하기 때문에 목곽묘 축조양상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할석이 되채워진 목곽보강토의 양상은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이행되는 묘제의 전환과정으로 이해된다.

석곽묘는 1기만 확인되었는데, 석곽의 벽석 축조양상과 내부규모는 석곽 내에 설치된 목곽의 설치와 관련하여 경남 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최하단석을 수적한 석곽묘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며 석곽내부의 너비도 넓다.

집석유구도 1기가 확인되었는데, 10호분의 주구가 단절된 입구부에 위치하며 할석들 사이에서 토기 편이 산재되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10호분과 관련된 의례유구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주구가 설치된 10호분은 목곽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는 봉토 내에 4기의 목곽묘가 조성된 다곽식분구묘로 파악되며 소가야 중심지로 추정되는 고성지역 분구묘의 축조양상과 상통하는데 소가야 묘제 연구 및 정치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유물은 토기류의 경우 장경호, 삼각투창무개식고배, 삼각투창유개식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파배, 광구소호 등 소가야식 토기와 함께 이단교호장방형투창고배, 파

유적 전경

수부고배, 유충문이 시문된 개 등의 외래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출토유물을 통해 남평리유적의 연대를 기존의 형식분류 결과에 의해 5세기 중엽 전후로 설정하였다. 한편, 목곽묘에서 출토된 무개식삼각투창고배, 장경호는 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개식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장경호 보다는 1/4분기 정도 이른 것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철기류는 철정, 철검, 철촉, 철도자, 단조철부, 철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철정은 남평리유적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5세기 중후엽경 해안에 연한 고분군 유적에서만 출토되는데, 이러한 통영 남평리유적의 유물 부장양상을 통해 소가야 정치체의 해상을 통한 교역 및 실체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7, 『통영 남평리유적 – 통영 산양 스포츠조성 부지 내 유적』.

2호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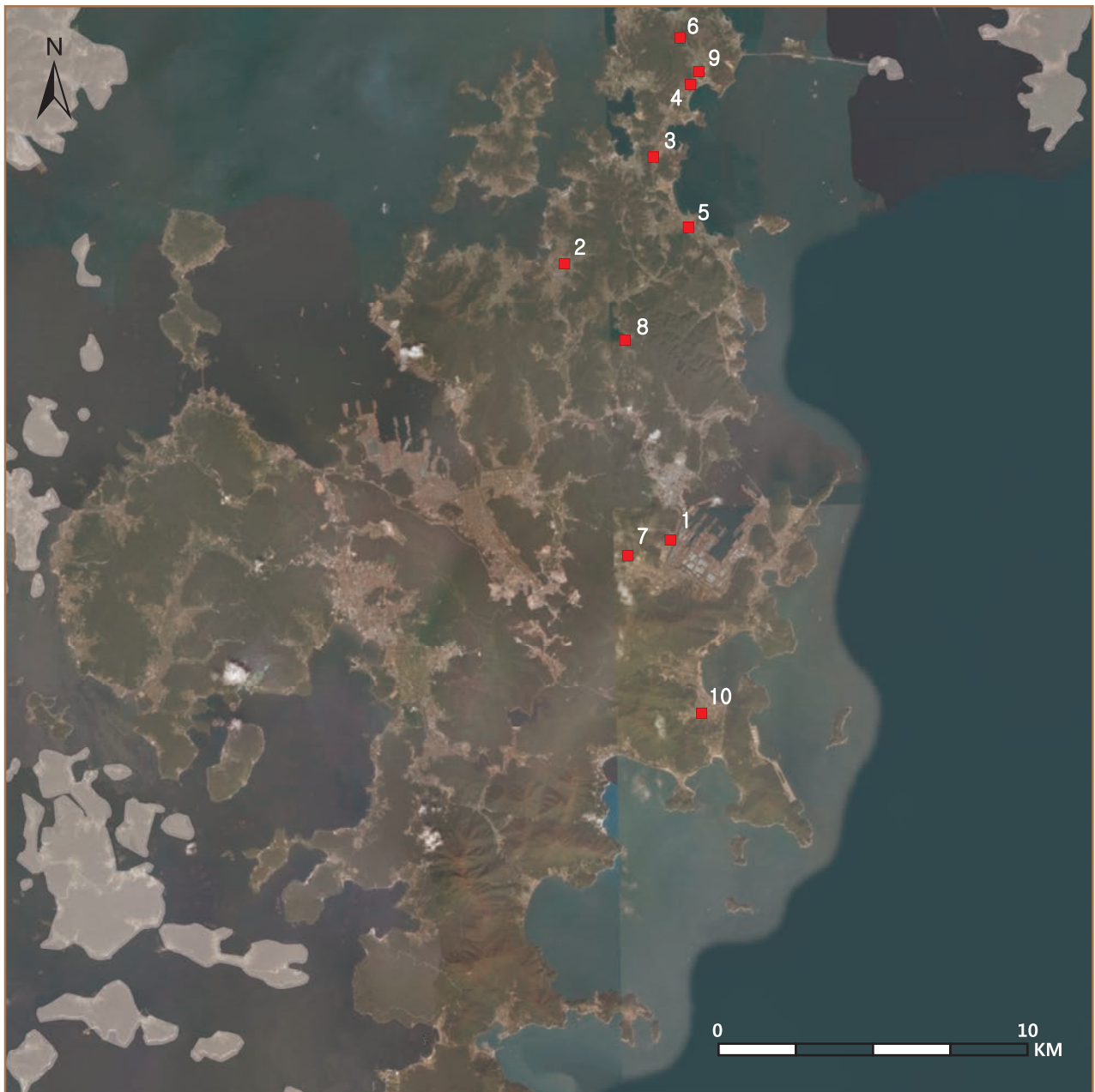
5호 목곽묘

10호분

10호분 출토유물

加助牧
大金山
見乃梁
永登浦
以芳山
沙芋浦
古縣
布洞峴
雞竜山
佐草
制勝堂
忠烈祠
閑山島
達島
統營屯
牧
待変亭
巨濟
溟珍
九川
老子山
鵝州
知世浦
栗浦
加羅山
松邊
登山望
南望
朱原島
草竜
大伊佐
小伊佐
內非辰
外非辰
內毛末
外毛末

Ⅲ. 거제

01

거제 아주동고분군
巨濟 鵝洲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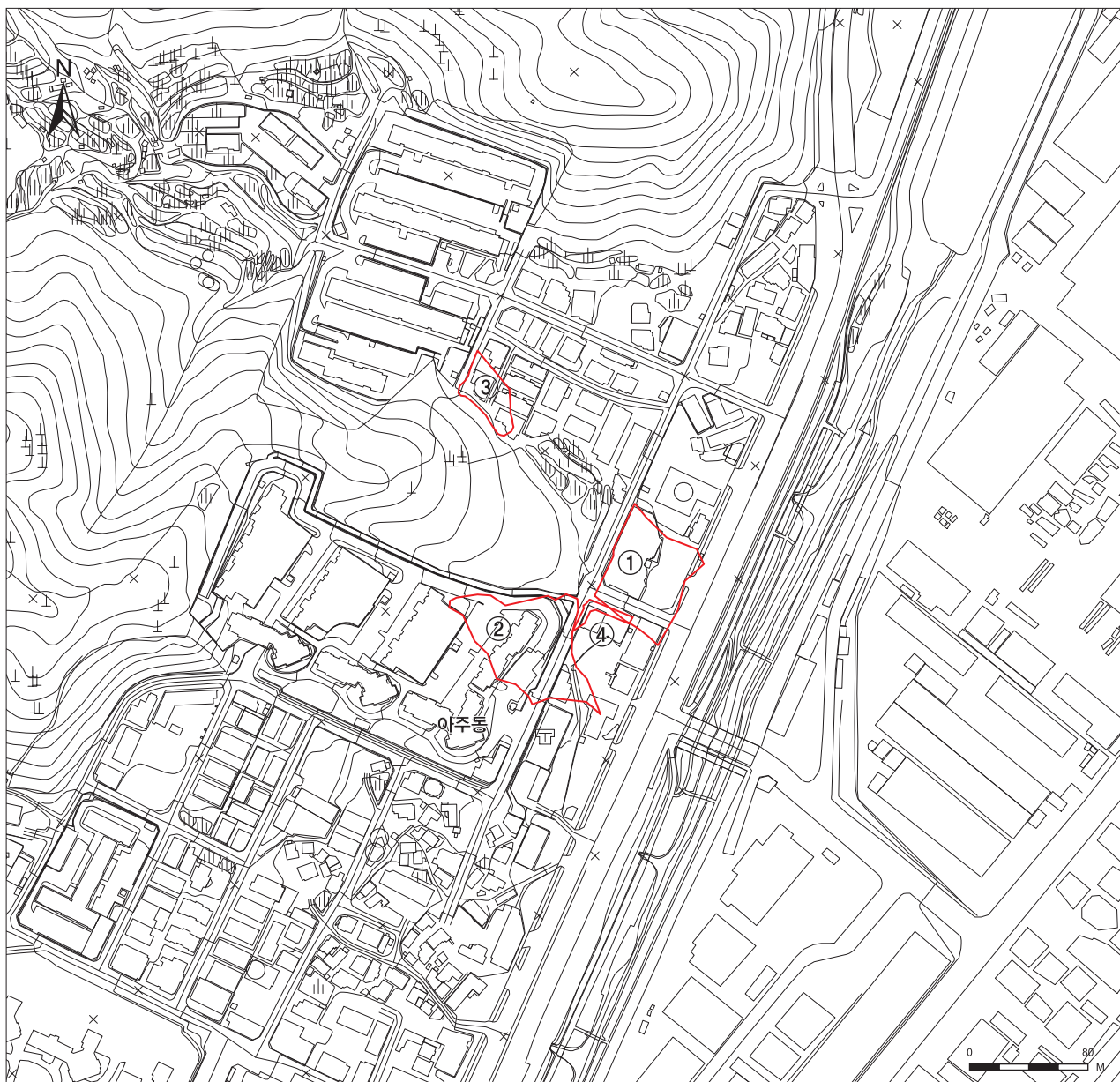
| 경상남도기념물 제161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1996년 대우조선노동조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 중에 발견되어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지석묘 16기와 삼국시대 고분 11기가 조사된 이후로 2004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삼국시대 고분 11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지석묘 하부구조 1기, 삼국시대 고분 5기가 조사되었고 2006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삼국시대 고분 3기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아주동유적에서는 지석묘 17기와 삼국시대 고분 30기가 조사되었다.

아주동고분군의 주묘제는 횡구식석실묘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하고 석실의 위치는 지하식에서 반지하식으로, 유구의 방향은 등고선에 평행하는 형태에서 직교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입구부의 위치도 경사 아래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한쪽 짧은 벽의 최하 1~2단을 남겨두고 상부 전체를 입구부로 사용한 경우, 작은 할석을 사용하여 전면에 시상을 설치하는 유형에서 내부 중앙에만 할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설치하는 유형으로 변화한다. 또 중앙 또는 측면을 입구부로 이용하는 경우로 변화하면서 시상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설치되고 시상의 재료도 할석 혹은 할석+천석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아주동고분군의 조영은 북쪽 구릉 상부에서 남쪽 구릉 말단부로 이어지면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구릉 상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조사된 자료보다 이른 시기의 유구들이 조사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신라양식의 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5호분의 1차 시상에서는 인화문토기가 1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라양식의 토기가 완전히 확산되지 않은 어느 시기에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나 중심연대는 신라양식의 토기문화권에 완전히 포함된 시기로 추정된다.

아주동고분군은 거제지역의 재지문화가 신라문화로 흡수 통합되어가는 과정과 신라문화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분묘유적으로 거제지역에 대한 삼국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의미있는 유적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거제 아주동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1996.8.~1996.9.	거제 아주동유적(1998)
2	거제 아주동고분군 -거제 아주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04.7.~2004.10.	거제 아주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거제 아주동고분군(2006)
3	거제 아주동고분군-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 내 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4.12.~2005.1.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내 거제 아주동고분군(2007)
4	거제 아주동고분군-도시계획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8.~2006.10.	거제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 거제 아주동고분군(2008)

01-1

거제 아주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749-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6.8.~19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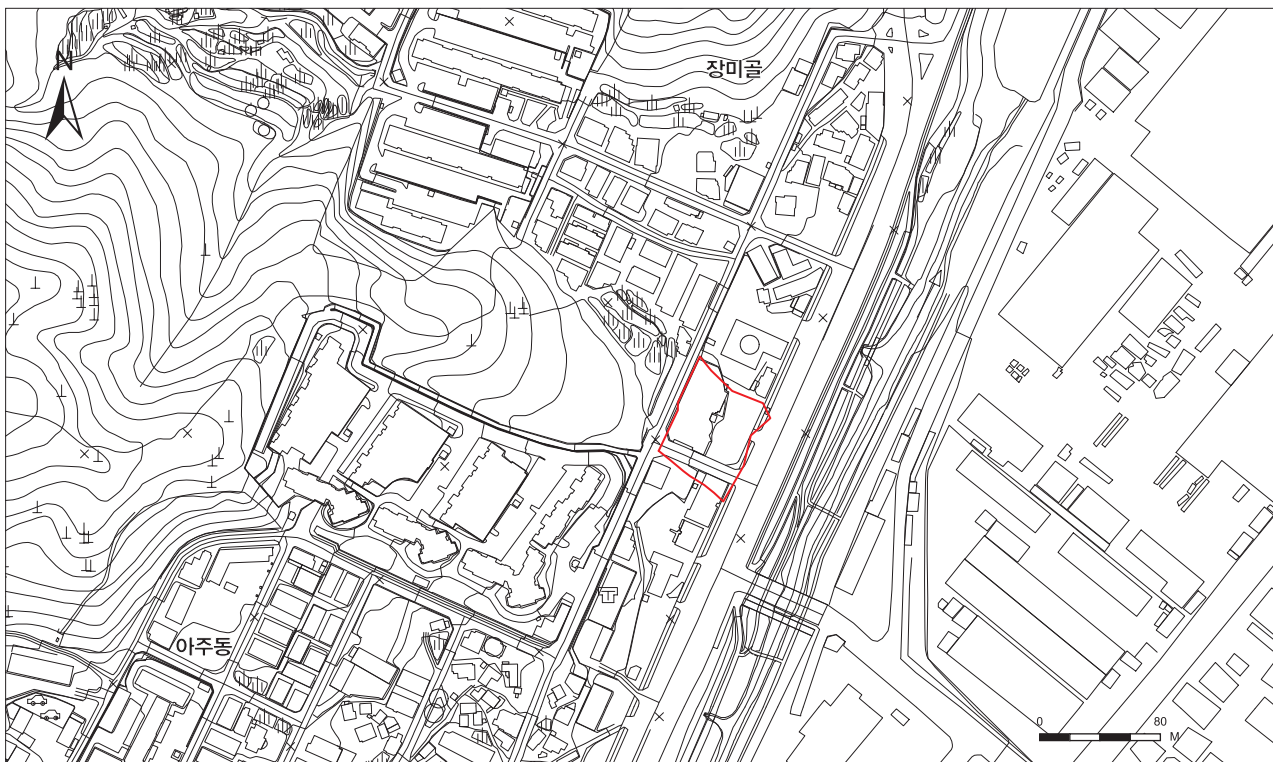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고배,
개, 배부완, 대부장경호

조사지역은 거제시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옥포만의 중간 해안선 부분으로 국사봉(해발 470m) 동쪽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16기와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 11기가 조사되었다. 봉분은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호석이 잔존하는 6호분을 통해 볼 때 6m 정도로 추정된다. 유구는 등고선과 직교하고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으로 입구부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은 개, 대부완,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철기류, 은제과대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고분군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주동고분군은 거제지역의 재지문화가 신라문화로 흡수 통합되어가는 과정과 신라문화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분묘유적으로 거제지역에 대한 삼국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의미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거제 아주동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1호 고분

3호 고분

5호 고분

7호 고분

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74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4.7.~20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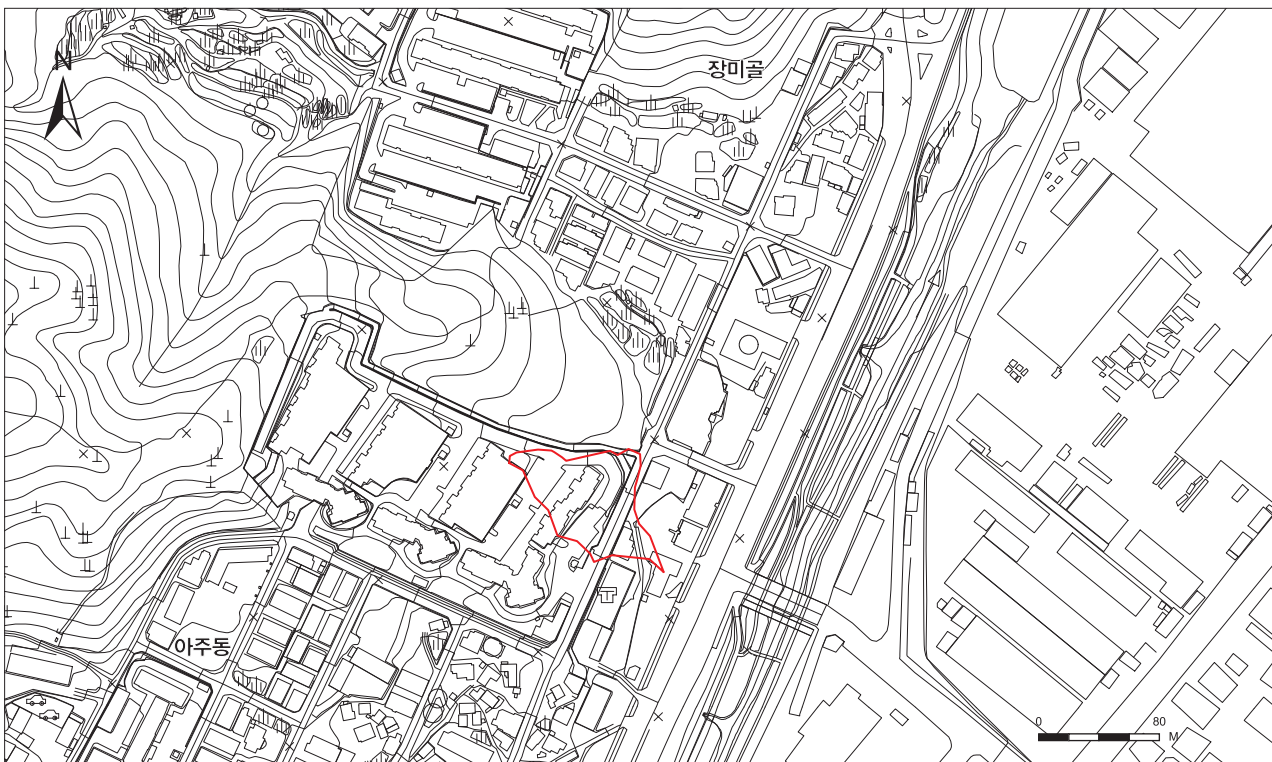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고배,
개, 배부완, 대부장경호

거제 아주동고분군 _ 거제 아주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조사지역은 국사봉(해발 470m) 동쪽 구릉 자락으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이 양 갈래로 분기하면서 형성된 계곡과 그 양 구릉 사면을 포함한다. 거제 아주동고분군의 남서쪽 말단부 해발 19~26m 사이에 고분이 조성되었는데 1996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조사구간과 남서쪽으로 인접한 구간이다.

발굴조사 결과, 횡구식석실묘 11기가 조사되었고 유개고배, 단각고배, 대부완, 부가구연장경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축조재료와 시상대의 구조 및 유물 부장양상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주동고분군은 거제지역의 재지문화가 신라문화로 흡수 통합되어가는 과정과 신라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거제 아주동 아파트 신축 부지 내 거제 아주동고분군』.

문화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분묘유적으로 거제지역에 대한 삼국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의미있는 유적이다.

유구 배치도

3호분

7호분

01-3

거제 아주동고분군 _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4.12.~2005.1.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고배, 개, 배부완,
대부장경호, 철겸

조사지역은 아주동 고분군의 남서쪽 말단부로 1996년 동아대학교박물관, 2004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되었던 구릉 반대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 1기와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 5기가 조사되었고 고배, 개, 대부완, 대부장경호, 철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방향은 등고선에 평행하고 입구부는 경사 상부인 북쪽에 위치하며 유구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일부는 지하식에 가까운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에 조사된 아주동고분군의 유구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입구부가 경사 아래쪽인 남쪽에 위치하며 유구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에서 방형을 이루는 것과는 차별되는 특징이다. 토기에서도 재지적인 전통이 남아 있으며 기존 조사내용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주동고분군의 조영은 북쪽 구릉 상부에서 남쪽 구릉 말단부로 이어지면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릉상부에 이른 시기의 유구가 조사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동아세문화재연구원, 2007,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 부지내 거제 아주동고분군』.

아주동고분군은 거제지역의 재지문화가 신라문화로 흡수 통합되어가는 과정과 신라문화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분묘유적으로 거제지역에 대한 삼국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의미있는 유적이다.

유적 전경

3호 석실묘

5호 석실묘

출토 유물

01-4

거제 아주동고분군 _ 거제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746-1·747-1 ·748-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6.8.~2006.10.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대부장경호, 유개고배, 유개합, 대금구

조사지역은 국사봉(해발 470m) 동쪽 구릉 자락으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이 양 갈래로 분기하면서 형성된 계곡과 그 양 구릉 사면을 포함한다. 1996년 동아대학교박물관, 2004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의 남쪽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횡구식석실묘 3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대부장경호, 고배, 유개합, 금동제대금구 등이다. 석실묘는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상부구조가 유실되었지만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1호 석실분에서는 호석과 주구가 확인되었으며, 2차에 걸쳐 시상이 설치되었다. 유구와 유물을 통해 볼 때, 고분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아주동고분군은 거제지역의 재지문화가 신라문화로 흡수 통합되어가는 과정과 신라문화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분묘유적으로 거제지역에 대한 삼국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의미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거제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 거제 아주동고분군』.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1호 횡구식석실분

2호 횡구식석실분

출토유물

02 거제 하청 하나로마트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525-2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6.12.~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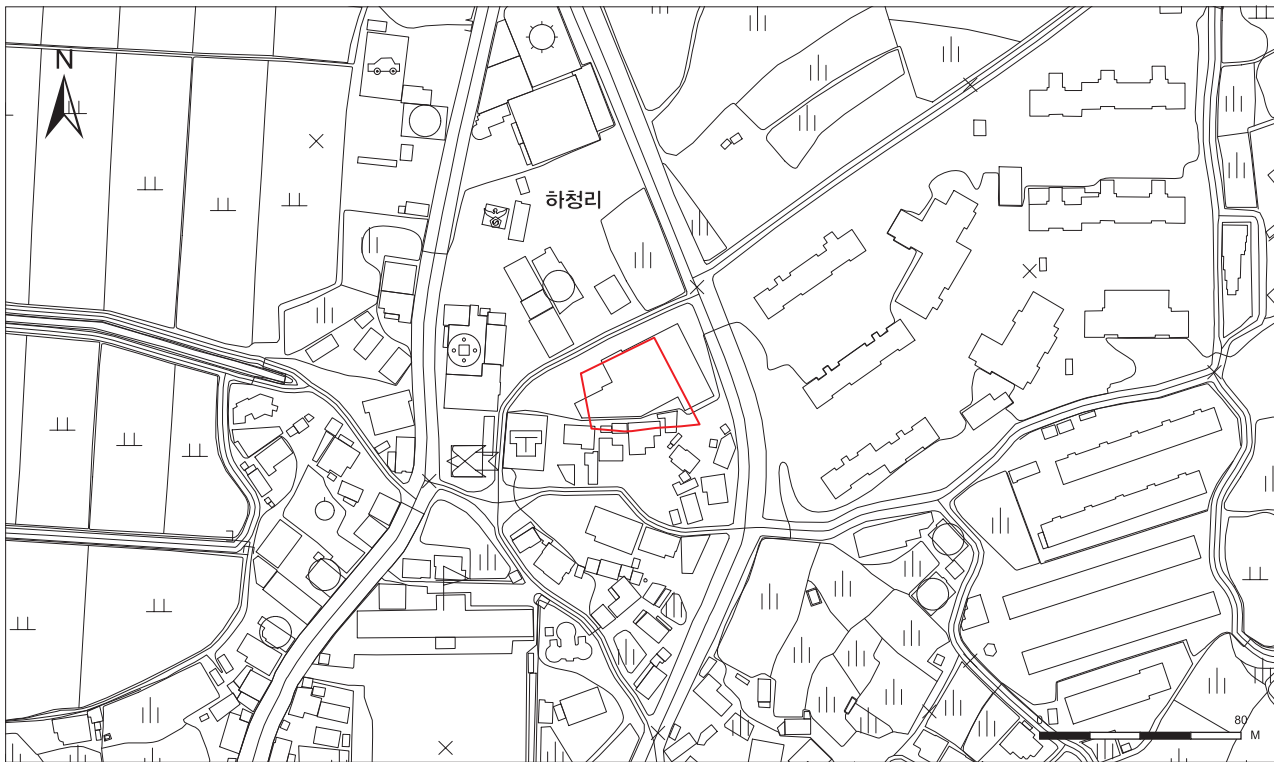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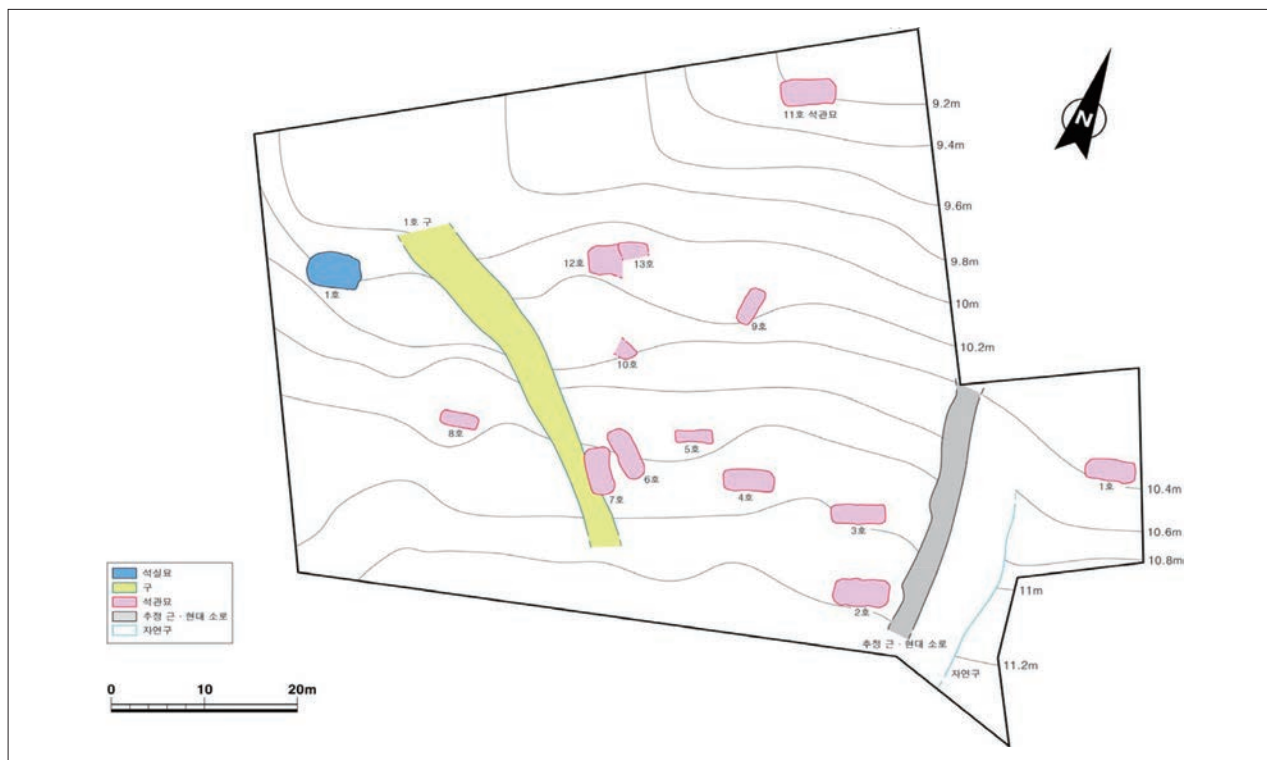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개, 고배, 철부

조사지역은 지형적으로 동쪽의 해발 259m 저산성산지와 남동쪽의 해발 229.3m 저산성산지 사이에 유수에 의해 오래전에 형성되어 단구화한 선상지면의 선단부에 위치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13기, 구 1기, 삼국~남북국시대 석실묘 1기 등 1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국~남북국시대(통일기) 석실묘는 상부 대부분이 유실되고 벽석 1~2단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내부에는 동-서 방향으로 시상석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개, 고배, 완, 장경호, 철부 등이 출토되었고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제 하청 하나로마트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조사된 석실묘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거제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7, 「거제 하청 하나로마트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유물 출토유물

03

거제 관포리유적 _ 거제 거가대교 건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64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6.6.~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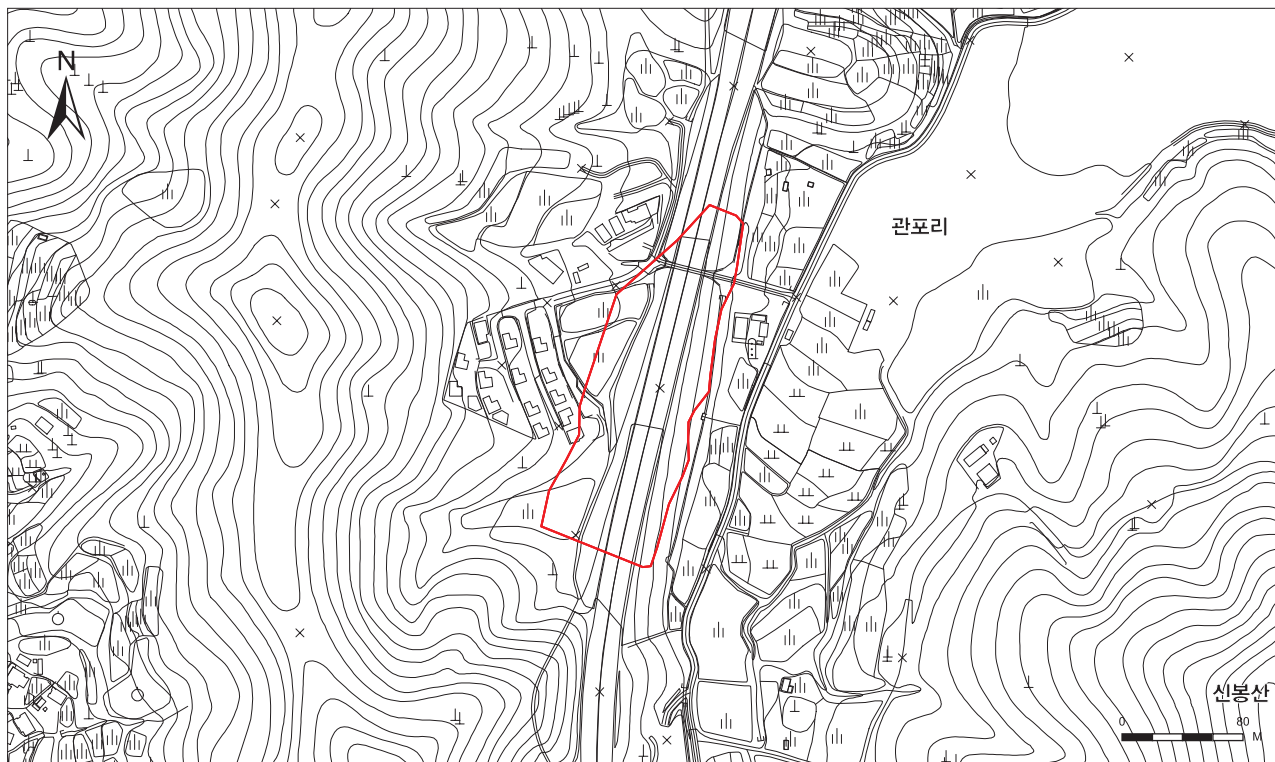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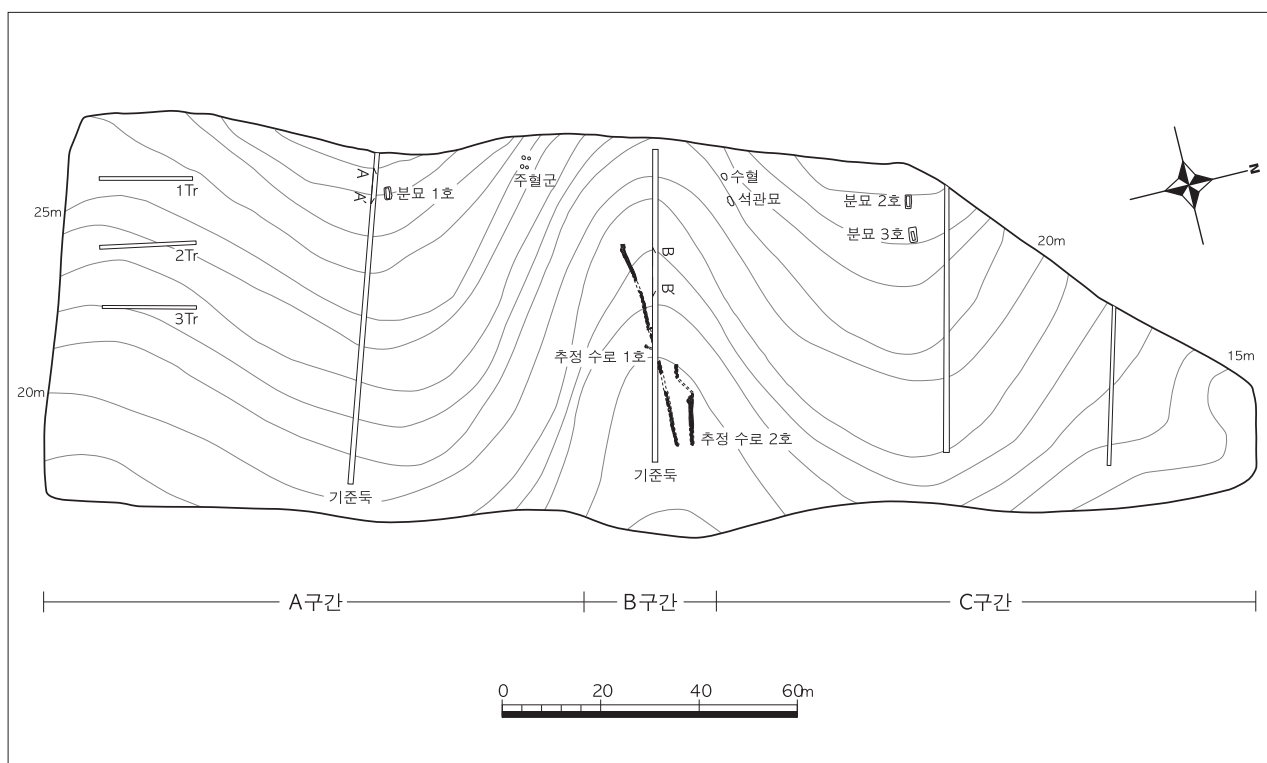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도질토기
저부 편

거제 관포리유적은 거제 거가대교 접속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대금산에서 북동쪽으로 돌출된 망월봉(해발 113.5m)의 북동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주변 지형은 북쪽을 제외한 사면이 산들로 둘러쌓여 있으며 앞쪽은 경사가 낮은 곡저평지를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1기, 조선시대 분묘 3기와 추정 수로 2기, 시대 미상의 주혈군 1동, 수혈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수혈식석곽묘 1기로 일부 훼손되어 서쪽부분의 장·단벽 일부만 잔존한다. 벽석은 중소형의 할석을 세워쌓기하였으며, 바닥에는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기형을 알 수 없는 도질토기 저부 편 3점이 출토되었는데, 삼국시대 토기로 추정된다.

거제 관포리유적의 삼국시대 유구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거제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거제 거가대교 건설구간내 거제 관포리 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석곽묘

출토유물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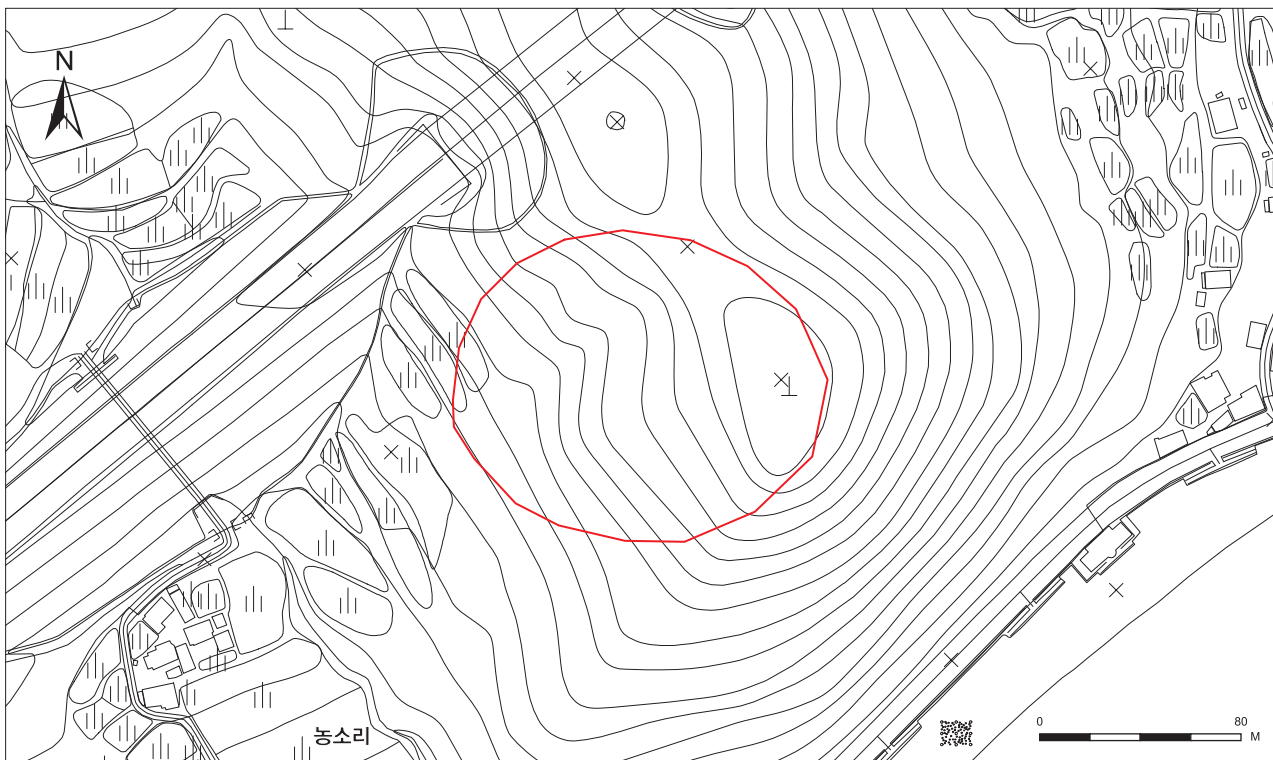
거제 장목고분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산130-1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4.2.~2004.3.

주요 유구 / 유물
횡혈식석실묘 / 대호,
기대, 원통형토기,
찰갑, 경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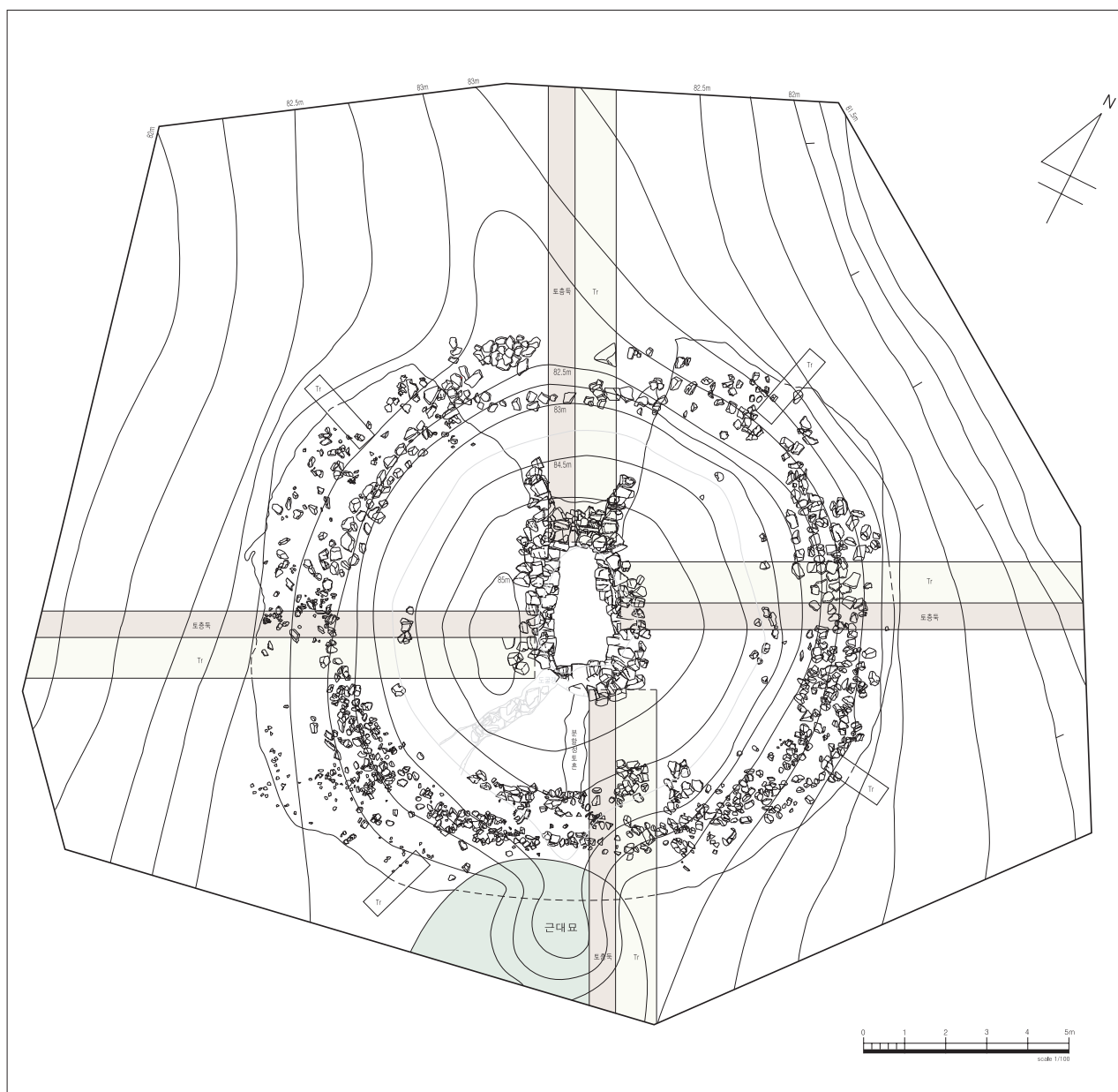
거제 장목고분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에 해당되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대봉산(해발 257.7m)에서 간곡만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해발 80m)에 단독으로 조성되었는데, 한반도와 일본 큐슈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상의 요지이다.

분구의 기저부에 설치된 즙석시설은 봉토 내에 설치되어 일반적인 봉분 축조에 이용된 호석과 차이를 보인다. 주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분구 주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대호의 구연부와 저부, 원통형토기 등이 확인되어 일본 고분시대의 하니와와 흡사하다. 또한 제형의 현실 평면형태, 나팔상의 짧은 연도와 묘도, 후벽에 사용된 요석, 문주석, 문지방석, 문비석으로 이루어진 현문부의 구조 등은 장목고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덤 내부는 도굴로 심하게 교란되었지만 현문부 근처에서 경갑, 찰갑, 철촉 등 다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장목고분의 유물부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도를 막는 과정에서 철모와 삼지창, 즙석 하부에 구부러진 채 매납된 대도 등이다. 연도 오른쪽벽에서 봉토

유적 위치도

축조과정에서 부장한 것으로 보이는 철모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일본 큐슈의 번쯔카고분 및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장목고분 출토 찰갑은 요찰을 중심으로 아래·위 찰갑을 연접한 동환식 찰갑인데, 이는 5세기 후반대 일본에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일본지역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고성 송학동 1B-1호분 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6세기 1/4분기 이른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실의 구조, 출토유물, 의례행위 등에 나타난 왜계 요소를 고려해볼 때 피장자는 왜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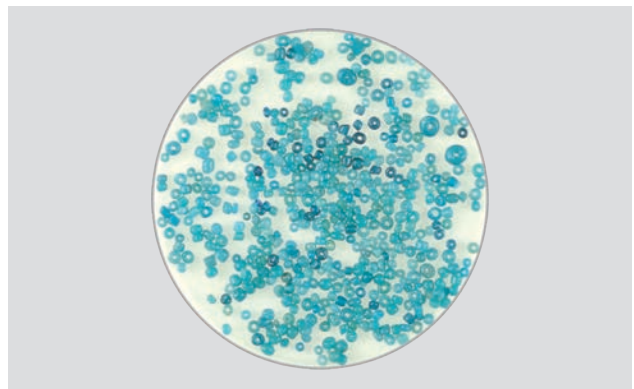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거제 장목 고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입구부·봉토모습

입구부 전경

갑옷 편

구슬

05

거제 대금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47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5.12.~2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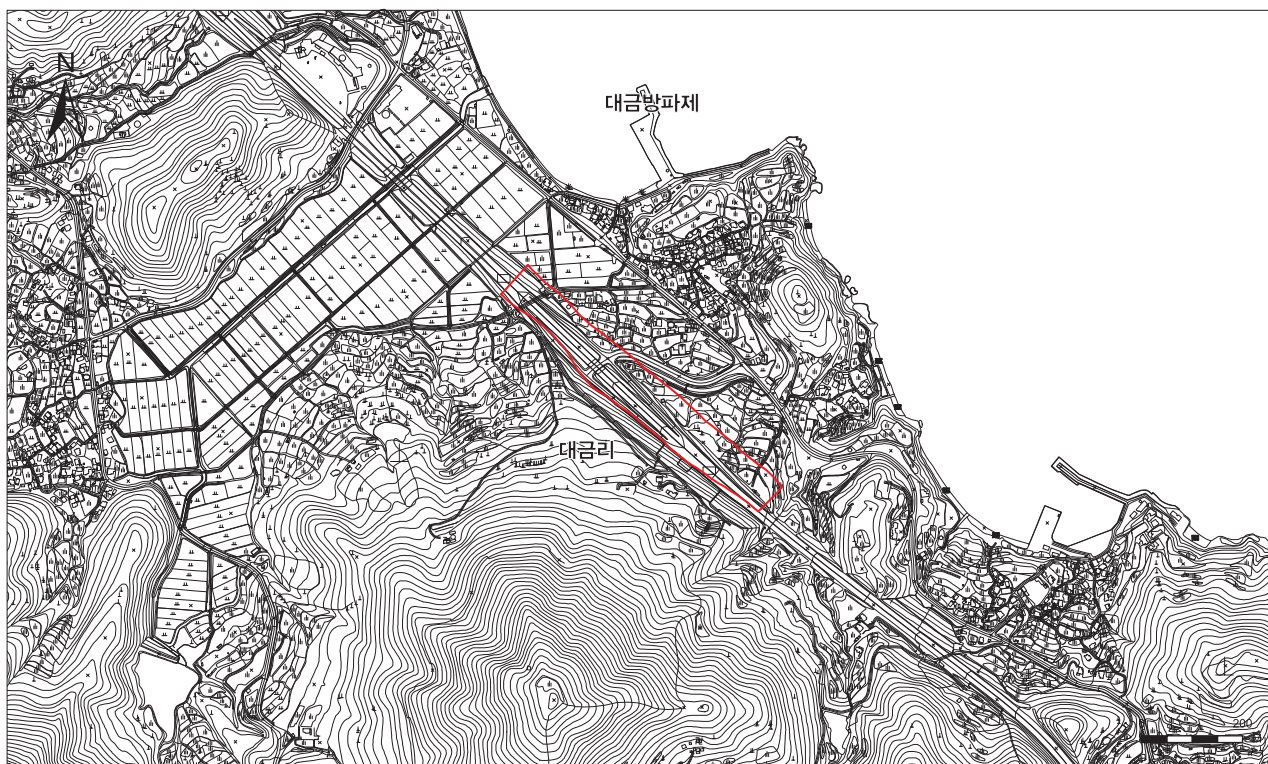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옹관묘 / 도질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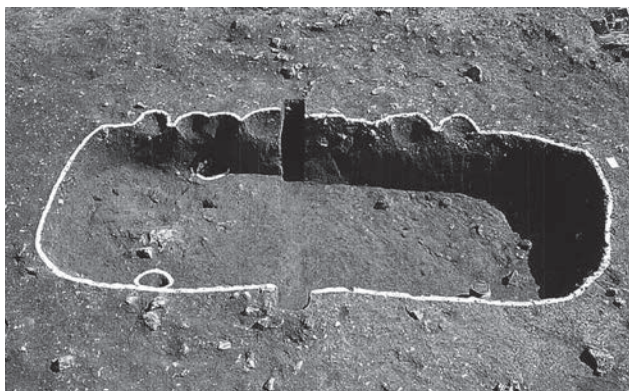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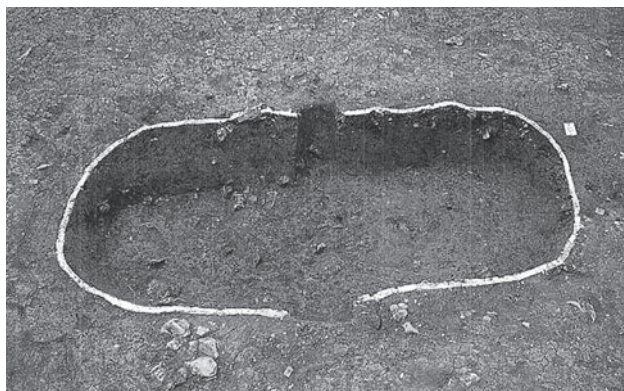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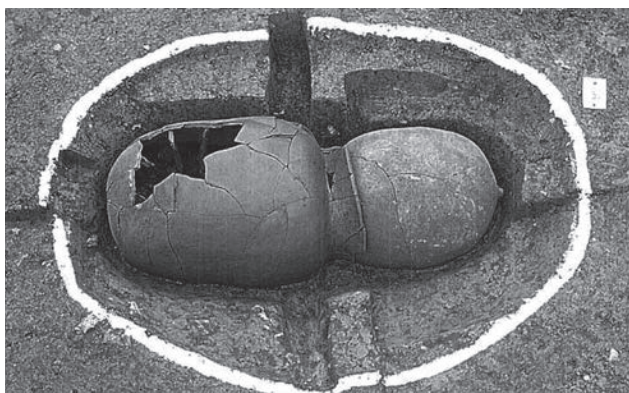
거제 대금리유적은 거제 거가대교 접속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대금산(해발 438.6m)에서 북쪽으로 돌출된 중봉산(해발 285m)의 동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남-북으로 연결된 봉우리들 사이의 협곡에는 작고 좁은 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변에 위치해 조망권이 확보되고 경사가 완만해 유적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고상건물지 2기·분묘 10기·구상유구 8기·수혈 8기·집석유구 2기와 삼국시대 목곽묘 23기·옹관묘 13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2동·지상식건물지 4기·구상유구 5기·수혈 12기,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4기·분묘 24기·구상유구 10기·수혈 34기·아궁이 1기·주혈군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와 옹관묘는 현대 경작지에 의해 많은 부분이 삭평되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또한 주능선이 아닌 능선 사면부에 위치한 분묘가 조사되어 대체로 유구의 규모가 작고 부장된 유물도 빈약하다.

거제 대금리유적의 삼국시대 유구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거제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9, 『거제 대금리 유적-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54호 목곽묘

55호 목곽묘

56호 옹관묘

토기류

06

거제 구영리고분군 _ 거제 구영 관광농원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산27-11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5.4.~2015.5.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기대 편

구영리고분군은 군위봉(해발 187.1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사면 일부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까지 임야로 이용되었으나 관광농원 공사로 인해 원지형이 크게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긴급 수습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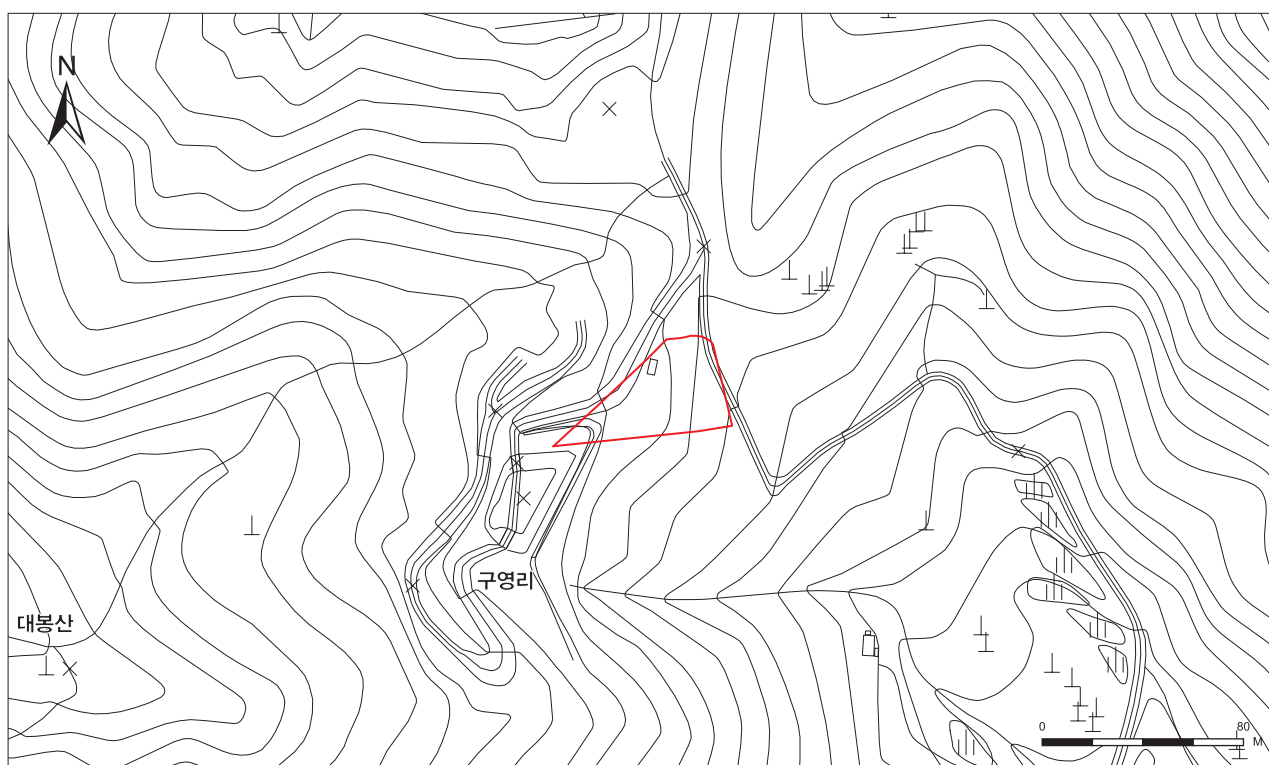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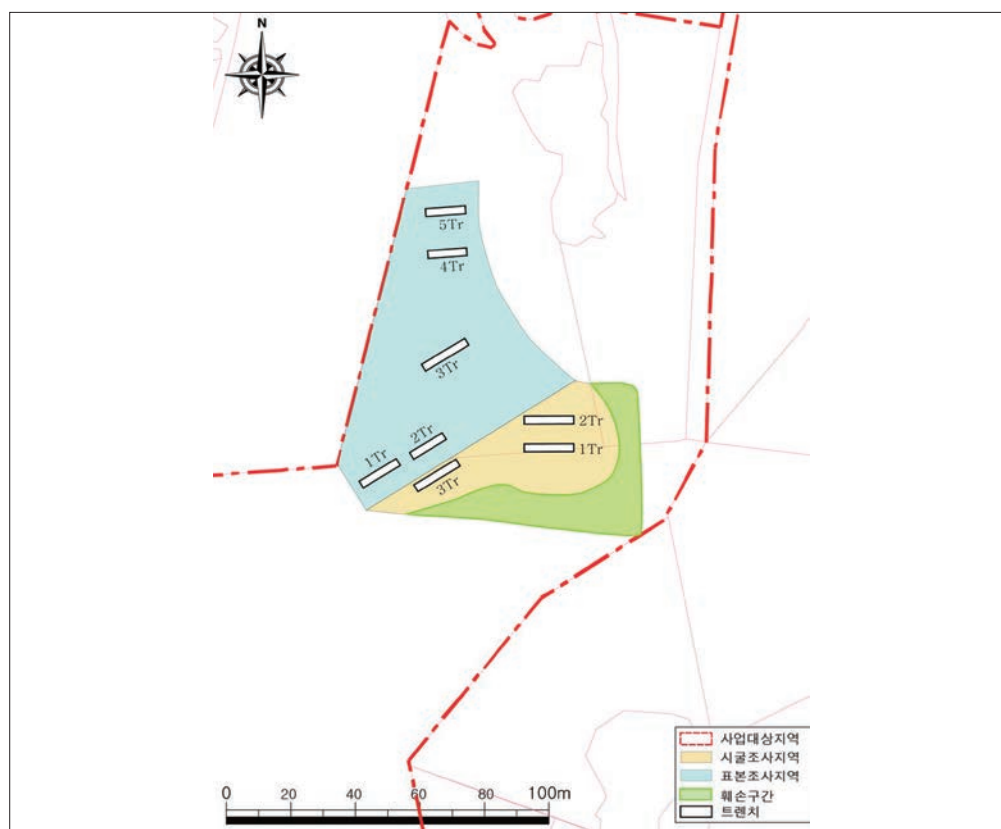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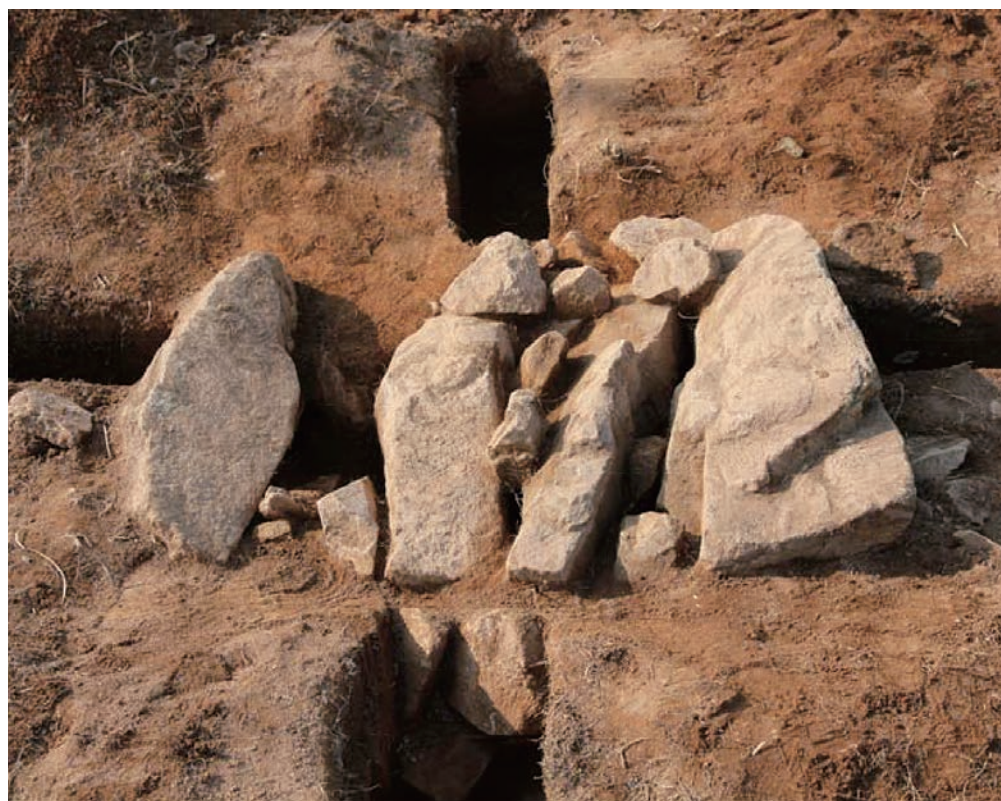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1기와 호석,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직경 10m 정도의 호석을 갖추고 있으며 개석 4매가 잔존하고 있다.

거제 구영리고분군은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거제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5, 「거제 구영관광농원 조성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발굴(시굴 및 표본)조사 약보고서」.

유적 위치도

N
5Tr
4Tr
3Tr
2Tr
1Tr
2Tr
1Tr
3Tr
사업대상지역
시굴조사지역
표본조사지역
훼손구간
트렌치
0
20
40
60
80
100m

트렌치 배치도

석곽묘

07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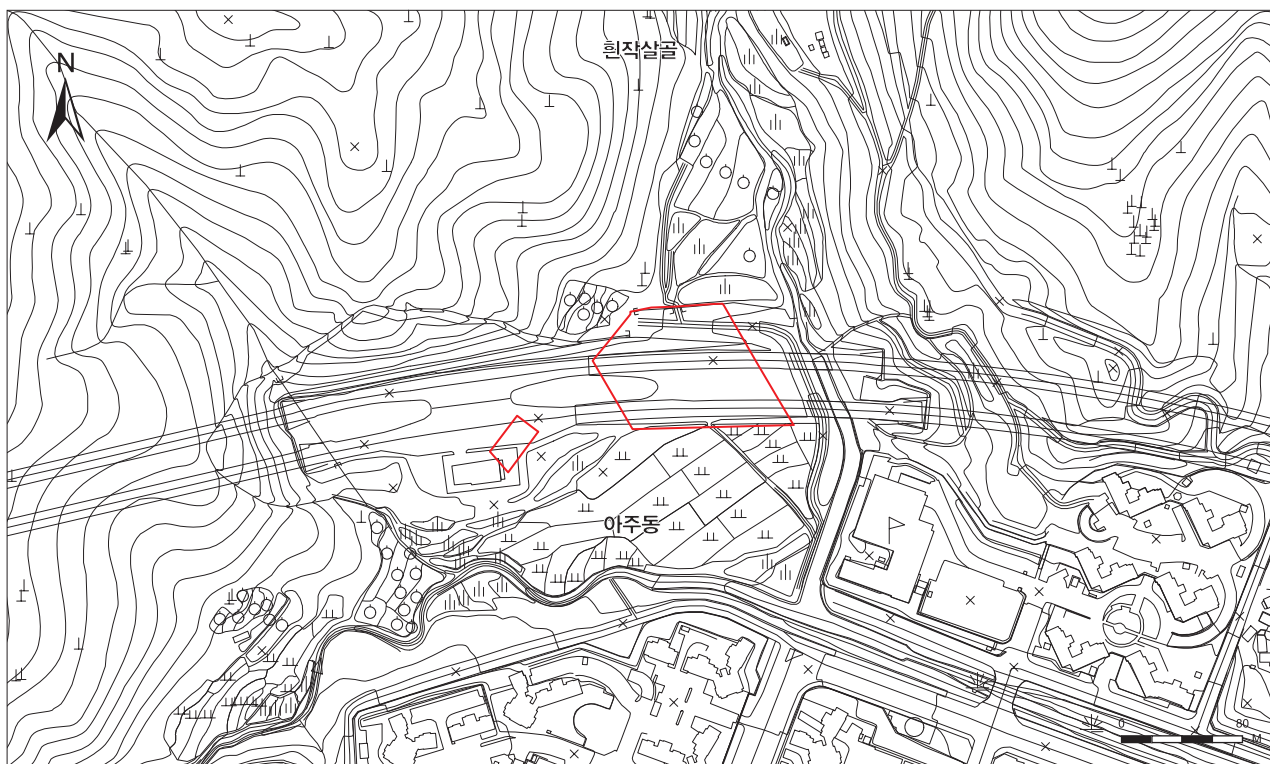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48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9.10.~2010.3.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구 /
하지키계 토기, 고배,
파배, 단경호, 철촉,
도자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485 일대에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옥포만에 면한 내곡마을 배후산지인 국사봉(해발 464m)에서 남쪽으로 내려뻗은 구릉 사면부와 구릉 사면 말단부에서 폭이 좁은 선상지성 개석곡의 곡두부까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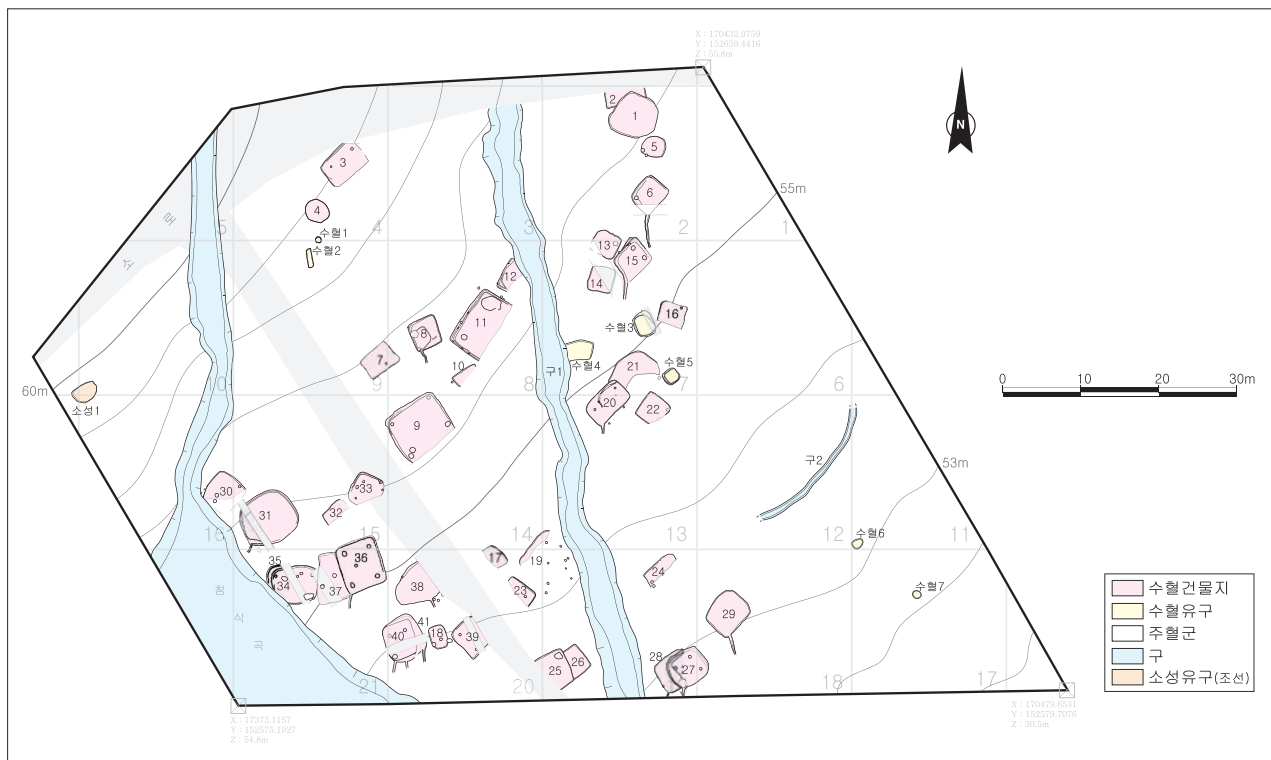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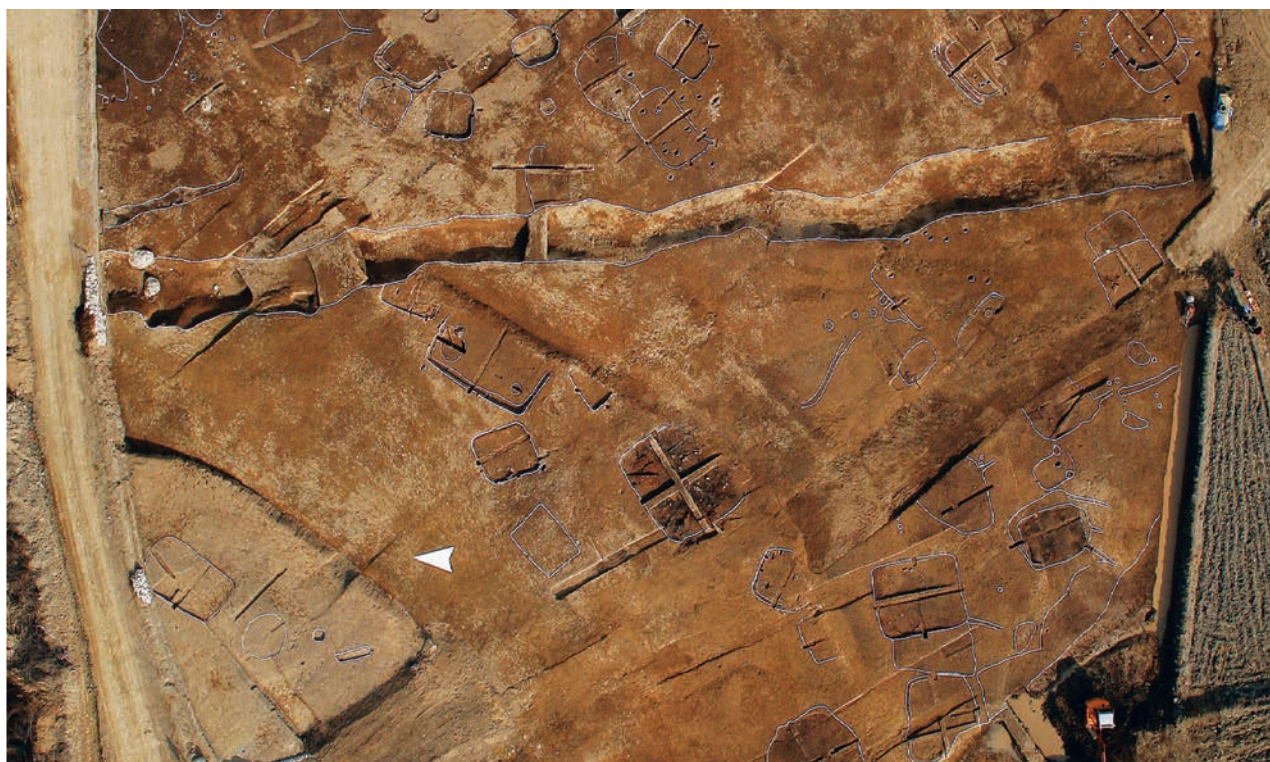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수혈, 구, 분묘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Ⅰ구역에서 수혈건물지 41기, 수혈 7기, 주혈군 등과 하지키계 토기를 비롯해 고배, 파배, 단경호, 도자, 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Ⅰ구역의 전반적인 층위는 10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Ⅰ·Ⅱ층은 근·현대 경작층-Ⅲ층은 조선시대 문화층-Ⅳ·Ⅴ층은 자연퇴적층-Ⅵ층은 고려~조선시대 문화층-Ⅶ층은 삼국시대 유구확인층-Ⅷ·Ⅸ층은 삼국시대 유구기반층-Ⅹ층은 기반층에 해당된다.

수혈건물지는 구릉 말단부인 Ⅰ구역 전체에 분포하며 등고선과 병렬배치되어 있고,

유적 위치도

밀집도는 높은 편이다. 규모는 길이 302~828㎝, 너비 269~662㎝ 정도로 다양하며 평면 형태는 면적상 소형은 방형, 대형은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은 벽구와 화덕시설, 저장공, 주혈, 벽구내 주혈 등이 확인되며 외부에 배수구가 조사되었다. 바닥은 대체로 기반층을 평탄하게 굴착하여 불다짐 및 점토 다짐 등 별도의 다짐처리는 하지 않고, 기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고배, 승문계 타날단경호, 장동옹, 파배, 하지키계 토기 등의 토기류와 도자, 철촉 등도 출토되었다. 토기류 대다수는 함안양식의 고식도질토기이며 중심시기는 고식도질토기단계의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4세기 4/4분기로 편년된다. 고식도질토기단계의 이른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역시 5세기 이후 가야 토기의 전환기적 양상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유적이 4세기 4/4분기라는 한정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조영되었다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거제 아주동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161호) 등 동시기 주변유적과의 관련성과 서부경남지역 삼국시대 생활유적과의 지역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지리적으로 부산-김해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에도 동시기의 전기가야 중심지역인 금관가야를 나타내는 형식의 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유적에서 상대적으로 다량 확인되는 하지키계 토기와 관련하여 당시 주변지역간의 교류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거제시 관내우회도로(아주-상동간) 건설부지 내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Ⅰ구역 유구배치도

유적 전경

수혈 건물지 전경

수혈건물지 근경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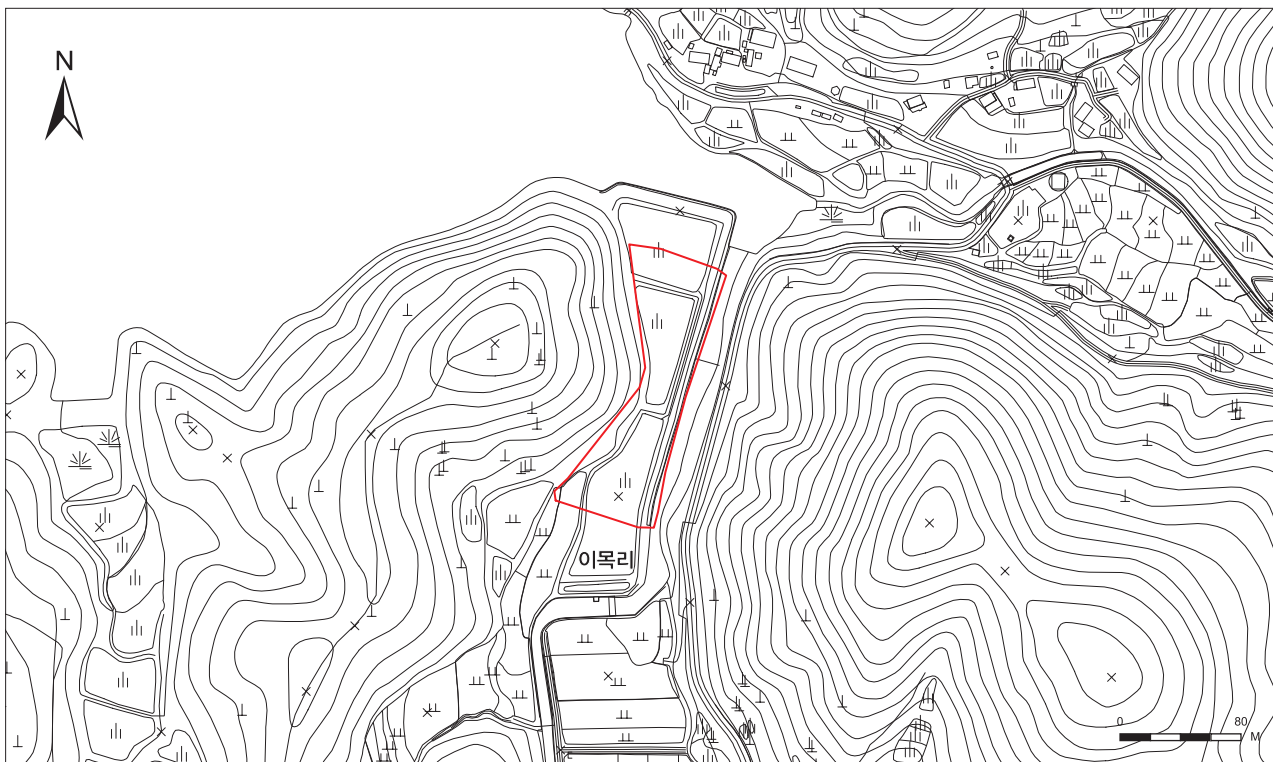
08 연초댐 환경개선시설공사 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4-2·21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시굴 2006.3.~2006.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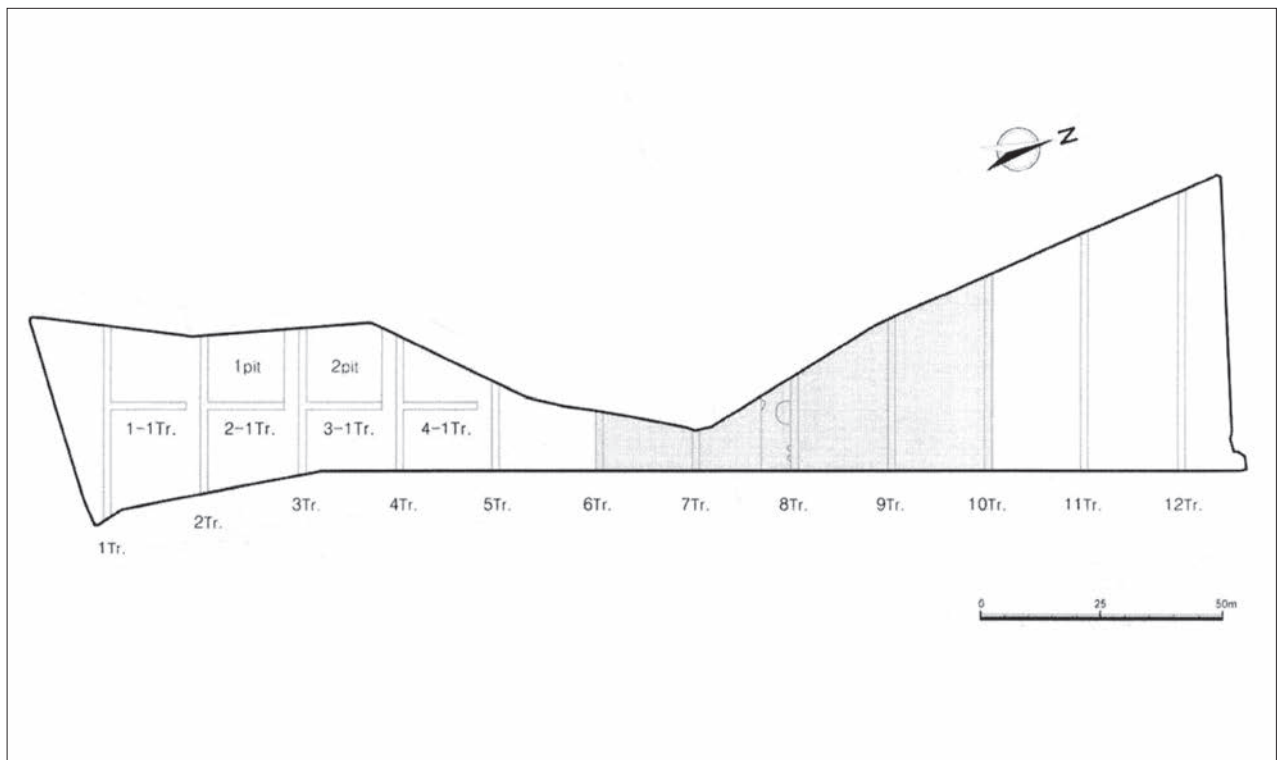
유적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일대에 소재하는 연초호로 유입되는 주요하천인 주령천, 명동천, 이남천, 명하천 중 연초호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주령천의 유입부에 해당한다. 1979년 각 하천 유입부의 합류지점에 조성된 댐으로 인해 호수가 형성되면서 형상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진 지역이다. 유적은 연초호를 기준으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려산(해발 282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는 남쪽부분과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경사가 급하고 자연암반이 노출된 북쪽부분으로 구분된다.

유적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형조건을 감안하며 남-북향을 기준으로 20m 간격의 그리드를 설정하고, 총 16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유적의 전반적인 층위는 지형조건에 따라 남쪽과 북쪽이 차이를 보인다. 먼저, 남쪽 부분은 하층으로부터 역석층-자연퇴적층-경작층-복토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양상

유적 위치도

을 감안하면 역석층 상부로는 구릉 사면으로부터 퇴적된 자연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상부에 현대 경작층이 존재한다. 유물은 대부분 경작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릉 상부에서 유입되었거나, 후대 경작지 조성시 문화층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쪽 부분은 남쪽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복토층이 4m 이상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북쪽 부분에 설치한 8트렌치 남쪽 확장 피트에서는 삼국시대 수혈과 주혈이 각각 2기가 노출되었고, 9트렌치에서는 구 1기가 확인되었다. 1호 수혈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잔존규모는 직경 530㎝, 깊이 30㎝ 정도이다. 내부토에는 목탄과 소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승석타날문단경호 편이 수습되었다. 내부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평면형태와 내부토 등을 감안하면 주거지로 추정된다. 2호 수혈은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렵지만, 1호 수혈과 동일하게 내부토에 목탄과 소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내부에서 주혈이 수혈의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구는 단면형태가 'U'자상이며 너비 500㎝, 깊이 80㎝ 정도이다.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가 포함되어 있으며 적갈색연질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유적은 지속된 토사의 퇴적과 후대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계단상으로 절토되어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굴조사만 이루어져 정확한 유적의 범위와 성격은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노출된 삼국시대 유구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생활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06.「연초댐 환경개선시설공사 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

유구 배치도

09

거제 농소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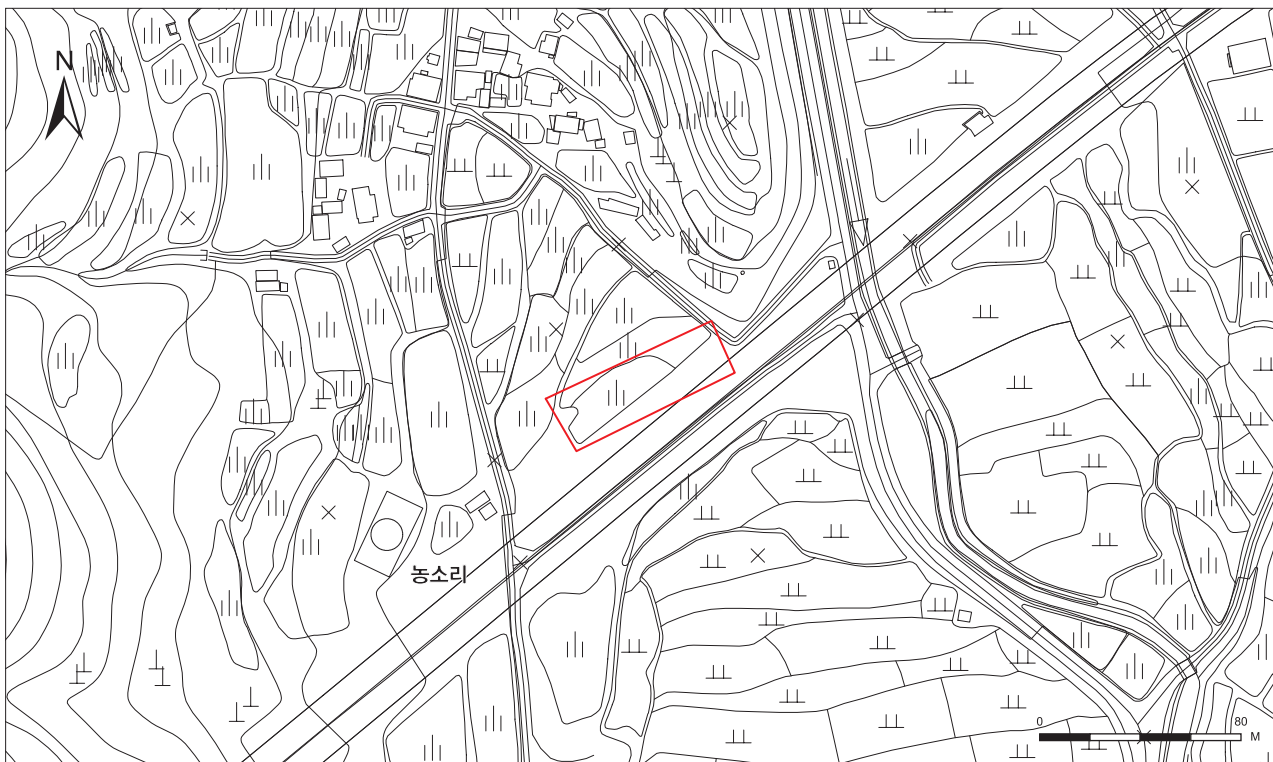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83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5.10.~2005.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고상건물, 목주열 / 토기 편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835 일대에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거제시 북동쪽에 위치하는 대봉산(해발 260.3m)의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출된 소구릉들 사이에 형성된 곡부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특히, 바다와 매우 가까워 현재 선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간곡만과는 직선거리로 약 0.5㎞에 불과하고, 해발고도 역시 4~5m로 거의 해수면에 가까워 과거부터 바다와 관련된 생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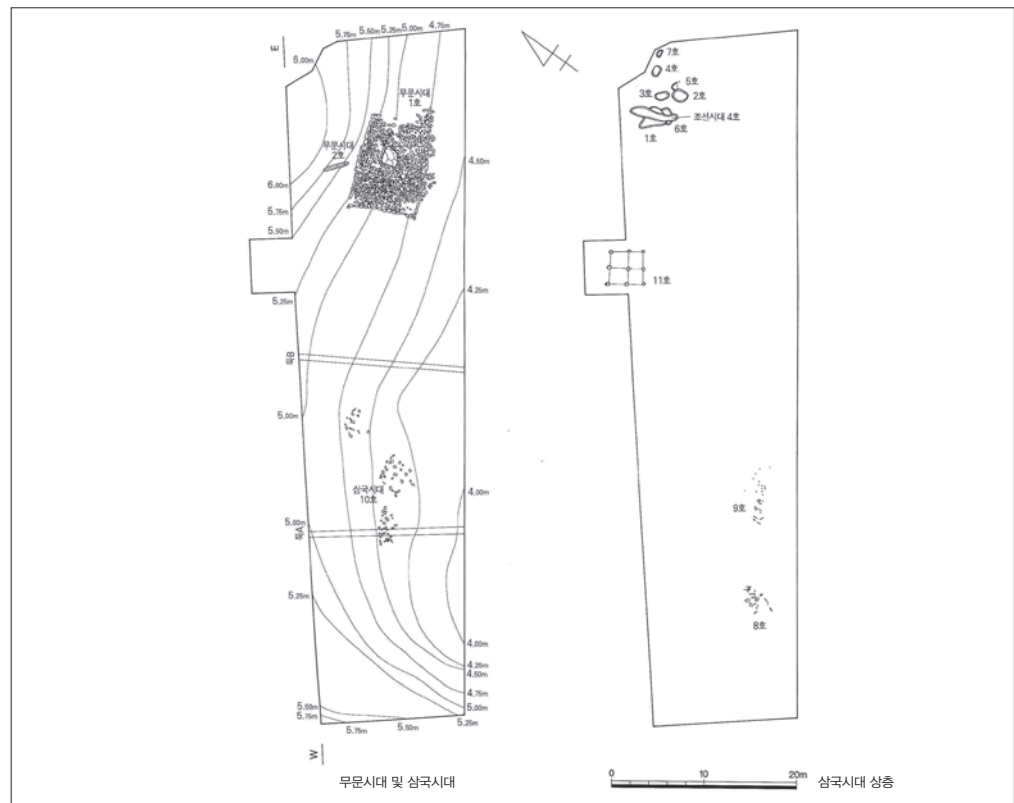
유적은 북서쪽으로 구릉 말단부가 확인되지만, 주로 습지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습지퇴적층의 전체적인 퇴적순서는 자연 뻘층 위로 삼국시대 유물포함층 하층-삼국시대 유물포함층 상층-조선시대 유물포함층 하층-조선시대 유물포함층 상층-근현대 경작층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지석묘, 수혈, 고상건물, 집목유

유적 위치도

구, 집석유구, 목주열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상층과 하층에서 수혈과 고상건물, 집석유구, 집목유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목재가공품과 각종 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하층에서 조사된 10호 집석유구는 유적 중앙부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4m 지점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상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황갈색 뻘층에서 확인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변색이 이루어져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서쪽 두 부분은 거의 동일한 형태,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치도 거의 연접하고 있다. 북쪽 부분은 남서쪽 부분과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며 형태와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집석을 구성한 할석의 크기도 다소 작은 편이다. 그러나, 노출양상이 동일하고 주변으로 다른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하나의 유구로 판단된다. 상층에서는 성격을 알 수 없는 수혈 7기를 포함하여 지상식건물지 1동, 집목유구 1기, 말목열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수혈은 유적 북쪽, 구릉 말단부상에 조성된 비교적 편평한 부분의 해발 6.5~6.7m 상에 군집하는데, 대부분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소형 수혈이며 내부에 별다른 시설도 없다.

이상과 같이 유적에서는 정형화된 유구가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유적의 성격과 시기를 유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물포함층에서 수습된 유물들을 감안하면 5~6세기로 추정된다. 김해 봉황동과 관동리 일대에서 조사된 바 있는 접안시설 등과 같이 해안가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거제 농소 유적-거제 거가대교 접속도로(농소~유호)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유구군 전경

집목유구

10호 집석유구

10호 집석유구 유물 출토모습

10

거제 지세포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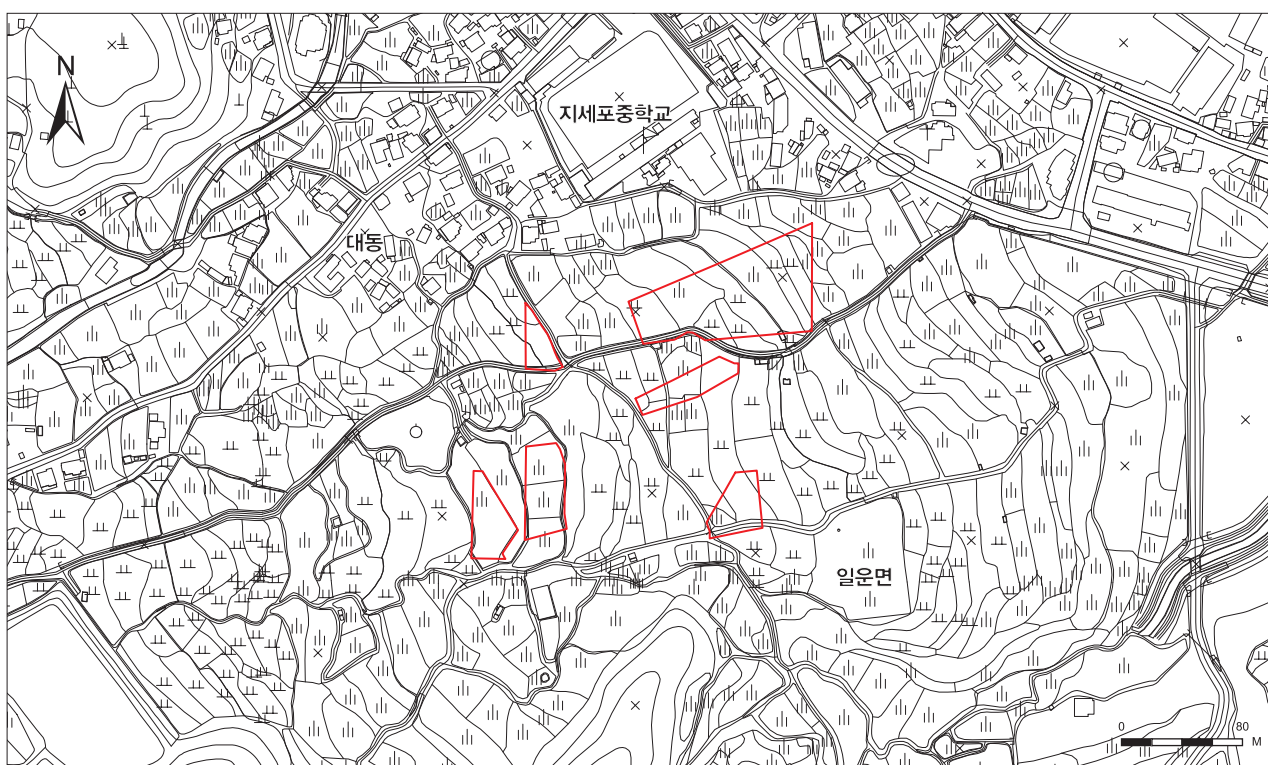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099-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5.9.~2015.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구 / 개, 고배 편

거제 지세포리유적은 행정구역 상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099-3 일대에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서쪽의 북병산(해발 465.4m) 정상에서 지세포항으로 내려뻗은 구릉성 산지 사이에 대규모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유적은 곡간평야 중앙의 완만한 사면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구, 분묘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주거지 5동과 수혈 75기, 고상건물 10동을 비롯해 구와 배수로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표토층 및 현대복토층인 Ⅰ층과 황갈색역석층인 Ⅱ층으로 구분되는데, 유구는 Ⅱ층에서 확인된다.

거제도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에서 39동의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 유적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후

유적 위치도

대 삭평으로 인해 전체적인 형태파악이 용이하지 않지만, 잔존형태와 장축방향 등을 감안한다면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뚜막이 조사된 유구는 2호 주거지로 벽의 중앙부에 흔적이 잔존한다. 부뚜막 상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벽과 바닥에서는 피열층과 소토, 목탄이 다량 노출되었다. 주혈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벽쪽으로 주혈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벽주식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은 구조상 1×1칸 4동, 1×2칸 3동, 2×2칸 2동, 2×3칸 1동 등 총 10동이 조사되었으며 고상건물을 구성한 대부분의 주혈에서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유적이 속한 거제지역의 삼국시대 고상건물은 경남고고학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실시한 '거제 농소유적'에서 조사된 바 있으며 남해안 지역에서는 대부분 진해만 주변인 창원, 진해, 김해 일대에서 확인된다.

유적의 시기는 삼국시대 주거지 및 고상건물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대부분 잔 편으로 명확한 시기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고, 일부나마 확인된 개, 고배편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구역 1호 구에서 출토된 개와 배신의 형태를 보면 유개식투창고배로 추정되는데, 이와 유사한 유물은 진주 무촌 3구 54호, 산청 명동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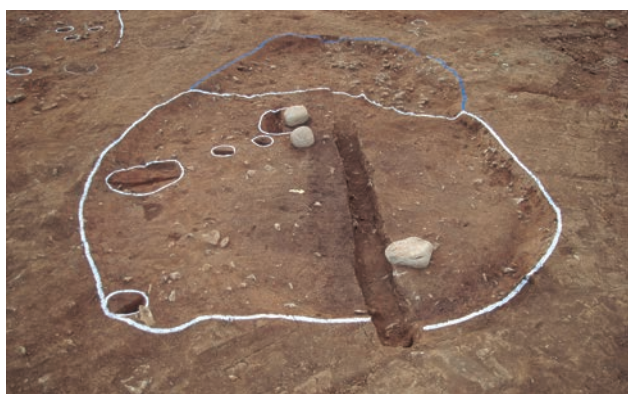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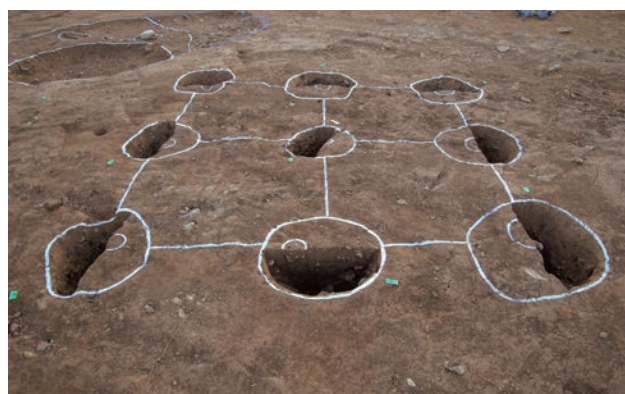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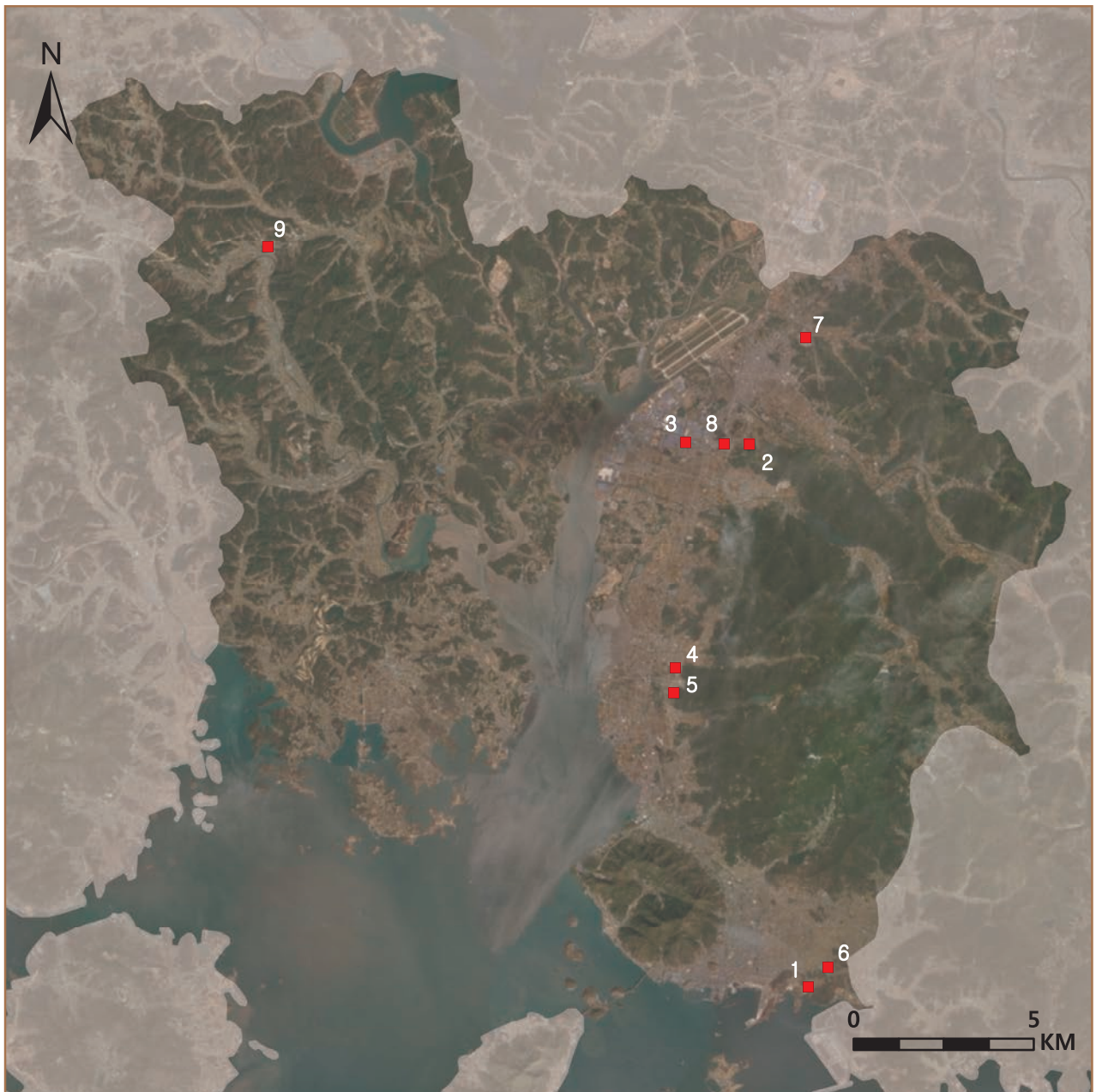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7, 『거제 지세포리 유적-거제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조성부지 내 유적-』.

호, 고성 내산리 8-6곽 등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하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편년 가능하다. 따라서 유적의 전반적인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짧은 시기로 추정된다.

거제 지세포리유적의 삼국시대 유구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거제지역의 삼국시대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6구역 전경

6구역 2호 주거지

6구역 4호 고상건물지

Ⅳ. 사천

01

사천 향촌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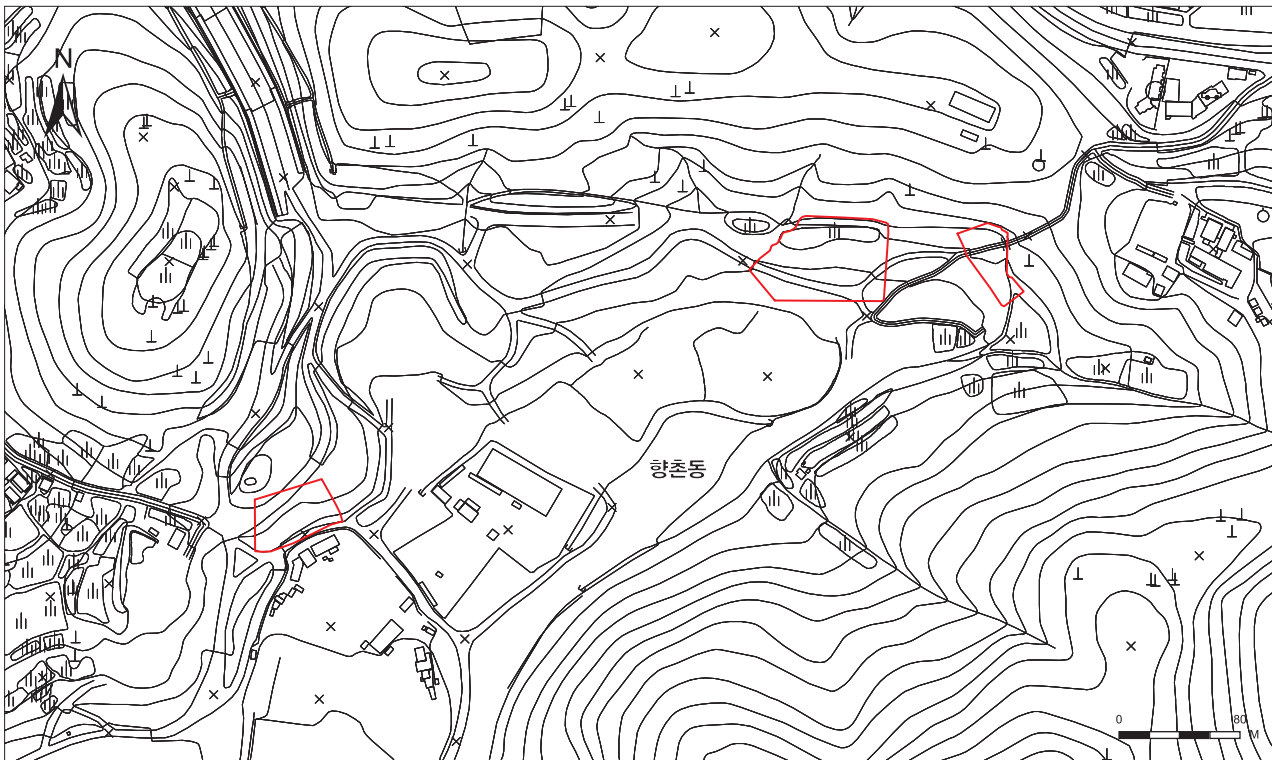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66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9.4.~2009.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대부장경호, 대호, 이
식, 경식

유적은 삼천포항의 동쪽에 위치하며, 해안에서 내륙으로 만입된 곡간부의 배후 구릉 남사면에 입지한다. 주변 지형은 일명 '모랫골'로 불리는 곡간부의 북·동·서쪽 삼면을 저구릉성 산지인 와룡산·백암산·각산이 에워싸고 있으며, 남쪽은 내륙으로 만입된 남해바다와 접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지형 조건 하에서 유적의 남쪽은 남해군의 창선도와 마주하며 작은 해협을 이루는데, 해류를 이용한 근해항로를 개설하는데 용이한 지역이다.

발굴조사는 Ⅰ~Ⅲ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Ⅱ·Ⅲ구역은 사등동고분군의 유적 분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16기, 삼국시대 석실묘 11기·석곽묘 4기·수혈유구 1기, 조선시대 분묘 23기·수혈유구 1기로 청동기시대 이래 분묘 유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 유구는 총 16기이며, Ⅰ구역에서 석실묘 4기·석곽묘 1기, Ⅱ구역에서 석실묘 5기·수혈유구 1기, Ⅲ구역에서 석곽묘 3기, 시굴조사 시 확인된 석실묘 2기가 조사되었다.

유적 위치도

석실묘는 구릉 남사면의 중하위, 또는 경사변환대와 인접한 사면말단부에 축조되었으며, 분포양상에 있어서 사면의 하위나 사면말단부에 군집으로 조영되다가, 이후 사면의 중위에 단독으로 조영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는 석실묘의 경우, 가야 토기를 부장하는 가야계 석실묘와 석실 내부에 석관을 안치한 왜계 석실묘가 일부 확인되며,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 신라 석실묘가 다수 조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해 Ⅰ단계(6세기 중엽), Ⅱ단계(6세기 후엽), Ⅲ단계(7세기 전엽), Ⅳ단계(7세기 중엽), Ⅴ단계(7세기 후엽)로 석실묘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중 Ⅱ-1호 석실묘는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남 서부지역 왜계 석실의 신자료로 당시 일본과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양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야 멸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장이 되면서, 연유도기가 확인되어 신라의 중심지역과 남해안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적의 지리적인 입지와 대외관계를 반영하는 물질자료는 향후 남해안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천지역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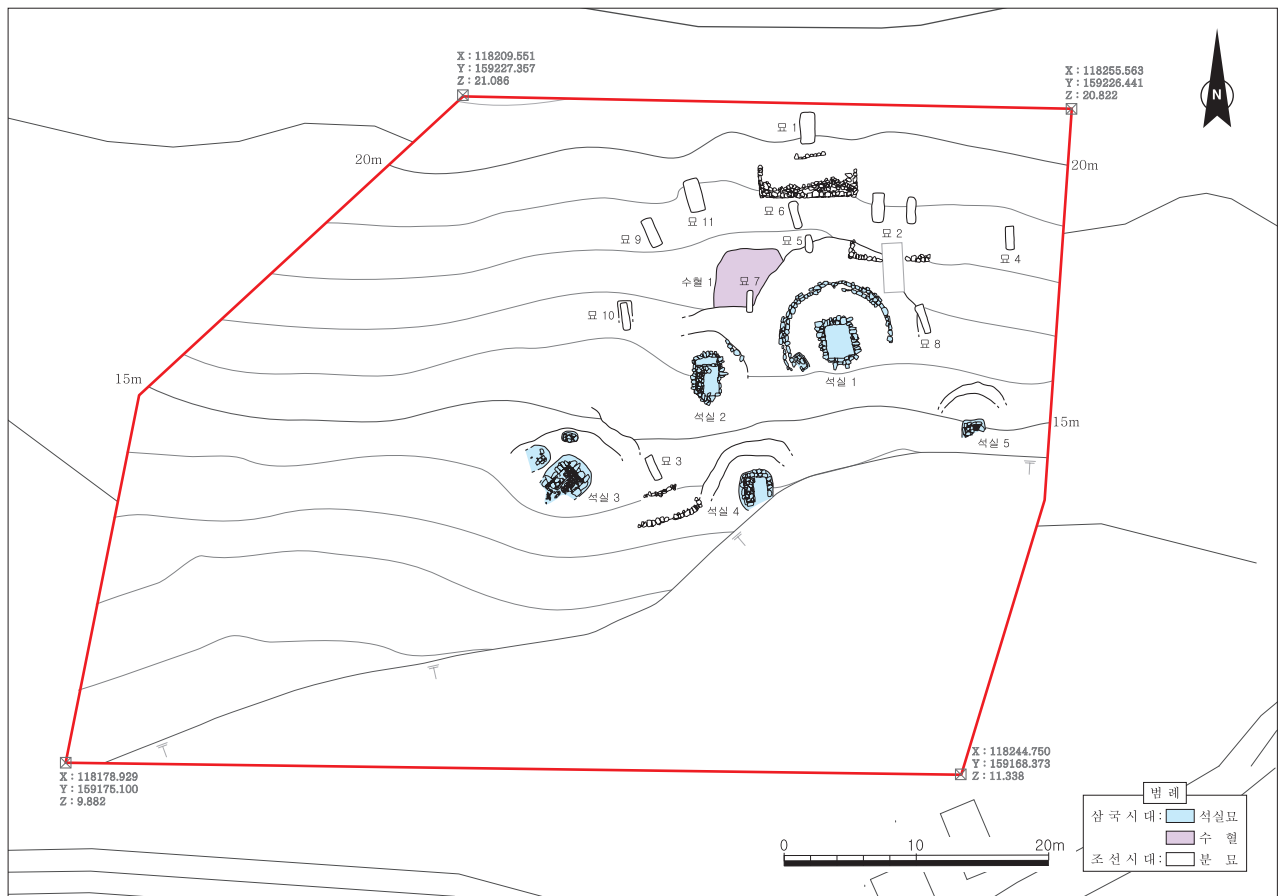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사천 향촌동유적』.

Ⅱ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Ⅱ−1호 석실묘

Ⅱ−3석실묘

Ⅱ−1호 석실묘 구슬·옥류

Ⅱ−1호 석실묘 출토 이식

02 사천 예수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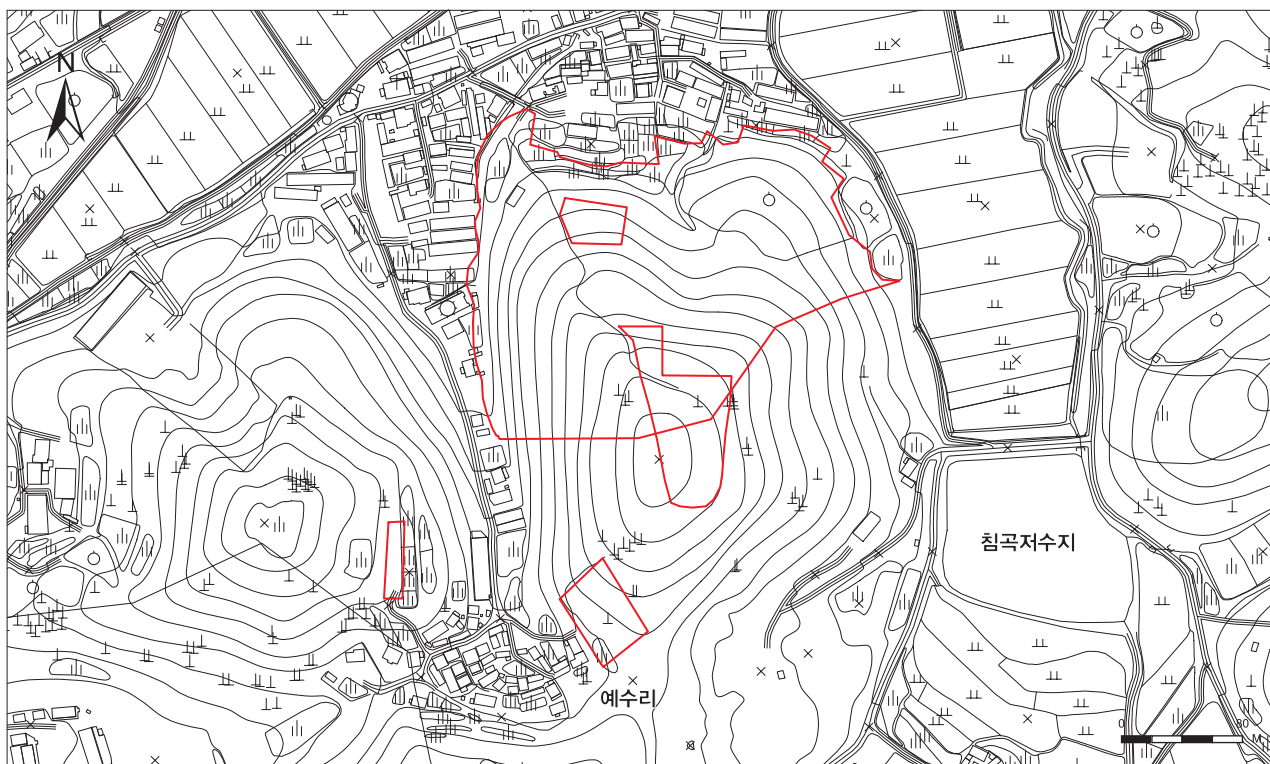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77.12.
삼도문화재연구원 / 1차 2017.5. 2차 2017.5.~2017.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옹관묘 / 고배 장경호, 파배, 이식, 관옥, 곡옥, 방추차

유적은 사천시 정동면의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구산(해발 378.5m)에서 북서쪽 성황당산을 거쳐 이어지는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염광마을의 배후구릉(해발 88.2m)으로 대부분의 유구는 정상부와 북·남쪽 사면에 조성되었다.

해당 지역은 1977년 농지개간 중 삼국시대 석곽묘 수 기가 확인되어, 동년 12월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석곽묘 6기·옹관묘 1기가 조사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삼도문화재연구원에서 예수리고분군이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A~D지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 84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토광묘 1기, 석곽묘 5기, 주거지 35동, 수혈 18기, 함정 4기, 구상유구 6기 등이다.

예수리고분군의 주 묘제는 수혈식석곽묘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벽석을 입수적하거나 판석을 깔아 시상을 축조한 예도 있다. 부장품으로는 광구소호, 고배, 장경호, 단경

유적 위치도

호, 방추차, 이식 등 다양한 유물이 공반 출토되었다. 고배는 1단 장방형 투창의 유개식 고배이며, 개의 손잡이는 단추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개신의 상면에는 점렬문이 시문되어 있다. 보고자는 이러한 출토유물 양상을 통해 석곽묘의 조성시기를 6세기대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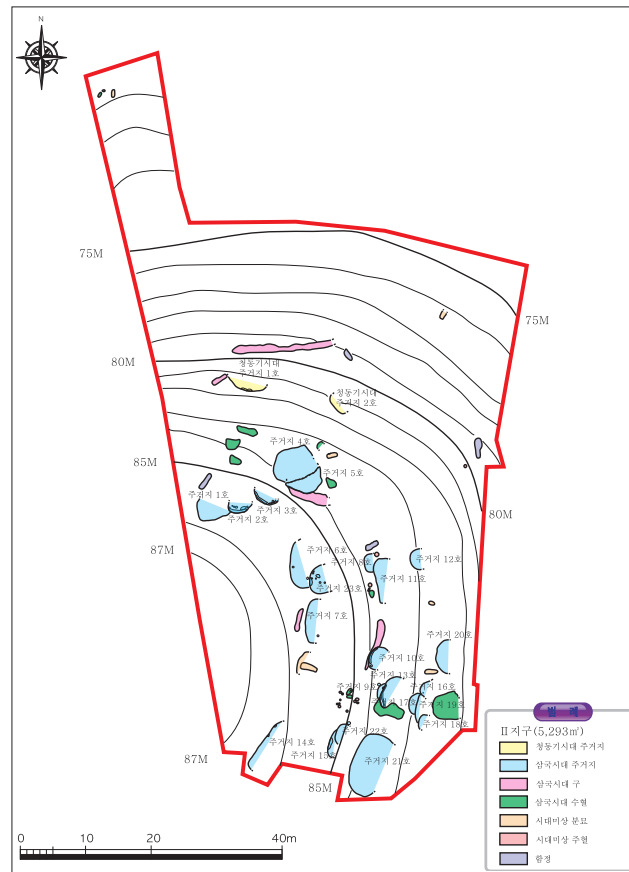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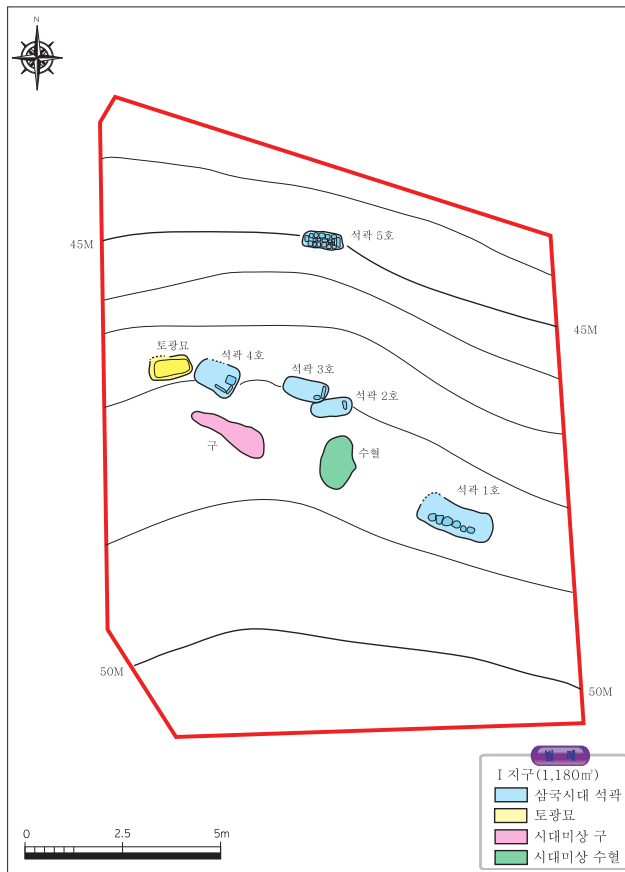
주거지는 해발 60~87m 사이에 조성되었는데, 평면형태가 원형·타원형이며, 사면 하단은 대부분 삭평되었다. 주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며, 바닥면은 점토 등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정지하였다. 내부에서는 평저장동옹과 통형고배, 양이부호 등이 공반 출토되었는데,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천 예수리고분군은 최초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유적의 성격이 추정되었으나, 최근 인접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고지성 취락이 함께 조성된 복합유적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사천만 일대의 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생활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78, 『사천 예수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삼도문화재연구원, 2017, 『사천 예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삼도문화재연구원, 2017, 『사천 예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추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A지구 유구 배치도 · B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5호 석곽묘

4호 주거지

제2호분

제6호분

03 사천 월성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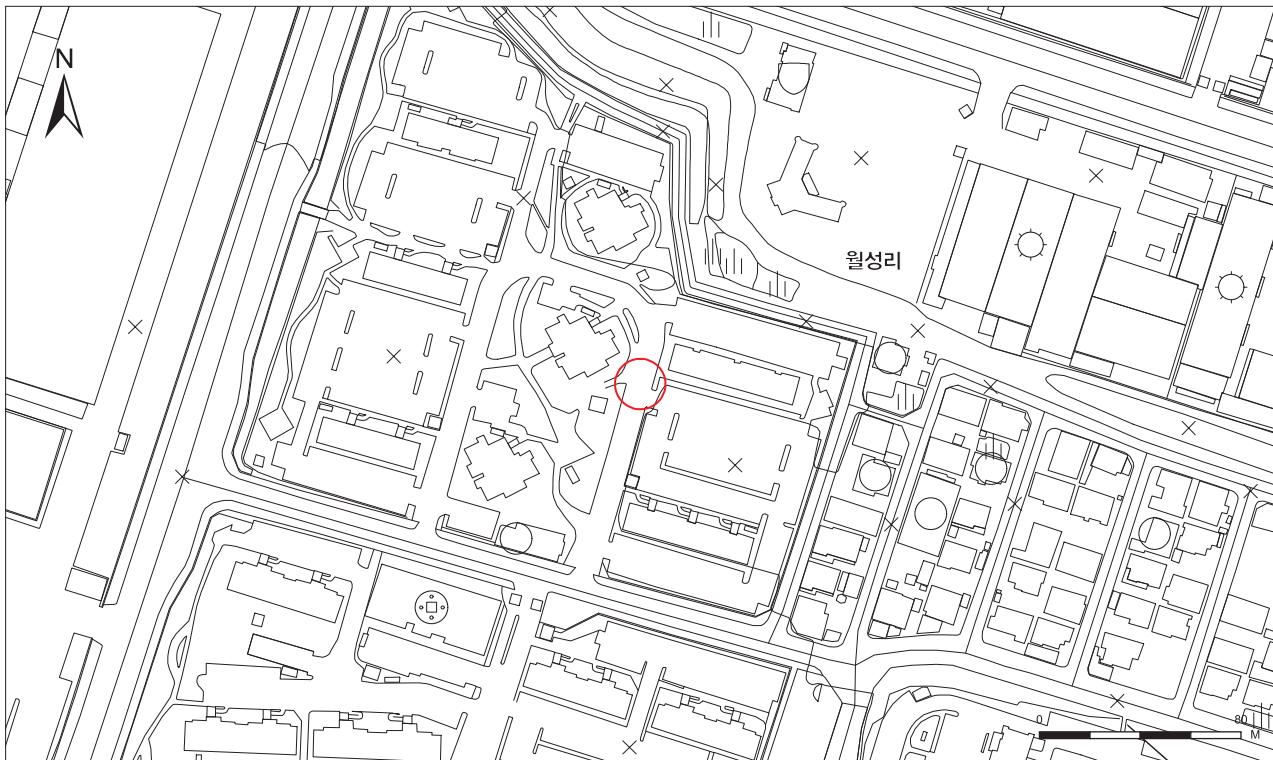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산2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6.4.~1996.7.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고배, 대부장경호, 단경호, 방추차, 관정, 과대식금구

유적은 사천시 사남면 동쪽에 형성된 성황당산(해발 210m)의 서쪽 저구릉지대에 위치하며, 해발 24~30m 사이의 구릉 남사면에 조영되었다. 주변 일대는 조사 당시 초전공동묘지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산업단지 및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된 상태이다.

유구는 총 13기가 조사되었으며, 석실묘 12기, 수혈식석곽묘 1기이다. 석실묘는 1·2·7·8·11호의 경우 연도가 붙은 횡혈식석실묘이며, 나머지는 파괴로 인해 석실의 형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석실의 평면형태 및 구조로 보아 횡혈식 또는 횡구식석실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식석곽묘(8-1호)는 8호분의 배묘이며, 내부에는 연질의 합구옹과 연질의 취풍관형의 토기가 안치되어 있다.

보고자는 본 고분군에서 서부경남의 가야시대 후기에 속하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신라후기양식에 속하는 자료만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4호분 주구 출토 개를 제외하면 문양을 찍어서 시문한 토기도 없기 때문에 신라후기양식 토기 중에서도 비교

유적 위치도

적 이른 시기인 6세기 후반대가 중심 연대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석실묘의 호석은 모두 원형이며, 1·2·6호를 제외하면 모두 주구를 가지고 있다. 주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사행위가 확인되는데, 토기를 파쇄하여 주구 내에 산포시키거나 토기를 안치한 것(3·4·5·8·10·11·12호), 납작한 할석이나 천석을 이용하여 호석에 붙여서 주구의 바닥에 제단시설을 만든 것(3·4·8·11호) 등이다. 제단은 대부분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거나 부정형인데, 조사된 유구 중 규모가 가장 큰 2호에서 확인된 제단은 정연한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석실은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대부분 내부에 높이 30㎝ 이상의 고시상들이 연도와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는 연도와 평행되게 설치되거나 시상에 붙여서 바닥에 자갈을 한 벌 깐 경우도 있다. 연도는 짧으며, 양수식은 보이지 않고, 좌 또는 우편수식이며, 석실 자체가 약간의 수혈을 파서 축조하였기 때문에 연도는 석실보다 1단 높게 축조되었다. 현문부에는 큰 할석을 이용하여 문지방석을 만들고, 그 위에 할석을 쌓아 폐쇄시켰는데, 문지방석 위와 연도 내에서도 토기들이 발견되는 양상으로 보아 현실 폐쇄 시 제사행위가 일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석실묘는 추가장이 2~4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석실 내에서 발견된 토기들이 큰 시기차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기에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사천 월성리 고분군』.

유적 전경

8호분

1호분

11호분

8호분 유물 출토모습

토기류

04

사천 용현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8.5.~ 2009.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개, 고배, 완, 대부장경호, 단경호, 파배, 병, 직구호

유적은 진주-삼천포간 국도 3호선 동편에 위치하며, 와룡산(해발 797.7m)에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북쪽과 남쪽은 해발 42~43m 정도, 동쪽은 해발 60m 정도의 저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인 형태이고, 사천만을 향한 서사면쪽은 소곡부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사천 용현 택지개발사업구간 조성부지 내 유적 중 C구간에 해당하는데, 발굴조사 결과, Ⅰ~Ⅲ지구에서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 267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Ⅰ지구에서 54기가 조사되었으며, 석실묘 44기·석곽묘 3기·석관묘 6기·옹관묘 1기 등이다.

삼국시대 분묘는 Ⅰ지구 구릉 북사면에 집중 조성되었는데, 중앙 곡부를 중심으로 서쪽 구릉에 28기, 동쪽 구릉에 18기가 군집 분포한다.

수혈식석곽묘는 해발 28~30m 지점에 등고선의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평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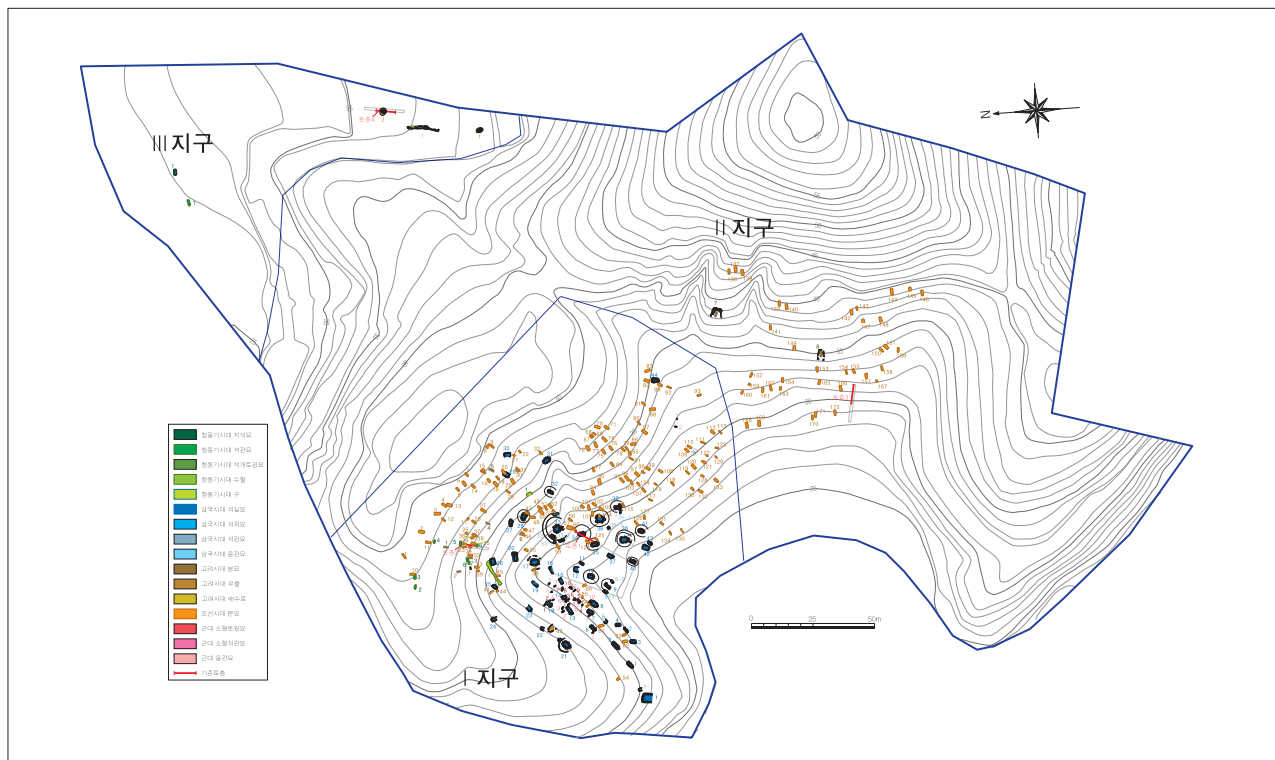
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유물은 소가야양식의 광구호, 컵형토기, 대부직구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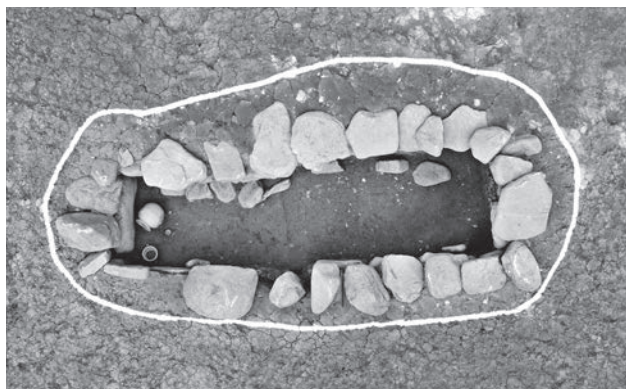
횡구식석실묘는 해발 31m 이상의 구릉 상부와 구릉사면, 말단부에 조성되었는데, 대부분 묘도가 짧고, 묘도부에서 석실 내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배묘는 수혈식석관묘 8기, 옹관묘 2기가 조사되었으며, 주축방향은 등고선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주묘의 주축방향과 동일하거나 주묘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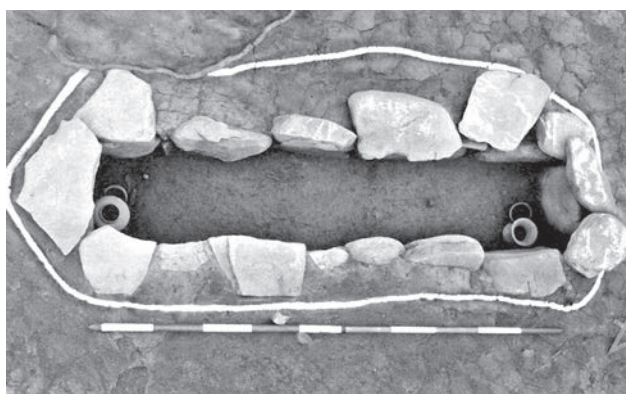
보고자는 이와 같은 양상을 토대로 삼국시대 분묘의 전개 양상을 Ⅰ~Ⅲ기로 구분하였는데, Ⅰ기는 하한연대가 6세기 2/4분기로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묘와 세장방형의 횡구식석실묘 축조기이며, 수평구연호, 파배, 개배 등 소가야양식 토기와 단각고배,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등의 신라양식 토기가 함께 나타난다. Ⅱ기는 6세기 2/4~3/4분기로, 서쪽 구릉 소곡부를 중심으로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조된 장방형 횡구식석실묘 축조기이며, 단각고배, 대부장경호 및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세환이식 등이 출토된다. Ⅲ기는 6세기 4/4분기로 동쪽 구릉 소곡부와 말단부를 중심으로 장방형과 방형의 횡구식석실묘가 축조되고 구릉 상부에는 등고선과 직교되는 장방형 횡구식석실묘가 구릉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배치되는 시기이다. 유물은 신라양식의 단각고배, 대부완,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함께 종형 개, 인화문토기, 철제·청동제 과대금구가 출토된다.

사천 용현유적은 서부경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세장한 수혈식석곽묘와 방형·장방형 횡구식석실묘가 함께 조사되어 수혈식석곽묘에서 횡구식석실묘 교체기 사천지역의 고분문화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사천 용현유적』.

유구 배치도

33호 석실묘

1호 석곽묘

2호 석곽묘

17호 석실묘

토기류

05 사천 덕곡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0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8.5.~2009.2.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완, 연질토기,
고배, 파수

유적은 사천시 용현면의 남쪽에 위치하며, 와룡산(해발 797.7m)의 서쪽 구릉말단부가 사천선상지로 이어지는 지형 변환점에 입지한다. 북쪽으로는 사천시청, 서쪽에는 부곡마을이 인접하며, 해발 30~40m의 완만한 경사지를 이룬다.

이곳은 사천 용현 택지개발사업구간 조성부지 내 유적 중 D구간에 해당하는데,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지석묘, 수혈, 노지, 주혈군, 석설묘 등 2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로는 석실묘 6기가 조사되었는데, D1지구에서 4기, D2지구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석실묘는 D1지구에서는 해발 38~40m, D2지구에서는 30~31m 사이에 조성되었다. 일부가 횡구식석실묘로 추정될 뿐 대부분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으며, 유물도 완 4점 정도로 출토량이 빈약하다. 보고자는 석실의 구조와 출토 유물을 통해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사천 덕곡리유적』.

사천 덕곡리유적은 소규모 고분유적이지만, 사천지역에서 삼국시대 고분군이 보고된 예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향후 해당 지역의 고분문화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을 기대된다.

유적 전경

D1-1호 석실묘

D1-4호 횡구식석실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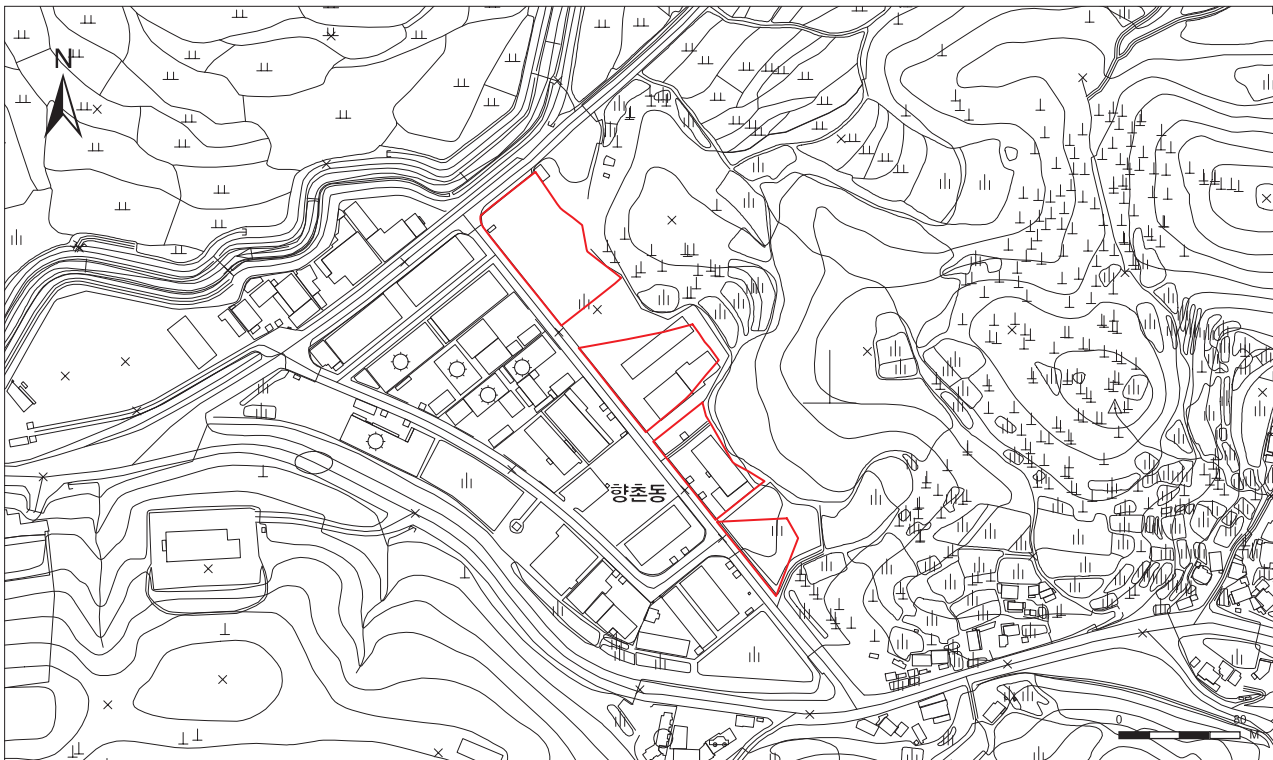
06 사천 향촌동 61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6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1.2.~2011.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건물지, 우물, 주혈,
/ 대부완, 옹, 완, 대각,
호, 병, 지석, 연질토기,
고배, 파수

유적은 삼천포항과 고성군 하이면을 연결하는 국도(남일로)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고성군 봉암산에서 남해로 남류하는 봉현천의 서쪽 구릉 남서사면에 입지한다. 주변 지형은 저구릉성 산지가 유적의 동·남쪽을 에워싸고 있는데, 구릉 사이는 비교적 평탄한 곡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삼천포 방향으로 충적지가 넓게 이어진다. 유적 남쪽의 낮은 구릉을 지나면 남해로 이어지며, 해류를 이용한 근해항로를 개설하는데 용이한 지역이다.

유적에 대한 조사는 1~4구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1·3구역은 수습조사, 2·4구역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지상식건물지 2기, 주거지 3기, 수혈 5기, 소성유구 1기, 우물 1기, 주혈 189기로 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유물은 무문토기 편을 비롯하여, 단경호, 호, 발, 대부완, 완, 병, 옹, 고배, 기대, 대각, 시루, 파수부토기, 철도자, 불명철기,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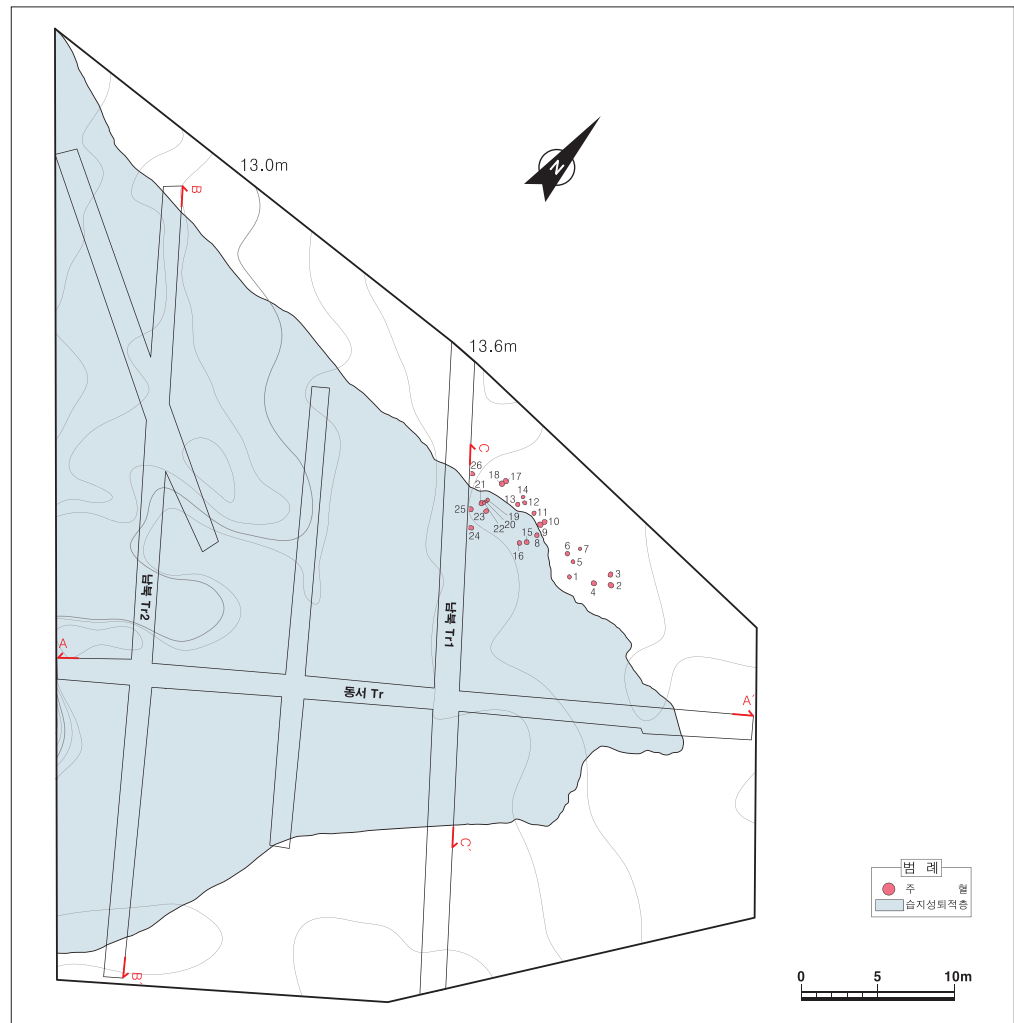
삼국시대 유구는 2구역에는 삼국시대 유물포함층 및 주혈, 3구역에는 지상식건물지 2기, 수혈 5기, 소성유구 1기, 4구역에는 주거지 3기와 우물 1기, 주혈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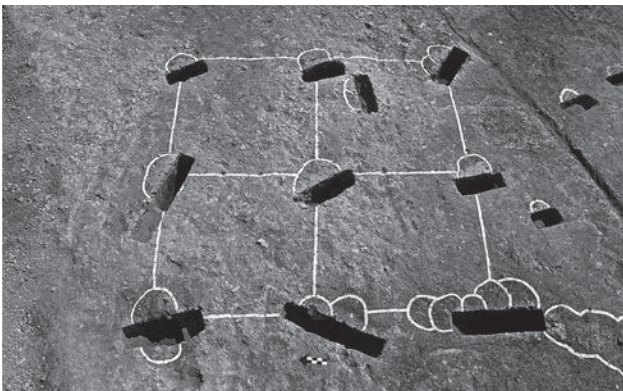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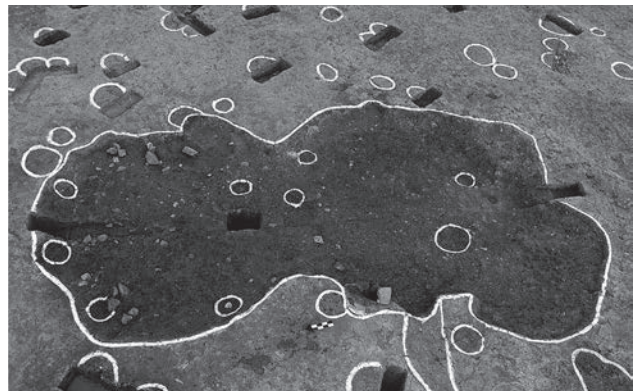
주거지는 3기 모두 원형으로, 장축 350~380㎝, 단축 310~335㎝ 정도이며, 1·2호 내부에서는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지상식건물지는 2기 모두 방형으로, 2칸×2칸 구조이며, 주칸거리는 정면 120~140㎝, 측면 105~120㎝ 정도이다. 우물은 평면 원형, 단면 상광하협형이며, 규모는 외경 193㎝, 내경 93㎝, 깊이 190㎝이다.

유적 내 유구의 배치양상을 보면 가장 남쪽에 주거성격의 주거지가 집중되며, 중앙에 수혈 및 소성유구, 북쪽에 지상식건물지가 확인되는데, 보고자는 이를 통해 당시 삼국시대 취락의 의도적인 공간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사지역이 삼한시대 한중일 교역의 교차로 역할을 한 늑도유적이 근접하는 등 해안과 가까운 지역임을 감안할 때, 당시 해안교역과 관련된 성격의 취락 유적이었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사천 향촌동 61번지 유적』.

2구역 유구 배치도

3구역 전경

3구역 1호 지상식건물지

3구역 1호 수혈

1호 수혈 출토 토기류

2호 수혈 출토 토기류

07

사천 구암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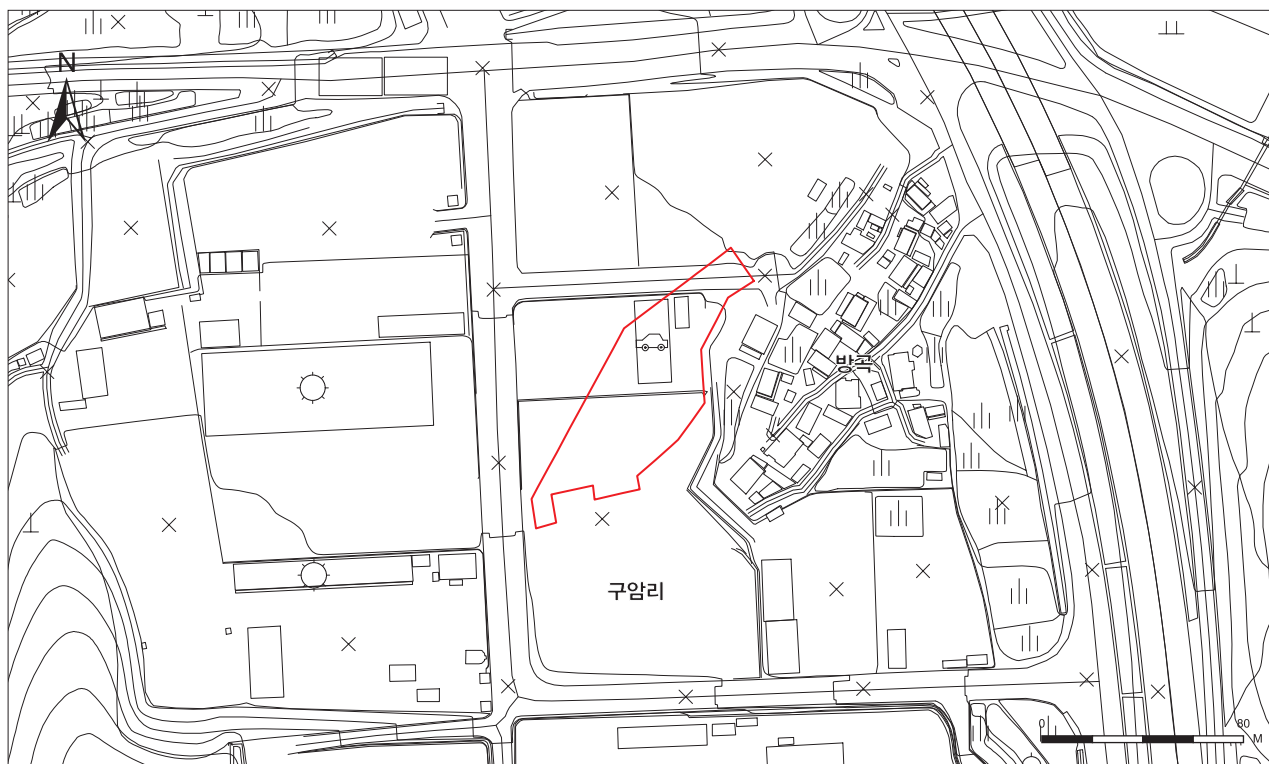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18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1.9.~2011.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구상유구 /
연질옹

유적은 사천시 사천읍의 동쪽에 형성된 귀룡산(해발 351.9m)의 서쪽 저구릉지대에 위치하며, 해발 30~40m 사이의 구릉 사면 말단부 및 곡부에 입지한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저구릉성 산지가 이어지며, 북쪽은 배춘천이 서쪽으로 흘러 사천강과 합류하여 사천만으로 유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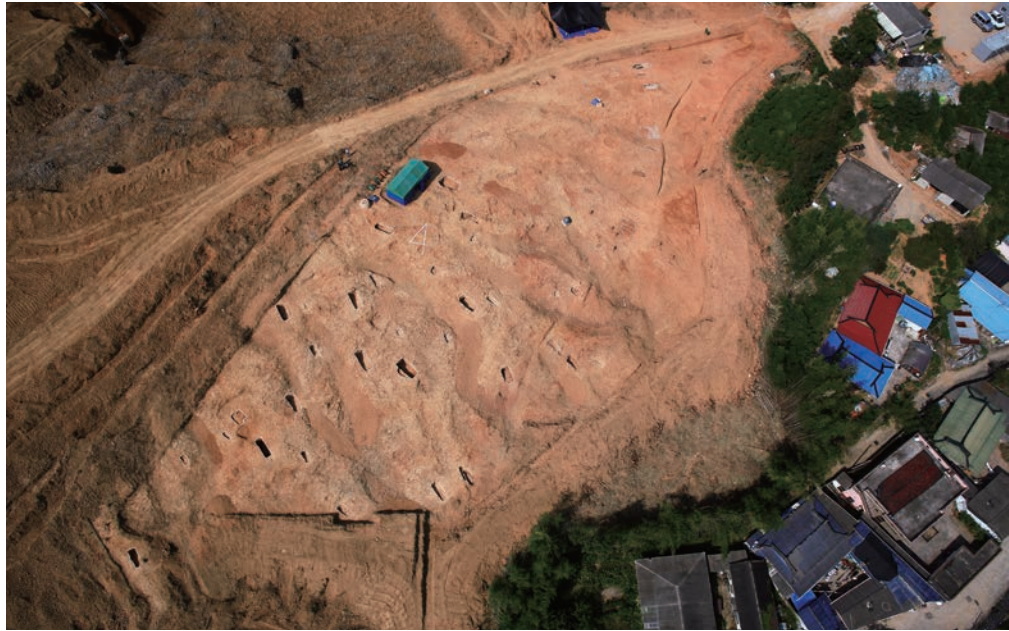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주거지 1동·구상유구 1기, 고려시대 목관묘 1기, 조선시대 회곽묘 4기·목관묘 42기·옹관묘 1기·직장묘 3기, 시대미상 석관묘 2기·수혈 1기 등 모두 57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동쪽 해발 31.4m 지점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정확한 평면형태는 잔존 양상으로 보아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후대에 조성된 삼국시대 구상유구에 의해 주거지 일부가 파괴되었다.

유적 위치도

주거지의 벽면은 기반암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황갈색풍화암의 요철을 다듬어 전체적으로 수평을 맞추고 있다. 잔존규모는 길이 230㎝, 너비 114㎝, 깊이 10㎝이다.

유물은 연질옹 및 연질토기 편, 와질토기 편 등 10점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서벽 주변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3, 『사천 구암리 유적』.

유적 원경

1호 주거지

08

사천 월성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5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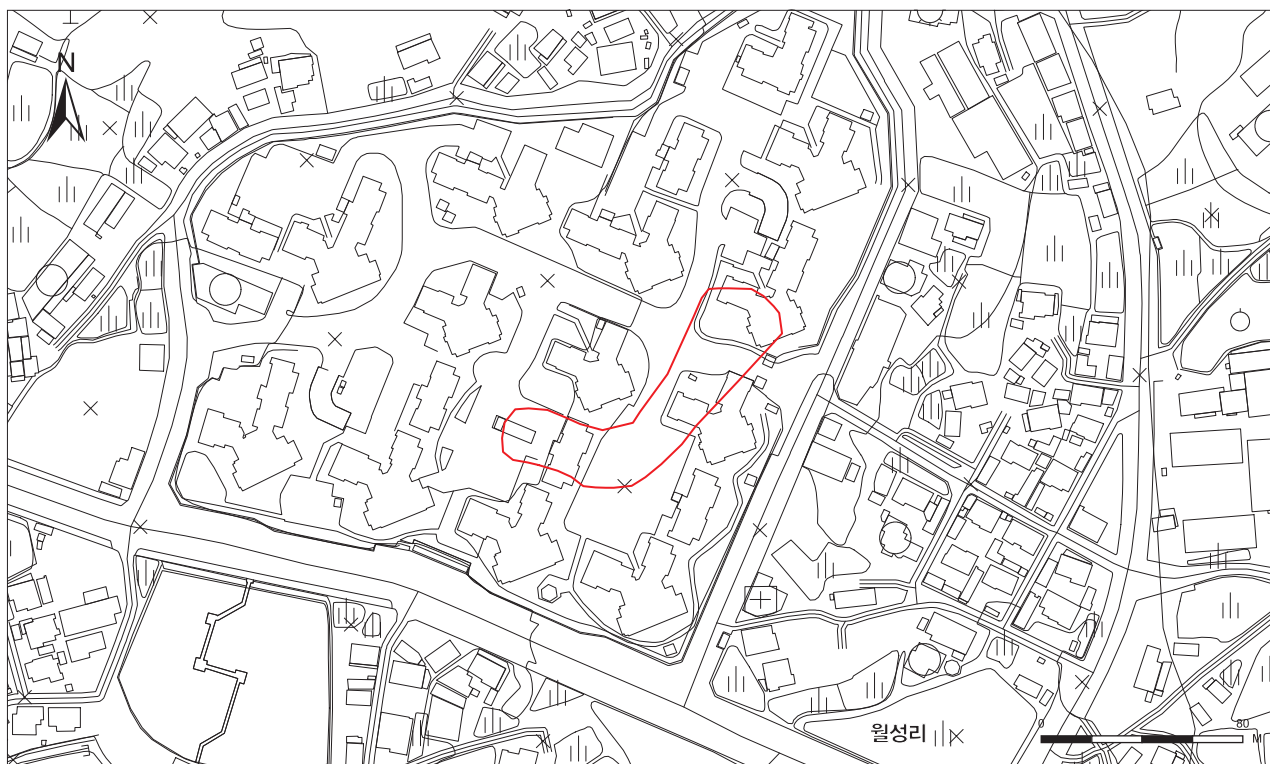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7.11.~2008.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목곽묘 / 고배, 연질발, 연질옹, 파배, 발형기대, 영배

유적은 사천시 정동면의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구산(해발 378.5m)에서 북서쪽 성황당산을 거쳐 이어지는 침식성저구릉의 서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동쪽에는 자연촌락인 지내마을이 연접하며, 북서쪽과 남동쪽으로는 각각 염광마을과 곡성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의 무덤 5기, 삼국시대 주거지 24기·수혈 12기·목곽묘 1기·구 2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53기 등 모두 6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능선 및 서사면 해발 33~44m 사이에 위치하는데, 조사구역 남쪽의 서사면에 집중 조성되었다. 이곳은 구릉 능선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면으로, 취락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위를 조망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은 타원형이며, 내부시설로는 벽구와 벽주, 구들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벽주는 주거지의 벽을 1/2~1/3 정도 굴착하여 설치하였고, 벽구는 폭 10~30㎝ 정도이다. 구들은 주거지 벽면 주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상부 구조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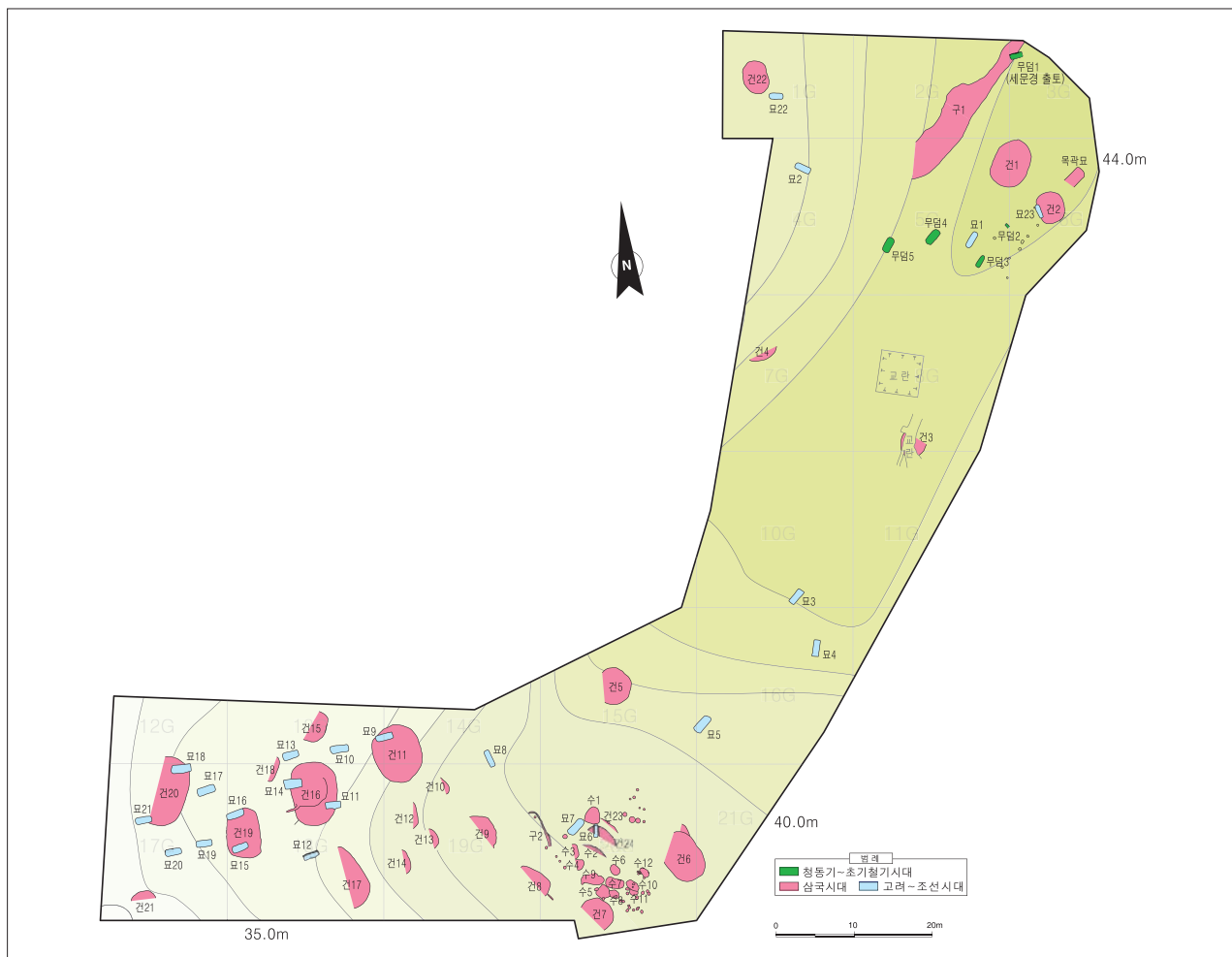
물이 함몰되어 명확한 양상이 파악되지 않는다. 본 유적 내 주거지의 특징은 화재주거지가 많으며, 주거지 간 상호 중복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유물은 고배, 장동옹, 시루, 컵형토기, 단경호, 발, 갈판, 지석 등 생활토기가 다수이며, 곡옥범도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는 구릉 정상부에 1기가 단독으로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며, 후대의 삭평으로 인해 측벽은 모두 결실되고 잔자갈을 이용하여 1벌 깔아 마련한 시상만 잔존하고 있다. 유물은 시상 위에서 영배, 광구소호, 대부파수부호, 호 편, 구슬류 50여 점,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주거지는 4세기~5세기 전반, 목곽묘는 5세기 중엽~후반경으로 시기를 추정하였다.

사천 월성리유적은 인근 예수리고분군 내 삼국시대 취락과 유사한 구릉지에 조성된 마을의 입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천지역 일대의 당시 취락 및 사회구조의 일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사천 월성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1호 수혈건물지

14호 수혈건물지

토기류

장신구류

09 사천 봉계리 삼국시대 집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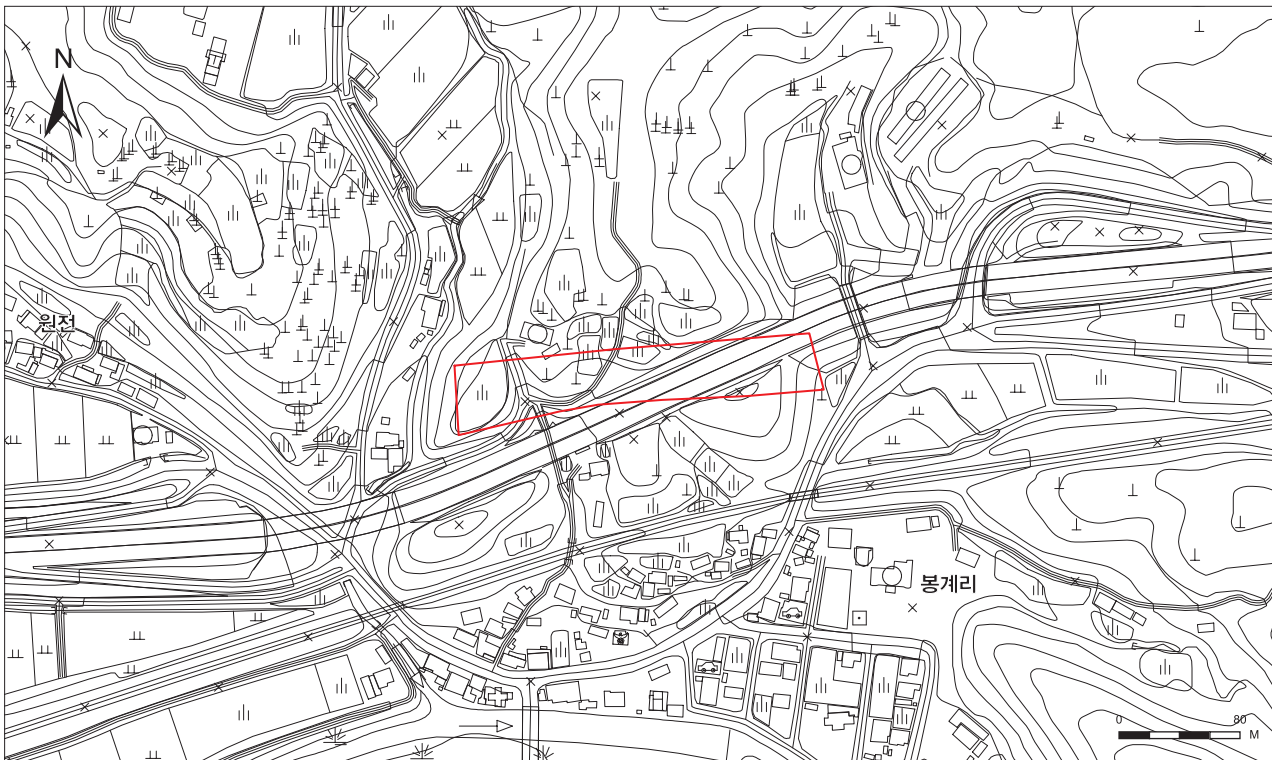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46-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0.4.~2000.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단경호,
파배, 연질호, 연질발,
시루, 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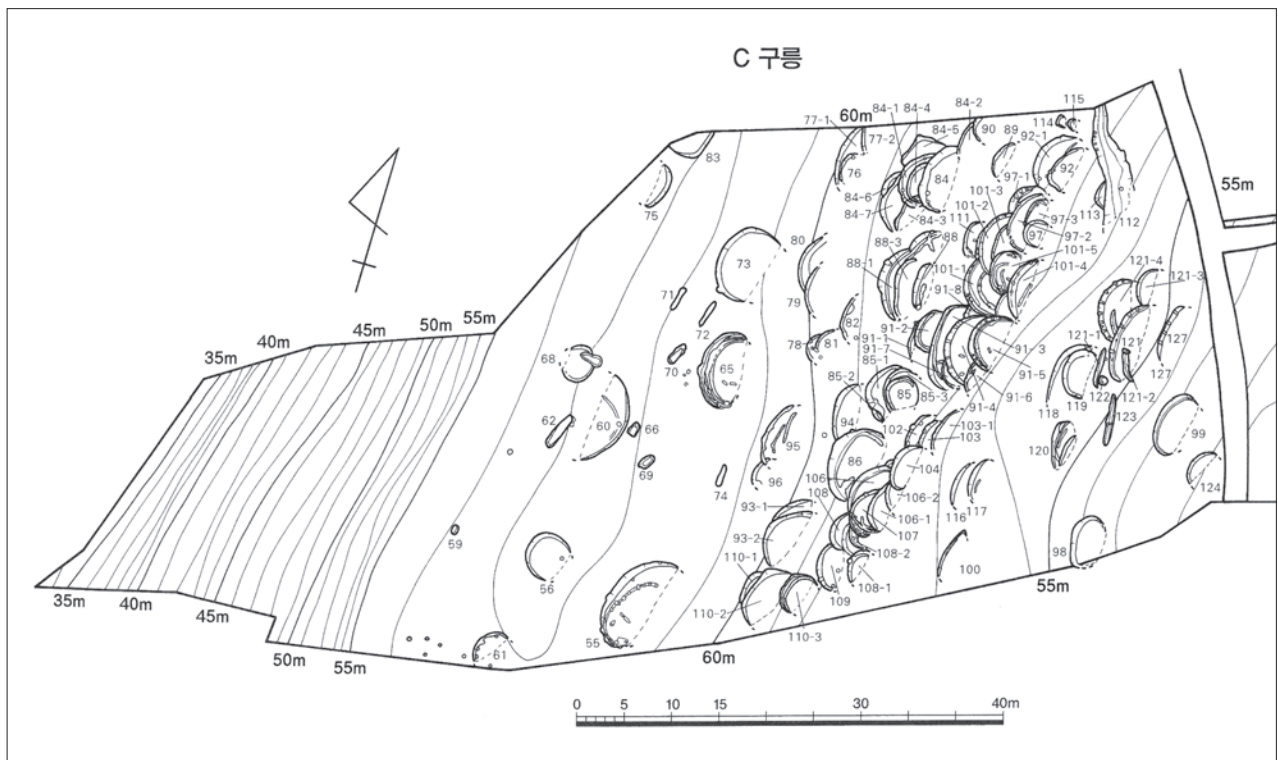
유적은 사천시 곤명면의 남·북쪽에 형성되어 있는 봉명산(해발 407.1m)과 송비산(해발 244.3m) 사이의 곡간 구릉지대에 위치하며, 왕산(해발 61m)에서 남쪽으로 뻗어나오는 세 가닥의 활상구릉에 입지한다. 이곳은 곤명면사무소 소재지의 서쪽에 위치한 원전마을의 뒷 구릉에 해당하는데, 구릉의 동쪽은 진주, 남동쪽은 하동으로 이어지는 곡저평지가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곤양천이 동류하여 사천만과 합류한다.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152동, 토기요 4기, 수혈유구 10기, 구상유구 4기, 고려시대~근대 묘 23기 등 총 19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구릉의 남쪽 사면 해발 50~63m 사이에 위치하는데, B구릉의 서사면과 C구릉의 동사면에서 집중 확인되었다. 이는 A·B구릉의 동사면, C구릉의 서사면이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것에 비해 경사면이 완만하기 때문이다. 특히, C구릉 서사면은 급경사 지점으로 자연 방어의 기능을 가지며, 주위를 조망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유적 위치도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장)타원형, 방형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은 원형과 장타원형(트랙형)이다. 내부시설로는 벽구와 벽주시설, 칸막이 구, 구들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벽구는 폭 15~25㎝이며, 안쪽에는 부분적으로 주제가 설치된 것도 있다. 벽주는 비교적 대형인데, 주거지의 벽을 1/2이나 1/3 정도 굴착하여 설치하였고, 벽구와 동반한다. 칸막이 구는 주거지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였던 흔적으로, 주거지의 장축방향과 직교되게 설치하였고, 규모가 큰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구들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적갈색점질토를 이용하여 터널식으로 만들었는데, 점토를 '∩'자 형으로 만들어 아궁이를 만들고 중앙에 석재이나 토기저부를 엎어 솥받침을 제작하였으며, 판석을 양쪽에 세워 아궁이를 만든 것도 일부 확인된다.

주거지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중복주거지가 많다는 것인데, 최소 2중에서 최대 20중까지 중복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삼국시대 주거지가 집중되는 C구릉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중복 비율이 높다. 중복양상은 폐기된 주거지상부에 다시 주거지를 조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릉의 아래쪽에서 정상부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며, 증(개)축의 흔적도 여러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삼한·삼국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후기 무문토기인 삼각형점토대옹, 무문토기호, 심발, 천발, 파수부발, 와질단경호, 노형토기, 고배, 파배, 도질단경호 등의 토기류와 주조철부, 도자, 철겸 등의 철기류, 석부·석촉 등의 석기류가 있다. 이들 중 토기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철기와 석기는 소량이다.

C구릉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중 연질호, 옹, 발 등에서 특징적으로 표현되는 2단으로 외경하는 구경부의 형태는 인근의 진주 내촌리·평거동, 거창 대야리, 승주 대곡리 도롱·한실주거지 등 서부경남지역과 호남·호서지역의 동시기 유적에서 주로 관찰된다.

보고자는 유적에서 확인된 152동의 주거지와 토기요·수혈 등 삼한·삼국시대의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중심으로 각 유구들의 축조시기를 두 시기로 나누고 있다. Ⅰ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등장 이후부터 도질토기의 등장 시점까지인 와질평행기이며, Ⅱ기는 도질토기 등장기부터 5세기 전반까지이다.

또한, 곡부에서 확인된 4기의 토기요는 후기 무문토기인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등요로서 삼국시대 도질토기 등장 이전에 등요를 이용한 토기 소성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사천 봉계리유적은 구릉지에 조성된 마을의 입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취락의 규모와 공간 활용 등을 통해 당시 취락 및 사회구조의 일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내부 공간 활용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삼한·삼국시대 취락유적의 사회구조와 생활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사천 봉계리 삼국시대 집락』.

유적 원경

c구릉 주거지 중복상태

토기류

Ⅴ. 남해

01 남해 남산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6.3.~2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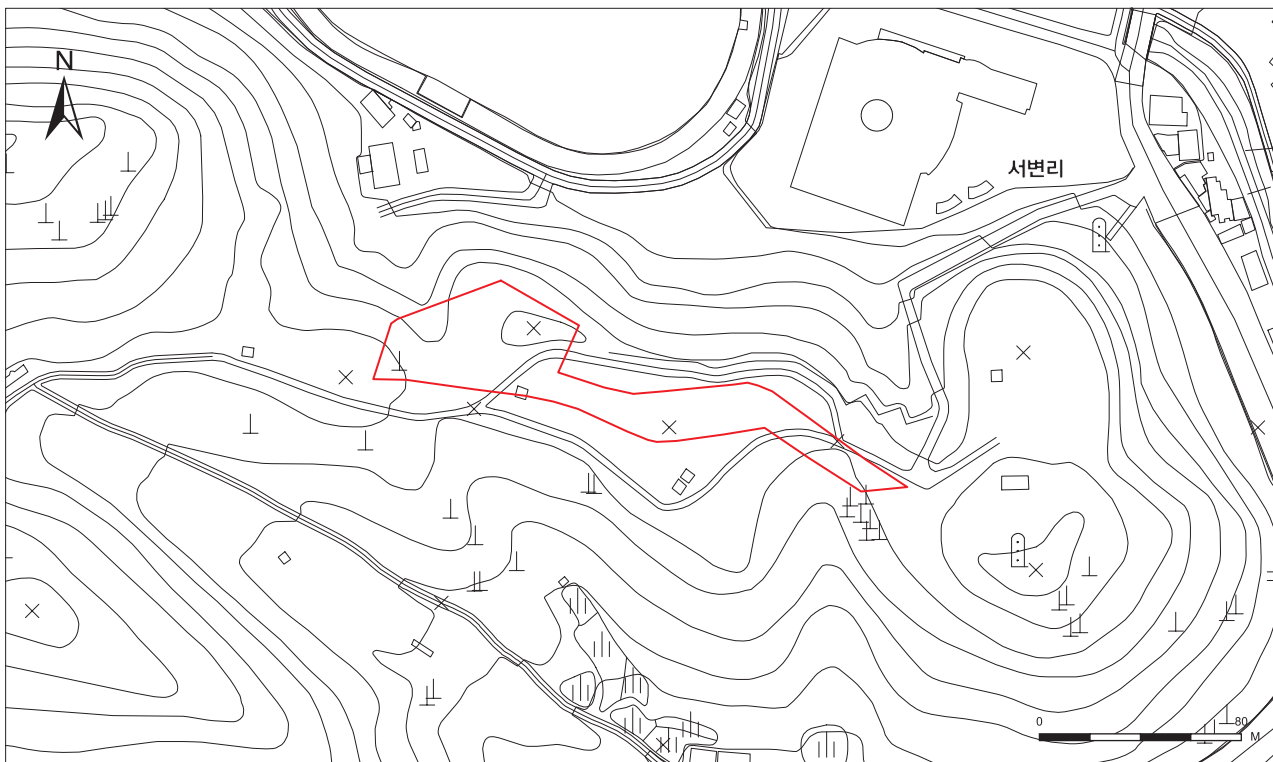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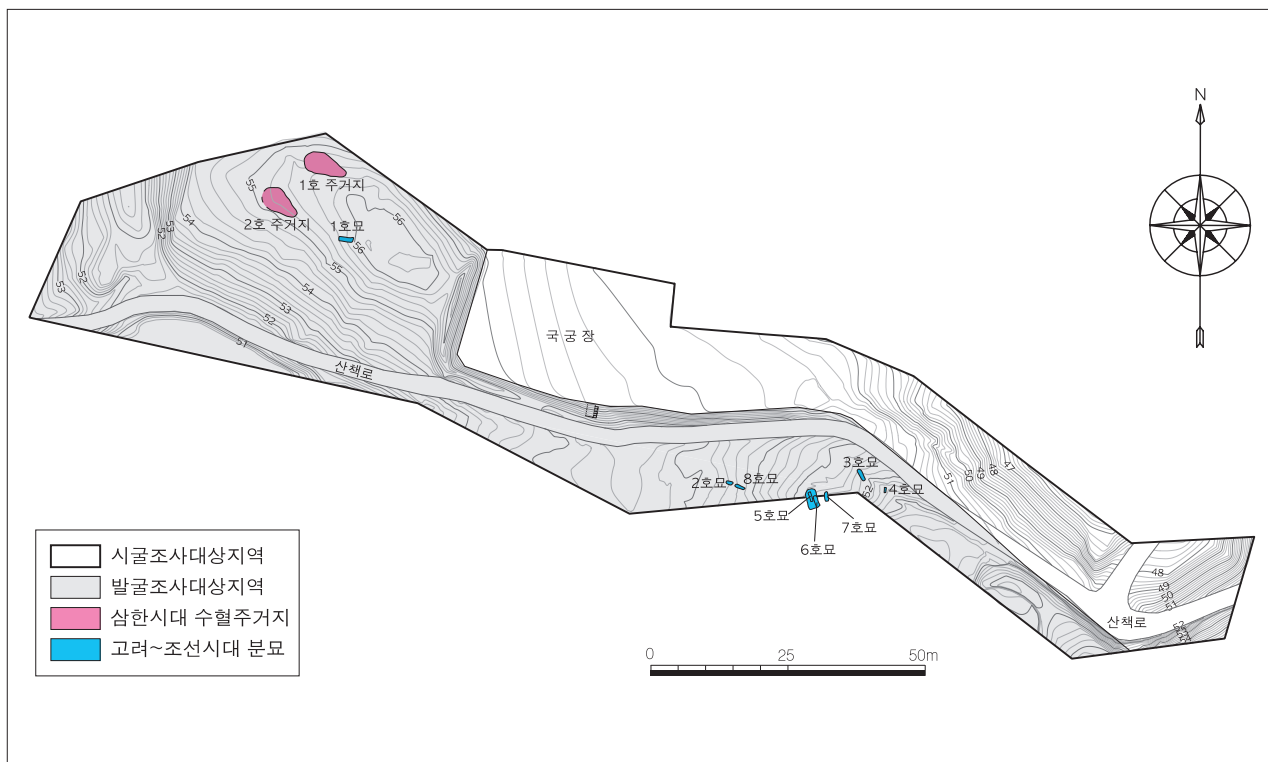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단경호,
시루

조사대상지역은 호두산(해발 238.9m)의 북서쪽 해발고도 약 60~80m 정도의 소규모 독립구릉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삼한시대 주거지 2동, 고려시대 분묘 1기, 조선시대 분묘 7기 등 총 10기가 확인되었다.

삼한시대 유구는 후대 삭평과 교란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나 (타)원형계의 주거지로 추정되며, 내부시설은 주혈과 벽구만 조사되었다. 유물은 연질토기 저부 편 2점, 연질·와질·경질 단경호 구연부 3점, 시루 편 2점 등 총 7점이 출토되었다. 유구가 삼한시대 서부경남지역의 뚜렷한 지역성을 나타내는 타원형계 주거지인 점, 주거지 내에서 격자문·승석문이 타날되어 있는 연질·와질·경질 단경호와 사천 봉계리·거창 대야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시루가 출토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해 남산유적의 삼한시대 유구는 3세기 후반대에 조성된 주거지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남해 남산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2호 주거지

1호 주거지

출토유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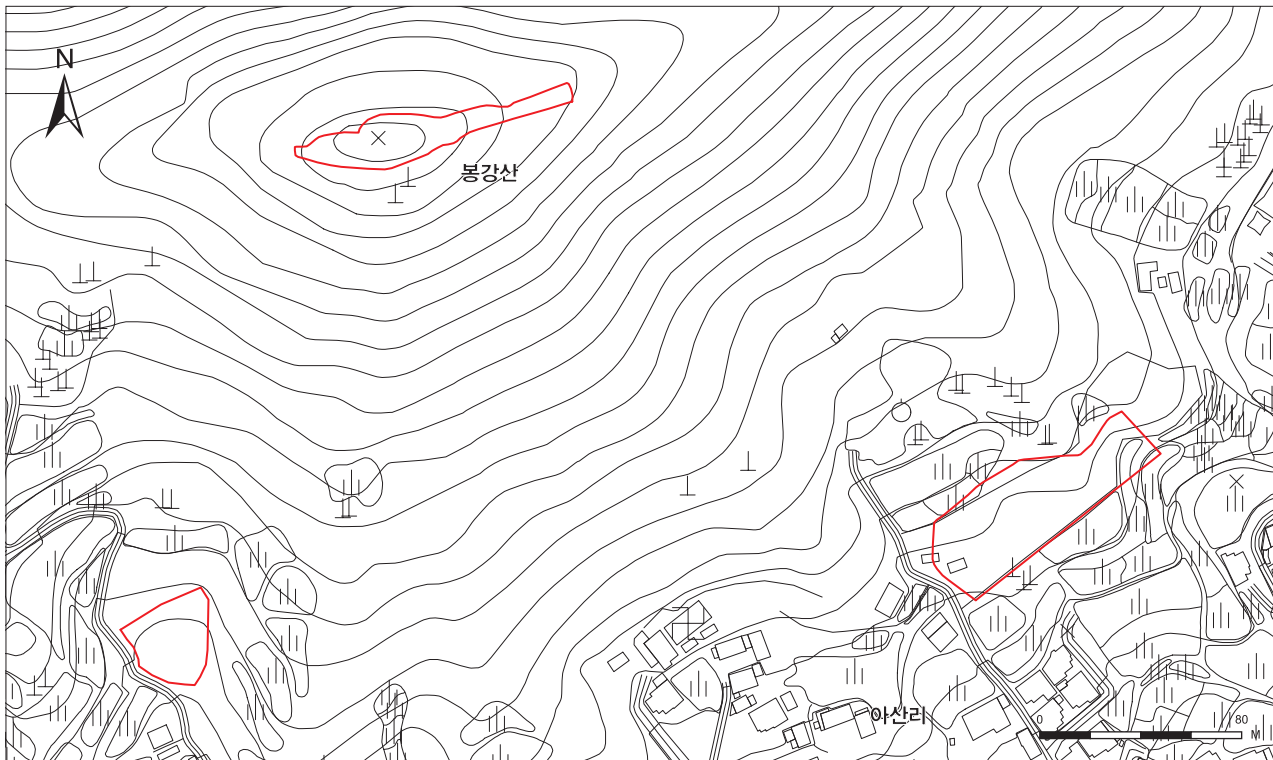
남해 봉황산유적 _ 남해 봉황산 나래숲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7·247·3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문물연구원 /
2015.3.~2015.7.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유구 /
소옹, 철겸

유적은 남해도의 동북쪽에 해안에 위치한 남해읍 중앙의 봉황산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남해읍은 북쪽·서쪽·남쪽이 섬 중앙의 고봉에서 분기된 지맥들로 둘러싸이고, 동쪽은 해안선에 맞닿은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유적이 위치한 봉황산은 저산성 구릉지 중앙에 자리잡은 독립구릉(해발 169m)으로, 정상부에서는 읍 전체와 동쪽 연안까지 조망이 가능하며, 평지에서 산정을 바라볼 때는 사방 어디에서나 산정이 우러러 보이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읍 내 전반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경사진 저산성 구릉지로, 봉황산의 동쪽·남동쪽에는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고, 북쪽·서쪽·남서쪽에는 대부분 계단식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북사면 말단부 직하에는 오동저수지가 조성되어 있어 과거에도 가경지와 용수 확보에 유리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조사지역은 봉황산(해발 169m) 정상부 일대(1구간 1,268㎡), 봉황산 남동쪽 사면 구릉 말단부의 완경사지 일대(2구간 2,782㎡), 봉황산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유적 위치도

설상구릉 동편의 곡간지 일대(3구간 1,114㎡) 등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된 구간은 2구간으로 조사구역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전장 약 90m, 너비 최대 34m 정도이고, 해발고도 58~63m 정도이다. 조사구역 중앙의 소곡부를 중심으로 계단상의 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13기가 조사되었으며 모두 황갈색 풍화암반토 상에서 확인되었다. 유구 배치상태는 중앙 남쪽에 삼국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분포하고, 조선시대 유적은 조사지역 전체에 고르게 조성되어 있다.

삼국시대 유구는 자연유실 등의 후대 교란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며 유구의 일부만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북벽 중앙에 짧은 연도가 부가된 부뚜막, 벽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 내 출토 유물은 소옹, 철겸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사천 봉계리유적이나 진주 안간리유적 등에서 조사된 3~5세기 주거지와 대체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서부경남 일원의 삼한~삼국시대 주거지가 원형→타원형→방형으로 전개되는 일반적인 양상과 출토유물의 시기를 고려할 때, 남해 봉황산 유적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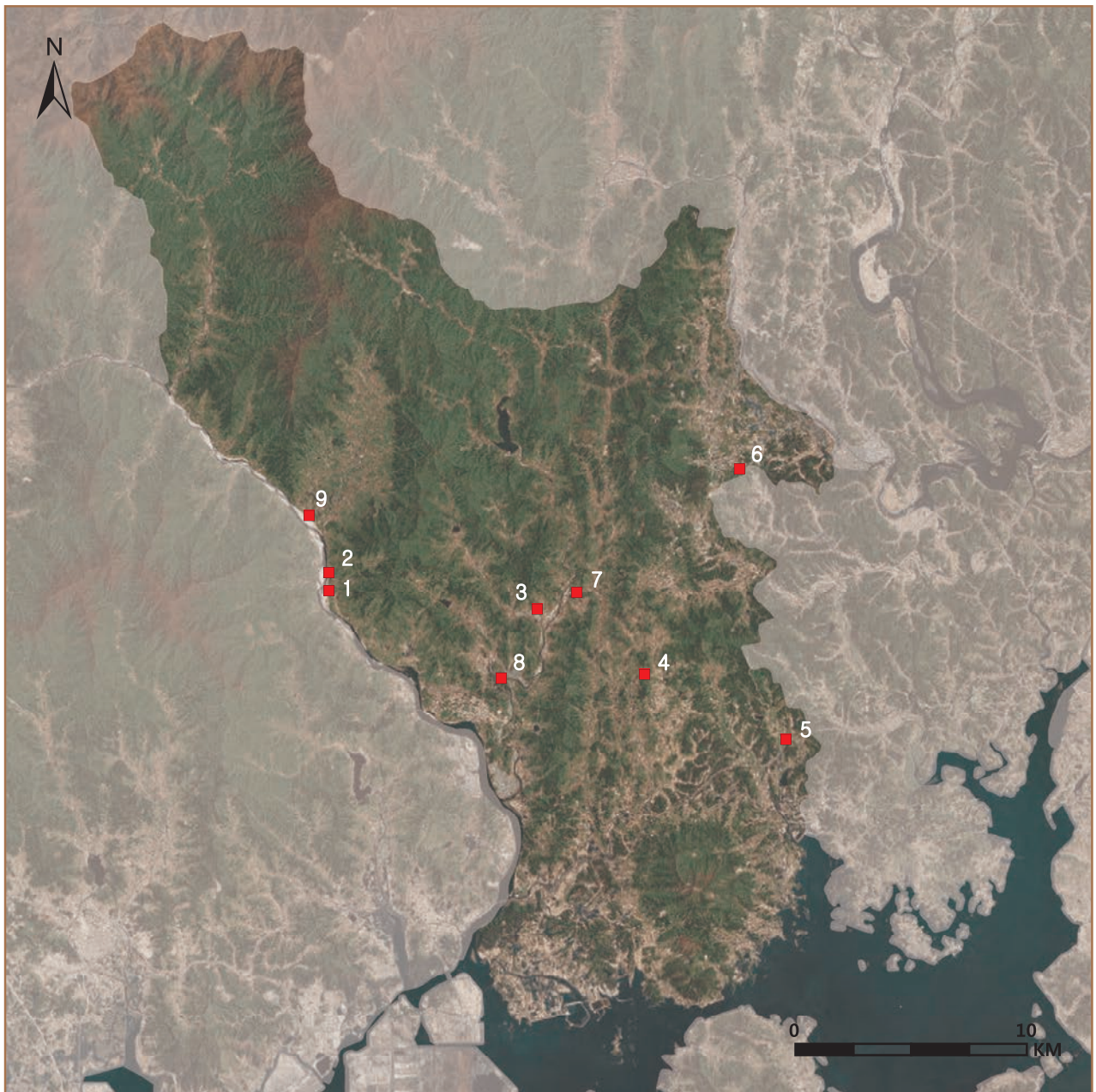
부경문물연구원, 2016, 『남해 봉황산 유적 -남해 봉황산 나래숲 조성부지 내 유적』.

유적 전경

2호 수혈유구

토기류

岳陽
梨山
文殊嶺
玉溪
黃峙
牛山
喜邑
河東
橫浦
車峙
月峙
牛峙
松峙
蟾居
佛岩山
安心山
內方山
湯房山
古邑
金鰲山
良浦
蟾津
船所
海
小沙
加耶
甑山

Ⅵ. 하동

01

하동 흥룡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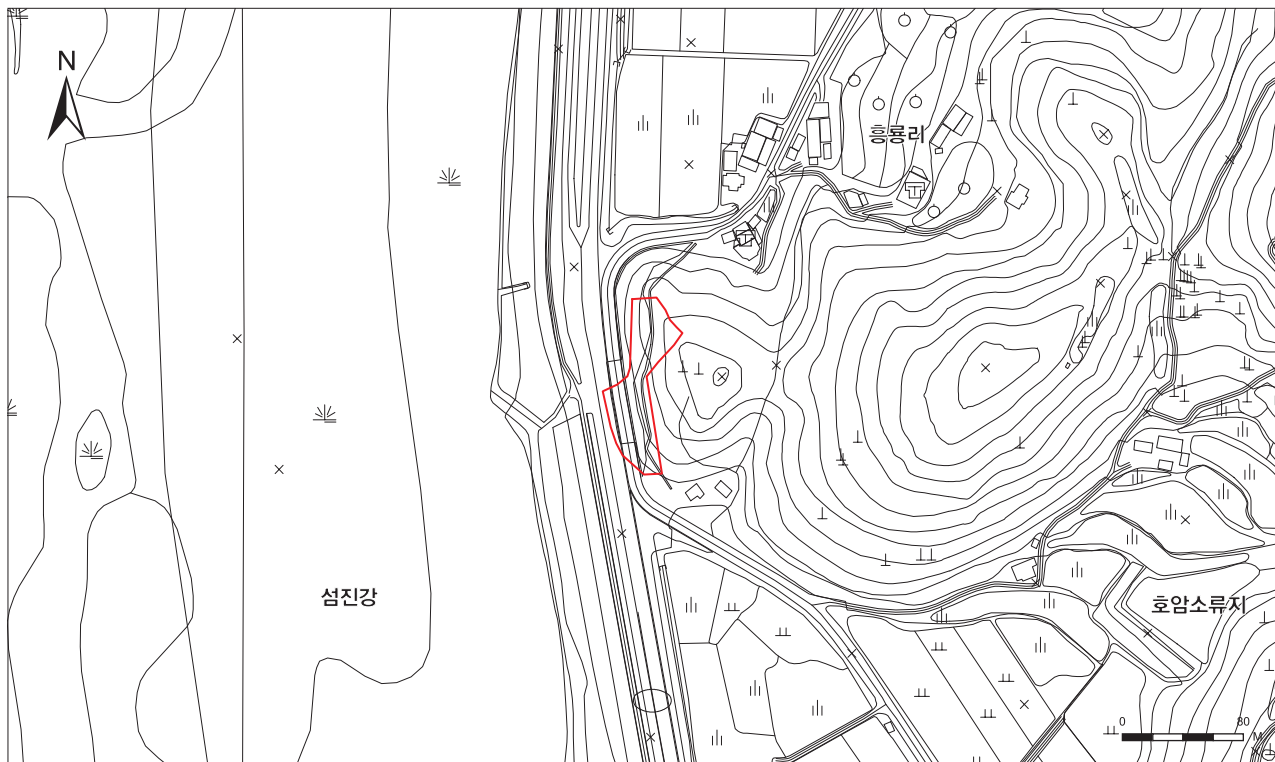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1-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9.11.~ 2010.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장경호,
단경호, 기대

하동군 서부의 흥룡리 흥룡마을 남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분지봉(해발 628m)에서 이어지는 구릉의 서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서쪽으로는 섬진강과 바로 접하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곡간을 개석한 소하천이 섬진강과 합류하며 부분적으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북동쪽으로는 지리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해로 유입되는 섬진강 수계를 통해서 전북 동부지역과 교통하기에 유리한 입지이다.

2009년에 국도 19호선(하동~평사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고분 21기와 조선시대 분묘 15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와 철기, 장신구 등 232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등고선을 따라 정연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경사면 위쪽에 주구를 설치하였다. 매장주체부 1기를 축조한 단독분 16기이며, 다곽분은 5기가 확인된다. 2기의 매장주체부를 나란히 축조한 병렬곽이 3기, 3기의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다곽분이

유적 위치도

2기로 구분된다. 추가로 축조된 석곽은 주곽과 주구 사이에 위치하고 주곽에 비해 규모가 작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250㎝~350㎝, 너비 50㎝~80㎝에 속하고, 추가 석곽은 길이 150㎝~200㎝, 너비 40㎝~60㎝에 속한다. 한편, 20호분과 21호분은 규모와 입지, 부장유물에서 차이가 있다. 20호분은 길이 280㎝, 너비 174㎝로 장방형이며, 소형 석실로 추정된다. 21호분은 길이 250㎝, 너비 100㎝로 길이에 비해 폭이 넓고 바닥에 시상석을 깔고 관을 설치하였다. 유물도 배와 평저광구호 등 백제양식 토기만 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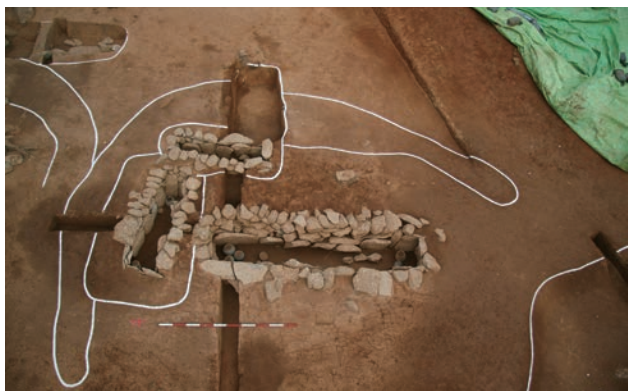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이며, 철기는 철촉, 철겸, 철부 등 농공구에 한정된다. 토기는 재지 토기 91점, 대가야 토기 45점, 백제 토기 11점, 소가야 토기 2점, 신라 토기 1점으로 분류된다. 재지 토기는 단경호, 대부호에서 지역색이 뚜렷이 드러나고, 대가야 토기는 장경호, 대부파수부호가 확인된다.

선행연구에서 하동지역은 소가야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흥룡리고분군에서는 소가야 토기가 거의 부장되지 않고 있다. 소가야 토기를 대신하여 대가야 토기가 다량 유입되는 상황은 섬진강을 통한 대가야 진출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가야 토기는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전엽에 섬진강을 따라 흥룡리고분군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3호묘에서 출토된 신라 토기인 이단교호투창고배는 신부에 시문된 문양으로 보아 경주 월성로 가4호분, 양산 부부총 출토품과 동일한 6세기 초에 해당하며, 다양한 지역 간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하동 흥룡리 고분군』.

유적 전경

유적 근경

3호분

6호분

토기류

02

하동 흥룡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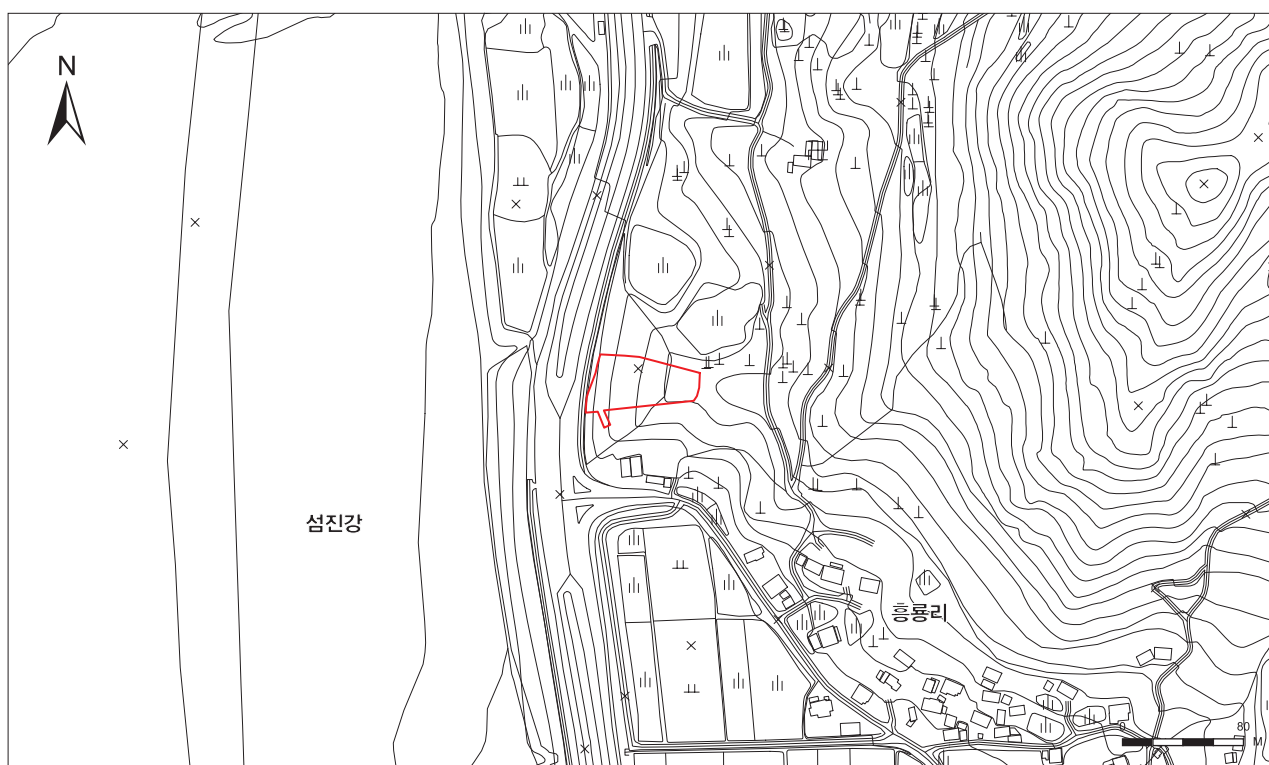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483-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1.8.~ 2011.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유구 /
대부호, 단경호, 파배

하동군 서부의 흥룡리 흥룡마을 북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구재봉(해발 768m)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정선부에 분포한다. 서쪽으로는 섬진강과 바로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산지를 개석한 소하천에 의해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곡간평야의 남쪽으로 약 750m 이격된 거리에 하동 흥룡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남해로 유입되는 섬진강 수계를 통해서 전북 동부지역과 교통하기에 유리한 입지이다.

2011년에 국도 19호선(하동~평사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3기, 수혈유구 2기, 조선시대 분묘 8기, 석렬 1기, 소성유구 1기 등 1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1호묘에서 호 편 1점, 2호묘에서 대부호 1점, 3호묘에서 단경호 1점과 파배 1점 등 4점이 출토되었다.

목곽묘는 구릉 정상부와 서사면에 분포하며, 후대의 삭평으로 인해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규모는 정상부에 가까운 1호와 2호에 비해 3호묘가 큰 편이며, 주축은 대

유적 위치도

체로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 방향으로 3기가 동일하다. 내부층이나 바닥면에서 보강토 등 목관, 목곽의 구조를 판단할 만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아 토광묘인 직장묘로 추정되기도 한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3호묘에서 출토된 승석문호는 구경부가 외반하고, 중하위까지 승석문 타날 후 침선을 두르고, 그 아래는 격자타날을 하였다. 공반되어 출토된 파배는 구경부가 약하게 외반하고,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고 구경보다 더 큰 특징을 하고 있다. 1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파배는 저경과 동최대경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형태이며, 동체부에 돌대를 돌리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도항리 (문)32호묘 출토품과 동단계의 유물로 판단된다. 승석문호와 파배, 그리고 대부호의 기형적 특징으로 볼 때, 4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공백으로 남아 있던 4세기대 하동지역의 고분문화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하동 흥룡리유적』.

유적 전경

1호 수혈

1호 수혈 유물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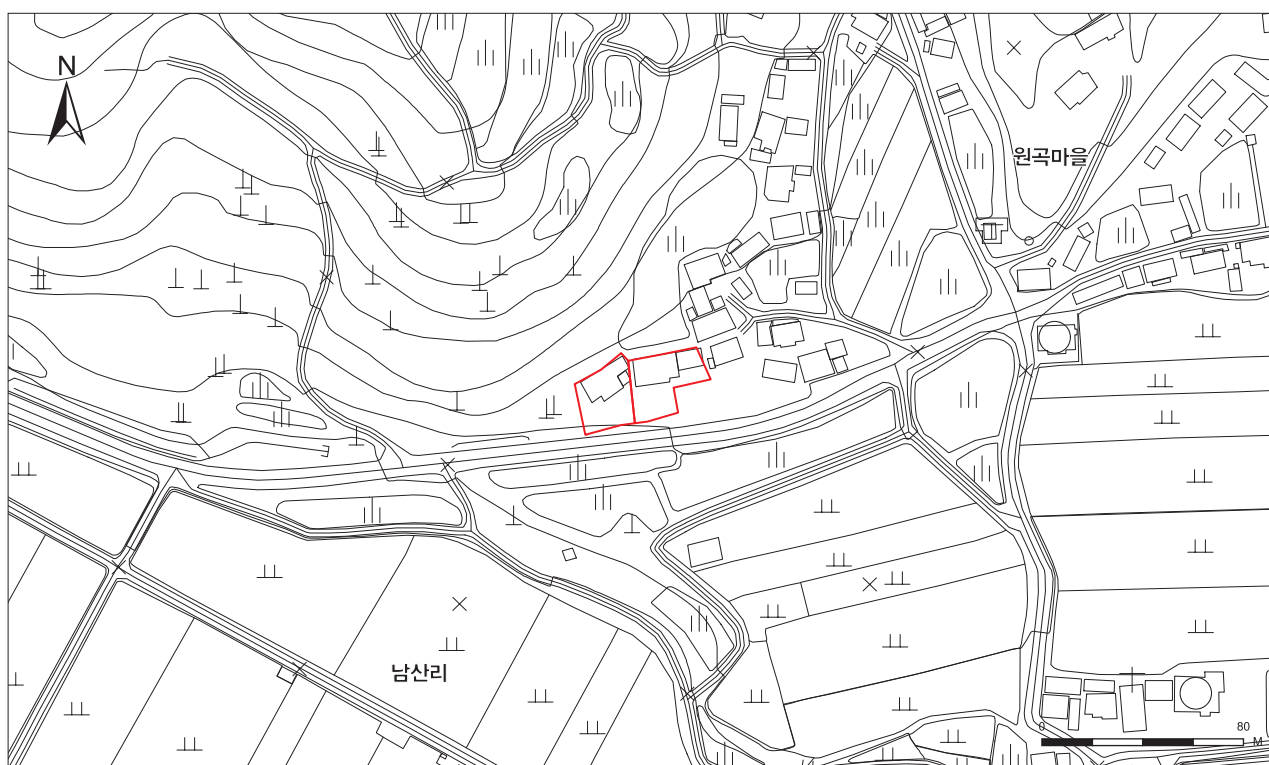
03 하동 남산리 184-9·10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84-9·184-10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2014.7.~2014.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매납유구 / 고배, 장경호, 환두대도, 사행검, 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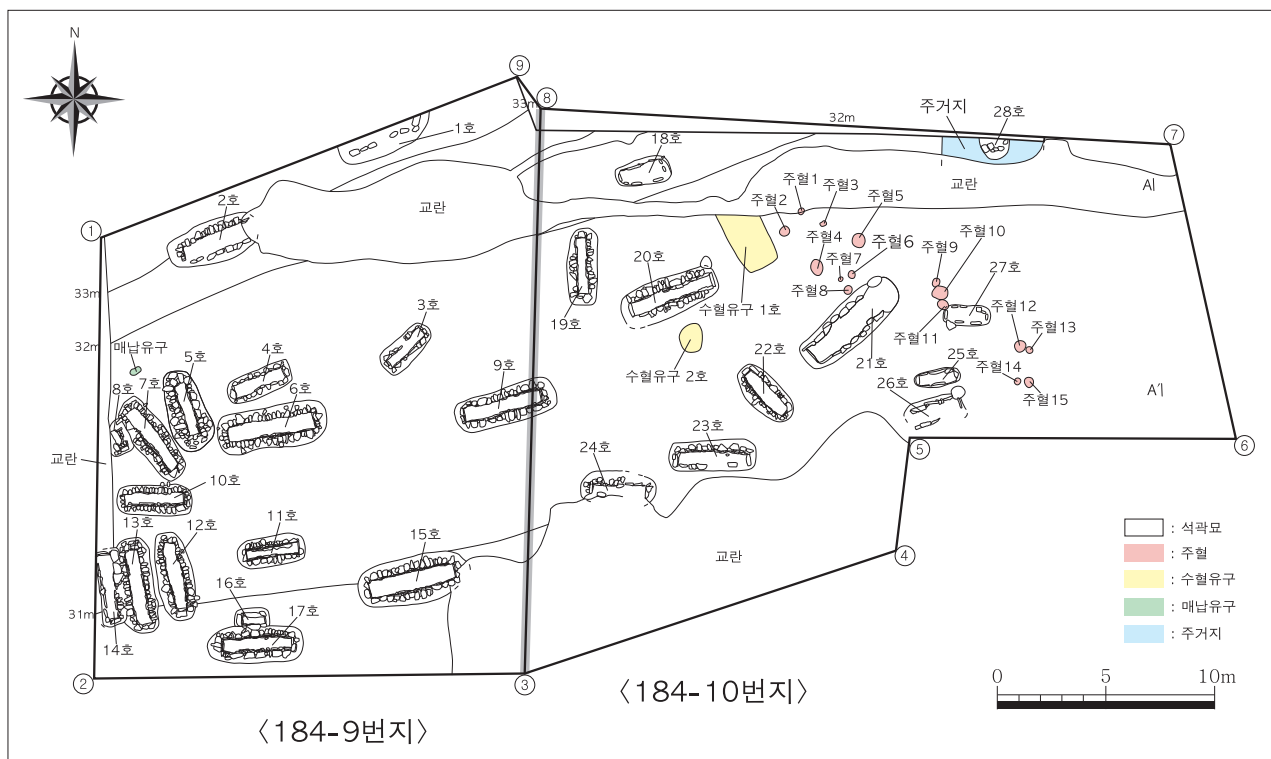
하동군 중부의 남산리 원곡마을 서쪽에 있는 가야시대 무덤유적이며, 지리산 칠성봉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원곡산(해발 150m)의 남쪽 사면부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지리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횡천강과 남산천이 합류하면서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섬진강의 지류인 횡천강 유역에 포함되어 남서쪽으로는 하천을 이용하여 남해안으로 진출하기에 용이하고, 북동쪽으로는 곡간저지를 이용하여 경남 서부의 내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입지한다.

2014년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산리고분군의 남쪽 경계부인 해발 31m~35m 정도의 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는 남산리 184-9번지와 184-10번지로 조사구역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수혈유구 2기, 삼국시대 석곽묘 28기와 매납유구 1기,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와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으며, 토기류와 금속류 등 296점의 유물이

유적 위치도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28기가 발굴조사 되었으며, 19기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고, 8기는 등고선과 직교한다. 4~8·10호, 12~14호, 16·17호묘는 주구나 호석이 확인되지 않지만, 배치와 중복양상으로 보아 친연관계에 의해 조성된 다곽분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인 석곽의 규모는 길이 80㎝~410㎝, 너비 40㎝~113㎝ 정도이며, 대형 12기, 중형 13기, 소형 2기로 구분된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홈을 만든 후, 평평한 판석이나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석을 세워 쌓고, 그 상단에 할석을 눕혀 쌓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바닥은 대부분 기반층을 정지하여 사용하였으며, 8호와 16호묘는 판석, 22호와 24호묘는 할석을 전면에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대체로 양단벽 직하에 토기를 부장하는 양상이며, 장벽의 중앙에 대도, 도자, 철촉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고 있다. 출토된 토기는 가야, 백제 등 여러 양식이 공존하며, 고배의 부장은 극히 빈약하고, 단경호와 장경호 등 호류의 부장이 일반적이다. 고배 가운데는 넓은 구경과 얕은 배신부에 삼각형에 가까운 장방형 투창이 있는 소가야양식이 일부 확인된다. 가장 수량이 많은 장경호는 대가야양식을 띠며, 부드러운 곡선을 띠는 경부는 굵은 돌대로 3단 구획하여 밀집 파상문을 시문하고, 동체부는 구형에 가까운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기대는 대부분 소형기대로 구연단이 외반하고, '八'자형을 띠는 대각에 1단 또는 2단의 돌대로 구획하고 삼각형 또는 장방형의 투창이 뚫려 있다.

철기류의 부장은 하동지역 가야고분군 가운데 가장 탁월한 편이며, 철부, 철겸 등

유구 배치도

농공구를 포함하여 대도나 철모, 철촉 등 무기가 다수 부장되고 있다. 특히 2호와 15호묘에는 마구인 재갈과 등자가 확인되어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이 지역의 유력한 세력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4호묘에서는 출토 예가 극히 희소한 사행검이 출토되었으며, 동시기의 일본열도에서 유행한 철검이다. 한국에서는 임실 금성리 A호 석곽묘, 무암 덕암고분 1~3호 옹관묘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남산리 4호묘에서 출토된 사행검은 섬진강을 통해 반입된 왜계유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남산리 유적에는 경남 서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중소형 석곽묘와 동일한 축조방식을 보이며, 출토된 토기에 있어서는 대가야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배나 광구호, 유개식장경호의 형식으로 보아 고분군의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로 비정된다. 섬진강 수계를 확보한 대가야의 세력 확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교섭의 창구로서 다양한 문화교류를 반영하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6, 「하동 남산리 184-9번지 유적, 하동 남산리 184-10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I-경남3-』.

4~6호 석곽묘

16~17호 석곽묘

토기류

철기류

04 하동 우복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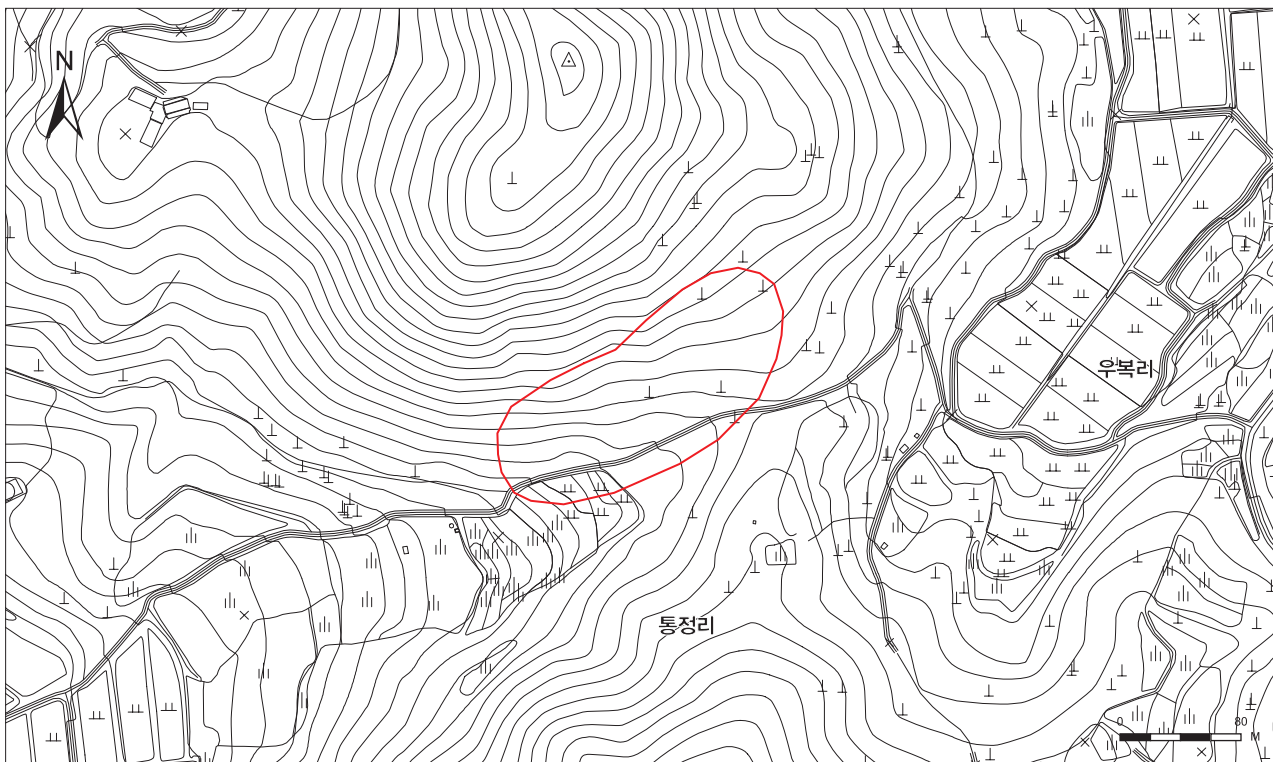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산24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2001.8.~2001.9.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주구묘, 석실묘 / 고배, 수평구연 발형기대, 유공광구소호, 단경호, 장경호

하동군 중부의 우복리 대내등마을 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지리산에서 이명산(해발 572m)으로 이어지는 지맥의 남서쪽에 형성된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동쪽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소하천에 의해 개석된 비교적 좁은 곡간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수계상으로는 섬진강 하구에서 합류하는 주교천 유역에 포함되며, 남해안과 남강 상류의 경남서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해당한다.

2001년에 서재~영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삼국시대 석곽묘 7기, 주구묘 1기, 석개토광묘 1기, 석실묘 1기 등 모두 10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28점, 철기 6점, 경식 3벌, 방추차 1점 등 모두 38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130㎝~240㎝, 너비 37㎝~64㎝ 전후의 소형급에 해당하며, 1호와 2호묘는 연접하여 나란히 축조되어 있으며, 그 외 대부분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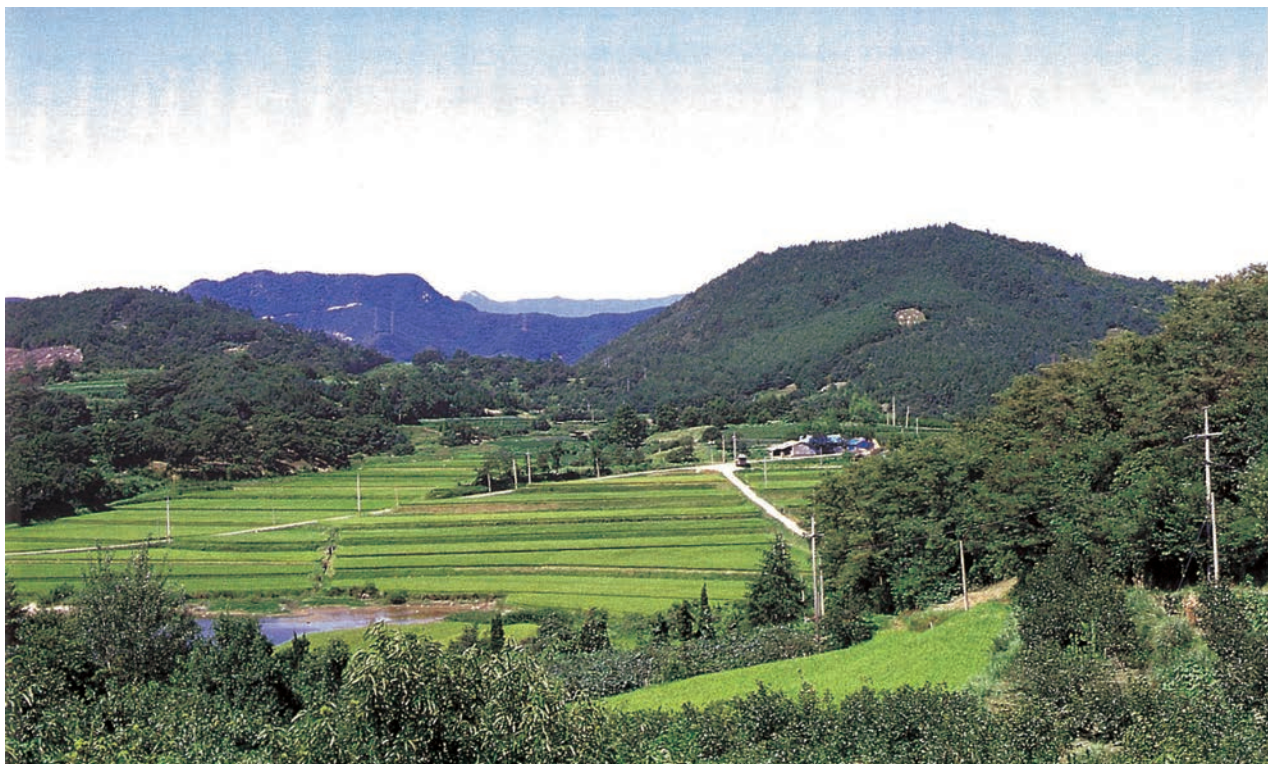
석곽의 벽석은 바닥을 굴착하여 최하단에 비교적 큰 할석을 세워 쌓고, 그 상단에 작은 할석을 2~3단 정도 눕혀 쌓았으며, 단벽은 1매의 판석을 세워 쌓은 형태이다. 바닥은 대부분 기반층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2호와 9호묘는 작은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는 관 외 부장이 확인되는데, 5호묘에서 유공광구소호 1점은 석곽 내부에 부장되고, 대가야 토기는 개석을 덮은 후 그 측면에 부장하고 있다. 8호묘에서도 벽석 상단에서 마한·백제계 고배 2점이 확인된다.

석곽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수평구연 발형기대, 광구호 등 소가야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호묘에서는 경부에 파상문이 장식된 대가야양식의 유개식장경호가 확인되며, 4호, 5호묘에서 출토된 유공광구소호는 주로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토기이고, 8호묘에서 출토된 고배 2점은 마한·백제계로 알려져 있다. 1호묘에서는 철겸과 철부가 확인되고 있으나, 철기는 농공구에 한정되어 극히 낮은 부장을 보인다.

한편, 우복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구묘는 목관이 안치된 묘광과 주구를 갖춘 형태로, 묘광은 길이 360㎝, 너비 112㎝, 깊이 23㎝로 세장방형이다. 주구는 평면 타원형을 이루며 매장주체부를 감싸고 있으며, 바닥에서는 제사유물로 생각되는 대형 토기가 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주구묘는 한반도 중서부지역 주구묘의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양 지역 간의 문물교류가 상정된다.

주구묘에서 출토된 완형무투창고배는 함양 화산리유적, 사천 봉계리유적 등 경남 서

유적 전경

부지역의 4세기대 생활유적에서 유행하는 형식이다. 승문을 타날한 평저의 단경호 역시 가야지역에서는 흔치 않는 기종이다. 횡타원형승문타날단경호로 보아 주구묘의 연대는 4세기 전반대로 판단되며, 석곽묘는 출토된 토기형식으로 보아 5~6세기대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03,『하동 우복리 유적 –서재~영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10호분

4호분

토기류

토기류 · 장신구류

05 하동 고이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1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89.10.~1989.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수평구
연호, 유공광구소호,
조족문타날단경호

하동군 동부의 고이리 신촌마을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이명산(해발 572m)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해발 30m~50m 정도인 동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동쪽으로는 봉명산에서 이어지는 능선과 접하여 사천시 곤양면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비교적 넓은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남해로 유입되는 관곡천의 제2지류인 고이천 유역에 포함되어 남해안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영·호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해안 교통로 상에 입지한다.

1989년에 진주~광양간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3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가지구에서는 조선시대 옹기가마 1기와 부속시설이 확인되었다. 나지구에는 삼국시대 석곽묘 17기, 다지구에는 삼국시대 석곽묘 1기와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추정되는 석실묘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21점, 철기 10점, 구슬 78점으로 총 109점이다. 다지구에서

유적 위치도

확인된 석실묘에서는 신라 후기 이단교호투창고배와 완이 출토되어 가야 멸망 이후 신라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묘는 대부분 다곽분의 배치를 띠며, 나1·2호, 나4·5호, 나6~9호, 나10~12호, 나14~16호와 같이 2~4기의 석곽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석곽의 규모는 나5호묘와 나17호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150㎝ 이하로 소형급이다. 축조방법에 있어서 판석으로 축조한 석곽묘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장벽을 비교적 긴 판석으로 세워 쌓고, 단벽은 작은 판석 1매를 양 장벽 사이에 끼우거나 덧붙였다.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묘는 나17호묘와 같이 한정되며, 최하단석을 세워 쌓고, 그 상단에 할석을 2~5단 정도 눕혀 쌓고 있다. 석곽묘의 바닥은 대부분 판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한 특징을 보인다.

출토된 토기는 장경호, 단경호와 같이 호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소가야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고배, 파배가 주로 확인된다. 나3호묘에서 출토된 수평구연호와 나7호, 나10호, 나16호묘에서 출토된 광구호 역시 서부 경남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토기양식이다. 나12호묘 주변에서 수습된 유개식 삼각투창고배, 나17호묘 출토 유개식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역시 소가야양식의 대표적인 기종이다. 한편으로는 나12호묘에서 출토된 조족문타날단경호나 나15호묘에서 출토된 유공광구소호는 마한·백제계 유물로 양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반입된 유물로 평가된다. 철기는 철부, 철겸, 철촉 등 농공구에 한정되며, 관옥 등 구슬은 다소 많은 석곽묘에 부장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이리유적은 하동지역에서 최초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가야시대 고

유적 전경

분군으로 가야의 지역집단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분군의 규모나 구조, 출토된 유물로 보아 소가야의 단위집단이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대에 걸쳐서 조영한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기를 달리하여 출토되는 외래계 토기는 당시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하동 고이리 유적』.

나10호분

나15호분

토기류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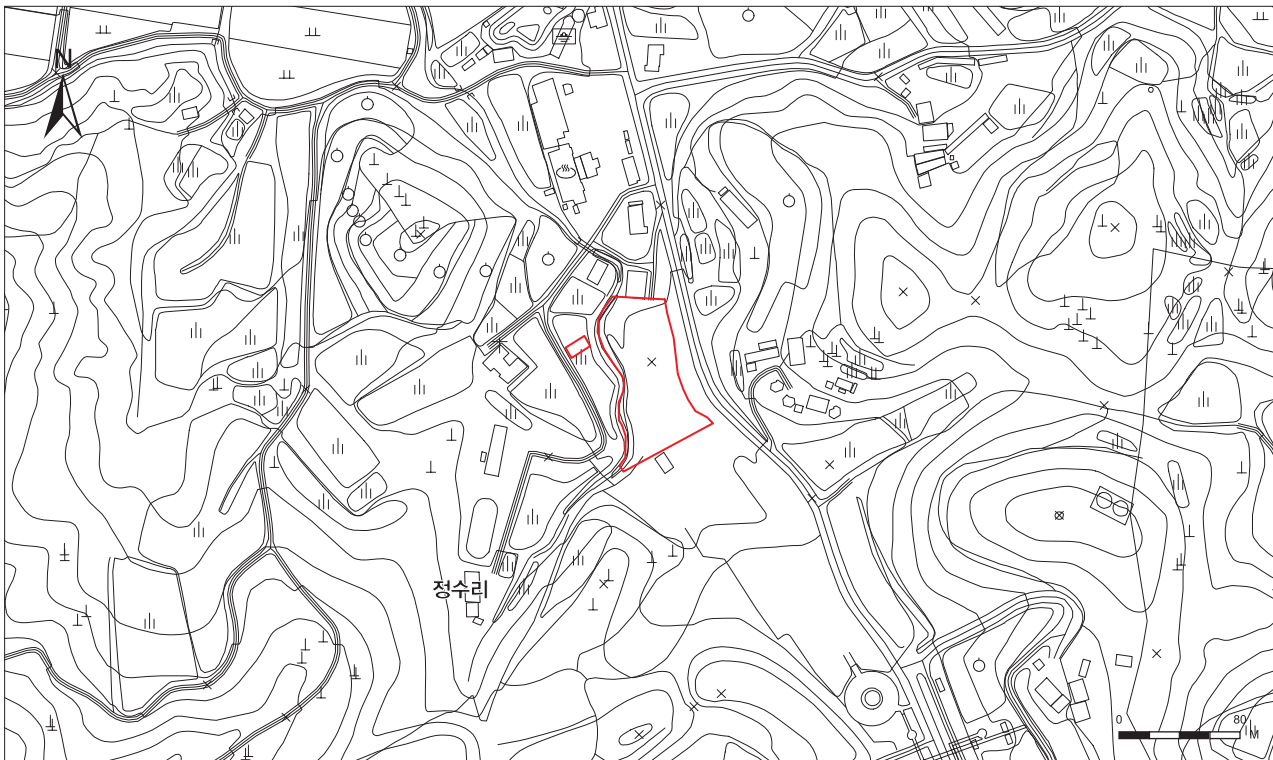
하동 정수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7.~2007.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구상유구 / 단경호, 시루, 장동옹

하동군 북동부의 정수리 정수마을 남동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지리산에서 이어지는 옥산(해발 614m)의 남동쪽 구릉 사이를 개석한 곡간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비교적 낮은 저구릉을 경계로 사천시 곤명면과 마주하며, 북쪽으로는 덕천강의 지류인 북방천의 주변으로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수계상으로는 남강의 지류인 덕천강 유역에 해당하며, 다른 하동지역의 유적과는 수계를 달리하고 있다.

2007년에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으로 인하여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2동, 구상유구 14기, 수혈유구 6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생활유적은 북쪽으로 이어지는 소곡과 마주한 동쪽 구릉의 사면 말단부에 분포하고 있다. 구릉 사이의 곡간에는 여러 갈래의 구상유구가 확인되며, 그 동서 사면 말단부의 미저지에는 고상건물지가 1동씩 분포한다. 수혈주거지는 동쪽으로 약간 미고지로 변환되는 사면부에 1동이 단독으로 확인되며, 동쪽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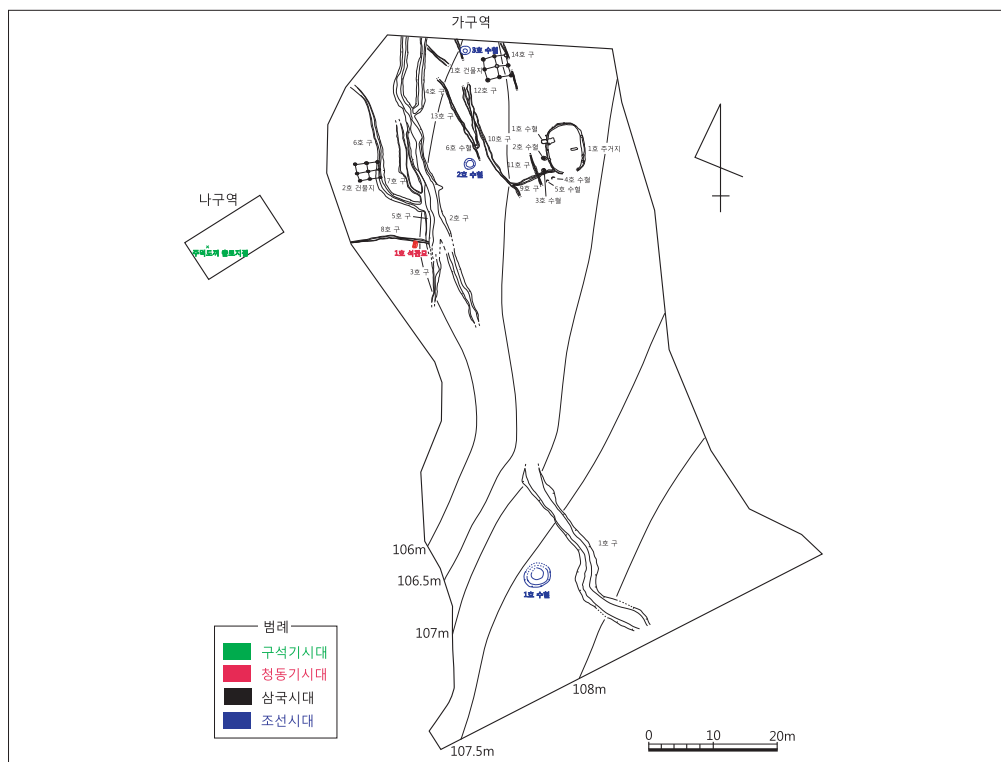
의 구릉 사면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1호 수혈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920㎝, 너비 760㎝의 장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39㎝ 정도의 깊이로 잔존하고 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1㎝~2㎝ 두께의 황적갈색점질토를 깔아 상면을 조성하였다. 내부 시설로는 벽면과 직교하게 설치된 부뚜막이 있고, 벽면을 따라 일주하는 벽구와 주혈 등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다. 부뚜막은 벽면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으며, 부뚜막에서 직접 배연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주로 취사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벽구의 내부에서 주혈이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벽체와 관련된 기초시설로 판단된다. 고상건물지는 2동 모두 2×2칸으로 바닥 면적은 16㎡ 내외이며, 수혈주거지와 혼재하는 양상으로 보아 주거지와 관련된 부속시설로 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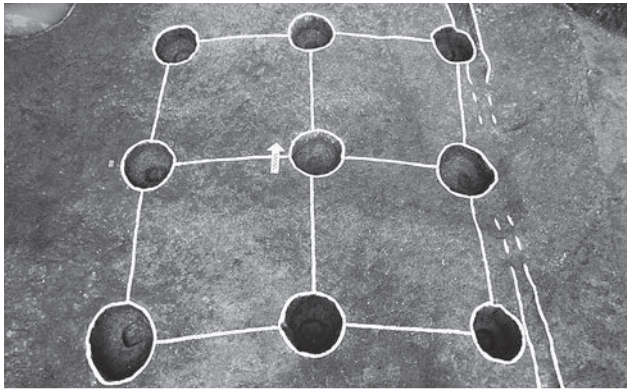
출토된 유물은 완형고배로 판단되는 대각과 와질단경호, 시루, 장동옹, 소옹, 완 등이 확인된다. 와질단경호는 대체로 편구형을 띠고 있으며, 구경부는 수직으로 외경하다가 구연에서 외반하는 형태이다. 동체의 중상위는 평행타날, 하위와 저부는 격자타날을 하였으며, 중상위에는 11조의 횡침선을 돌린 형태로 대체로 4세기 후반대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하동 정수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생활유적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곡간부에서 확인되는 구상유구이다. 구상유구 내부토에서 산출되는 벼의 기둥세포 규산체로 보아 조사지역 인근에 벼의 경작과 관련된 생산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구상

유구 배치도

유구는 내부 퇴적토의 양상으로 보아 벼 경작과 관련된 용·배수로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9, 『하동 정수리 유적-하동신천관광랜드 조성부지내 유적-』.

1호 주거지

1호 고상건물

토기류

07

하동 횡천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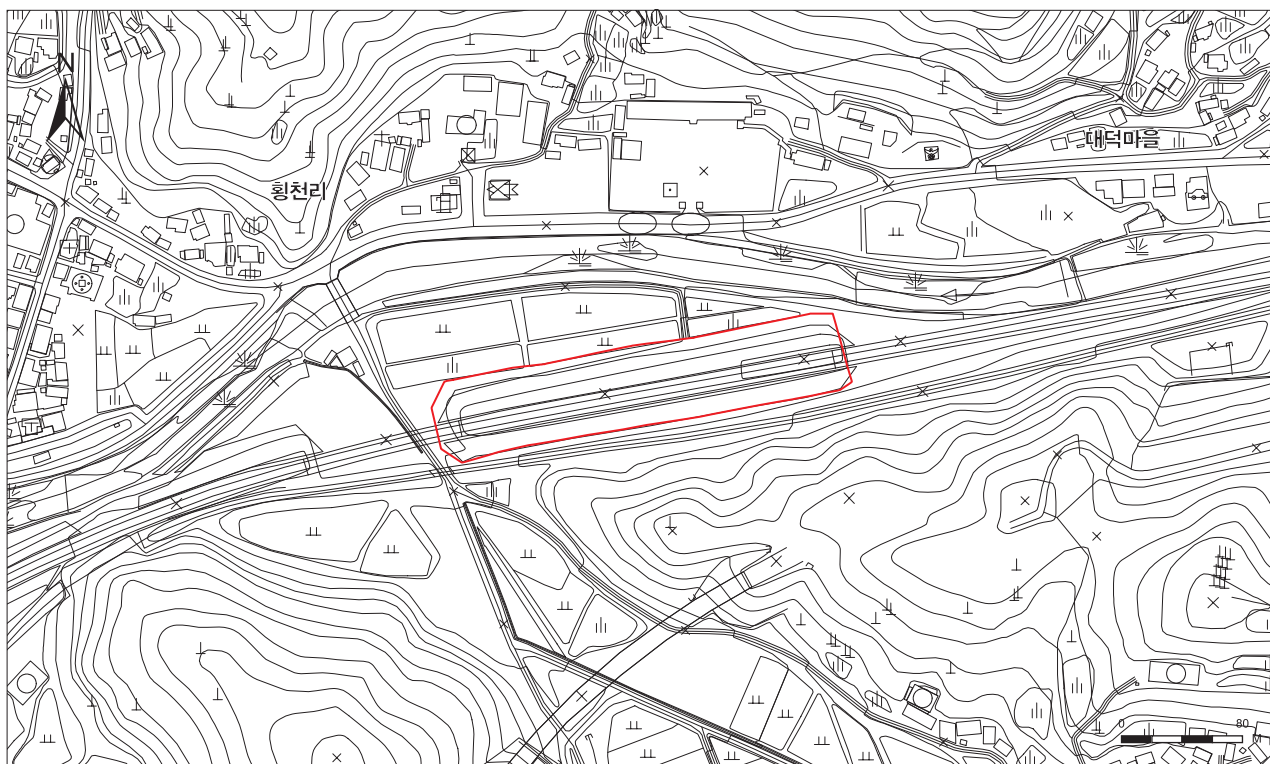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5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0.10.~2011.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고배, 완, 파배, 시루, 장동옹, 장동호, 철촉, 철부

하동군 중부의 횡천리 횡계마을 초입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여의천 좌안의 충적지에 분포한다. 세부적으로 유적은 침식성 저구릉과 바로 접하여 북쪽으로 폭 좁게 형성된 선상지성 충적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수구재를 넘어서 진주와 사천으로 교통이 가능하며, 서쪽으로는 횡천강 수계를 통하여 섬진강으로 진출하기에 용이한 교통의 결절지에 해당한다.

2011년에 진주~광양간 복선전철화(4공구)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4기, 수혈주거지 10동,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21동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고배, 완, 파배, 단경호, 파수부발, 시루, 장동옹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토기와 함께 철촉, 철부, 철착 등 800여 점이 출토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모두 121동이 조사되었으며, 조사구역의 동서쪽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전면에 걸쳐서 중복되어 분포하고 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은 대부분 원형계이며, 방

유적 위치도

형계의 수혈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단비는 1:1.2 정도를 띠는 수혈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규모는 장축 4m~9m 정도로 다양하다. 상부구조는 15·87호 수혈주거지와 같이 화재로 폐기된 수혈주거지에서 확인되며, 15호 수혈주거지는 벽면에 붙여서 등간격으로 얕게 굴착한 벽주혈이 17개 확인되었다. 부뚜막은 대부분의 수혈주거지에서 확인되며, 대부분은 서쪽을 중심으로 부뚜막이 위치하고 있다. 부뚜막의 내부에는 돌이나 토기를 이용하여 1~2개의 지각을 설치하였으며, 판상의 석재를 보강하여 벽체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

화재에 의해 폐기된 수혈주거지는 모두 18동이 확인되었으며, 15·53호 수혈주거지는 비교적 목탄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화재에 의해 폐기된 수혈주거지는 상면 및 내부토에 유물이 그다지 확인되지 않으며, 수혈주거지의 기능 상실 후 의도적인 화재를 통해서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103호 수혈주거지는 벽면에서 정연하게 장동옹을 비롯한 토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불의의 화재로 판단된다. 또한 42·77호 수혈주거지와 같이 매몰토의 상부에 다량의 석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폐기 이후 어느 정도 자연 퇴적된 후 인위적으로 석재를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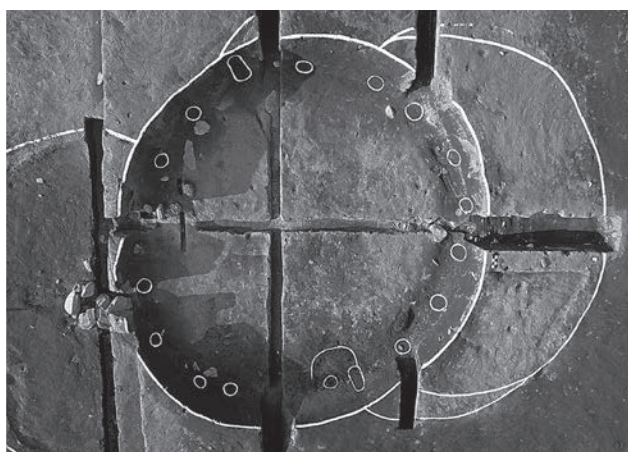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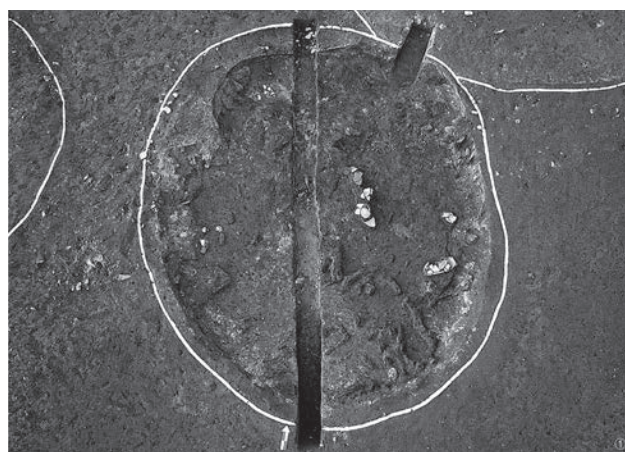
출토된 유물은 고배, 완, 파배, 연질옹, 장동옹, 파수부발, 시루, 단경호, 대호 등 다양한 생활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03호 수혈주거지와 같이 원위치를 유지하며 출토되는 유물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며, 대부분 바닥면이나 내부의 매몰토에서 수습되었다.

횡천리유적은 한정된 범위에서 누세대에 걸쳐 지속되면서 수혈주거지 상호간의 중복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적의 동쪽 가장자리에서는 중복 없이 수혈주거지가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은 다중으로 중복되어 있다. 수혈주거지의 평

유구 배치도

면형태나 출토된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4세기대에 유적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혈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통해서 세부적인 시기 편년에 유효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하동 횡천리 유적-진주~광양 복선전철화(4공구) 사업구간 내-』.

15호 수혈건물지

66호 수혈건물지

20호 수혈건물지 유물 출토모습

103호 수혈건물지 출토 토기류

103호 수혈건물지 출토 장동옹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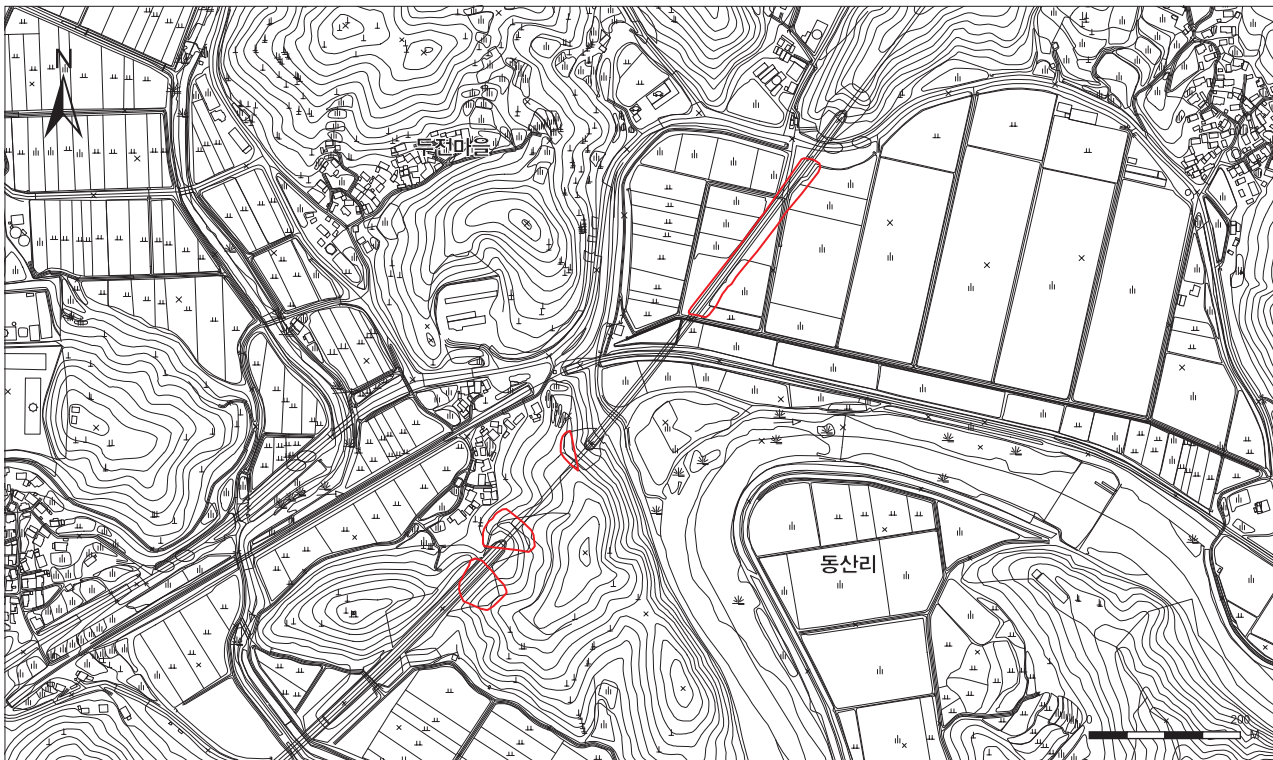
하동 동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167-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09.10.~2009.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석곽묘 /
고배, 파배, 완,
장동옹, 단경호, 병

하동군 서부의 동산리 하두전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지리산 구재봉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140m인 구릉의 정선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동쪽은 횡천강이 곡류하여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강화천을 따라 비교적 넓은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섬진강의 지류인 횡천강 유역에 포함되어 남서쪽으로 하천을 이용하여 남해안으로 진출하기에 용이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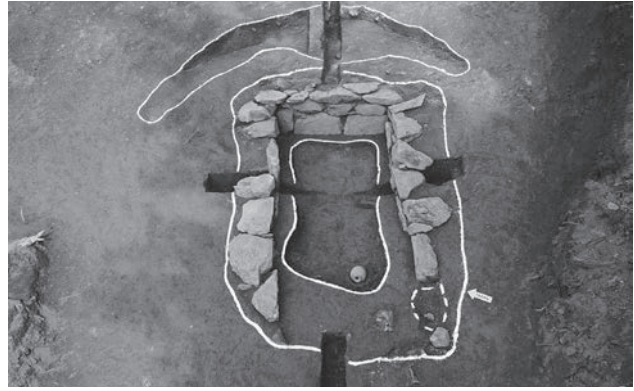
2009년에 진주~광양간 복선화전철 사업으로 인하여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구역은 유적의 북쪽과 동쪽 사면부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9동, 구상유구 1기, 석곽묘 1기, 조선시대 분묘 4기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생활유적은 구릉의 동서 끝단에 분포하며, 비교적 완경사를 이루는 구릉을 중심으로 고지성 취락이 넓게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묘는 Ⅰ구역의 구릉 정선부에 단독으로 분포하며, 수혈주거지의 분포 범위와 다소 분리되어 있다.

유적 위치도

수혈주거지는 구릉의 등고를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사면경사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이 주를 이루며, 주축의 길이는 대체로 5~6m 정도이며, Ⅰ구역 3호 수혈주거지의 길이는 5.98m로 비교적 대형에 속하고, 이와 인접한 Ⅰ구역 4호 수혈주거지는 4.25m로 소형급이다. 기둥은 굴착면을 따라 설치되거나 선반시설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내부에 4주식도 확인된다. 벽체 홈은 벽구와 구분되어 너비 5㎝ 내외로 단면 'V'자 형태로 굴착된 시설로 판재를 설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부뚜막과 고래, 선반시설이 있으며, 부뚜막은 4동에서 확인되는데, Ⅰ구역 2호 수혈주거지는 벽면과 평행한 형태이고, 나머지 수혈주거지는 직교하는 부뚜막이다. Ⅱ구역 2호 수혈주거지에서는 고래가 확인되며, 고래의 주변에는 장동옹, 발형토기와 같은 생활토기가 출토된다. 한편 특징적인 구조로서 바닥에서 일정한 단차를 둔 선반시설이 있으며, Ⅰ구역 1호와 2-1호, 3호 수혈주거지에 확인된다. 너비 20㎝, 높이 30㎝ 내외로 일정하고, 선반시설의 상면에서는 발형토기와 같은 식기류가 출토되어 수납공간으로 추정된다.

수혈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생활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Ⅰ구역 1호 수혈주거지에서는 주조철부, 3호 수혈주거지에서는 철정이 1매 확인되기도 하였다. 삼각형으로 반투공된 통형고배는 Ⅰ구역 1호 수혈주거지에서 대각 편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완형을 띠고 있는 고배 대각 1점이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생활토기의 주요 기종인 장동

유적 원경

2·2-1호 주거지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옹은 동체에 격자타날이 잔존하며, 구경부는 직립하다가 짧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토기에서 확인되는 속성으로 보아 4세기 전반대에 형성된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한편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는 석곽묘는 등고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L'자상의 묘광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잔존 길이 280㎝, 너비 105㎝, 잔존 깊이 43㎝이며, 측벽의 최하단석을 세워 쌓고, 그 상단은 할석으로 눕혀 쌓았다. 바닥의 목관흔과 보강토로 보아 석곽 내부에는 길이 207㎝, 너비 88㎝ 정도의 목관이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격자타날이 이루어진 병이 2점 출토되었으며, 석곽의 북쪽으로 25㎝ 정도 떨어져 반월형의 주구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 6세기 이후에 백제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가야시대 석곽묘와는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1, 『하동 동산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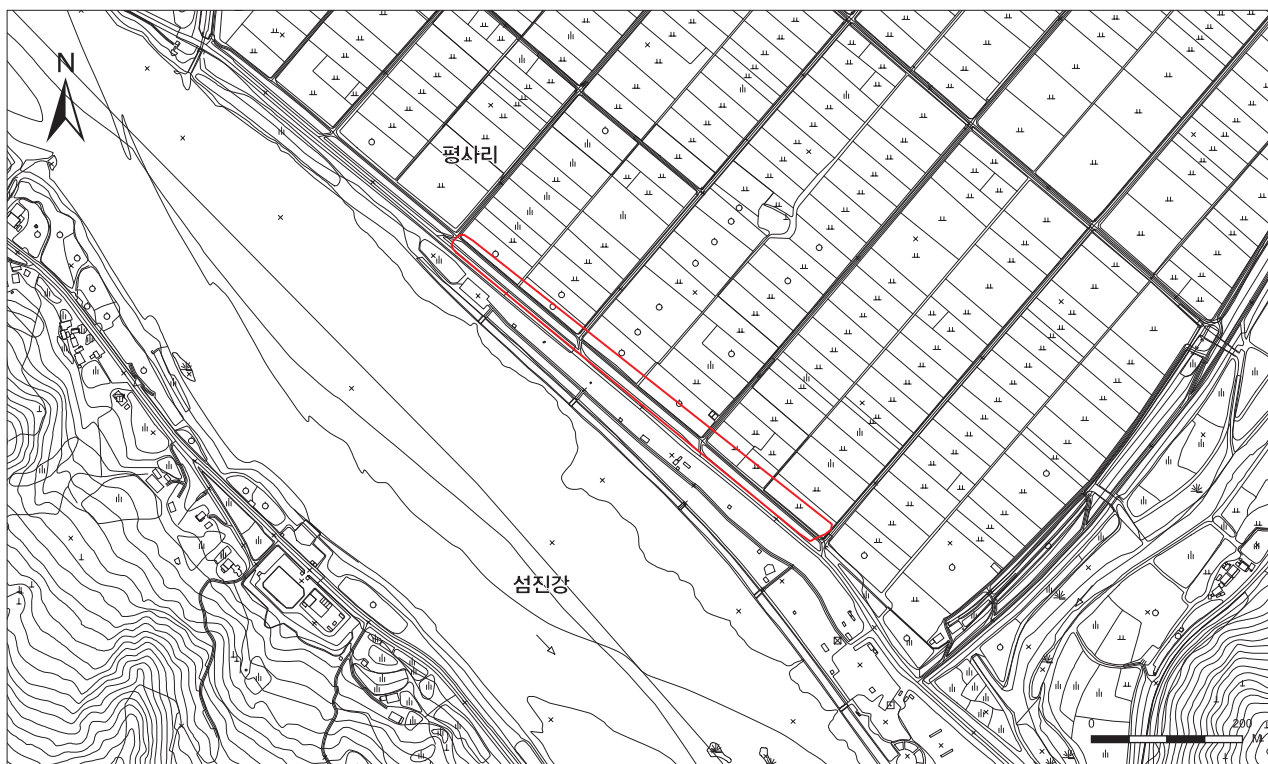
09 하동~화개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279-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강고고학연구소 /
2016.7.~2016.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
지, 밭 / 고배, 삼족배,
파배, 기대, 장동옹

하동군 서부의 평사리 외둔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경작유적이며, 섬진강과 악양천이 합류하는 충적지에 분포한다. 섬진강 동안의 미고지를 이루는 자연제방에 입지하며, 동북쪽으로는 곡부의 양안을 개석한 악양천에 의해 평사리의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북서쪽으로는 지리산의 형제봉(해발 1,115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해로 유입되는 섬진강 수계를 통해서 전북 동부지역과 교통하기에 결절지에 위치한다.

2016년에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강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1동과 고상건물지 1동, 수혈 16기, 구상유구 3기와 함께 밭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24점, 철기 1점, 석기 3점 등 28점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배치로 보아 발굴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충적지에 광범위하게 생활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밭 경작유구는 섬진강의 흐름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유적 위치도

개간되어 있으며, 홍수의 범람으로 매몰된 이후에 생활유적이 형성되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은 원형과 방형계가 모두 확인되며, 원형의 수혈주거지는 7호와 8호 수혈주거지 2동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방형은 1·9·11호 등 3동이며, 그 외에는 장방형을 띠는 수혈주거지가 6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바닥면은 일정한 두께로 점토다짐한 흔적이 확인되며, 내부시설로는 부뚜막과 고래가 있다. 한편 1호 수혈은 깊이 165㎝로 북서쪽 모서리 부분에 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닥면에 약 30㎝ 두께로 점토를 채우고 중앙에 원형의 수혈을 조성하였다. 특수한 용도로 조성된 이후에 폐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2차례에 걸친 인위적인 소성행위로 인한 소결면과 재층이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이며, 취락의 생활토기로 보이는 원저의 장동옹과 함께 고배, 개, 광구소호, 컵형토기 등이 확인된다. 방형계의 수혈주거지가 주류를 이루며, 출토된 토기 역시 기존에 하동을 비롯한 경남 서부지역에서 다수 확인된 4세기대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저의 장동옹이나 고배, 개 등의 토기형식으로 보아 5~6세기대에 형성된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에서 수습된 삼족배는 백제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유물로 섬진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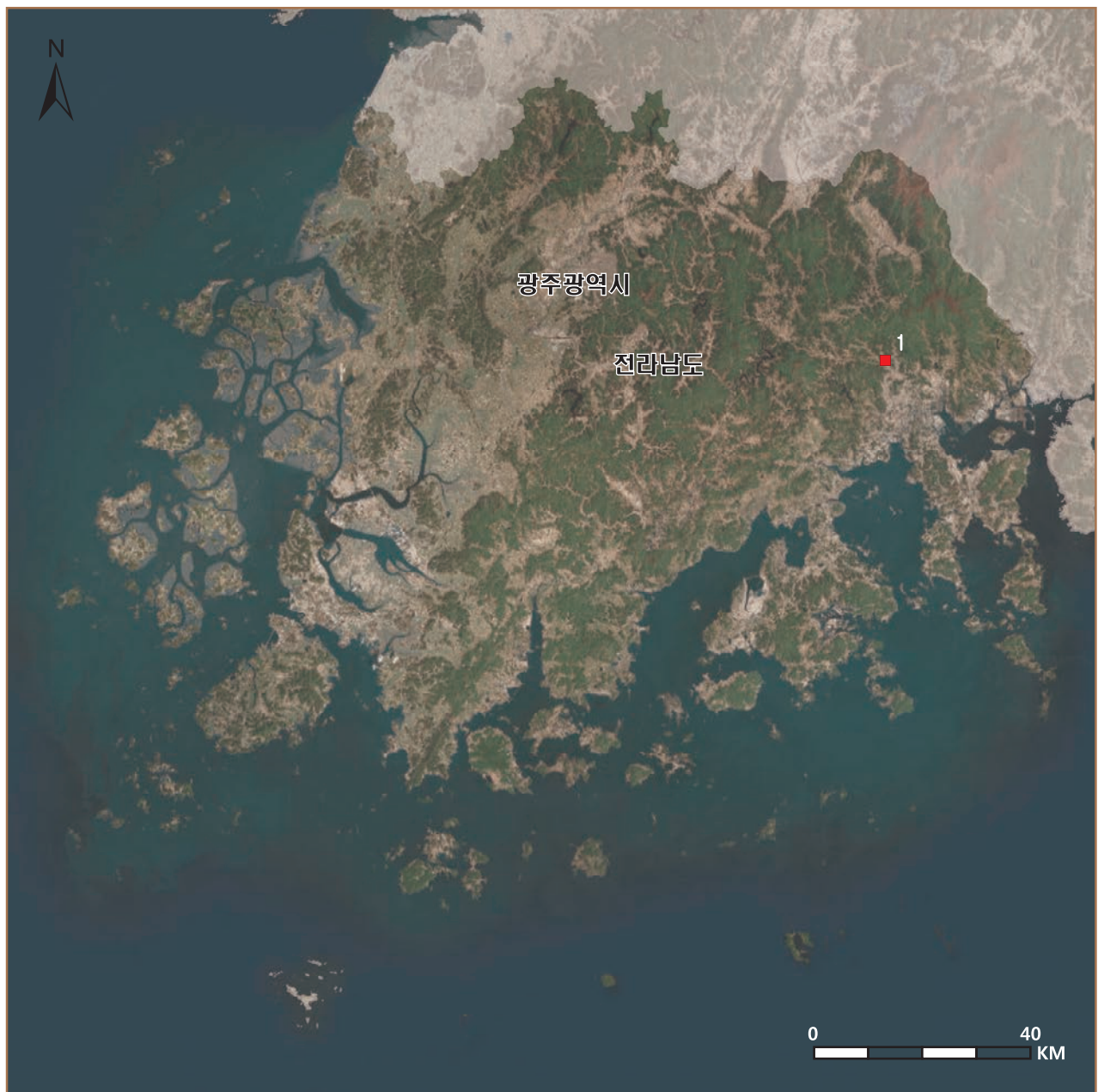
국강고고학연구소, 2016, 「하동-화개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밭 경작 유구

4~6호 주거지

출토유물

Ⅶ. 전남

01

순천 운평리유적
順天 雲坪里遺蹟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2003년에 밭으로 경작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석곽묘와 토기가 발견되었고, 2005년에 순천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삼국시대 고분 1기 외 토광묘 5기, 수혈식석곽묘 6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후 2007년에 순천대학교박물관에 의해 M2분과 M2호분 내 석곽묘 12기, 토광묘 3기, 단독분으로 M3호분이 조사되었다. 그 이후로 2012년 삼국시대 목곽묘 6기, M4·M5호분이 조사되었다.

운평리고분군의 주묘제는 횡혈식석실묘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하고 석실의 위치는 반지하식이나 지상식으로, 유구의 방향은 등고선에 평행하는 형태에서 직교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입구부의 위치도 경사 아래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바닥시설은 천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한 것에서 단을 형성하여 시상을 마련한 것으로 변화한다. 벽석의 축조는 기본적으로 장방형 내지는 부정형의 할석재로 1단은 대부분 가로눕혀쌓기 하였고, 2단부터는 가로눕혀쌓기와 세로눕혀쌓기를 병행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가야양식의 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M2호분 봉토와 M4호분 주구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가야지역에서 제작된 것이며, 그 외는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계와 영산강계 토기도 소량 확인된다. 아울러 대가야계 금제이식과 신라계 금제이식의 출토되어 점이지대에 위치한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유적은 백제양식의 토기가 완전히 확산되지 않은 어느 시기에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나 중심연대는 대가야양식의 토기문화권에 포함된 시기로 추정된다.

운평리고분군은 순천지역의 재지문화가 가야·백제문화로 흡수 통합되어가는 과정과 가야문화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분묘유적으로 순천지역에 대한 삼국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임나일본부설의 중요한 논거가 되어 온 임나사현의 위치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순천 운평리유적 M1호분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12.~2006.1.	순천 운평리유적Ⅰ(2008)
2	순천 운평리유적 M2·M3호분	순천대학교박물관	2007.11.~2008.2.	순천 운평리유적Ⅱ(2010)
3	순천 운평리유적 M4·M5호분	순천대학교박물관	2012.2.~2012.4.	순천 운평리유적Ⅲ(2014)

01-1

순천 운평리유적 M1호분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5.12.~20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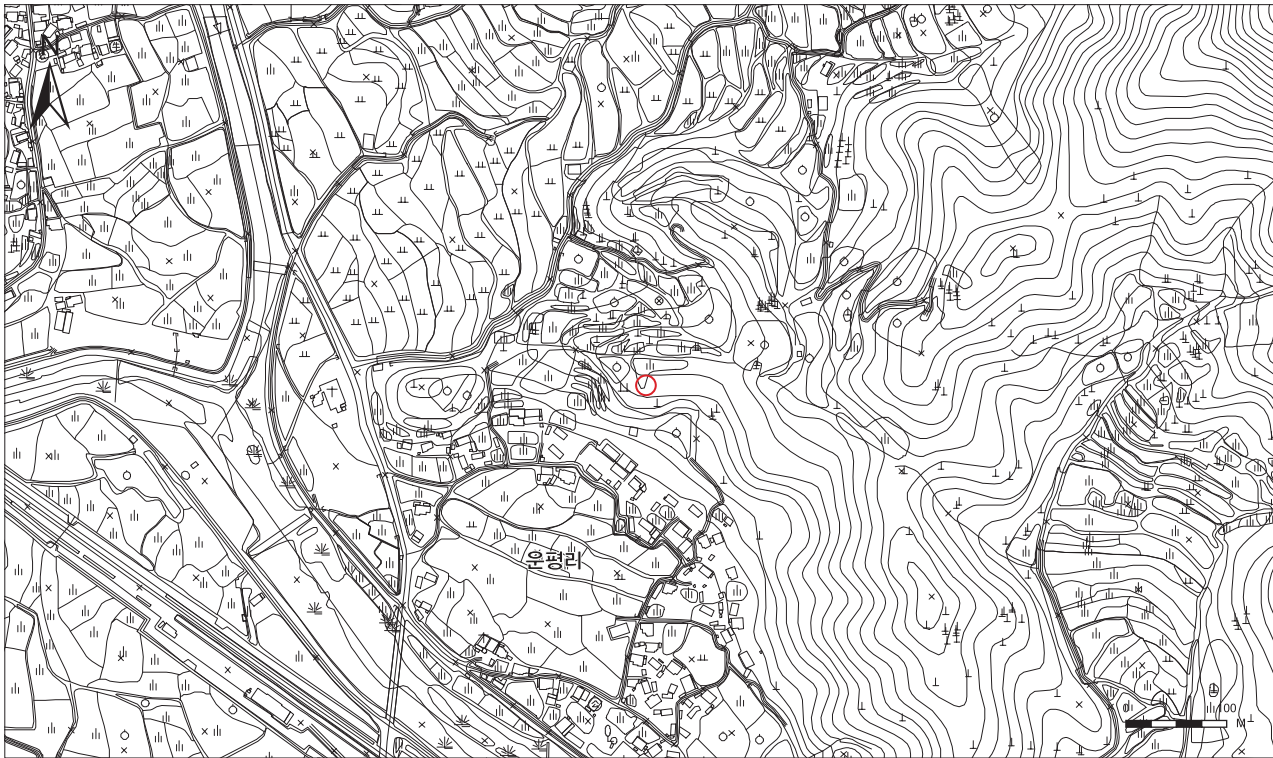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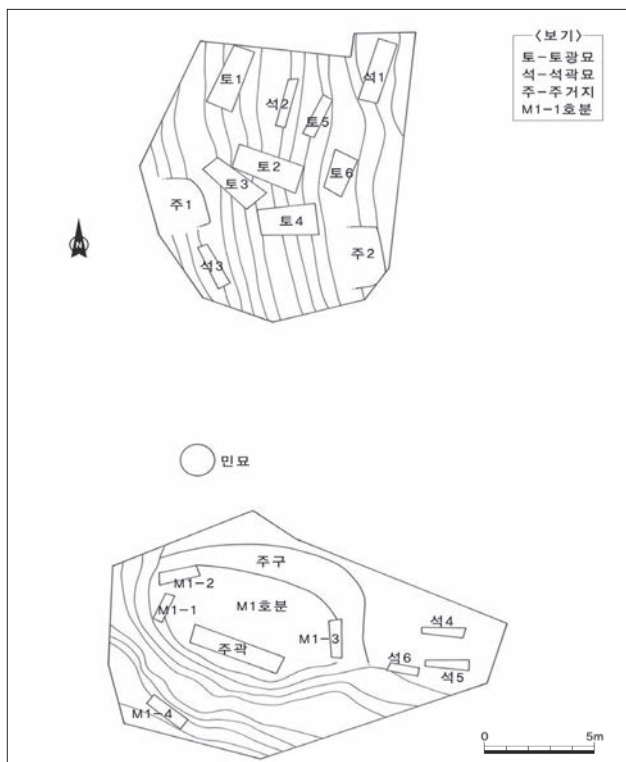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토광묘 / 고배, 개, 장경호, 수평구연호, 기대

조사지역은 순천시 서면 운평리 운평마을 북동쪽의 구릉으로 해발 271m의 매봉산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어내린 구릉이 양 갈래로 분기하면서 형성된 계곡과 그 양 구릉 사면을 포함한다. M1호분은 남서쪽 말단부 해발 73~75m 사이에 고분이 조성되었고 M2호분과 인접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석곽묘 8기와 토광묘 6기가 조사되었고 수평구연호, 유개장경호, 통형기대, 대부장경호, 대부완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기벽이 두텁고 제작기법이 조악하다.

유구는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축조재료와 구조 및 유물 부장양상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8, 『순천 운평리유적 I』.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M1호분

M1호분 석곽

M1호분 출토유물

01-2 순천 운평리유적 M2·M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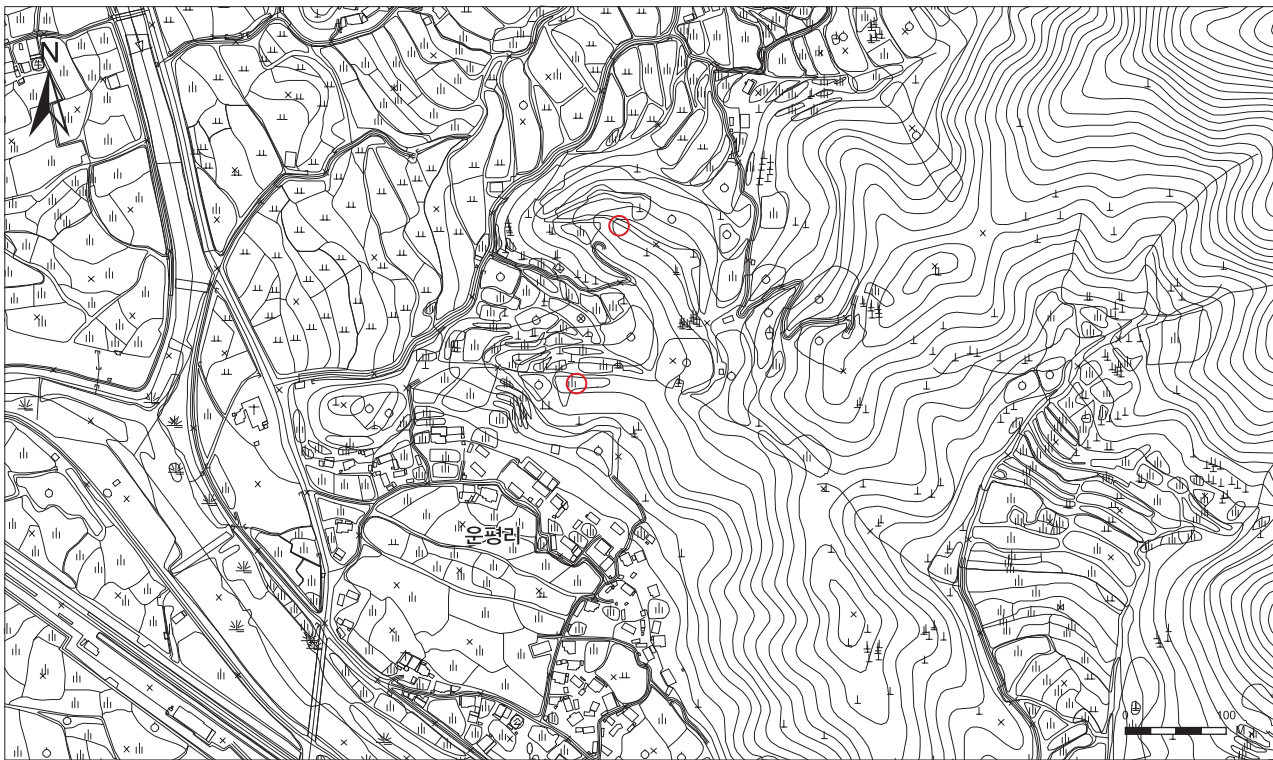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7.11.~2008.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토광묘 / 개, 장경호, 저통형기대, 대부장경호, 대부완

조사지역은 순천시 서면 운평리 운평마을 북동쪽의 구릉으로 해발 271m의 매봉산에서 서쪽방향으로 뻗어 내린 구릉이 양 갈래로 분기하면서 형성된 계곡과 그 양 구릉 사면을 포함한다. M2호분은 남서쪽 말단부 해발 77.3m 사이에 고분이 조성되었고 M1호분과 인접해 있다. M3호분은 매봉산에서 뻗어내린 구릉이 분기하여 가지능선을 형성한 능선의 말단 정상부에 단독으로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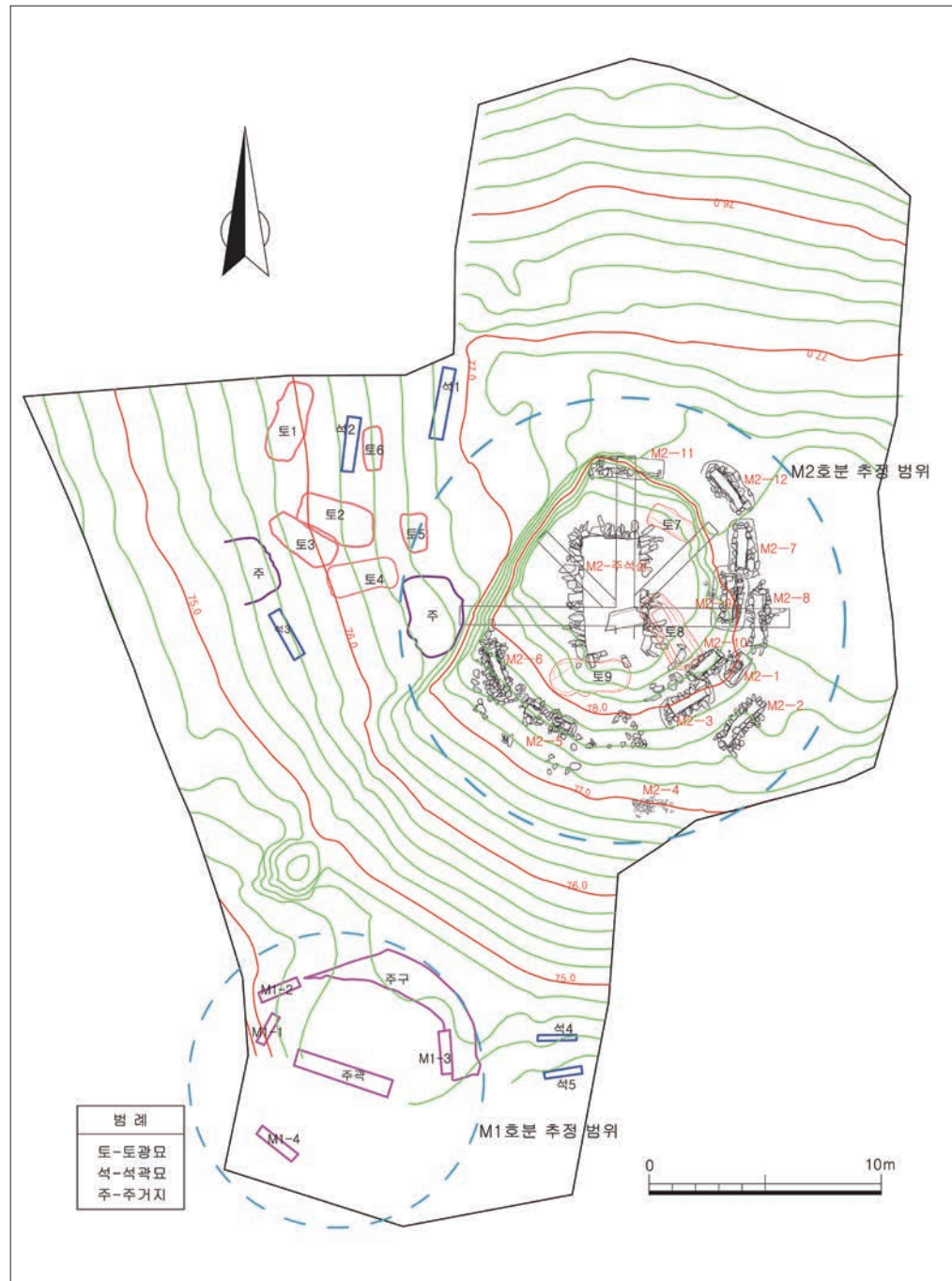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M2호분에서 석실묘 1기, 수혈식석곽묘 12기와 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고 개, 유개식 장경호, 고배, 통형기대, 대부장경호, 대부완, 유자이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M3호분에서 단독으로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고 유개장경호, 마구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나 M1호분에 비해 기벽이 얇고 제작기법이 가야지역과 유사하다. 일부 기대와 유개장경호 등이 대가야지역에서 제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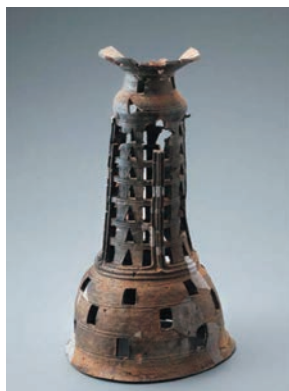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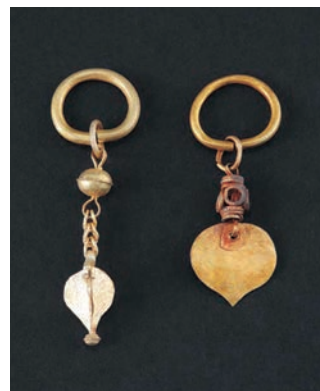
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가야계 금제이식과 마구류 등이 출토되어 유적 내에서 소수의 가야 토기만 확인되는 유적과 그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유구는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축조재료와 구조 및 유물 부장양상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10, 『순천 운평리유적II』.

유구 배치도

M2호분

M2호분 출토 토기류

M2호분 출토 통형기대

M2호분 출토 이식

M3호분

M3호분 출토 철기류

01-3 순천 운평리유적 M4·M5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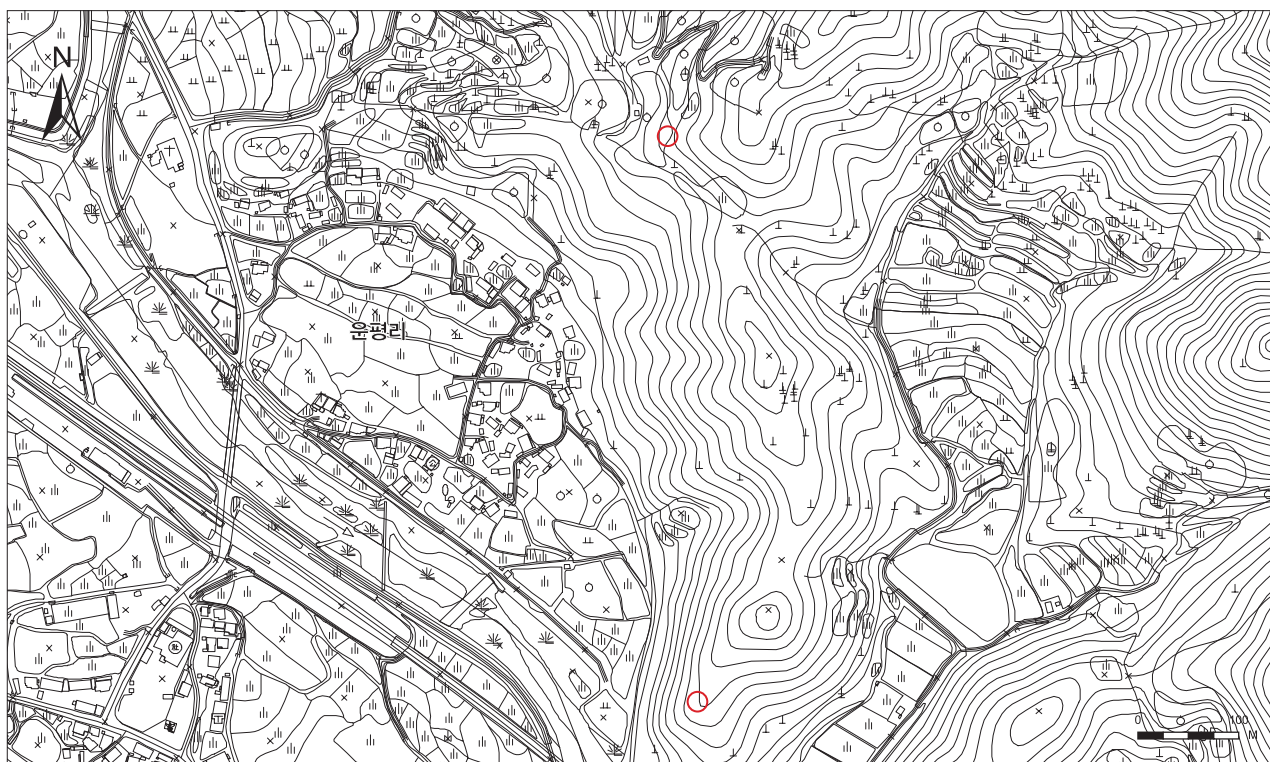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12.2.~2012.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토광묘 / 개,
파수부완, 장경호,
고배, 기대,
수하부금제이식

조사지역은 순천시 서면 운평리 운평마을 북동쪽의 구릉으로 해발 271m의 매봉산에서 서쪽 방향으로 뻗어내린 구릉이 양 갈래로 분기하면서 형성된 계곡과 그 양 구릉 사면을 포함한다. M4호분은 서쪽 상단부로 M2호분과 M3호분이 위치한 구릉이 분기한 지점인 해발 106m 사이에 고분이 조성되었다. M5호분은 운평리 고분군의 주능선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가지능선에 위치한다. M5호분이 위치한 곳은 해발 82.2m이고 능선의 사면이 뻗어 내려오다 평탄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된 지점으로 M2호분과 입지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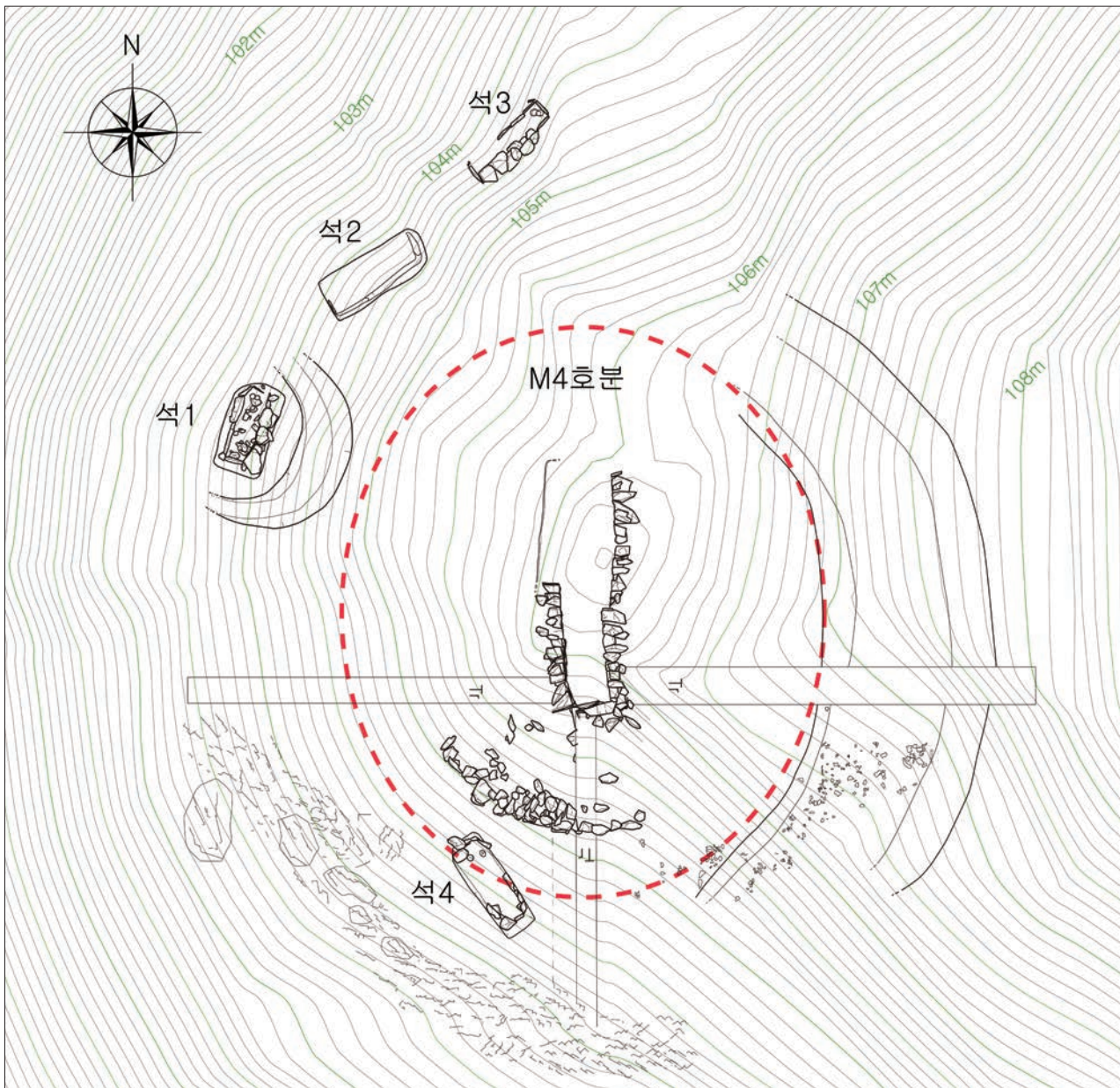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M4호분에서 수혈식 석곽묘 5기, 주구가 조사되었고 개, 유개장경호, 고배, 발형기대, 마구류, 수하부금제이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M5호분에서 단독으로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고 개, 고배, 대부완, 파수부완, 광구장경호, 살포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가야 토기 가운데 M4호분 출토품은 전반적으로 대가야의 현지 모방토기류만

유적 위치도

확인된다. M5호분 출토품 대부파수부완, 저평통형기대, 대부소잔, 파수부완 등은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가 확인된다. 대가야계 금제이식과 철기류 등이 출토되어 유적 내에서 소수의 가야 토기만 확인되는 유적과 그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유구는 민묘조성과 자연유실 등으로 일부 훼손되었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축조재료와 구조 및 유물 부장양상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6세기 1/4분기에서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14, 『순천 운평리유적Ⅲ』.

M4호분 및 주변 석곽묘 유구배치도

M4호분

M4호분 주곽

M4호분 출토 이식

M4호분 출토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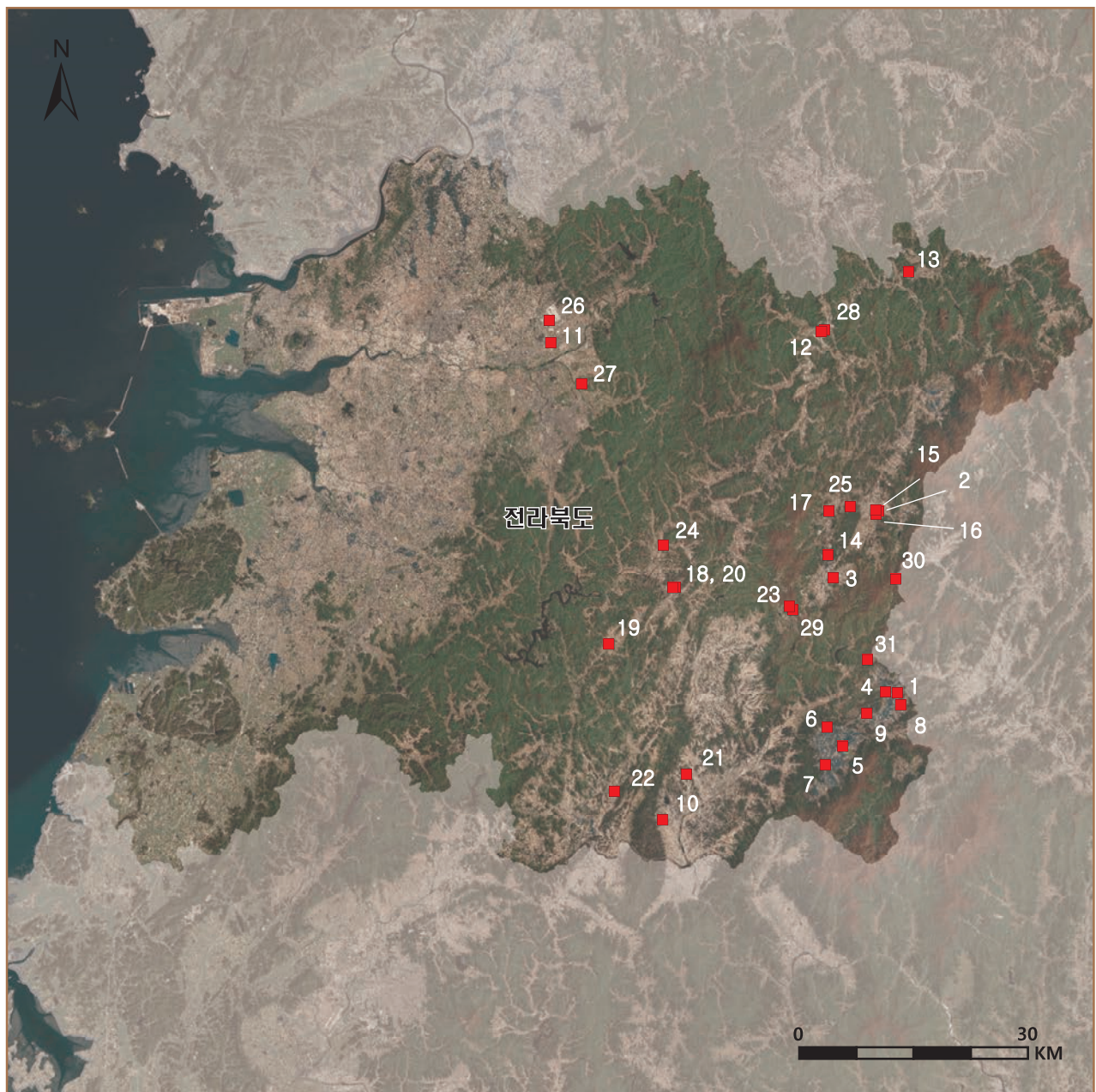
M4호분 출토 통형기대

M5호분 석실

M5호분 출토 토기류

Ⅷ. 전북

N
13
26
28
11
12
27
15
25
2
17
16
전라북도
24
14
30
18, 20
3
23
29
19
31
4
1
6
8
9
5
21
7
22
10
0
30
KM

0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南原 酉谷里와 斗洛里古墳群

|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지리산의 한줄기인 연비산(해발 842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과 인월면의 경계를 이루며, 해발 440m 내외의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능선을 따라 대략 40기의 봉토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973년 6월 전라북도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3월 사적 제542호로 승격되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2차례 이루어졌다.

먼저 1989년 남원시에서 추진한 문화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5기(1~5호)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3·4·5호분은 가야계 봉토분으로 밝혀졌으며, 2호분 횡혈식석실분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조사된 봉토분는 기본적으로 1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안치된 단곽식이며,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원통형기대를 비롯한 대가야 양식의 토기류와 기꽂이, 마구류, 무구류, 꺾쇠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횡혈식석실분은 천정구조가 궁륭식이며, 우편연도를 갖춘 것으로 전면에 석실 내부 전면에 회칠을 하였다. 석실 바닥에는 석재를 깔아 관대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연도부까지 배수시설을 갖추었다. 고분의 구조와 형태로 백제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2013년 고분들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32호분을 대상으로 남원시의 지원을 받은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학술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32호분은 장축 750㎝에 이르는 주석곽과 장축 510㎝의 부장석곽이 나란히 배치된 다곽식으로 확인되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유물은 기대, 유개장경호, 개배 등의 토기류 40여 점과 금동신발 편, 청동수대경, 갑주 등을 비롯한 160여 점의 금속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금동신발과 청동수대경은 가야 영역권에서는 처음 출토된 것으로, 백제와 왜, 중국 남조 등과의 대외관계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경에 걸쳐 조성된 가야 고분군으로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남원지역 가야 세력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한편, 남원지역 고대 정치제의 성격 및 대외교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남원 두락리고분군	전북대학교박물관	1989.7.~1989.10.	두락리(1991)
2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전북대학교박물관	2013.5.~2013.9.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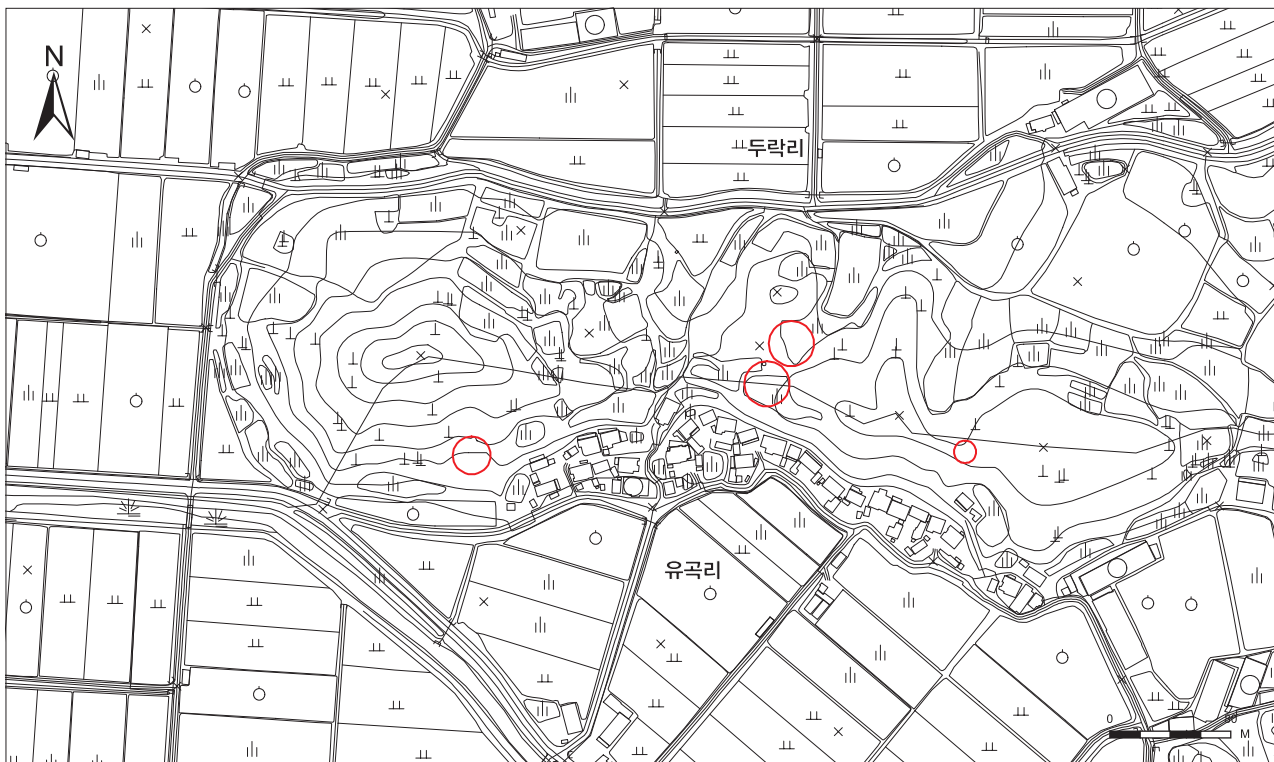
01-1

남원 두락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679-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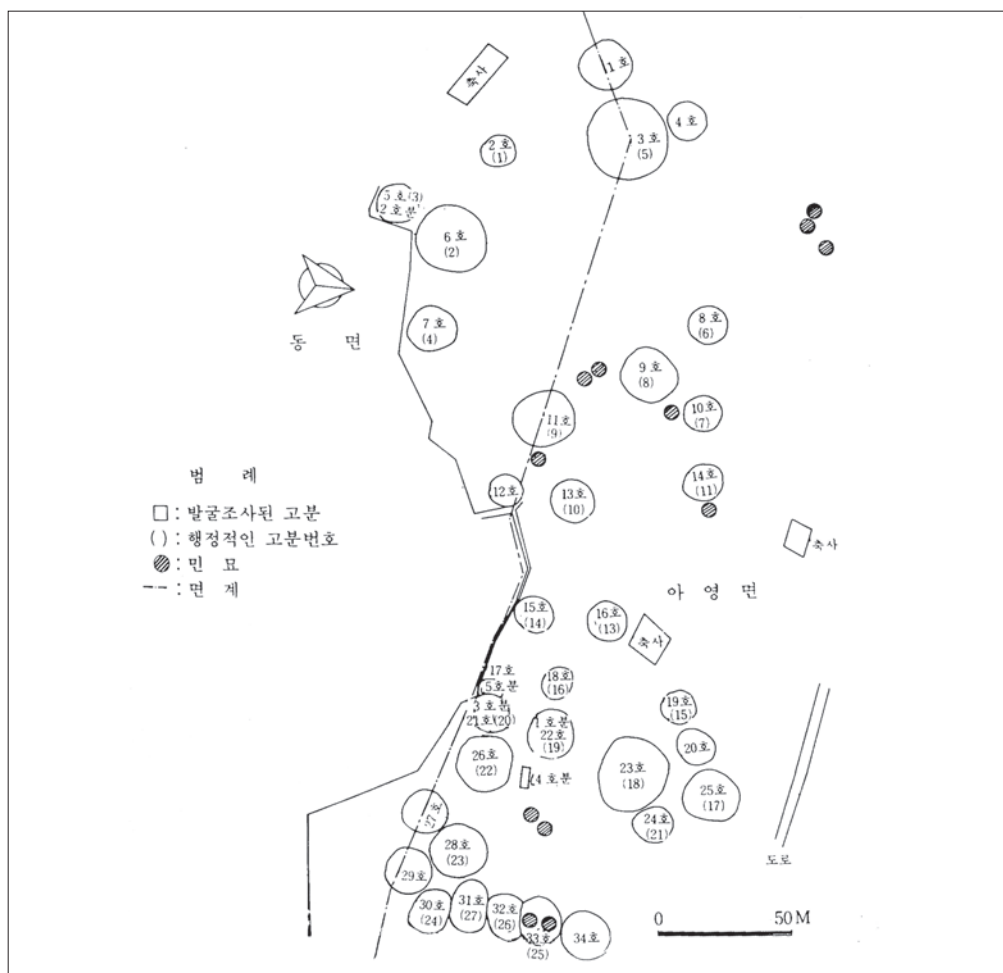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대학교박물관 / 1989.7.~198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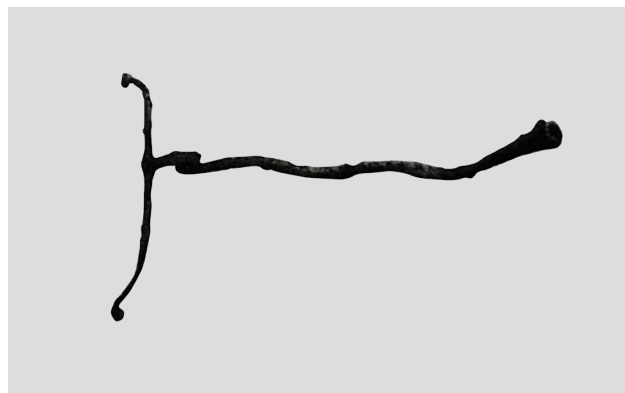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장경호, 원통형기대, 기꽂이

1989년 남원시에서 추진한 문화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조사는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중간부분에 위한 1·3·4·5호분과 서쪽 구릉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 2호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1·3·4·5호분은 가야계 봉토분, 2호분은 횡혈식석실분으로 확인되었다. 봉토분은 모두가 1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안치된 단곽식이며,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봉토의 흔적은 1호분과 3호분에서 확인되었다. 1호분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이며, 직경이 16m~19m에 이르는 중대형인데 반해, 3호분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직경은 14.5m 내외이다. 매장주체부인 석곽묘의 규모는 1호분이 860㎝×130㎝ 내외로 가장 크며, 3·4·5호분은 장축이 450㎝~600㎝ 내외로 1호분에 비해 소형이다. 석곽묘의 바닥시설은 1호분의 경우 자갈을 깔았고, 3호분은 진흙을 발랐다. 또한 5호분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얇게 진흙을 바른 양상이다.

유적 위치도

유물은 유개장경호, 원통형기대, 개배를 비롯한 토기류와 기꽂이, 마구류, 무구류, 꺾쇠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유물의 조합상은 대체로 대가야양식이 주를 이루며, 기꽂이 경우 호남 동부지역에 처음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참고문헌

전북대학교박물관, 1991, 『두락리』.

유구 배치도

1호분

출토유물

01-2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687-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대학교박물관 / 2013.5.~2013.9.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청동수대경, 금동신발 편, 유개장경호, 유개단경호, 발형기대, 철모, 물미, 살포, 철겸, 철부, 운주, 금구, 등자, 꺾쇠

2013년 문화재청의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에서 지원을 받은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대상인 32호분은 고분군 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며, 20m 내외의 봉토가 잔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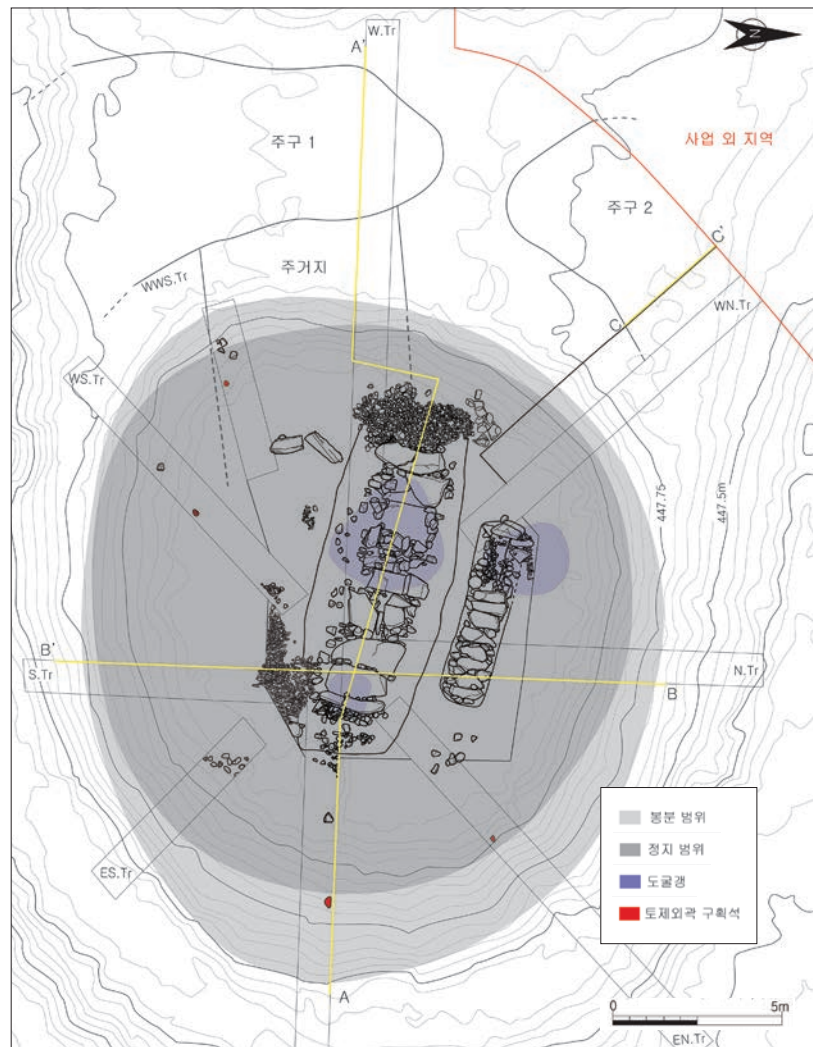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32호분의 봉토는 동서 21m, 남북 17.4m 내외의 장타원형으로 파악되었으며, 매장주체부는 주석곽과 부장석곽이 나란하게 배치된 다곽식으로 밝혀졌다. 석곽은 기본적으로 지하식이며, 규모는 주석곽의 경우 750×130㎝이고, 부장석곽은 510×50㎝ 내외이다. 석곽의 축조방식은 주석곽의 경우, 가로눕혀쌓기와 세로눕혀쌓기 방식이 사용되었고, 부장석곽은 세로세워쌓기와 세로눕혀쌓기, 가로눕혀쌓기가 혼용되었다. 이러한 석곽의 배치양상과 축조기법은 대가야의 중심지역의 고분들과 일맥상통하지만,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시설되지 않고, 주구가 돌려진 점, 봉토의 형태가 타원형이라는 점 등은 남원과 장수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가야계 중대형 고총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

유적 위치도

다. 이처럼 32호분은 기존의 알려진 가야계 고총들과 비교했을 때, 상사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큰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출토유물의 조합상에서도 나타난다.

즉 32호분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수대경, 금동신발 편, 금박 편과 함께 유개장경호,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 54점과 철모·철촉 등의 무기류, 살포·철겸·철부 등의 농공구, 운주·혁금구 등의 마구류, 갑주류 편을 포함하는 233점의 금속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류의 조합상은 대체로 대가야계 토기가 우세하지만, 소가야계와 백제계 토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청동수대경과 금동신발은 가야계 고분에서는 처음 출토된 것으로, 그간 백제의 지배자급 무덤에서만 출토된 최상급의 위세품이다. 이러한 유물의 양상을 통해, 32호분의 피장자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았음이 증명되었고, 더 나아가 남원 운봉고원에 존재했던 가야세력의 독자성과 대외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 3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32호분

주·부곽

청동수대경

금속류

02

장수 삼봉리고분군
長水 三峰里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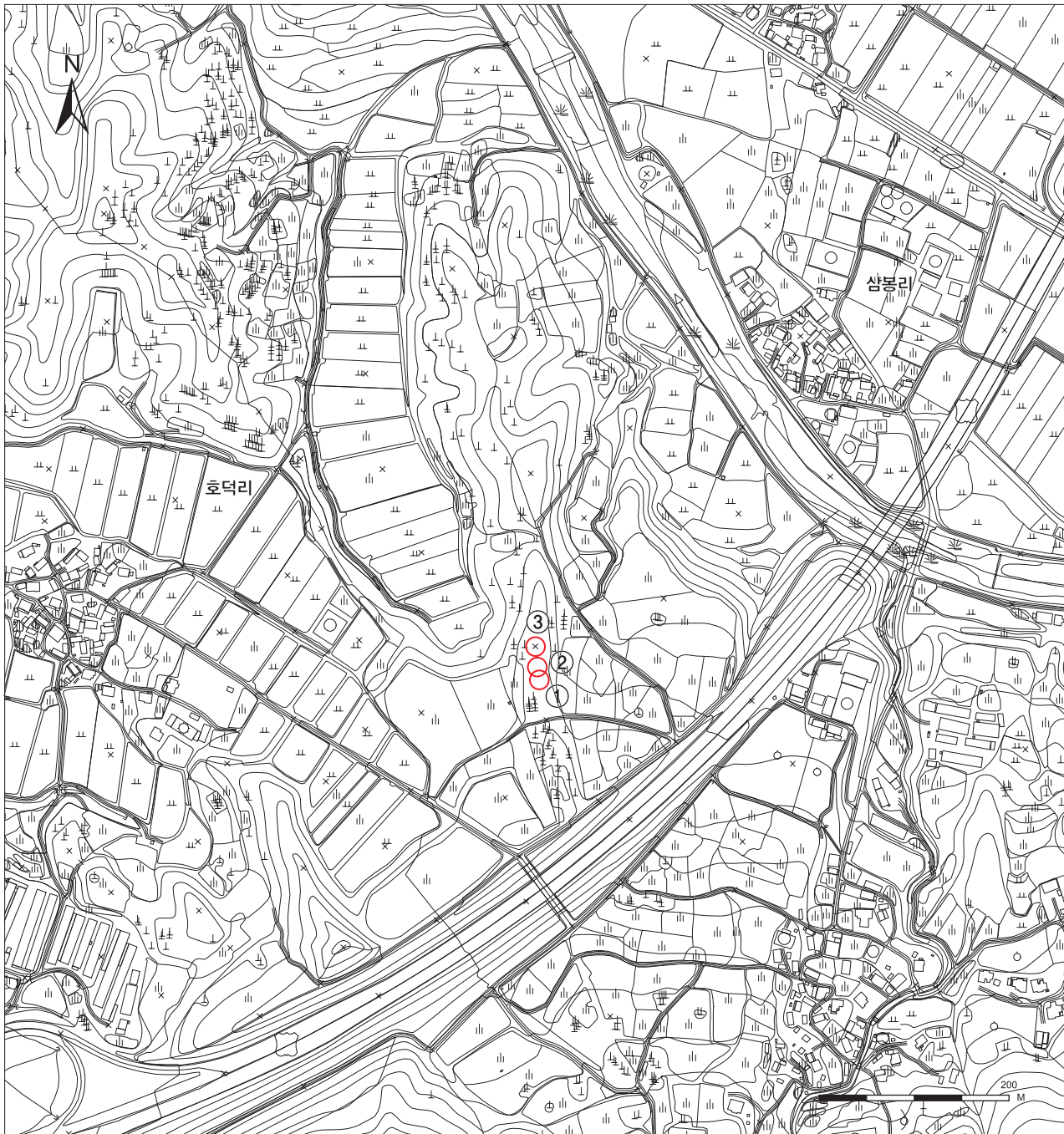
전라북도기념물 제128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09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백두대간의 서쪽에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에 위치한다. 금남호남정맥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끝자락에 자리한 백화산 해발 850.9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지류에 자리한다. 지류는 대부분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장계천까지 뻗어 내렸으며, 분지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문화유적총람』에는 "토만두형고분 25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 9기는 발굴되고 천연석으로 된 장방형 호석만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40여 기의 고총이 분포하고 있으며, 구릉의 정상(선)부와 돌출부에 직경 20m 내외의 대형분 2기와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직경 10~15m의 중형분이 배치되었고, 주변에 소형분이 자리한다.

2003년에는 군산대학교박물관이 주도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가야계 중대형고분이 분포되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삼은 세력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삼봉리고분군에서는 봉토의 중앙부에 자리한 주석곽을 중심으로 2기의 순장곽과 이들 순장곽 사이에 장란형 토기를 잇대어 놓은 옹관묘가 배치된 다장식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2012년에 조사한 삼봉리 2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은 군산대학교에서 조사한 고분과 바로 연접된 고분으로, 봉분의 내부에서는 주곽과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2기와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2호분 주변에서 수혈식석곽묘 3기 및 고려시대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2호분의 주석곽은 양 장벽 가까이에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고, 가로와 세로의 평면비가 4.54:1로 세장방형으로, 대가야 지역이나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것보다는 다소 폭이 넓은 형태이다. 또한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출토유물로는 유개장경호·단경호·심발형토기와 같은 토기류와 교구·등자·재갈·안교 등의 마구류, 철촉·철모·철부 등의 철제무기류가 출토되었다.

2015년 조사된 3호분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타원형이고, 주석곽을 중심으로 석곽묘와 토광묘가 내장되어 있다.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석곽 내에서 8개소의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단경호, 심발형토기와 마구 및 마구장식류로 재갈(함판비, 인수, 함), 안장가리개, 운주 등이 출토되었다.

장수 삼봉리고분군은 동촌리고분군과 함께 백두대간 서쪽에서 최대 규모의 고총 고분군으로 이 지역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의 지배계층 묘역으로 삼국시대의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이다.

유적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003.7.~2003.12.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2005)
2	장수 삼봉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2.11.~2013.2.	장수 삼봉리 고분군(2015)
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9.~2015.12.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2017)

02-1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0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03.7.~20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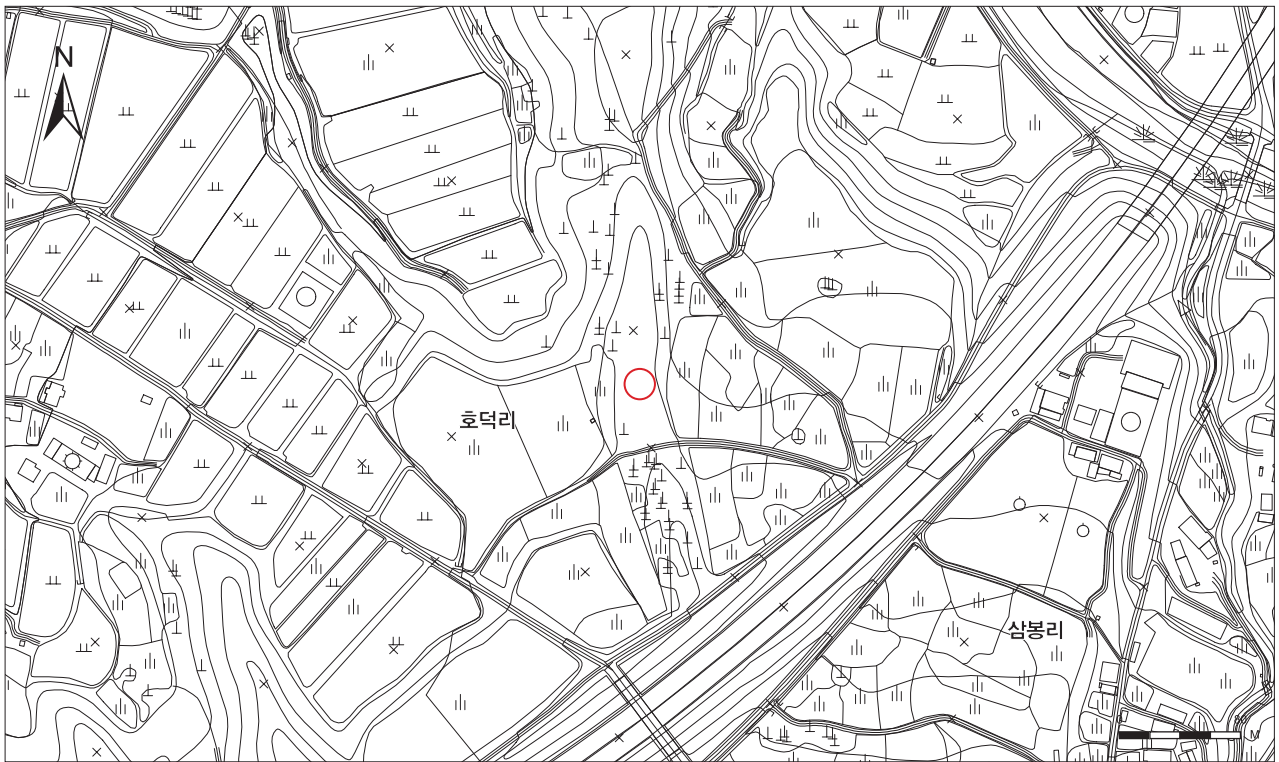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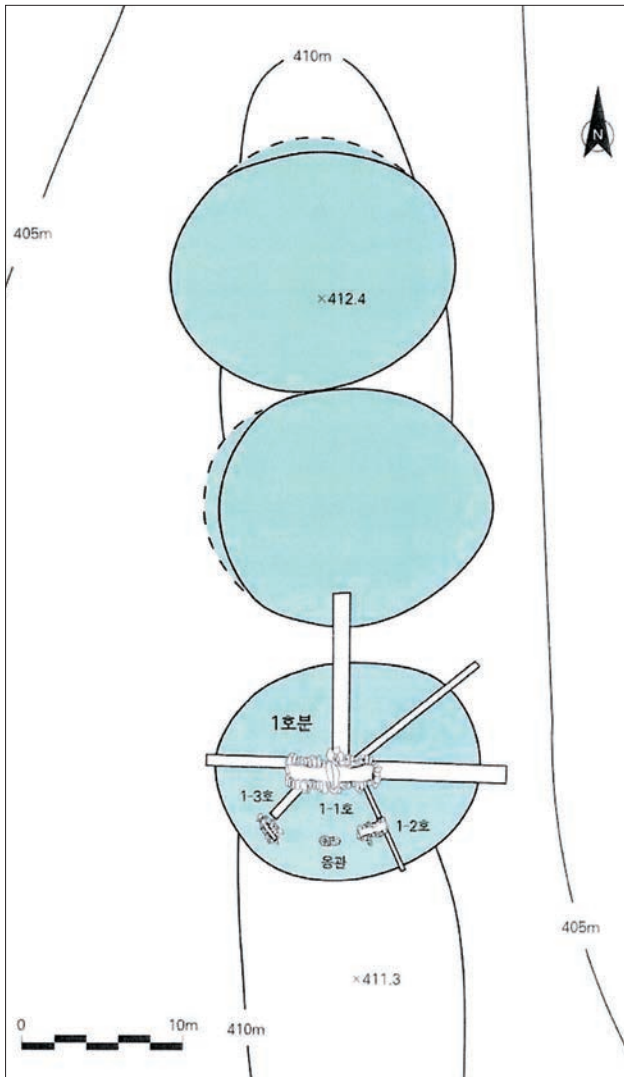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광구장경호, 장경호, 장란형토기, 발, 기대편, 꺾쇠, 철제 무기류

고분군은 백화산 해발 850.9m에서 북서쪽으로 장계천까지 뻗은 지류에 자리한다. 지류의 중간지점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2기의 고분과 그 아래쪽에는 봉토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20여 기의 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2기의 고분에서 남쪽으로 자리한 고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봉토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동-서 21.0m, 남-북 13.0m이다. 봉토의 중앙부에 자리한 주석곽을 중심으로 2기의 순장곽과 이들 순장곽 사이에 장란형토기를 잇대어 놓은 옹관묘가 배치된 다장식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광구장경호, 장경호, 장란형토기, 발, 기대 편 등의 토기류와 꺾쇠, 교구, 철겸, 철도자, 철모,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삼봉리에서 조사된 고분은 5세기 말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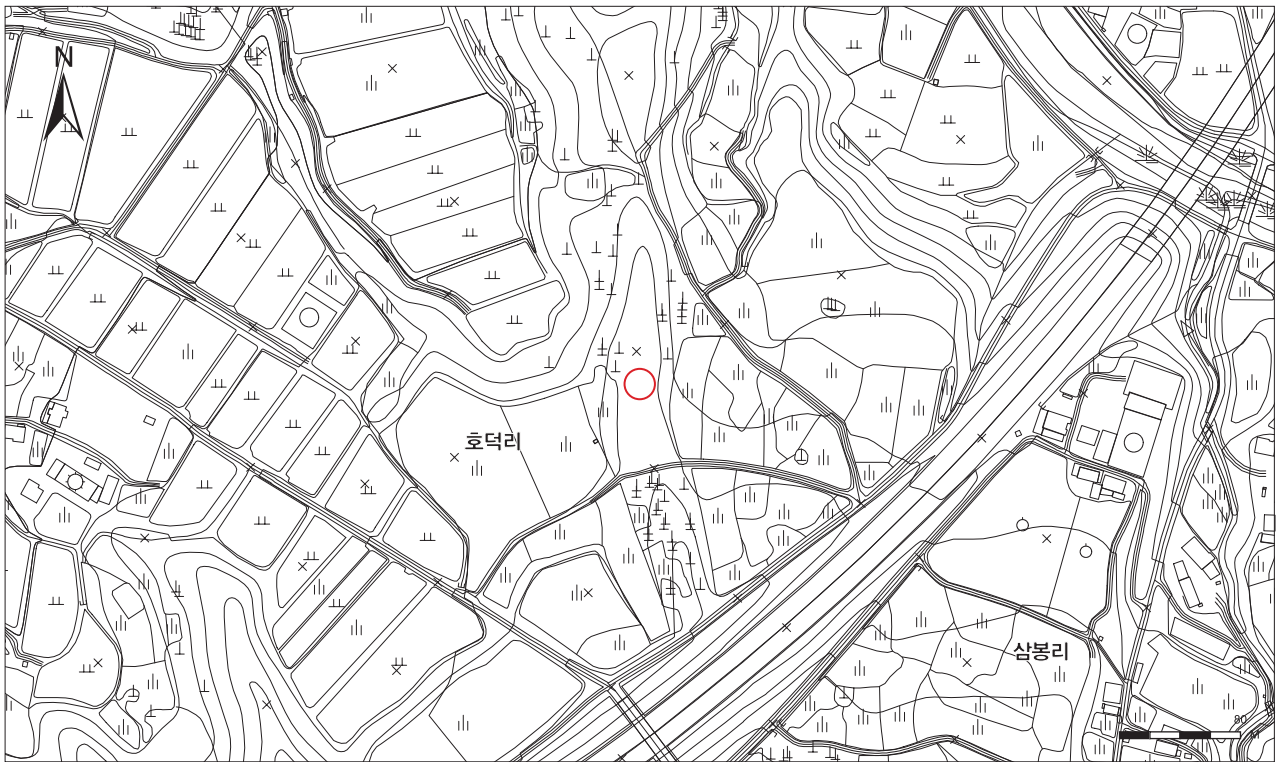
02-2 장수 삼봉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0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2.11.~20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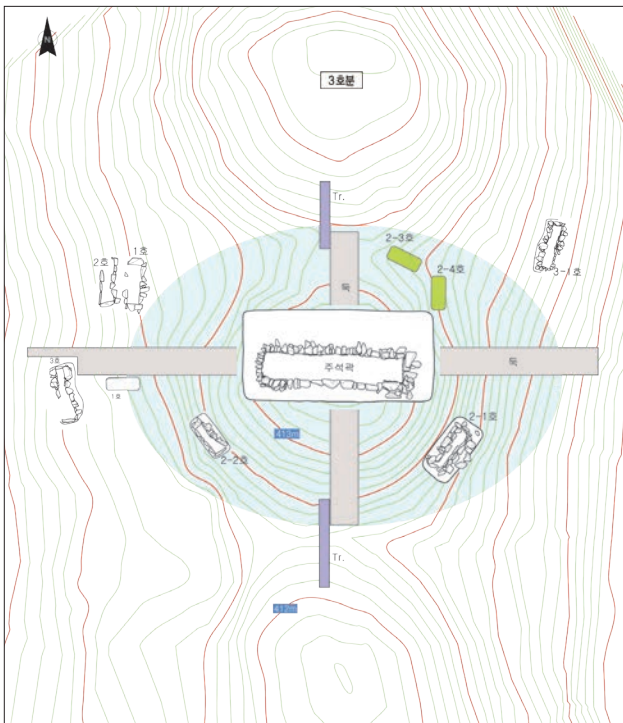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토광묘 / 광구장경호, 장경호, 장란형토기, 발, 기대 편, 꺾쇠, 철제무기류

고분군은 백화산 해발 850.9m에서 북서쪽으로 장계천까지 뻗은 지류에 자리한다. 발굴조사는 2호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는 1·3·4·5·6호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1호분과 6호분의 주곽과 3호분의 주변 석곽묘는 훼손이 심해 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2호분은 백화산에서 장계천 방향으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에 자리하며, 삼봉리고분군 내 남쪽에 치우쳐 있다. 2호분의 남쪽으로는 200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던 고분이 연접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2호분은 봉토의 잔존 규모가 동서길이 19.8m, 남북폭 11m 내외로 대형에 속한다. 봉분의 내부에서는 주석곽과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2기,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주석곽은 양 장벽 가까이에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함양 백천리 1-3호 등 대가야의 고분에서 조사되고 있어 이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형태는 인근 남

유적 위치도

원 월산리·두락리, 함양 상백리·백천리 등과 유사하다. 이처럼 유구의 성격을 보면 대가야와 연관성이 있음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기류는 주 석곽에서 유개장경호·단경호·심발형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나 완형의 형태는 많지 않다. 유개장경호는 대가야계와 재지계의 형식이 공존하고 광구장경호는 재지계에 가까우며, 단경호와 대호는 백제계 토기 양상을 갖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재지계의 특성이 강한 토기로 판단된다. 철기류는 교구·등자·재갈·안교 등 마구류와 대도·철촉·철모·철부 등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삼봉리고분군의 축조연대는 토기와 마구류 등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삼봉리 고분군』.

유구 배치도

2호분

토기류

금속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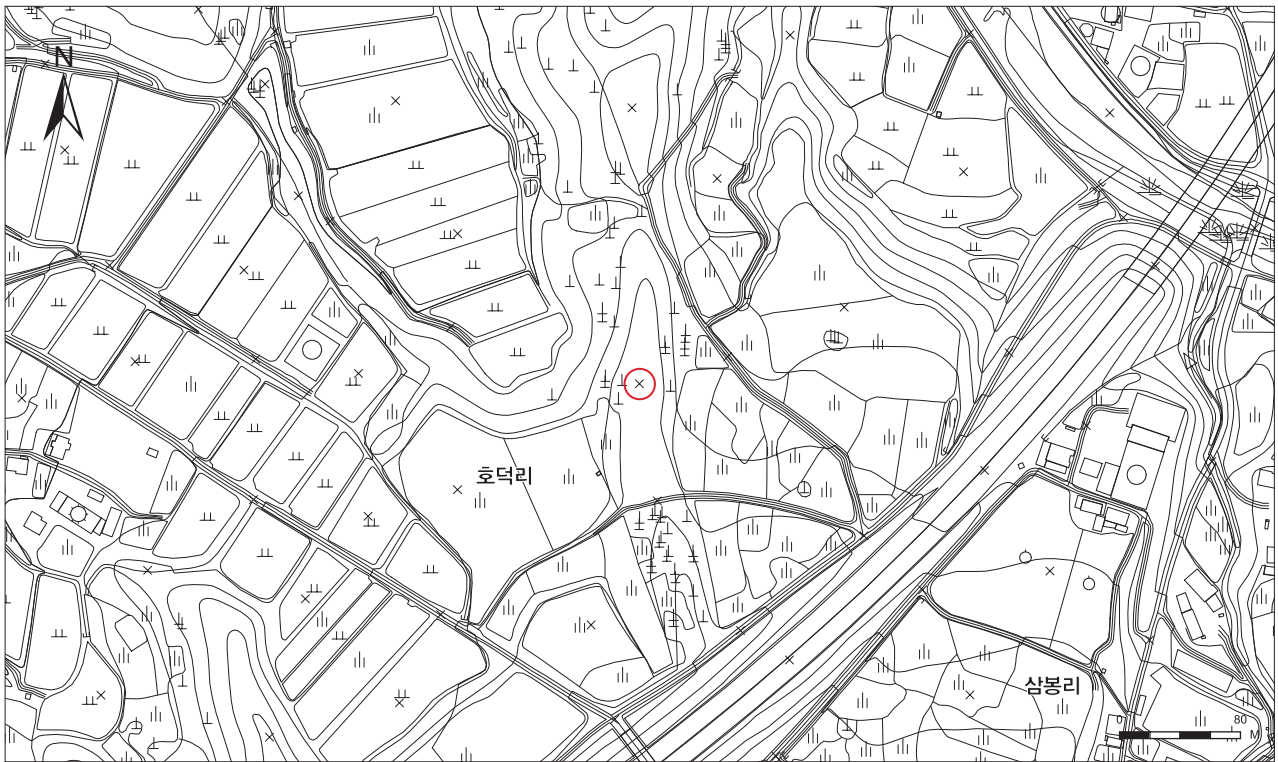
02-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0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5.9.~2015.1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광구장경호, 장경호, 장란형토기, 발, 기대 편, 꺾쇠, 철제무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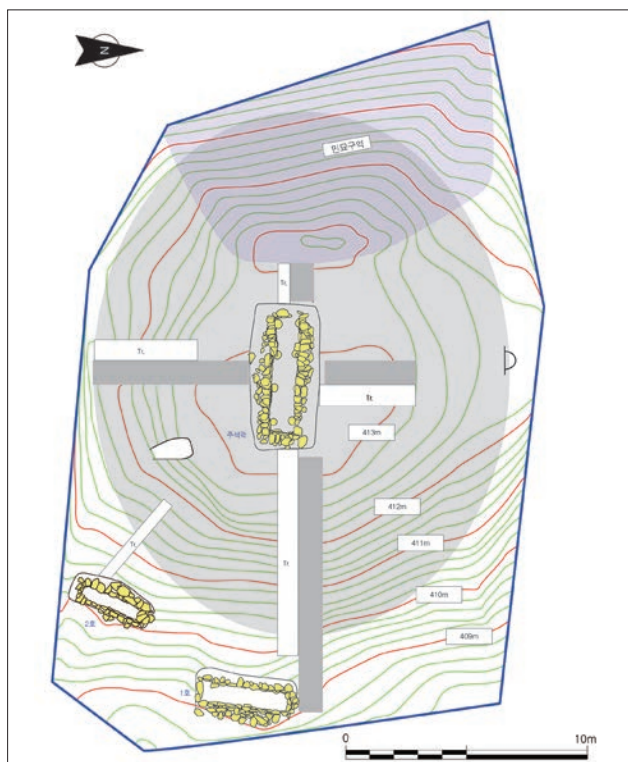
고분군은 백화산 해발 850.9m에서 북서쪽으로 장계천까지 뻗은 지류에 자리한다. 금번 발굴조사 된 삼봉리 3호분은 백화산에서 장계천 방향으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대형고분으로서 삼봉리고분군의 남쪽에 치우쳐 있다. 3호분의 남쪽으로는 2013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2호분과 연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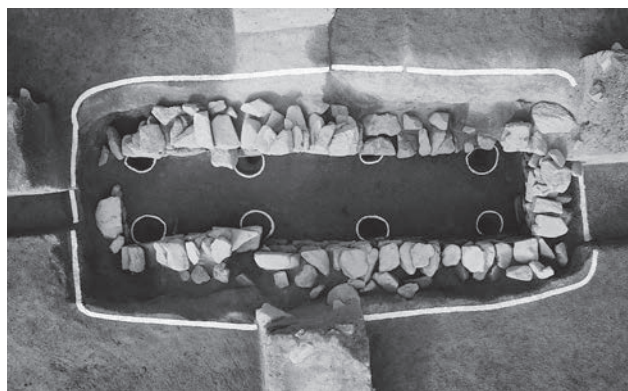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3호분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규모는 동-서 26.0m, 남-북 17.0m, 잔존높이 5.0m 내외이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의 구조이며, 주변에 2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봉토는 남-북으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와 경사가 급한 동쪽 사면부는 깎아내고, 지대가 낮은 서쪽 사면부는 성토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다. 정상부는 높이 60㎝ 내외로 1차 성토한 후 이를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여 주석곽을 축조하였다. 주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바닥면에서 목주가 확인되는데 양 장벽에 붙어서 각각 4개씩 배치되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유물은 주석곽과 주변 석곽에서 장경호,

유적 위치도

단경호, 기대, 배 등의 토기류와 좌목선교구, 꺾쇠, 철겸, 철도자, 철촉,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에 있어 재지계와 백제·대가야계의 양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총의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기법에서는 장수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석곽구조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삼봉리 3호분의 조성시기는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유구 배치도

3호분

3호분 주석곽

3호분 출토유물

03 장수 동촌리고분군
長水 東村里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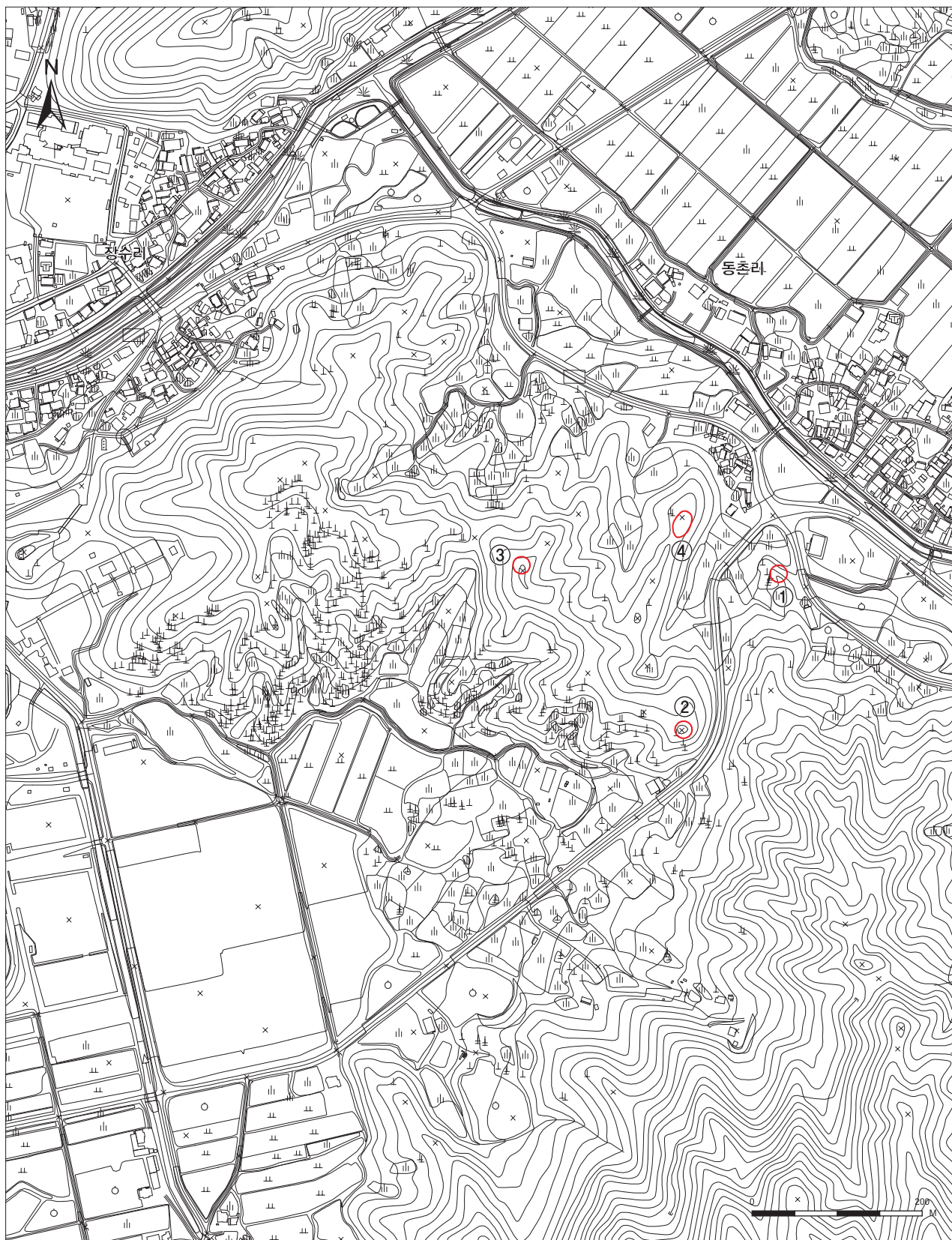
| 전라북도기념물 제132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산26-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금강의 상류지역인 장수분지 동남쪽에 자리한다. 마봉산 해발 723.9m에서 한 갈래의 지류가 장수읍 동촌리와 두산리의 경계를 이루면서 장수천까지 뻗어 내렸다. 지류는 가파른 경사를 이루다가 하단부에 이르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양쪽으로 여러 갈래의 구릉으로 갈라지는데,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80여 기의 중대형 고총이 자리한다. 고총은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직경 20m의 대형분 2기와 10~15m 내외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자리한다. 소형분은 구릉의 하단부와 규모가 큰 고총의 주변에 산재한다.

200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져 14기의 수혈식석곽묘와 2기의 골호 등 모두 1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봉토 내에 2기 이상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분이 확인되었으며,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2015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두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봉토와 매장시설의 축조방법 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주석곽에서 출토된 편자는 징이 박힌 상태로 말뼈와 함께 공반되어 확인되었다. 이렇듯 말뼈와 함께 출토된 편자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구려 태왕릉·우산하고분·몽촌토성 85-2호 주거지·발해유적·산청 평촌리유적 등에서 편자만 보고된 바가 있다.

2017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동촌리 30호분은 백두대간 서쪽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 중 봉토와 주석곽의 규모가 대형에 속한다.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는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하고 1차성토를 한 이후 묘광을 마련하여 석곽의 축조가 이루어진 양상으로 장수 삼봉리 2·3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2015)·동촌리 1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지역의 특징적인 축조기법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토기류는 재지계·백제·소가야·대가야계 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고분의 축조집단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면서도 주변 세력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석곽에서는 재갈, 등자, 운주, 교구를 비롯한 마구류와 장경호, 단경호, 기대, 개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중 재갈은 고령 지산동 44호분, 합천 옥전 M3호분, 함안 도항리 22호분, 동래 복천동 23호분 등 가야 수장층 무덤에서 출토된 바 있다.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삼봉리고분군과 함께 백두대간 서쪽에서 최대 규모의 고총 고분군으로 이 지역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의 지배계층 묘역으로 삼국시대의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장수 동촌리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002.2.~2003.12.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2005)
2	장수 동촌리고분군 –시굴조사유적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2012.11.~2013.2.	장수 동촌리 고분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2013)
	장수 동촌리고분군 1호분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2015.6.~2015.11.	장수 동촌리 고분군 -1호분(2015)
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동촌리 2호분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2015.9~2015.12.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2017)
4	장수 동촌리고분군 30호분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2017.9.~2017.10.	장수 동촌리 고분군 - 30호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7)

봉토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호석은 시설하지 않았다.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방식은 생토면과 구지표를 정지하고 일정부분 성토한 후 묘광을 마련하여 매장주체부를 두는 형식으로써 백두대간 동쪽지역의 가야고분군 중 장수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담고 있다. 출토된 토기류는 단경호·발형기대·발·개·배·고배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03-1 장수 동촌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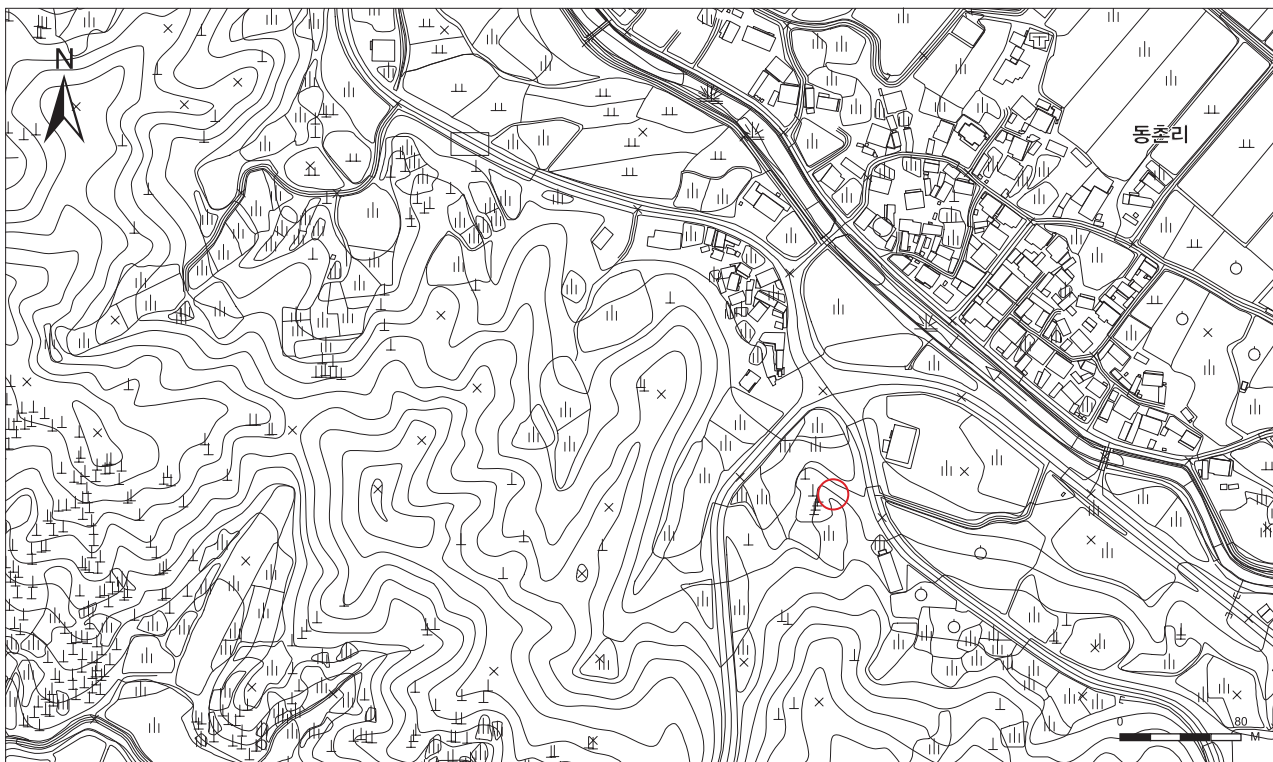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02.2.~2003.1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기대, 광구호, 장경호, 개배, 발, 금제이식, 철제무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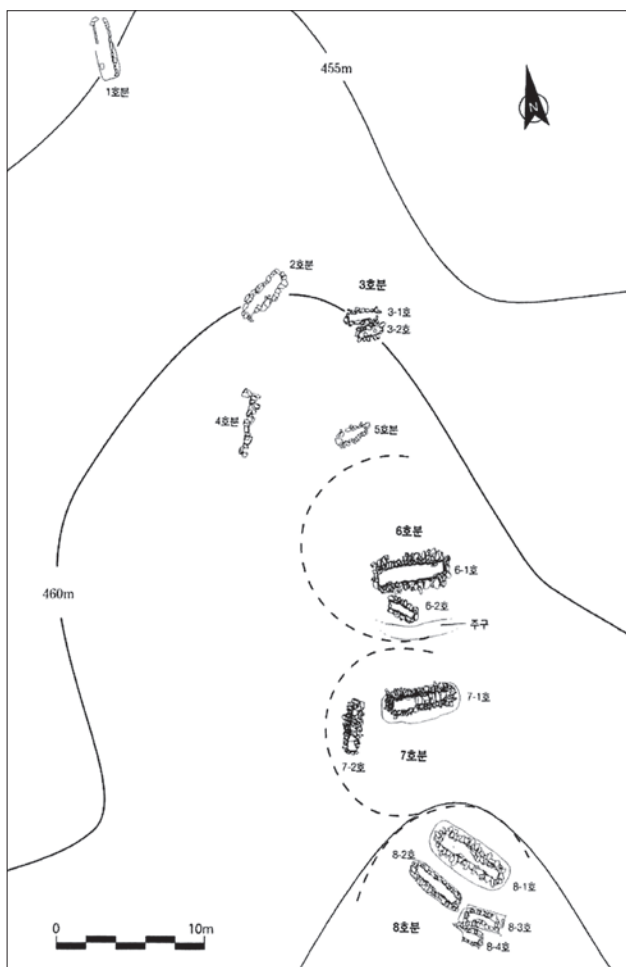
고분군은 마봉산 해발 724m에서 장수읍 방향인 북서쪽으로 뻗은 지류에 자리한다. 조사지역은 고분이 분포하는 다섯 갈래의 지류 중 가장 동쪽에 자리한 지류인 가지구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또한, 가장 서쪽에 자리한 지류인 마지구에서 노출된 고분 1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가지구에서 8기의 봉토분 내에서 14기의 수혈식석곽묘와 마지구에서 1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기대, 광구호, 광구장경호, 고배, 개배, 병, 발 등의 토기류와 철겸, 철도자, 철모, 철부, 철촉 등의 철제무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봉토의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지류의 정상부를 인위적으로 구획하고 축조하였다. 봉토가 잔존하는 6~8호분은 중앙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주변에 1~3기의 소형 석곽묘가 배치된 형태이다. 6호분의 경우 주구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구지표와 생토면을 파내어 토광을 마련한 다음, 그 안에 주로 천석을 가지고 장방형의 석곽을 축조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하였다.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동촌리 6~8호분은 5세기 중엽, 소형 석곽묘는 6세기 초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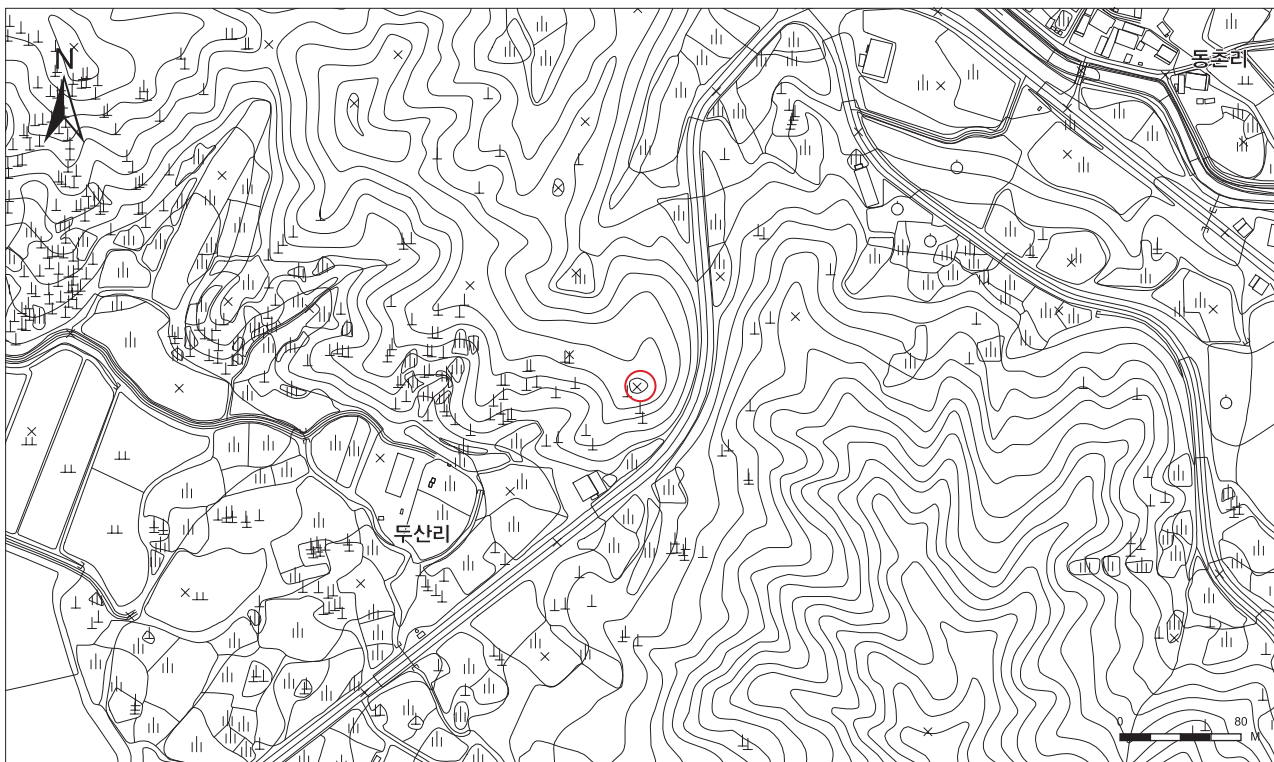
03-2 장수 동촌리고분군 1호분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시굴 2012.11.~2013.2.
발굴 2015.6.~2015.11.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기대, 단경호,
발, 편자

발굴조사된 동촌리 1호분은 동촌리고분군의 남동쪽에 자리하며, 2013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시굴조사 시 확인된 3기의 고분 가운데 하나이다. 고분은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분의 남동쪽으로는 중소형분이 북쪽 능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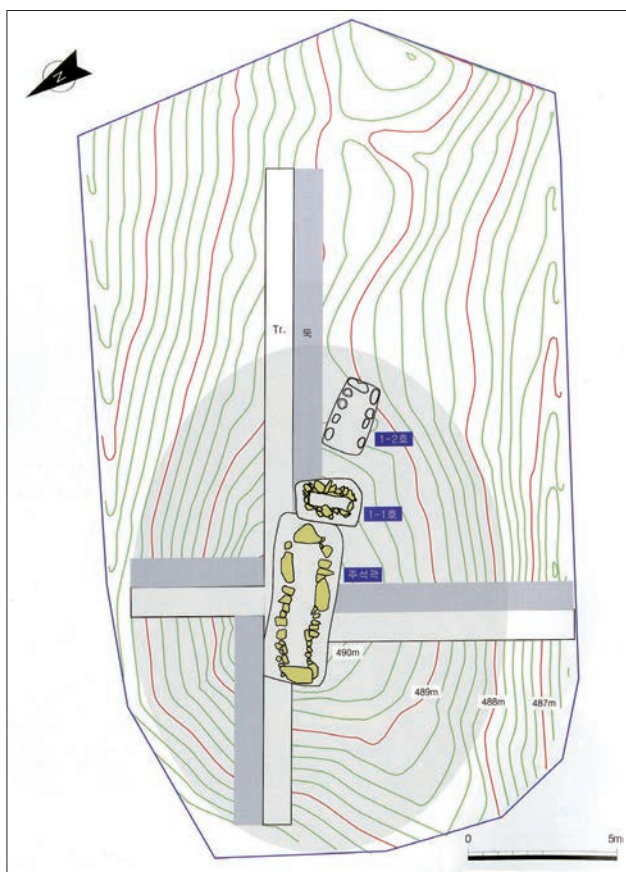
동촌리 1호분은 중형급 가야계고총으로 입지상 지류 사이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1호분 봉토의 규모는 남북 16.7m, 동서 7.4m, 잔존높이 2.1m 내외로써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의 구조이며, 주변에 2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한 후 1m 내외의 높이로 성토를 한 후 굴광하여 축조되었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호, 기대, 발, 뚜껑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와 함께 편자가 출토되었다. 단경호에서는 백제적 요소가 보이며, 발형기대는 함양 백천리·고령 지산동·합천 옥전의 출토품과 유사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발과 개, 배는 재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종래 장수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출토품과 흡사하다. 또한, 철제

유적 위치도

편자는 말뼈와 공반되어 출토되었는데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편자와 말뼈의 분석을 통해 실제 사용된 편자로 말의 품종과 매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출토유물에 있어 재지계와 백제·대가야계의 양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총의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기법에서는 장수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촌리 1호분의 축조연대는 석곽구조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동촌리 고분군 - 1호분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유구 배치도

주석곽

유물 출토모습

주석곽 출토 토기류

주석곽 출토 편자

03-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_ 동촌리 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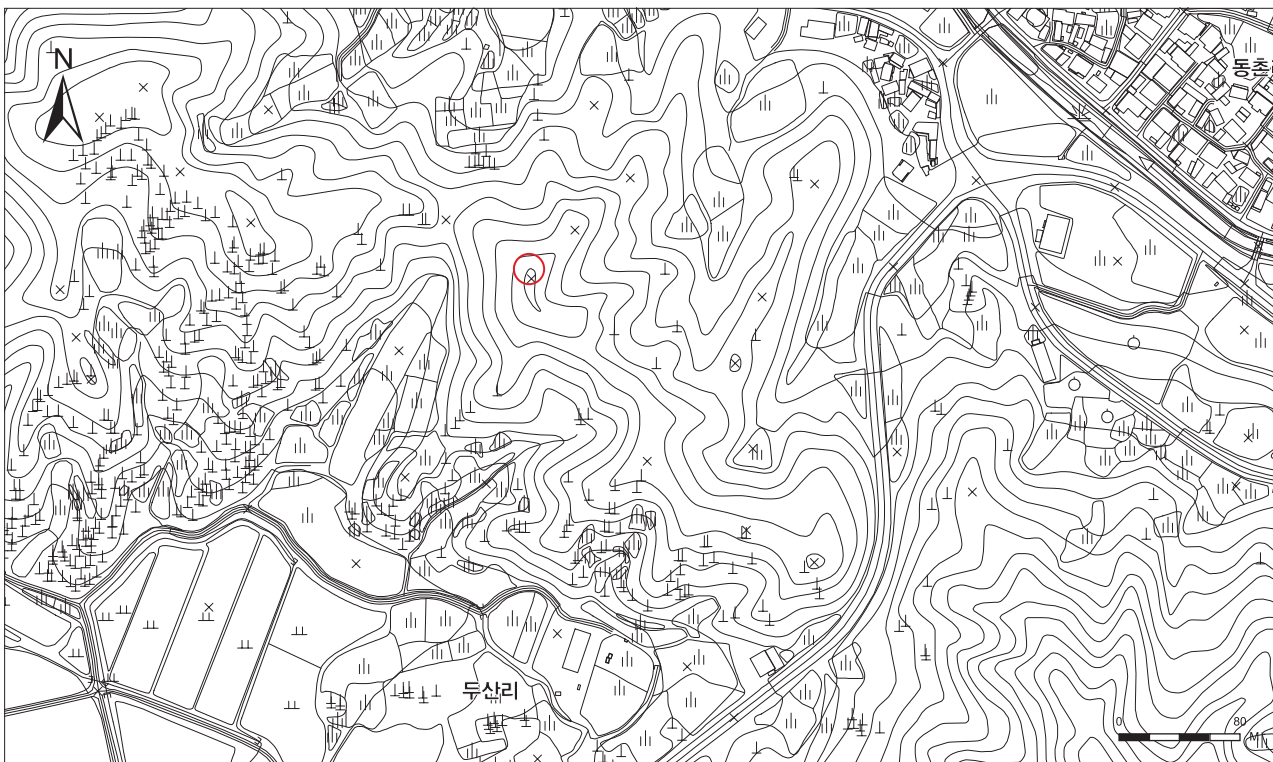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5.9.~2015.1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기대, 장경호,
대도, 금제이식

발굴조사 된 동촌리 2호분은 동촌리 고분군의 남서쪽에 자리하며, 2013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시굴조사 시 확인된 3기의 고분 가운데 하나이다. 고분은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분의 북쪽으로는 중소형분이 북쪽 능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동촌리 2호분은 중형급 가야계 고총으로 입지상 지류 사이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봉토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호석은 시설하지 않았다. 규모는 동-서 14.0m, 남-북 12.0m, 잔존 높이 1.8m 내외이다.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방식은 생토면과 구지표를 정지하고 일정부분 성토한 후 묘광을 마련하여 매장주체부를 두는 형식으로써 백두대간 동쪽지역의 가야고분군 중 장수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담고 있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의 구조이며, 주변에 3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봉토의 평면형태와 축조방법이 종래 장수군 일대에서 조사된 고분과 유사하며, 봉토와 벽석이 유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곽과 주변 석곽에서 장경호, 파수부완, 병, 개

유적 위치도

배, 고배, 기대 등의 토기류와 대도, 철도자,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다. 이 중 토기류는 재지계·백제·대가야계 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고분의 축조집단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면서도 주변 세력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출토유물에 있어 재지계와 백제·대가야계의 양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총의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기법에서는 장수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석곽구조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축조연대는 동촌리 2호분은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2호분

2호분 유물 출토모습

2호분 유물 출토모습

2호분 출토유물

03-4

장수 동촌리고분군 30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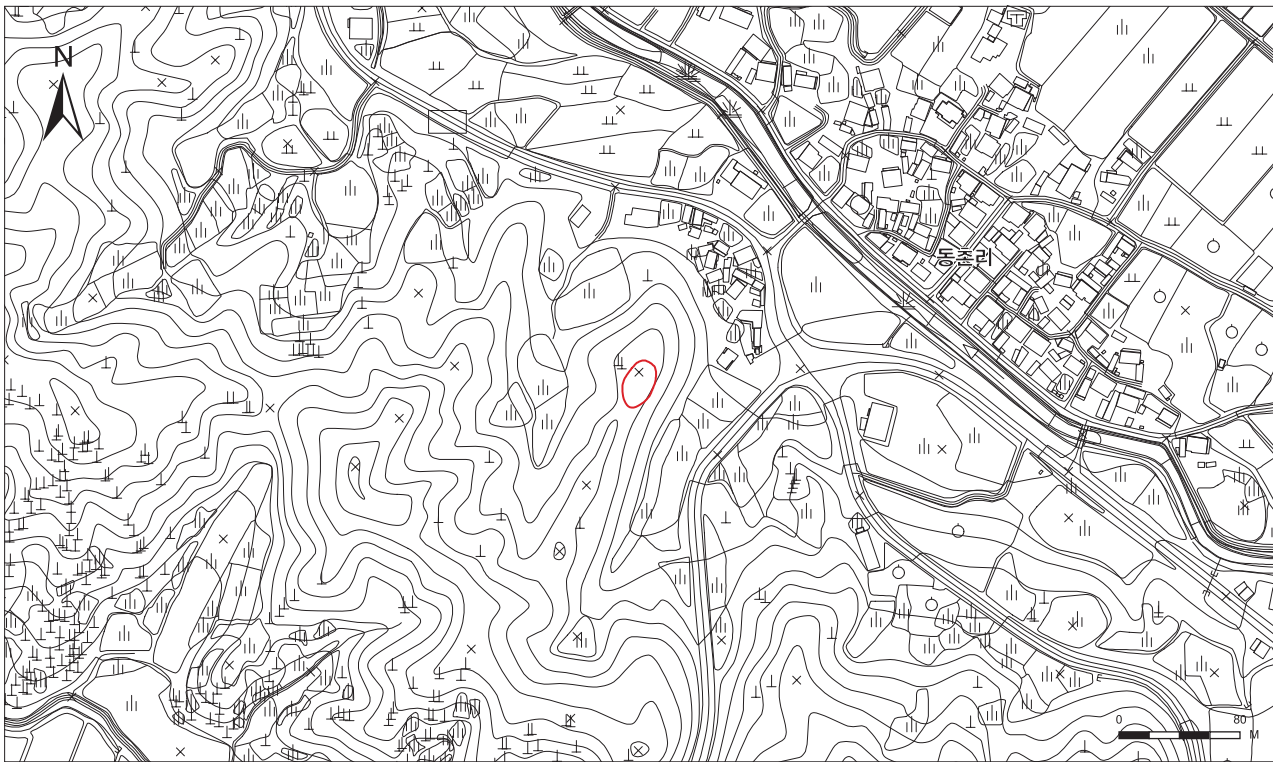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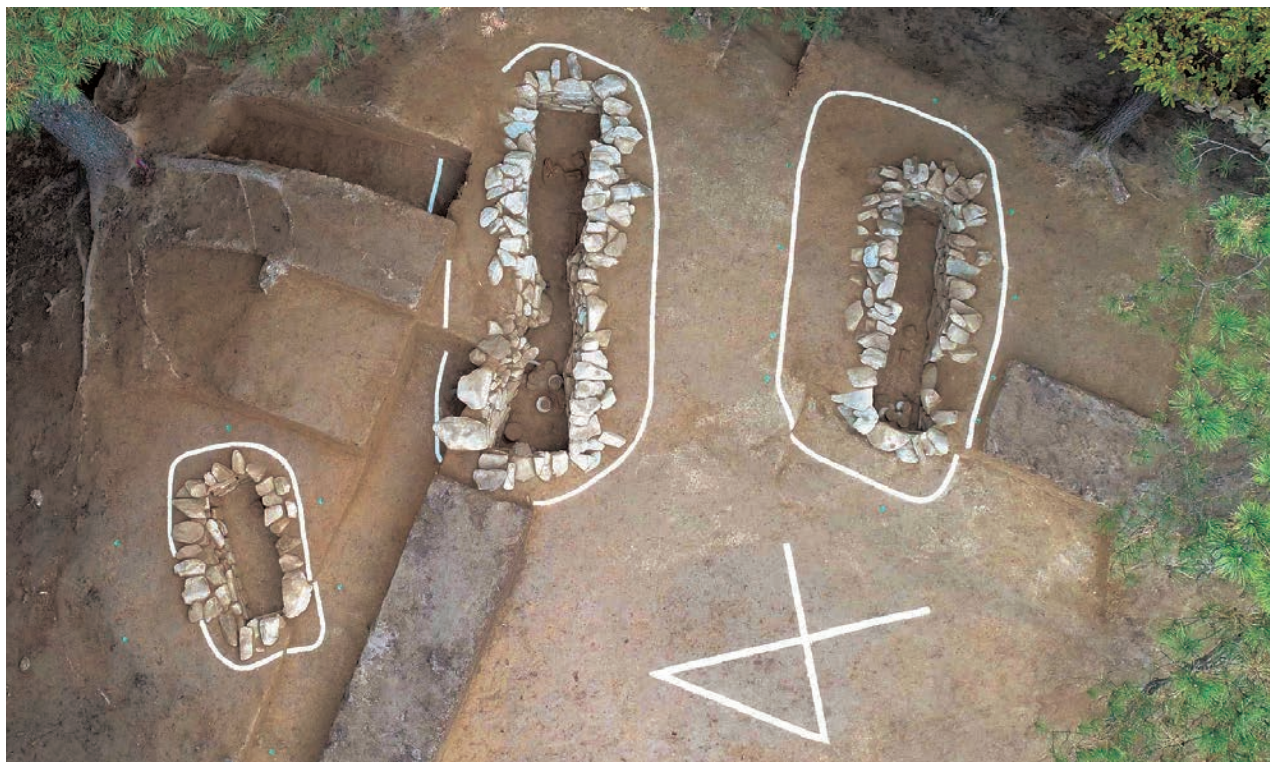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산26-1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7.9.~2017.10.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기대, 장경호, 단경호, 마구류

고분군이 자리한 장수분지는 장수군 장수읍과 천천면 일대에 해당된다. 백제의 우평현이 설치된 지역으로 신무산 뜬봉샘에서 발원한 장수천이 북쪽으로 흐르면서 들판과 구릉이 발달되어 있다. 발굴조사된 30호분은 봉토의 규모가 남-북 16m, 동-서 18m, 잔존 높이 3.5m 내외로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의 구조이며, 주변에 2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한 후 1m 내외의 높이로 성토를 한 후 굴광하여 축조되었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다듬어 이용하였다. 주석곽에서는 재갈, 등자, 운주, 교구를 비롯한 마구류와 장경호, 단경호, 기대, 개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중 재갈은 고령 지산동 44호분, 합천 옥전 M3호분, 함안 도항 22호분, 동래 복천동 23호분 등 가야 수장층 무덤에서 출토된 바 있다. 토기류는 재지계·백제·소가야·대가야계 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축조방법과 출토유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 고분군 -30호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토기류

철기류

04

남원 월산리고분군
南原 月山里古墳群

| 전라북도기념물 제138호

남원 월산리고분군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1-7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과 장수군 번암면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고봉인 봉화산(해발 920m)에서 동쪽으로 아영면 소재지까지 뻗어 내린 가지 능선의 최하단부에 해당된다. 고분군은 해발 450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의 경사면에 입지하는데, 본래 10여 기의 봉토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2차례 이루어졌다. 먼저 1982년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3기의 봉토분이 포함됨에 따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봉토분인 M1-A호분을 비롯한 수혈식석곽묘 10기가 확인되었는데, 석곽의 규모와 중복관계, 벽석의 축조기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 간에 선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남원의 재지계 토기가 주종을 이루면서 고령양식과 소가야양식 토기가 약간 섞여 있으며, 후자는 위세품인 환두대도를 비롯하여 마구류와 무구류, 목관에 사용된 관못과 꺾쇠 등도 출토되었다.

이후 1982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3기의 봉토분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완전히 유실되었고, 최하단부에 있던 M7·M8·M9호분은 경지정리로 인해 멸실됨에 따라 단 3기의 봉토분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광주-대구간 고속도로(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잔존된 3기의 봉토분(M4·M5·M6호분)이 편입됨에 따라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3기의 봉토분은 장축 9m 이상의 대형 수혈식석곽묘를 매장주체부로 갖춘 단곽식고분으로 밝혀졌는데, 매장주체부인 석곽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야계 고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물은 원통형기대, 발형기대, 소형기대, 유개장경호, 단경호, 고배, 개배 등의 토기류와 마구류, 장신구류, 농공구류, 무구류 등의 금속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M5호분에 출토된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이다. 이 유물들은 그간 가야계 고분에서 전혀 출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중국 남조 또는 백제 중앙과의 대외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곧 고분 피장자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월산리고분의 조성집단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원 월산리고분군은 고분의 구조와 축조기법, 출토유물 등을 토대로 5세기 중후엽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원 운봉고원 가야세력의 성장과정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 6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138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남원 월산리고분군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1982.3.~1982.4.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 보고(1983)
2	남원 월산리고분군 M4·M5·M6호분	전북문화재연구원	2010.6.~2010.10.	남원 월산리고분군 -M4·M5·M6호분-(2012)

04-1

남원 월산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산92-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1982.3.~1982.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금은상감 환두대도, 통형기대, 유개장경호, 갑주, 모형철기, 꺾쇠

월산리고분군의 상단부에 있던 M1·M2·M3호분이 1982년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동쪽 경사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길게 분포된 10여 기의 고분 중 제일 위쪽에 있는 M1-A호분은 전면적인 조사가, 그리고 M4호분은 수습조사의 성격을 띠고 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들 고총의 봉토 규모는 M1-A호분과 중복관계를 이루는 M2·M3호분을 제외하면, 동쪽 경사면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제일 위쪽에 위치한 M1-A호분이 최대 규모를 이룬다. 모두 10기가 조사된 고분은 석곽의 규모와 벽석의 축조방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첫째, 제Ⅰ유형은 석곽의 길이가 2m 이하인 소형 석관묘로 모두 4기가 있다. 이들 고분은 유사한 벽석의 축조방식을 보인다. 즉 벽석은 바닥에 판석형 할석을 서로 잇대고 그 위에 이보다 크기가 작은 할석을 더 올렸으며, 벽석 위에는 여러 매의 천정석을 덮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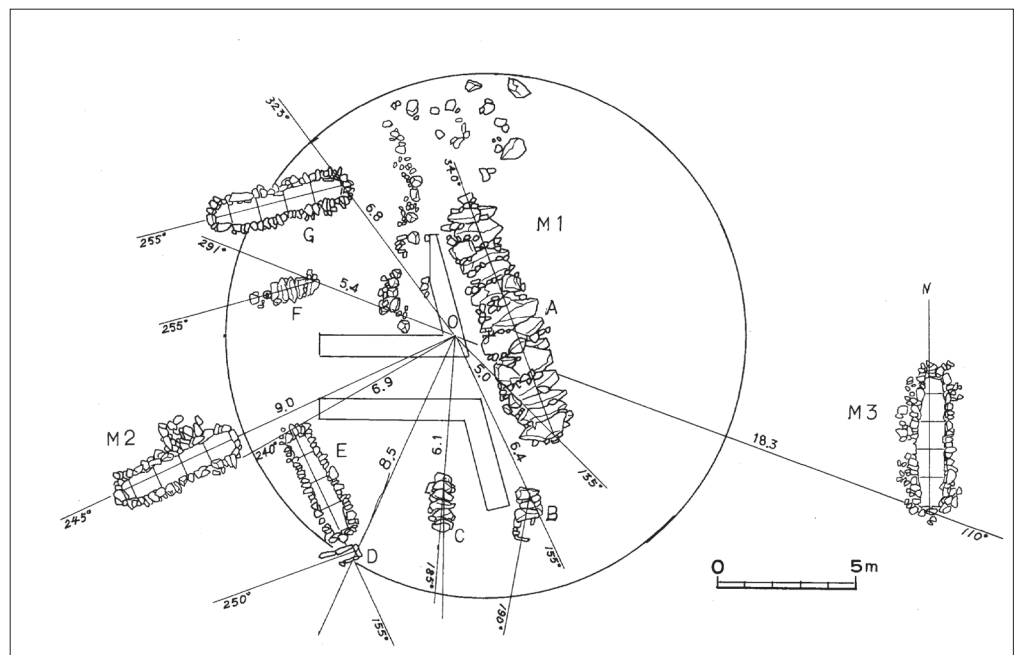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천정석 사이는 소형 할석 편으로 메꾸었다. 바닥은 흙바닥을 그대로 이용한 M1-B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판석형 할석이나 자갈을 깔았다.

둘째, 제Ⅱ유형은 석곽 길이가 377㎝×475㎝이고 4기의 고분이 이에 속한다. 벽석의 축조방식은 모두 유사한 형태로 제Ⅰ유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벽석은 크기가 다른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수직으로 쌓아 올렸는데, 그 상단부가 모두 유실되어 천정석의 존재여부는 분명치 않다. 석곽의 바닥은 주형 평면으로, 모든 고분이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셋째, 제Ⅲ유형은 M1-A호분과 M4호분과 같은 고분으로서 석곽의 길이가 8m 이상이다. 여기에 속하는 고분들은 서로 유사한 축조방식을 보인다. 즉 벽석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쌓은 다음 벽석 사이에는 점토를 바르고, 벽석 위에는 여러 매의 천정석을 올렸다. 그리고 바닥에는 편평한 천석을 깔았다.

봉토는 M1호분이 직경 19m로 제일 크고, 그 내부에는 여러 기의 고분이 중복관계를 보이며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고분이 서로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분명하여 중앙에 위치한 M1-A호분 1기만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토의 가장자리는 제Ⅱ유형으로 분류된 M2·M3호분과 마찬가지로 호석시설이 없다.

M1-A호분에 출토된 유물은 다른 유형의 고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종이 다양해지고 그 출토량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위세품인 환두대도는 귀갑문 안에 금사나 은사를 사용하여 상감기법으로 소화문小花文을 시문한 것으로서, 전북의 남강 수계권에 독자적인 세력 집단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토기류는 여전히 남원의 재지계 토기가 주종을 이루면서 일부 고령양식 토기가 섞여 있고, 유개장경호나 기대

유구 배치도

M1－A호분

M2호분

M3호분

M3호분 유물 출토모습

참고문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 보고』.

류는 제Ⅱ유형 단계의 출토품과 유사한 기형을 띤다. 다음으로 철기류는 다른 지역의 고총과 유사하게 마구류와 무구류가 있는데 목관에 사용된 관못과 꺾쇠도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04-2 남원 월산리고분군 M4·M5·M6호분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문화재연구원 / 2010.6.~2010.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청자계수호, 철제초두, 유개장경호, 마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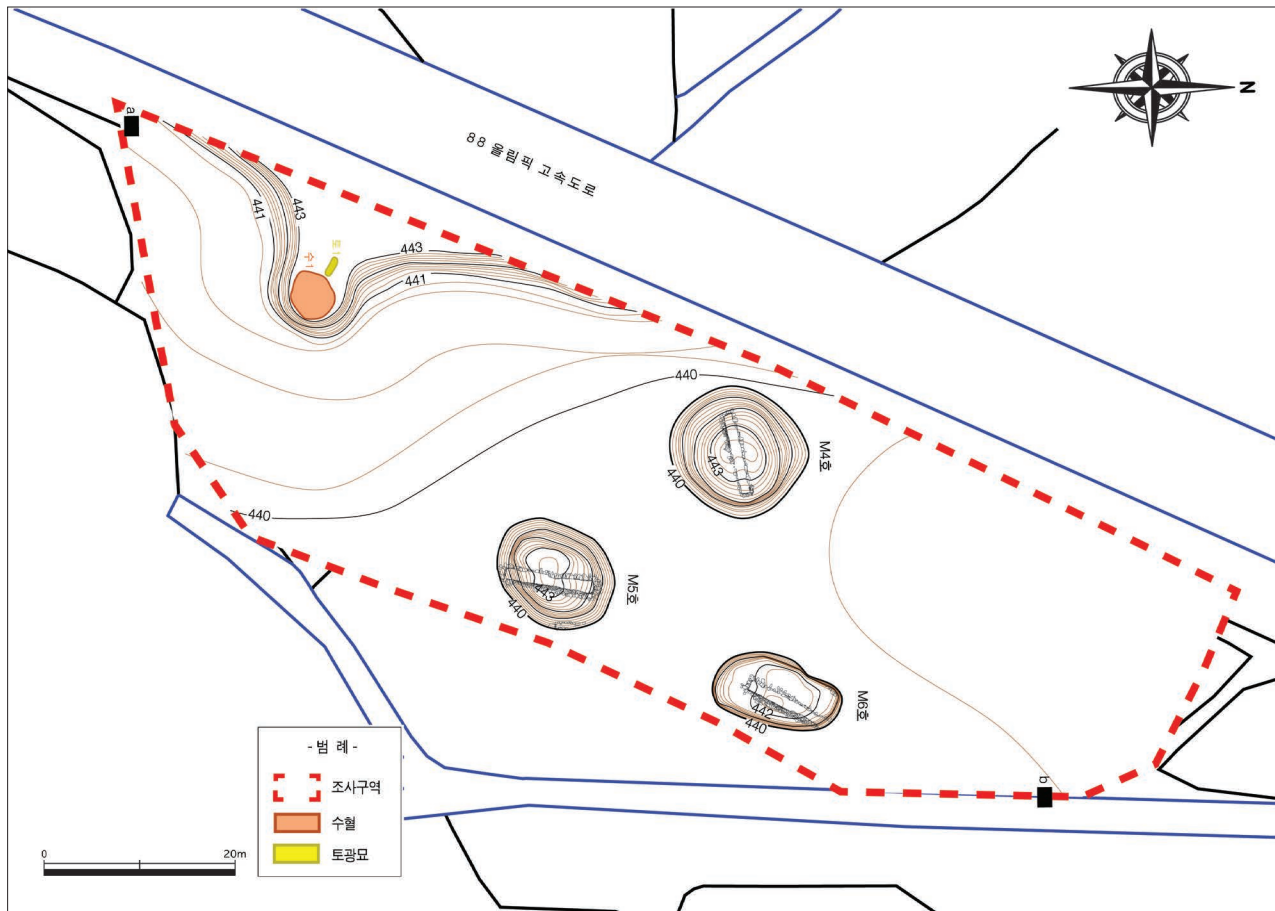
월산리고분군 내 잔존되어 있던 M4·M5·M6호분이 고속국도 제12호선(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 실시되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3기의 고분은 1982년 발굴조사가 실시된 M1·M2·M3호분보다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M4호분은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유실되었고, M5·M6호분은 보존·정비되어 있다.

3기의 고분 모두 각 1기의 수혈식석곽묘를 매장주체부로 갖춘 단곽식이며,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매장주체부인 수혈식석곽묘의 규모는 장축을 기준으로 M4호분 845㎝, M5호분 960㎝, M6호분 850㎝ 내외이다. 석곽은 최하단인 1단 정도만 묻힐 정도로 낮게 묘광을 마련하고, 2단부터는 봉토와 함께 쌓아올려 지상식의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대가야계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창적인 것으로, 마한의 분구묘 축조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유적 위치도

유물은 M4·M6호분은 도굴의 피해가 극심하여 토기 몇 점과 꺾쇠, 유리제목걸이 등 극소량만이 출토되었지만, M5호분의 경우, 도굴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벽 쪽에 치우친 유물들은 남아있었다. M5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금제귀걸이·유리제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류, 투구·목가리개·찰갑 등의 갑옷과 기꽂이·등자·재갈·삼환령 등의 마구류, 철도자·철촉·철부·철겸 등의 무구류 등과 꺾쇠, 통형기대·발형기대·유개장경호·단경호, 개배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여기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는 그간 가야 고분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월산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관계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고분군 -M4·M5·M6호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M5호분

M5호분 유물 출토모습

M5호분 유물 출토모습

청자계수호

05

남원 운봉 북천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3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2014.6.~2014.7.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 단각고배, 단경소호, 발형토기

북천리고분군은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31-2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해발 1,165m의 바래봉에서 서북쪽으로 흘러내린 가지구릉에 해당되며, 구릉 앞쪽으로 남강의 지류인 람천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른다. 람천의 서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 서쪽으로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뻗어있다.

북천리고분군은 2012년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람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구릉의 능선을 따라 9기 가량의 고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위탁하여 공모한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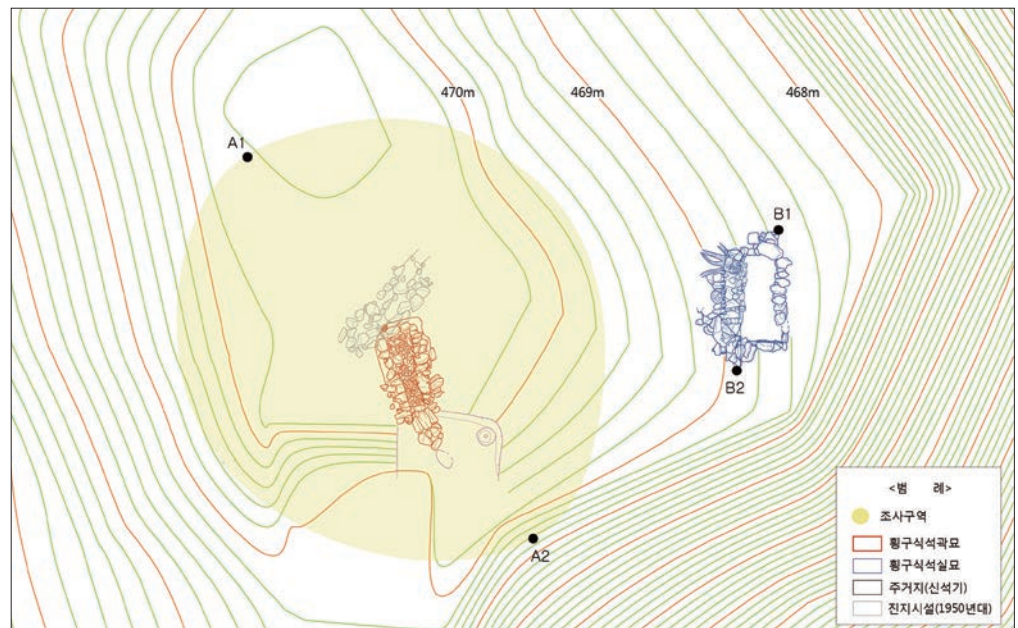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9기의 고분 중 3호분으로 명명된 고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 횡구식석곽묘 1기, 횡구식석실묘 1기,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 위치도

중 3호분의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곽묘이며,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상층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3호분의 동쪽 구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3호분의 매장주체부인 횡구식석곽묘는 장축방향이 등고선에 직교하는 남-북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루고 남벽인 횡구부는 지상에 시설하였다. 개석은 남아있지 않으며 석곽 바닥은 천석과 할석을 사용하여 이중으로 시설하였는데 별도의 배수시설은 하지 않았다. 석곽묘 내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입지와 축조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6세기 중반경의 가야계 횡구식석곽묘로 추정되었다. 다만 보고자는 석곽묘 주변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수습된 점이나 석곽의 축조방법 중 횡구부 폐쇄석이 지상에 놓인 점, 그리고 운봉고원에서 확인된 지금까지의 가야계 고분은 모두 수혈식이라는 점에서 6세기 중반경의 가야계 고분이 아닌 그 이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전라문화유산연구원·문화재청·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4, 『남원 운봉 북천리고분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횡구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06

남원 임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임리 산49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11.5~2011.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대호, 방추차, 개배

임리고분군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임리 산49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고봉인 고남산(해발 846m)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에 해당되는데, 주능선과 가지능선을 따라 직경 20m 내외의 고분 40여 기가 분포되어 있다.

발굴조사는 2011년 남원시의 지원을 받은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고분은 고분군의 전체 분포 상으로 볼 때, 가장 하단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전 도굴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개석 2매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발굴조사 결과 봉토의 규모는 직경 15m 내외로 확인되었으며, 봉토의 중앙에 주석곽을 배치하고, 그 서북쪽에 순장곽 2기를 조성한 다곽식으로 파악되었다.

석곽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주석곽은 횡구식으로 파악되었다. 축조 방법은 묘광을 파고 바닥을 정지한 후 벽석을 쌓아 올렸는데, 장벽과 단벽 모두 최하단부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를 세워 쌓고 그 위에 부정형의 할석을 눕혀 쌓았다. 또한 양 장벽과

유적 위치도

서북쪽 단벽의 연결부는 모를 줄여 맞물리게 축조하여 평면 호상弧像을 이룬다.

순장곽의 경우, 1-1호 석곽은 수혈식석곽으로 확인되었으며, 1-2호 석곽은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져 정확하지는 않으나, 형태나 규모, 구조가 1-1호 석곽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수혈식 석곽일 가능성이 높다. 벽석의 축조방식은 주곽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최하단석 위에 1·2단 가량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뚜껑돌을 덮은 형태이다.

이처럼 임리고분은 한 봉토 안에 주곽과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고분은 두락리·월산리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운봉고원의 가야계 수장층 묘제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특징적인 것이다. 이는 임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이 두락리와 월산리고분군의 축조집단과는 또 다른 운봉고원 수장층의 묘제일 가능성이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임리고분 주곽은 백제계와 가야계 고분의 속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데, 조사된 고분이 1기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백제의 운봉고원 진출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에서 출토된 가야계 유물의 기종은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개배 등으로 전체적인 기형은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토기의 소성도와 세부문양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 자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봉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구호와 병형토기, 대호 편 등 백제계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백제의 운봉고원 진출과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구 배치도

임리고분군의 조성 시기는 출토유물과 묘제의 속성을 근거로, 6세기 전반대로 추정되는데, 전체 고분군이 아닌, 가장 하단부에 자리한 1기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임리고분군은 백제와 가야의 속성이 혼재된 유적으로, 운봉고원 내 가야세력의 발전과정과 백제의 진출과정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남원 입암리·임리 고분』.

조사전 전경

주석곽

출토유물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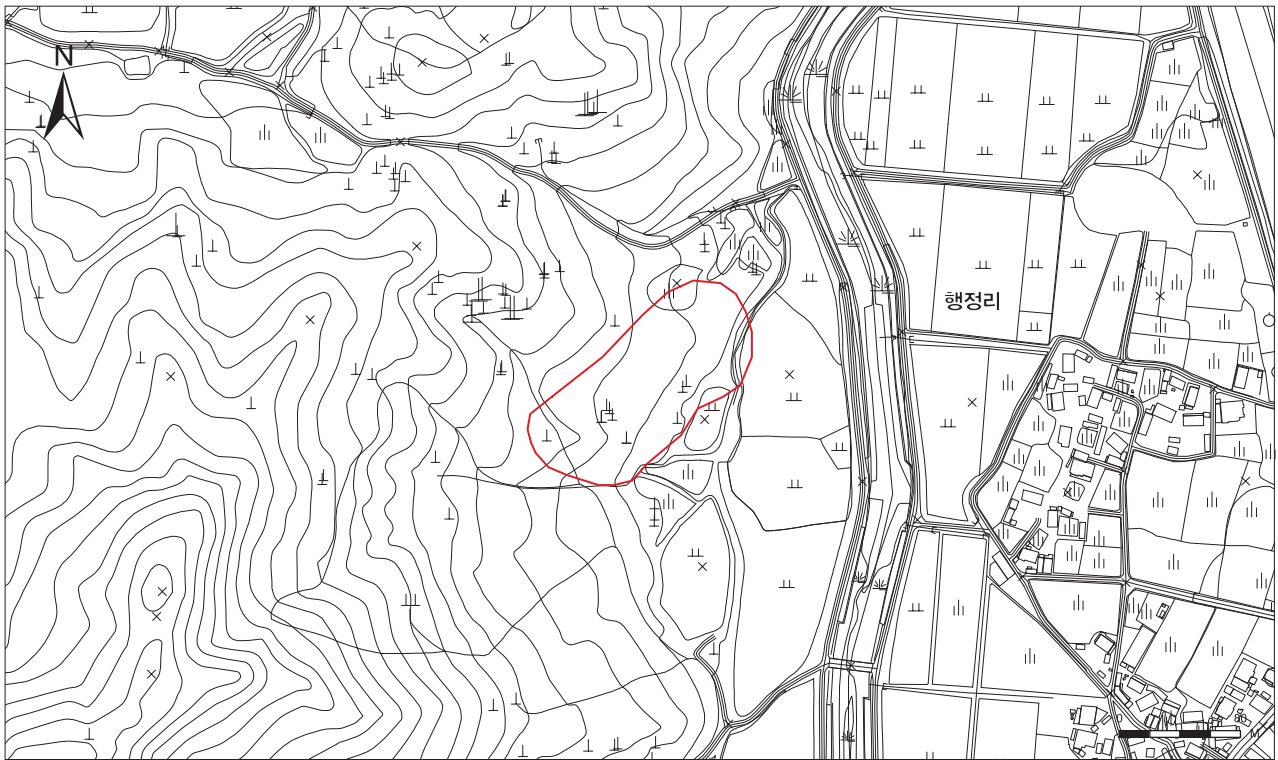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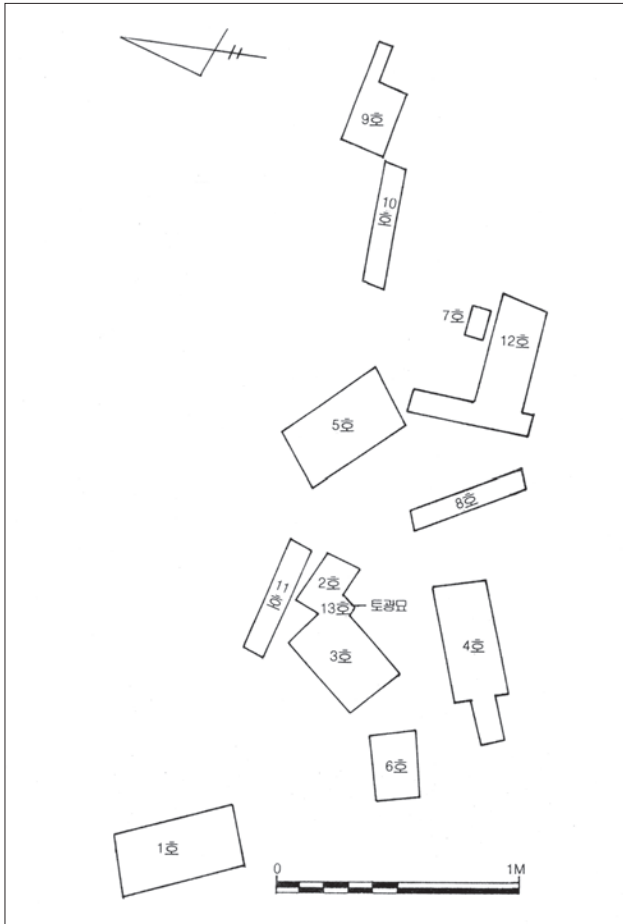
남원 행정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29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대학교박물관 / 1992.11.~1992.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철겸

행정리고분군은 백두대간의 고봉인 해발 804.7m의 수정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1987년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남원지역 지표조사를 통해 파괴된 고분들이 확인됨에 따라 학계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1992년 남원시의 지원을 받은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학술발굴조사 실시되었다. 당시 발굴조사는 도굴에 의하여 드러난 고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범위가 동-서 40m, 남-북 20m에 불과하다.

발굴조사 결과 모두 14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가야계 수혈식석곽묘는 12기이다. 조사된 석곽묘는 등고선과 평행되게 장축방향을 두고 있으며, 축조방법은 대체로 풍화암반층을 파내어 묘광를 마련하고 천석과 할석을 가로로 쌓아 벽석을 축조하였다. 고분의 구조는 봉토의 중앙에 주석곽이 배치되고, 그 주변에 소형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으로 파악되었다.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2.5m~3.5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1호 유구

출토유물

유물은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발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겸, 철도자, 철부, 철촉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의 조합상과 석곽묘의 구조 등이 인근의 건지리고분군과 유사하여, 이를 근거로 고분군의 조성 시기는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었다. 다만 행정리고분군에서 출토된 광구장경호 등은 한성기 백제 토기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행정리고분군은 남원 운봉고원 내 백제의 진출 과정은 물론,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북대학교박물관, 1994, 『행정리 고분군』.

08

남원 건지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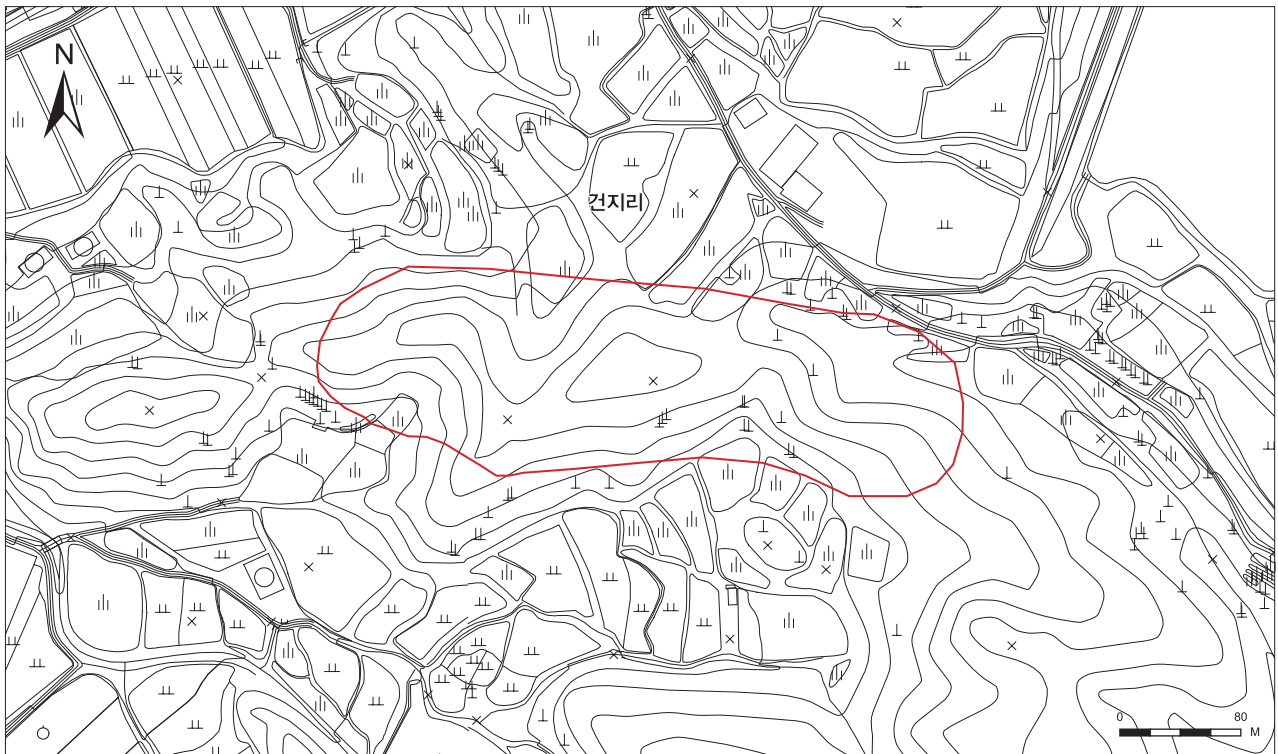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13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대학교박물관 / 1988.8.~1988.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장경호, 개배

건지리고분군은 전라북도 남원시와 경상남도 함양군의 도계를 이루는 해발 842.8m의 연비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8년 문화재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가지구에서 17기, 나지구에서 5기, 다지구에서 17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가지구와 나지구에서 조사된 석곽묘는 하나의 봉토에 여러 기의 고분이 축조되어 있는 다곽식이며, 다지구는 단곽식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석곽묘의 축조 방법, 장축 방향, 유물의 조합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곽묘의 축조방법은 생토면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다음 벽석을 축조하였는데, 최하단은 대형 판상석을 서로 잇대어 수직으로 세운 다음, 그 위에 할석과 천석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 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곧게 쌓아 올렸다. 석곽의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장축이

유적 위치도

200㎝~300㎝ 내외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고배, 개배, 발형토기, 병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B1호에서 출토된 병형토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주를 이룬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다곽식인 가지구와 나지구는 5세기 중반경, 단곽식인 다지구는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된다.

건지리고분군은 인근에 위치한 가야계 중대형 고총군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하위계층의 고분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원지역 가야문화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연구소, 1991, 『남원 건지리 고분군』.

유적 전경

다지구 B-3호 석곽

출토유물

09 남원 봉대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775-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10.7.~2010.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장경호, 고배, 개배, 호형토기, 철겸, 철부

봉대고분군은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775-8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과 장수군 번암면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 시리봉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해당된다.

봉대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0년 고속국도 제12호선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석곽묘 8기를 비롯하여 수혈, 구, 민묘 등이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장축 200㎝~340㎝ 내외의 비교적 소형이며, 봉토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유적 내 각 위치에서 등고선과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어 가야계 석곽묘의 전형적인 배치상태를 따르고 있으며, 3호를 제외하면 구릉을 따라 능선 상에 밀집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석곽묘의 축조방법은 기본적으로 기반토를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다음 장방형의 석재를 가로나 세로로 세워쌓은 후, 할석을 상단에 눕혀쌓기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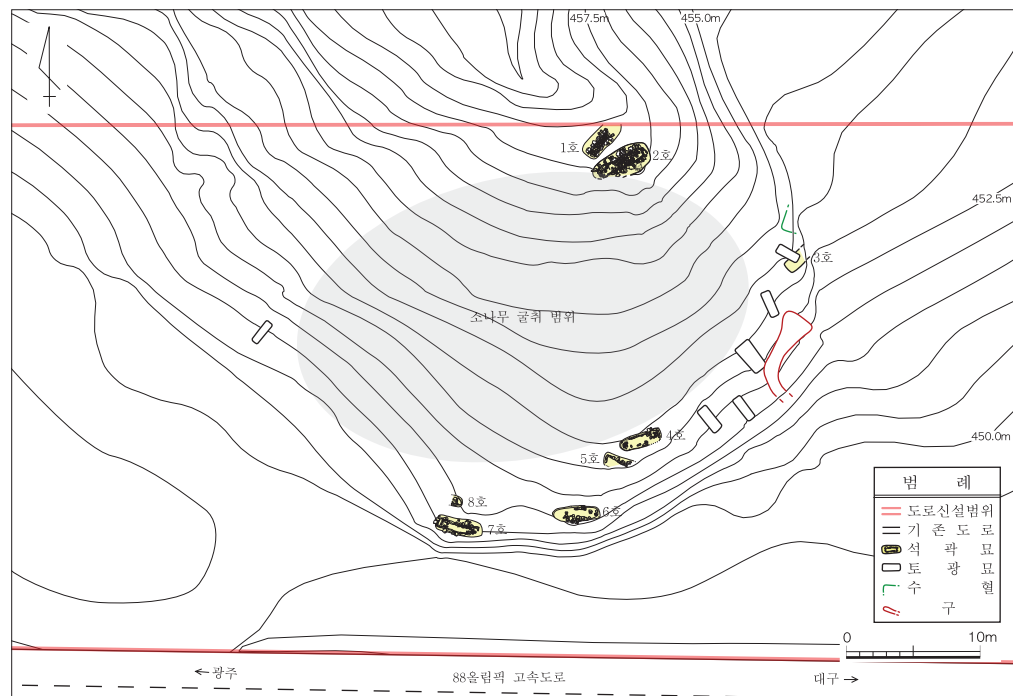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은 방식은 전북 동부 산악지역에서 5세기 이후 주로 사용된 축조기법이다. 한편, 2호의 경우 하단의 석재를 세로로 세운 후 내부에 약 50㎝ 정도의 높이로 복토가 이루어졌으며, 동쪽 단벽 부분의 바닥면이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시설하는 등 축조기법에 있어 다른 고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고분군이 위치한 남원지역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로 정형화되지 않는 특별한 속성으로 판단된다. 바닥시설의 경우 1호와 2호에서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기반토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기종으로는 단경호,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유개단각고배, 일단투창유개고배, 파수부호, 병형토기, 양이부호 등이 있다. 유물은 대부분 재지 생산품으로 판단되며, 대가야양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단경호나 병형토기, 양이부호 등에서 백제의 속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유개단각고배의 출토는 전북 동부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유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고분군의 축조 시기는 석곽의 축조방식과 일단투창고배나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등 토기의 속성을 고려할 때, 상한은 5세기 중반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한은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편구호나 유개단각고배로 보아 6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봉대고분군은 남원 운봉지역의 가야, 백제, 신라의 점유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남원봉대고분군·봉대 봉계사지』.

유구 배치도

10 남원 입암리고분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15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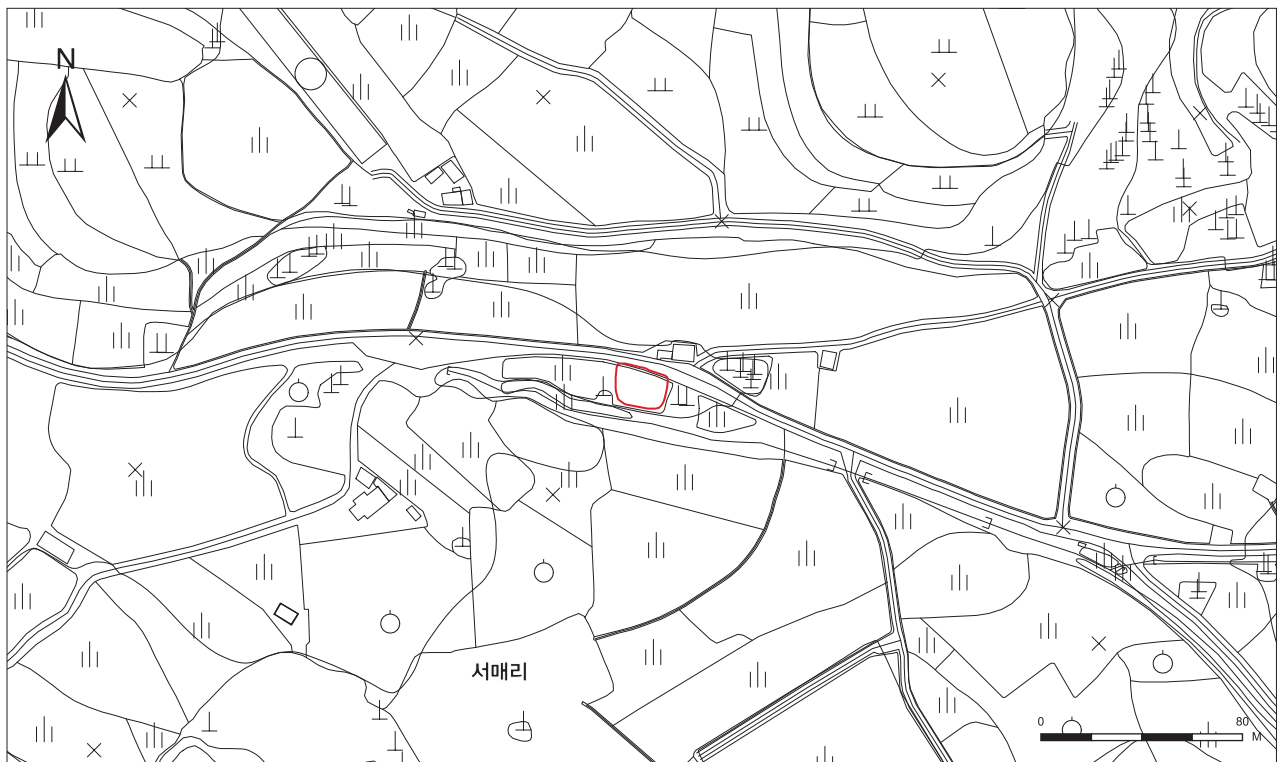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11.5.~2011.7.

주요 유구 / 유물
분구묘 / 철부, 철겸, 대호, 수평구연호

입암리고분은 행정구역 상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157~158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남원시 금지면과 대강면의 경계를 이루는 호남정맥의 고봉인 삿갓봉(해발 629m)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입암리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1년 남원시의 지원을 받은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잔존하는 분구와 그 주변의 평탄대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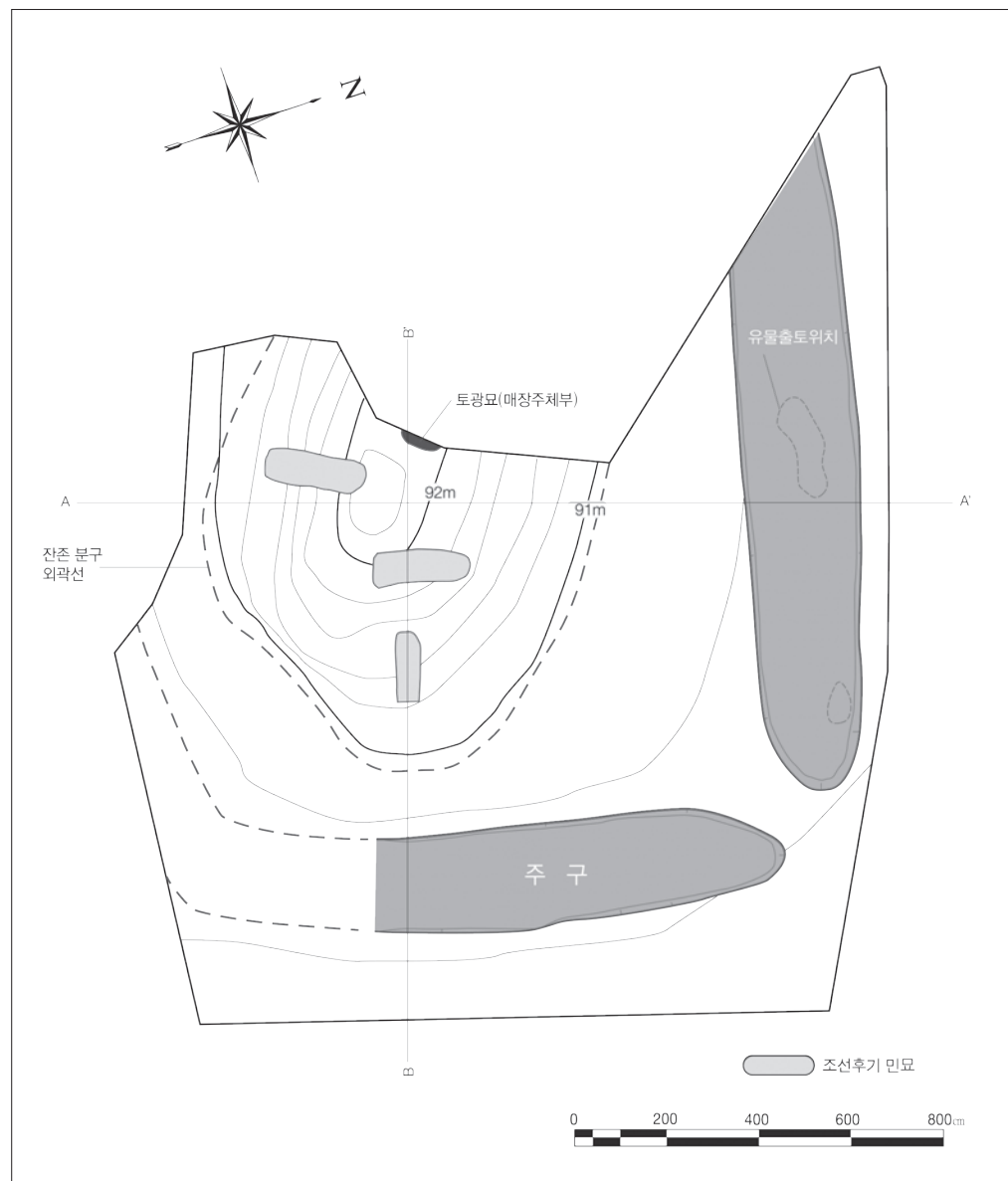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입암리고분은 분구묘로 확인되었다. 분구는 대부분이 훼손되어 일부만 남아있으며, 매장주체부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분구의 주변에는 주구를 돌려는데, 한정된 조사범위로 인해 정확한 평면형태를 파악되지 않았으나, 잔존현황으로 보아 방형 또는 장방형, 제형으로 추정된다. 대상부의 폭은 15m 내외이며, 주구의 폭은 2m 가량 된다. 주구의 동북쪽 모서리에 개구부가 마련되어 있다.

매장주체부인 토광묘는 완전한 지상식이며, 분구성토층을 다시 파내어 마련되었으나

유적 위치도

대부분 훼손되고 단벽 일부만 남아 있다. 유물은 토광묘의 내부에서 철부 3점과 철겸 편만이 출토되었으나, 1998년도에 토광묘의 절단면에서 광구호와 광구장경호가 발견·수습된 바 있다. 이 유물들의 속성을 근거로 입암리고분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주구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파쇄하여 바닥에 깐 다량의 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는 소가야양식의 수평구연호와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 서해안지역의 분구묘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분주토기 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입암리고분은 소가야 또는 마한세력의 섬진강유역 진출과정을 엿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남원 입암리·임리 고분』.

입암리고분 평면도

유적 전경

주구 및 토광묘

분구 성토모습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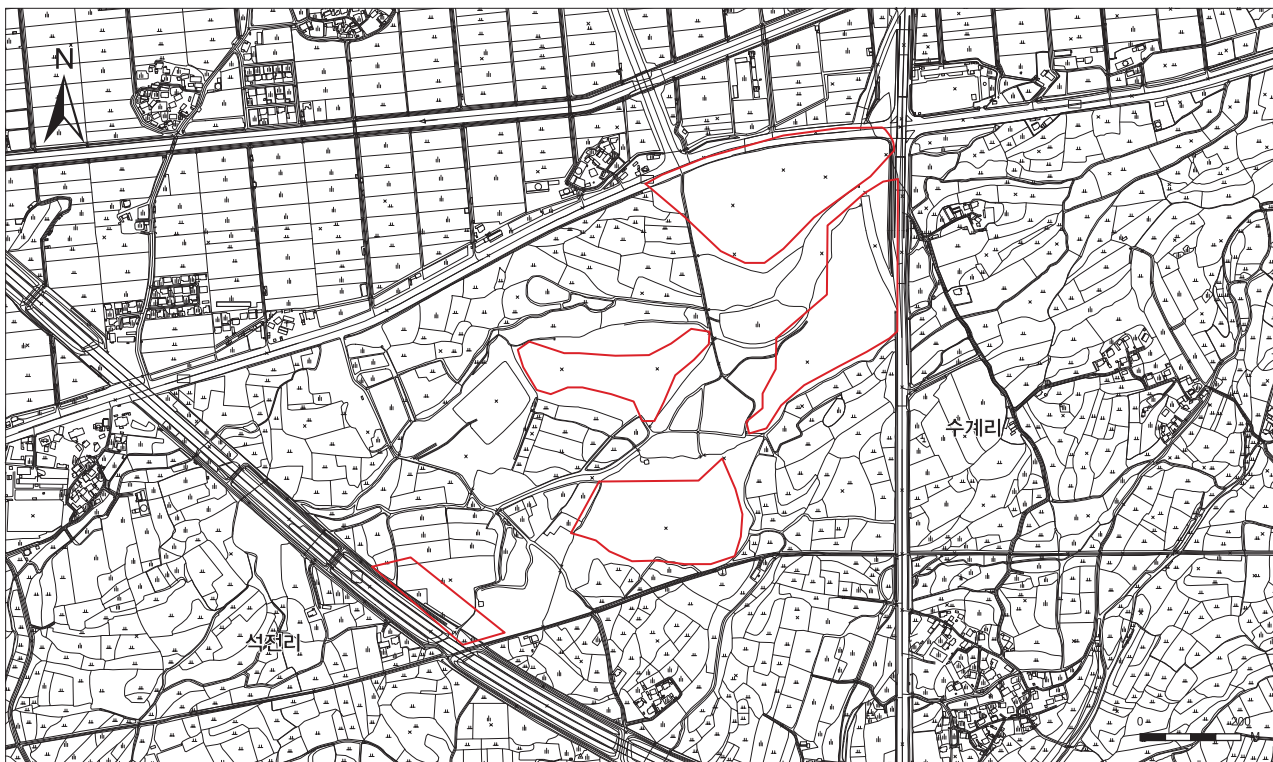
철기류

11 완주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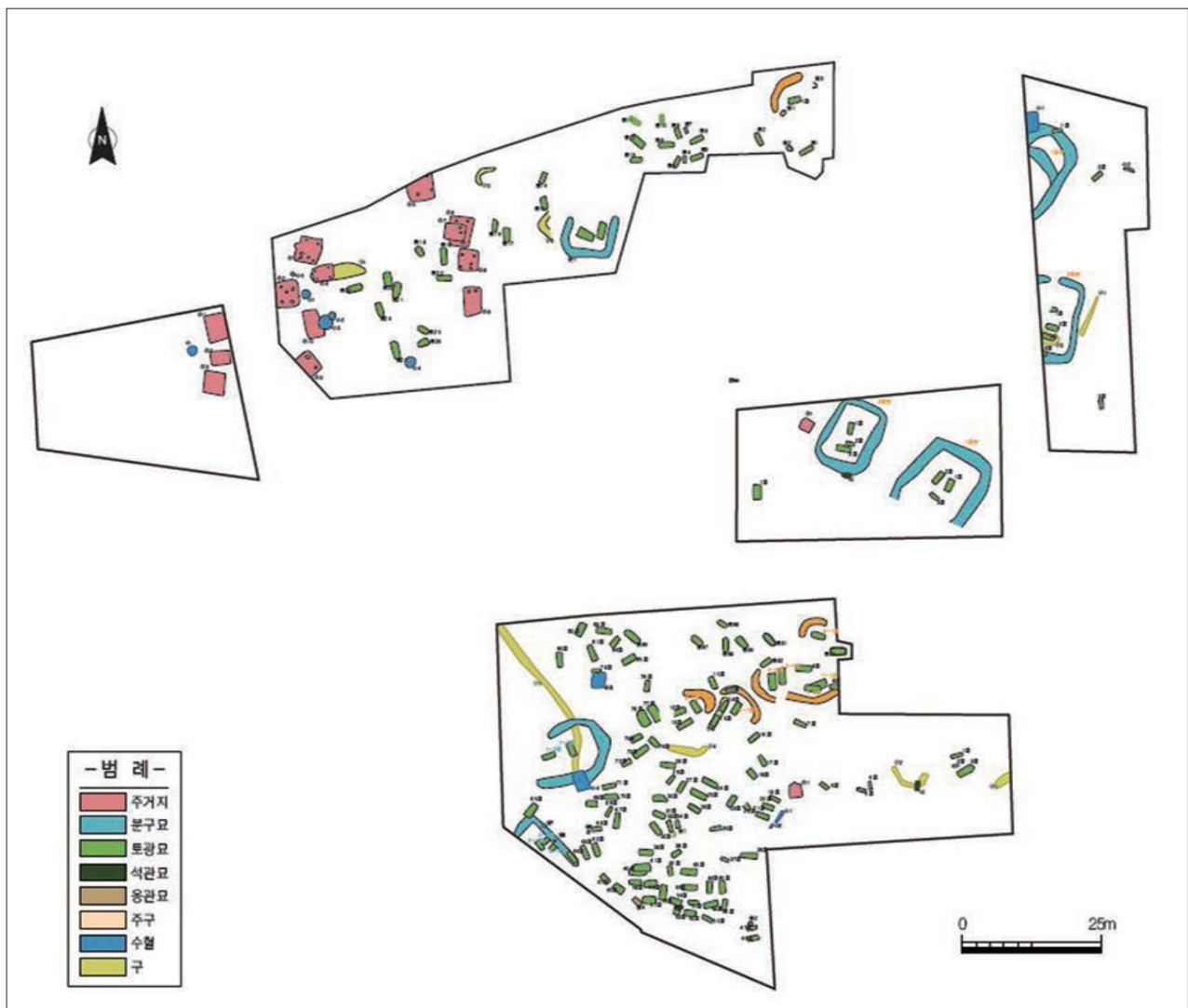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59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시굴 2014.6.~2015.9.
발굴
1차 2015.9.~2016.6.
2차 2015.9.~2016.8.
3차 2015.9.~2016.10.

주요 유구 / 유물
분구묘, 주구토광묘 /
광구호, 원저단경호, 환두도, 철도 편

완주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부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594-1 일대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만경강 남쪽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해당한다. 신포·장포·신기A·신기B·상탁A·상탁B 등 총 6개소의 유물산포지가 존재하는데, 2014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유적의 부존여부 및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상탁 유물산포지B를 제외한 모든 유물산포지에서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5년에는 동 기관에 의해 신기A·신기B·상탁 유물산포지에 대한 1차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신기 유물산포지A에서는 주구토광묘 2기, 토광묘 8기, 수혈 9기, 구 7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광구호, 양이부호, 원저단경호, 철겸 등이 출토되었다. 신기 유물산포지B에서는 원삼국시대 분구묘 2기, 주구토광묘 4기, 토광묘 32기, 옹관묘 6기, 주구 2기, 경작유구, 조선시대 건물지 3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광구호, 원저단경호, 직구호, 양

유적 위치도

이부호, 완, 장란형토기, 옹 등의 토기류와 환두도, 철도, 철도자, 철모, 철부, 철정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2015년에 동 기관에 의해 신포·장포 유물산포지에 대한 2차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신포 유물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토광묘 118기, 주구토광묘 4기, 분구묘 6기, 옹관묘 10기 주거지 5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로는 광구호, 원저단경호, 장경호, 발, 잔, 환두대도, 살포, 재갈, 철겸,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장포 유물산포지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25기, 수혈유구 38기, 원삼국시대 분구묘 7기, 토광묘 5기, 구 7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로는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대호, 광구호, 소호, 철겸, 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 배치도

특히 유적 내에서는 철정, 환두대도, 재갈 등 다수의 철기가 출토되었는데,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에 의해 제작된 철기가 유통되어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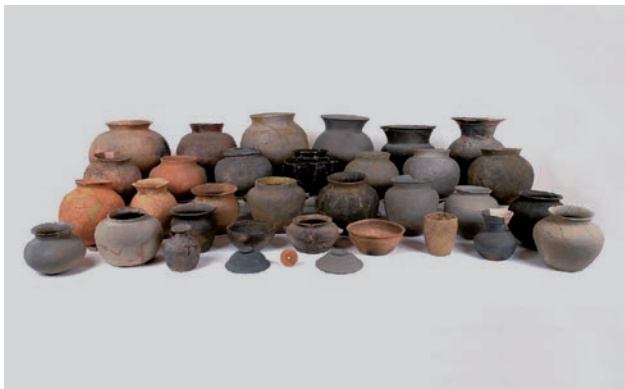
완주 수계리와 신포유적과 장포유적에서 조사된 200여 기의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은 한정된 범위 내에 토광묘, 주구토광묘, 분구묘가 자리하고 있어 마한 무덤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묘유적의 조성 시기는 4세기~5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포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이며, 내부에서 4주식 주공과 부뚜막 등 마한계 주거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전주 송천동, 중인동 유적과 더불어 완주일대의 4세기대 사회·생활상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장포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는 1구역에서, 분구묘는 2구역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어 동일시기 삶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되어 영위되었음을 보여준다.

완주 수계리 일대의 발굴조사를 통해 만경강유역 마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수집되어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완주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신포유적 1구역 1호 분구묘

토기류

철기류

12

진안 황산리고분군 _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06-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1996.7.~1996.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장경호

진안 황산리고분군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과 충남 금산면 남일면의 도계를 이루는 봉화산(해발 670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산줄기는 세 갈래로 갈라져있는데, 가운데에 고분군이 위치해 있고 동쪽 산줄기에는 와정토성이 자리한다. 유적은 1993년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조사 당시 지표에서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 편과 함께 유적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천석이 다수 확인되었다. 지표에 고분의 벽석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구는 일부 훼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는 진안 용담댐 건설로 수몰지 내에 소재한 고분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보존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 내에서 총 17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길이 2.5m, 폭 1m 내외, 장축방향은 서북-동남으로, 석곽묘를 조성하기 위한 장방형의 묘광을 굴착한 후,

유적 위치도

부정형 할석을 가로로 쌓아 그 안쪽에 벽체를 조성하였다. 후대에 경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훼손이 이루어져 벽석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석곽묘 내부에서는 유개장경호, 고배, 기대, 광구호 등의 가야계 토기와 직구호, 삼족기, 고배, 개배 등 백제 토기가 혼재된 양상이다.

석곽묘의 축조방법과 장축방향, 유물의 부장 등은 종래에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조사된 가야계 수혈식석곽묘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부장된 토기류는 나지구에서 가지구로 갈수록 백제 토기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다가 가지구에서는 가야계 토기와 백제 토기가 동일 석곽묘에서 절반씩 혼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가야계 토기와 백제 토기의 속성을 근거로, 유적의 조성 시기는 5세기 말엽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유적은 수혈식석곽묘에서 가야계 토기가 출토된 유적 중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 동부의 가야세력의 실체와 이들이 서쪽으로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Ⅳ』.

유적 전경

2호분

출토유물

13 무주 대차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2018.5.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장경호

무주 대차리고분군은 무주의 북쪽에 위치한 향로봉(해발 420m)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와 말단부에 위치한다. 유적에서 남쪽으로 650m 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남대천南大川이 흐르며, 천변에는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 동쪽에 위치한 산줄기로 말단부는 대부분 경작지로 조성되어 원지형이 크게 변형되었으나 정상부는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2006~2007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무주군』 발간을 위해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유적의 존재가 처음 파악되었다.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산줄기 정상부와 사면부에서는 비록 봉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나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천석과 도굴갱 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배, 구연 편, 동체 편 등 삼국시대 유물이 상당량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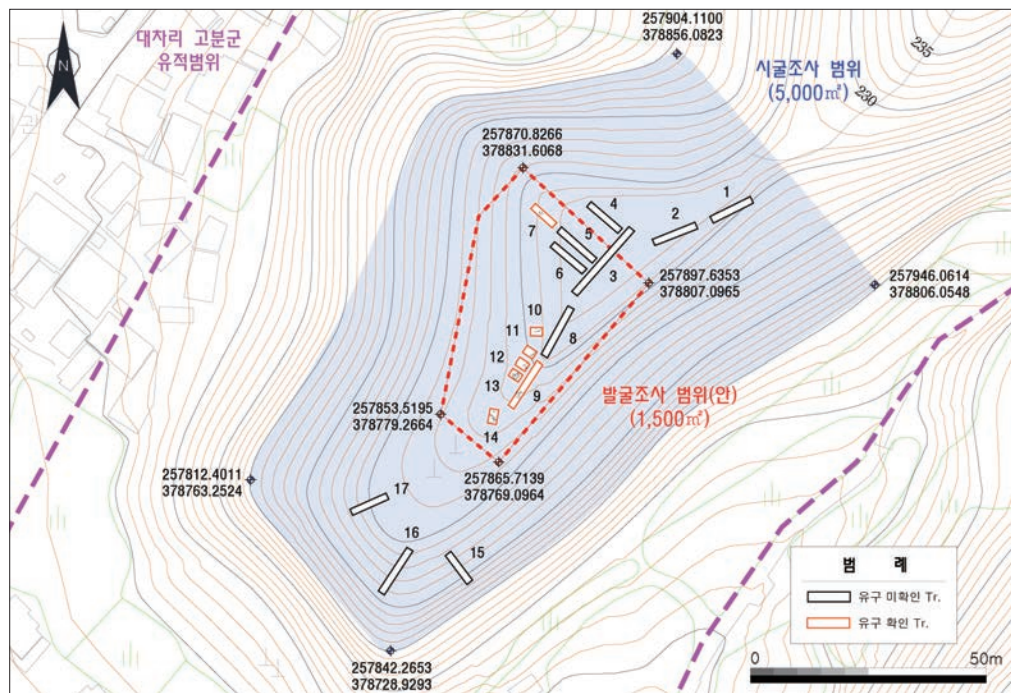
2018년 5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는 무주군의 지원을 받아 유적의 존재

유적 위치도

유무와 개략적인 범위 등을 파악하고자 학술목적의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는 천석과 삼국시대 유물이 주로 수습되는 산줄기 정상부 및 서·남·북쪽 사면부(5,000㎡)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정상부와 가까운 서쪽 사면부의 7·9·14 트렌치 내부에서 석곽으로 추정되는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30~40㎝ 내외의 천석 또는 할석을 가로로 쌓아 조성된 석렬이 총 7기 가량 드러났는데, 아직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단할 수 없지만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는 것으로 볼 때,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된다. 6·7호 이외의 나머지 석곽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내부에서 광구장경호 등 삼국시대 토기(편), 철겸 등의 유물이 상당량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2호와 7호 석곽은 천석으로 벽석이 조성된데 반해, 그 밖의 석곽은 할석으로 조성되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장축방향 역시 각 고분마다 다르고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향후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미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 유구 내부에 드러난 유물, 고분의 입지 등으로 보아, 유적은 가야·신라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성격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2018, 「무주 대차리 고분군 시굴조사」.

유구 배치도

석곽 노출모습

출토유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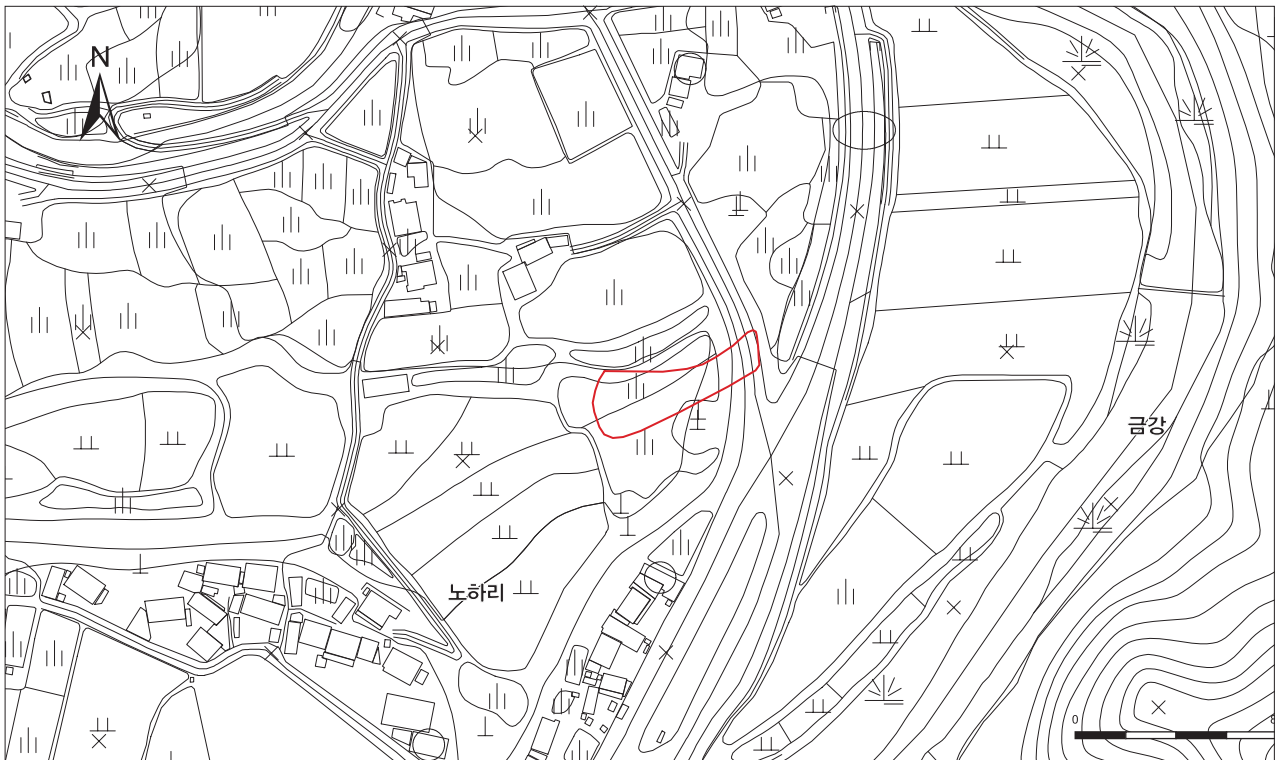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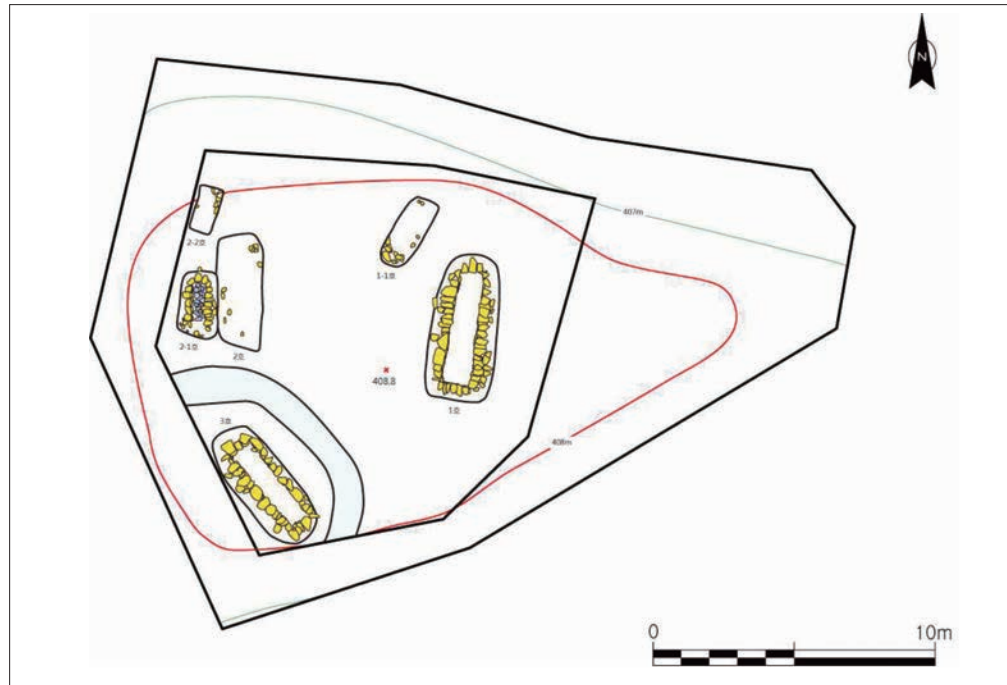
장수 노하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22-1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6.7.~2016.9.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기대, 철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22-10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노하리고분군은 봉황산 해발 863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금강의 최상류인 장수천이 북류하고 있다. 고분군이 자리한 주변은 대부분 논과 밭으로 개간되어 본래 지형이 훼손된 상태이다.

2016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석곽묘 6기가 조사되었는데, 봉토는 유실되었으며 3호의 석곽묘의 경우 타원형의 주구가 확인되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개석은 남아있지 않고, 벽석은 3~4단 내외로 남아있다. 1호와 2호의 경우 주변에 소형 석곽이 확인되며, 3호 석곽묘의 주구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류가 훼기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마한의 분구묘적 요소로 추정된다. 유물은 기대, 고배, 개배, 파배, 장경호, 단경호, 대부호, 발 등의 토기류와 철도, 철도자, 철겸, 철부, 철촉, 살포, 금제이식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에서는 재지계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3호 석곽묘

출토유물

·백제계·금관가야계·소가야계·대가야계 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고분의 축조집단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면서도 주변 세력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수 노하리고분군은 장수지역의 재지세력(마한)과 가야문화의 시작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수 노하리고분군』.

15 장수 장계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산6-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7.7.~2017.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기대 편, 발형토기 편, 회청색경질토기 편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고분군이 자리한 장계분지는 장수군 장계면과 계남면에 위치하며, 백제의 백이(해)군이 설치된 지역이다. 금강의 최상류인 장계천이 서쪽으로 흐르고, 주변에 충적지와 구릉이 발달해 있다.

고분군은 2003년도(군산대학교박물관)와 2011년도(군산대학교박물관·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60여 기의 고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봉토분 2기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된 고분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추정되나 훼손이 심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주매장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에 석곽이 배치된 양상이 보여진다. 유물은 기대 편, 발형토기 편, 회청색경질토기 편 등이 출토되었다. 시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전반적인 분포범위와 고분의 성격과 잔존상태를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장계리고분군은 인접한 삼봉리·호덕리고분군과 함께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한 가야고분군 중 최대 밀집도를 보이는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장계리 고분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적위치도

유적 전경

21호분

16

장수 호덕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산17-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대학교박물관 / 1999.11.~1999.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광구장경호, 장경호, 편구호, 파수부호, 금제이식, 철제무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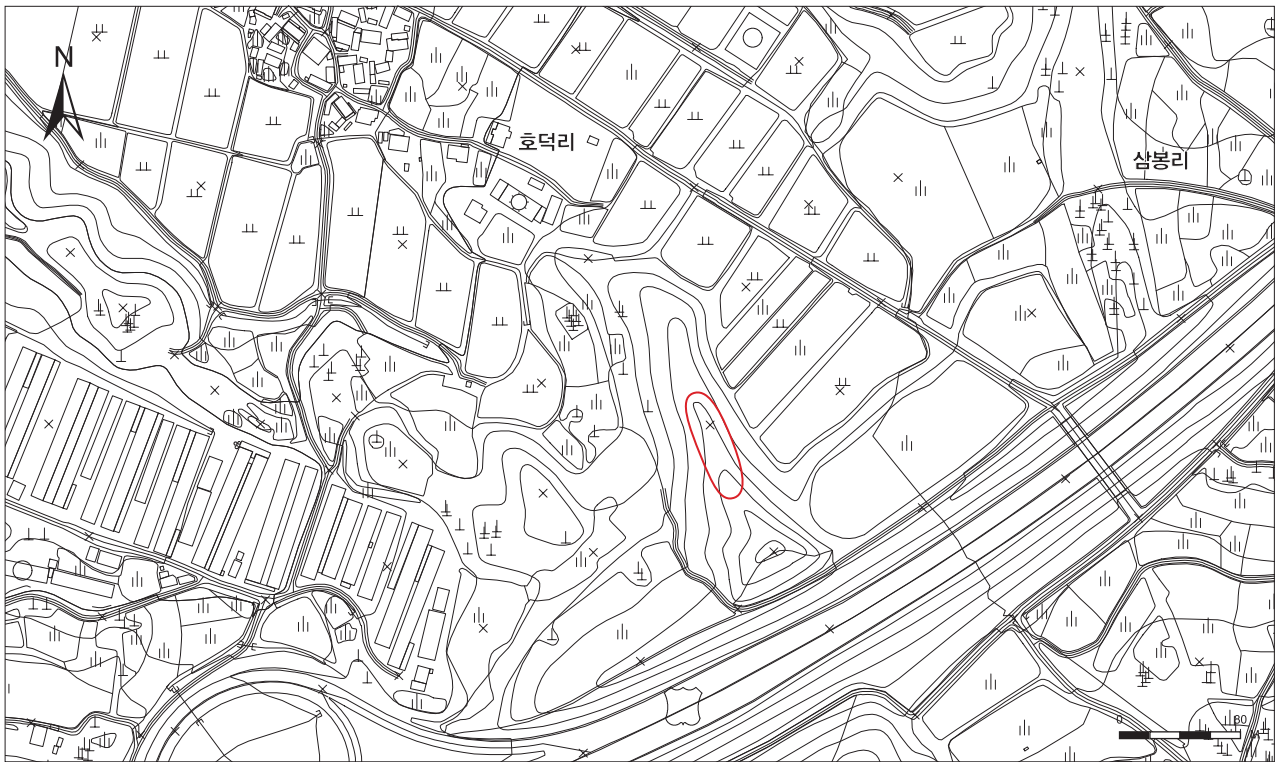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호덕리 산17-4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호덕리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에 위치하며, 정상부를 따라 20여 기의 봉토분이 분포한다. 북쪽으로는 장수 장계리고분군, 북동쪽으로는 장수 삼봉리고분군이 자리한다.

2000년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된 대해 전북대학교박물관의 주도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11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고분은 생토층을 파내어 토광을 만들고 등고선과 평행하게 장축방향을 두고 있는 수혈식석곽묘이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백제와 가야세력과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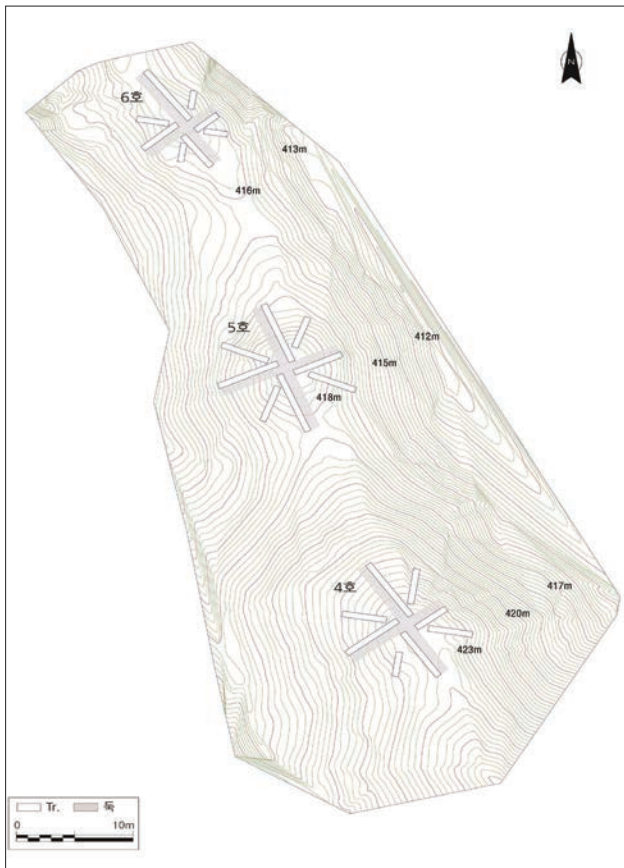
2017년에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고분군에 자리한 3기의 봉토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고분은 산줄기의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고분들로서 민묘, 개간, 도굴 등으로 인해 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일부 고분은 주곽의 석재가 노출되어

유적 위치도

있는 상태였다. 조사를 통해 4~6분에서는 주석곽이 1기씩 확인되었고, 석곽묘의 장축은 지류의 방향과 직교한 북서-남동 방향을 띤다. 봉분의 규모는 15m 내외로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주석곽 이외에 장란형토기를 이용한 옹관과 추정토광묘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순장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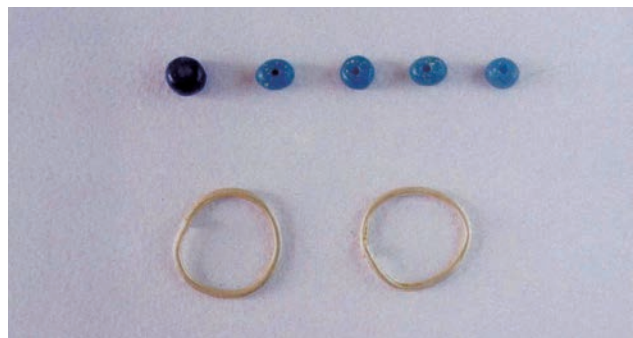
장수 호덕리고분군은 봉토와 매장시설의 축조방법, 출토유물 등을 통해 장수지역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의 지배계층 무덤군으로 향후 삼국시대의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전북대학교박물관, 2000,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장수 호덕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A-1지구 1호분

5호분

토기류

장신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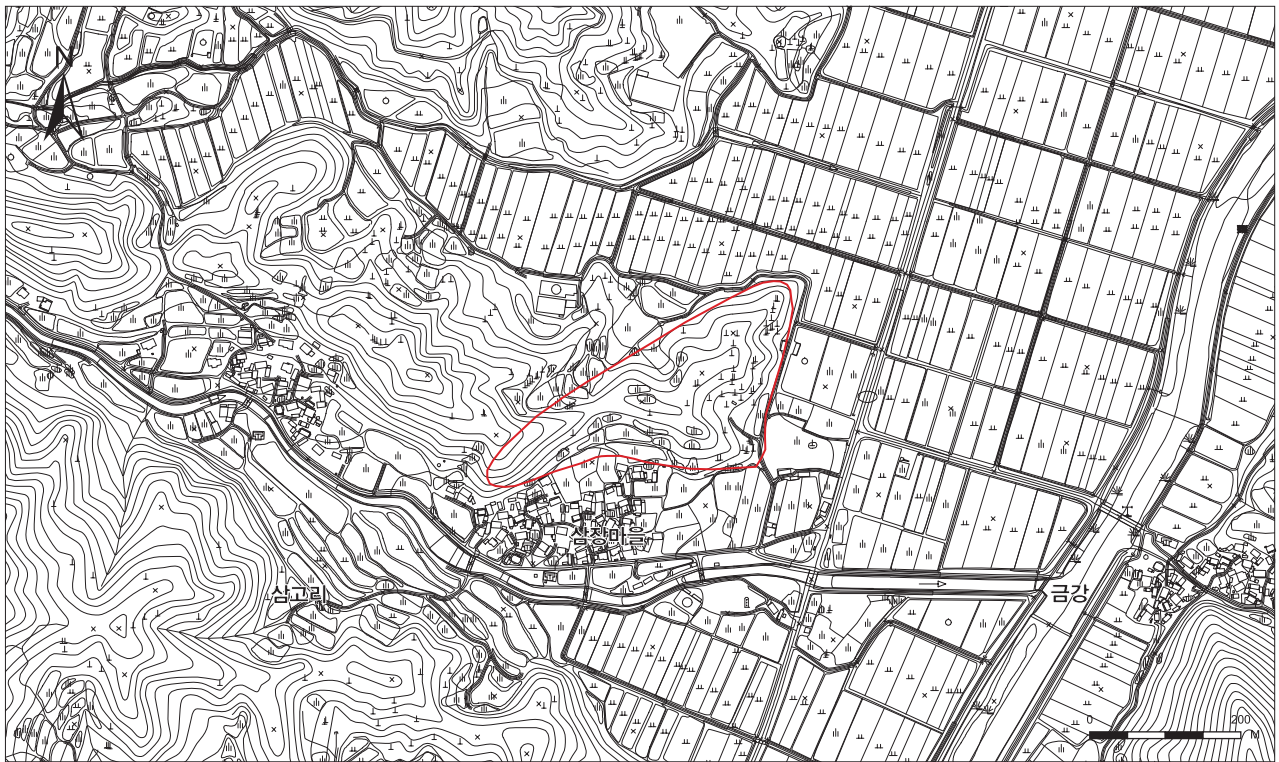
17 장수 삼고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51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1995.2.~1995.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방추차, 삼족토기, 환두대도, 이식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일대에 자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199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가 알려졌으며, 1995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19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유적은 금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장수천과 장계천이 합쳐진 곳에서 남서쪽으로 3㎞ 남짓 떨어진 지점인 삼장마을 북쪽 능선에 자리한다. 고분은 마을의 북쪽을 감싸는 능선의 북사면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다. 대형 고분은 주능선에, 소형 고분은 대체로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봉토는 유실되었으며, 장축방향은 주로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로 두고 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변화된다. 주곽의 주변에 위치한 소형 고분과 방추차가 출토된 5·15·19호분과 삼족토기가 출토된 7호분은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고 있다. 석곽의 배치상태는 한 봉분 내에 여러 기의

유적 위치도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철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다. 토기류는 재지계, 백제, 대가야, 소가야 등의 유물이 혼재되어 출토되었다.

삼고리고분군은 백두대간 서쪽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가야 분묘유적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 이래로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것으로 인식되어온 이 지역에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기 이전까지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토착세력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장수 삼고리고분군』.

유적 원경

150호 유구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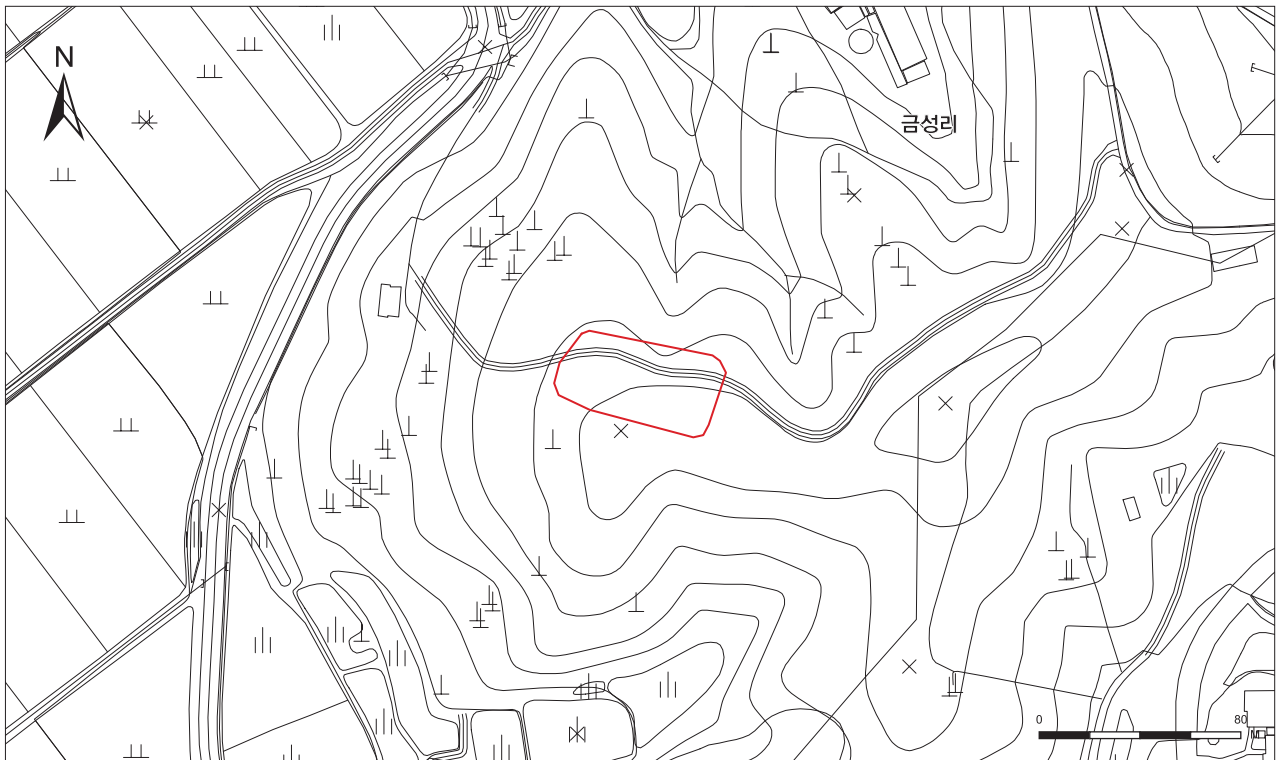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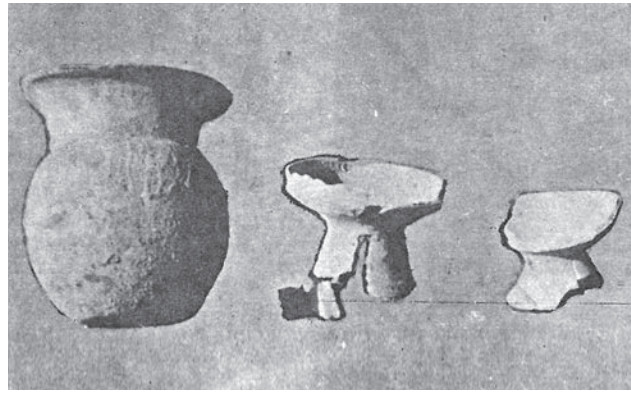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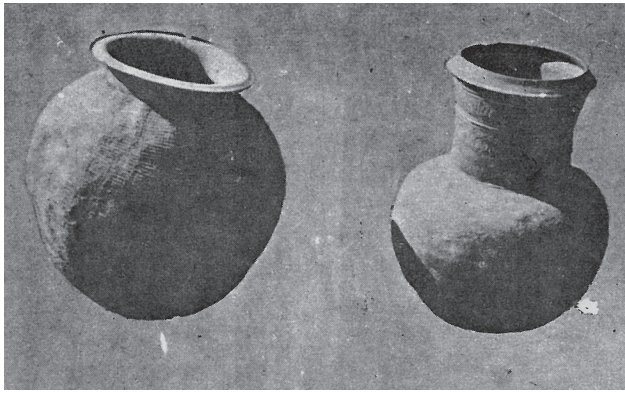
18 임실 금성리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산17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시립박물관 / 1972.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단경원저호, 장경호, 광구호, 고배, 철겸, 철도, 철모, 철부, 철겸, 재갈

임실군은 전라북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금성리고분군은 임실읍과 성수면이 접하는 해발 270m 구릉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고분군의 남쪽지역은 행정구역상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에 속하며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다.

금성리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은 구릉 정상부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10m 간격을 두고 있는 3기이며, 남사면에는 원형봉토분 1기가 확인되었다. 3기의 고분은 장방형의 석곽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봉토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A호분은 구릉 주능선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며, 주곽과 부곽이 조사되었다. 주곽은 부정형의 할석으로 쌓았으며, 규모는 280×72×90㎝, 장축은 남-북 방향(N15°W)이다. 부곽은 주곽의 남사면 중앙에 위치하는데, 전면은 정방형의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장방형의 할석을 얹혔다. 규모는 45×48×70㎝이다. 주곽에서는 철도가 출토되었으며, 부곽에서는 철모, 철겸,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B호분에서도 주곽과 부곽이 조사되었는데, 구조와 형식은 A호분과 유사하다.

유적 위치도

출토유물

주곽의 규모는 280×72×70㎝이며, 철모와 철도가 출토되었다. 부곽의 규모는 45×45×45㎝이다. C호분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데 부곽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곽의 규모는 260×98×90㎝이며, A, B호분보다 폭이 넓은 편이며 축조방식은 유사하다.

금성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철검, 철도, 철모, 철부, 철겸, 재갈 등의 철기류와 단경원저호, 장경호, 광구호, 구형투창고배, 원형투공고배 등의 토기류가 있다. 금성리고분의 석곽묘는 능선상부에 남-북으로 분포하고 봉토가 없으며, 네 벽은 부정형 할석으로 쌓았고, 개석과 바닥의 부석이 없으며, 남벽에 접하여 부곽이 있고, 목관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철도·철검·철부·철모 등 공격용 무기와 마구가 부장되었으며, 고대 가야계 토기인 호와 배 등이 부장되었다. 고배의 경우 구연부가 단순하고 투창대신 원형투공이 있는 점은 고식으로서 가야토기의 초기형식을 지니고 있다. 철검의 경우 검신이 'S'자형으로 사곡된 예는 일본 장야현 판정촌의 안판 적석총, 병고현의 귀산고분, 석천현의 호총고분 등에서 보이며, 이러한 철검은 일본 고분전기에 압도적으로 많으며, 후기에 이르면 점차 대도로 대체된다. 특히 안판고분의 검과 철도는 인부와 경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루면서 경부 폭이 좁은 형식은 금성리 대도의 처리법과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5세기 중엽경의 형식이다.

참고문헌

전라북도박물관, 1974, 『전북 유적조사보고』 제3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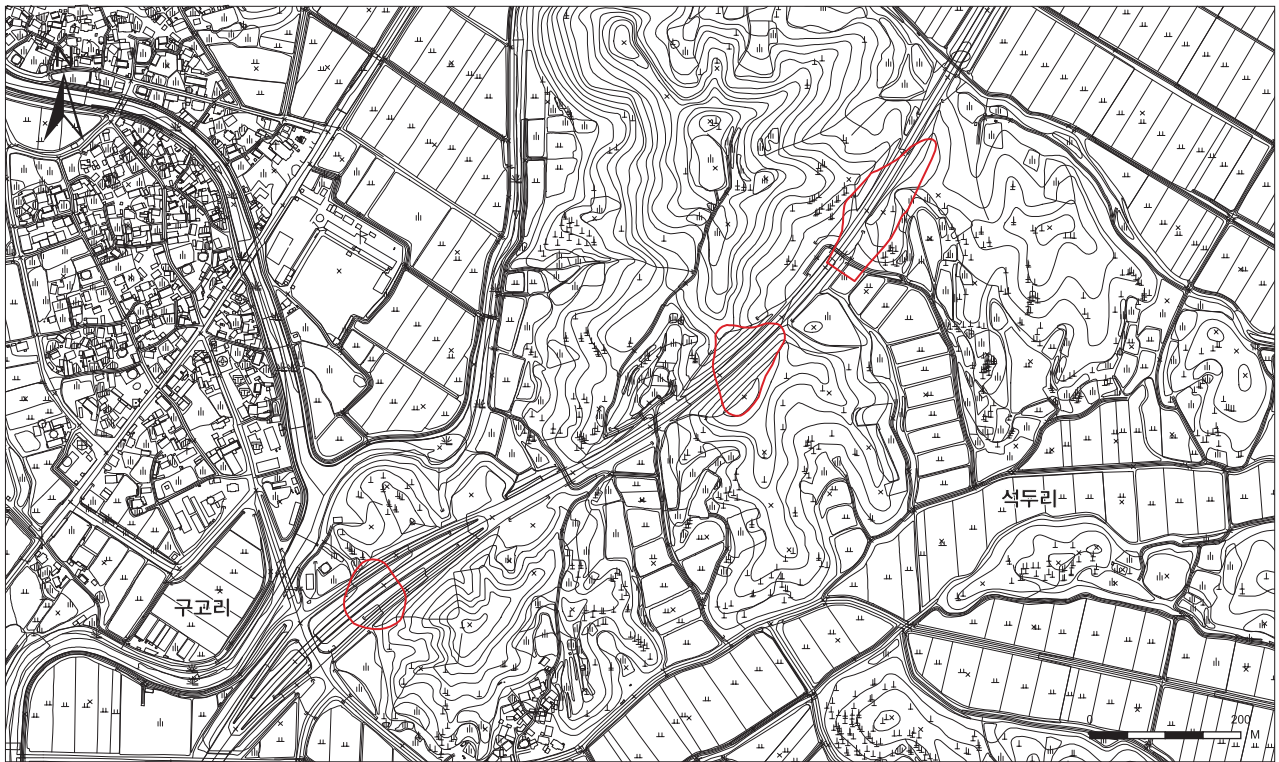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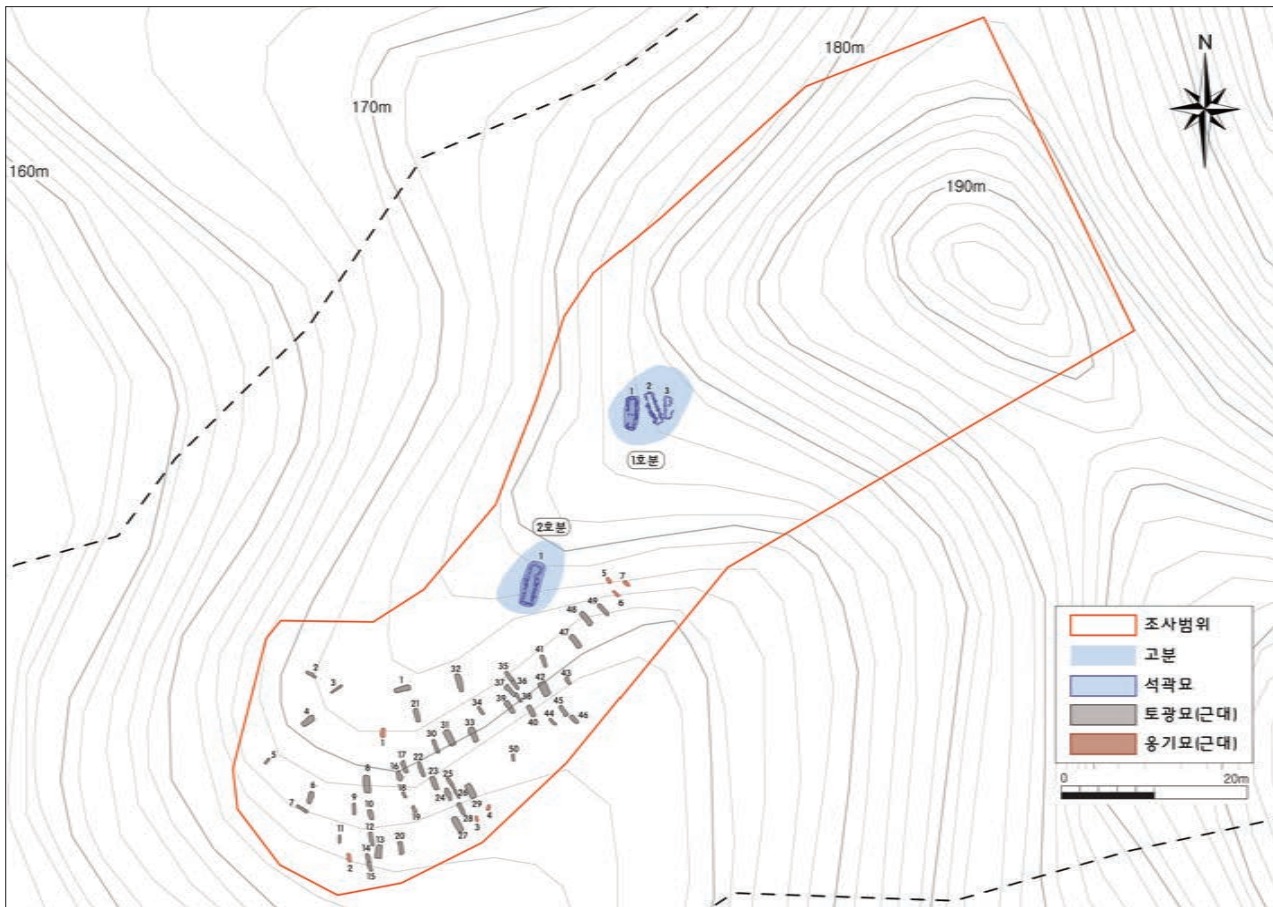
임실 석두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567-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2010.7.~2010.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토기가마, 석곽묘 / 통형고배, 경질호, 승석문단경호, 곡옥, 환옥

임실군은 전라북도 중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장수군, 남동쪽으로 남원시, 남쪽으로 순창군, 북서쪽으로 완주군과 접하고 서쪽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정읍시와 인접해 있다. 임실군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영토였으며, 백제는 이곳에 임실군·돌평현·거사물현 등의 지방행정치소를 두었다. 석두리유적이 속해 있는 청웅면은 백제시대에 돌평현이 있었던 곳으로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구고현으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돌평현으로 복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다시 구고현으로 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임실군 임내로 이속되었다. 석두리유적은 청웅면의 북쪽과 서쪽, 동쪽이 백이산, 백련산, 두만산 등으로 막혀 있으며, 섬진강의 지류인 갈담천이 남서쪽으로 흐르는 분지형의 구릉(해발 160m~190m)에 자리한다. 이 유적은 국도 30호선의 청웅우회도로 공사 구간 내에서 조사되었는데, 석두리 Ⅰ·Ⅱ·Ⅲ·Ⅳ유적으로 나뉜다. 석두리Ⅰ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2기가 조사되었다. 석두리Ⅱ유적에서는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고, 석두리Ⅲ유

유적 위치도

적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39기를 비롯한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석두리Ⅳ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21기, 토기가마 1기, 고려시대 석곽묘 6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두리유적에서 가야와 관련된 유구 및 유물은 석두리Ⅰ유적 1호분 3호석곽묘의 묘광 내부 퇴적토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구연부 편 등이 있고, 2호분에서는 곡옥·수정제 다면옥·환옥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지표상에서 채집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구연부 편과 동체부 편, 개 편 등이 수습되었다. 석두리Ⅲ유적에서는 2호 주거지의 철정, 5호 주거지의 대각 편, 9호 주거지의 무문심발형토기, 24호 주거지의 통형고배와 무문심발형토기, 32호 주거지의 경질호 편 등이 있고, 석두리Ⅳ유적에서는 6호 주거지의 경질호, 20호 주거지의 승석문단경호 등이 있다. 먼저 석두리Ⅰ유적의 고분 2기는 봉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능선상에 입지하고 고분의 주변지역을 삭평하여 봉토가 더욱 높아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고령 지산동 제35호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1호분은 동일 봉토 내에 다수의 묘곽이 배치되어 있고, 능선을 'L'자형으로 정지하고 묘곽을 축조하는 한편 묘곽의 바닥이 서로 다른 특징은 하동 흥룡리고분에서도 보여진다. 2호분은 1호분에 비해 지하식이며 벽석 또한 1호분보다 정교한 편으로 전북 동부지역의 석곽묘와 연관 지어진다. 석두리Ⅰ유적의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토기 이외에도 유두형꼭

유구 배치도

지가 달린 개는 고령양식 토기의 마지막 단계의 기형으로 고령 도진리 1호 석곽, 순천 운평 M2호분 봉토에서 출토된 바 있다. 2호분 출토 옥류는 남원 건지리고분군, 두락리 고분군, 순천 운평고분군 등 가야계 고분에서 자주 출토되는 유물들이다. 석두리Ⅲ유적의 2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통형고배는 영남지역에서 이른바 '工字形高杯'로 불리는 기형으로 배신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출현기의 '工'자형고배에서 다소 발전된 양식이다. 이러한 기형은 함안 윤외리고분군·황사리고분군 등 함안지역에서 보여진다. 이 통형고배를 비롯하여 경질호와 승석문단경호는 기형과 제작기법이 영남지역과 동일한 것으로 영남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석두리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영남지역의 토기들은 대체로 서부경남지역 도질토기 Ⅱ단계에 해당되는데, 특히 함안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제작시기는 4세기 중엽~후엽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년안은 기존 호남지역 주거지 및 출토유물의 편년에 비해 약 반세기 정도 늦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석두리지역이 백제의 영역으로 완전하게 복속된 시기는 석두리 Ⅰ유적의 1호분 축조 이후인 6세기 초반 무렵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임실 석두리유적은 영남지역의 토기류가 다수 출토되어 전북 동부지역, 영남지역, 섬진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과 교차연대를 통해 유적의 편년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임실 석두리유적』.

석두리Ⅰ 유적 1호분

24호 주거지

24호 주거지 유물 출토모습

출토유물

20

임실 도인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09.4.~2009.8.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토광묘, 석곽묘, 토광묘 / 숫돌, 파수, 장란형토기, 양이부호, 양이부광구호, 광구호, 소형장경호, 방추차, 시루 편, 환두대도, 철촉, 철도자

임실군은 전라북도 중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장수군, 남동쪽으로 남원시, 남쪽으로 순창군, 북서쪽으로 완주군과 접하고 서쪽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정읍시와 인접해 있다. 임실군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영토였으며, 백제는 이곳에 임실군·돌평현·거사물현 등의 지방행정치소를 두었다. 도인리유적은 북동쪽 약 3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임실 금성리고분과 동일한 산줄기의 남쪽 지류에 자리한다. 즉 호남정맥의 고봉인 고덕산(해발 625m)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지류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이 유적의 서쪽에는 섬진강의 지류인 임실천이 서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전주-남원을 잇는 국도 17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된다. 이 유적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조사되었는데,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를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21기와 토광묘 2기, 그리고 삼국시대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구릉의 정상부에서 조사된 1호 석곽묘에서는 가야와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되었는데, 경부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소형의 유개

유적 위치도

장경호 1점, 광구호, 그리고 환두 안에 장식이 없는 소환두대도와 철촉·철도자가 출토되었다. 이 석곽묘는 4매의 대형 판석을 세워 네 벽을 축조하고 벽석사이에 작은 할석을 채웠고, 바닥면에도 판석 2매를 깔았다. 석곽묘의 규모는 120×52×30㎝이며 장축은 등고선과 같은 남-북 방향이다.

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환두부와 병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단접하고, 검신과 병부를 못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기법은 남원 월산리·두락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와 같은 기법으로 그 제작 시기는 5~6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와 공반되고 있는 장경호는 경부의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 토기의 속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판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만든 매장시설의 형식은 백제의 사비시기에 주로 유행하던 것으로 1호 석곽묘는 백제계와 가야계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으로 도인리유적과 근접하고 있는 금성리고분군에서도 가야계 장경호가 출토되고 있어서 이 일대에 가야계 유물을 부장하는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임실 도인리유적』.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호 석곽묘 출토 토기류

1호 석곽묘 출토 환두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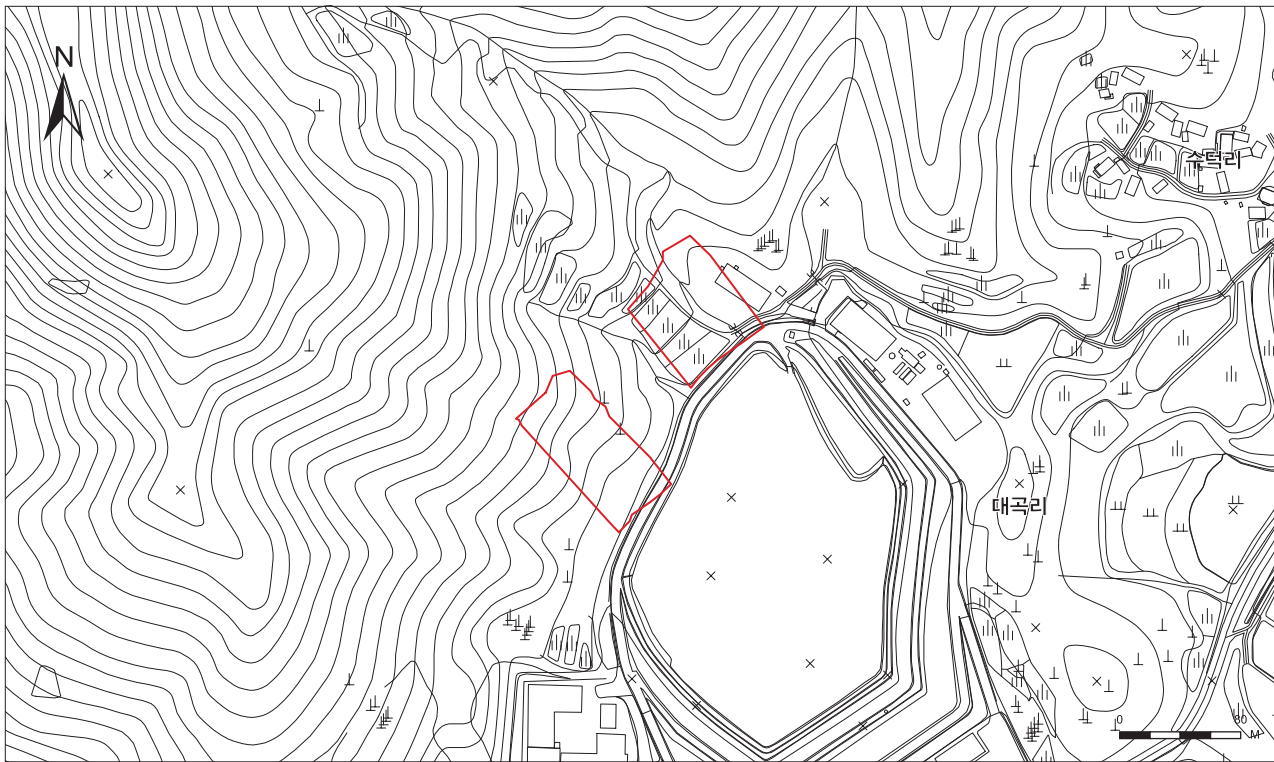
21 남원 대곡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산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대학교박물관 / 2001.10.~2001.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자연수로 / 장경호, 기대 편

대곡리유적은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산31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대곡마을의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뻗은 해발 150m 가량의 구릉지에 해당된다.

발굴조사는 2001년 남원시에서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앞서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주거지와 자연수로, 고려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자연수로는 유적의 서북쪽에 자리한 풍악산 지류의 연장선상으로 계곡의 유수에 의해선 형성된 곳으로 삼국시대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주거지는 자연수로의 하단부인 가지구와 나지구에서 각각 1기씩 조사되었다. 평명형태는 말각장방형을 띠며, 수혈의 깊이가 얕고 외부에 주공이 배치된 양상이다. 주거지의 내부에서는 부뚜막식 노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 적갈색연질토기 편과 회청색경질토기 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이 중 회청색경질토기 편은 장경호와 기대가 대표적인데,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계 유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과 출토유물,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대곡리유적은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중엽경에 조성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파악되었다.

대곡리유적은 섬진강유역에서 발견된 가야 관련 생활유적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 섬진강유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북대학교박물관, 2003, 『남원 대곡리 유적』.

가지구 전경

가지구 1호 주거지

나지구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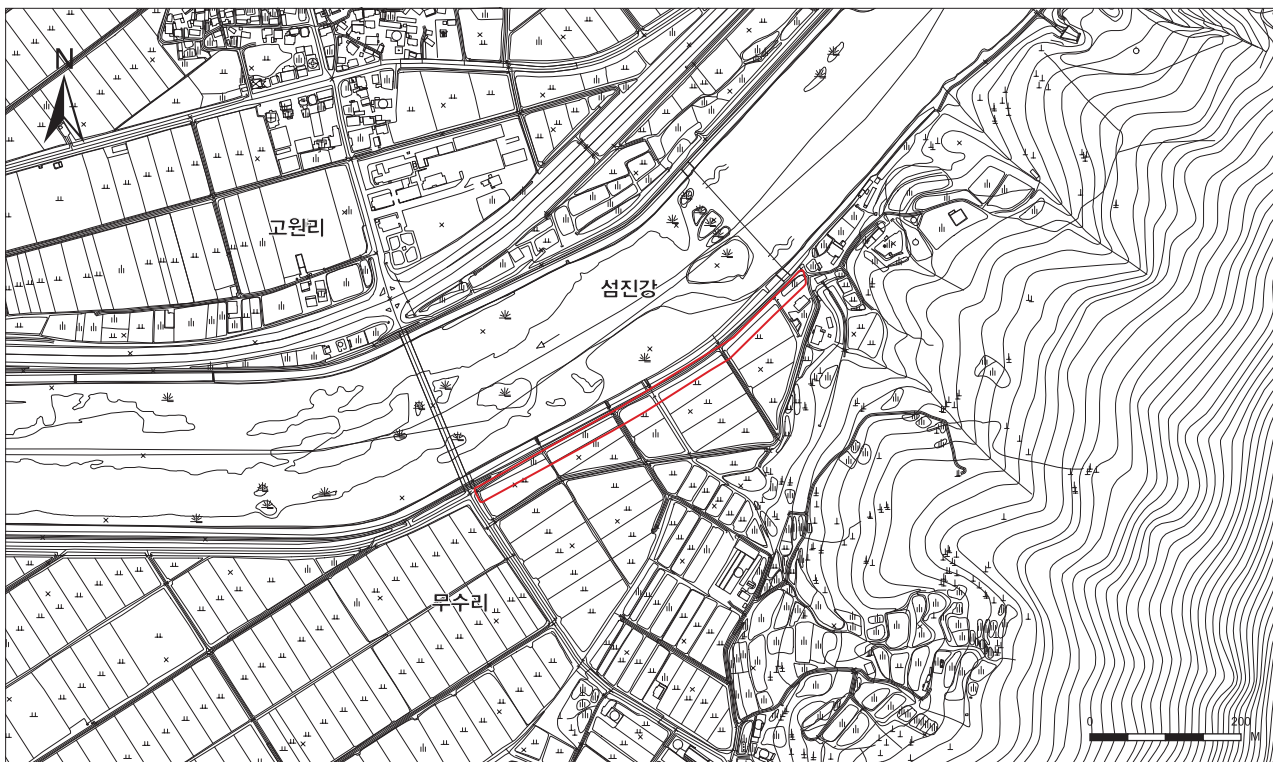
22

순창 무수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2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문화재연구원 / 2011.7.~2011.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장란형토기, 대부호, 파수부호, 파수부완, 발, 고배, 개, 배, 시루

순창군은 전라북도 최남단의 중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섬진강을 경계로 남원시, 서쪽으로 호남정맥을 경계로 정읍시, 북쪽으로는 임실군과 이웃하며, 서남쪽으로는 전남 장성·담양·곡성군 등과 인접하고 있다. 무수리유적은 섬진강의 지류인 오수천과 합류하면서 풍부해진 유량으로 만들어진 섬진강 중류의 곡류천변에 너른 충적대지(해발 82m)에 자리한다. 무수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석묘 4기, 석관묘 5기와 삼국시대 주거지 3기, 수혈 4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에 가야와 관련된 유물이 1·3호주거지와 2·3호수혈에서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는 부정형의 평면형태로 크기는 282×294×36㎝이며, 고배, 개, 배,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고, 3호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평면구조로 크기는 330×313×21㎝이며, 개, 배, 발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수혈은 부정형의 평면구조로 크기는 134×127×48㎝이며, 대구직구호, 파수부완, 개, 호, 시루 등이 출토되었으며, 3호 수혈은 원형의 평면형태로 크기는 416×316×156㎝이며, 대부소호, 개, 배, 장란형토기, 파

유적 위치도

수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와 수혈에서 출토된 배 6점은 드림부가 내만되고 드림부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소가야지역에서 기원후 6세기 1/4분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부직구호, 대부소호, 파수부완 등은 소가야식 토기로 보고 있다. 유개대부직구호로 대각은 결실되었으나 동체가 구형을 이루고 있고 구연은 직립하며, 동체 외면에는 2조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부직구호는 최대경의 위치와 투창 수 및 대각단의 형태에 따라 시간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야지역에서는 기원후 5세기 2/4분기에 출현하는 기종으로 보고 있다. 유개대부직구호는 호남 동부지역에서 주로 가야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대부소호도 대각이 결실되었으나 드림부는 외반되고 드림부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등간격으로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투창흔이 관찰된다. 이러한 토기는 대체로 기원후 5세기 이후의 자료에서 많이 나타난다. 파수부완은 대부파수부완이 시기가 내려오면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개대부직구호와 공반되고 있어 파수부완의 등장시기는 기원후 5세기 2/4분기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무수리유적에서는 백제계 토기와 소가야식 토기가 함께 공반하고 있는데, 섬진강 건너편인 적성면 고원리는 백제 때 역평현(礫坪縣)이 설치된 곳으로 기원후 6세기 초엽경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가야가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순창 무수리유적-4대강(섬진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유적 원경

23

장수 합미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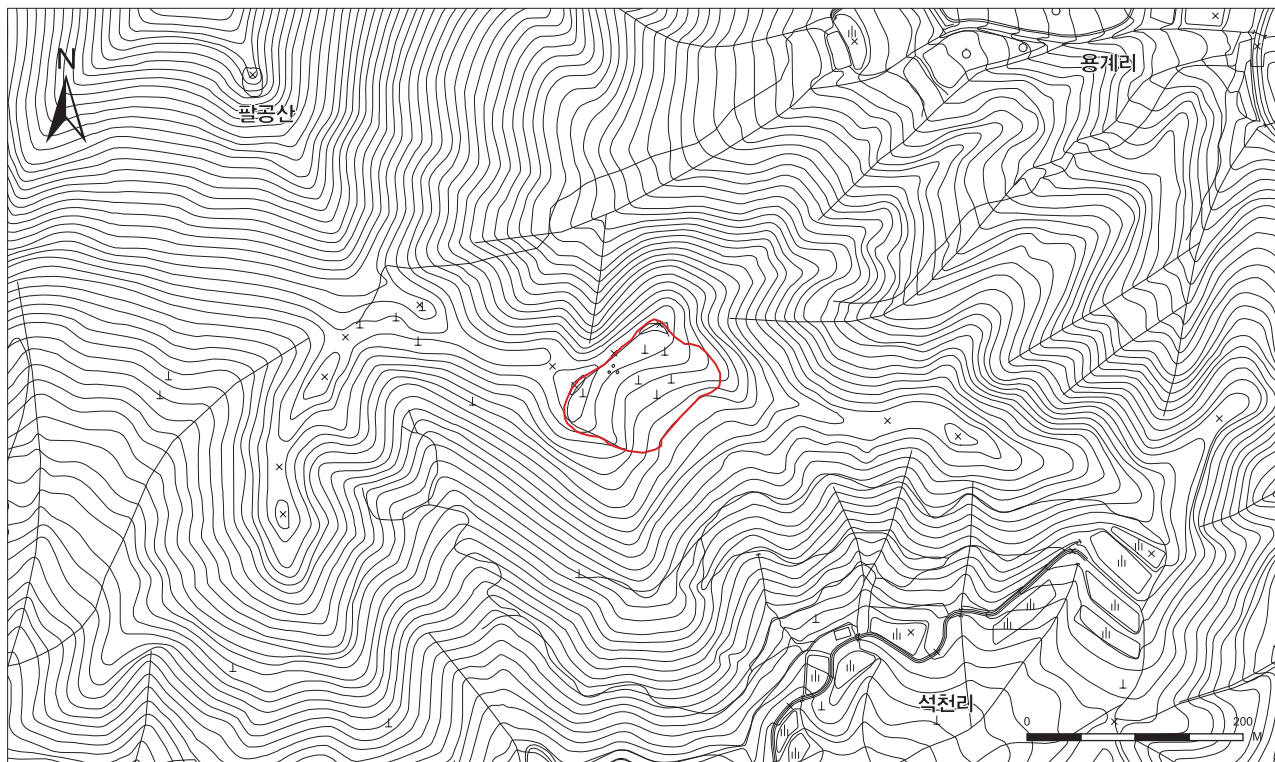
| 전라북도기념물 제75호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11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14.5.~2015.10.

주요 유구 / 유물
집수시설 / 대부완

장수 합미산성은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인 팔공산(해발 1,147.6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 능선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합미산성의 남쪽에는 금남호남정맥의 큰 고갯길인 '자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는 금강, 섬진강 수계권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관문으로서 예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전략적 요충지이다. 합미산성은 북쪽에 있는 원수봉 봉수와 함께 이 고개를 감시·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 내부에서는 자고개를 포함하여 북쪽으로 장수군 산서면, 임실군 오수면, 남쪽으로 장수군 장수읍 일대가 조망된다.

산성은 2개의 봉우리와 1개의 계곡을 감싼 포곡식 산성으로 그 형태가 마름모꼴과 가까운데, 둘레는 430m 내외이다. 부속시설로는 추정 남문지와 북문지가 있으며, 서북쪽과 동쪽, 서남벽에 3개소의 치가 남아있다. 특히 합미산성 성벽의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한데, 기본적으로 내벽과 외벽을 모두 쌓아 올린 협축식 공법으로 축조되었으며, 벽석

유적 위치도

은 직육면체에 가깝게 다듬어진 석재이다.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동남쪽 성벽은 그 높이가 10m에 육박하며, 성벽 가운데에 배수를 위한 수구가 남아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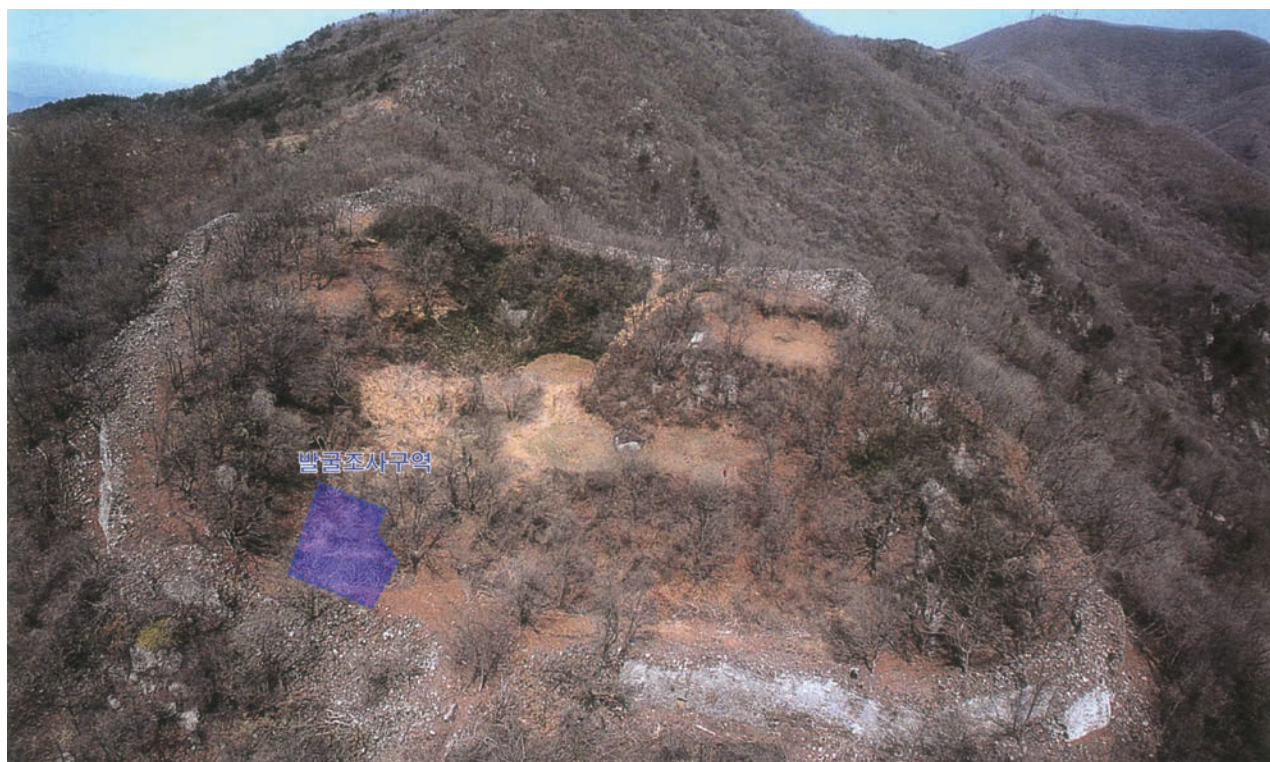
지난 2005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산성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후 2014년에 이르러 1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는 산성의 동남쪽 평탄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시설 2기와 축대시설 등이 조사되었으며, 각 유구에서 대부완, 기와, 막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1호 집수시설은 한 변의 길이가 1.5m 내외의 평면 방형으로 벽석이 1·2단 가량 남아있다. 벽석은 다듬어지지 않은 할석으로 축조되었는데, 굴광과 벽석 사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점토를 채웠다. 집수시설 내부에서는 개, 배, 기와, 원판형토제품 등 삼국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을 근거로 한 집수시설의 조성시기는 6세기 중엽 경이다. 2호 집수시설은 한 변의 길이가 3m 내외인 평면 방형으로 벽석이 7단 가량 남아있다. 집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굴광한 후 그 안쪽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점토를 채운 뒤 직육면체에 가깝게 다듬어진 할석을 이용하여 벽체를 조성하였다. 내부에서는 개, 대부완, 기와 등 나말여초기의 유물과 배, 기와 등 삼국시대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물은 선대에 사용되었던 유물이 내부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말여초기의 유물이 2호 집수시설의 조성연대를 나타낸다. 유물로 볼 때 2호 집수시설은 9세기 중엽 경에 조성된 것으로 편년된다.

1차 발굴조사 당시 지표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 토기 편이 소량 수습되었으며, 2017년에 진행된 3차 발굴조사에서도 기대 편으로 추정되는 가야 토기 편이 수습되었다. 아직 한정적인 구역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속단할 수 없으나 출토된 가야토기로 볼 때, 산성은 장수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 조영세력에 의해 초축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장수 합미·침령산성 Ⅰ-장수군 관내 산성 및 봉수 발굴(정밀·시굴)조사 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성벽 축조모습

성벽 축조모습

1호 집수시설

2호 집수시설

24 임실 성미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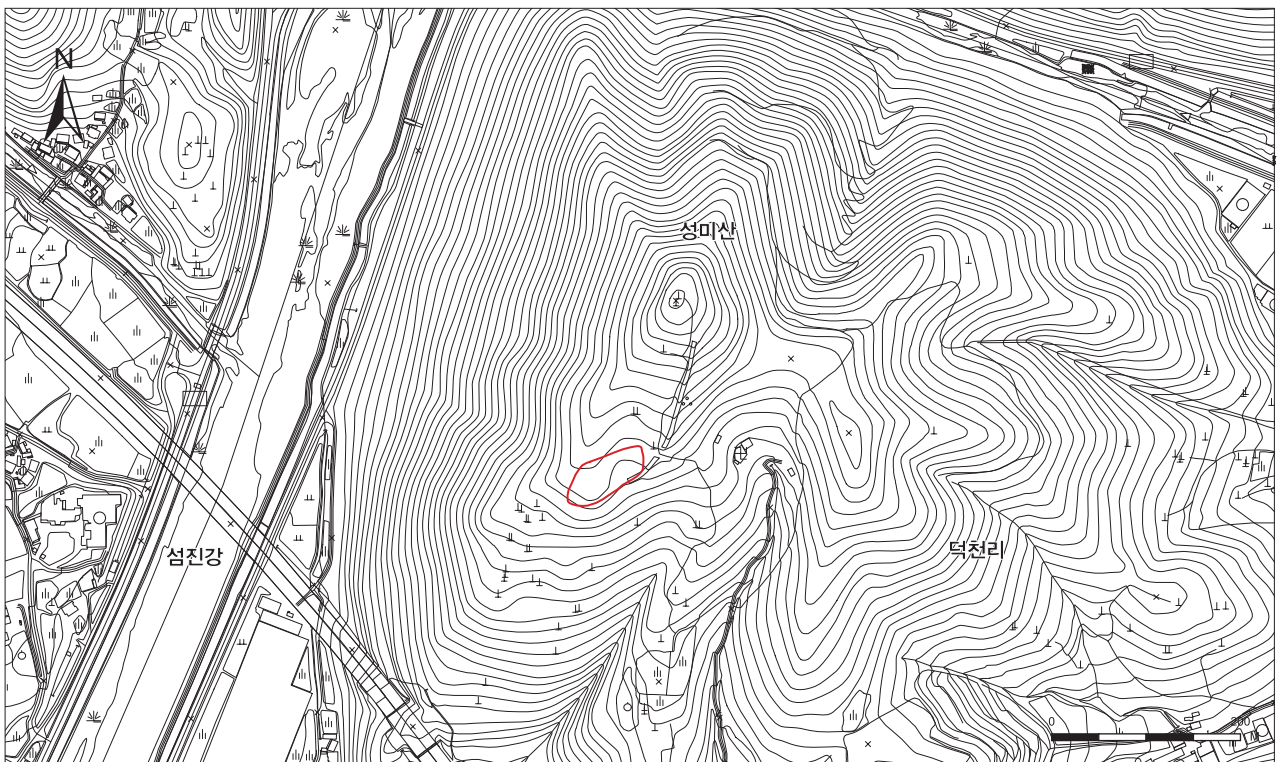
| 전라북도기념물 제 100호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24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문화재연구원 / 2007.3.~2007.7.

주요 유구 / 유물
성벽, 원형석축집수시설, 구들 / 5부명 인장와, 호형토기, 개배, 삼족기, 완, 자배기, 자라병, 대각 편, 금동여래입상, 이지창, 철촉, 철겸, 철모, 철부, 보습, 살포

임실군은 전라북도 중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장수군, 남동쪽으로 남원시, 남쪽으로 순창군, 북서쪽으로 완주군과 접하고 서쪽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정읍시와 인접해 있다. 임실군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영토였으며, 백제는 이곳에 임실군·돌평현·거사물현 등의 지방행정치소를 두었다. 임실 성미산성은 섬진강의 본류인 오원천의 남안에 접한 성미산(해발 430.5m) 정상부에 자리한다. 이 곳은 오원천을 따라 동-서 방향의 수상로와 남북방향의 육상로가 교차하는 사통팔달한 곳으로 교통로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는 산성 내 남편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성벽 일부와 2기의 원형 석축집수시설, 다수의 구들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성벽은 2차례 이상의 개축이 있었으며, 본래 성벽의 기초부는 생토면을 'ㄴ'자형으로 파 낸 후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여 수평줄쌓기를 하였다. 성벽의 내외부 퇴적토에서는 '上', '下', '中', '前', '五' 등의 5부명 인장와를 비롯하여 백제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으

유적 위치도

며, 성벽의 개축부에서는 조선시대 자기들이 출토되었다. 한편 개축된 성벽의 퇴적층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되었다. 석축집수시설은 산성 내 가장 지대가 낮은 곳에 자리하는데 1m 간격을 두고 2기가 남-북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성벽에 가까운 1호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단면은 역사다리꼴 형태를 띤다. 상부 최대직경은 550㎝이며, 깊이는 270㎝이다. 2호는 1호 북쪽에 자리하며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원통형에 가깝다. 직경 230㎝, 깊이 250㎝ 내외로 1호에 비해 규모가 작다. 2기의 집수시설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자연암반층 위에 진흙을 수평으로 깐 다음 석축하였고, 석축하면서 뒤쪽에 점토를 채워가며 쌓았다. 집수시설 내에서는 인장와 등의 기와류와 호·시루·파수·발·배·개·삼족기·기대·대각부 편 등이 출토되었다. 구들은 2기를 제외하고는 흔적만 남아 있는데, 할석을 사용하여 2열 또는 3열로 세워서 쌓았으며, 바닥면에는 소토와 숯이 깔려 있다. 구들 내부의 석재들 사이에서 자라병, 배, 대호 편, 철모, 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가야와 관련된 유물은 집수시설 내부에서 출토된 8점의 기대 편들로 외면에 돌대를 돌려 구획하고 그 사이에 밀집파상문을 시문한 것으로 가야계 유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임실지역에서 기형을 알 수 있는 가야계 유물이 확인되는 예는 임실 금성리고분군이며,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와 오산리 등지에서 경부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 편이 보고된 바 있다.

참고문헌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임실 성미산성』.

유적 원경

25 장수 침령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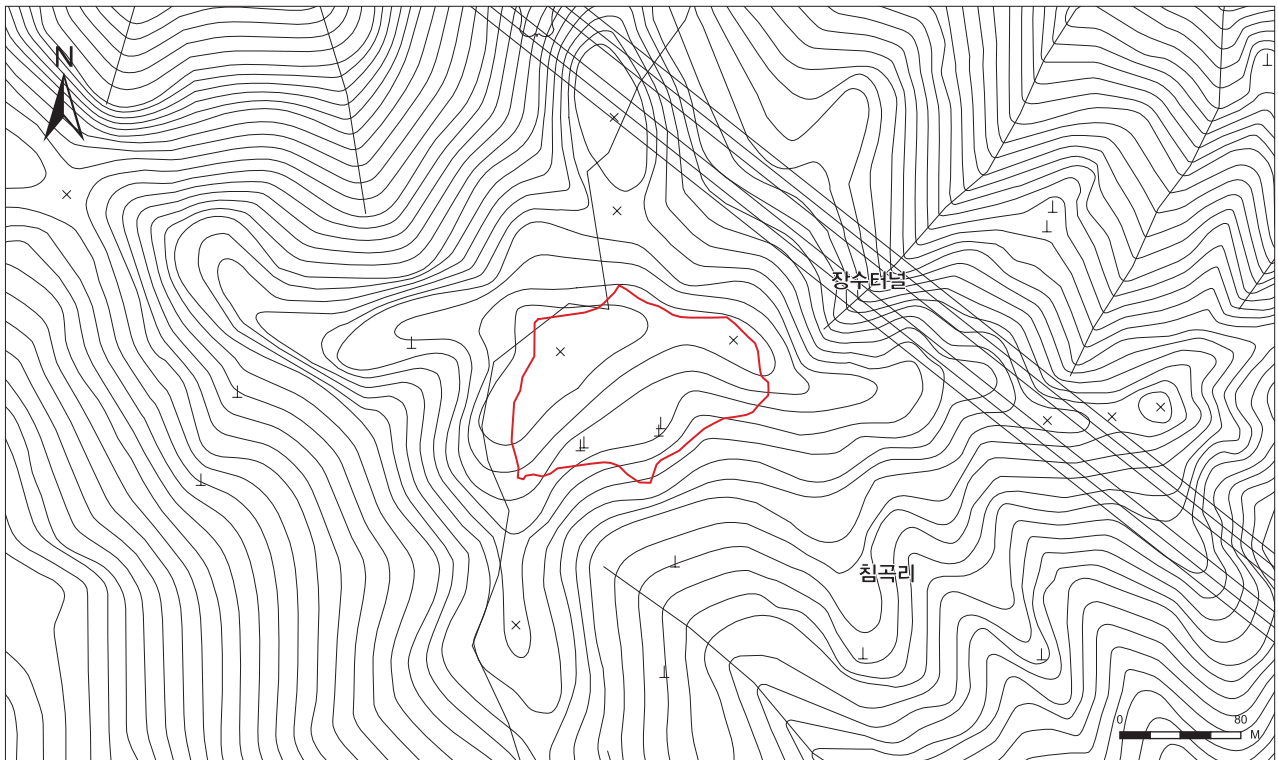
|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65호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1차 2014.5.~2015.10.
2차 2016.4.~2016.12.
3차 2017.10.~2017.12.

주요 유구 / 유물
집수시설 / 개, 단경호

침령산성은 장수군 장계면 침곡리 사곡마을의 서쪽을 감싸고 있는 금남호남정맥 지류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산성의 북쪽에는 금남호남정맥의 큰 고갯길인 '방아재'가 위치한다. 이곳은 20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밀집되어 있는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가장 큰 관문이자, 영남지역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후백제의 도성이었던 전주로 이어지는 내륙교통로가 통화했던 지리적 요충지이다. 침령산성은 북쪽에 마주한 침곡리 봉수와 함께 방아재를 감시·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침령산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사다리꼴로 북쪽의 고지를 정점으로 남쪽의 계곡부를 크게 아우르는 포곡식 산성이다. 산성의 둘레는 497m로 장수군에 분포되어있는 고대산성 중 최대 규모이다. 성벽의 대부분은 붕괴되었지만, 성벽의 일부구간, 문지, 치, 건물대지 등이 남아있다. 침령산성의 성벽은 기본적으로 내탁공법에 의해 축조되었지만 북쪽 성벽 일부 구간은 부분적으로 협축 공법이 적용되었다. 성

유적 위치도

벽의 축조에 사용된 석재와 쌓기 방식은 구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남쪽 성벽의 경우 세장한 사각추 형태로 정연하게 다듬어진 석재로 정연하게 줄쌓기된 반면 북쪽 성벽은 다듬지 않은 석재로 허튼층쌓기 되었다. 이렇게 성벽의 축조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성이 초축된 이래 여러 차례 개·보수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산성 북쪽에 집수시설이 위치하는데, 2015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 실체가 파악되었으며, 그 후 2016년, 2017년에 실시된 2·3차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시설의 전모가 파악되었다. 아직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유구의 세부속성은 파악할 수 없으나 직경 9m, 깊이 4m의 평면 원형으로 현재까지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집수시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집수시설은 굴광과 벽석사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점토를 1.5m 두께로 충전한 후 세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를 계단식으로 쌓아 조성하였다. 집수시설 내부에서는 사각병, 기와 등 나말여초기의 속성을 띠는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9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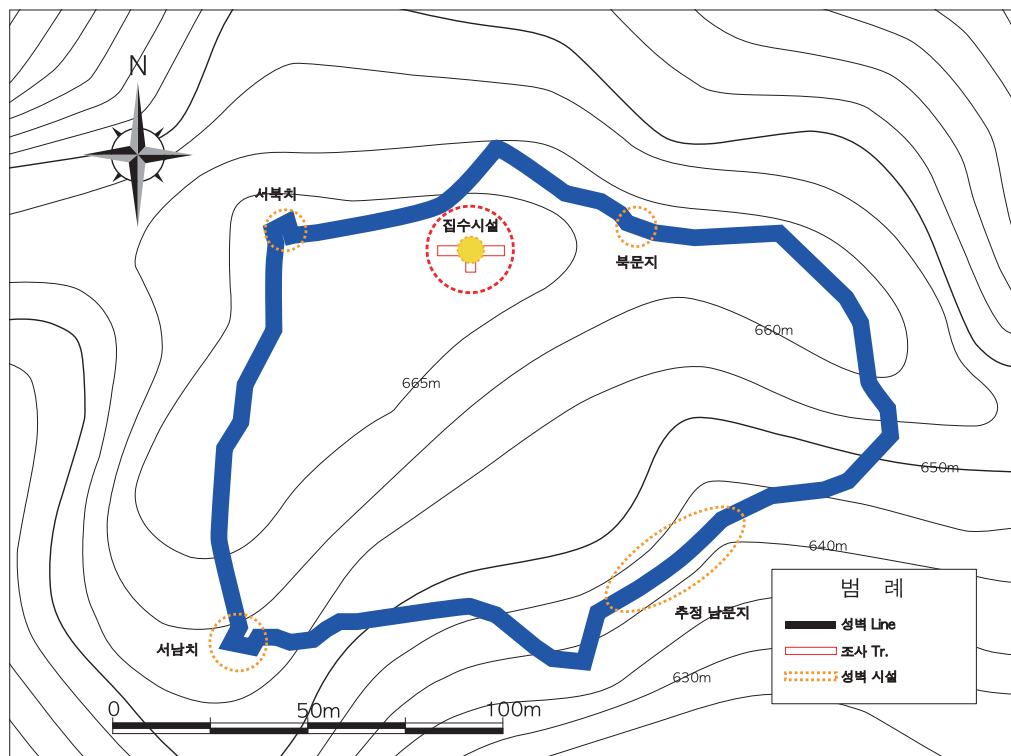
아직 유적에 대한 한정적인 조사만 이루어져 속단할 수 없지만, 산성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로 볼 때, 침령산성은 삼국시대 초축되어 운영된 뒤 한동안 폐성되었다가 9세기 중반 이후의 나말여초기에 다시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표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회청색경질토기 편이 일부 수습되어 삼국시대에 백제에 의해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장계분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군 조영세력에 의해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06, 『장수군의 교통문화』.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장수 합미·침령산성 Ⅰ–장수군 관내 산성 및 봉수 발굴(정밀·시굴)조사 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장수 침령산성 입수시설 발굴조사 약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장수 침령산성 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성벽 축조모습

성벽 축조모습

집수시설

집수시설 주변 모습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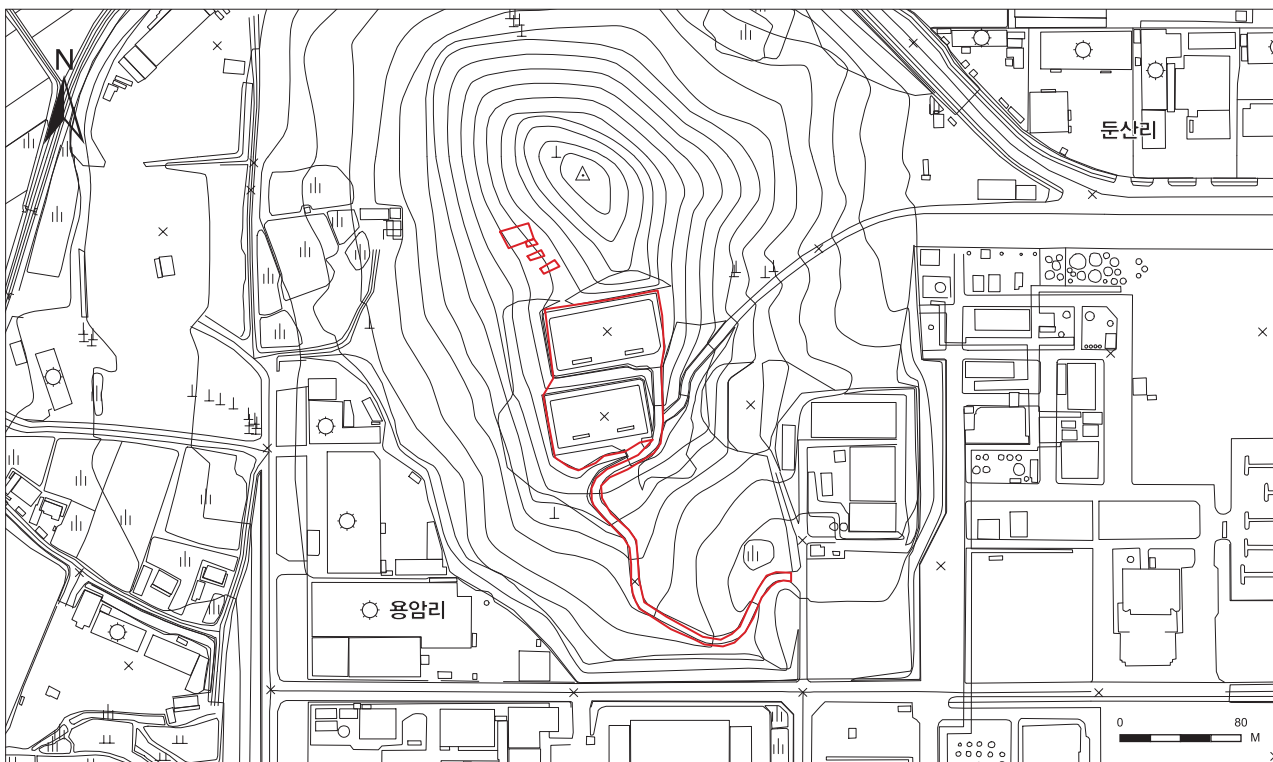
완주 배매산성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둔산리 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대학교박물관 / 1999.12.~2000.9.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2017.6.~2017.11.

주요 유구 / 유물
건물지 / 고배

완주 배매산성은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와 봉동읍 둔산리 946일대에 위치한다. 산성은 배매산(해발 121.6m)의 산 정상부와 9부 능선을 감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으로, 총 둘레는 526m로 길이 220m, 너비 80m 가량의 장타원형을 이루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벽을 따라 너비 6~10m의 회랑도가 조성되어 있고, 서문지와 동문지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있었으나 현재는 북서쪽 성벽의 잔존상태만 양호하며, 그 밖의 성벽은 배수시설 등의 조성이 이루어지면서 훼손되어 흔적을 명확히 찾을 수 없다.

1999년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완주 봉동읍 배수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구제발굴조사(1차 조사)에서 배매산성의 남쪽 구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에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지원을 받아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서쪽 성벽을 중심으로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2차 조사).

유적 위치도

1차 조사에서는 원형수혈유구 30기, 건물지 30기, 담수지 1기, 주공열 등이 조사되었다. 원형수혈유구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 볼 때, 함정 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담수지는 의례용토기가 다량 출토되어 의례와 관련이 깊은 시설로 추정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서쪽 성벽의 조성방법과 함께 성 내부의 평탄지에서 배수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성벽은 총 4차례의 공정을 통해 조성되었는데, 1차 공정에서는 영정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 성토, 2차 공정에서는 성외측 1차 보축 및 성 내측 쇄석층 성토, 3차 공정에서는 성외측 2차 보축, 마지막 4차 공정에서는 성곽 피복 마감 등이 이루어졌다.

유물은 삼족기, 기대, 고배, 개, 발, 호 등 백제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는데, 의례용토기의 출토량이 많다. 수습된 유물로 볼 때, 완주 배매산성은 5세기 중후반경, 한성기에 추축된 후 웅진기까지 사용된 후 폐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차 조사된 다-2지구에서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 편이 수습되어 주목된다.

완주 배매산성은 산성이라는 점에서 방어시설로 볼 수 있으나 조사된 유구가 백제의 제사유적으로 알려진 공주 정지산 유적과 유사한 점이 있고, 수습된 유물 중 의례용토기가 많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매산성 뿐만 아니라 인접한 완주 구억리산성, 완주 상운리분구묘 등의 유적으로 볼 때, 5세기 중후반 무렵 완주군 용진읍과 봉동읍은 백제 중앙 세력이 전북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점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유적 내에서 가야 토기가 수습되어 가야 및 산성 축조 세력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전북대학교박물관, 2002, 『완주 봉동읍 배수지 시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배매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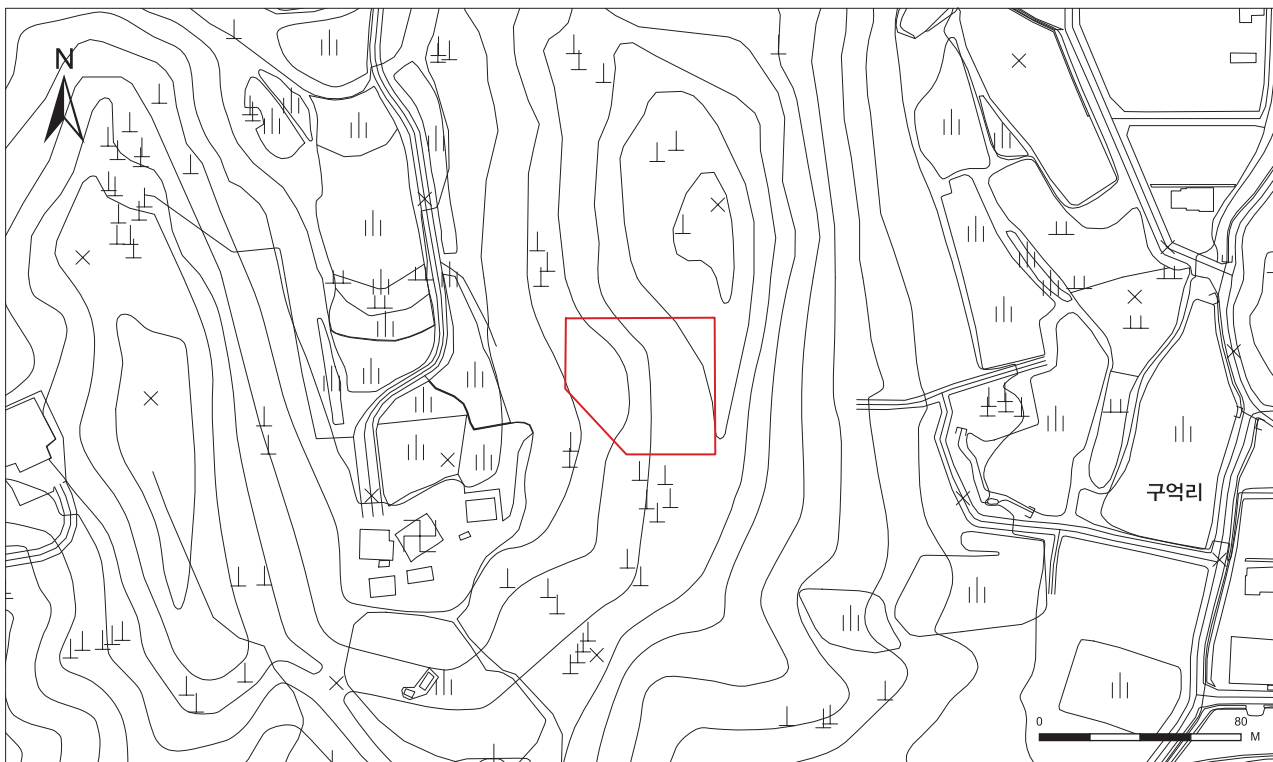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유적 원경

27 완주 구억리산성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29-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16.12.
주요 유구 / 유물
토루 / 장경호 편

구억리산성이 위치한 완주군 용진읍의 서쪽과 북쪽은 만경강 본류와 그 지류인 고산천, 소양천 등이 합류하는 곳으로 나지막한 구릉지와 드넓은 충적대지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전북지역을 서부평야지대와 동부산악지대로 갈라놓는 호남정맥의 험준한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만경강 본류와 소양천, 고산천 주변에는 완주 상운리유적을 비롯하여, 수계리유적, 배매산 유적 등이 자리하고 있고 '주정리', '초포'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 과거 배가 드나들었던 수륙교통로임을 시사한다.

구억리산성은 완주군 용진읍 원구억 마을 북쪽의 구릉지(해발 60m)에 위치한다. 『조선보물고적자료』에 '龍進面一里, 土城址 周圍 約 五百間, 高六尺 乃至 十尺 거의 完全함'이라 기록되어있다. 나지막한 구릉의 능선과 북쪽의 평지를 아우르는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는 980m 내외이며, 토성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있지만, 성 내부는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면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성벽의 내측 대지에 대한

유적 위치도

개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쪽 성벽의 내측은 이미 심하게 삭평되었다. 지표조사 당시, 훼손된 동쪽 성벽 내측 대지에서 장식기대 편, 삼족토기 편, 개배·고배 편 등 백제유물과 장경호로 추정되는 가야 토기 편이 수습되었으며, 토기 편과 기와 편 등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었다.

2016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산성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적의 적절한 보존대책을 모색하고자 산성 내 동측의 평탄대지 및 토루를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풍화암반층 상면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루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토루 안쪽(성 내부)에 집자리로 추정되는 유구를 비롯한 주혈, 부정형의 수혈 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집자리로 보이는 유구와 수혈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생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삼국~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삼국시대 토기의 경우 백제 토기가 주를 이루며, 가야 토기 편과 신라 토기 편이 공반된 양상을 보인다. 유물의 기종은 개배, 고배 등의 의례용 토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질적인 토기가 일부 확인되는데, 이는 완주 배매산 유적의 양상과 유사하다.

시굴조사만 이루어져 정확한 성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적의 현황과 수습된 유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구억리산성은 백제, 가야, 신라 등 삼국시대 내륙·수륙교통로를 통한 동-서문물교류의 중심지로서 생활유적과 의례공간, 방어시설 등을 갖춘 복합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북지역 최대의 분구묘 유적으로 알려진 완주 상운리유적과 인접해 있어 서로간의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억리산성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완주군의 고대문화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향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완주 구억리산성 긴급발굴조사 약보고서」.

토기류 1

토기류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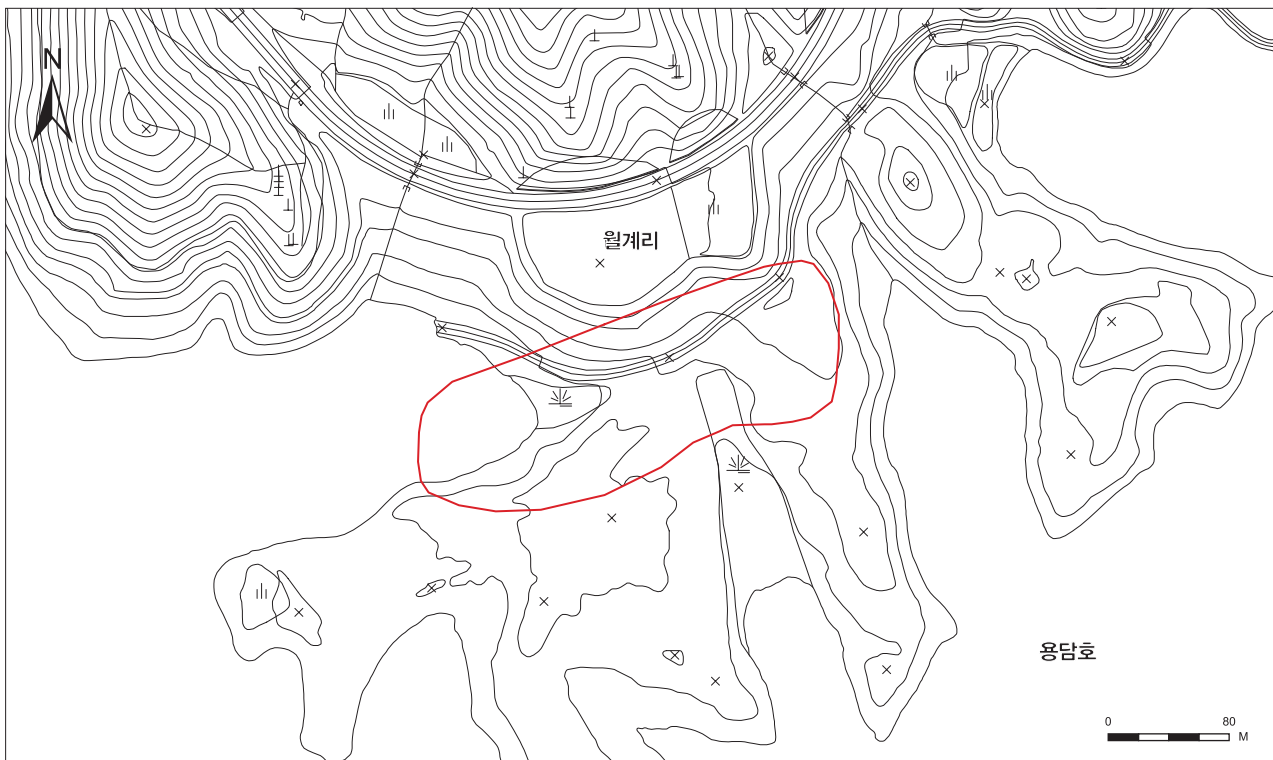
진안 와정유적 _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3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1995.12.~1996.6.
전북대학교박물관 / 1998.6.~1998.12.

주요 유구 / 유물
토성, 주거지 / 찰갑 편

진안 와정유적은 용강산(해발 420m)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33-1 일대에 해당하는데, 용담댐 수몰지구에 포함되어 현재 지표에서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수몰 이전에 존재했던 월계리 와정마을 남서쪽의 야산 인근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다수 수습되어 유적의 존재가 파악되었다. 이 지역은 공주와 부여에서 시작되는 두 갈래의 교통로가 호남정맥의 산줄기를 넘어 처음 만나는 곳으로 섬진강, 남강, 낙동강 유역의 정치체 또는 세력 또는 정치체가 서로 교류하는데 최단 거리를 이루는 교통로가 만나는 곳이다.

1995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용담댐 건설에 앞서 실시한 구제발굴조사를 통해 진안 와정유적에 대한 1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발굴조사에서 7기의 주거지와 옹관 1기, 저장공 1기, 민묘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지표를 굴착해 조성한 수혈식 주거지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운데, 대체로 길이 5~7m, 너비 4~5m 내외이다. 내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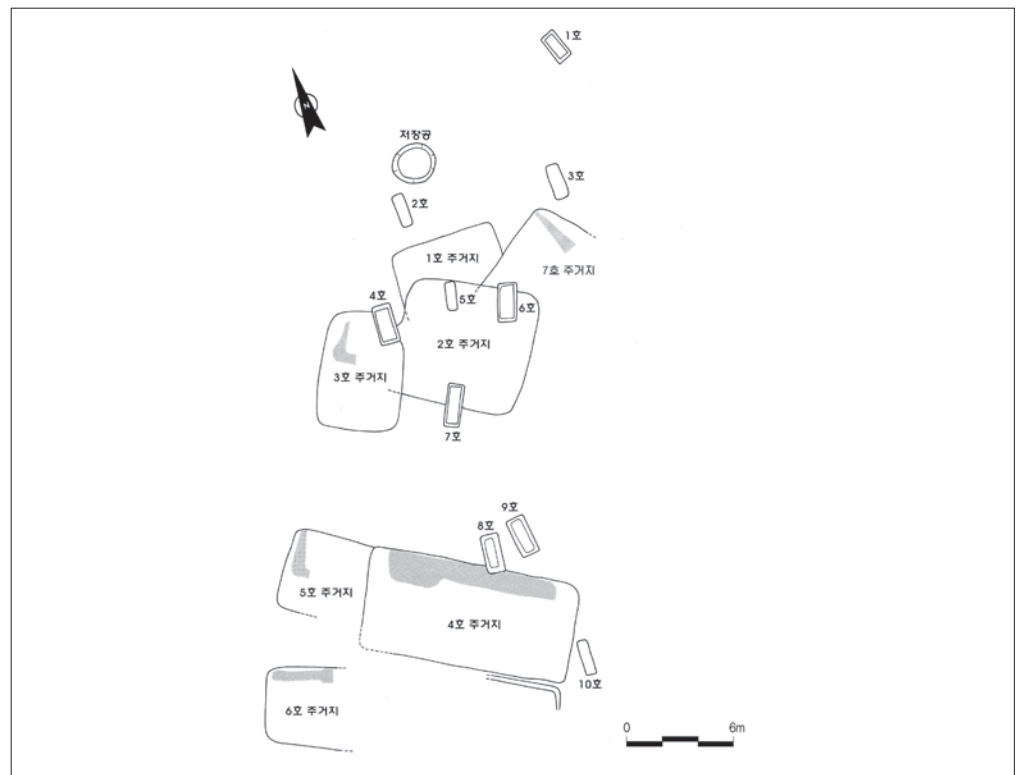
부에서는 석재로 조성된 구들 및 주공 등이 조사되었으며, 출토된 유물로는 시루, 직구호, 발형토기, 삼족토기, 개, 배 등이 있다. 특히 4호 주거지는 길이 12m, 폭 5m 내외로 주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내부에서 취사공간과 저장공간이 조사되어 다른 주거지와 그 기능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발굴조사는 1차 발굴조사 당시 외곽에서 확인된 불에 탄 유구 등의 성격과 규모 등을 밝히기 위해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2차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대상지역이 넓어 총 4개의 구역(가~라)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발굴조사 결과 백제의 목책 토성과 문지 추정지, 주거지 등이 조사되었다. 목책토성은 남동쪽을 제외하고 산 정상부의 외곽 전면을 따라 이어지는데, 목책은 나무를 성의 안과 밖에 세우고 그 사이에 가로의 대를 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에 내부에 마사토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깐 다음 다지고 그 상면에 성토하여 토루를 조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책열과 그 주위에서는 화재의 흔적이 확인되어 화재가 유적의 폐기와 관련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서쪽 목책열에서 안쪽 목책열을 따라 5~7m 길이로 할석 또는 천석을 쌓은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유구는 목책열에서 돌출되어 있고 내부에 할석과 천석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으며, 평탄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지 또는 치일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는 1차 발굴조사에서 조사된 것과 큰 차이 없이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내부에 구들을 갖추고 있다. 주거지 조사과정 중 철제찰갑 편과 가야계 유개장경호 편이 수

유구 배치도

습되어 주목된다.

수습된 유물로 볼 때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제유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백제가 진안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그 거점으로 진안 와정 유적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기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과 공주 천도 이후 동성왕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478년)이 고려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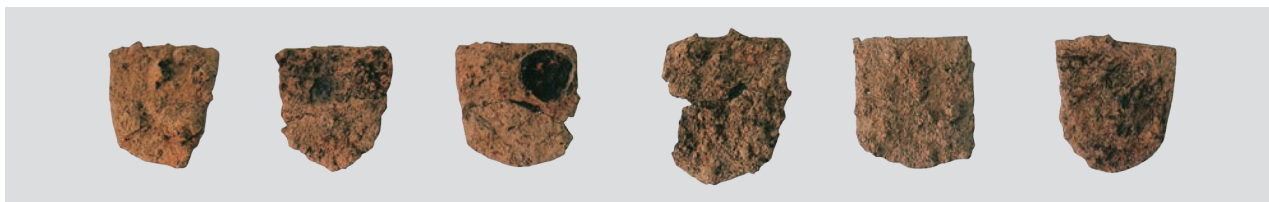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유적 전경

4·5호 주거지

4호 주거지 온돌

가지구 목책열

출토유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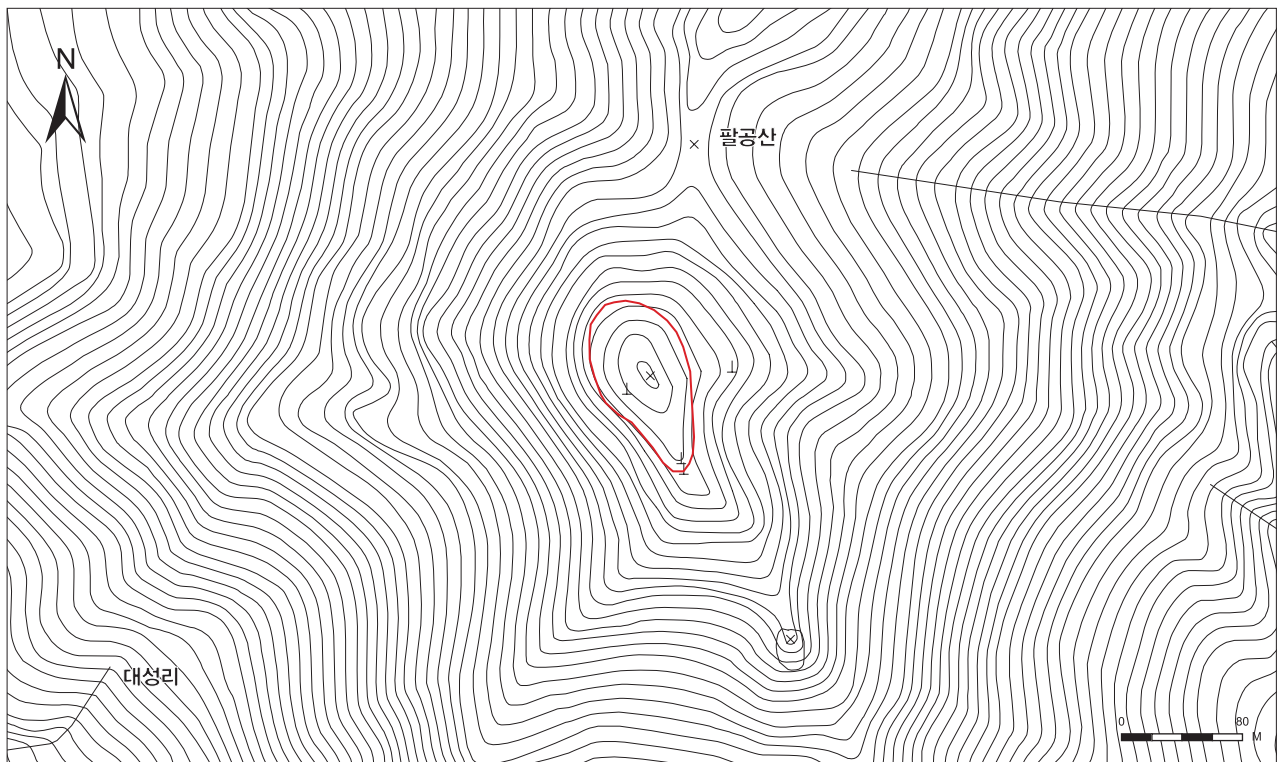
장수 원수봉봉수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25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14.8.~2015.10.

주요 유구 / 유물
석축 / 회청색경질토
기 편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금평마을 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원수봉(해발 1013.4m)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원수봉은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인 팔공산(해발 1151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상에 위치한다. 원수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능선 상에 장수 합미산성이 있으며, 그 남쪽에 자고개가 위치한다. 자고개는 장수분지로 들어오는 가장 큰 관문이다. 장수분지에서 이 고개를 넘으면, 섬진강 수계인 임실을 거쳐, 전주, 남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원수봉봉수는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신무산 봉수와 마주하고 있다. 원수봉 봉수와 합미산성은 그 지정학적 위치상 '자고개'를 감시·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장수군의 지원을 받은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원수봉봉수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서쪽과 남쪽의 트렌치에서 정연하지는 않지만 인위적으로 쌓은 석축이 확인되었는데, 기반층인 자연암반을 깎은 후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석재를

유적 위치도

사용하여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석축의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석축은 장수 영취산·봉화산봉수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모두 봉수의 기초부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석축 외곽의 퇴적층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파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형을 파악할 수 없지만, 기벽이 두꺼운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 편이 주를 이룬다.

시굴조사 결과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봉수의 입지와 분포양상, 석축의 축조기법, 출토유물 등을 고려할 때, 원수봉봉수는 장수 영취산·봉화산봉수와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장수군에 존재했던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장수 합미·침령 산성Ⅰ』.

유적 근경

석축 노출모습

30 장수 영취산봉수

| 장수군향토문화유산 기념물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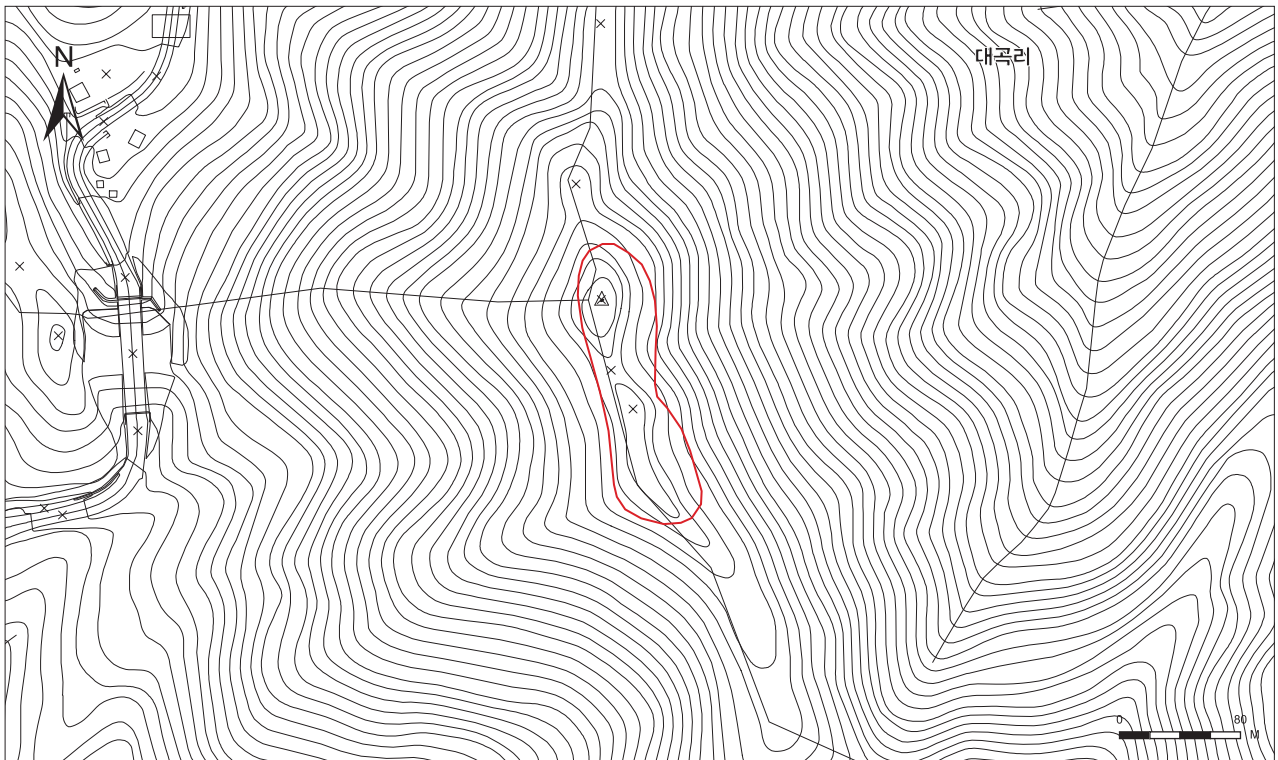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92-2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13.10.~2014.5.

주요 유구 / 유물
봉수 기초부 / 회청색 경질토기 편, 적갈색 연질토기 편

백두대간의 고봉인 영취산 정상부(해발 1075.6m)에 봉수가 있다. 영취산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분기점이자, 금강, 섬진강, 남강 수계의 분수령을 이룬다. 영취산 정상부에서는 장계분지와 장수분지는 물론, 동쪽으로 경남 함양군 서상분지가 한눈에 조망된다. 영취산의 서쪽에는 무령고개가 있는데, 금강과 섬진강 수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길목이다.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장안산 봉수와 마주한다. 영취산 봉수에서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남원 덕치리 봉수까지 한 갈래의 봉수로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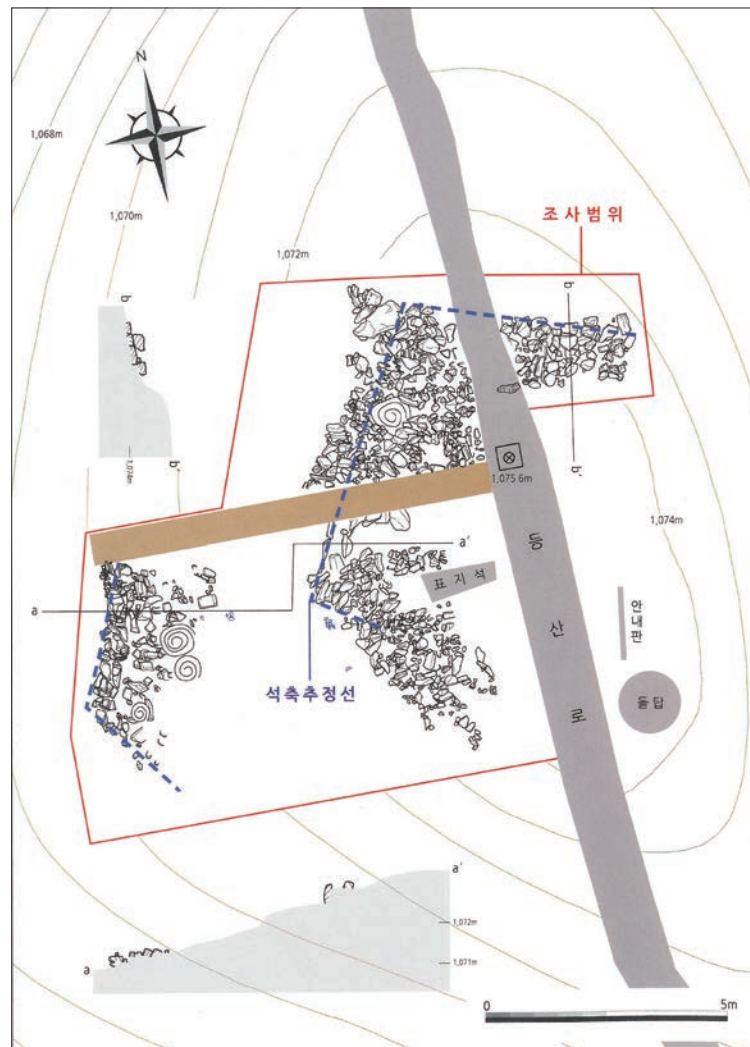
201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영취산 봉수에 대한 발굴조사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정상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된 장방형의 단시설과 그 외곽으로 석축이 일부 확인되었다. 단시설은 자연암반층을 정지한 후, 그 위에 부정형할석을 쌓아 면을 맞추고 그 내부는 석재와 흙으로 채워 평탄면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붕괴되어 정확한 규모와 양상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서쪽과 북쪽에 일부 잔존된 석축렬을

유적 위치도

토대로 추정해 볼 때,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 8m, 단축 5m 내외이다. 외곽석축은 서쪽과 남쪽의 경사면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정상부 단시설과 3m 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다. 석축은 황갈색마사토계열의 풍화암반층을 정지한 후, 부정형 할석을 사용하여 쌓고 그 안쪽을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정상부 단시설의 하단부까지 높이를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석축의 길이는 8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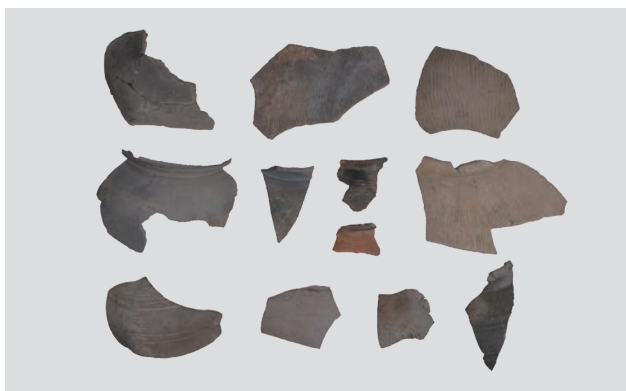
유물은 정상부의 장방형단시설과 외곽 석축 사이의 구지표층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편과 적갈색연질토기 편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파편으로 정확한 기형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생활용기가 주를 이룬다. 특히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는 가야계 토기 편과 선문이 시문된 토기 편의 비율이 높은데, 토기류의 기종과 조합상이 장수군의 대표적인 가야계 고분군인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취산봉수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경 장수군에 존재했던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유적 근경

석축 단시설

토기류

철기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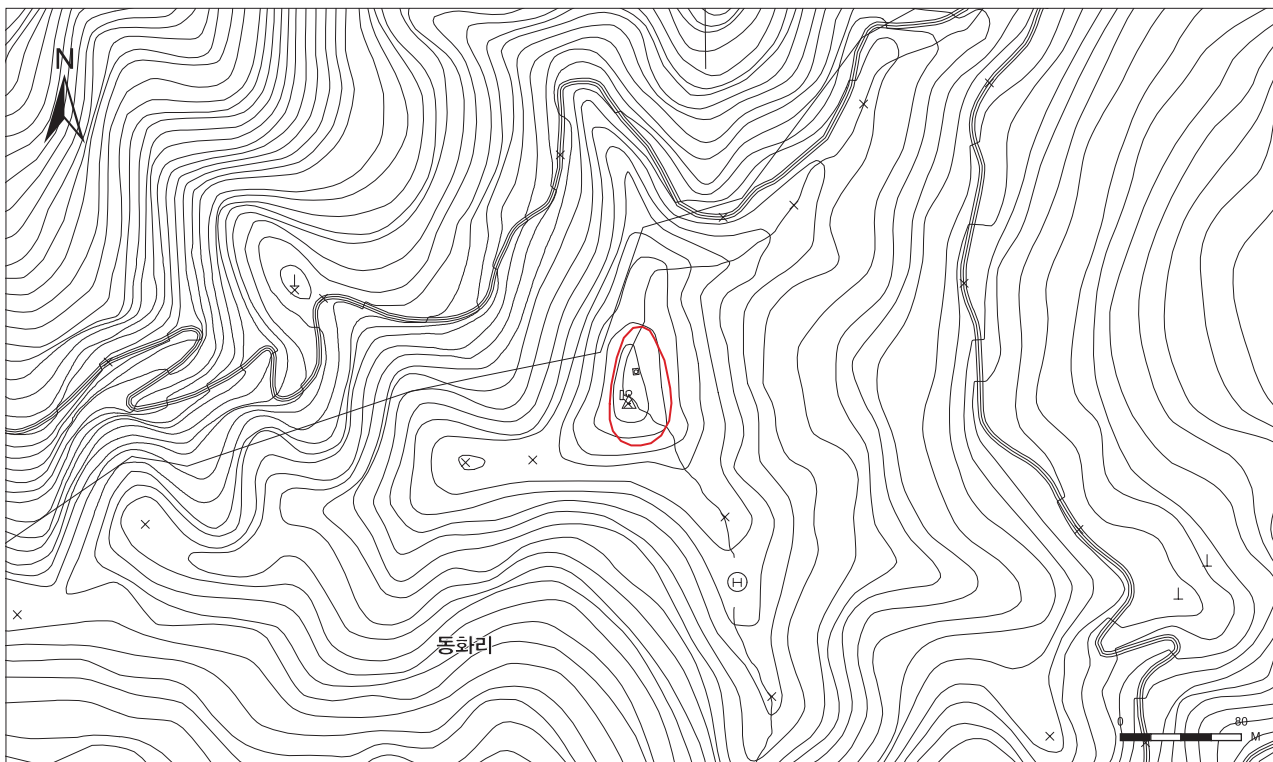
장수 봉화산봉수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0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13.10.~2014.5.

주요 유구 / 유물
봉수 기초부 / 회청색 경질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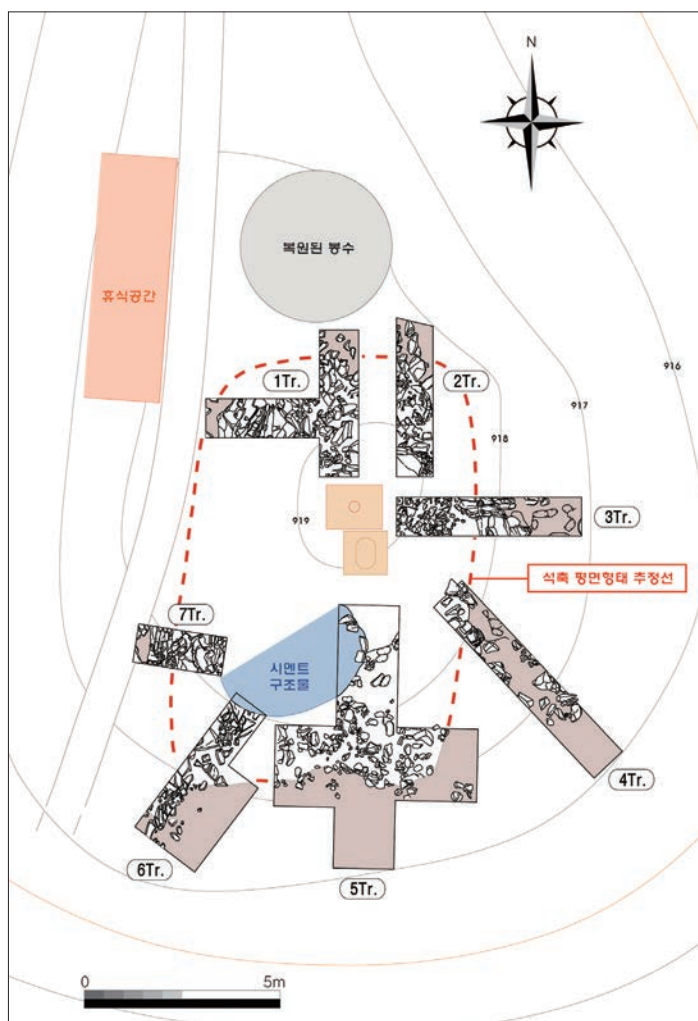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말골마을 동쪽에 있는 봉화산의 정상부(해발 919.8m)에 위치한다. 봉화산은 백두대간의 준령에 위치한 고봉으로 전북 장수군 번암면과 남원시 아영면의 경계를 이룬다. 봉수의 남쪽에는 삼국시대 호남과 영남의 큰 관문이었던 치재가 있으며, 이 고갯길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봉화산 봉수, 남쪽에 남원 매봉 봉수와 아막산성이 자리한다. 봉화산에 오르면, 서쪽으로 금강 섬진강 수계인 장수군 번암면 일원이 조망되며, 동쪽으로는 남원 아영분지와 멀리 경남 함양군까지 조망권이 형성된다. 현재 봉화산의 정상부에는 백두대간 등산로가 지나고 있으며, 중심부에 대형 표지석과 측량기준점이 시설되어 있다. 또한 북쪽 가장자리에 산불감지 카메라와 산림청에서 복원된 봉수 구조물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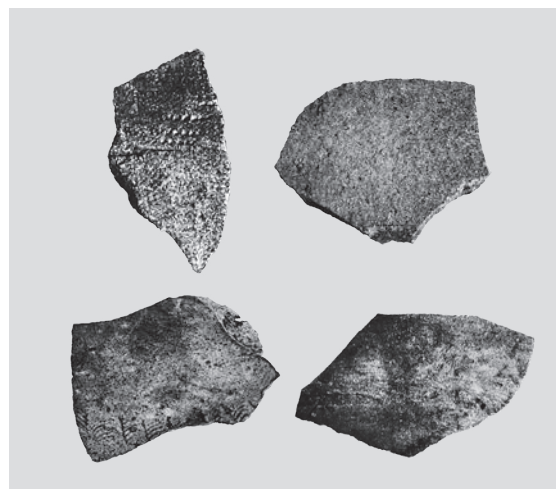
201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봉화산봉수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봉수의 기초부를 추정되는 단시설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봉괴·교란되어 정확한 구조

유적 위치도

와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남쪽 구역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단시설은 정상부의 자연암반을 깎아내어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석재를 사용하여 경사면에 쌓아 올리고, 그 내부에 비교적 소형의 석재를 깔아 평탄면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 12m 내외, 단축 8m 내외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형태와 축조기법, 규모가 장수 영취산 봉수와 유사하다.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 편 수 점만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계 토기 편이 포함되어 있다. 시굴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봉수의 입지와 배치양상, 기초부의 구조, 출토유물 등을 고려해 볼 때, 봉화산봉수는 삼국시대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출토유물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고성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고성 송학동고분군(사적 제119호)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2000~02)	12
02	고성 내산리고분군(사적 제120호)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7~2005)	16
03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	생활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0)	20
04	고성 기월리 1호분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1)	22
05	고성 율대리 2호분	무덤	국립진주박물관(1989)	25
06	고성 오방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72)	28
07	고성 연당리고분군	무덤	경남대학교박물관(1991~92)	30
08	고성 신용리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33
09	고성 동외동유적(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			35
09-1	고성패총	생활	국립중앙박물관(1969~70)	37
09-2	고성 동외동패총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74)	39
09-3	고성 동외동유적	생활	국립진주박물관(1995)	41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9-4	고성 동외리유적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5)	44
10	고성 서외리 158-10번지 유적	생활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0)	46

통영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통영 안정리고분군 -통영 안정리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50
02	통영 남평리유적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조성 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53

거제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거제 아주동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161호)			58
01-1	거제 아주동유적	무덤	동아대학교 박물관(1996)	60
01-2	거제 아주동고분군 -거제 아주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4)	62
01-3	거제 아주동고분군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 내 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4~05)	64
01-4	거제 아주동고분군 -거제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6)	66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2	거제 하청 하나로마트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6~17)	68
03	거제 관포리유적 -거제 거가대교 건설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6~07)	70
04	거제 장목고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4)	72
05	거제 대금리유적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2005~07)	75
06	거제 구영리고분군 -거제 구영 관광농원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해동문화재연구원(2015)	77
07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9~10)	79
08	연초댐 환경개선시설공사 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06)	82
09	거제 농소유적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5)	84
10	거제 지세포리유적	생활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5)	87

사천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사천 향촌동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9)	92
02	사천 예수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77) 삼도문화재연구원(2017)	95
03	사천 월성리고분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6)	98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4	사천 용현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8~09)	101
05	사천 덕곡리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09)	104
06	사천 향촌동 61번지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1)	106
07	사천 구암리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1)	109
08	사천 월성리유적	생활,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7~08)	111
09	사천 봉계리 삼국시대 집락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0)	114

남해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남해 남산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6)	120
02	남해 봉황산유적 -남해 봉황산 나래숲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부경문물연구원(2015)	122

하동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하동 흥룡리고분군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9~10)	126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2	하동 흥룡리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1)	129
03	하동 남산리 184-9·10번지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재단(2014)	131
04	하동 우복리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1)	134
05	하동 고이리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9)	137
06	하동 정수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	140
07	하동 횡천리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0~11)	143
08	하동 동산리유적	생활,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146
09	하동~화개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산업·생산	국강고고학연구소(2016)	149

전남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순천 운평리유적			154
01-1	순천 운평리유적 M1호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5~06)	156
01-2	순천 운평리유적 M2·M3호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7~08)	158
01-3	순천 운평리유적 M4·M5호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12)	161

전북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사적 제542호)			166
01-1	남원 두락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89)	168
01-2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2013)	170
02	장수 삼봉리고분군(전라북도기념물 제128호)			173
02-1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03)	175
02-2	장수 삼봉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2~13)	177
02-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5)	179
03	장수 동촌리고분군(전라북도기념물 제132호)			181
03-1	장수 동촌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02~03)	184
03-2	장수 동촌리고분군 1호분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2~15)	186
03-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동촌리 2호분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5)	188
03-4	장수 동촌리고분군 30호분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7)	190
04	남원 월산리고분군(전라북도기념물 제138호)			192
04-1	남원 월산리고분군	무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1982)	194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4-2	남원 월산리고분군 M4·M5·M6호분	무덤	전주문화재연구원(2010)	197
05	남원 운봉 북천리고분군	무덤	전라문화유산연구원(2014)	200
06	남원 임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11)	202
07	남원 행정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92)	205
08	남원 건지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88)	207
09	남원 봉대고분군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10)	209
10	남원 입암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11)	211
11	완주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4~16)	214
12	진안 황산리고분군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유적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1996)	217
13	무주 대차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2018)	219
14	장수 노하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6)	221
15	장수 장계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7)	223
16	장수 호덕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99)	225
17	장수 삼고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1995)	227
18	임실 금성리고분군	무덤	전주시립박물관(1972)	229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9	임실 석두리유적	무덤, 생활, 산업·생산	전라문화유산연구원(2010)	231
20	임실 도인리유적	무덤, 생활	군산대학교박물관(2009)	234
21	남원 대곡리유적	생활	전북대학교박물관(2001)	236
22	순창 무수리유적	생활	전북문화재연구원(2011)	238
23	장수 합미산성(전라북도기념물 제75호)	정치·국방	군산대학교박물관(2014~15)	240
24	임실 성미산성(전라북도기념물 제100호)	정치·국방	전북문화재연구원(2007)	243
25	장수 침령산성(전라북도기념물 제165호)	정치·국방	군산대학교박물관(2014~17)	245
26	완주 배매산성	정치·국방	전북대학교박물관(1999~2000) 전라문화유산연구원(2017)	248
27	완주 구억리산성	정치·국방	군산대학교박물관(2016)	250
28	진안 와정유적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유적	정치·국방, 생활	군산대학교박물관(1995~96) 전북대학교박물관(1998)	252
29	장수 원수봉봉수	교통·통신	군산대학교박물관(2014~15)	255
30	장수 영취산봉수	교통·통신	군산대학교박물관(2013~14)	257
31	장수 봉화산봉수	교통·통신	군산대학교박물관(2013~14)	260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Ⅳ

가야 유물
출토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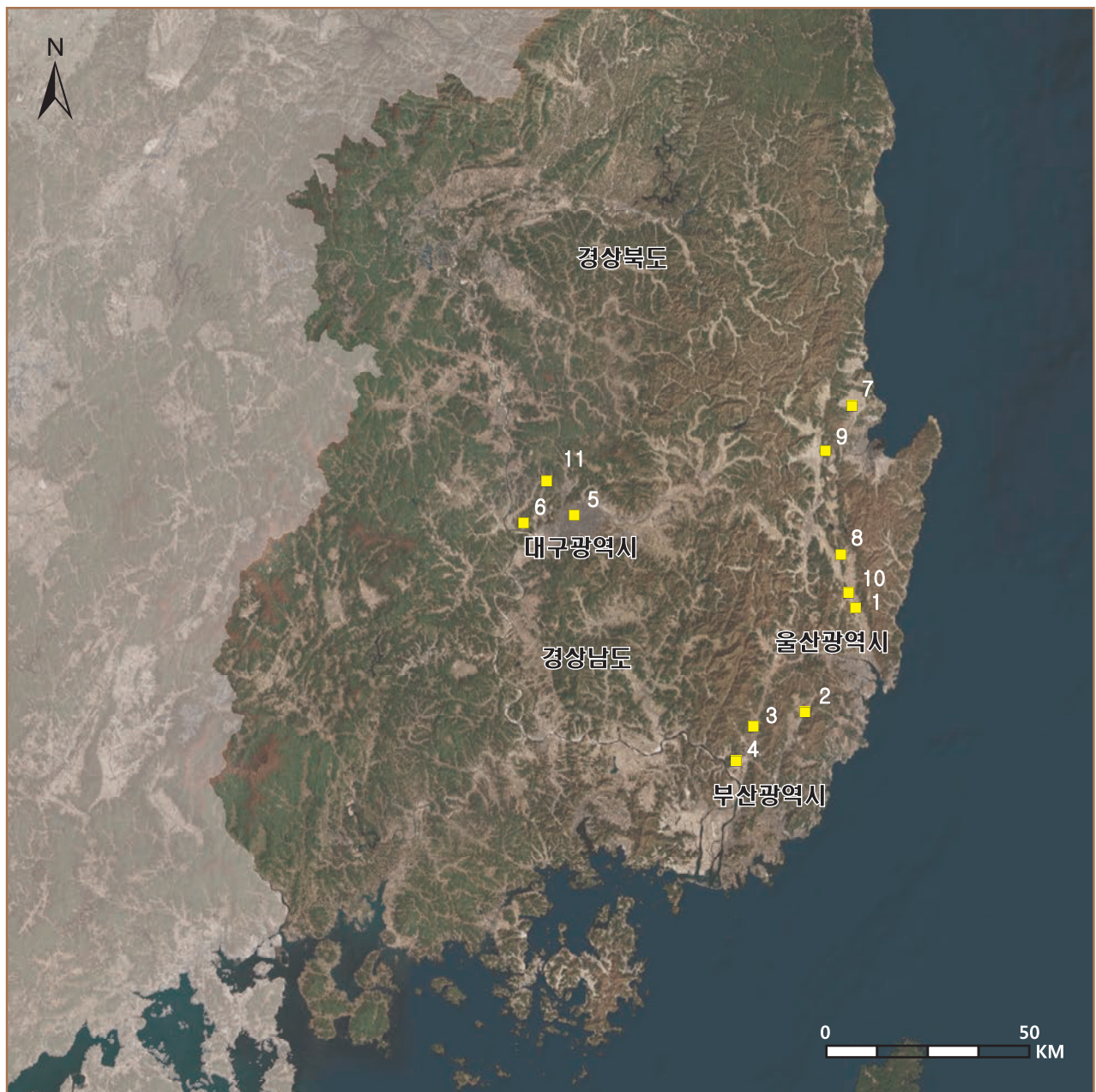
Ⅰ. 영남

Ⅱ. 호남

Ⅲ. 서울·충청·강원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I. 영남

01

울산 중산리고분군

| 울산광역시기념물 제9호

소재지
울산광역시 농소면 중산리 18-4·617·61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차 1991.7.~1991.8.
2차 1993.3.~1993.5.
3차 1994.5.~1994.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 횡구식석실 / 갑주

울산광역시 농소면 중산리에 소재한 대규모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남북으로 형성된 해발 300~400m의 산으로부터 산과 나란히 흐르는 동천강 쪽으로 뻗어내린 나지막한 지맥들과 그 사이의 선상지에 형성된 대규모 유적이다. 창원대학교박물관에 의해 3년에 걸쳐 발굴조사되어 600여 기의 고분이 노출되었다.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유적의 중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긴 하였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중요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 대한 구제발굴은 1991년 이래 총 22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였지만 50여 만평의 유적 내에서 일부 국한된 지역을 발굴하는데 그쳤다. 발굴조사된 고분은 2세기 중엽에서 7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에 조영되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매장주체부의 형식은 목곽묘와 그 다양한 변형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은 수혈식석곽이며, 횡구식석실, 횡혈식석실, 옹관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신라고분의 변천을 파악함에 있어 중산리고분군의 자료가 중요한 것은 적석목곽묘를 포함한 신라식의 목곽묘가 단계적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이 유적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고분군에서는 함안지역산 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주목된다. 함안산 승석문호는 ⅠA-23·33·74·75·100호 등에서 부장되었다. 함안지역산 토기가 부장된 고분은 모두 대형 목곽이며 이 가운데 최고 위계의 고분인 75호묘에서는 3점이 부장되었다. 이 지역산 토기가 대형 목곽묘에 다수 부장된 것은 아라가야와 이 지역 수장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중산리유적Ⅰ -현대자동차 근로자주택 부지 내 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중산리유적Ⅱ -중산리 택지조성지역 내 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중산리유적Ⅲ -가스관 매설지역 내 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중산리유적Ⅳ -농협상가 신축부지 내 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2007, 『울산 중산리유적Ⅴ(Ⅳ지구)』.

창원대학교박물관, 2012, 『울산 중산리유적Ⅵ(Ⅴ지구)』.

I A지구 유구 배치도

I A-75호분 부곽

I A-75호분 부곽 출토유물

02

양산 용당동 79-9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79-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6.9.

주요 유구 / 유물
논 / 대각 편, 시루 편

양산 용당동 79-9번지 유적은 양산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확인된 유적이다. 동고서저의 해발 70m 정도의 완만한 구릉 사면부의 말단에 입지하며, 서쪽으로는 회야강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논과 소량의 토기 편, 어망추, 기와 편이 출토되었다. 삼국~통일신라시대 논은 동고서저의 선상지 구릉 말단부 주변의 서쪽으로 길게 뻗은 곡저 사면부에 입지하고 있다. 토층조사 결과 층위는 크게 Ⅰ층 표토층, Ⅱ층 현대논층, Ⅲ층 자연퇴적층, Ⅳ층 삼국~통일신라시대 논층, Ⅴ층 기반층의 5개 층으로 구분된다. 토층상에서 논으로 판단한 근거는 Ⅳ층의 흑갈색식양토, 이질토 혼입, 산화철 망간집적층의 존재, 기능면 또는 가공면 상의 단차, 토양교란현상, 식물규산체 분석 등에 의해 논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논의 조성상태는 완만한 계곡 사면부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계단식 논으로, 폭이 좁고 세장한 형태이다. 잔존한 논면은 모두 23면이 확인되었으며, 각 논의 폭은 최소 60㎝에서 최대 360㎝로 평균 183㎝ 정도이다. 논면 사이의 단차는 3~5㎝ 정도이며, 논둑은 확인되지 않았다. 곡사면부 중앙의 논 기능면에 단차가 확인되는 것은 논 상부의 Ⅲ층이 곡부 쪽으로 쇄설된 자연매몰층이기 때문에 논 기능면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자리의 단차 없이 흑갈색식양토의 기능면이 분포하는 부분에는 Ⅲ층인 자연퇴적층이 확인되지 않고, 바로 현대논층이 확인되고 있어 계속된 경작에 의해 기능면의 대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능면을 제거한 후 가공면 상에서는 부정형의 수혈과 경작흔 등이 노출되었는데, 가공 시의 족흔, 경작구, 식재흔 등으로 추정된다. 족흔은 동물 또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 20㎝, 너비 약 15㎝, 깊이 약 10㎝이다. 식재흔은 원형을 이루며 직경이 20㎝ 정도이다. 경작구는 너비가 약 20㎝, 깊이 약 10㎝가 잔존한다. 유적 내에서 수로와 집수지, 보 등의 관개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된 수혈과 구를 비롯해 서쪽 경계에 위치하는 자연습지 등을 통해 볼 때, 논보다 높은 지점에 용수확보를 위한 시설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구의 특성상 출토된 유물이 거의 없어 정확한 시기파악은 어려우나, 기능면에서 출토된 고배 대각 편과 중판횡방향타날문평기와 편 등을 통해 볼 때, 중심시기는 6~7세기로 볼 수 있다.

유적은 한정된 지역에 대한 조사이고, 현대 경작지 조성 등에 의해 삭평이 심하게 이루어져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양산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삼국~통일신라시대 논으로 인접한 부산 ·울산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7, 『양산 용당동 79-9번지 유적』.

등지의 논과 함께 양산지역의 경제·생산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유적 전경

출토유물

03

양산 소석리 543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54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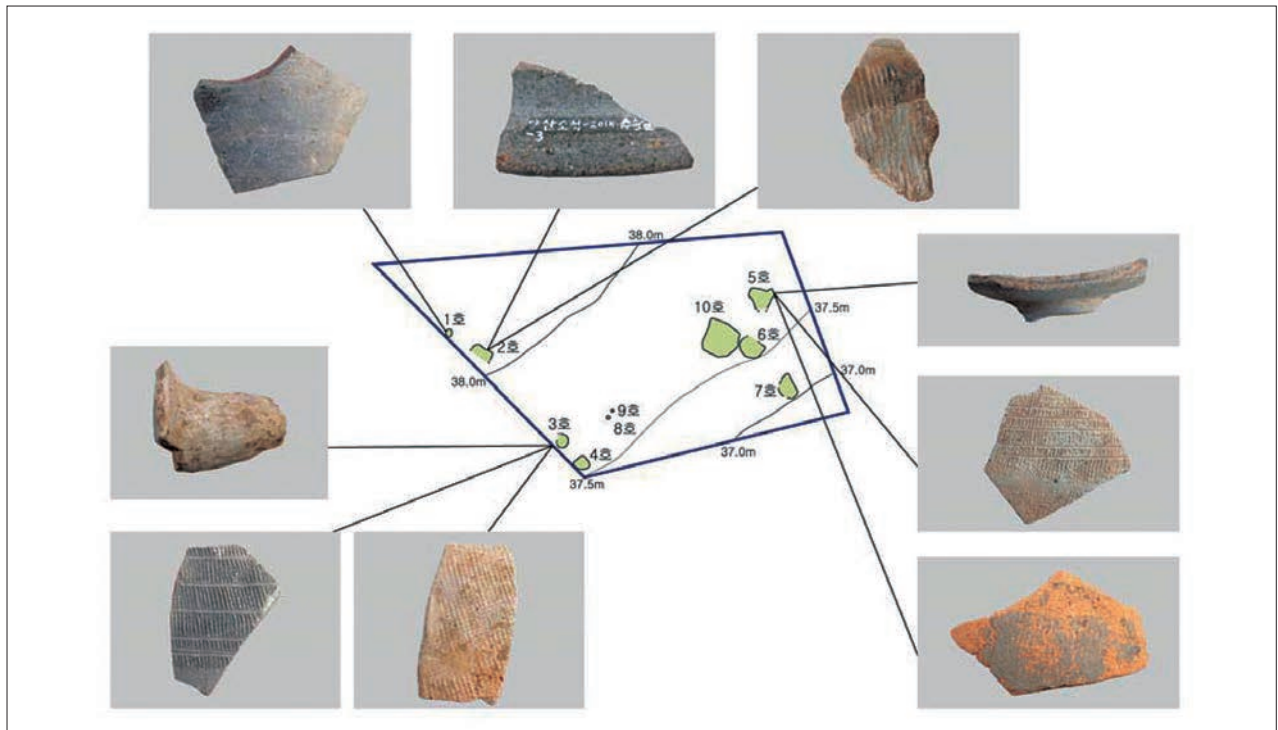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토기 편

양산 소석리 543번지 유적은 구릉 말단부와 하천변의 경계에 형성된 하안단구에 입지하는데, 유적 일대는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소석천과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양산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수혈 10기와 소량의 유물들이 조사되었다. 먼저, 유적의 층위는 총 3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Ⅰ층은 회색사질점토로 근·현대 경작층, Ⅱ층은 갈색사질점토로 삼국~통일신라시대 문화층, Ⅲ층은 역석+사질토로 역석층이다. 반면,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Ⅱ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Ⅰ층 직하에 Ⅲ층이 바로 확인된다. 이를 감안하면 유적 전역에 유구가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삭평과 경작지 조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들은 대부분 평면형태가 부정형에 가까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수혈 내부에는 주혈과 아궁이시설, 벽체 등 용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7호와 10호 수혈 내에서 목탄과 소토 등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일부 조사되었다. 7호 수혈은 후대 삭평이 심하여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바닥면의 중앙부에는 부분적으로 목탄과 재층이 분포하고, 그 사이로 주혈 1기가 확인된다. 바닥면에 경화면이나 소토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으나, 목탄과 함께 재층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붕을 조성했던 목재가 함몰되어 폐기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수혈의 용도는 내부에서 부뚜막이나 노지 등 취사와 관련된 시설이 남아 있지 않아 주거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창고나 임시 거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0호 수혈은 규모가 길이 494㎝, 너비 492㎝로 비교적 큰 평면형태가 방형의 수혈이다. 내부에는 주거지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바닥과 가까운 내부토에서 목탄과 소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목탄은 수혈 상부에 목재구조로 결구된 지붕이 함몰되고, 폐기된 흔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량의 소토는 수혈 바닥에 피열흔이 남아 있지 않아 수혈식 또는 지면식의 고정된 노지에서 형성된 소토가 아니라 폐기과정에서 유입된 매몰토가 소결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내부 토층에서 다량의 목탄과 소토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취사와 난방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지보다는 목재로 상부구도를 조성한 창고나 임시거처로 사용되다가 화재 등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수혈들은 평면형태가 부정형과 말각방형 등을 이루며 바닥은 정지하지 않고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내부에 목탄이나 소토 등이 남아 있지 않아 토취갱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7,
『양산 소석리 543번지 유적』.

수혈 배치도 및 출토유물

출토된 유물은 소량이나, 연질제의 평행선문타날토기 편, 와질제의 격자문타날토기 편, 도질제의 승문타날토기 편은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생활용기에 타날문토기가 본격으로 도입된 시기인 5세기에서 6세기로 편년되며, 2호 수혈에서 출토된 암키와는 중판 횡방향타날문 평기와로서 상한이 7세기 후반으로 비정된다. 따라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5세기에서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양산 소석리 543번지 유적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양산천 일대의 동시기 유적들과 함께 양산지역의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04

양산 물금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106-2 일대·가촌리 14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7.8.~1998.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우물, 도로 / 고배, 송풍관, 철괴, 슬래그

유적의 배후에는 오봉산(해발 530m)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며 전방에는 양산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서쪽 오봉산 너머 1.5㎞ 거리에는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2.5㎞ 거리에는 양산천이 남으로 흘러 낙동강에 합류한다. 유적은 지형적으로 2개소로 구분되는데, 오봉산 남동사면 말단부에 남-북 방향의 독립구릉 형태로 형성된 청룡산(해발 46.2m) 종고개의 서쪽에 가촌리유적, 북쪽에 범어리유적이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가촌리유적에서는 주거지 2동, 수혈 13기가 조사되었고, 범어리유적에서는 수혈 24기, 부석 구상유구 3기, 우물 2기, 도로 1개소가 조사되었다.

가촌리유적의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Ⅰ층은 경작층으로 흑갈색부식토이다. Ⅱ층은 60㎝ 정도 두께의 황갈색점토, Ⅲ층은 유물과 목탄, 소토 등이 다량 포함된 암갈색점토이며 유구가 확인되는 층이다. Ⅳ층은 생토층으로 황갈색조의 풍화암반토이다. 주거지는 장축방향을 달리한 채 나란히 조성되어 있으며 배치형태상 유적 중앙부에 위치한다.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수혈은 대부분 원형 또는 말각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는데, 철광석, 송풍관, 패각, 철재 등이 출토된 5기는 제련로, 패각류가 집중 출토된 1기는 패각소성유구, 소결부가 확인된 1기는 배소유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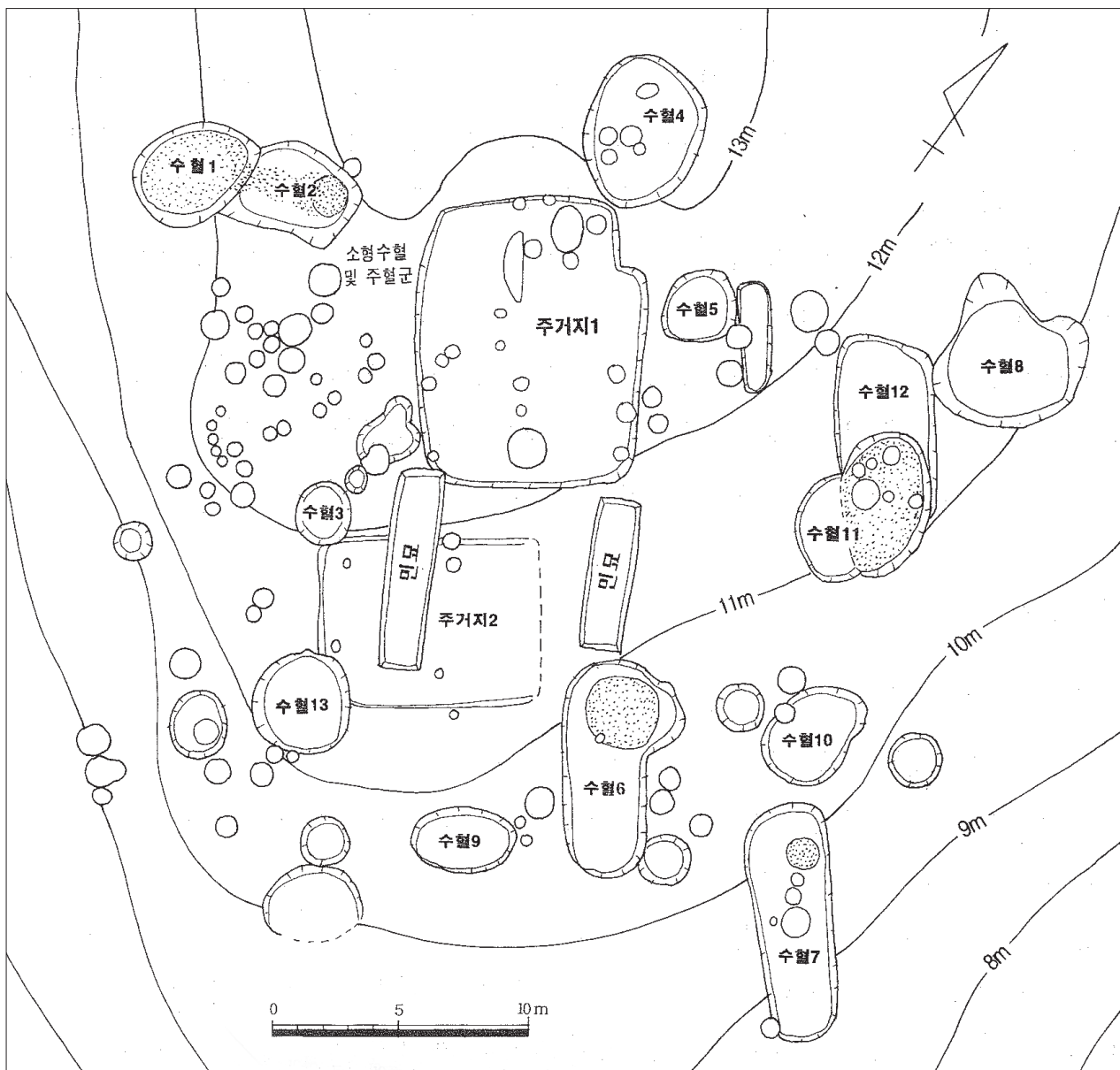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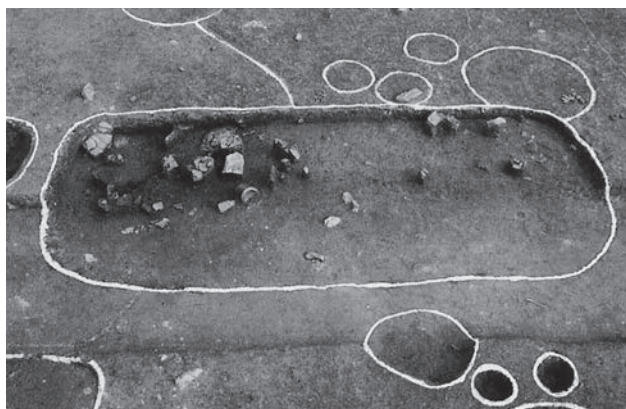
범어리유적의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된다. Ⅰ층은 경작층으로 흑갈색부식토이다. Ⅱ층은 황갈색점토층이며 자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유구는 Ⅱ층 상면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Ⅲ층은 암갈색점토이며 Ⅱ층과 마찬가지로 유구가 확인되고 유물도 일부 출토된다. 최하층인 Ⅳ층은 생토층이다. 수혈에서는 철광석, 송풍관, 철재, 철괴, 패각, 벽체 등의 많은 제철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구와 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련로 31기, 제련로 또는 배소유구 3기, 배소유구 19기, 제사유구 1기, 패각소성유구 2기, 패각정장유구 1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수의 철광석이 출토된 구는 선광장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도로와 우물 등은 운송과 급수를 위한 관련시설로 판단된다.

유적의 시기는 가촌리유적이 5~6세기, 범어리유적은 7~8세기로 추정된다. 유적에서 조사된 다양한 유구와 유출재, 송풍관, 철광석, 패각 등 제철과 관련된 유물들이 다량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제련공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련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광, 배소, 패각의 저장과 소성 등이 이루어지는 관련유구가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현재 유적은 택지조성을 통해 사라진 상태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양산 물금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한반도의 제철유적』.

수혈4
13m
수혈1
수혈2
소형수혈
및 주혈군
주거지1
수혈5
12m
수혈8
수혈12
수혈3
수혈11
민묘
민묘
주거지2
11m
10m
수혈13
수혈10
수혈6
수혈9
9m
수혈7
8m
0 5 10m

유구 배치도

6호 수혈

6호 수혈 출토유물

05

대구 비산동고분군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산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대학교박물관 /
1999.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승문호, 승석
문단경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다. 비산동과 내당동 일대에 분포하는 달성고분군의 제2군에 속하는 고분으로 북쪽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었다. 이 고분군은 1923년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등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이 고분군은 능선의 정상부에 열을 지어 조영된 대형분으로 은제·금동제 장신구가 출토된 점에서 이 고분군에서 최고 위계의 고분으로 판단된다.

1999년 이 고분군의 북쪽 12-33호분이 위치하는 주변인 비산4동 202-1번지에서 목곽묘 2기, 석곽묘 3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 가운데 대형 목곽묘인 3호 목곽묘는 잔존 묘광 6.5m, 폭 2.6m의 소위 경주형목곽묘이다. 이 고분에서는 도부호가 시문된 기벽이 얇고 승석문을 가진 함안지역산 단경호가 13점, 1점의 승문호가 출토되었다. 1호 목곽묘에서도 함안지역산 승석문단경호가 1점, 승문호가 1점 출토되었다.

1호 목곽묘는 소위 경주형목곽묘이나, 한편 부장된 토기는 함안지역산 단경호가 14점 출토된 것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小泉顯夫·野守健, 1936, 『大正十二年古蹟調査報告-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朝鮮總督府.

김용성·김대환, 2002, 「달성고분 발굴조사」,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Ⅵ, 영남대학교 박물관.

3호 목곽묘

3호 목곽묘 출토유물

06

대구 문양리고분군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산3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1999.8.~2001.4.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승석문단경호, 연질발, 고배형기대, 철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산30 일대에 위치하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다. 고분군은 대구-성주간의 국도변에 위치하는 낮은 야산(해발 60~70m)에 형성되어 있으며, 유적의 남쪽 1km 거리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이 고분군의 서남쪽 낙동강 우안에는 중심 고분군인 문산리고분군이 문산산성과 함께 위치한다. 주 능선의 정상부에는 삼국시대 봉토분이 분포하고 주변의 경사면에는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횡혈식석실묘와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분포하고 있다. 1999년 발굴조사되었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봉토분 16기를 비롯하여 목곽묘 36기·석곽묘 231기·옹관묘 14기·석실묘 4기·토광묘 1기와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16기 등 모두 363기가 확인되었다.

봉토분과 목곽묘는 유적의 주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으며, 봉토분의 일부는 선대에 축조된 목곽묘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석곽묘와 옹관묘는 유적의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석실묘는 북동쪽 능선의 끝자락에 분포하고 있다.

목곽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7호묘로 묘광은 길이 710cm, 너비 230cm, 높이 50cm이고, 주곽은 길이 450cm, 너비 100cm, 부곽은 길이 140cm, 너비 110cm이다. 목곽묘에서는 고배형기대·호·연질발·파배 등의 토기류와 철모·철착·철부·도자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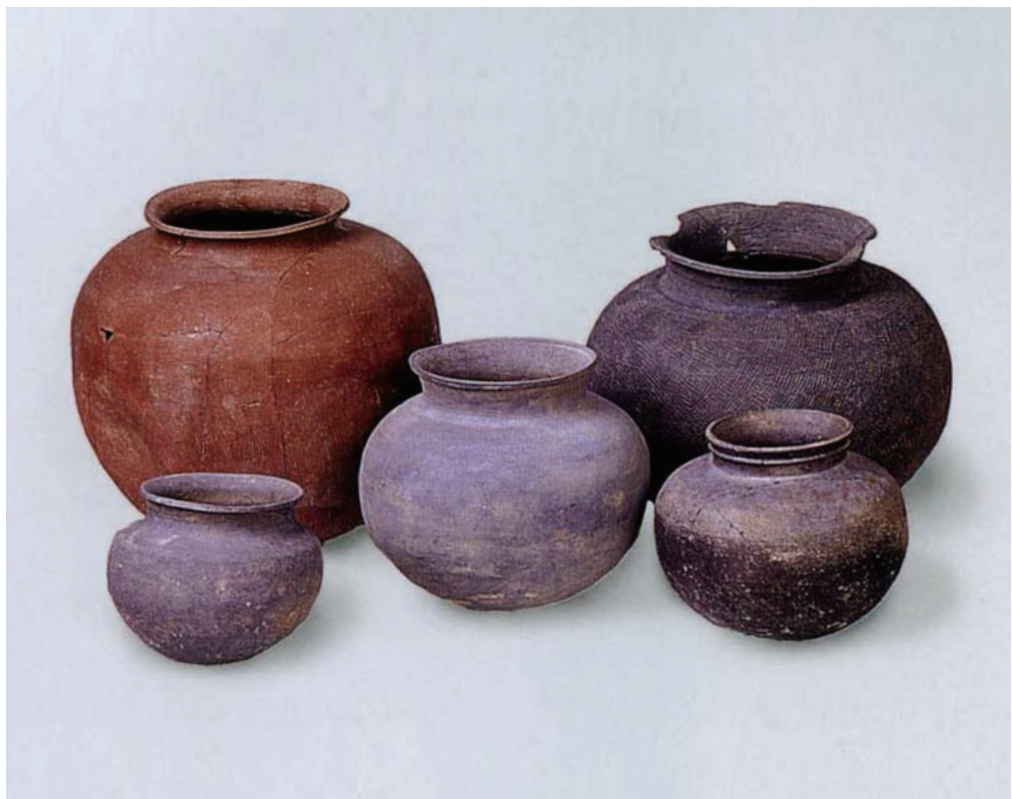
부장품은 목곽묘에서 양이부호·단경호·파배·노형토기·철모 등이 출토되었으며, 고분군의 조영은 승석문단경호가 출토되는 목곽묘가 4세기 전반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영이 완료되는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석곽묘의 출현은 외절구연고배와 이단일렬투창고배 등에서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으로 파악되며, 봉토분은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군에서는 도부호가 시문되어 함안지역산으로 파악되는 승석문단경호가 20·27·30호 목곽묘에서 출토되고, 또한 김해지역산으로 보이는 외절구연고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는 4세기대 낙동강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달성 문양리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박천수, 2009, 「문양리고분군」,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 전경

출토유물

07

포항 마산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14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시굴 2010.12. 발굴 2011.2.~2011.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옹관묘 / 단경호, 종장판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149-1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고분군이다. 목곽묘 4기, 적석목곽묘 1기,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호 적석목곽묘는 동혈주·부곽식으로 묘광 길이 8m, 폭 3.2m이다. 구조는 동쪽에 주곽을 설치하고 서쪽에 부곽을 마련하였다. 주곽에서는 금제 이식이 동쪽에서 출토되었으며 시신의 하반신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장신형 철모 20점이 횡으로 깔려있었다. 부곽에서는 종장판갑과 종장판주 등이 출토되었다. 축조시기는 구조가 적석목곽묘인 점과 함안지역산 토기로 볼 때 4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기벽이 얇고 승석문을 가진 함안지역산 단경호 1점이, 이 고분군의 수장묘인 1호 적석목곽묘에 부장된 것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3, 「포항 마산리149-1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X.

적석목곽묘 전경

토기류

장신구류

08

경주 구정동고분군

| 사적 제350호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14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경주박물관 /
1982.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소문단경호,
환두대도, 철모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에 위치하는 신라 목곽묘이며 사적 제350호로 지정되었다. 경주-울산간 7번 국도에서 불국사로 향하는 도로 좌측의 해발 130m의 작은 구릉의 정상부와 약간 낮은 서쪽 사면에서 1982년 예비군 참호공사중에 발견되어 발굴조사되었다. 조사 경과 3기의 세장방의 소위 경주식목곽묘가 확인되었다. 1호묘는 구릉 정상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낮은 사변에 있으며 2·3호묘는 정상부에 자리잡고 있다. 1호묘는 묘광의 잔존길이 6.3m, 폭 1.8m이다. 2호묘는 정상부에 3호묘와 같이 0.7m 간격을 두고 병렬되게 배치되었다. 묘광은 길이 6.1m, 폭 1.7m이며 목곽 내부의 동쪽에 장신형철모 26점을 횡으로 놓고 시상으로 하였다. 3호묘는 묘광길이 8m, 폭 1.8m이며, 목곽 내부 동쪽에서 종장판갑과 대형 철모,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축조시기는 출토된 토기가 와질토기에서 회청색경질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점과 함안지역산 토기로 볼 때 3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함안지역산 토기는 3호 목곽묘 출토 2점의 소문단경호이다. 이 토기들은 측면에 횡치소성흔이 있고 그 색조가 적갈색인 점에서 함안지역산으로 판단된다.

이 고분군에서는 수장묘인 3호 목곽묘에서 3점이 부장된 것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최성애, 2006, 『경주 구정동 고분』, 국립경주박물관.

송의정, 2009, 「구정동고분군」,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3호 목곽묘 전경

3호 목곽묘 출토유물

09

경주 안계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계리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문화재연구소 /
1970.5.~1970.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로마유리기, 고배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계리에 위치하는 대규모 신라고분군이다. 1970년 43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아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34기에 대한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적석목곽묘이나 수혈식석곽묘와 옹관묘도 있다. 대형분은 능선부와 주변에 있으며 소형묘는 사면에 분포한다. 대형분은 봉분이 평면 타원형으로 직경 15-20m이다.

목곽은 주·부곽식과 단곽식이 있다. 적석은 할석을 사용한 점이 경주시내의 적석목곽묘와 다르다.

이 고분군에서는 4호분에서 남색의 로마유리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4호분은 남쪽 능선의 단부에 입지하며 봉분 직경 20m, 높이 3m이며 남북으로 병렬되어 단곽으로 조영되었다. 이 가운데 북곽에서 경옥제곡옥 4점, 금제공옥 29점, 금제환 2점, 관옥 1점, 유리제옥 251점으로 구성된 경식과 이에 인접하여 로마유리기가 출토되었다.

4호 적석목곽묘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신라양식 토기와 창녕지역산 토기로 볼 때 5세기 전엽에서 중엽에 걸친 시기로 편년된다.

가야관련 유물은 유충문이 시문된 개, 이단일렬투창의 고배와 같은 창녕지역산 토기가 출토되었다. 3호분에서 개 2점, 고배 2점, 4호분에서 개 2점, 43호분에서 개 1점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에서는 특히 4호분 북곽에서 로마유리기와 창녕지역산 토기가 공반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합천 옥전 M1호분에서 로마유리기와 창녕지역산 토기가 공반된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문화재연구소, 1981, 『안계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함순섭, 2009, 「안계리고분군」,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3호분 남곽

4호분 남곽

출토유물

10

경주 구어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55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1998.4.~1998.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적석목곽묘 / 주조철부, 단경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에 위치하는 신라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은 경주 중심부와 그 동남쪽지역인 울산지역간의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한다. 구릉상부에 봉토분이 입지하며 사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삼국시대 목곽묘,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가 1998년 발굴조사 되었다.

이 가운데 1호 목곽묘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日'자형 이혈주·부곽식이다. 주곽의 묘광은 6.2m, 부곽은 길이 3.2m이다. 주곽의 바닥에는 주조철부를 먼저 깔고 다시 철모를 종방향으로 놓고 주검 받침을 만든 후 시신을 안치하였다. 부곽에는 경갑, 판갑, 요갑 등이 출토되었다.

1호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토기가 와질토기에서 회청색경질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점과 함안지역산 토기로 볼 때 3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이 고분군에서는 기벽이 얇고 승석문을 가진 함안지역산 단경호가 1호 목곽묘에서 3점, 16호 목곽묘 1점, 33호 목곽묘에서 1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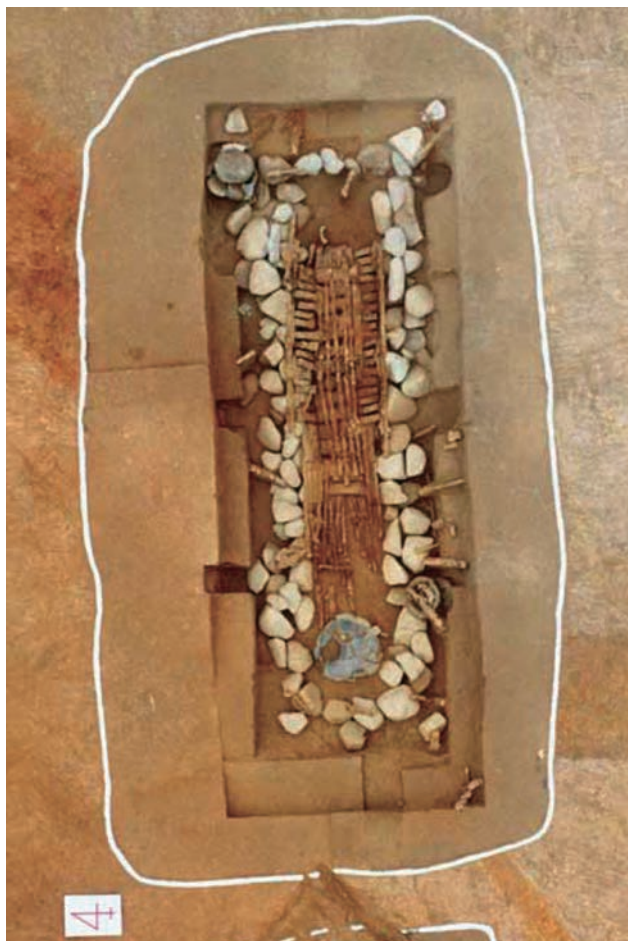
이 고분군의 함안지역산 단경호는 울산 중산리고분군에서도 출토되는 점으로 볼 때 울산지역을 경유하여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고분군에서는 수장묘인 1호 목곽묘에서 3점이 부장된 것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하진호·우병철, 2011, 『경주 구어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II, 영남문화재연구원.

하진호, 2009, 「구어리고분군」,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 전경

1호 목곽묘 주곽

1호 목곽묘 부곽

출토유물

11 칠곡 심천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517-10일대·
창평리 산10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2000.12.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수혈식석곽 /
단경호, 노형기대,
판상철모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517-10 일대와 창평리 산100-2 일대에 위치한다. 대구에서 왜관으로 가는 4번 국도를 따라 14㎞쯤 가면 지천면 소재지인 신동에 이르게 된다. 유적은 지천면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1㎞ 떨어진 해발 80m 내외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상에 위치하였다. 유적에 접한 서쪽에는 이언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유적의 동쪽에는 소하천이 흘러 유적이 분포하는 구릉의 남단에서 이언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조사 구역은 총 2지구로 창평리 산100-2 일대(Ⅰ지구)와 조사 중 발견된 심천리 517-10 일대(Ⅱ지구)를 추가 발굴하였다.

Ⅰ지구에서는 목관 1기·목곽 178기·수혈식석곽 349기·고상가옥 2기·주거지 2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고분은 목곽단계(Ⅰ단계), 석곽단계(Ⅱ단계), 석실단계(Ⅲ단계)로 구분된다.

목곽은 총 178기가 조사되었는데 석곽 내부의 퇴적토와 주변에서 수습된 유물로 보아 후대의 석곽 축조로 인한 파괴, 자연적인 유실로 인하여 상당수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사면 중하단부 이하를 제외한 조사지 전역에 분포하며 목곽의 규모에 따른 입지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목곽의 장축방향이 모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 점은 후대의 석곽과 동일하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이 있다. 목곽은 묘광의 중앙부에 묘광 굴착시 나온 흙을 그대로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의도적으로 약간의 천석을 충전토와 함께 섞은 예가 있다. 이 밖에 적석목곽으로 볼 수 있는 유구가 구릉 정상부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목곽 중 대표적인 유구는 50호 목곽묘로서 동혈주·부곽식이며 여타 목곽과는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에서 50호 목곽묘와 비견될 수 있는 유구는 경산 임당지구의 조영ⅠA-19호 목곽묘, 대구 달성군 문양리 7호 목곽묘, 대구 비산동3호 목곽묘 등이 있다. 이 고분에서는 부장된 토기 모두가 승석문단경호·기하학문양 개·노형기대와 같은 함안산 토기이다. 이와 함께 신라형 판상철모가 다수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출토된 함안산 토기로 볼 때 4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목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8기이며, 동혈 주·부곽식이 1기, 격벽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이 6기, 적석목곽 1기가 있다. 유구의 선후관계는 분명치 않으나 부장칸을 따로 마련한 것이 늦은 시기에 축조되고 이들은 모두 대형급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50호 목곽묘는 소위 경주형목곽묘로서 부장된 철모도 신라형이나, 한편 부장된 토기는 함안지역산인 점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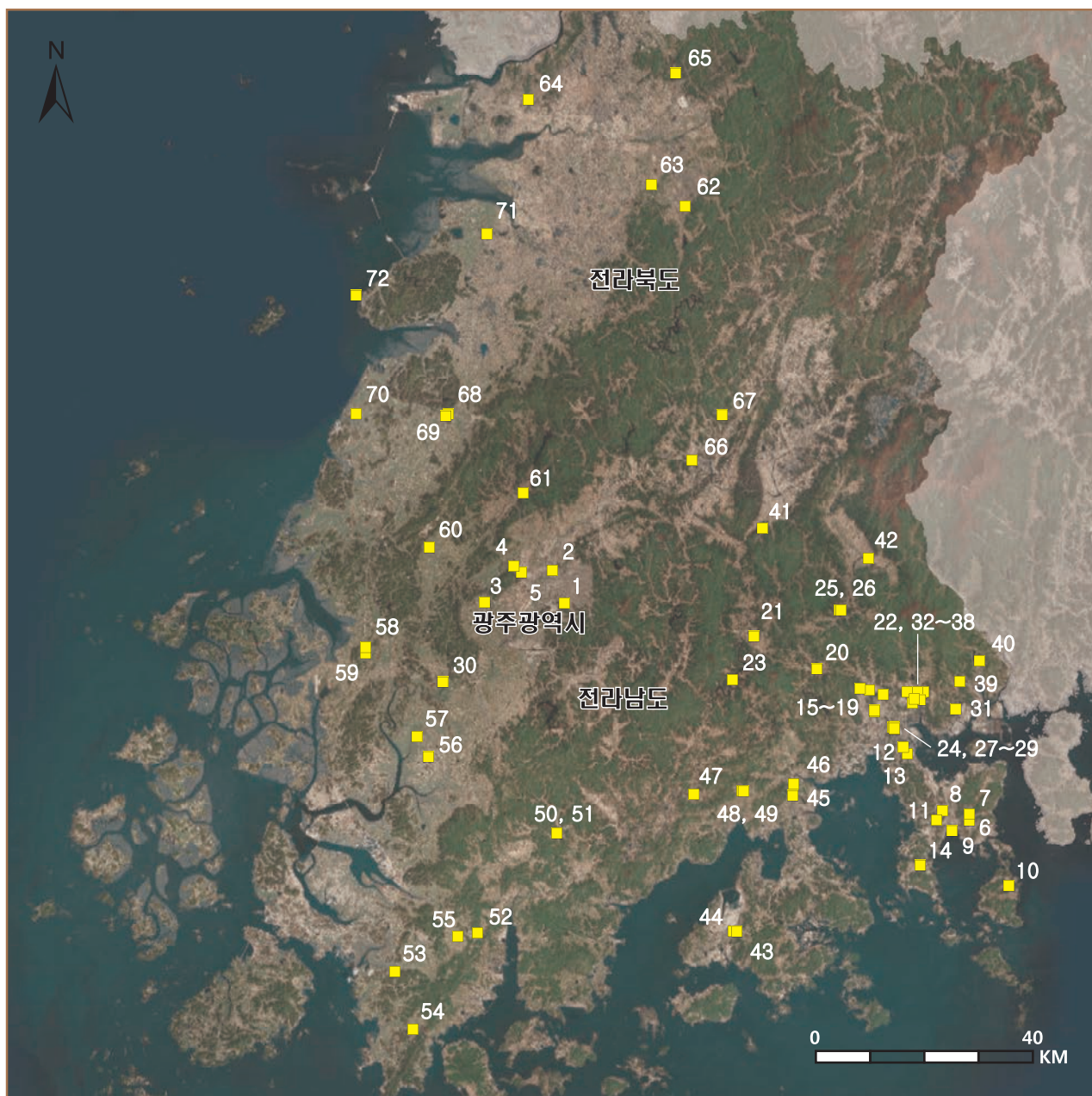
박천수, 2009, 「심천리고분군」,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50호 목곽묘

50호 목곽묘 출토유물

Ⅱ. 호남

N
65
64
63
62
71
72
전라북도
70
68
69
67
66
61
41
60
4
2
42
3
5
1
25, 26
광주광역시
21
58
22, 32~38
40
59
30
20
23
39
전라남도
15~19
31
57
24, 27~29
56
12
13
46
47
45
8
7
48, 49
11
50, 51
6
14
9
10
55
52
44
53
43
54
0
40
KM

01

광주 풍암동유적

소재지
광구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4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6.6.~1996.8.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기대, 파배

조사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일대는 비교적 높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는 곳으로 100m 이하의 구릉과 50m 이하의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대이다. 유적은 풍암마을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200m 쯤 가다 보면 남쪽으로 가는 농로가 있으며, 이 농로를 따라가면 큰재골이 나오는데 유적은 이 일대에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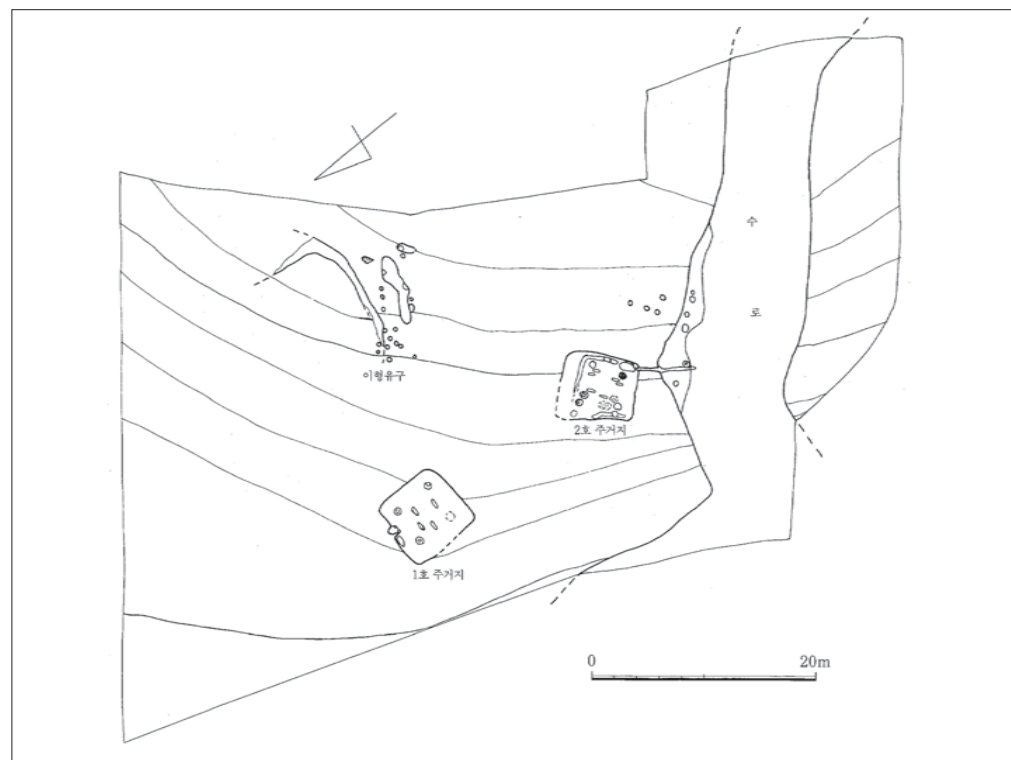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2기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15m 간격을 두면서 위치하며, 모두 방형계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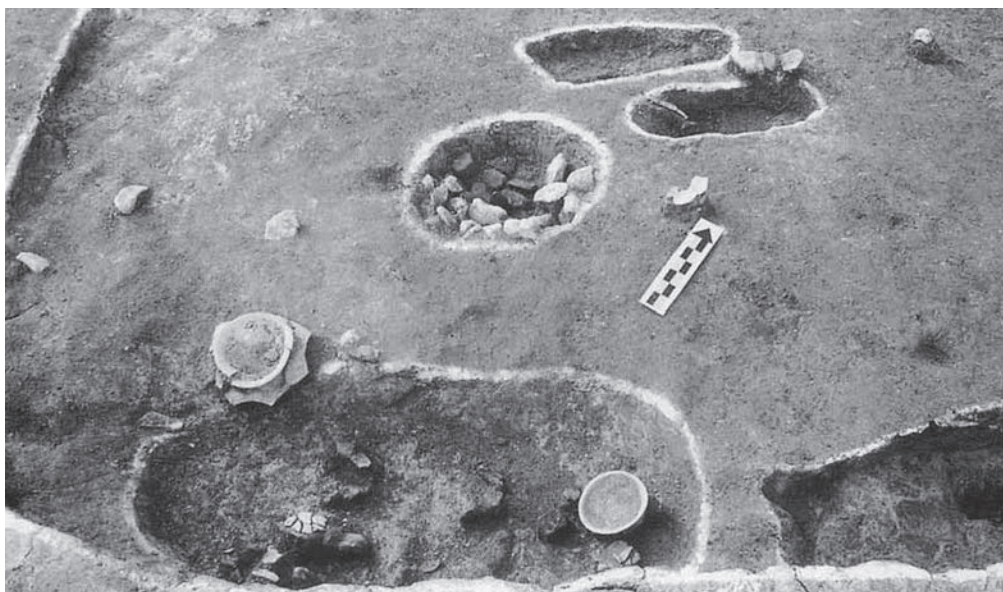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2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기대와 파배로 결실된 상태로 편만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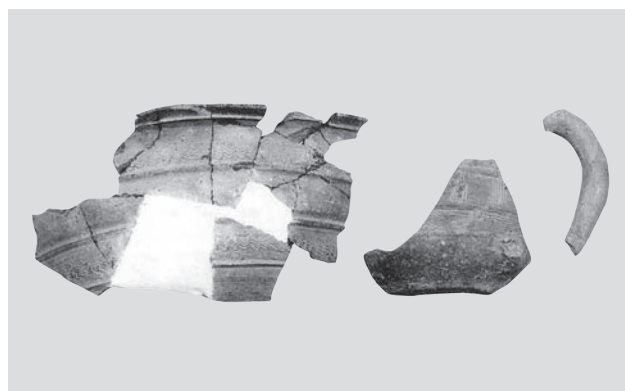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으로 4개의 주공이 내부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4주식이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5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대학교박물관, 1999,
『광주 풍암동·금호동유적』.

유구 배치도

2호 주거지

주거지 세부

2호 주거지 남쪽 주공

2호 주거지 출토유물

02 광주 동림동유적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1차 2003.7.~2004.8.
2차 2004.8~2005.4.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구상유구 /
개, 고배, 파배, 수평구
연호

조사지역은 광주 북구 동림동 일대로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광주천과 나지막한 구릉 사이에 형성된 충적 평야지대에 입지한다. 유적의 발굴조사 범위는 3만평 정도로 유적의 규모면에서 호남지역 최대 유적이다. 전남 서부지역은 평지가 발달한 지역으로 주거지는 강 주변이나 강과 지류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산이나 강의 흐름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86동, 구상유구 237기, 목조구조물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방형계로 구분되며 4주식은 중형 이상의 주거지에서 분포하고 있다.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1·33·39호 주거지, 9·10·18·19·25·52·55·60·70·100~102호 구상유구 등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수평구연호, 개, 단경호, 파배 등이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계만 확인되며, 주거지간 중복관계가 심하지 않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5~6세기 전반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Ⅰ.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Ⅱ.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Ⅲ.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Ⅳ.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Ⅴ.

Ⅲ지구 유구배치도

출토유물

03 광주 명화동고분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화동 170-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광주박물관 /
1차 1993.5.
2차 1994.3.~1994.5.

주요 유구 /유물
석실묘 / 개

조사지역은 명화동고분은 행정구역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화동 170-5 일대에 해당한다. 고분은 평동저수지 상류에 있는 화동마을 뒤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주변의 지형은 낮은 구릉이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여 평동저수지쪽으로 이어지며 저수지 남쪽의 들은 황룡강변의 넓은 평야와 연결된다. 명화동마을은 희지치에서 뻗어 나온 구릉의 남서사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분은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해발고도 40m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좋은 편이다. 구릉상이라고 하는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구 둘레에서 'U'자형의 주구가 조사됨으로써 장고형의 분구형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분구는 완전한 성토분으로서 원형부와 방형부가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분구의 가장자리쪽에 먼저 흙을 쌓고 그 내부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장시설은 만들어진 석실이 유일한 것이었다.

유적 전경

석실

개

발굴조사 결과 전방후원분이 확인되었다. 방형부는 폭이 24m로서 원형부 직경 18m에 높이 2.73m이며 분구의 전장은 33m이다. 매장주체부는 원형부의 중앙으로부터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확인된다. 다만 도굴에 의한 훼손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횡혈식석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 토기는 석실에서 개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중심연대는 기원후 5세기 후반까지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립광주박물관, 1996, 『광주 명화동고분』.

04

광주 점등유적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 장수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12.3.~2012.4.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양이부호

조사지역은 해발 65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남쪽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 용이하며,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영산강 본류(극락강)와 그 지류인 황룡강이 흐르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적에 대한 조사 결과 석실분 1기, 구 3기, 수혈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류가 주를 이루는데 단경호, 양이부호, 병형토기 등 마한·백제계 토기와 함께 유개장경호 등 대가야계 토기가 공반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석실묘는 해발 43m정도의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규모는 길이 466㎝, 너비 276㎝ 정도이며, 묘실 규모는 길이 364㎝, 너비 144㎝, 깊이 70㎝ 정도이다. 가야토기는 석실묘에서 장경호와 대부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출토유물 위치

1호 석실 유물 출토모습

출토유물

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묘는 구조와 출토유물의 조합상에서 매우 이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유물은 대가야계 토기와 마한·백제계 토기가 공반하고 있는데,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가야계 토기가 출토된 예가 없지는 않으나 영산강 상류지역의 석실묘에서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완형으로 출토된 것은 매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광주 점등유적은 마한·백제계 요소에 대가야계 요소가 포함된 분묘유적이다.

유적에서 확인된 자료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영산강유역의 토착세력과 백제와의 관계, 그리고 대가야계 세력과의 교류 혹은 유대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6세기 초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광주 가야·점등유적』.

05

광주 하남동유적 _ 광주 하남1지구 택지개발지역 내 유적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6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05.3.~2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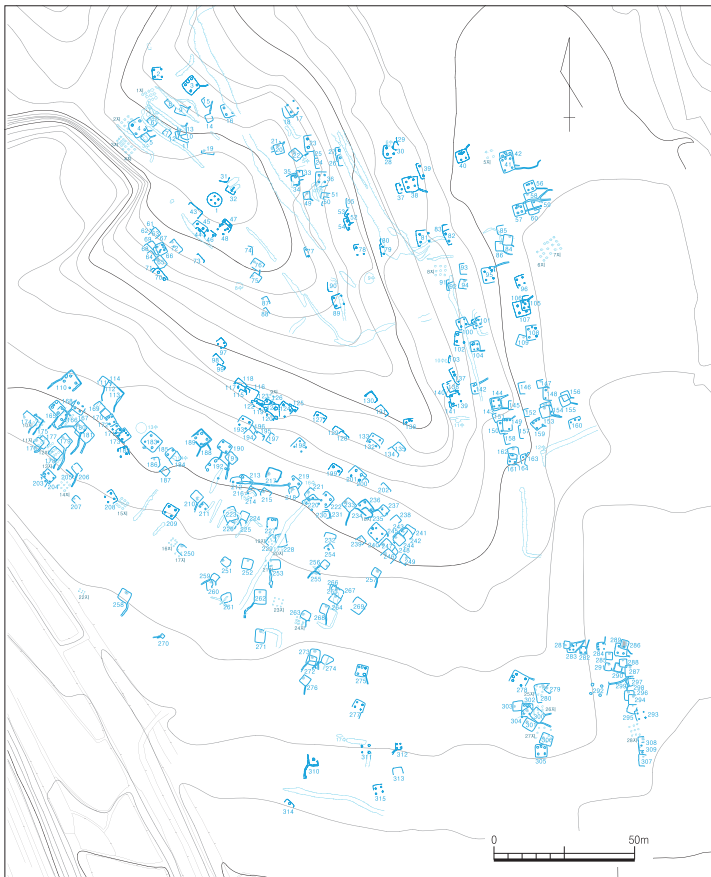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구 / 고배 편

조사지역은 어등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풍영정천에 합수하는 장수천 경계지역이다. 유적은 남-북 방향으로 3개의 구릉이 진행하는데 서쪽에 위치한 구릉을 중심으로 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대규모의 거점취락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347기, 구상유구 61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72호 주거지와 4호 구상유구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토기는 광구소호, 파배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밀집을 이루며 확인되었고,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사면부에 접하는 지점은 삭평되어 유실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3~6세기대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하남동유적』Ⅰ·Ⅲ.

1지구 유구 배치도

72호 주거지 출토유물

269호 주거지 출토유물

06

여수 고락산성

|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204호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산35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1차 1999.9.~1999.10.
2차 2001.7.~2001.11.
3차 2003.4.~2003.7.

주요 유구 / 유물
집수정, 주거지,
건물지 / 양이부호,
개, 기대, 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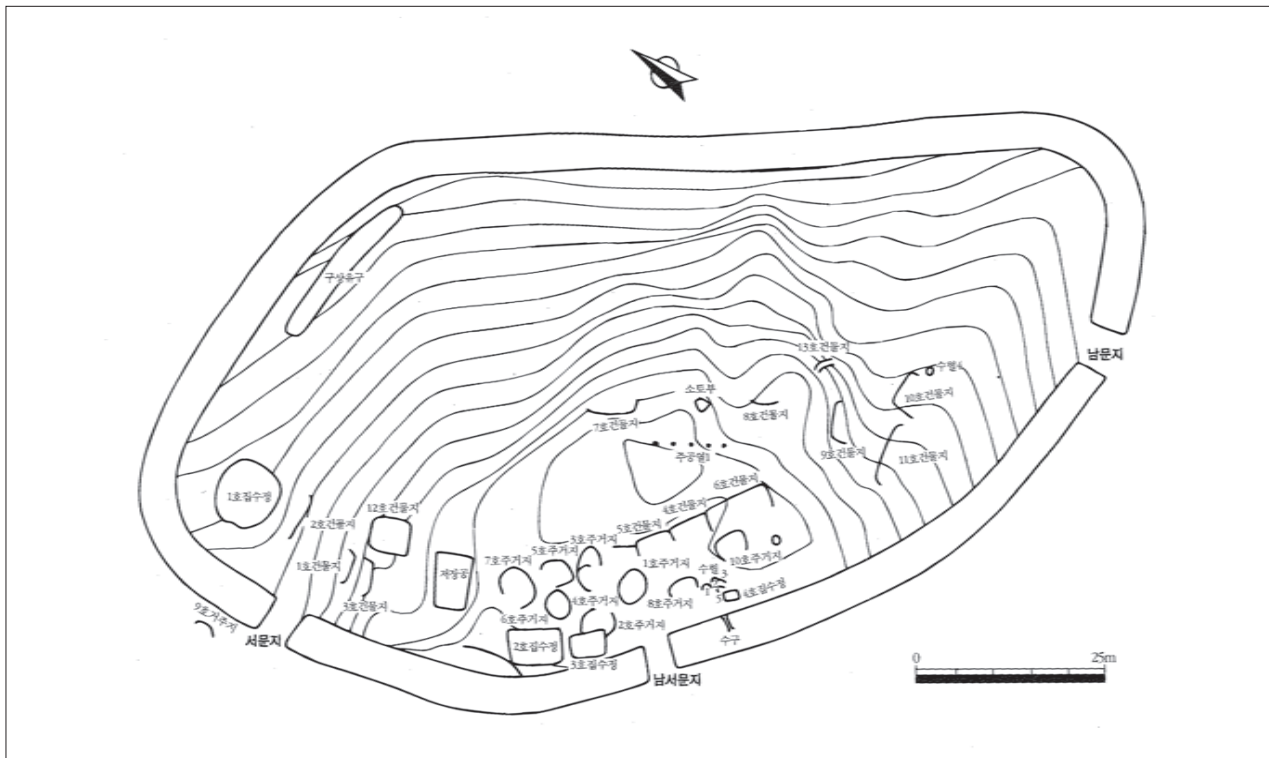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에 위치한 고락산의 동쪽에 해발 200.9m 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이곳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해안지역과 내륙으로 연결되는 육로를 요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전남동부지역 백제산성 가운데 비교적 소형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산성의 둘레는 345m, 문지 5개소, 건물지 14동, 주거지 10동, 집수정 5개소, 구상유구 1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집수정 1기, 건물지 2기, 3호 주거지, 구상유구 1기 등에서 가야 토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기대, 개, 고배, 파배, 양이부호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중첩양상으로 확인되며, 민묘 조성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가야토기는 건물지, 집수정, 구상유구에서 출토되며,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여수 고락산성』Ⅰ.

순천대학교박물관, 2004, 『여수 고락산성』Ⅱ.

본성 내 유구배치도

집수정1

건물지2

집수정1 출토유물

건물지2 출토유물

07

여수 미평동 양지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양지 772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3.12.~1994.2.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기대 편

유적이 위치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양지마을 일대로 여수시 중심가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성산, 호랑산, 고락산, 호암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성 평지를 이루고 있다. 유적은 천성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사면부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실묘 2기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호 석실묘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기대 편 일부만 출토되었다.

미평동유적은 그간 여수지역에서 출토례가 적었던 삼국시대의 무덤유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덤유구에서 마한계, 백제계, 가야계 유물들이 혼재되어 출토된 점은 당시의 여수지역 내에서 시기에 따른 문화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유적의 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대학교박물관, 1998,
『여수 미평동 양지유적』.

유적 전경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출토유물

08 여수 화장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대통마을 1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0.2.~2000.6.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양이부호, 고배, 양이부호, 광구소호

조사지역 여수시 화장동의 대통마을의 입구에 해당하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북서쪽으로 백제시대에 축조된 선원동토성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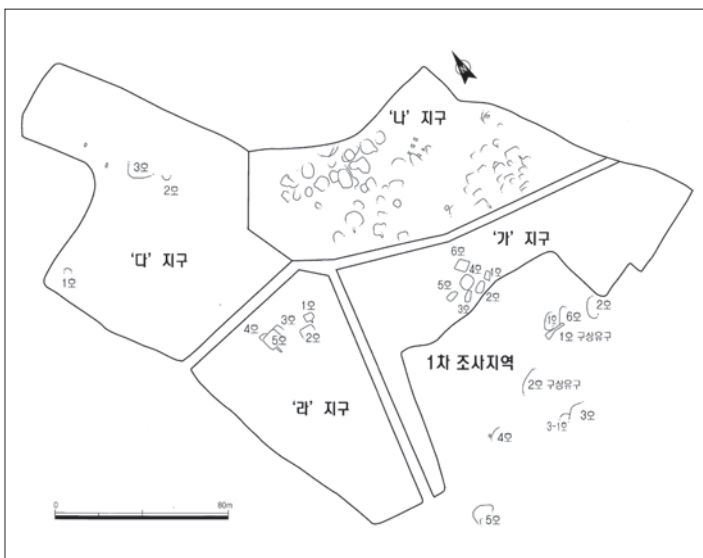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53동, 구상 2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며, 원형계 27기로 주거지가 우세하다. 가야 토기는 가-2·나-1·나1-1·나-3·나-6·나-15호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양이부호, 개, 파배, 고배, 광구소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27기)와 방형계(25기), 부정형(1기) 모두가 확인된다. 주거지는 중첩양상은 심하지 않고 대부분 단독으로 확인된다. 방형계의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에 비해 후행하며, 4주식 주거지도 일부 확인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유적은 기원후 2세기부터 가야 토기가 등장하는 5세기까지 오랜기간 지속된 것으로 남해안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5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여수 화장동유적』Ⅱ.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09

여수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2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2017.1.~ 2017.3.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조사지역은 여수시의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웅천동과 접해있다. 이곳은 남해안에서 내륙의 기항지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유적이 들어서기 매우 좋은 입지이다. 조사지역은 단지형을 이루며, 해발 24m 구릉의 사면부에 입지하며 인근의 차동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29동, 수혈 32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 4동과 방형계 19동으로 구분되며, 방형계의 주거지가 우세하다. 가야 토기는 22호 주거지에서 아라가야 고배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 모두가 확인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4~5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7, 「여수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22호 주거지 출토유물

10 여수 둔전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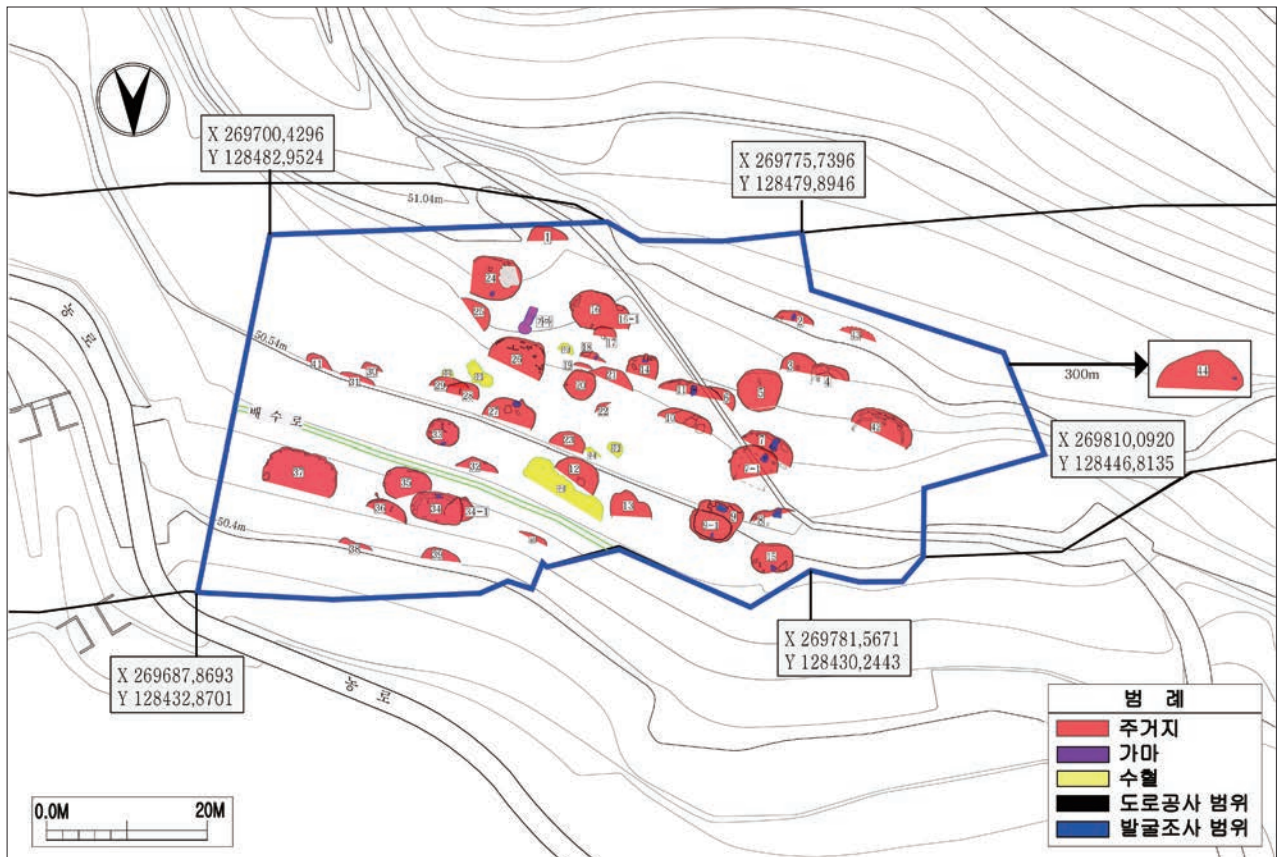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1080-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문화재연구원 /
2011.6.~2011.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개,
고배, 파배, 양이부호,
기대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일대로 유일하게 넓은 들판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본산과 수죽산이 남쪽에 봉수산이, 서쪽에는 대미산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둔전들 남쪽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넓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배산임수의 취락이 형성하기에 최적지에 입지한다. 이러한 지형은 고대에 농업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였을 것이고 외부로부터 취락을 보호함과 동시에 하천을 따라 바다로의 원거리 해양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외래계 토기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48동, 수혈 8기, 토기가마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며, 원형계의 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우세하다.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3·7·8·10~14·21·24·25·34·37·42호 주거지, 1호 수혈 등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고배, 파배, 장경호, 개, 양이부호,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 배치도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가 다수를 차지하며, 부정형의 수혈에서 다수의 가야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둔전유적은 여수 돌산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삼국시대 취락으로 주거지, 수혈, 토기가마가 한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최남단에서 확인된 거점취락으로 다양한 외부세력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취락은 대외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4세기 중반 이후에 함안지역 아라가야와 교류를 시작하고 5세기 중반을 전후해 소가야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4세기 2/4~5세기 3/4 이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문화재연구원, 2013, 『여수 봉수·둔전유적』.

출토유물

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31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8.1.~2008.7.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토광묘, 석곽묘 / 개, 고배, 파배, 대부호, 기대, 대부완, 장경소호

조사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차동마을 일대로 이번 조사지역은 3개의 지구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1·2지구는 여천 화산마을에서 죽림리 차동마을로 넘어가는 도로를 경계로 1지구는 동쪽 해발 121.3m의 구릉 북서사면부에 위치하며, 2지구는 도로의 서쪽 해발 120m의 구릉 남동사면부에 위치한다. 3지구의 경우 죽림저수지 북동쪽 해발 137m의 구릉 남동사면부에 위치하며,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3지구 바로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유적의 북서쪽에는 해발 310.7m의 비봉산, 남쪽에는 해발 347.4m의 안심산이 위치하며, 유적 주변으로는 이들 산줄기에서 뻗어 내린 낮은 구릉들이 형성되어 있다. 남동쪽으로는 남해안이 인접해 있다. 유적과 바로 인접하여서는 여수 화장동유적, 화산유적 등에서 지석묘, 청동기~삼국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된 바 있고, 주변으로는 다수의 유물산포지와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어 유적 일대가 무덤과 취락의 입지로 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 결과 1·2지구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60동, 수혈 2기, 토광묘 8기, 석곽묘 36기 등이 3지구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20동,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생활유적의 경우 1·2지구는 1동의 방형계 주거지를 제외하고 원형계가 우위를 점하며 3지구는 방형계가 우위를 점하며 시기적으로 더 하한에 해당한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을 따라 평행한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직교하는 것도 확인된다. 주거지간 중복은 심하지 않은 편이며, 일부는 후대 석곽묘가 들어서면서 일부 파괴되었다.

무덤유적의 경우 토광묘에서 석곽묘에 이르기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2지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가야계 석곽묘(13기)와 백제계 석곽묘(23기)는 입지상에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지역을 선택하여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야계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백제계 석곽묘는 직교하는 양상으로 축조되었다.

가야 토기는 3지구 주거지와 2지구 무덤유적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3지구 2~5·7·9·9-1·10·12·14·15호 주거지 등에서 무덤유적의 경우 1지구 26·27·28·29호 석곽묘, 2지구 1·1-1·2·3·5~6호 토광묘, 7·10·13~16호 석곽묘, 지표조사 등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직구호, 대부완, 고배, 파배, 장경호, 개, 기대, 단경호 등이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다수를 차지하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유적은 여수지역 확인된 유적 가운데 대규모의 취락으로 삼국시대 생활유적과 무덤 유적이 한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거점취락으로 주목된다. 1·2지구에서 3지구로의 변화상이 파악된다.

특히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의 가야계 무덤에서는 가야 토기가 중점적으로 출토되며, 15호 주거지에서 가야계 토기만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다수 완형으로 제작기법과 소성도 등으로 보아 현지 제작품으로 파악된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4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Ⅰ』.

마한문화연구원, 20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Ⅱ』.

유적 전경

출토유물

12

여수 월산리 대초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43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 2008.12.

주요 유구 / 유물
구, 토광묘 / 양이부호, 단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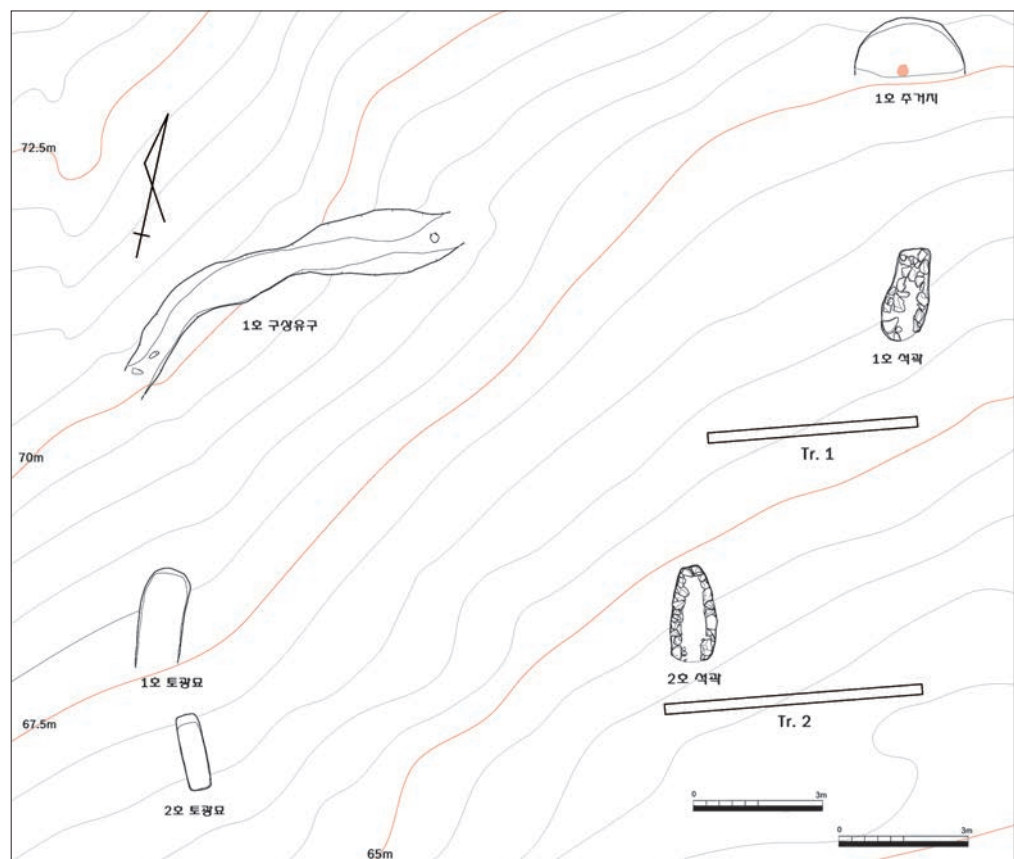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여수 율촌면 월산리로 여수와 순천의 경계지점으로 남해안의 광양만과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유적은 야산의 남쪽사면부로 비교적 경사가 심하며, 해발 75m~65m에 걸쳐 소규모로 형성된 평탄면 위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광묘 1기와 구상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가야 토기는 양이부호와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단독으로 확인되며, 급경사를 이루며 사면침식으로 인해 자연유실 등으로 일부 유실되었다. 가야 토기는 구상유구와 토광묘에서 출토되며, 완전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인 요건과 유적의 형태와 구조·유물 등에서 경남 서부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 지역의 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유적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0, 『여수 월산리 대초유적』.

유구 배치도

1지점 전경

출토유물

13

여수 월산리 호산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호산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재연구원 / 2010.5.~2010.10.

주요 유구 / 유물
논 / 대각 편, 시루 편

참고문헌

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여수 월산리 호산유적』.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호산마을의 일대로 이 지역은 여수반도에서 순천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해당하며, 동쪽으로는 바다와 인접하여, 해상교통로 상의 요충지이다. 또한 배후에는 비교적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활하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특히 월산천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45기, 수혈 28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0·14·25·31·33·40호 주거지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대부호와 단경호와 양이부호로 31호 주거지 출토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었다.

유구는 단독으로 확인되며,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사면부에 접하는 지점은 삭평되어 유실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가야 토기는 원형계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완전한 형태가 드물다. 함안계 가야 토기가 주를 이룬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전엽에 해당된다.

유적 원경

범	례
주	주거지
수	수혈
구	구
토	토광묘
삼	삼가마
건	건물지
석실	석실
석곽	석곽
제철	제철유구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14

여수 화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43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8.12.~2008.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양이부호, 단경호, 파배

조사지역은 안양산(해발 324m)의 남서쪽 기슭 쪽에 발달한 해발 105m 높이의 낮은 야산의 북서쪽사면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해발 40~55m의 구릉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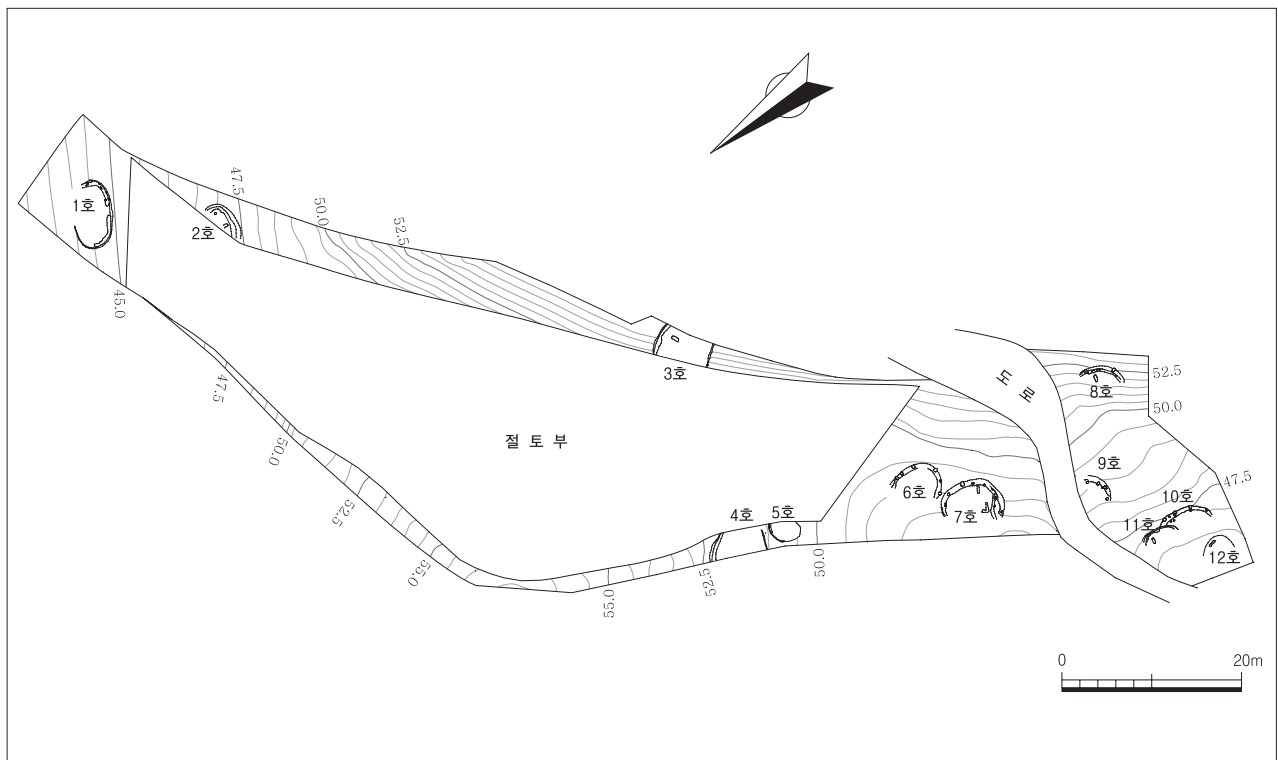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2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4·6호 주거지에서 가야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양이부호와 승석문단경호, 파배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단독으로 확인되며, 급경사를 이루며 사면침식으로 인해 자연유실 등으로 일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계이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지정학적인 요건과 유적의 형태와 구조·유물 등에서 경남 서부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 지역의 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09, 『여수 화동유적』.

유구 배치도

6호 주거지

출토유물

15 순천 가곡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고지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6.8.~2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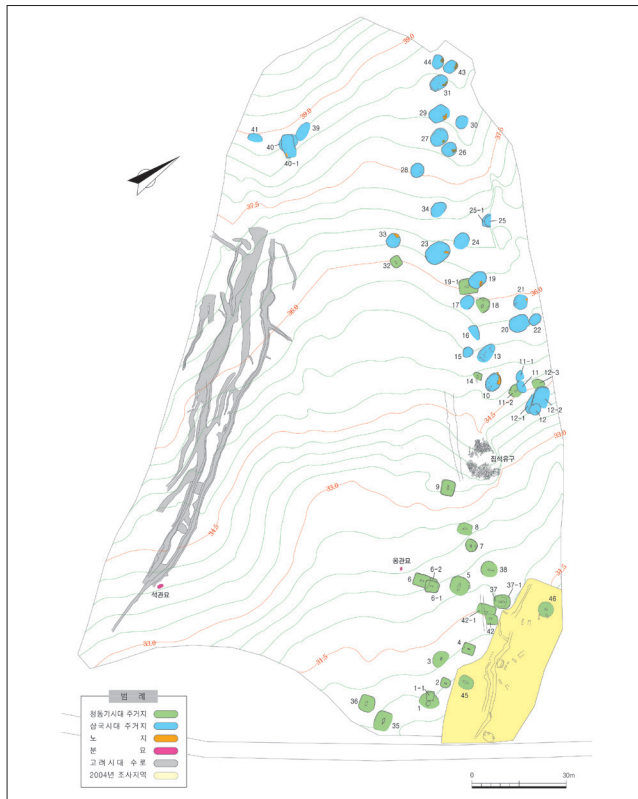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단경호, 고배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고지마을 일대로 해발 422m 높이의 비봉산에서 동쪽과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두 산줄기 사이에 형성된 선상지에 해당한다. 유적의 남동쪽으로는 동천이 곡류하고 있다. 하천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열을 지어 취락이 형성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동부에 밀집하여 분포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앙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32기, 석곽묘 2기 등이 조사되었고, 가야토기는 23·34호 주거지에서 승석문단경호, 고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 모두가 확인되며, 원형계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5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09, 『순천 가곡동유적』.

유구 배치도

34호 주거지

출토유물

16

순천 용당동 망북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망북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1998.5.~1998.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파배, 개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순천 용당동 망북유적』.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망북마을에 해당하며, 봉화산과 삼산 사이에 형성된 곡간부에 입지한다. 해발 47m에서 65m에 걸친 사면부에서 확인된다. 이 일대는 순천시 중심부를 흐르는 동천과 가깝고 곡간평지이기에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 입지하기 좋은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8기, 석곽묘 4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수혈식으로 할석보다는 천석을 주로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가야토기는 1호 석곽묘와 주구에서 파배, 개,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1호 석곽묘 주구의 경우 가야 토기가 공반되며, 축조방식과 바닥시설, 출토유물 등에서 백제적 요소가 나타지만 주구에 훼기를 통한 제사의례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더불어 이 지역으로 백제의 진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17

순천 왕지동고분군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9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7.1.~2007.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장경호, 고배, 통형기대, 대부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왕지마을 북동쪽에 형성된 낮은 야산의 사면으로 순천시와 광양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유적의 앞으로는 봉화산 사이에 형성된 곡간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석곽묘는 사면부에 열을 이루며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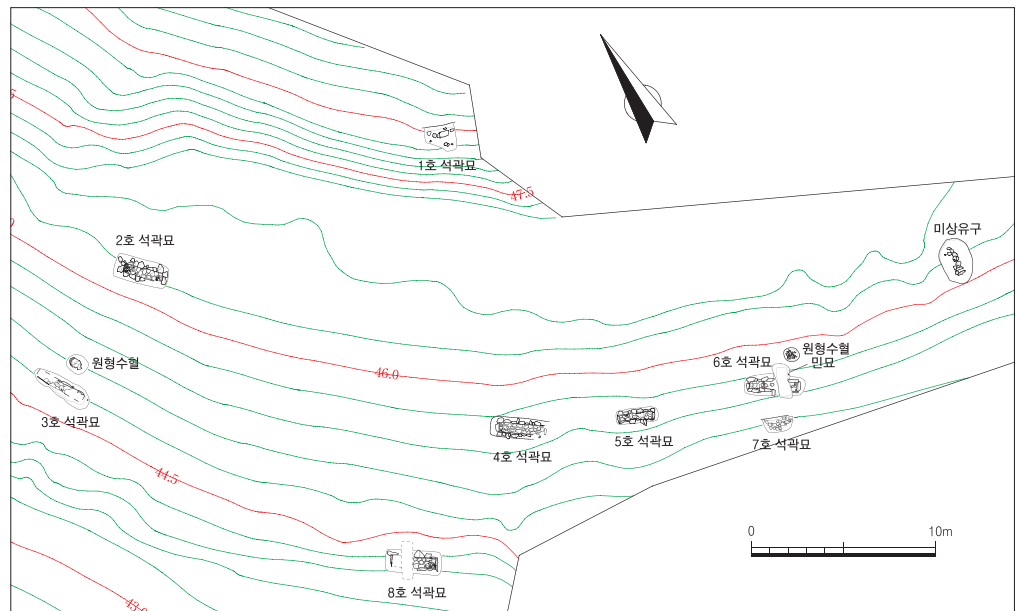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석곽묘 8기 등이 조사되었고, 가야 토기는 1~3·5·6·8호 석곽묘에서 통형기대, 파수부완, 장경호, 대부호, 고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장축방향이 모두 등고방향과 평행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띤다. 인근에서 확인되는 무덤유적인 순천 운평리, 죽내리, 덕암동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축조방식과 바닥시설 등의 세부적인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적은 출토된 토기의 양상을 통해 소가야 토기 전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백제가 영역화를 이룬 6세기 중엽경에도 대가야 토기와 백제 토기가 결합된 형태가 확인된다. 지정학적으로 점이지대를 형성하여 대가야와 백제지역과의 교류가 산정된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현지제작품으로 기벽이 두껍거나 백제양식이 가미된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6세기 2/4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09, 『순천 왕지동고분군』.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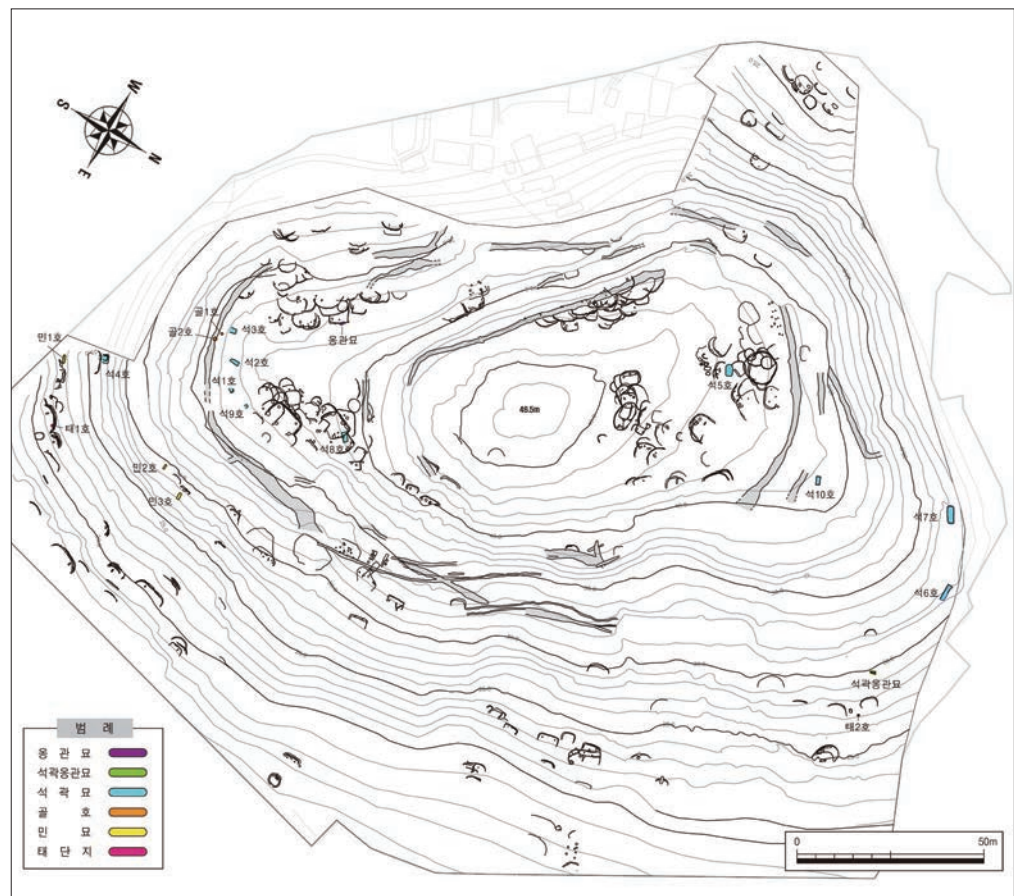
순천 덕암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21-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5.10.~2006.9.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주거지 / 고배, 파배, 장경호, 양이부호, 기대

조사지역은 순천시 덕암동 구암마을 일원으로 북쪽에 자리한 해발 355m 봉화산 남사면 말단부에 위치한 해발 46.5m의 독립된 구릉에 위치하며 주변은 낮은 구릉과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동천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입지는 오랜기간에 걸쳐 취락지가 형성되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주거지는 정상부를 제외한 완만한 지형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고, 군집으로 분포하는데 비교적 평탄한 북·남·남서쪽 정상부는 중복양상이 심하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238동, 석곽묘 11기,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모두 확인되며, 원형계의 주거지가 우세하다.

유구 배치도

가야 토기는 66·69·77·78·85·86·92·129·170·206·210·229호 주거지, 6호 석곽묘와 수혈 등에서 장경호, 고배, 양이부호, 개, 파배, 기대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153기)와 방형계(64기) 모두가 확인되며, 원형계 주거지가 우세하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에 비해 후행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덕암동유적은 주거지, 환호, 토기가마, 분묘 등 청동기시대에서 근대에 걸쳐 다양한 유구가 종합적으로 확인된 복합유적이다. 이는 순천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 구릉이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고대 취락구조 및 남해안지역의 고대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을 통해 볼 때 4세기 말에서 5세기 후엽 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08, 『순천 덕암동유적-분묘-』Ⅰ.

마한문화연구원, 2010, 『순천 덕암동유적-주거지-』Ⅱ.

마한문화연구원, 2010, 『순천 덕암동유적-환호·수혈-』Ⅲ.

6호 석곽묘 출토유물

19

순천 덕암동 구암 75-3번지 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구암 75-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나라문화연구원 / 2017.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개, 기대

조사지역은 순천시 덕암동 구암마을 일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암유물산포지'의 남쪽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해발 46.5m의 독립구릉의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 낮은 구릉과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동천과 남쪽에 순천만이 위치해 취락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5동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모두 확인되며, 원형계의 주거지가 우세하다.

가야 토기는 방형계 2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기대, 개 등이 출토되었다. 소성상태가 양호한 기대편은 가야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는 중첩양상이 확인되며,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삭평되거나 바닥만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사주식) 모두가 확인되며,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에 비해 후행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유적은 인근의 덕암동유적과 함께 이 지역의 문화양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5세기 말~6세기 전반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나라문화연구원, 2017, 『순천 덕암동 구암 75-3유적』.

유적 전경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20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재연구원 / 2013.9.~2014.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대부장경호, 고배

순천 쌍암유적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일대로 지리적으로 쌍암천과 월내천의 합수지점에 위치하며 낮은 산지를 감싸 돌아가는 포인트바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충적지로 전체적으로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구릉 하단부 좁은 충적지임에도 유구의 밀집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유적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도 신석기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영위했던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해당되는 석곽묘 8기 등이 조사되었고, 가야 토기는 1호 석곽묘와 7·8호 석곽묘 주구에서 대부장경호, 고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가 확인되는 순천지역은 삼국시대의 점이지대로 분묘의 구조로 볼 때 7·8호는 가야계 수혈식석곽묘의 흔적이 엿보이고 부장품은 백제 토기 일색이 확인된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재지 모방품으로 기벽이 두껍거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6세기 2/4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대한문화재연구원, 2016, 『順天 雙岩·鳳谷遺蹟』.

유적 전경

출토유물

21

순천 요곡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2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5.1.~2005.3.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 단경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오원마을 일대에 위치한다. 해발 256.4m 계관산에서 오원마을로 흘러내린 줄기 가운데 오원마을과 창촌마을로 갈라지는 ‘U’자형 산줄기의 만곡된 지점으로 유적의 남쪽으로 주암천이 흐르고 있다. 생활유적이 입지하기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일대에 구산리유적 등 많은 유적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광묘 6기 등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1호 토광묘에서 가야 토기는 승석문단경호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일반적인 규모로 판단된다. 축조재료와 내부시설의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보성강변의 충적지와 주변의 분지성 평지에서 청동기~삼국시대 생활유적 및 무덤유적이 확인되어 보성강유역의 고대문화를 밝히는데 귀중한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목포대학교박물관, 1997, 「순천 요곡리유적」,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내 문화유적발굴조사 보고서II』, 전남대학교박물관.

유적 전경

1호 토광묘 출토유물

22

순천 요곡리 선산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선산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재연구원 / 2011.10.~2011.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파배, 사이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선산마을 일대이다. 대상지역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곡류하는 주암천의 남서쪽 산지성 구릉 북사면 곡간지(쇠골)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내려가는 지형이고, 동-서 방향의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간지로 현재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22동,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확인되며 원형계 주거지가 우세하다. 중복양상이 심한 상태로 확인된다. 가야 토기는 9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컵형토기, 사이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18동)와 방형계(4동) 모두가 확인된다. 주거지간 중복관계가 관찰되며, 방형계의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에 비해 후행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4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순천 요곡리 선산유적』.

유구 배치도

9호 주거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23 주암댐 수몰지역 승주 대곡리 집자리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대곡리 28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광주박물관 / 1989.2.~1989.4.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광구소호, 장경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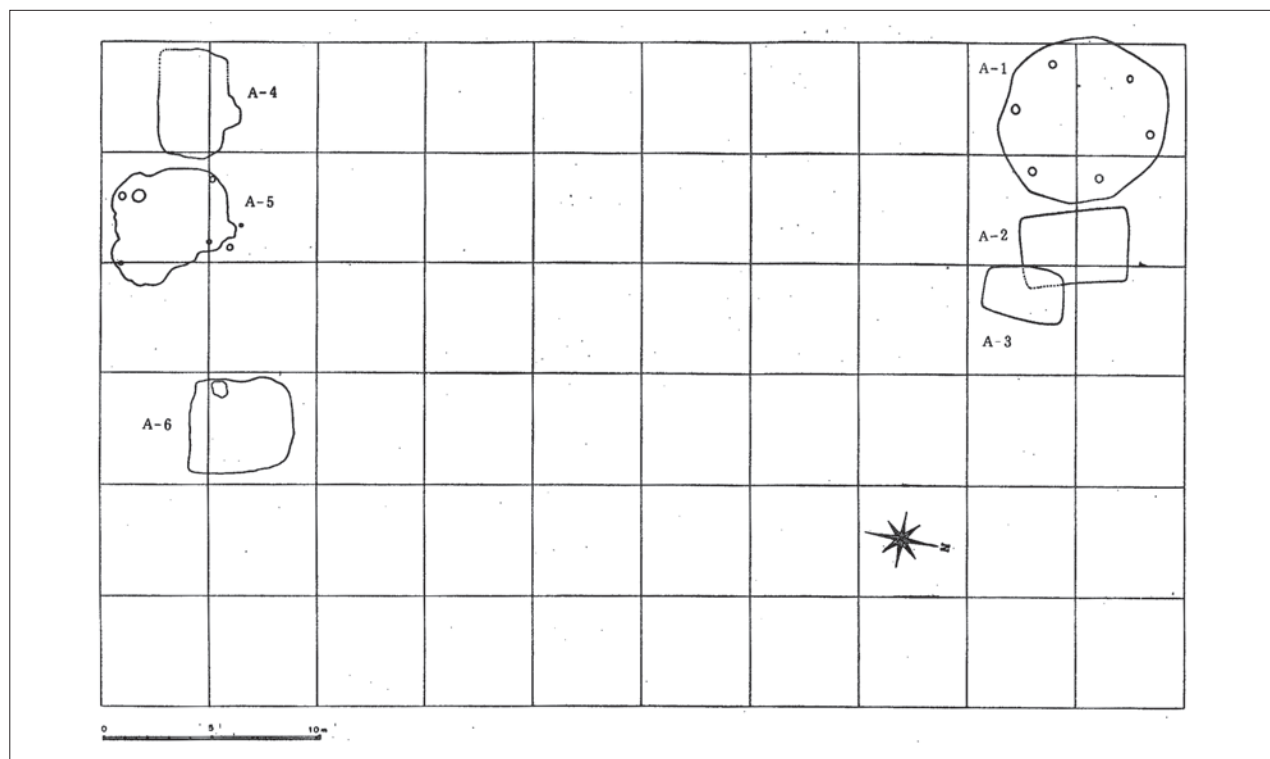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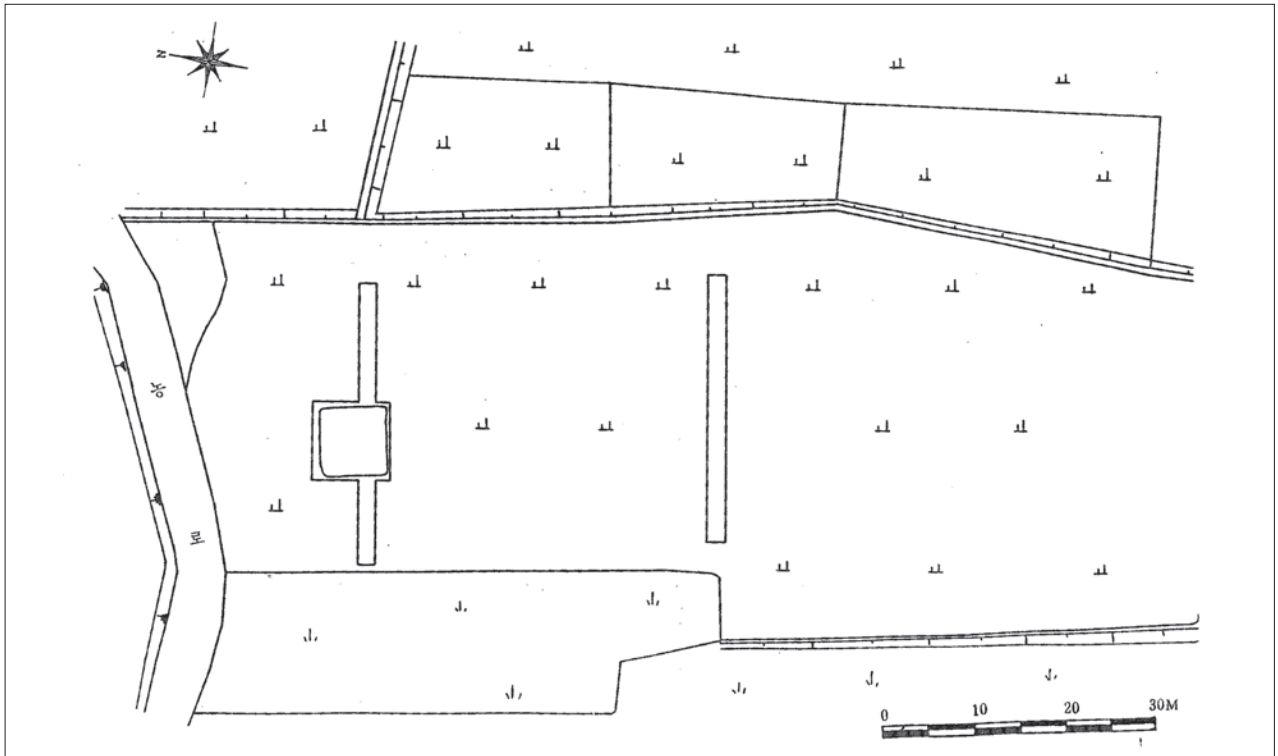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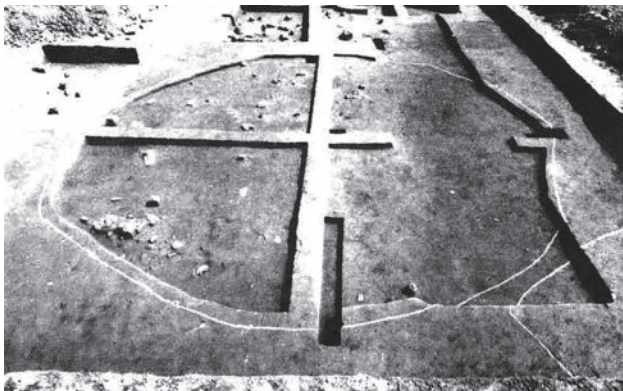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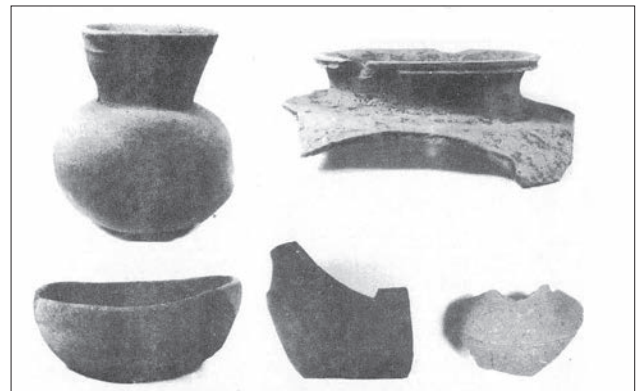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대곡리 일대에 위치한다. 보성강 동안에 조성된 경작지에 넓게 펼쳐있다. 이곳의 지형은 제암산에 발원한 보성강이 동복천과 합수되어 곡천에 이르러 송광천과 다시 합쳐지면서 형성된 세장한 충적대지상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3기 등이 조사되었고, 가야 토기는 주거지(A-1·B-1호)와 지표에서 장경호, 고배, 기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단독으로 동-서 방향에 가깝게 열상으로 분포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다수를 점하며 일반적인 규모로 판단된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재지 모방품으로 기벽이 두껍거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4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립광주박물관, 1990, 『주암댐 수몰지역 승주 대곡리 집자리』.

A지구 유구 배치도

B지구 유구 배치도

A지구 1호 주거지

A지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B지구 1호 주거지

B지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24

순천 검단산성

| 사적 제418호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8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1998.9.~2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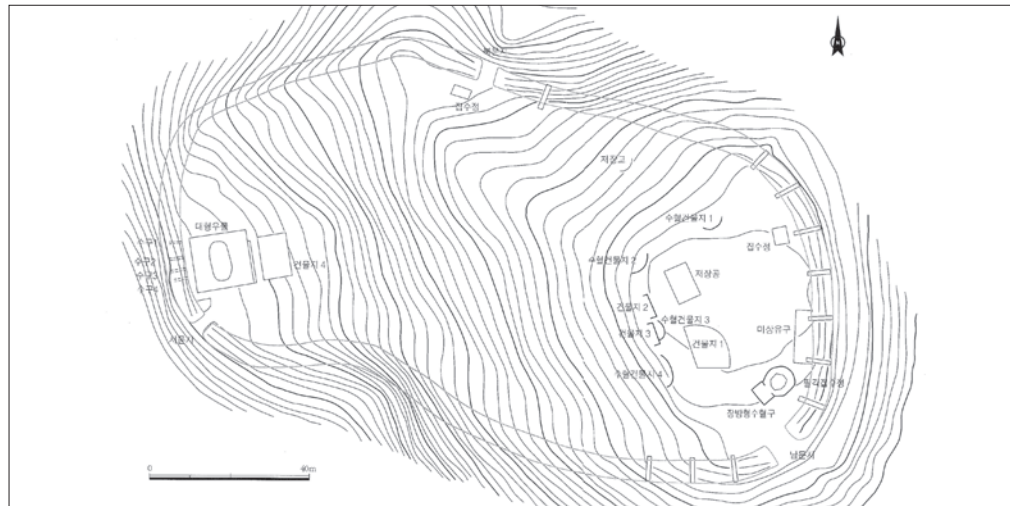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지표, 미상유구 / 장경호, 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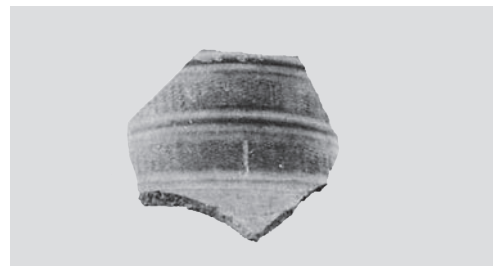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에 위치한 해발 138.4m의 검단산으로 7~9부 능선과 서쪽 산 중복을 포함하여 위치하고 있다. 석축으로 축조한 테뫼식 백제산성이다. 검단산은 광양만과 순천만의 중간 내륙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수반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산성의 규모는 430m이며 협축식으로 축조된 테뫼식 산성이다.

발굴조사 결과 문지 3개소와 건물지 6개동 등이 조사되었고, 가야 토기는 동벽과 미상유구에서 고배와 유개식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섬진강 서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시대의 산성은 대부분 해발 100~250m사이의 낮은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의 규모도 264~550m 정도로 소규모에 속한다. 통일신라시대 산성의 입지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4, 『순천 검단산성』.

유구 배치도

동벽 출토유물

미상유구 출토유물

25

순천 죽내리 성암고분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성암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0.6.~2000.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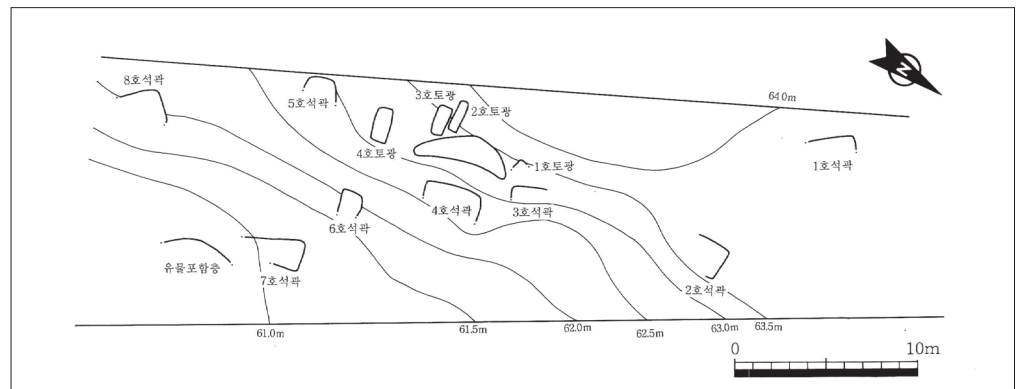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성암마을에 해당하며, 섬진강의 지류인 황전천의 중류역에 위치한다. 유적은 해방 752.5m인 봉두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말단부로서 해발고도 70m 내외에 입지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8기, 토광묘 4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수혈식으로 할석보다는 천석을 주로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가야 토기는 4호 석곽묘에서 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4호 석곽묘의 경우 가야 토기가 공반되며, 축조방식과 바닥시설, 출토유물 등에서 백제적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인근의 죽내리유적과 더불어 백제가 이 지역으로 진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순천 죽내리성암고분」, 『순천대학교박물관지』 제3호.

유구 배치도

4호 석곽묘

4호 석곽묘 출토유물

26 순천 죽내리유적

| 전라남도기념물 제172호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성암 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조선대학교박물관 / 1996.2.~1997.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대부직구호, 광구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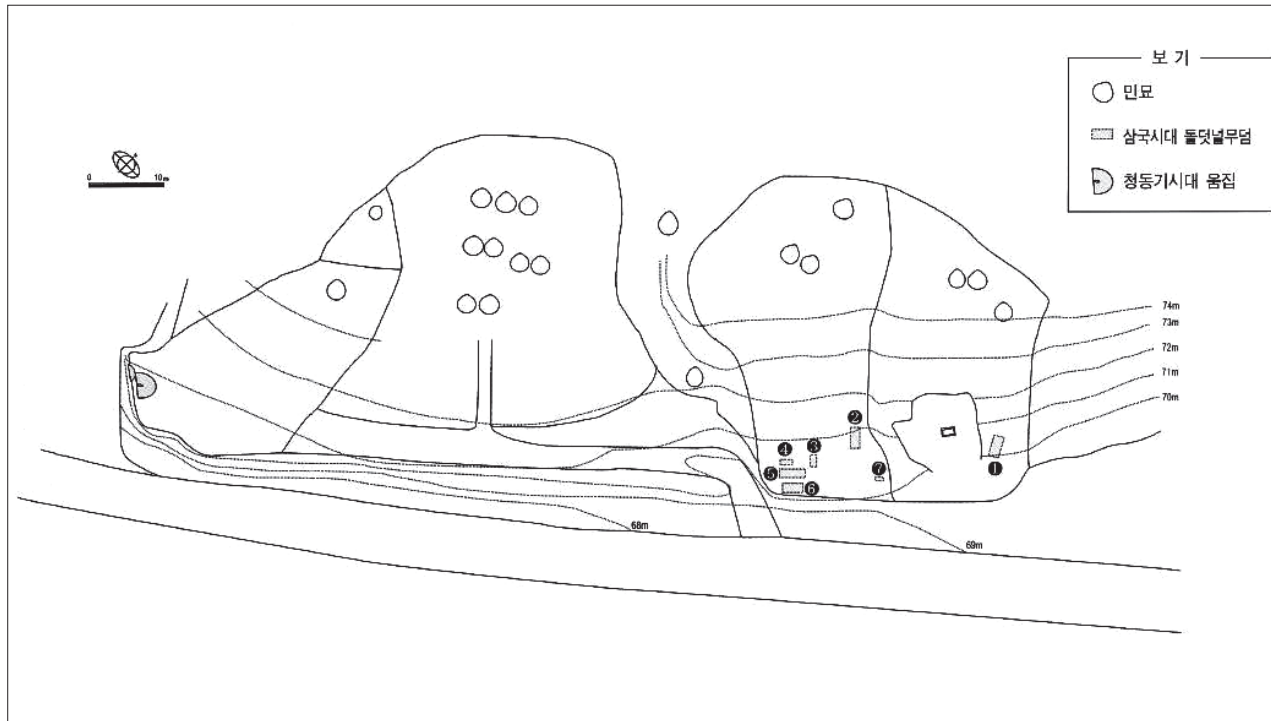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에 해당한다. 순천에서 남원으로 향하는 17번 국도의 확장구간이며, 옛부터 이용되던 중요한 교통로였다. 서쪽에 바로 인접하여 백제시대의 성암산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 순천대에서 발굴조사한 죽내리 성암유적이 인접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7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수혈식으로 할석 보다는 천석을 주로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가야토기는 6호 석곽묘에서 대부직구호, 광구소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6호 석곽묘의 경우 가야 토기가 공반되며, 축조방식과 바닥시설, 출토유물 등에서 백제적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인근의 죽내리 성암유적과 더불어 백제가 이 지역으로 진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순천 죽내리유적』.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석곽묘 전경

6호 석곽묘 출토 토기류

6호 석곽묘 출토 철기류·장신구류

27

순천 성산리 대법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대법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6.3.~2006.7.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양이부호, 기대

조사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대법마을 일대으로 해발 138m의 피봉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 끝에 입지한다. 일반적인 취락의 입지와 달리 북향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해발 14~38m 사이에 분포하는데 크게 3군집을 이룬다. 일부 중복양상이 확인되나 대부분 단독으로 입지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43동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모두 확인되며, 원형계의 주거지가 우세하다. 가야 토기는 3·11·29·33·40·4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장경호, 고배, 양이부호, 기대 등이 편으로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35동)와 방형계(7동) 모두가 확인되며,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에 비해 후행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5세기 전반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07,
『순천 성산리 대법유적』.

유적 전경

29호 주거지 출토유물

28

순천 성산·송산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신대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9.1.~2009.8.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개,
장경호, 광구소호, 파배

조사지역은 피봉산(해발 138m) 북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매우 완만한 경사지에 해당한다. 유적 남동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는 2005년에 대법유적, 남서쪽에 바로 인접한 사면부에는 2011년에 성산유적(Ⅱ)가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에서는 성산유적과 비슷한 양상의 주거지들이 조사되어 동일 취락으로 파악된다. 조사범위 경계에서 유구가 확인되고, 주변 지형이 매우 완만하며, 주변에서 토기 편들이 산재해 있는 점으로 보아 유구의 분포범위는 조사지역 바깥쪽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마을 일대에 삼국시대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어, 대법유적과 성산유적 뿐만 아니라 피봉산 일대의 완만한 구릉지에는 생활 유적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크게 2지구로 구분되며 가야토기는 1지구에서 주로 확인된다. 1지구는 해발 91m 내외의 구릉성 산지 사면부로 하단부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형이며, 유구는 해발 16~22m의 완만한 사면 하단부에 유구가 분포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25기, 수혈 41기, 석곽묘 6기 등이 조사되었고, 가야 토기는 1지구 1·2·5·11·12·16·18호 주거지, 2·10호 수혈, 2지구 3호 석곽묘에서 고배, 개, 장경호, 광구소호, 파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대다수로 일부 부정형과 타원형이 확인된다. 장축방향은 남-북과 북동-남서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한데 18호만 동-서 방향을 띠고 있다. 장축길이는 크게 6m 이상과 3~6m 내외로 구분되며, 6m 이상의 장축길이를 가진 주거지들은 주로 평면 말각장방형이나 장방형계이며, 장축 6m 이하의 소형 주거지들은 방형과 말각방형계이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현지제작품으로 기벽이 두껍거나 백제양식이 가미된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중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11, 『순천 성산·송산유적』.

1지구 전경

출토유물

29

순천 성산리 성산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신대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10.12.~2011.7.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개,
장경호, 광구소호, 파배

조사지역은 피봉산(해발 138m) 북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매우 완만한 경사지에 해당한다. 구릉 정상부의 비교적 급한 경사지에서부터 하단부의 완만한 지형까지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북동사면 하단부와로 인접한 부분은 2009년에 조사된 성산유적이 위치하고, 남동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2005년 조사된 대법유적이 위치한다. 성산유적Ⅱ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기존에 조사된 대법·성산유적의 것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어 동일 취락지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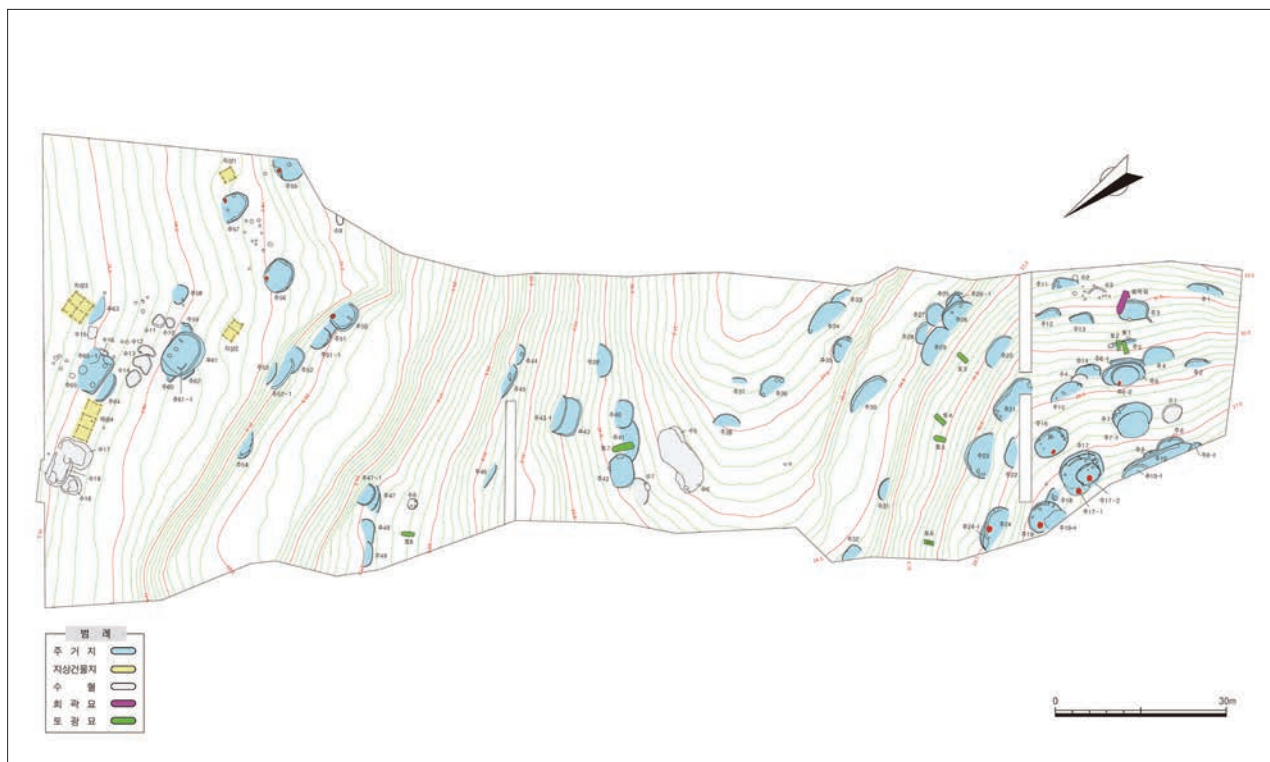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16m~39m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총 81기로 남서사면부, 북동사면 상부와 북도사면 하부에 주로 분포한다. 특히 남서사면부는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비교적 심한 지형으로 40여 기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중복된 것도 다수이다. 북동사면 하단부는 완만한 지형이며 남서사면부에 비해 밀집도가 낮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81기, 수혈 19기 등이 조사되었고, 가야 토기는 6·6-1·27·52-1·56호 주거지, 2·7·17·19호 수혈 등에서 고배, 개, 장경호, 단경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계(66기)가 대다수로 일부 방형계(9기)가 확인된다.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평지에서는 등고선과 직교한다. 방형계는 대법유적과 성산유적Ⅰ의 경우 늦은 시기로 분류되는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로 경사가 완만한 곳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성산유적Ⅱ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다. 방형계는 원형계와 함께 사용되며, 소수의 4주식 주거지도 확인된다. 수혈은 총 19기가 조사되었다. 남서사면, 북동사면 상부, 북동사면 하부에 주로 분포한다. 대부분 정연성이 없고 평면형태도 부정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서사면의 수혈은 일부 주거지와 중복되기도 한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현지제작품으로 기벽이 두껍거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4세기에서 6세기 초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13, 『순천 성산리 성산유적』Ⅱ.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30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43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재연구원 /
2012.12.~2013.1.
2013.8.~2013.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개, 고배, 양이부호, 대부완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430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복암리고분군, 북서쪽으로는 영동리고분군, 남쪽으로는 영산강 본류가 1㎞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세 지점을 연결할 때 중심부에 해당되는 범위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주변은 현재 논으로 경작되어 있고 있으며 이 지역은 영산강 제방이 축조되기 이전에는 하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고분이 위치하는 곳은 자연구릉을 형성하여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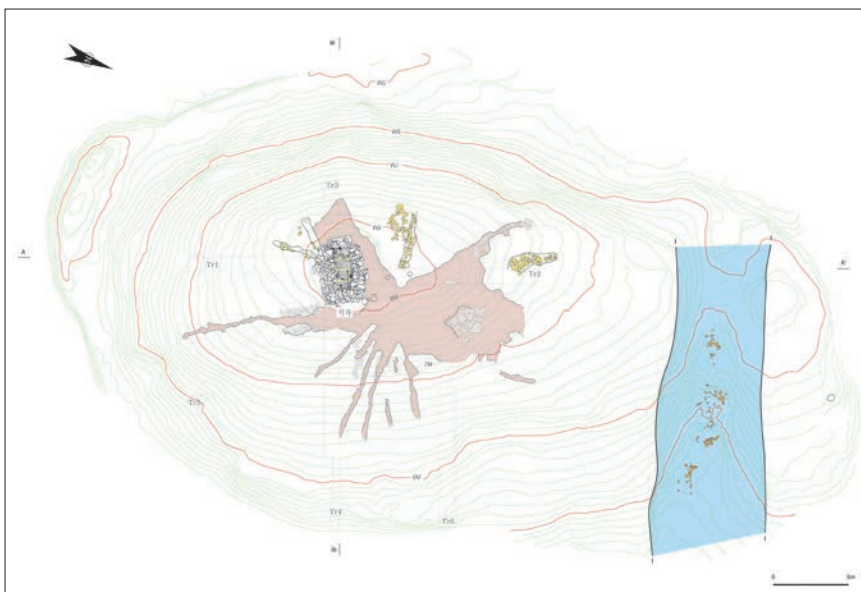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분 1기가 확인되었다. 주구와 매장주체부로 수혈계횡구식 석곽묘 1기가 확인되고 주구 등이 조사되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분구의 직경 20m 내외이다.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규모는 길이 272~281㎝, 너비 120~126㎝ 내외로 높이는 140㎝이다.

가야 토기는 주구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소가야 계통의 기대가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주구와 분구 일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나주지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5세기 중엽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나주가흥리 신흥고분』.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31

광양 용장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용장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문화재연구원 /
2012.10.~2012.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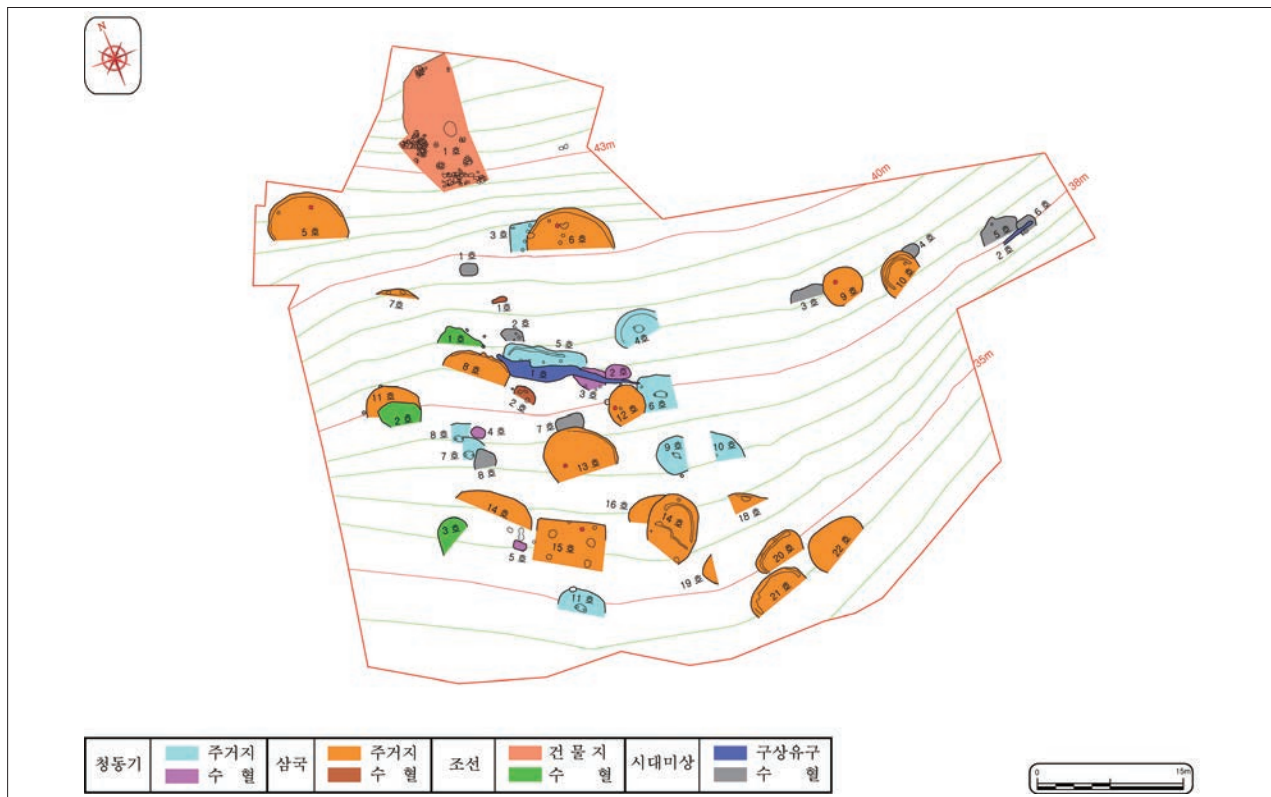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용장마을 일대로 해발 258m 의 산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비교적 높은 구릉 사면부(해발 60m)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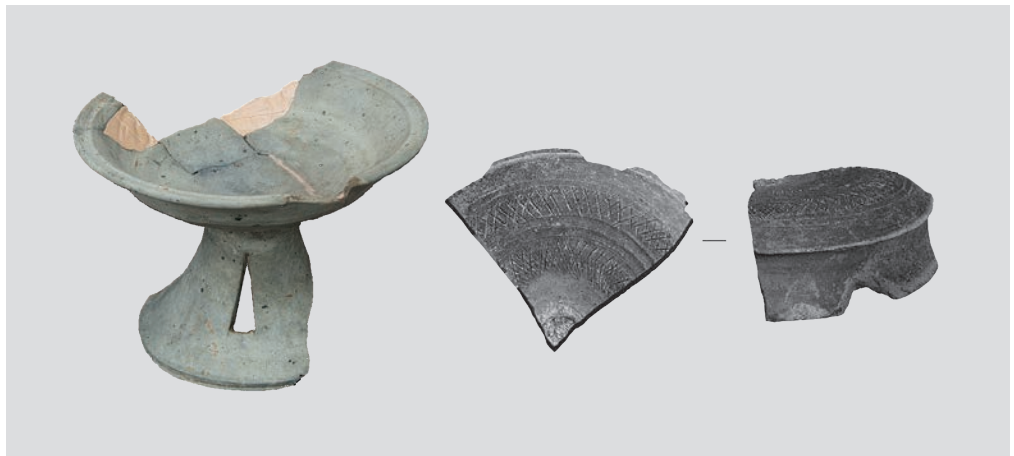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22기, 수혈 2기 등이 조사되었고, 원형계의 주거지가 우세하다. 이 가운데 6·22호 주거지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고배를 제외하면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며 고배, 개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자연유실 등으로 사면부에 접한 부분은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을 띠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5세기 중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全南文化財研究院, 2014,
『광양 용장유적』.

B지구 유구 배치도

B지구 전경

출토유물

32

광양 용강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2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1차 1999.12.~2000.3.
2차 2000.10.~2001.4.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대부직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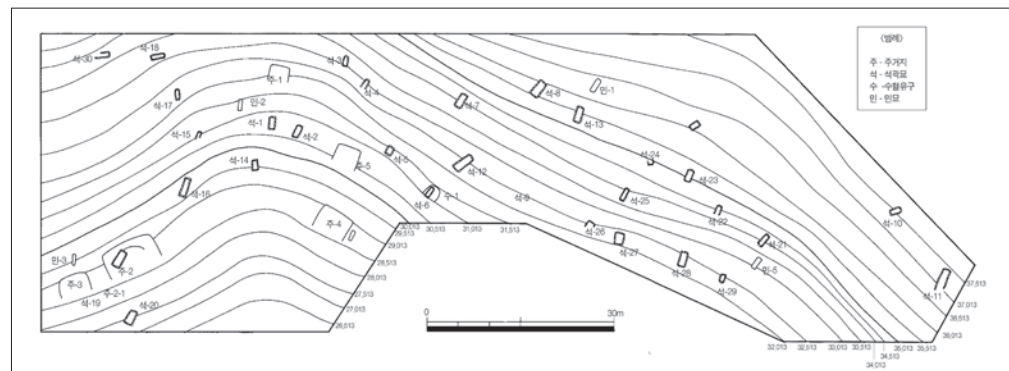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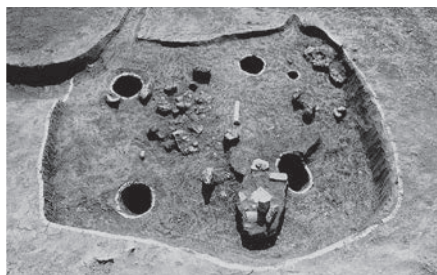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광양읍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마로산성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동천이 흐르고 있다. 유적은 마로산의 북서쪽 저평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점에 입지한다. 조사지역은 단지형을 이루며, 입지 상으로 볼 때, 용강리 기두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3기 등이 확인되며, 주거지는 10~15m 간격을 두면서 위치한다.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직구호로 대각부는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으로 4개의 주공이 내부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4주식이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중심연대는 5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광양 용강리유적Ⅰ』.

유구 배치도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 출토유물

33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1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재연구원 /
2010.11.~2010.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파배, 고배,
승문단경호, 대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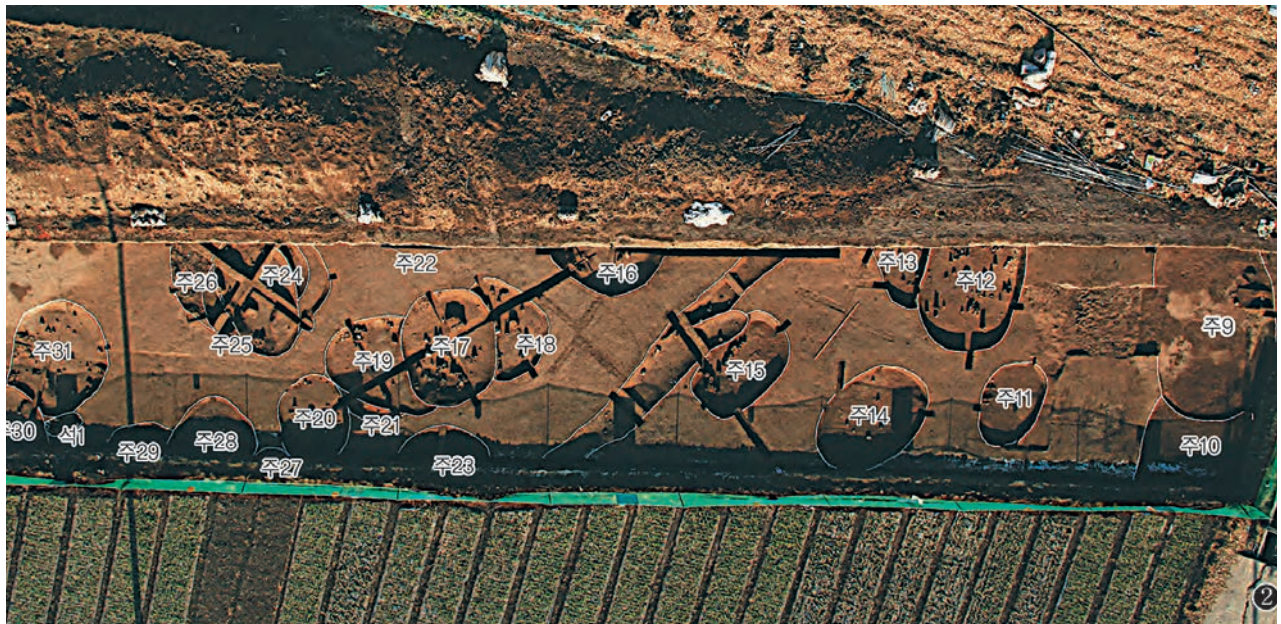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광양시의 동쪽을 남-북으로 흐르는 동천과 서천이 합수하는 지역 주변이다. 이 일대는 하천 범람원 지역으로 유적의 서쪽 약 200m 지점에 동천이 흐르고, 동쪽에는 소하천인 억만천이 흘러 동쪽과 합류하고 있다. 유적은 그 사이에 형성된 충적지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32기, 석곽묘 1기 등이 조사되었고, 대부분 주거지(5·6·7·9·10·14·17·19호)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파배, 고배, 승문단경호, 대부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중첩양상으로 동-서 방향에 가깝게 열상으로 분포한다. 주거지군과 경작지가 구분되며 대부분 주거지로 중첩양상으로 확인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다수를 점하며 일반적인 규모로 판단된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대부분 재지모방품으로 기벽이 두껍거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왜계 유물인 하지끼와 공반 출토되고 있어 당시 이 지역의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광주 용강리 석정유적』.

2지점 근경

5호 주거지

17호 주거지

출토유물

34 광양 용강리 기두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07-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2.4.~2002.6.

주요 유구 /유물
주거지, 수혈 / 기대,
고배

조사지역은 광양읍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마로산성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동천이 흐르고 있다. 유적은 마로산의 북서쪽 저평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점에 입지한다. 조사지역은 단지형을 이루며, 입지 상으로 볼 때, 용강리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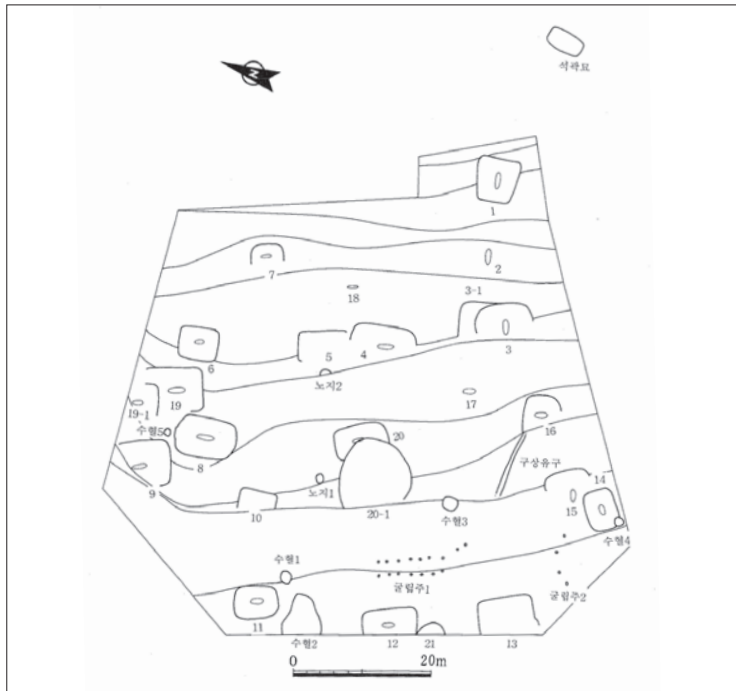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3기,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며, 대다수가 방형계의 주거지이다.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13호 주거지와 2호 수혈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기대와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으로 현재 2개의 주공만 확인되고 있으나 4개의 주공이 내부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4주식으로 판단된다. 수혈은 부정형으로 내부시설 없이 비교적 수평을 이룬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5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광양 용강리 기두유적』.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35

광양 칠성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택지
개발지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5.1.~2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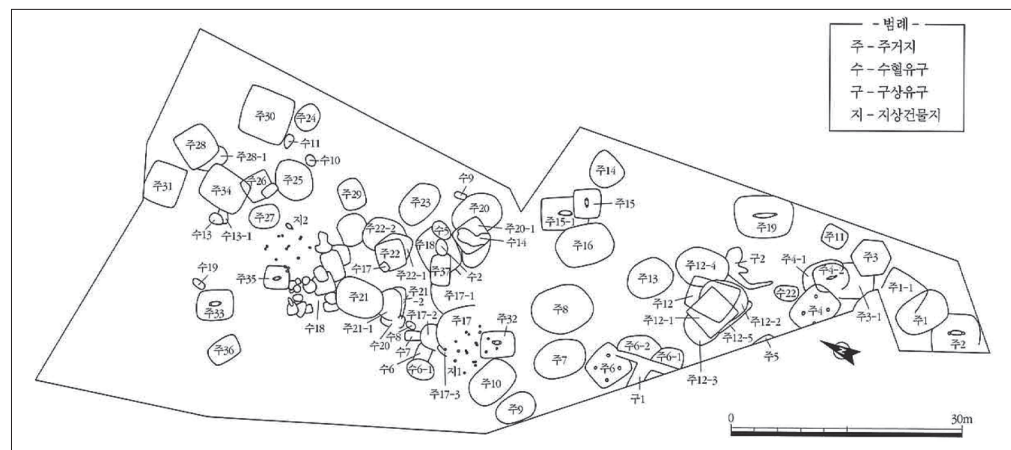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고배,
파배, 개, 장경호

조사지역은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광양만으로 유입하는 서천의 하류에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한다. 유적은 광양여자중학교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충적지대에 해당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60동, 수혈 39기 등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주거지(1-1·6·20-1·28·30·31호)와 6호 수혈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소가야계 개, 파배, 고배 등의 유물이 방형계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가운데 고배와 개가 주를 이룬다. 고배는 모두 일단장방형투창고배이며 유뉴식개와 공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유구는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일반적인 규모로 판단된다. 축조재료와 내부시설의 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5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광양 칠성리유적』.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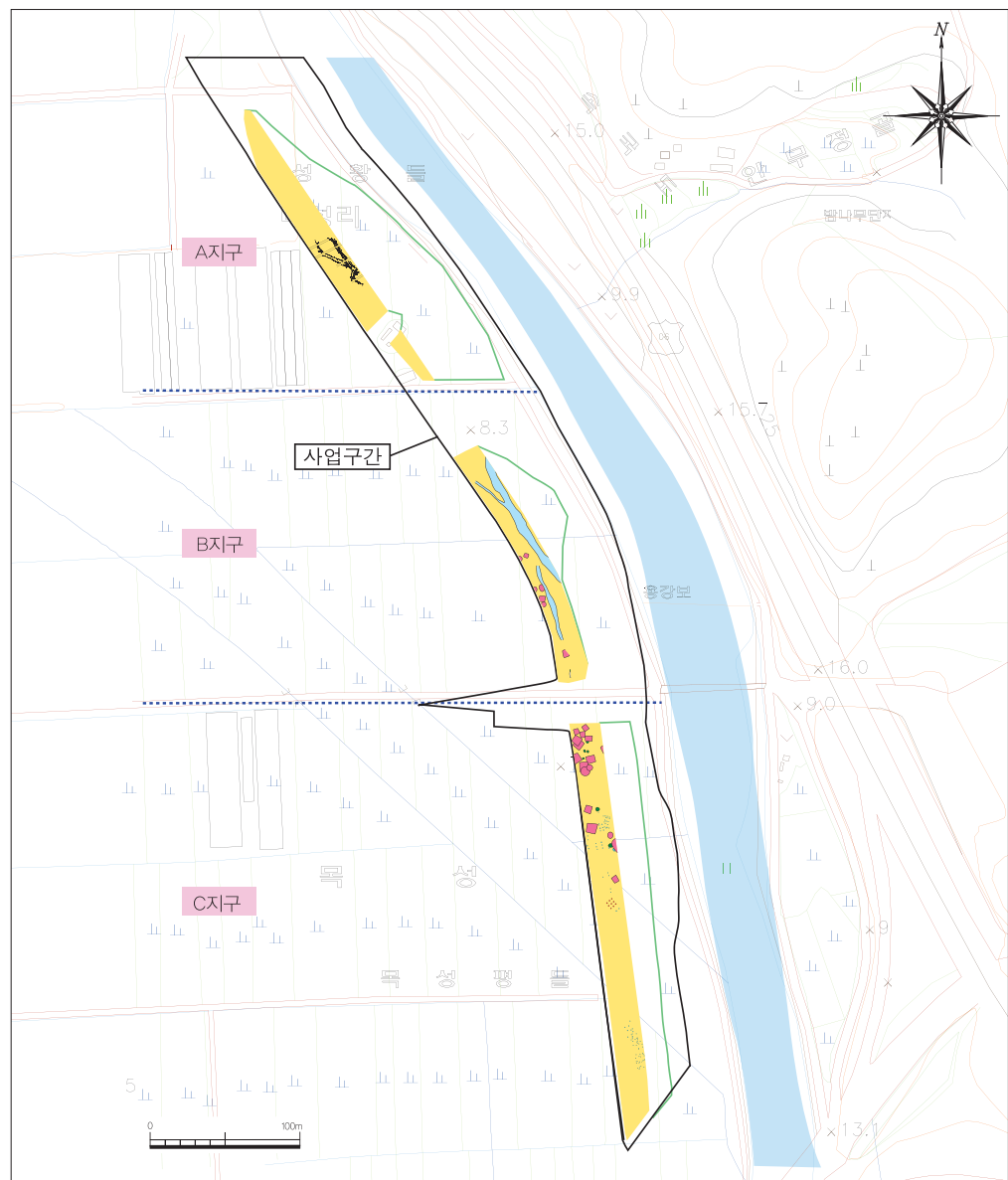
36

광양 목성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11.10.~2012.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기대, 고배,
파배, 유개식장경호

조사지역은 광양읍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백운산에서 발원한 동천이 인접하여 흐르며, 동천 주변으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동천 주변에 발달된 충적지 상에 자리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남-북 방향으로 긴 선

유구 배치도

형을 이루며, 입지 상으로 볼 때, 용강리 석정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23기, 수혈, 구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며, 대다수가 방형계의 주거지이다. 구역의 북쪽에는 원형계의 주거지가 분포하며, 남쪽으로 방형계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양상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방형계는 장축기준으로 볼 때 302~632cm 정도이며, 400cm 내외가 대다수이다. 원형계는 장축기준으로 310~464c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하는 주거지가 대다수이다.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B-4, C-4·7·11·13·14·16호 주거지, 1·2호 구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파배를 제외하면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며 기대, 유개식장경호, 고배, 개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동천변에 접해진 부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을 띠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기원후 5세기 후반까지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광주 목성리유적』.

출토유물

37

광양 인동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07-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문화재연구원 /
2015.3.~2016.6.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개, 고배,
양이부호, 대부완

조사지역은 광양읍의 남쪽으로 백운산에서 뻗은 가지능선이 발달한 지역으로 광양 동천과 서천 주변에 형성된 충적대지 해발 5~7m의 평지에 입지한다. 유적의 남쪽으로 광양만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선형을 이루며, 입지 상으로 볼 때, 용강리·목성리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은 산지가 발달한 지역으로 주거지는 강주변이나 강과 지류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산이나 강의 흐름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84동, 수혈 6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며, 원형계의 주거지가 74기로 우세하다.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39·57·7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고배, 개, 양이부호, 대부완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2기)와 방형계(1기) 모두가 확인된다. 주거지 간 중복관계가 심하게 이루어졌다. 방형계의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에 비해 후행한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5~6세기 전반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문화재연구원, 2018, 『광양 인동리유적』.

유적 전경

출토유물

38

광양 도월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7-2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문화재연구원 /
1차 2008.4.~2008.9.
2차 2008.9.~2009.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분, 수혈, 폐기장 / 고배, 개, 양이부호, 기대, 수평구연호

광양 도월리유적은 서천의 서쪽 저지성 충적대지상에 위치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지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유구는 남-북 방향에 가깝게 열상으로 분포한다. 주거지군과 수혈군이 구분되며, 주거지군은 동쪽에 수혈군은 서쪽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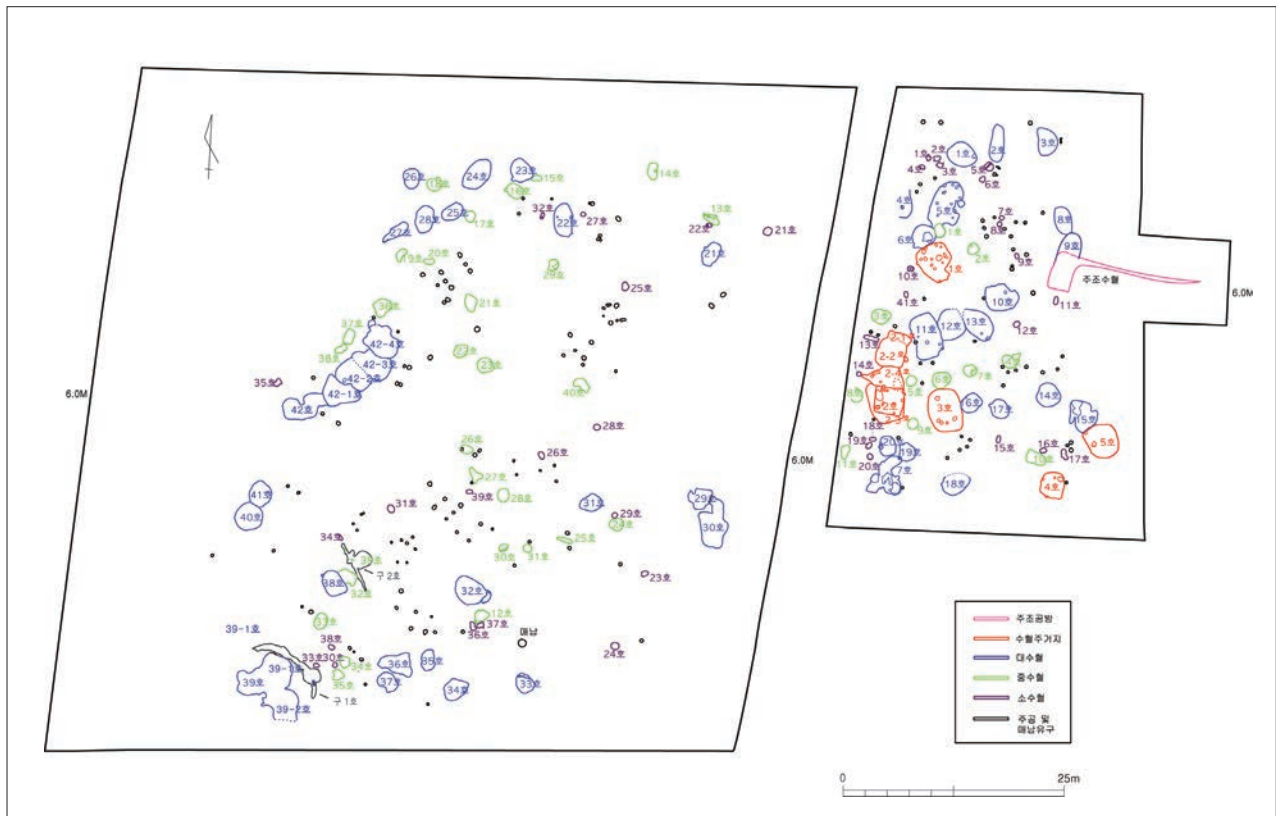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75기, 수혈 140기, 고분 1기 등이 조사되었고, 주거지는 총 67기가 조사되었는데 원형계가 52기로 다수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방형계이다. 이 가운데 1차조사 2-4·21·22호 주거지와 7·11·22·24~25·28~30·33·36·42호 수혈, 2차 조사 11·22·31·33·34·39·41·42호 주거지, 10호 수혈, 폐기장, 주거지와 고분, 고분주구 등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며 양이부호, 수평구연호, 파배, 고배, 기대, 개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수혈과 폐기장에서 가야토기의 출토가 다른 유적에 비해 밀집도 있게 출토되고 있으며, 유적에서 확인된 제철과 관련된 용범, 송풍관 등의 출토는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여 가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유구는 경지정리와 경작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원형의 평면형태가 우세하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4세기 전반에서 5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광양 도월리유적Ⅰ·Ⅱ』.

고분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39

광양 원적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원적
3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9.7.~2009.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폐기장 / 고배,
호, 개, 기대

조사지역은 원월리 하원마을 북쪽의 해발 63.9m 구릉성 산지 남사면부에 위치하며, 유구는 남-북으로 발달한 사면부의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8기, 폐기장 등이 조사되었고, 방형계의 주거지가 우세하다. 이 가운데 3·5·6호 주거지와 폐기장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며 고배와 유개완, 광구소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자연유실 등으로 사면부에 접한 부분은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 또는 장방형을 띠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폐기장에서 다수의 가야 토기가 확인되는데, 이 지역에서 수혈에서 가야 토기가 무더기로 나오는 예가 종종 있어 주목된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5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11,
『광양 점터·원적유적』.

유적 전경

출토유물

40

광양 지원리 창촌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창촌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10.11.~2010.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파배, 고배,
승문단경호, 대부호

조사지역은 수어댐에서 동쪽으로 1㎞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창촌마을과 원당마을 사이에 형성된 구릉 남사면부에 해당된다. 해발 34~44m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남동사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군 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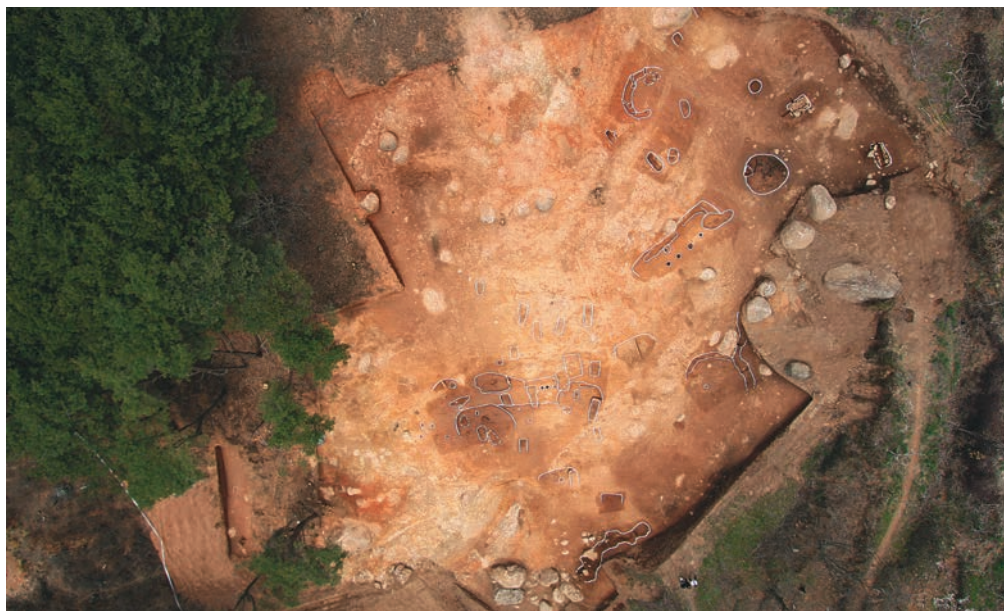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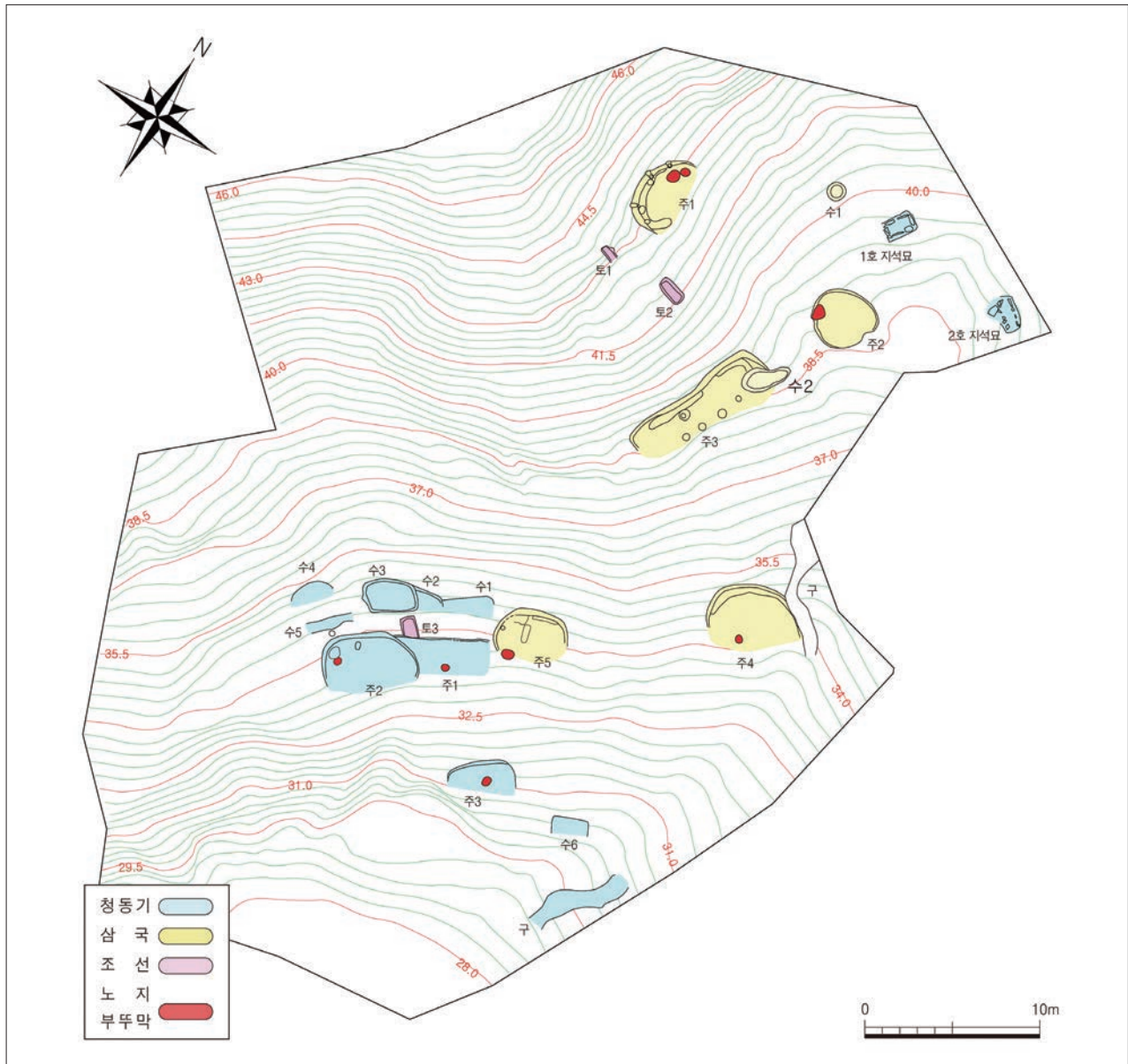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5기, 수혈 2기 등이 조사되었고, 삼-2·삼-3호 주거지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양이부호, 기대, 고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주거군이 능선을 달리하여 각각 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주거지는 대부분 일정간격을 두고 중복되지 않고 단독으로 배치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가 대부분이나 3호 주거지는 방형계를 띠고 있다. 원형계 주거지는 부뚜막이 모두 시설되었고,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출토된 가야 토기는 이른시기의 것으로 대부분 재지모방품으로 기벽이 두껍거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으로 출토된다.

특히 창촌유적의 가야 토기 가운데 노형기대는 아라가야계로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토기이다. 용강리 기두, 용강리 석정, 순천 덕암동, 여수 고락산성 등에서 아라가야계 토기가 출토된 예가 있으나 노형기대는 출토예가 없어 특징적이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4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12,
『광양 지원리 창촌유적』.

유적 전경

유구 배치도

2호 주거지

출토유물

41

곡성 구성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 84-2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가경고고학연구소 /
2013.3.~2014.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대부파
수부완, 개, 유개식장
경호

유적이 위치한 곳은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오곡천 및 구성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남쪽에 형성된 통명산(해발 761m)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 계곡부에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남서쪽 일대를 제외하고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30기, 저장혈 12기, 수혈 4기, 석곽묘 2기 등 총 6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주거지 6기(2·3·5·17·22·28호)와 2호 저장혈에서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고배, 개, 대부파수부완, 유개식장경 등이 출토되며, 개가 주를 이룬다.

구성리유적은 그간 곡성지역에서 출토례가 적었던 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활유구에서 마한계, 백제계, 가야계 유물들이 혼재되어 출토된 점은 당시의 곡성지역 내에서 시기에 따른 영역변화 및 생활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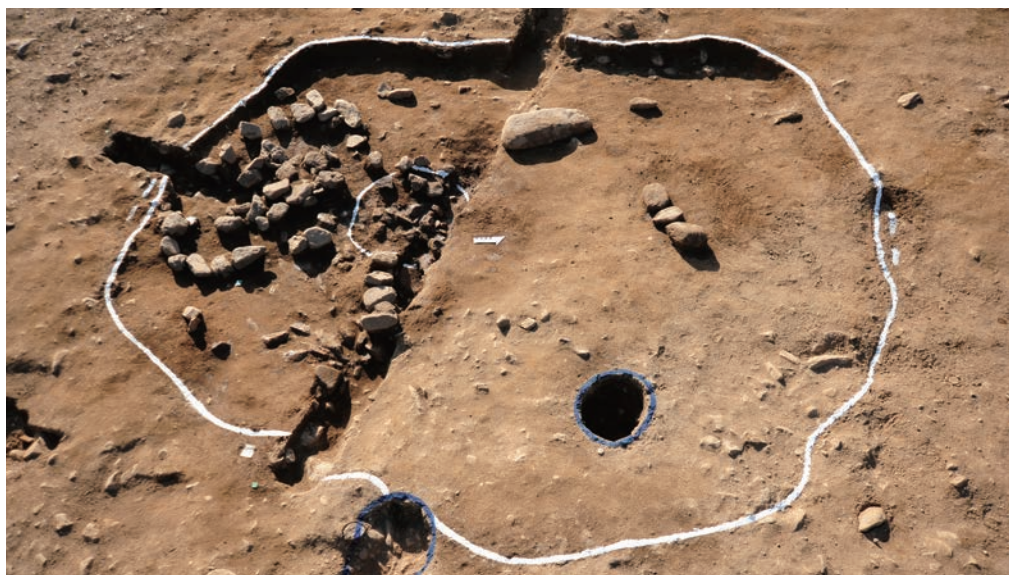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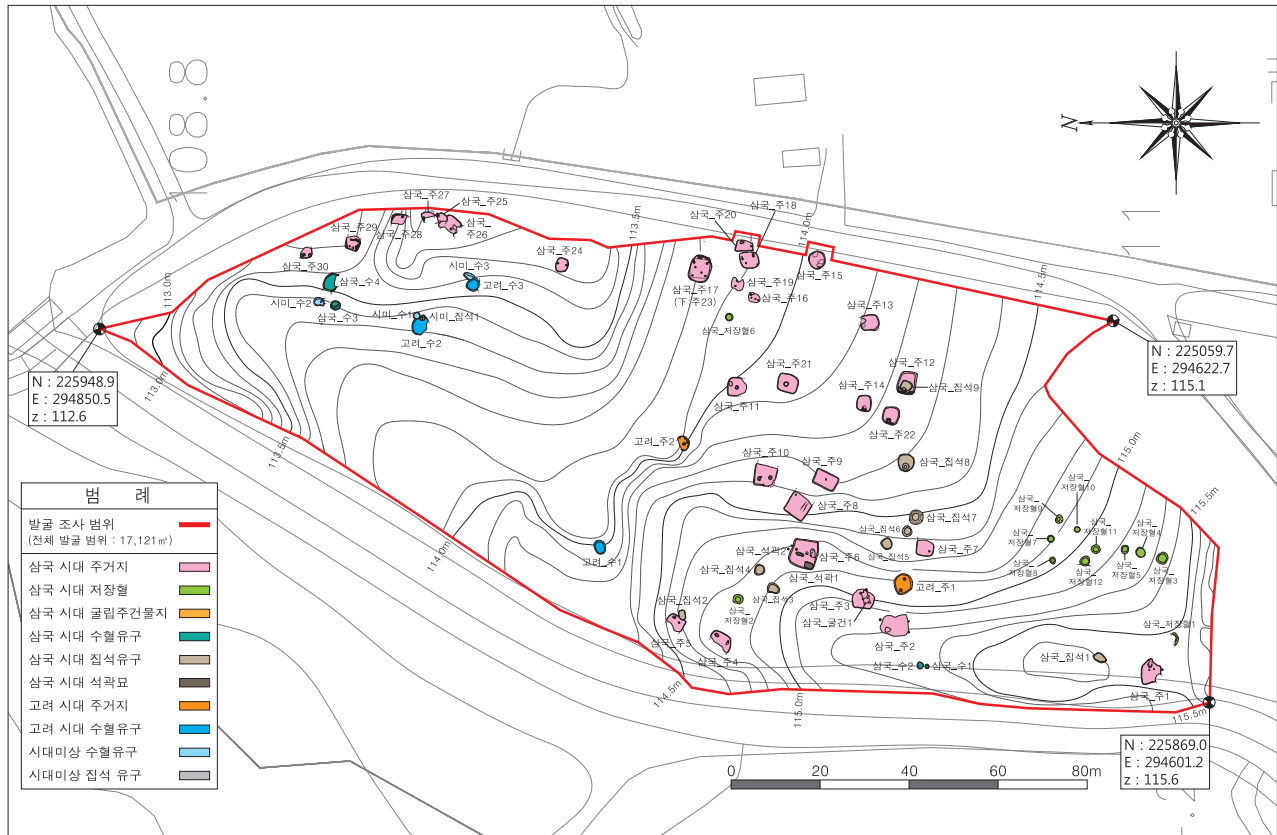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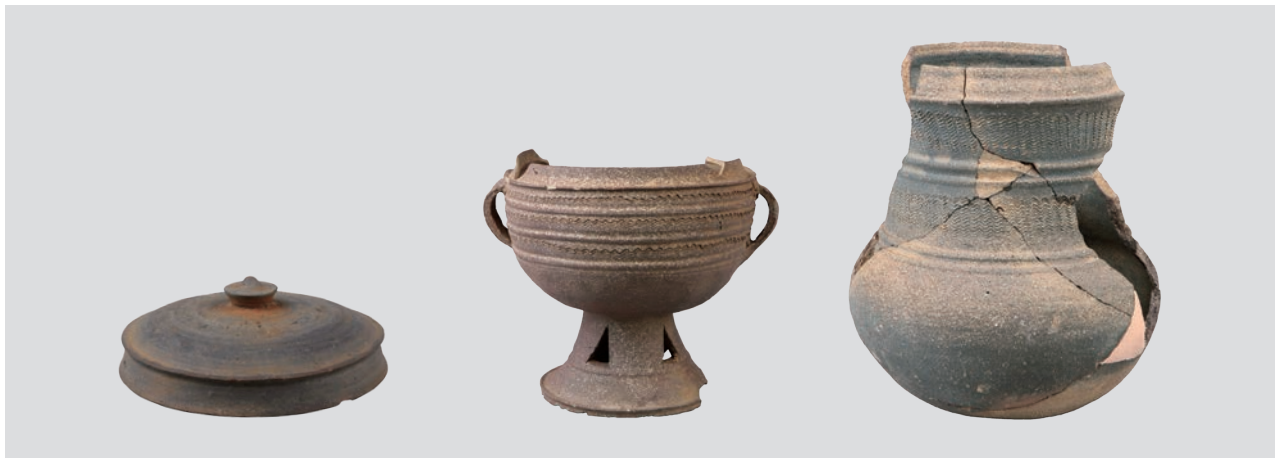
특히 유적에서 확인된 가야계 자료를 통해 당시 곡성일원에 존재하였던 가야문화기의 취락과 유물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유적의 시기는 4세기 후반 전 후 마한계 백제인이 정착하여 거주하다가 5세기 후반경 점차적으로 가야계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5세기 4/4분기~6세기 초 경 백제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가경고고학연구소, 2016, 『곡성 구성리유적』.

3호 주거지

범 례
발굴 조사 범위
(전체 발굴 범위 : 17,121㎡)
삼국 시대 주거지
삼국 시대 저장혈
삼국 시대 굴립주건물지
삼국 시대 수혈유구
삼국 시대 집석유구
삼국 시대 석곽묘
고려 시대 주거지
고려 시대 수혈유구
시대미상 수혈유구
시대미상 집석 유구
N : 225948.9
E : 294850.5
z : 112.6
N : 225059.7
E : 294622.7
z : 115.1
N : 225869.0
E : 294601.2
z : 115.6
0
20
40
60
80m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42

구례 용두리고분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467-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17.11.~2018.2.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대부직구호, 고배, 파배, 기대

조사지역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467-1 일대로 섬진강의 북안에 위치한 용두마을 남쪽의 낮은 구릉(해발 45m)에 위치한다. 이곳은 구례읍을 관통하는 서시천이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넓은 충적지에 위치한 단독 구릉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고, 대부직구호·고배·파배 등의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제토 중 지표상에서 기대, 고배 등의 가야 토기가 수습되었다.

유구는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모두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목관과 목곽이 안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구는 축조기법과 구조, 유물 부장양상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구례 용두리유적은 삼국시대 분묘유적의 조사 예가 없는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특히 목관묘에서 가야유물이 출토되어 이 지역 고대사를 연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삼국시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17, 「구례 용두리고분 긴급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3호 토광묘

3호 토광묘 출토유물

43

고흥 한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한동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04.4.~2004.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대각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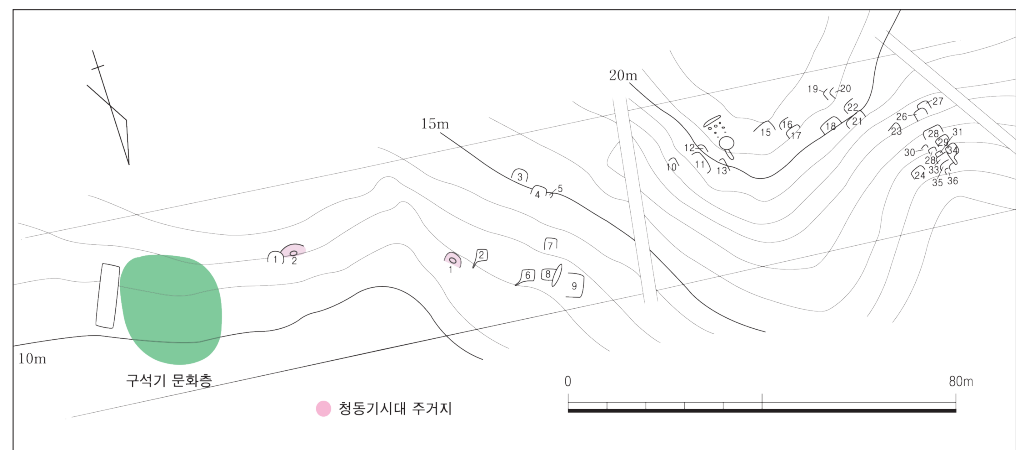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남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한동마을 일대에 해당된다. 이곳은 고흥에서 녹동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속하는 곳으로 유적은 나지막한 구릉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릉의 북쪽 사면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36기 등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15·21·22호 주거지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며 고배와 기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21호 주거지 출토 고배는 이단투창고배 편으로 확인되었다.

유구는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4세기 전반에서 5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흥 한동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1호 주거지 출토유물

44

고흥 방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방사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04.4.~2004.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대각 편,
광구소호, 유개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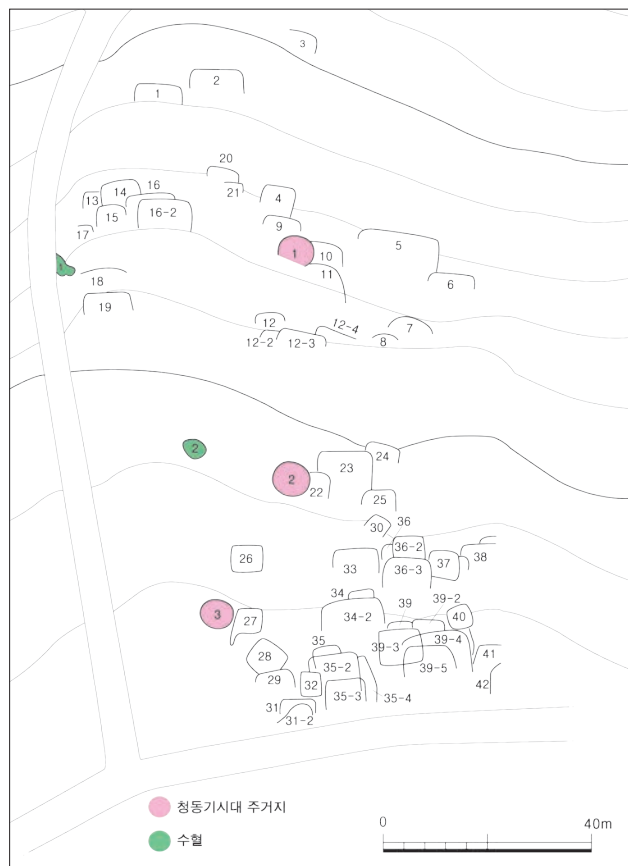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남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방사마을 일대에 해당된다. 이곳은 고흥에서 녹동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속하는 곳으로 방사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동-서 방향으로 발달한 나지막한 구릉의 사면부에 해당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주거지 63기 등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5·18·27·39-4·40호 주거지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며 고배와 유개완, 광구소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5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흥 방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출토유물

45 고흥 장덕리 장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장동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
2009.7.~2009.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수평구연호,
파배, 유대파수부소호,
광구소호

참고문헌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 『고흥 장덕리 장동유적』.

조사지역은 전남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장동마을의 남동쪽 구릉지대에 해당한다. 이곳은 벌교읍에서 고흥으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고갯마루이다. 첨산(해발 313m)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산사면의 끝자락에 형성된 구릉상에 위치한다. 구릉의 상부는 비교적 평탄하나 동쪽과 서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구묘 2기와 목곽묘 10기 등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분구묘 M1·M2와 3호 목곽묘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유대파수부호, 수평구연호, 장경소호, 파배, 광구소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과수원으로 조성되면서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분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안치되었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M1호 목곽묘의 경우 규모는 길이 460㎝, 너비 245㎝, 깊이 45㎝이다. 일반적인 목곽묘보다 큰 것으로, 전남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목곽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5세기 1/4분기에서 5세기 2/4분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M1호 목곽묘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46 고흥 신촌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신촌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08.9.~20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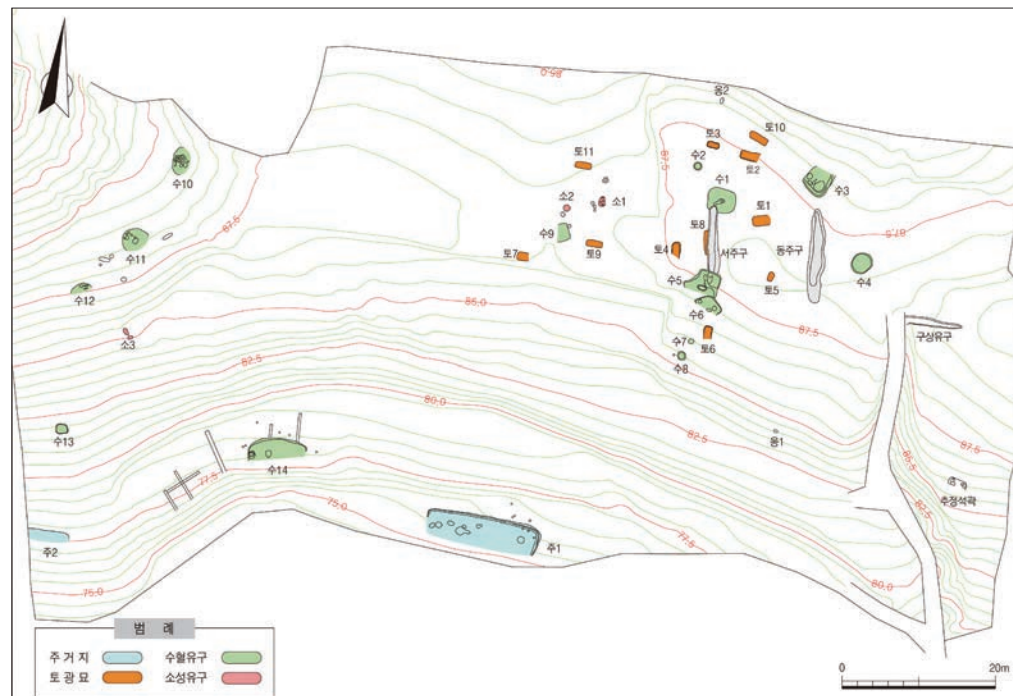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광구소호, 철정

조사지역은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신촌마을의 북쪽 구릉지대에 해당한다. 이곳은 벌교읍 장좌리와 고흥군 한천리의 경계지점으로 벌교에서 고흥으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고갯마루이다. 해발 90m 정도의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하나 남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광묘는 11기가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2기(1, 9호)에서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광구소호, 파배, 외절구연고배, 양이부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안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완전한 형태가 드물다. 길이는 300㎝ 내외의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너비도 가장 넓은 것이 140㎝로 일반적인 규모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마한문화연구원, 2011, 『고흥 신촌유적』.

유구 배치도

1호 토광묘 유물 출토모습

9호 토광묘 유물 출토모습

출토유물

47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08-1

조사기관 / 조사기간
마한문화연구원 /
2010.3.~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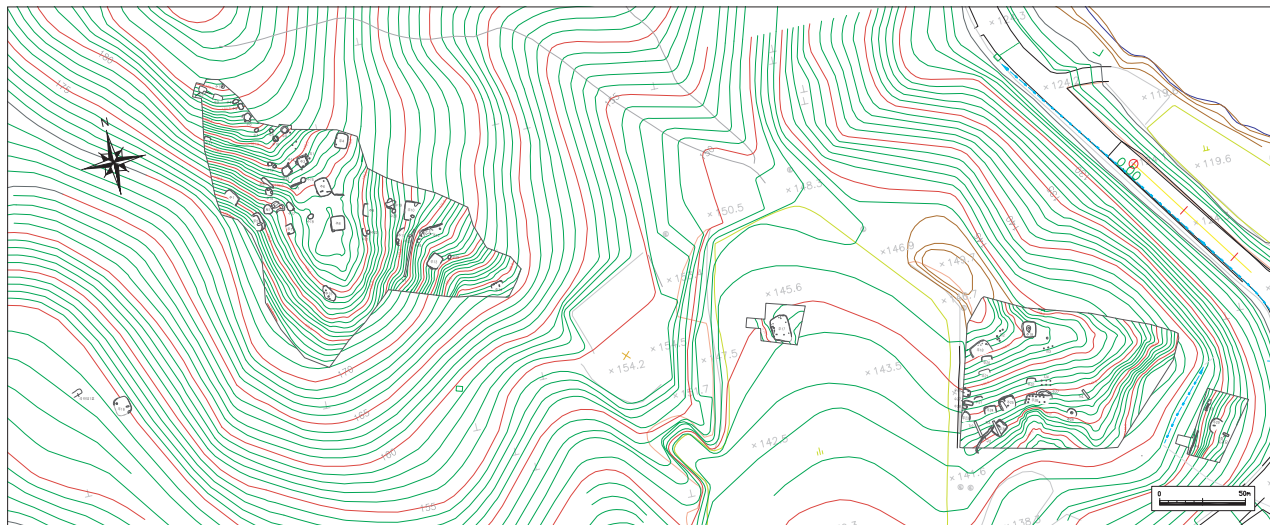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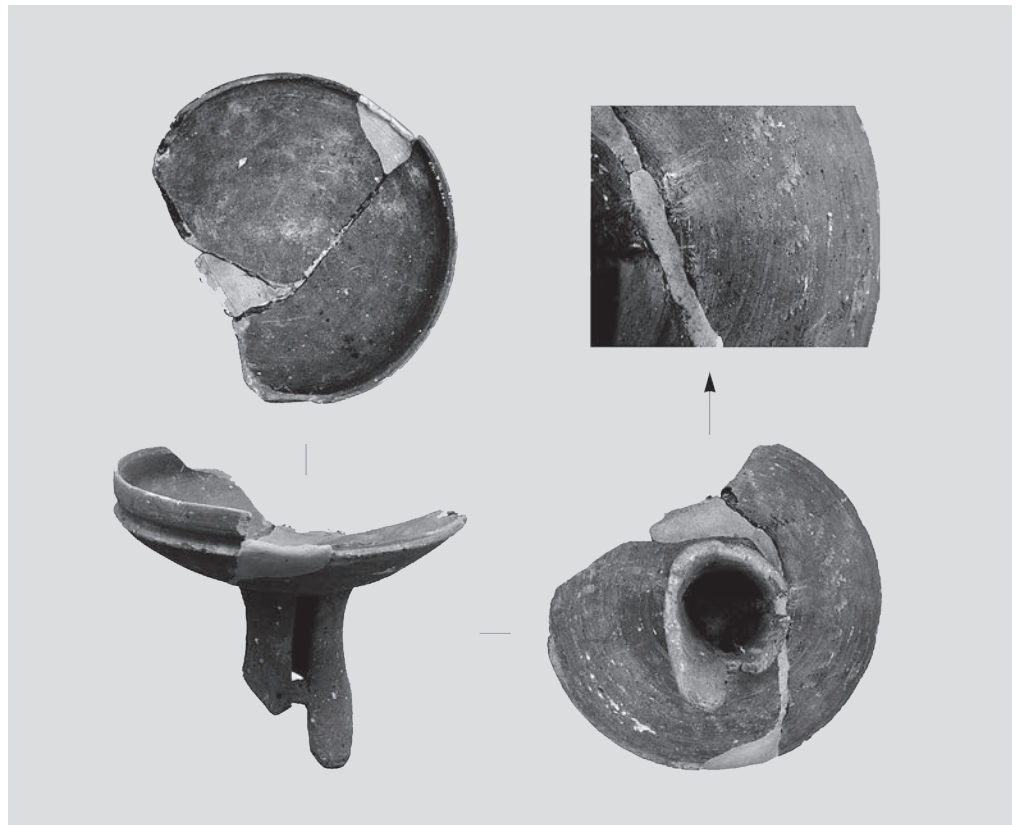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고배 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석평마을의 일원으로 석호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상에 위치하며 보성강이 곡류하여 흐른다. 이곳은 겸백면과 조성면의 경계지점으로 벌교읍으로 나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해발 160~180m 정도의 구릉의 정상부에 비교적 낮은 경사를 이루며 형성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30기, 지상건물지 4기, 수혈 29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9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고, 가야 토기는 대각부가 결실된 상태로 고배가 출토되었다.

유구는 단독으로 확인되며,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가야 토기는 방형계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완전한 형태가 드물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대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馬韓文化研究院, 2012, 『보성 도안리석평유적Ⅱ -Ⅱ지구-』.

유구 배치도

19호 주거지

19호 주거지 출토유물

48

보성 조성리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08-1

조사기관 / 조사기간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1.8.~2001.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구 / 고배,
광구소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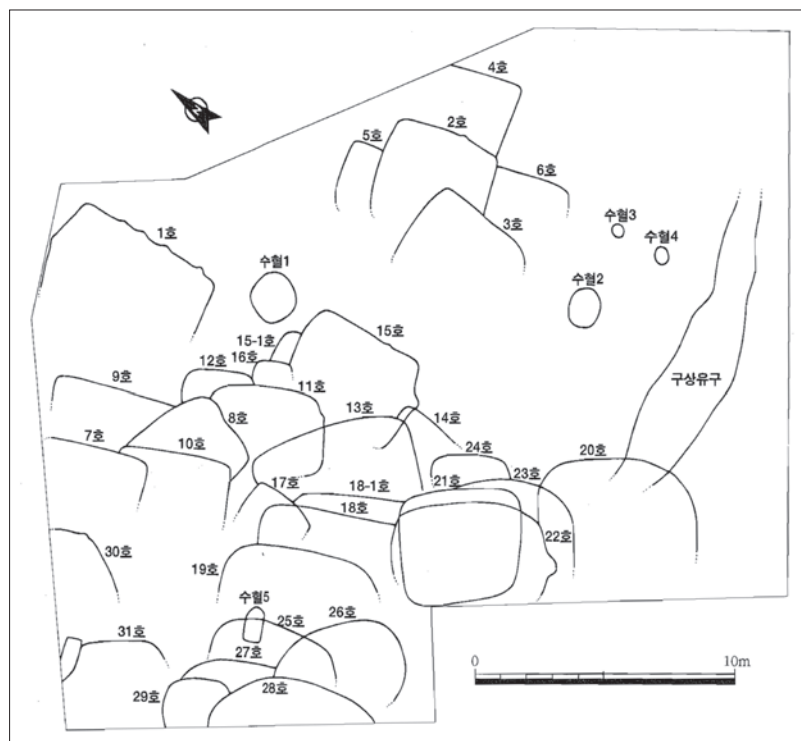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조성마을의 독립된 구릉의 정상부에 가까운 사면에 자리한다. 이곳은 벌교읍과 보성군의 경계지점으로 벌교읍에서 보성군으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60m 정도의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하나 남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33기, 패총, 주거지관련 구상유구와 환호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주거지 5기(1·4·7·8·15호)와 1호 구에서 고배, 광구소호, 기대 등의 가야 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유구는 중첩양상으로 확인되며,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가야 토기는 주로 방형계 주거지와 구에서 출토되며, 완전한 형태가 드물다. 인근의 고흥 장동유적과 유사한 시기로 이 지역의 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대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보성 조성리유적』.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49

보성 조성리 금장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34-2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한문화재연구원 /
2011.1.

주요 유구 / 유물
옹관묘 / 양이부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조성마을의 독립된 구릉의 정상부의 북쪽 사면부 끝자락으로 국도 2호선과 접해 있다. 유적은 평탄지에 가까운 지점에 입지하며 인근에서 보성 조성리유적(순천대학교박물관 2003)이 위치한다.

이곳은 벌교읍과 보성군의 경계지점으로 벌교읍에서 보성군으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21기, 고분주구 1기, 옹관묘 1기, 토광묘 1기, 구2기 등의 유구가 30기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옹관묘 1-1호에서 가야 토기인 양이부호가 출토되었다.

유구는 중첩양상으로 확인되며, 민묘조성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가야 토기는 옹관묘에서 출토되며, 완전한 형태가 드물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대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보성 조성리 금장유적』.

유적 전경

1-1호 옹관묘

1-1호 옹관묘 출토유물

50 장흥 상방촌A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리 50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목포대학교박물관 /
2001.9.~2002.4.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파배, 장경호,
기대

조사지역은 장흥군 유치면 대리 상방촌 일원이다. 국사봉에서 뻗어내린 산줄기의 말단부에 입지해 있고, 동쪽으로는 옴천천이 흐르고 있다. 옴천천변에 형성된 해발 54m의 충적대지상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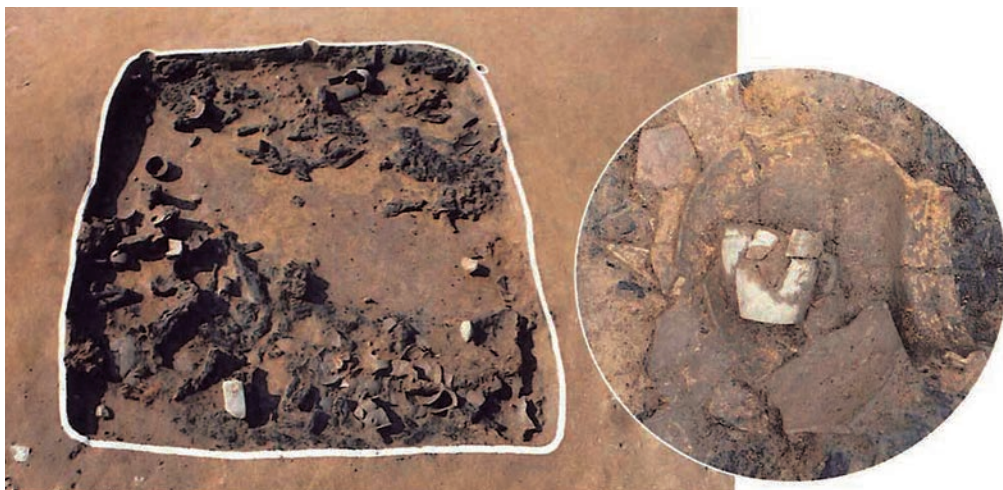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107기, 주구토광묘 3기, 수혈 11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0·25·34·43·47호 주거지와 주구토광묘 1·3호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개, 장경호, 파배, 기대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단독으로 확인되며,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사면부에 접하는 지점은 삭평되어 유실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계(106기)가 우세하며,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5~6세기 초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목포대학교박물관, 2005,
『장흥 상방촌A유적』.

A지구 전경

A-1지구 10호 주거지

A-2지구 25호 주거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25호 주거지 출토유물

51

장흥 상방촌B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리 50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01.9.~2002.4.

주요 유구 / 유물
주구 / 고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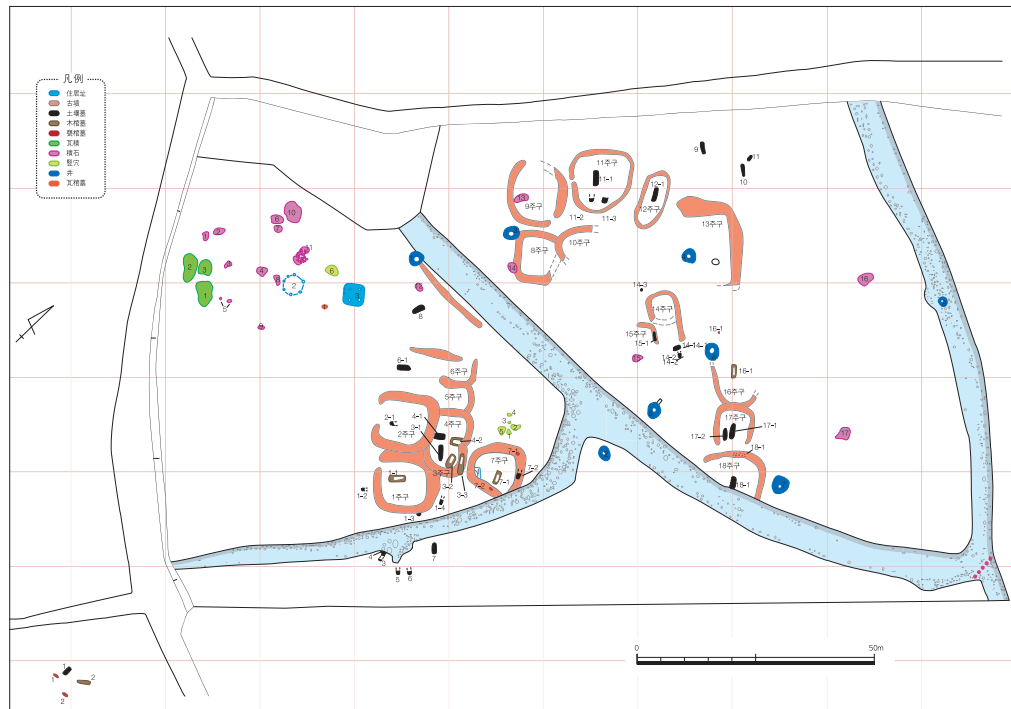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유치면 대리 일대으로 부산면과 남동쪽으로 인접하며, 북서쪽으로 영암군과 인접되어 있다. 유적은 남·북으로 수인산과 국사봉의 높은 산줄기에 둘러 쌓여 있으며, 그 아래로 탐진강의 지류인 옴천천과 수덕천이 흐르고 있다. 상방촌유적은 대리 마을 앞 평탄대지상에 자리하며 유적의 북쪽과 동쪽은 'ㄱ'자상으로 주거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옴천천에 인접하여 자갈과 모래와 같은 하상퇴적이 펼쳐져 있는데 유구는 대부분 하상퇴적 사이로 형성된 점토질 퇴적층에서 주로 조성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1기, 고분 19기, 토광묘 36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3호 주구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밀집을 이루며 확인되었고,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사면부에 접하는 지점은 삭평되어 유실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5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상방촌B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3호 주구

13호 주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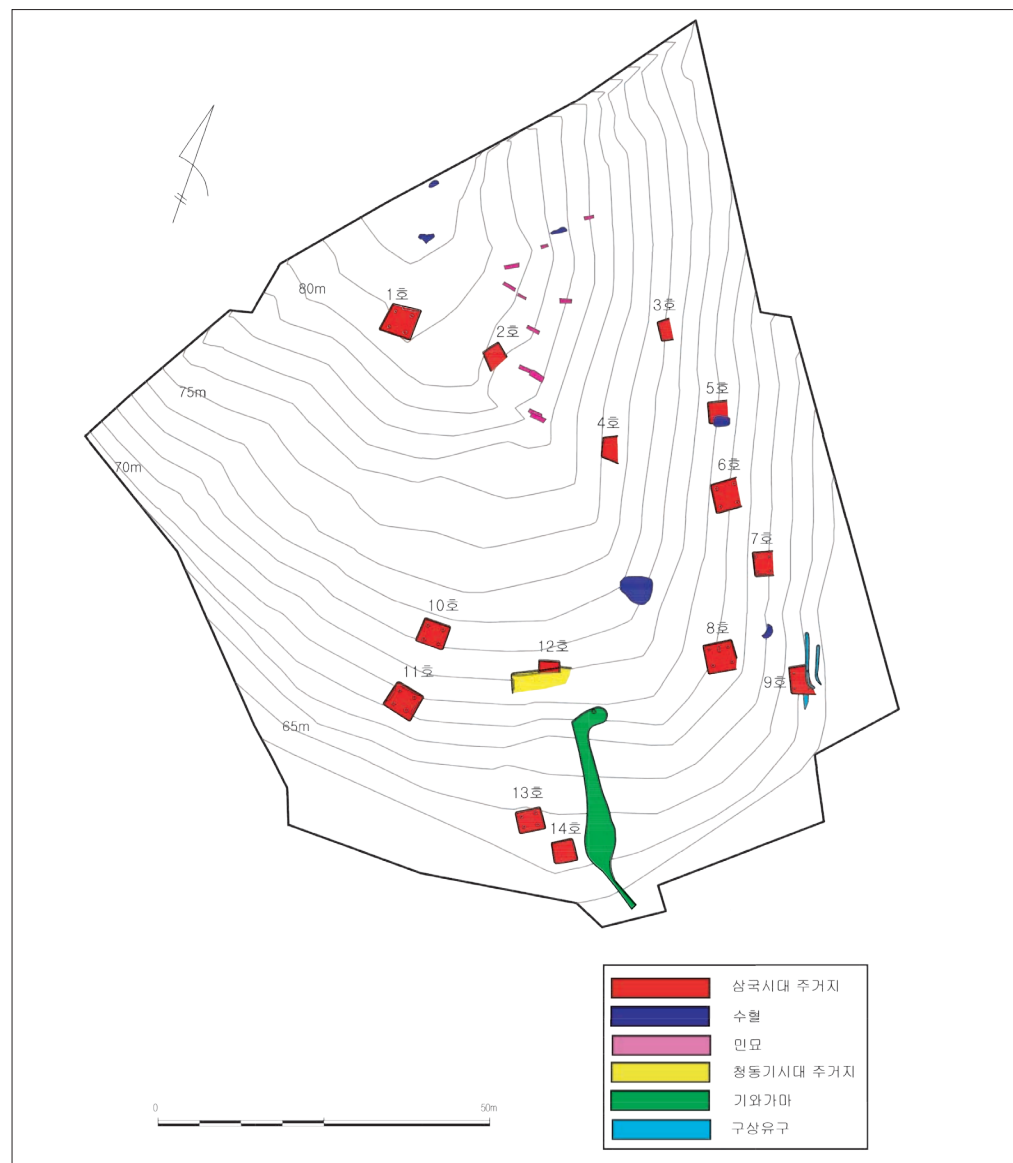
52

강진 양유동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양유동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문화재연구원 /
2008.5.~2008.8.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양이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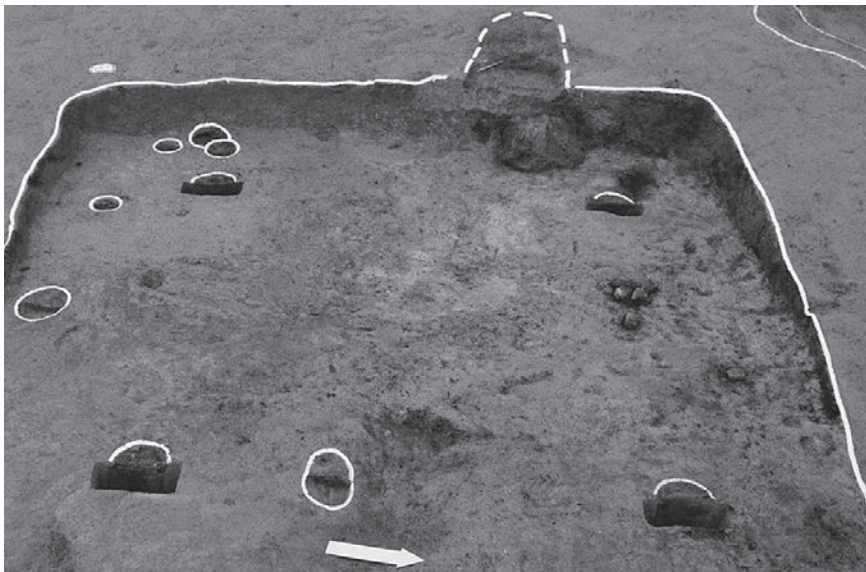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해남군 옥천면과 강진군 도암면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도암면의 북부에 해당한다. 지형은 산사면 말단부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도암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동남사면부에 군집을 이루며 확인되었다.

유구 배치도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4기,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가야 토기는 이 가운데 6호 주거지에서 양이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사면부는 삭평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주거지는 화재폐기된 것으로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으로 4개의 주공이 내부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4주식이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삼국시대 취락으로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4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강진 양유동유적』.

6호 주거지

6호 주거지 출토유물

53

해남 신금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신금마을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02.12.~2003.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단경호, 개

조사지역은 해남군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산천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와 산으로부터 흘러내린 작은 골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구릉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해발 17~27m 사이에 입지하고 있다. 대규모의 거점취락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는 72기, 구상유구 9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8호 주거지와 55호 주거지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개와 승석문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밀집을 이루며 확인되었고,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사면부에 접하는 지점은 삭평되어 유실되거나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3~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신금유적』.

유적 원경

18호 주거지

55호 주거지

18호 주거지 출토유물

55호 주거지 출토유물

5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 전라남도기념물 제86호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37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광주박물관 / 1973.4.

주요 유구 / 유물
주구/ 대부호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378-1이다. 월송리는 서쪽에는 가공산, 남쪽에는 달마산이 가로막고, 동쪽으로는 대둔산에서 닭골재를 지나 달마산으로 연결되어 남쪽으로 뻗어내린 준령이 가로막고 있다. 북과 북서쪽으로는 조산천을 따라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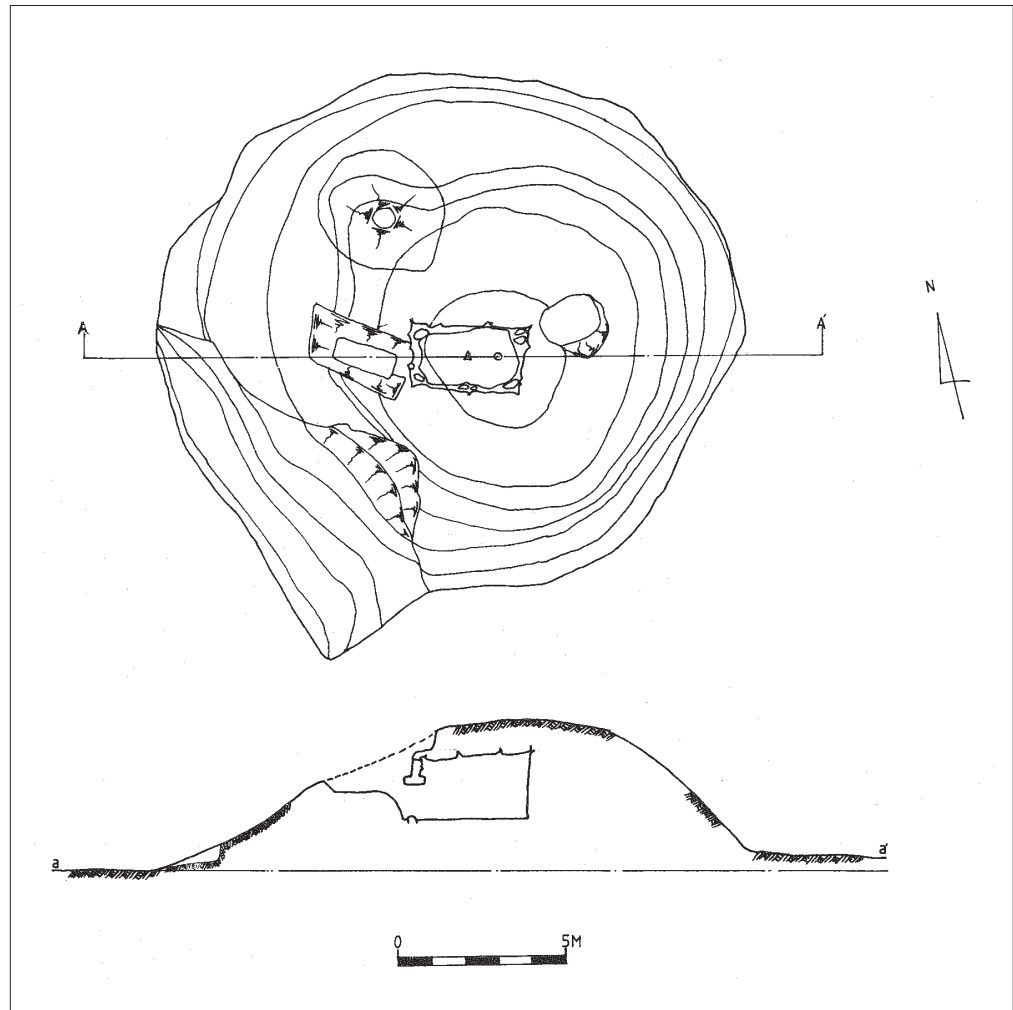
조산고분은 낮게 발달한 저평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해안선의 방파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월송리의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따라서 조산고분은 원래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결과 분구의 지름은 17m, 높이 4.5m이며 1m 정도를 판축한 다음 그 위에 석실을 구축하였다. 석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향이다. 벽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내경하게 축조하였다. 천정은 3매의 판석으로 덮었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363cm, 너비 204m, 높이 185~196cm이다. 현실바닥은 규모가 거대한 1매의 판석으로 부석하고 네 모서리의 빈틈은 조그마한 할석으로 보충하였다. 가야 토기는 주구에서 대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은 1973년 현산면 월솔리 증산마을의 방송용 스피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유물이 수습되어고 간략한 정보만 수집되었다. 1982년에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유적은 남해안지역의 고분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구조 및 내부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립광주박물관, 198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분구 현황도

현실 입구부

출토유물

55 해남 만의총 1호분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500-1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2008.12.~2009.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 / 상형토기(서수형토기), 유개대부발

조사지역은 옥천면 성산리 일대로 옥천면은 해남군의 동쪽에 있는 면으로 사방이 산(만대산·덕음산·덕룡산·석문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남쪽의 산지에서 발원해 면 중앙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옥천천을 본류로 하여 대산천과 월평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해남 곡창지대 중 하나인 옥천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유적은 옥천천이 가로질러 흐르는 옥천평야(대교들)에 약 400m 간격을 두고 3기가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구묘가 확인되었다. 현재 분구의 형태는 원형이며, 길이는 약 18m 높이는 3.5~4m 정도로 추정된다. 주구는 분구 주위에 둘러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고분 주변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일부에서만 그 흔적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는 석곽묘로 크기 길이 238㎝, 너비 78㎝ 내외, 깊이 38㎝ 내외 이며 장축방향은 정동-정서에 가깝다. 가야 토기는 석곽묘에서 상형토기와 대부발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확인된 석곽묘는 구조와 출토유물의 조합상에서 매우 이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유물은 가야·백제·신라·왜계 유물이 공반하고 있는데, 4개국의 유물이 한 유적에서 출토된 양상은 매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유적에서 확인된 자료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지역 수장층과 대외관계, 그리고 주변 세력과의 교류 혹은 유대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만의총 1호분

석곽

출토유물

56

영암 만수리 4호분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산120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광주박물관 / 1989.9.~198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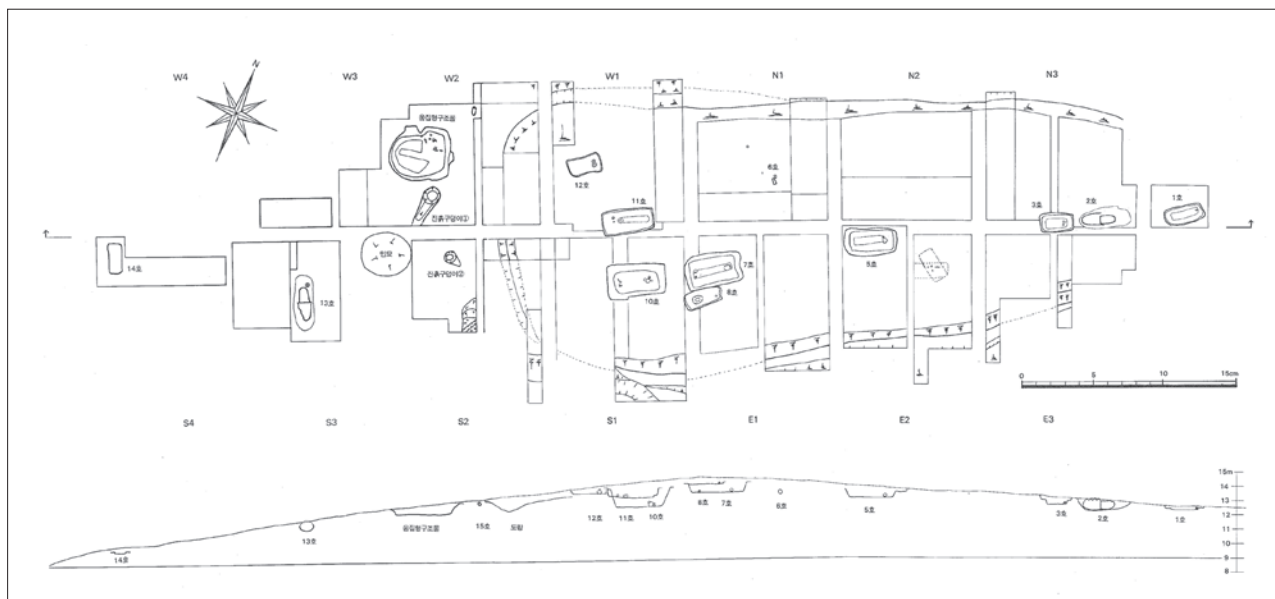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 광구소호

조사지역은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산120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은 해발 10m 내외의 구릉에 위치하는데 고분군의 북쪽에 있는 해발 23.8m의 구릉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좁은 목을 형성하고 다시 조그만 동산을 이루고 있다. 동쪽에 위치한 1·2호분은 경사면의 자락에 있고 3·4호분은 말단부에 도드라진 부분에 위치한다. 만수리 4호분의 분구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띠고 있는데 남서쪽이 북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주구 윤곽도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제형고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분구의 끝자락에서 주구의 흔적이 나타났으며 매장주체시설로는 토광묘 10기와 옹관묘 5기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광묘 10기와 옹관묘 5기 등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10호 토광묘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광구소호가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일반적인 규모로 판단된다. 만수리 4호분의 매장시설은 목곽묘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옹관묘 중심의 영산강유역 고분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 축조재료와 내부시설의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립광주박물관, 1990, 『영암 만수리 4호분』.

유구 배치도

10호 목곽묘

10호 목곽묘 출토유물

57

영암 신연리 9호분

|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39호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11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광주박물관 / 1991.8.~199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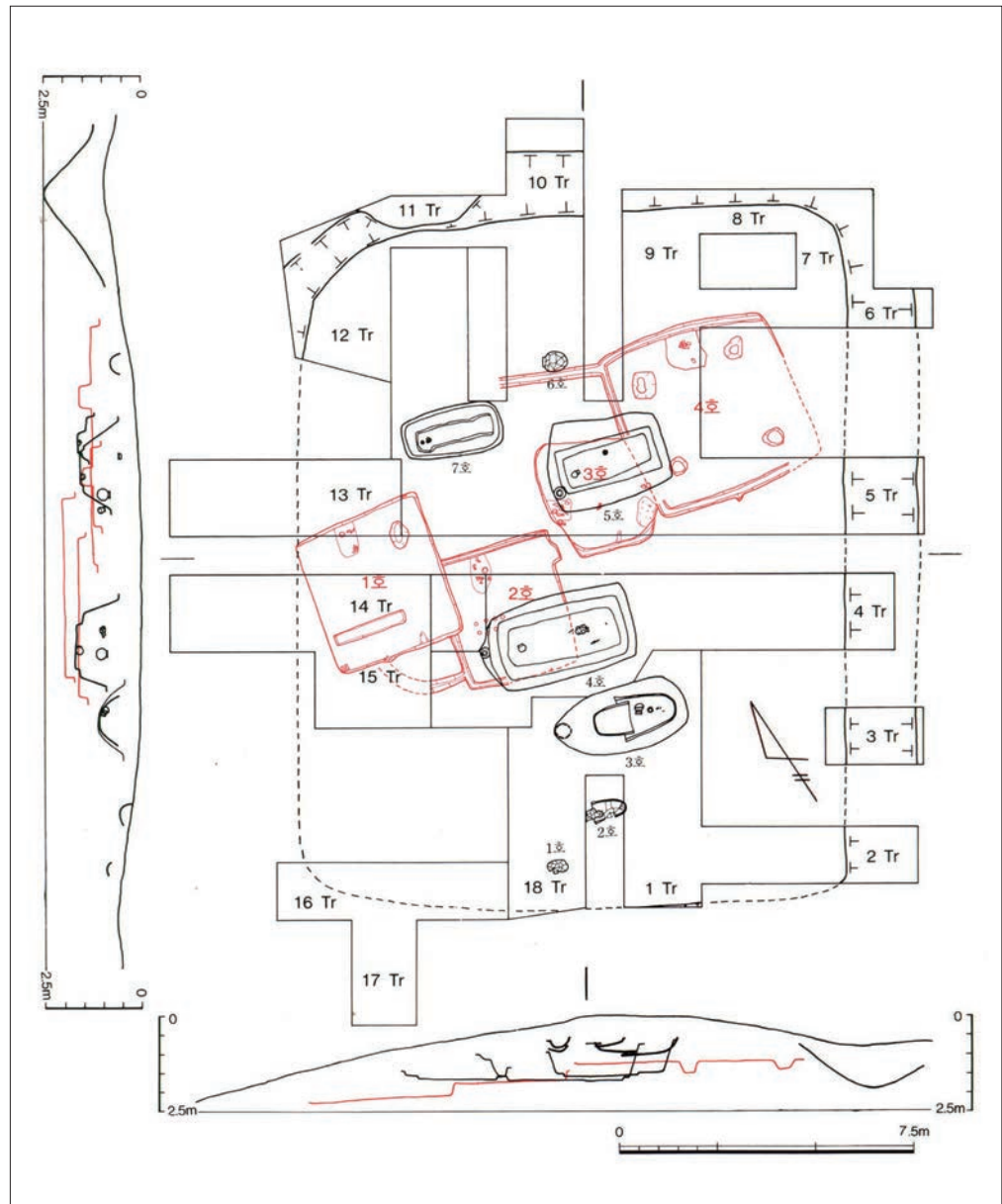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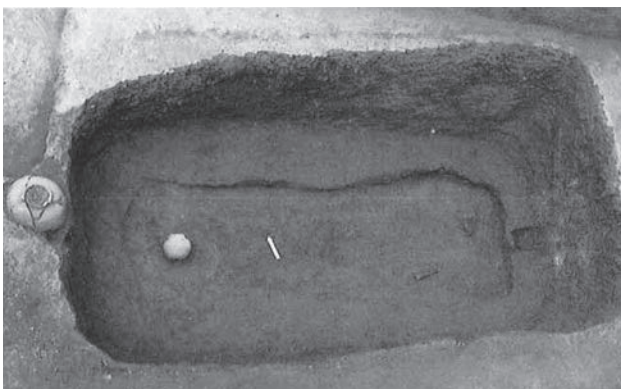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단경호, 기대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1151과 1154에 위치하고 있다. 신연리는 시종면의 북부에 있는 마을인데 옥야리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20m 내외의 구릉 끝에 해당한다. 영산강하구의 공사로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해발 2~3m의 저지대이다. 따라서 고분군의 바닷물이 깊에 만입하는 사이에 길게 튀어나온 지역에 위치하는데 뒷모실마을을 남서에서 북서쪽으로 감싸는 구릉의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은 14기 이상이 확인되는데 구릉을 따라 형성된 대밭에 7기의 고분 분구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9호분 분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지만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북동쪽 주구가 사면 아래쪽으로 가면서 좁아들고 있어 제형을 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구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로 구릉의 능선방향과 직교한다. 분구 주위에서는 'ㄷ'자형 주구가 확인되며 고분의 규모는 분구길이 16m이상, 너비 17.8~18.5m, 주구 어깨선기준 현재 높이 1.5m 내외이며 주구 너비 3~4.5m, 깊이 0.6~1m이다. 분구는 남동쪽이 북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옹관묘 4기와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4호 목곽묘와 주구에서 승석문단경호와 기대 편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일반적인 규모로 판단된다. 신연리 9호분의 매장시설은 목곽묘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옹관묘 중심의 영산강유역 고분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 축조재료와 내부시설의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립광주박물관, 1993, 『영암 신연리 9호분』.

유구 배치도

4호 목곽묘

출토유물

58

함평 국산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국산리 312-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목포대학교박물관 / 1999.7.~19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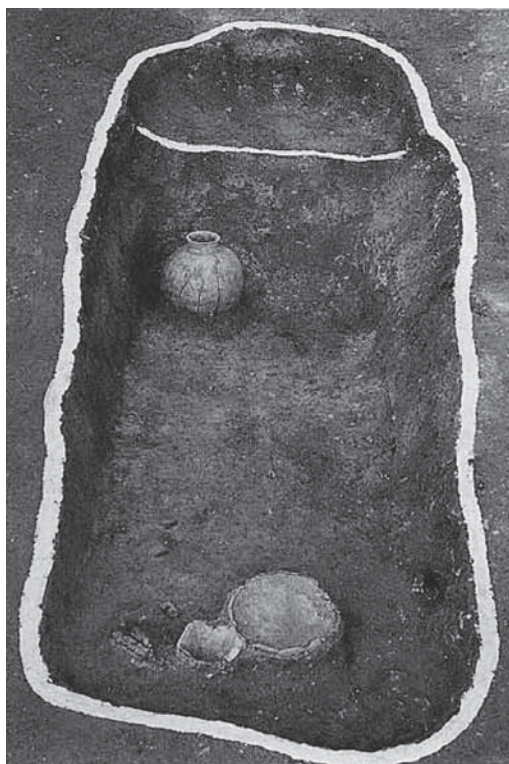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 광구소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국산리 312-46 일대이다. 해발 257m 정도의 매방산에서 흘러내린 해발 30~40m의 산지성 구릉지에 자리한다. 마을 북쪽방향으로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구릉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가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마을 뒤편으로 분포하고 있는 완만한 구릉부에 해당되는 밭에 입지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광묘 2기, 주거지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2호 토광묘 등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광구소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지정리와 경작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확인된 토광묘는 매장주체부 주위로 주구를 두르지 않고 있으며, 군집현상을 보이지 않고 단독으로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확인된다. 축조재료와 내부시설의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함평 성남·국산유적』.

2호 토광묘

2호 토광묘 출토유물

59

함평 성남유적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87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목포대학교박물관 / 1999.7.~1999.9.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 광구소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성남마을 일대이다. 유적은 해발 20~30m 정도의 낮은 구릉사면부와 그 사이의 좁은 곡간평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칭 '지성골'로 불리고 있는 곳이다. 유적은 함평군과 무안군의 경계 구릉지로서 함평 방향에서 무안 방향으로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토광묘 4기, 옹관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호 토광묘 등에서 가야 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광구소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경지정리와 경작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다. 확인된 토광묘는 매장주체부 주위로 주구를 두르지 않고 있으며, 군집현상을 보이지 않고 단독으로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확인된다. 축조재료와 내부시설의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함평 성남·국산유적』.

1호 토광묘

1호 토광묘 출토유물

60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 전라남도기념물 제55호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170-1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4.12.~1995.3. 2001.8.~2001.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광구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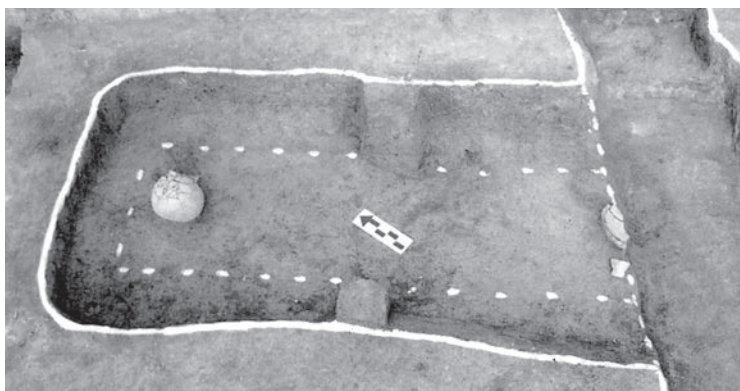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월암산(해발 350.9m)에서 월계리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해발 100m 정도까지는 급경사를 이루지만 점차 낮아져 해발 60m 내외의 넓은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월계리 월계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구릉은 점차 낮아지다가 예덕리 신덕 마을 뒤편에서 다시 높아지며 독립구릉의 정상부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예덕리 신덕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제형분 14기 등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14-3호묘에서 가야토기가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광구소호가 출토되었다.

유구는 고분의 밀집도가 매우 높고 공간의 구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호분은 방형계를 띠나 나머지 고분군은 장제형을 띠고 있다. 조성된 고분들은 후대 추가장이 이루어져 부분적으로 확장되어 주구의 너비와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평면형태도 정연하지 못한 특징을 보인다. 영상강유역의 대형고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4세기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대학교박물관, 2004,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14-3호묘

14-3호묘 출토유물

61

장성 영천리 횡혈식석실분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산15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남대학교박물관 / 1986.6.~1986.7.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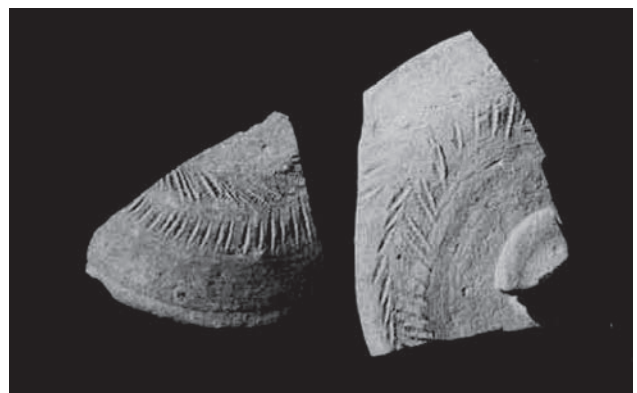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산152 일대의 구릉상에 위치해 있다. 장성군 북쪽에 있는 노령산맥은 서남향으로 서해까지 길게 뻗어있는데 그 일맥이 입암산에서 남쪽으로 향해 영산강과 접하고 있다, 이 지맥의 산기슭에 황룡강을 향해 세장한 구릉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영천리고분도 이러한 구릉 중 하나에 자리잡고 있다. 구산마을 북쪽에 있던 세장한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분 1기가 확인되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을 띠고 있으며 봉분의 직경은 17m 높이가 3m이다. 석실의 규모는 현실 길이 280~290㎝, 너비 220~240㎝, 높이 170~200㎝로 거의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현실 평면형태는 거의 방형에 가까운 구조이며 축조방법에 있어 모줄임이 확인된다. 천정은 궁륭상에서 발전된 맞조림식이며, 중앙연도를 둔 형식이다. 연도는 길이 320㎝, 너비 160~130㎝, 최대 높이 150㎝로 입구쪽이 약간 좁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확인되었다.

가야 토기는 매장주체부인 석실묘의 현실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개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인근의 남원 초촌리와 고부 은선리의 석실분들과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지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해 볼 때 6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남대학교박물관, 1990, 『장성 영천리 횡혈식석실분』.

석실 전경

출토유물

62 전주 평화동 대정II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458-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15.7.~2015.9.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석곽묘, 석실분 / 개배, 호형토기 삼족토기, 금제이식, 철기류

이 유적은 해발 65m 내외의 구릉지로 동쪽으로는 호남정맥 옥녀봉에서 갈라진 해발 300m 이상의 지류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천 주변으로 너른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수범건설에서 시행하는 평화동 아파트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대정Ⅱ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5기와 수혈 39기·고분 4기, 고려~조선시대 수혈 1기, 토광묘 13기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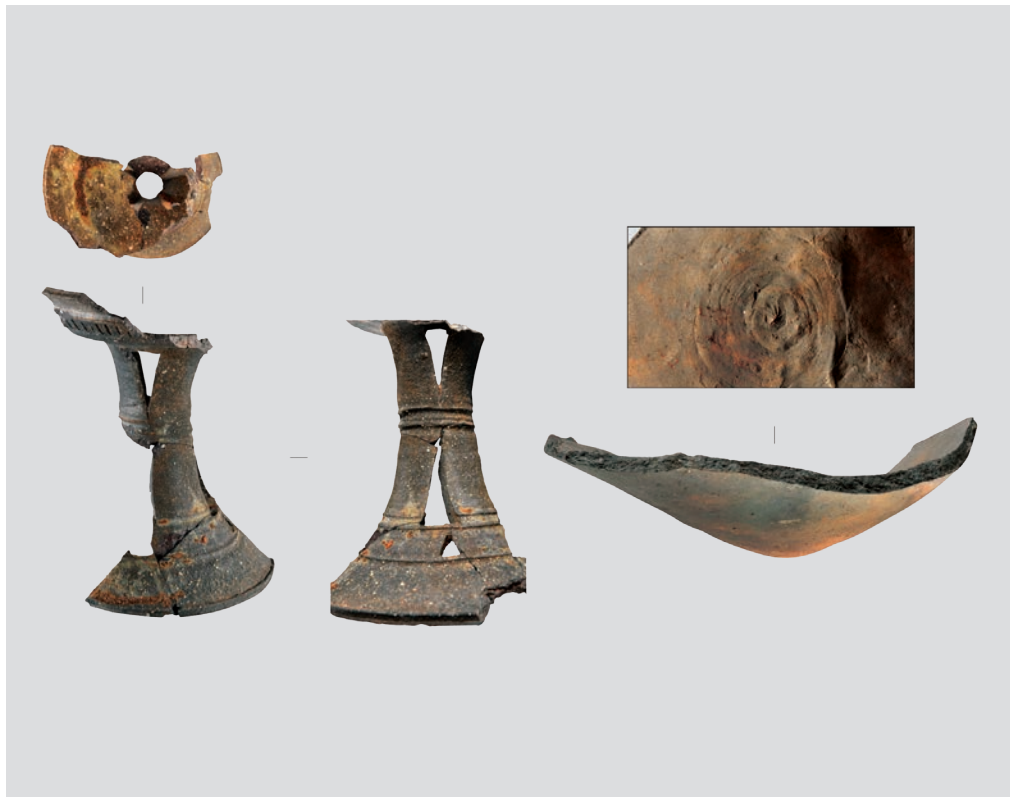
가야 토기가 나온 수혈은 원형·방형·장방형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와 동일한 구역에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대형의 토기류가 주로 출토되어 주거지와 연관된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주거지와 수혈에서는 주구토기와 장란형토기·발형토기·호형토기를 비롯하여 시루·양이부호·장동옹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특징은 마한과 백제, 가야의 문화적인 요소가 함께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전주지역에서는 마한의 전통적인 문화가 지속되면서 백제의 문화요소가 본격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다. 가야의 문화요소는 2호 수혈에서 나온 소가야계 고배형기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남강유역과 대정Ⅱ유적의 교류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정Ⅱ유적에서 재지계 마한문화에 백제와 소가야계 문화의 접목이 이루어진 것은 만경강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 평화동 대정Ⅱ유적은 출토유물과 유구의 양상을 통해 볼 때 주거지와 수혈이 빠르고 고분이 약간 늦은 것으로 보이며, 조성 시기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후엽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전주 평화동 대정II유적』.

유적 전경

2호 수혈 출토유물

63 전주 안심·암멀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상림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0.3.~2012.2.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석곽묘, 석실분 / 개배, 호형토기, 삼족토기, 금제이식, 철기류

만경강유역 내 전북혁신도시는 중국식 동검이 출토된 완주 상림리를 중심으로 완주 갈동·신풍·원장동·만성동 등 10여 개소의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 전주 안심·암멀유적은 초기철기시대부터 백제까지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함께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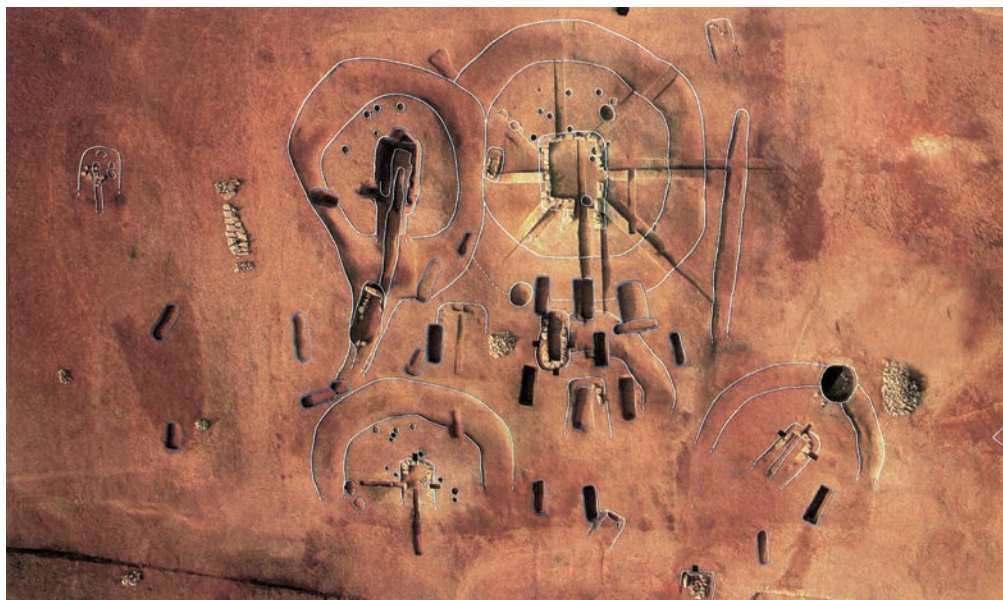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안심·암멀유적에서는 구릉지 정상부와 사면부에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토광묘·옹관묘, 삼국시대 석곽묘·석실분,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토광묘는 안심유적 내 구릉지 정상부에서 10기가 조사되었는데, 유물은 호형토기와 환두대도·철겸·도자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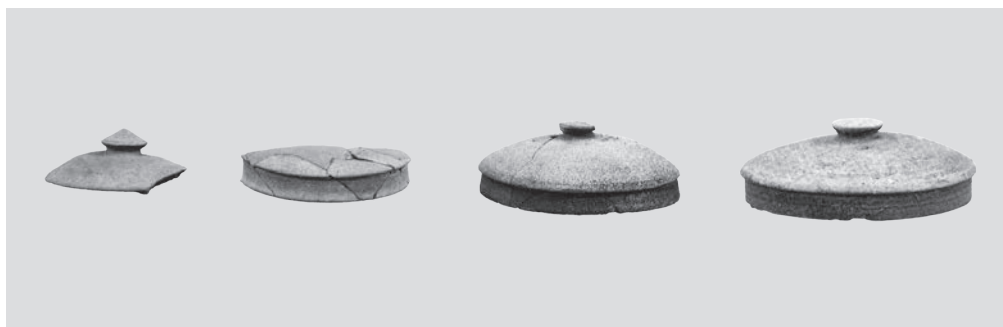
삼국시대 분묘는 안심유적에서 22기, 암멀유적에서 29기가 조사되었는데, 종래에 전주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유적 중 가장 밀집된 분포양상을 보인다. 분묘의 유형은 횡혈식석실분, 횡구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 등으로 바닥에 돌을 깐 것, 무덤 밖으로 배수로를 시설한 것, 무덤 주위에 주구를 두른 것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유물은 금제이식과 개배·호형토기·삼족토기 등 토기류와 철부·철겸·철제관테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안심유적 4호분에서 나온 철제관테는 부여 왕흥사지 목탑지, 부여 능산리·염창리고분군, 나주 복암리 3호분, 서천 추동리고분군 출토품과 상통한다. 가야계 토기인 개는 2호분과 19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전자는 개신의 중앙에 보주형꼭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후자는 개신의 중앙에 부착된 단추형꼭지를 중심으로 원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전주 암멀유적 내 수혈식석곽묘와 횡혈식석실분의 축조 시기는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전주 안심·암멀유적』.

안심유적 전경

안심유적 2호분

출토유물

64

군산 산월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58-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군산대학교박물관 / 2002.3.~2002.5.

주요 유구 / 유물
분구묘, 옹관묘, 석곽묘, 석실분 / 토기류, 철기류, 구슬류, 토제품, 이식

군산 산월리유적은 대명산에서 고봉산을 지나 대야면 소재지까지 남-북 방향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갑자기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다. 1999년 산줄기를 따라 임도를 개설하면서 생긴 절단면에 주구묘와 옹관묘가 그 모습을 드러내 처음 발굴조사가 시작되었고, 2002년 문화재청의 긴급발굴비를 지원받아 가지구와 나지구로 나누어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가지구에서는 마한의 분구묘와 주구묘, 옹관묘가 나지구에서는 마한의 주거지 4기와 토광묘 43기, 백제의 수혈식석곽묘 3기와 횡혈식석실분 7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토기류 239점, 철기류 74점, 구슬류 254점, 토제품 13점, 이식 2점, 석기 5점 등 578점이 출토되었다.

가야 토기는 5호분에서 출토된 소가야계 고배 편과 8호분에서 나온 대부장경호가 있다. 고배 편은 외반된 구연부가 기신에 비해 길게 마련되었고, 기신은 둥근 형태를 이룬다. 대각부는 일부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없지만 배부와 만나는 부분에 4개의 세장방형투창이 마련되었다. 대부장경호는 광구장경호에 높은 대각이 부착된 형태이다. 경부는 나팔모양으로 벌어졌으며, 동체부는 최대복경이 중앙에 위치하여 구형을 이룬다. 대각은 중위에 마련된 2조의 돌대와 하위에 마련된 2조의 음각선에 의해 3구획되었고, 상단부와 중단부에 2조의 시문구에 의해 삼각거치문이 시문되었다. 장수 노하리 가야계 수혈식석곽묘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상통한다.

금강의 관문인 군산은 금강·만경강·동진강 내륙수로와 바닷길이 하나로 응축된 물류의 중심지로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군산을 중심으로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교역망을 따라 국내외의 역동적인 교류관계가 담긴 곳으로 분묘유적의 조성 시기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군산대학교박물관, 2004, 『군산 산월리 유적』.

나지구 전경

8호분

8호분 출토유물

65 익산 동용리 백제고분군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산106-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북문화재연구원 / 2007.9.~2007.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분 / 유개장경호, 직구단경호, 삼족토기, 철기류, 금동이식

익산 동용리 백제고분군은 한국도로공사 남원전주건설사업단에서 실시하는 논산-전주간 확장공사(1지역)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 1기, 백제석실분 및 석곽묘 18기, 옹관묘 3기, 시대 미상 토광묘 3기 등 모두 2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수혈 1기와 시대 미상의 토광묘 3기, 그리고 8호 석실분과 중복된 7호 소형 석곽을 제외하면 모두 백제 때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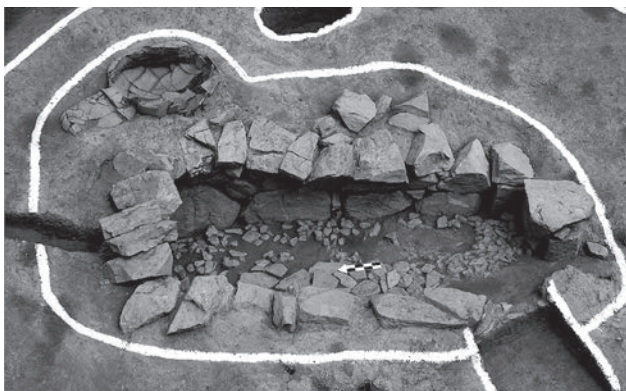
석축묘는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수혈식석곽, 횡구식석곽, 횡혈식석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곽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고분의 입지와 축조 방법을 보면 소형 석곽 몇 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되게 장축방향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수혈식석곽의 축조 전통을 가진 집단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횡혈식석실의 경우도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두어 수혈식석곽 전통에 횡혈식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유물은 광구장경호, 유개장경호, 직구단경호, 대부직구단경소호, 광구호, 단경호, 단경병, 삼족기, 개, 배, 완, 고배,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방추차, 철도, 철부, 철겸, 철도자, 관고리, 관정, 금동이식, 은곳, 동곳, 과대금구 등이 출토되었다. 가야 토기는 18호분에서 나온 대가야계 유개장경호가 있다. 동체부는 구형에 가깝고 경부는 수직으로 올라갈수록 외경하다가 구연부에서 내만한다. 경부 외면에는 횡침선을 돌려 4단으로 구획한 뒤 9~10조의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 유적은 백제 무령왕 때 가야지역에 있던 많은 백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펼쳤던 쇄환책에 따라 고향인 백제로 돌아온 집단으로 판단된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18호분에서 나온 대가야계 유개장경호를 근거로 6세기 초에서 중엽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익산 동용리 백제 고분군』.

유적 전경

18호 석곽묘

18호 석곽묘 출토유물

66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가남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09.11.~2010.3.

주요 유구 / 유물
적석노지, 석곽묘, 석실분 / 토기류, 철기류, 구슬류

고속국도 제12호선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1공구로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와 가남리 일대로 해발 120~160m의 산사면부에 해당된다. 이 유적에서는 산사면의 북쪽과 동쪽으로 섬진강변의 넓은 충적지와 남원, 임실, 담양으로 이어지는 산세가 한 눈에 잘 조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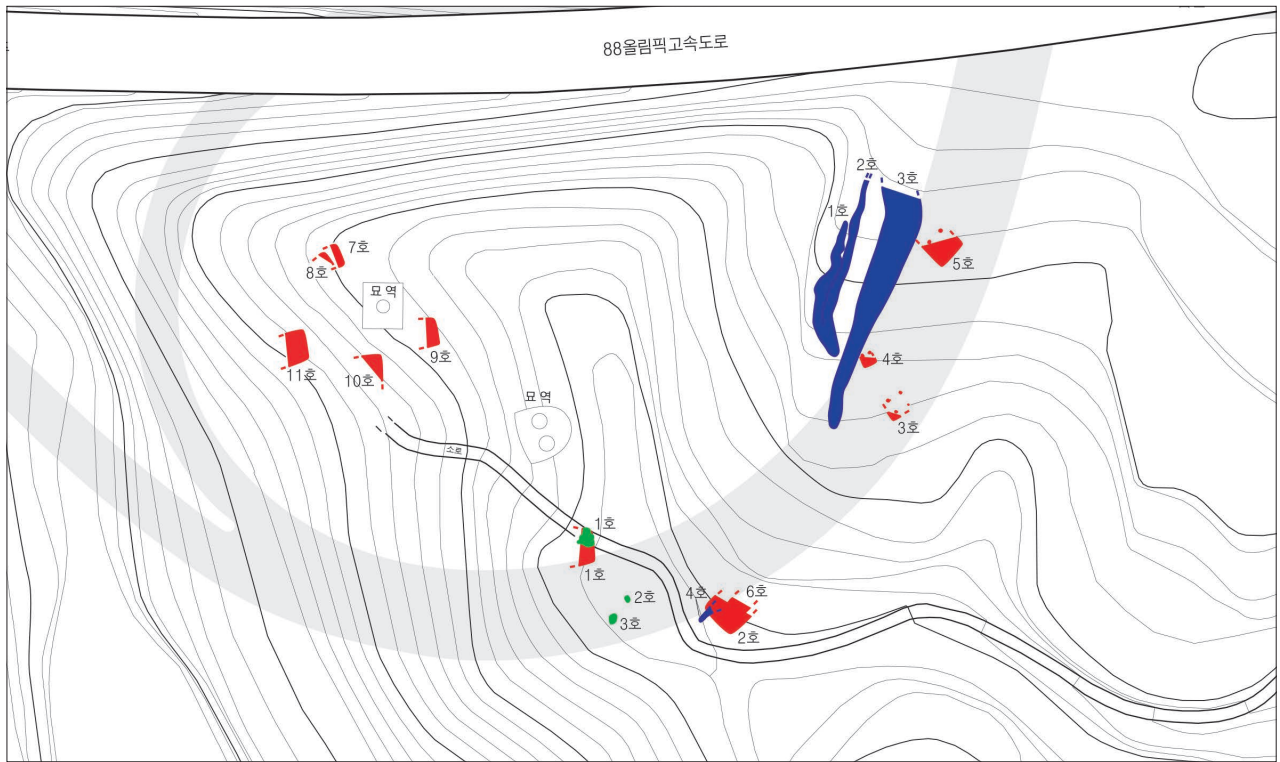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와 수혈, 구, 조선시대의 수혈, 구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교성리유적에서는 11기의 삼국시대 주거지가 일정한 공간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모두 평면 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3~6m 내외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4주공과 벽구, 부뚜막, 타원형구덩이 등이 시설되었고 유물은 연질의 완형토기,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파수부토기와 연통으로 사용되는 원통형토기, 유공소호와 직구단경호, 파수부잔, 경배, 개배, 파상문이 시문된 기대 등 다양하다.

주거지의 구조와 유물상으로 볼 때 동일 주거군내에서 마한계 유물과 백제계 유물, 가야계 유물이 혼재되어 있다. 주거지에서 수습된 목탄시료를 대상으로 측정한 방사성탄소연대의 보정 연대 값은 기원후 4세기 초반~5세기 초반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 삼국시대 주거지는 전남과 전북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전형적인 마한 주거지이며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마한계, 백제계, 가야계의 유물이 혼재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내부구조,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값 등을 고려할 때 기원후 4~5세기대를 중심 연대로 설정할 수 있다. 순창지역에서 4주식 주거지의 등장과 성행, 유공소호와 원통형토기, 삼각투창의 기대 출토 등은 앞으로 호남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

교성리 유적 유구 배치도

11호 주거지

11호 주거지 유물 출토모습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67 순창 구미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91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13.6.~2013.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분 / 토기류, 철기류, 구슬류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서북쪽 기슭 데미샘에서 발원하는 섬진강은 전북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종단한 뒤 남해안으로 들어간다. 순창 구미리유적은 섬진강 중류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섬진강이 줄곧 남쪽으로 흐르는 동쪽 충적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전북 동부지역 중 가야계 분묘유적의 밀집도가 높지 않은 곳으로 20여 기 이상 되는 석곽묘, 석실분 중 가야계 수혈식석곽묘는 한 기만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순창 구미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적석노지 4기, 적석유구 3기, 수혈 3기가 청동기시대의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의 유구는 생활유구와 분묘유구로 구분되며, 전자는 주거지 2기, 수혈 1기, 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후자는 토광묘 1기, 석실묘 1기, 석곽묘 23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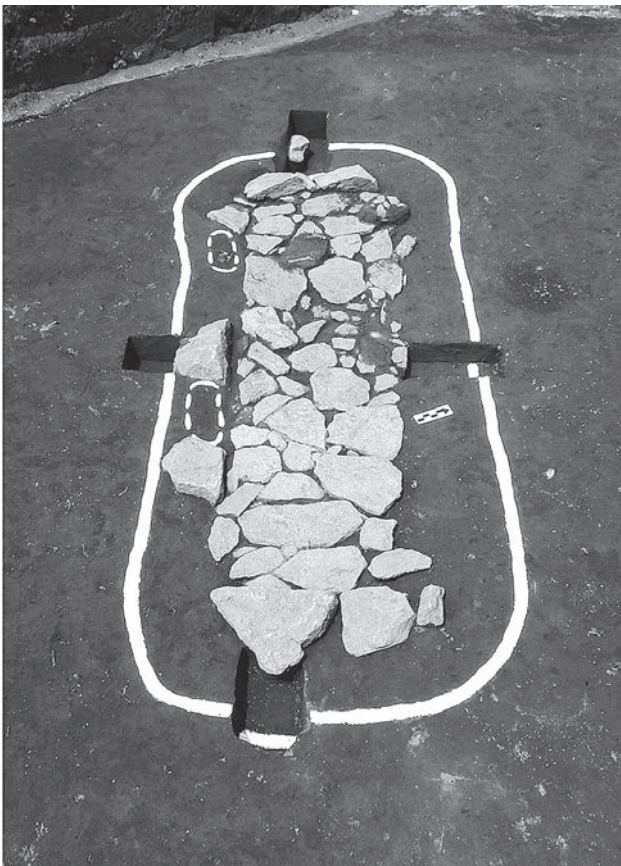
삼국시대 유구는 생활유구와 분묘유구로 나뉜다. 조사지역 북쪽의 소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생활유구가, 남쪽은 분묘유구가 분포되어 있다. 생활유구는 주거지 2기, 수혈 2기, 구 1기가 조사되었으며, 분묘유구는 토광묘 1기, 석실묘 1기, 석곽묘 23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어 분묘유구의 집중도가 높다. 가야 토기가 나온 19호 석곽묘는 다른 고분과 직교되게 동서로 장축방향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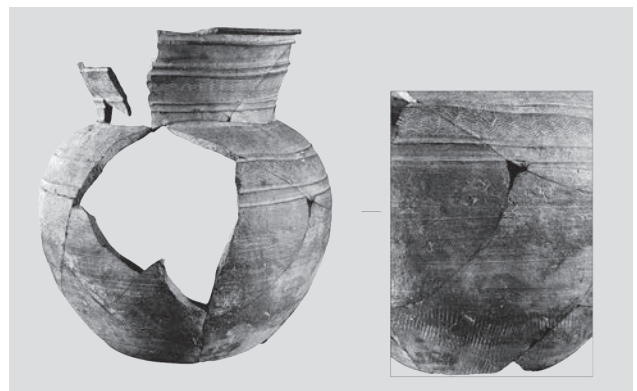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나뉘며, 전자는 발·단경호·직구호·장경호·병·삼족기·고배·뚜껑 등이 있으며, 후자는 가위·철겸·철부·철도자·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금동이식, 옥류, 방추차가 포함되어 있다. 가야 토기는 19호 석곽묘에서 나온 광구장경호로 경부와 동체부 견부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전북 동부지역의 삼국시대 분묘유적 내 석곽묘, 석실분과 유구의 속성이 상통하며,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순창 구미리 삼국시대 분묘유적의 축조 시기는 5세기 말엽부터 6세기 전반기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순창 구미리유적』.

삼국시대 석곽묘군 전경

19호 석곽묘

19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9호 석곽묘 출토유물

68

고창 봉덕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남문화재연구원 / 2000.12.~2001.3.

주요 유구 / 유물
방형추정분, 옹관묘 / 기대, 고배, 유공광구소호,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인천강 최상류의 구릉지와 들판이 발달한 고창분지의 중앙부로 고창천 북쪽 구릉지에 자리한다. 아산~고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창 봉덕유적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군, 서쪽에는 금동신발이 나온 고창 봉덕고분군 등 많은 유적이 부근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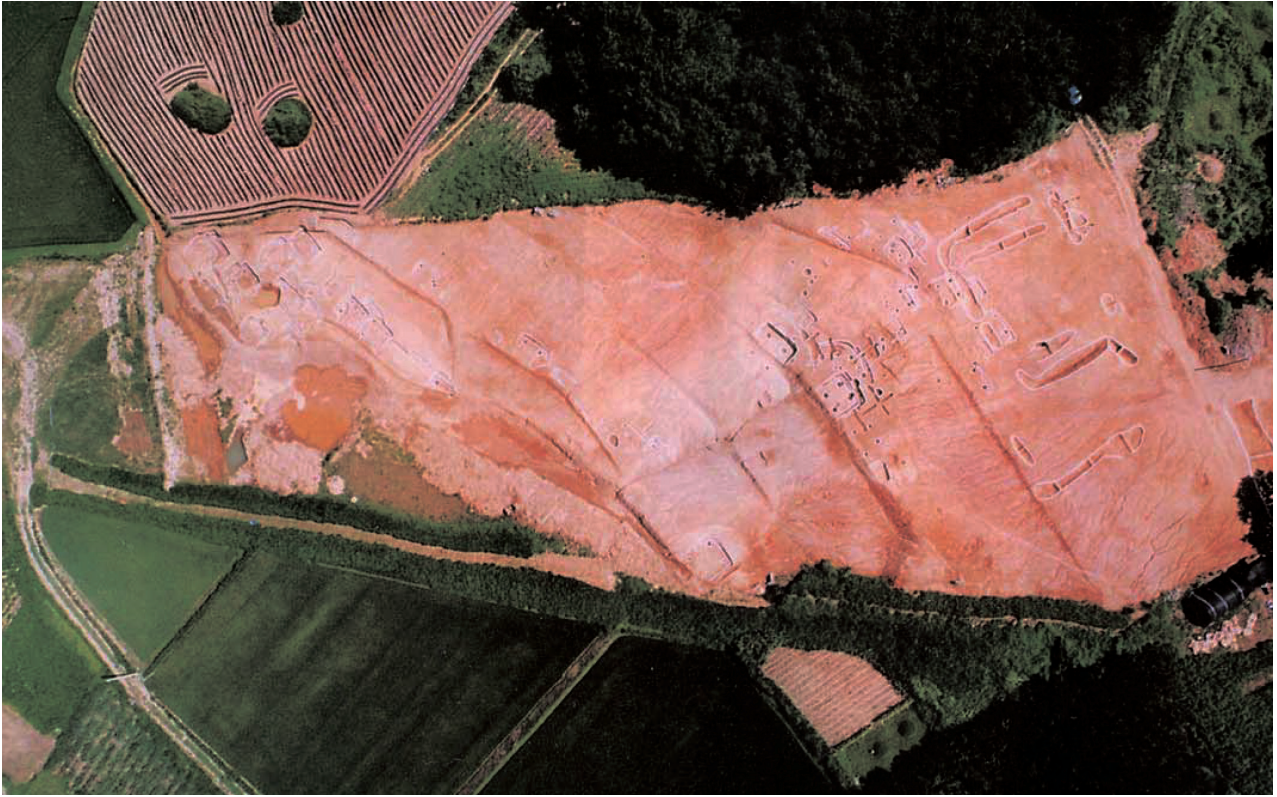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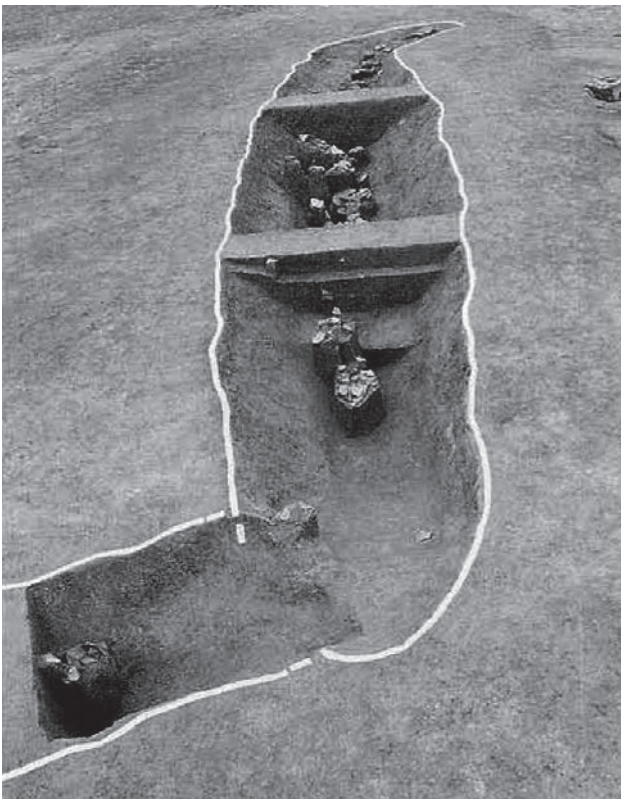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방형추정분과 옹관묘 각각 1기와 구 6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기대·고배·개배·직구호·유공광구소호·양이부호·유공장군·장란형토기·발형토기·시류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방형추정분은 구릉지 정상부 서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에 분구가 남아있지 않아 거의 'U'자형으로 파낸 주구를 통해 고분의 형태가 파악되었다. 주구는 모두 6기로 북쪽과 남쪽에 동-서 방향으로 굴착된 2기와 동쪽에 서쪽에 남-북 방향으로 파낸 4기가 있다. 주구를 근거로 복원된 고분은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25m, 남-북 너비 17.5m이다.

유물은 석기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토기류로 철기류와 옥제품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방형추정분 남쪽 주구의 상층에서 출토된 기대는 가야계 발형기대로, 배는 배심이 깊은 편이고 구연부가 수평으로 외반되었다. 그리고 돌대를 돌려 5단으로 구획한 뒤 1단에는 유충문, 2~4단까지는 밀집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대각부는 모두 4단으로 구획한 다음 1~3단은 각각 밀집파상문을 시문하였으며, 각각의 단에는 방형의 투창을 상하로 지그재그방식으로 뚫었다. 가야계 토기로는 경부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광구장경호와 컵형토기, 고배 등이 더 있다.

영산강유역 마한의 분구묘와 유구의 속성이 흡사하며,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방형추정분은 대체로 5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고창 봉덕유적』Ⅰ.

유적 전경

방형추정분 남쪽 주구

남쪽 주구 출토유물

69

고창 봉덕리 1호분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2008.10.~2009.12.

주요 유구 / 유물
석실, 옹관, 석곽 / 금동식리, 토기류, 자기류, 금속류, 옥석류

고창 봉덕리 1호분은 태봉(해발 110.4m)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이 끝나는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1호분과 연접하여 2호분, 그리고 남쪽 산자락을 따라 3호분과 4호분이 위치해 있다. 분구의 규모는 동서 길이 70m, 남북 폭 50m, 최대 높이 7m 내외이며,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방대형이다. 분구 내부에서는 석실 5기와 옹관 2기 등 모두 7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고, 조성 시기를 달리하는 후대의 석곽 9기가 남쪽 분구 사면과 주구 내부에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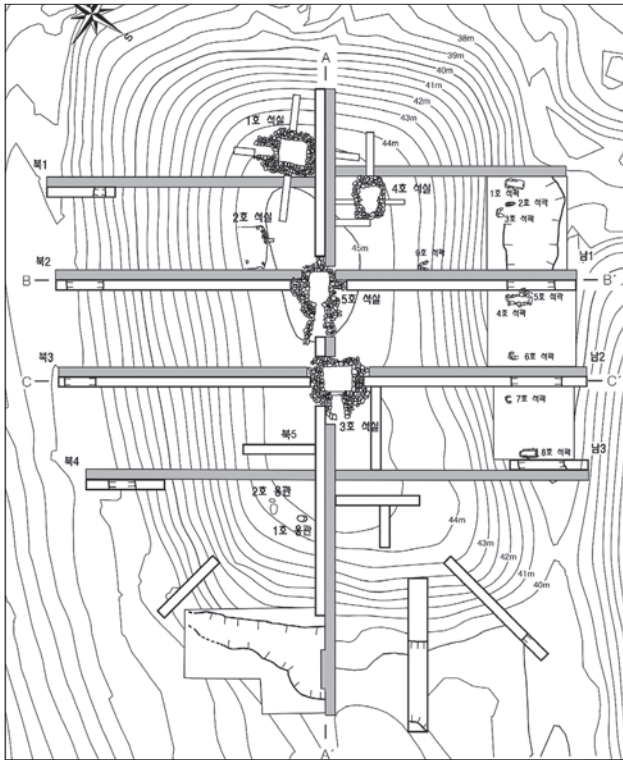
유물은 매장시설인 석실과 옹관을 비롯하여 분정, 그리고 주구 내부에서 토기류, 자기류, 금속류, 옥석류 등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4호 석실에서는 은제머리장식을 중심으로 금동식리, 중국제 청자 등의 위세품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위상을 연구하는데 값진 학술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토기류는 '고창계 토기'로 명명된 다투창식고배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뚜껑에는 가야토기의 상징적인 문양인 파상문과 점열문이 시문되어 가야와의 교류관계가 확인되었다. 4호 석실의 피장자 좌측 허리부근에서 청동탁잔과 함께 나온 장식유공광구소호는 고배형 기대와 조합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속성이 부산 복천동 53호분 출토품과 상통한다. 그리고 동체부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고배형 기대는 합천 봉계리, 부안 죽막동, 고창 자룡리에서 출토된 것과 유물의 속성이 흡사하다.

철기류는 무구류, 공구류, 마구류, 꺾쇠, 철정 등이 있는데, 4호 석실에서 나온 재갈은 완형의 타원형경판부비로 그 속성이 남원 월산리 M5호분, 청주 신봉동 83호분 출토품과 흡사하다.

고창 아산면 일대를 거점으로 성장한 마한 재지세력의 분묘유적으로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1호분 축조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원강대학교 마한·백제문화재연구소, 2016, 『고흥 봉덕리 1호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4호 석실

4호 석실 출토유물

W5N1 서쪽 주구

W5N1 서쪽 주구 출토유물

70 고창 자룡리·석남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석남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0.3.~2011.8.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분구묘, 구 / 기대, 대호, 유공광구소호, 장경호, 철기류, 구슬류

본래 내륙 깊숙이 복주머니모양의 해안선이 발달한 고창군 서남부에 자리한다. 고창 상하~구시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창 자룡리·석남리유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석남리지석묘, 장산리고분군, 검산리봉수대지, 고리포봉수대지, 5개소의 유물산포지 등 많은 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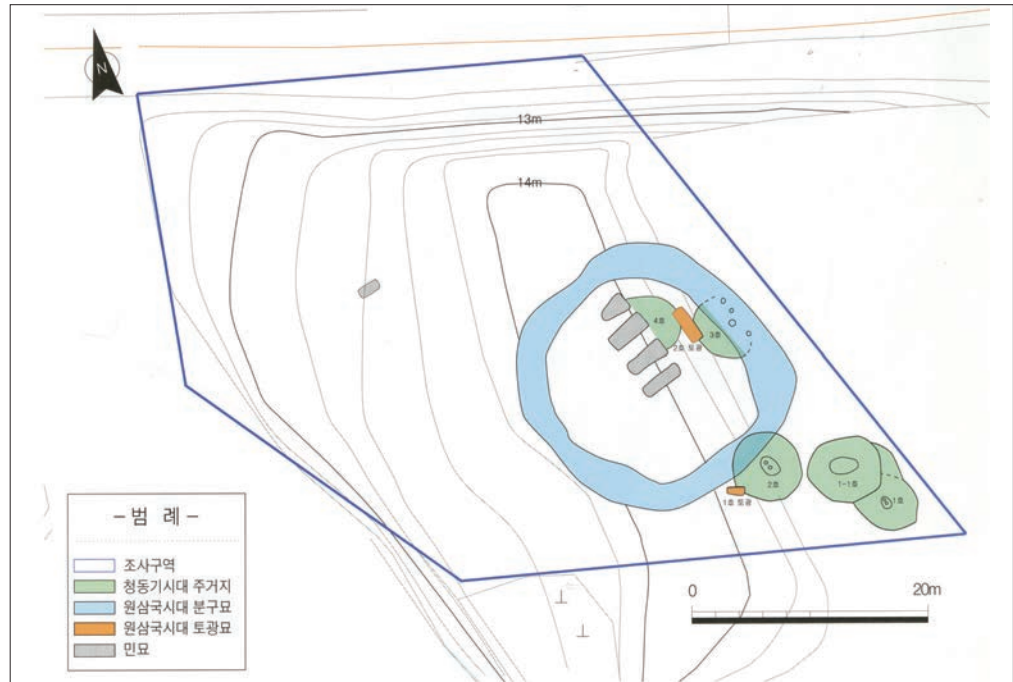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석남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원삼국시대 분구묘, 자룡리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서로 중복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유물은 기대·유공광구소호·대호·단경호·장경호·병·완·잔·개배·고배 등 토기류, 철검·철부·철촉·도자 등 철기류, 환옥·관옥 등 옥류가 출토되었다.

가야계 기대가 출토된 석남리 분구묘는 구릉지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전 농경지의 개간과 민묘 구역 조성으로 분구가 유실되고 주구만 확인되었다. 주구는 적갈색풍화암반토를 거의 'U'자형으로 파내어 마련되었는데, 규모는 너비 130~160㎝ 깊이 20~50㎝이다. 분구묘는 그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직경 14.2m 내외이다.

유물은 석남리분구묘의 서쪽 하단부 주구 내에서 기대·대호·장경호·양이부호·개배 등이 출토되었다. 가야계 발형기대 편은 수부가 대부분 결실되고 바닥만 남아있으며, 외면에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각부는 나팔모양으로 크게 벌어지며, 대각부는 각각 2조씩 4개의 돌대를 둘러 4단으로 구획하였다. 1~3단에는 사다리꼴투창이 지그재그방식으로 뚫려 있으며, 각각의 단에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전북 서부지역 마한 분구묘와 유구의 속성이 상통하며,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고창 석남리분구묘의 축조 시기는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고창 자룡리·석남리유적』.

석남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유물 출토모습

출토유물

71 부안 역리 옥여유적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2-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2.12.~2015.4.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분구묘, 구 / 컵형토기, 호, 호형토기, 환두대도, 철정, 철모

부안군 부안읍 소재지 북쪽 상소산(해발 114.9m) 북쪽 기슭 하단부로 구릉지와 평탄대지를 이룬다. 부안 3농공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안 역리 옥여유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역리토성과 부안읍성지, 지비리고분, 서옥리 정천고분, 송정리고분 등 20여 개소의 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원삼국시대 주거지 각각 2기, 수혈 2기, 고려~조선시대까지의 구 2기, 분구묘 3기 등이 조사되었고, 분구묘에서 가야계 컵형토기와 호형토기 등 토기류와 철기류, 구슬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분구묘는 상소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지 정상부에 본래 10여 기 정도 자리하고 있었는데, 오래 전 대부분 유실되었고 당시에 3기만 남아있었다. 1호분은 분구의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직경 22m, 잔존 높이 2.2m로 분구의 동북쪽에서 2기의 옹관묘가 조사되었다. 2호분은 그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직경 10.4m~11.8m, 높이 1.2m의 규모로 분구 내에서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길이 330m, 너비 127m, 깊이 20cm이다. 유물은 토기류와 환두대도·대도·철정·철부·철모 등의 철기류, 구슬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가야계 유물로는 컵형토기와 철정이 있다. 컵형토기는 완형으로 저부가 편평하고 동체부는 완만하게 바라져 중앙에서 최대복경을 이룬 뒤 다시 내만하여 경부와 연결된다. 수직에 가까운 경부는 중앙에 1조의 돌대가 돌아가고 돌대와 동체부 사이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3호분은 2호분과 분구가 연접되어 있으며, 분구 내에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창 왕촌리·자룡리 원형계분구묘와 유구의 속성이 상통하며,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부안 역리 옥여유적에서 조사된 분구묘의 축조 시기는 5세기 전반에서 5세기 중반 경으로 비정된다.

참고문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부안 역리 옥여유적』.

2호분 전경

2호분

2호분 출토유물

72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 사적 제541호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3-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전주박물관 /
1991.5.~1991.6.

주요유구 / 주요유물
없음 / 기대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서해상으로 돌출된 변산반도 중에서도 최선단의 해안절벽에 위치한다. 이곳은 고군산군도, 상왕등도, 위도 등의 섬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연안항해나 근해항해가 일반적이었던 삼국시대에는 남-북을 잇는 중요한 해상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과 왜와 교류할 때에도 반드시 경유해야하는 지점이다.

유적 내에서는 비록 유구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삼국~조선시대까지 제사행위가 이어졌던 유적으로 판단된다. 유적에서 제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던 제장은 수성당 동북쪽의 평탄대지로 판단되며, 이러한 양상은 삼국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 수습된 유물은 90% 이상이 토기이고, 이외에 금속유물, 모조품 등이 있다. 토기는 출토지역에 따라 수성당 동북쪽의 중심부 토기군, 가2구역 토기군으로 구분되는데, 중심부 토기군은 교란되지 않아 유물이 제 위치에 있으며 호, 기대, 옹, 고배 개배 등이 수습되었다. 출토된 토기들은 4세기 중반~7세기 전반까지 백제의 전시기를 망라하고 있다. 금속유물로는 철촉, 철검, 철촉 등의 무구류와 안교, 행엽, 운주, 동경, 혁금구, 교구, 철령, 동령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안교, 행엽, 철모는 그 형태로 볼 때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모조품은 신에게 공헌하기 위해 실물을 축소하거나 모조한 것으로 흙으로 제작된 것과 돌로 제작된 것으로 나뉜다. 돌로 제작된 것으로는 거울, 도자, 곡옥, 판갑 등 다양한데, 실과 같은 것을 이용해 나무에 매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흙으로 제작된 모조품은 토제마와 인형모조품으로 이른 시기의 것은 5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것은 알 수 없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해안가에 위치한 백제의 독립된 노천제사유적으로 제사의 대상은 해양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토기 이외에 가야와 왜계 유물도 함께 출토되어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와 왜도 제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제사의 양상은 초기에 토기만의 노천제사였다가 5세기에 접어들면서 제사에 공헌용 석제모조품이 등장하고, 5세기 중후반부터 옹 중심의 대형토기에 금속유물을 넣고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사를 지낸 주체는 토착세력으로 평범한 지위의 세력이 아닌 해양 교두보능력을 가졌거나 상당한 지위를 지녔던 신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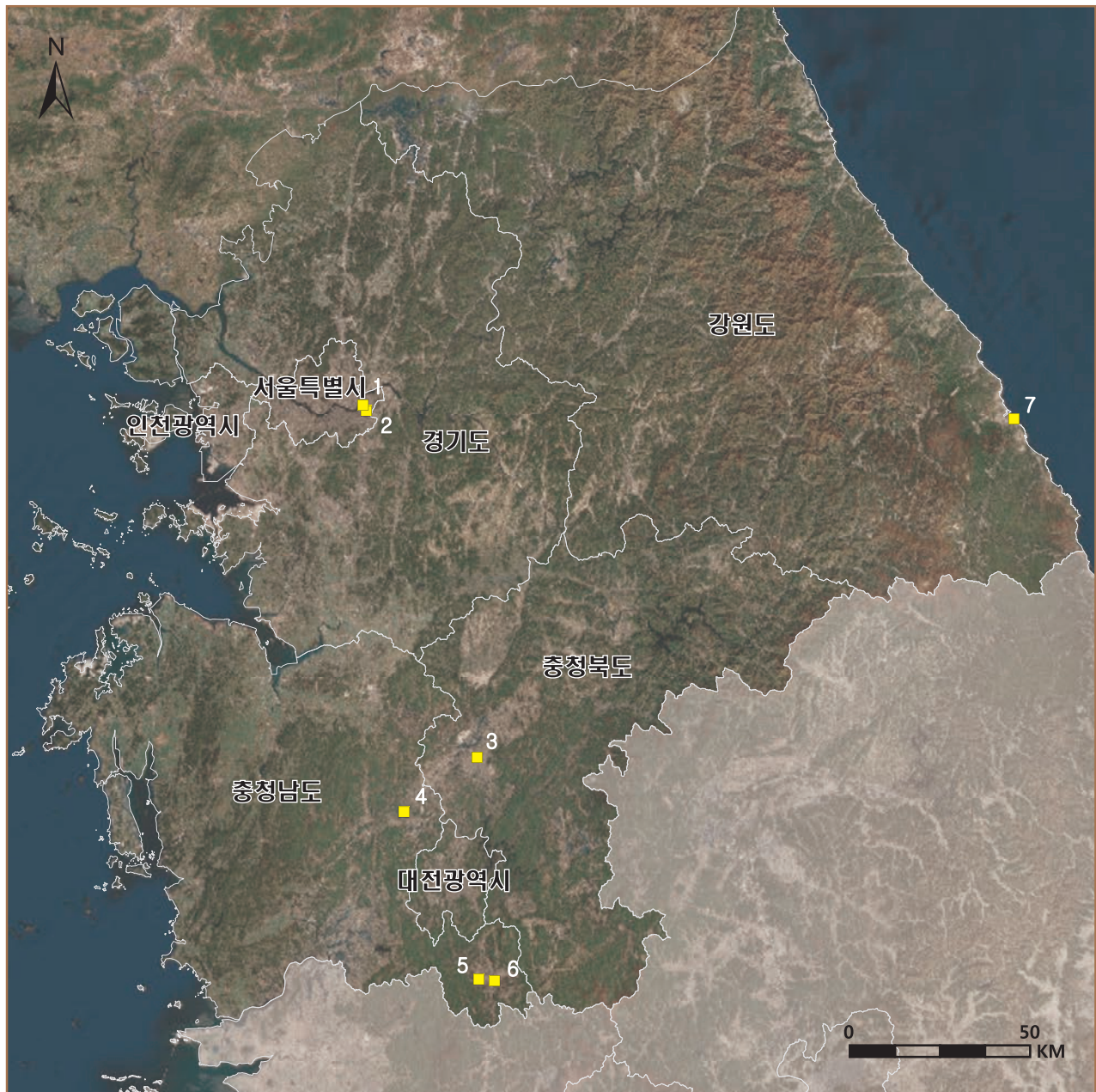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립전주박물관, 1994,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토기류

토우

동경

Ⅲ. 서울·충청·강원

01

풍납토성

| 사적 제11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신대학교박물관 / 1999.9.~2000.5.

주요 유구 / 유물
성벽, 수혈주거지, 대형건물지, 도로, 제사건물지, 우물 / 대옹, 시루, 호, 뚜껑, 바리, 고배, 시유도기, 전문도기, 청자, 기와

풍납토성은 1964년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 조사된 이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여러 조사기관에서 지금까지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28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체성, 문지와 다양한 축조 기법이 확인되었다. 성벽 전체의 길이가 약 3.5㎞이고, 최종 성벽의 너비는 43m, 높이는 9.5m로 확인되었다. 토성의 축조 시기는 3세기 후반 내지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성 내부의 각 조사 지점에서는 성벽 축조 이전에 조성된 환호와 수혈주거지와 수혈 등과 함께 중도식 토기들이 상당 수량 출토되었다. 토성이 축조되면서 내부의 환호와 중도식 토기가 포함된 유구가 매몰 또는 파괴되고, 그 위에 백제 한성기의 수혈주거지와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이 조성되었다. 현대연합주택부지, 경당지구, 미래마을부지 등지의 조사에서 육각형·'凸'자형·'呂'자형 등의 수혈주거지, 대형 건물지, 도로, 제사 건물지, 우물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위의 유구들에서 대옹·시루·호·개·바리·고배 등의 토기류와 평기와 및 막새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시유도기·전문도기·청자완 등의 중국 서진~동진 시기의 도기와 자기가 출토되었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들도 출토되었다.

풍납토성 발굴조사 결과 북쪽부터 궁전종묘구역, 공공시설구역, 거주구역으로 구분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3세기 이전, 3세기 1/4분기, 늦어도 3세기 중엽, 4세기 중엽 등 여러 견해가 있고, 두 성의 기능에 대해서도 몽촌토성이 궁성이고, 풍납토성은 일반인의 거주 구역으로 상정하거나 이와 달리 풍납토성을 왕궁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시설과 함께 사서인의 거주구역이 배치되었고, 몽촌토성은 별궁 또는 위급시의 궁성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란 견해가 양립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고려하면, 풍납토성이 한성기의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 한성기 도성은 평상시 왕의 거성인 풍납토성과 비상시의 방어성 역할을 한 몽촌토성이라는 정궁-별궁의 양궁성제로 운영되고, 인근에 왕릉구역이 위치하며, 그 외곽에 일반취락, 산성 등이 분포하는 양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계) 토기는 경당지구 상층과 9·24·178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상층에서는 개 1점, 단추형 개 꼭지 1점, 고배대각 1점이 출토되었다. 개는 드림부와 개신 하부만 잔존되었다. 개신 외면에는 다치구로 '〈'자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개신과 드림부의 경계는 크게 돌출되었고, 드림부는 길고 말단에 홈이 파여 있다. 구연단이 삼각형이다. 개꼭지는 꼭지와 주변 개신부에 시회柴灰가 부착되었다. 고배는 대각만 잔존되었다. 대각은

'八 '자 모양으로 벌어지고, 장방형투창이 배치되었다. 각단 외측에 돌대가 돌아가고, 두툼하다.

9호 유구에서 출토한 개는 드림부와 개신 하부만 잔존되었다. 개신 외면에 즐묘열점문으로 된 '〈 '자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개신과 드림부의 경계는 크게 돌출되었고, 드림부는 길고 말단에는 홈이 파여 있다. 구연단이 삼각형이다.

24호 유구 출토 개는 내외면 색상이 회청색이고, 속심은 암자색이다. 몸통 안쪽면에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개신 바깥면에는 위·아래에 1줄의 횡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다치구의 즐묘열점문을 새겼다. 즐묘열점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힘을 가해 새겼다. 드림부는 두께가 두텁고, 돌출되었고, 사방향으로 뻗었다. 178호 유구에서 출토된 대각은 상층에서 출토된 대각과 거의 유사하다.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4점의 개 편과 2점의 대각 편들은 고성·사천·진주·의령 등지에 분포하는 소가야양식 토기의 특징들이 반영되었다. 형태와 표면 및 속심 색상, 문양 등으로 볼 때, 소가야권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풍납토성 Ⅳ-경당지구 9호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

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풍납토성 Ⅵ-경당지구 중층 101호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풍납토성 Ⅶ-경당지구 상층 폐기장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

한신대학교박물관, 2008, 『풍납토성 Ⅸ-경당지구 출토 와전유에 대한 보고』.

서울역사박물관·한신대학교 박물관, 2009, 『풍납토성 Ⅹ-경당지구 유물포함층출토 유물에 대한 보고』.

한신대학교박물관, 2011, 『풍납토성 Ⅻ-경당지구 196호 유구에 대한 보고』.

권오영, 2002,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백제연구』 36,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유적 전경

출토유물

02

몽촌토성

| 사적 제297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조사기관 / 조사기간
서울대학교박물관 /
1차 1983.10.
2차 1984.6.
3차 1985.5.~1985.11.
4차 1987.4.~1987.7.
5차 1988.3.~1988.5.
6차 1989.5.~1989.9.
한성백제박물관 /
1차 2013.11.~2014.9.
2차 2014.10.~2014.11.

주요 유구 / 유물
성벽, 목책, 해자, 수혈주거지, 저장시설, 적석유구, 적심건물지, 도로, 연못지 / 통형기대, 삼족기, 삼족반, 고배, 연가, 전문도기, 고구려 토기, 뼈갑옷, 연화문와당, 평기와

몽촌토성이 위치한 곳은 한강 이남지역의 저지대에서 완만하게 솟은 구릉지대가 석촌동과 가락동·방이동 일대까지 이어져 있다. 북쪽의 한강변 저지대에는 한성기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1.5㎞ 떨어진 구릉대지에 몽촌토성이 위치하고, 그 남쪽의 구릉지대에는 한성기의 왕묘역으로 추정되는 석촌동고분군과 가락동고분군이 위치한다. 가락동고분군의 동쪽 구릉에는 방이동고분군이 위치한다.

몽촌토성은 낮은 구릉을 연결해 축조되었는데, 체성의 길이는 약 2.4㎞, 내부 면적은 21만㎡이다. 성 내부에는 건물지와 판축대지, 수혈주거지, 저장공, 연못, 도로 등이 확인되었고, 성벽 및 외부에는 목책과 해자가 확인되었다. 각종 유구에서는 한성기의 다양한 형태의 백제 토기를 포함하여 수막새와 평기와, 중국의 전문도기와 청자, 광구장경사이호·장동호·원통형삼족기·개 등의 고구려 토기, 신라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몽촌토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3세기 중엽,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몽촌토성의 1989년도의 서남지구 발굴조사에서 수 점의 가야계 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가야계 토기 편은 모두 고배 대각이다. 11-6성토층에서 출토된 고배 대각은 잔존 높이가 5.6㎝로 높지 않다. 대각에 세장방형투창이 1단 배치되었고, 각단 내측에 희미한 凹면이 있고, 외면에는 돌대가 돌려져 있다. S8W6 성토층에서 출토된 대각은 높이가 3.9㎝로 낮다. 대각에 삼각형투창이 1단 배치되었다. 11-6백제층에서 출토된 고배대각은 아래 부위만 잔존되었다. 잔존 대각의 위쪽에 1조 돌대가 돌려져 있어 대각이 2단으로 구분된 형태임을 나타낸다. 각단 외면에는 뚜렷하게 돌출된 돌대가 돌려져 있다. 투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11-6표토, 9-6성토층, 11-5백제층, 남문지 연못 등지에서 출토된 고배 대각 편들은 장방형투창이 배치되었거나 대각 중간 또는 각단 외면에 돌대가 돌려져 있다. 백제 한성기 고배의 경우, 대각에 장방형 또는 삼각형투창이 배치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대각 중간 또는 각단 외면에 돌대가 돌려져 있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고배 대각 편들은 가야(계) 고배 대각으로 추정된다.

위의 가야(계) 고배 대각 중, 11-6성토층에서 출토된 것은 투창 형태와 각연부의 특징이 소가야양식의 1단장방형투창고배와 유사하여 소가야계 토기로 추정된다. 이외의 개체들은 계통을 특정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몽촌토성발굴조사단, 1985,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

서울대학교박물관, 1987, 『몽촌토성–동북지구 발굴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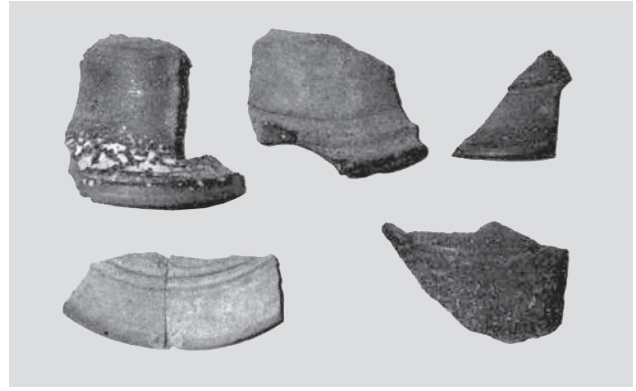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동남지구 발굴조사 보고』.

서울대학교박물관, 1989, 『몽촌토성–서남지구 발굴조사 보고』.

한성백제박물관, 2016, 『몽촌토성』 Ⅰ·Ⅱ.

김규운, 2011, 「5세기 한성기 백제와 가야 관계」『중앙고고연구』 9, 중앙문화재연구원.

백제 한성기의 평상시 왕성인 풍납토성과 비상시 피난성인 몽촌토성에서 소가야(계) 양식 토기를 중심으로 가야 토기들이 출토된 점은 백제 한성기에 백제 지배집단과 가야 사이에 교류관계가 활발하였음을 나타낸다.

유적 전경

출토유물

03

청주 신봉동고분군

| 사적 제319호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12-1

조사기관 / 조사기간
충북대학교박물관 /
1차 1982.5.~1982.7.
2차 1990.3.~1990.5.
3차 1992.6.~1992.9.
4차 1995.6.~1995.7.
5차 2000.5~2000.6
6차 2003.6.~2003.8.
국립청주박물관 /
1차 1990.3.~1990.5.
2차 1990.10.~1990.11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횡혈식석실묘 / 고배, 개배, 삼족기, 호, 평저소호, 평저유견호, 병, 파배, 평저완, 광구장경호, 철촉, 철모, 재갈, 등자, 삼각판혁철판갑

신봉동고분군은 청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미호천의 지류인 무심천이 미호천에 합류하는 까치내 남쪽에 있는 해발 100m 내외의 구릉 지역에 위치한다. 고분군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일대에 봉명동유적과 송절동유적이 위치한다. 신봉동고분군은 1982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6차례의 조사에서 토광묘 326기, 토광 9기, 횡혈식석실묘 3기가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묘광을 파고, 내부에 목곽 또는 목관을 설치하였고, 바깥측에 주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곽 또는 목관 내부 바닥에 자갈돌을 깐 예와 생토바닥인 예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대부분이다. 토광은 크기가 작은 소형으로서 정확한 성격은 파악되지 않았다. 횡혈식석실묘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깬 돌로 만들었는데, 상부가 파괴되어 정확한 구조 파악은 어렵다. 현실의 평면형태가 방형이고, 연도는 우측에 편재되었다. 현실 내부에는 좌측으로 치우쳐서 깬 돌로 만든 관대가 설치되었다. 관대는 1개만 확인되어 추가매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혈식석곽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329기의 무덤에서는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고배, 개배, 삼족기, 평저유견호, 광구장경호, 병 등 한성 중앙양식의 토기와 평저소호, 파배 등 청주지역의 특징을 지닌 토기들로 이루어졌다. 특히 끝이 장식된 손잡이가 부착된 파배는 신봉동형파배로 불릴만큼 신봉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특징적인 기종의 하나이다. 그리고 두드림에 의해 몸통 표면에 조족문이 표현된 항아리가 많이 출토되었다.

2000년도 조사의 A-27호 토광묘에서 백제의 광구호 1점과 함께 유개식원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개식원저장경호는 구연이 떨어져 나가 정확한 구연 형태는 알 수 없다. 목은 몸통에서 바깥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2줄의 돌대를 일정간격으로 돌려 3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단에는 3줄의 파상문을 이중으로 새겼다. 몸통은 최대 직경이 약간 위쪽에 위치한다.

이 유개식원저장경호의 계통에 대해서는 대가야계 또는 성주계 등으로 이견이 있으나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신봉동고분군은 미호천수계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백제고분군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다. 신봉동고분군은 구릉 서쪽에 위치한 송절동과 봉명동고분군에 후속하는 고분군으로서 청주지역의 지방 세력이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되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고분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토광묘에 주구가 시설되지 않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점 등은 미호천이 금강에 합류하는 지점에서 확인된 주구토광묘와는 양상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수혈식석곽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토광묘에서 횡혈식

참고문헌

이융조·차용걸, 1983, 『청주신봉동 백제고분분 발굴조사 보고서-1982년도 조사』, 충북대학교박물관·재단법인백제개발연구원.

차용걸 외, 1990, 『청주신봉동 A지구 토광묘군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이원복 외, 1990, 『청주신봉동 B지구널무덤발굴조사보고』, 국립청주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1990, 『청주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1990년도 조사』.

김성명 외, 1993, 「청주신봉동 B지구 2차 발굴조사보고」, 『고고학지』,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차용걸 외, 1995, 『청주신봉동고분군』, 충북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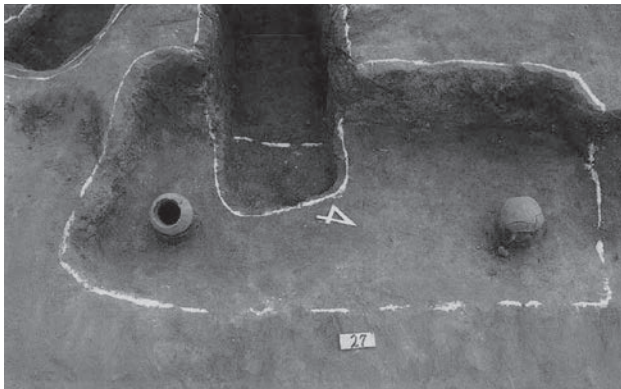
차용걸·조상기, 1996, 『청주신봉동고분군-1995년도 조사』, 충북대학교박물관.

차용걸 외, 2002,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고분군-2000년도 발굴분 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차용걸 외, 2005,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고분군-2003년도 조사』,충북대학교박물관·청주시.

국립청주박물관, 2017, 『국립청주박물관』, 상설전시도록.

충북대학교박물관, 2013, 『신봉동 고분군을 새롭게 보다』, 충북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석실묘로 바뀌는 양상도 특징이다. 1990년도에 조사한 B지구 1호 토광묘에서 삼각판혁철판갑과 일본열도의 스에키 개배가 출토되어 일본열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유적 전경

출토유물

04

소재지
충청북도 연기군 남면
송담리 · 송원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
2006.8.~ 2008.4.

주요 유구 / 유물
주구토광묘, 옹관묘,
수혈식석곽묘, 횡혈식
석실묘 / 외반구연소
호, 고배, 합, 개배,
광견호, 광구장경호,
병형토기, 재갈, 철모,
철겸, 철부

연기 송담리·송원리유적 _ 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1-1구역 내 유적

연기 송담리·송원리유적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수반하여 조사되었다. 유적은 장군산(해발 355m)의 동쪽 가지 능선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해발 70m 내외의 저산성 구릉이 펼쳐져 있고, 남쪽에는 금강 본류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흐른다. 송원리유적으로부터 북쪽으로 1~2㎞ 이격된 구릉에 송담리유적이 위치한다.

송원리유적은 백제 한성기의 횡혈식석실묘 17기, 수혈식석곽묘 20기, 주구토광묘 39기, 옹관묘 6기 등이 조사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횡혈식석실묘는 평면형태가 방형과 장방형이 있고, 연도는 중앙·좌편재·우편재 등 다양하다. 석실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하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깬 돌로 만들었다. 현실 바닥에는 자갈 또는 편평한 돌을 깔아 관대를 설치하였다. 꺾쇠와 관못으로 만든 목관이 사용되었다. 일부 석실묘는 석실 외곽에 반원형의 주구가 돌려져 있고, 봉토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혈식석곽묘는 지상 또는 반지하에 위치하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깬 돌로 만들었다. 석곽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바닥에는 자갈돌을 깐 예와 깔지 않은 예가 있다. KM-003호묘는 원형에 가까운 봉분이 확인되었고, KM-093호묘에도 봉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KM-046호 횡혈식석실묘와 KM-003호 수혈식석곽묘에서 가야(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KM-046호 횡혈식석실묘는 평면형태가 방형이고, 연도가 중앙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대각에 원형 투공이 있는 고배, 무투창고배, 보주형꼭지가 붙어 있는 개, 사이광견호, 단경호, 기대, 마구류, 소찰 등의 유물과 함께 1점의 가야(계) 고배가 출토되었다. 가야(계) 고배는 배심이 깊고, 구연이 사방향으로 외반하고, 대각에는 1단 장방형 투창이 일정 간격으로 4개 배치되었다. 진주 무촌리고분군 등 소가야권역에서 출토되는 고배와 유사하여 소가야(계) 토기로 추정된다.

KM-003호 수혈식석곽묘에서는 외반구연소호, 광구장경호, 재갈, 등자, 철모 등의 유물과 함께 고사리문평저호, 뚜껑, 대부직구소호 등의 가야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고사리문평저소호는 표면색상이 흑회색이고, 몸통 외면 중간에 4치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뚜껑은 고사리문꼭지손잡이가 부착되었고, 반구형이다. 대부직구소호는 몸통이 편구형이고, 대각 상단에 4개의 원형 투공이 배치되었다. 고사리문손잡이가 부착된 호와 꼭지가 부착된 뚜껑, 대부직구호는 대가야(계) 토기로 추정된다.

송원리유적은 백제 한성기 지방 세력의 고분군으로서 횡혈식석실과 수혈식석곽, 주구토광, 옹관 등 다양한 묘제와 함께 한성 중앙양식 토기, 지방양식 토기 등이 출토되어 한성기의 지방지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 백제의 지방 유력 집단의 고

참고문헌

한국고고환경연구소·한구토지주택공사, 2010, 『연구 송담리 · 송원리 유적–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1-1구역』 본문(1)·(2)·(도판).

분군에 부장된 소가야계 토기와 대가야(계) 토기는 금강을 통해 가야와 백제의 지방세력 사이의 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유적 원경

KM-046호분

출토유물

05 금산 음지리유적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음지리 산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발견매장문화재 / 1994.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장경호, 개배, 병

충남 금산분지의 남쪽 진악산(해발 732.3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금산읍 음지리 하어동과 계진리 성넘어마을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정상부에 4~5기의 봉토분이 자리하고 있는데, 봉토분의 일부는 인삼밭을 경작하면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산줄기 정상부와 사면을 따라 소형 석곽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1점, 병 1점, 배 1점, 방추차 1점 등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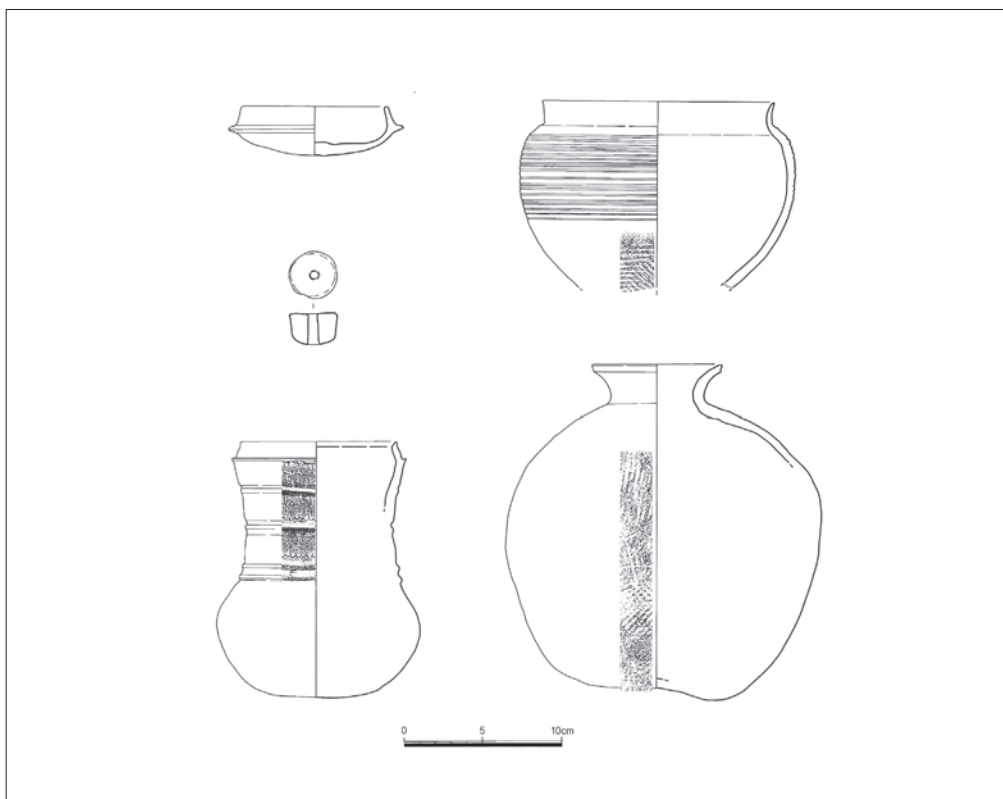
가야 토기의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배의 개는 회황색경질토기로 태토에 세사립과 굵은 장석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수평으로 강하게 돌출하며 배신은 깊이가 얕다. 배신은 내외면에서 관찰되는 상태로 보아 점토띠를 감아올리기 기법으로 만든 후 정면하였다.

유개장경호는 회청색경질토기로 태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뚜껑받이턱은 짧고 강하게 돌출하였고,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뾰쪽하게 처리하였다. 경부는 2조의 돌대로 3단 구분한 후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동체는 편육각형이며 바닥은 평저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는데, 동체 하위는 횡방향으로 깎기조정하였다. 동체와 경부 내외면, 내면 바닥에 황록색자연유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는 산화되어 박리되고 있다.

금산 음지리에서 출토된 유개장경호는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6세기 2/4분기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박경도, 2002, 「금산지역 출토 가야토기」, 『고고학지』 제13집.

유적 전경

출토유물

06

금산 창평리유적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산5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신선교 발견매장문화재 / 1973.4.

주요 유구 / 유물
추정 고분 / 장경호, 유개고배, 대도, 도

1973년 금산군 금산읍에서 동남쪽으로 3㎞ 가량 떨어진 부리면 창평리에서 새마을사업용 석재채취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유물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에 유구가 완전히 파괴되어 추정 고분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유물은 장경호와 유개고배 등 6점의 토기류와 대도 1점, 도자 2점, 꺽쇠 20여 점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장경호는 회색경질토기로 비교적 광구의 구연부는 약간 외반하며 직립한 'V'자형이고 경부의 중간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서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한 뒤 상단부를 제외하고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동체부는 편구형으로 어깨부분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바닥은 둥글게 마감되었다. 유개고배는 다리부분에 삼각투창이 마련된 1점과 동일한 기형을 하고 있는 3점의 무투창고배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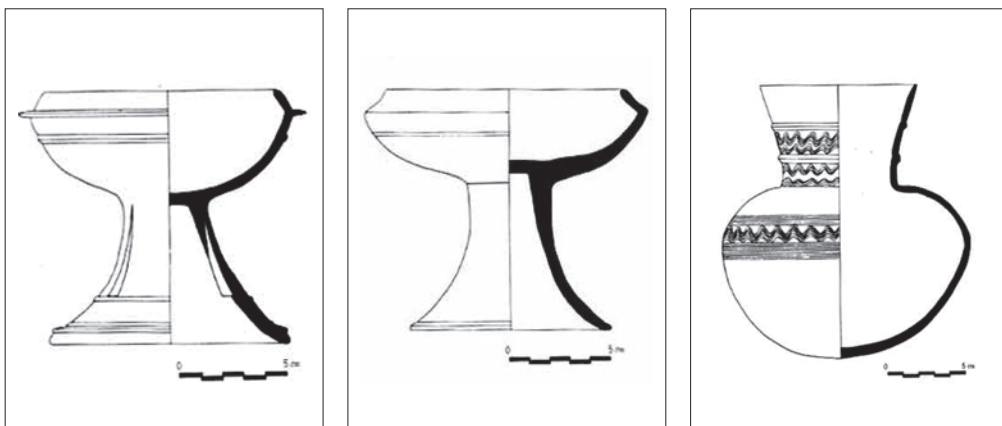
철기류는 자루와 끝부분이 유실된 대도 1점과 파손된 2점의 도자, 목관에 사용된 20여 점의 꺾쇠가 수습되었다.

유물의 연대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장경호를 가야 토기의 북쪽 한계선으로 보고 6세기 중엽 경의 가야양식 토기로 설정하였고, 삼각투창고배는 함안에서 낙동강을 타고 북상하여 성주, 영동을 거쳐 금산에 정착한 형식으로 본 견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진안 와정토성에서 5세기 중엽경의 대가야계 개가 출토된 점과 금산 지역을 통해 연결되는 교통로 등을 감안한다면 5세기~6세기 전반대의 금산지역 토기문화는 주로 백제와 대가야 사이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5세기 중엽으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강인구, 1973, 「금산의 고분과 토기류」, 『백제연구』 제4집.

성정용, 2002, 「금산지역 삼국시대 토기편년」, 『호남고고학보』16집.

유적 전경

출토유물

07

동해 추암동고분군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추암마을 산165·산1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관동대학교박물관 / 1992.6.~1993.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 유개대부단경호, 단경호, 개, 배,금동제 장신구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추암마을 산165, 산181 일대에 분포하는 신라고분군이다. 동해시의 가장 큰 하천인 전천하류역의 남쪽에 형성된 해발 40m의 구릉에 입지한다.

이 고분군은 1992년 발굴조사되었다. B군에서는 가지구 44기, 나지구 10기의 삼국시대 고분이 조사되었다, C군에서는 10기가 발굴조사 되었는데 삼국시대 고분은 4기, 나머지는 고려, 조선시대묘이다.

삼국시대고분은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옹관묘로 구성되었다. 축조시기는 크게 4기로 나누어진다. 제1기(5세기 말-6세기 초), 2기(6세기 초-중엽), 3기(6세기 중엽-말), 4기(6세기 말-7세기 중엽)이다.

그 가운데 3기에 속하는 B군에서는 가지구 34·38·39·40·41·42·43·44호분에서는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대가야양식 토기는 보주형꼭지와 유두형꼭지를 가진 개, 구연이 짧고 저부가 편평한 배, 삼각형의 투창을 가진 유개대부단경호, 경부에 돌대를 돌린 단경호가 보인다. 34호 개 1점, 38호묘 개 3점, 40호묘 개 1점, 41호묘 배 1점, 42호묘 개 1점, 단경호 1점, 유개대부장경호 1점, 43호묘 개배 3조, 개 2점, 유개대부장경호 1점, 44호묘 개2점,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가야양식 토기는 공반된 신라 토기와 소성도가 동일한 점에서 가야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가야양식 토기 부장고분의 피장자는 그 축조 시기가 대가야 멸망 562년 이후이고 가지구 고분군내에서 모두 근접하며 군을 이루는 점에서 멸망 이후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사민된 대가야권역민으로 본다. 사민된 민들의 출자는 42호묘와 43호묘 출토 유개대부장경호가 합천 삼가지역 등에서 보이는 대가야양식과 소가야양식이 복합된 형식인 점에서 왕도인 고령지역이 아니라 합천지역 등으로 본다.

더욱이 가지구 북동쪽에 상기한 고분들에 근접한 고분가운데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으나 대간명 등의 명문과 도부호를 가진 토기가 출토된 고분들은 역시 사민된 민으로 추정된다.

사민된 민들 가운데에는 34호묘와 같이 금동제장신구를 소유한 비교적 지위가 높은 중간 성원급의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추암동고분군에 보이는 대가야계 이주민의 존재는 신라가 가야지역을 정복한 후 그 지역사회를 재편한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관동대학교박물관,1994, 『동해북평공단지역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이상수,2009, 「추암동고분군」,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영남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울산 중산리고분군(울산광역시기념물 제9호)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1~94)	274
02	양산 용당동 79-9번지 유적	산업·생산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276
03	양산 소석리 543번지 유적	생활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278
04	양산 물금유적	산업·생산, 생활, 교통·통신	동아대학교박물관(1997~98)	280
05	대구 비산동고분군	무덤	영남대학교박물관(1999)	282
06	대구 문양리고분군	무덤	영남문화재연구원(1999~2001)	283
07	포항 마산리고분군	무덤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0~11)	285
08	경주 구정동고분군(사적 제350호)	무덤	국립경주박물관(1982)	286
09	경주 안계리고분군	무덤	국립문화재연구소(1970)	288
10	경주 구어리고분군	무덤	영남문화재연구원(1998)	290
11	칠곡 심천리고분군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0)	292

호남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	광주 풍암동유적	생활	전남대학교박물관(1996)	296
2	광주 동림동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3~05)	298
3	광주 명화동고분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93~94)	299
4	광주 점등유적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12)	301
5	광주 하남동유적 -광주 하남1지구 택지개발지역 내 유적	생활,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05~2006)	303
6	여수 고락산성(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204호)	정치·국방,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1999~2003)	304
7	여수 미평동 양지유적	무덤	전남대학교박물관(1993~94)	306
8	여수 화장동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0)	307
9	여수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동북아지석묘연구소(2017)	308
10	여수 둔전유적	생활, 산업·생산	전남문화재연구원(2011)	309
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8)	311
12	여수 월산리 대초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2008)	313
13	여수 월산리 호산유적	생활	대한문화재연구원(2010)	315
14	여수 화동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8)	317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5	순천 가곡동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6~07)	319
16	순천 용당동 망북유적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1998)	320
17	순천 왕지동고분군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7)	321
18	순천 덕암동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5~06)	323
19	순천 덕암동 구암 75-3번지 유적	생활	나라문화연구원(2017)	325
20	순천 쌍암유적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3~14)	327
21	순천 요곡리유적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5)	328
22	순천 요곡리 선산유적	생활	대한문화재연구원(2011)	329
23	주암댐 수몰지역 승주 대곡리 집자리	생활	국립광주박물관(1989)	330
24	순천 검단산성(사적 제418호)	정치·국방	순천대학교박물관(1998~2001)	332
25	순천 죽내리 성암고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0)	333
26	순천 죽내리유적(전라남도기념물 제172호)	무덤	조선대학교박물관(1996~97)	334
27	순천 성산리 대법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6)	336
28	순천 성산·송산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9)	337
29	순천 성산리 성산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10~11)	339
30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2~13)	341
31	광양 용장유적	생활	전남문화재연구원(2012)	342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32	광양 용강리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1999~2001)	344
33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0)	345
34	광양 용강리 기두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2)	347
35	광양 칠성리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5)	348
36	광양 목성리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11~12)	349
37	광양 인동리유적	생활	전남문화재연구원(2015~16)	351
38	광양 도월리유적	생활, 무덤	전남문화재연구원(2008~09)	352
39	광양 원적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9)	354
40	광양 지원리 창촌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10)	356
41	곡성 구성리유적	생활	가경고고학연구소(2013~14)	358
42	구례 용두리고분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17~18)	360
43	고흥 한동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4)	361
44	고흥 방사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4)	362
45	고흥 장덕리 장동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2009)	364
46	고흥 신촌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8~09)	366
47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10)	368
48	보성 조성리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1)	370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49	보성 조성리 금장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1)	371
50	장흥 상방촌A유적	생활, 무덤	목포대학교박물관(2001~02)	372
51	장흥 상방촌B유적	생활,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01~02)	374
52	강진 양유동유적	생활	전남문화재연구원(2008)	376
53	해남 신금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2~03)	378
5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전라남도기념물 제86호)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73)	380
55	해남 만의총 1호분	무덤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08~09)	382
56	영암 만수리 4호분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89)	384
57	영암 신연리 9호분(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39호)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91)	386
58	함평 국산유적	무덤	목포대학교박물관(1999)	388
59	함평 성남유적	무점	목포대학교박물관(1999)	389
60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전라남도기념물 제55호)	무덤	전남대학교박물관(1994~2001)	390
61	장성 영천리 횡혈식석실분	무덤	전남대학교박물관(1986)	391
62	전주 평화동 대정Ⅱ유적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15)	392
63	전주 안심·암멀유적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0~12)	394
64	군산 산월리유적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02)	396
65	익산 동용리 백제고분군	무덤	전북문화재연구원(2007)	398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66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	생활,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09~10)	400
67	순창 구미리유적	무덤,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13)	402
68	고창 봉덕유적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00~01)	404
69	고창 봉덕리 1호분	무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8~09)	406
70	고창 자룡리·석남리유적	무덤, 생활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0~11)	408
71	부안 역리 옥여유적	무덤, 생활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2~15)	410
72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사적 제541호)	생활	국립전주박물관(1991)	412

서울•충청•강원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	풍납토성(사적 제11호)	생활, 정치·국방	한신대학교박물관(1999~2000)	416
2	몽촌토성(사적 제297호)	생활, 정치·국방	서울대학교박물관(1983~89) 한성백제박물관(2013~14)	418
3	청주 신봉동고분군(사적 제319호)	무덤	충북대학교박물관(1982~2003) 국립청주박물관(1990)	420
4	연기 송담리·송원리유적 -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1-1구역 내 유적	무덤	한국고고환경연구소(2006~08)	422
5	금산 음지리유적	무덤	발견매장문화재(1994)	424
6	금산 창평리유적	무덤	신선교 발견매장문화재(1973)	426
7	동해 추암동고분군	무덤	관동대학교박물관(1992~93)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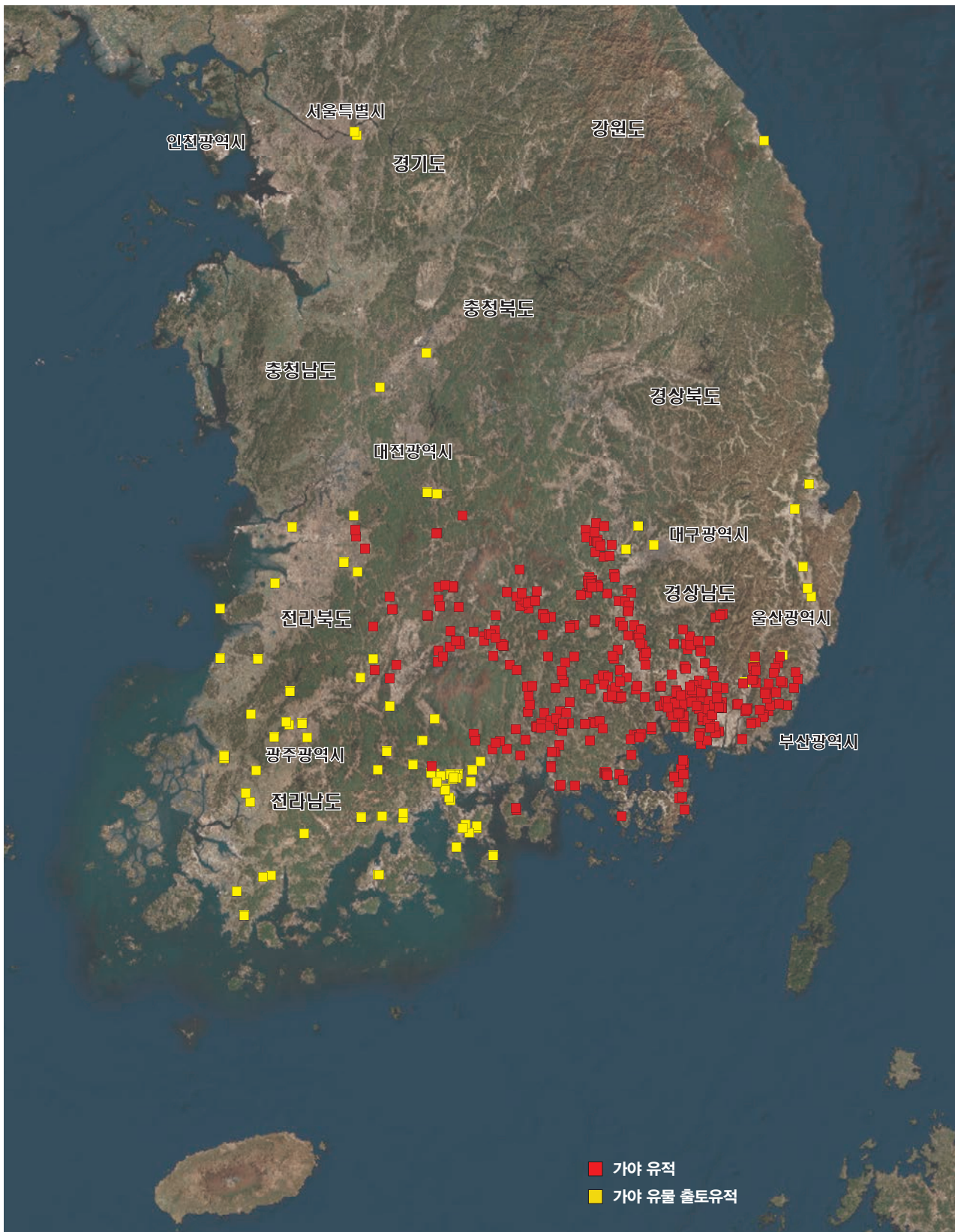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Ⅳ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분포도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가야 유적

김해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김해 예안리고분군	무덤	국립중앙박물관 (1976) 부산대학교박물관(1976~80)
02	김해 대성동고분군		
02-1	김해 대성동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1990)
02-2	김해 대성동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1990~91)
02-3	김해 대성동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1991~92)
02-4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 구지로 분묘군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1993)
02-5	김해 대성동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2001)
02-6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고고학연구소(2004)
02-7	김해 대성동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대성동고분박물관(2009)
02-8	김해 대성동유적 -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10~11)
02-9	김해 대성동고분군 -6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대성동고분박물관(2011)
02-10	김해 대성동고분군 -7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대성동고분박물관(2012)
02-11	김해 대성동고분군 -8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대성동고분박물관(2013)
02-12	김해 대성동고분군 -9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대성동고분박물관(2014)
03	김해 양동리고분군		
03-1	김해 양동리고분군 -가야문화권 유적보존 정비사업유적	무덤	국립문화재연구소(1984)
03-2	김해 양동리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0~91)
03-3	김해 양동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2)
03-4	김해 양동리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3~94)
03-5	김해 양동리고분군 경계지점 내 유적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5)
03-6	김해 양동리유적 -4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5~96)
03-7	김해 양동리유적	무덤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2010~11)
03-8	김해 양동리고분군 -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부지내 유적	무덤	해동문화재연구원(2014)
04	김해 칠산동고분군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1987~88)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5	김해 서중·제일고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06	김해 화정유적	무덤, 산업·생산	복천박물관(1997~99)
07	김해 두곡유적	무덤, 산업·생산	부경대학교박물관(1997~98)
08	김해 유하리 후포고분군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9~10)
09	김해 내덕리고분군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6~97)
10	김해 능동유적	무덤	울산대학교박물관(1996~97)
11	김해 윗덕정유적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1995~96)
12	김해 본산리유적 -김해 진영 본산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6)
13	김해 본산리·여래리 유적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1~12)
14	김해 죽곡리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6~07)
15	김해 덕암리 유적 -김해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산업·생산	두류문화연구원(2014~15)
16	김해 망덕리유적 -김해 망덕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10~11)
17	김해 고모리 유적- 김해 상록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해동문화재연구원(2011~12)
18	김해 퇴래리유적 -김해 퇴래리 산8번지 유적	무덤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19	김해 퇴래리유적 -김해 한림면 퇴래리 산8번지 일원 추가변경부지 내 유적	무덤	삼도문화재연구원(2017)
20	김해 퇴래리유적	무덤	성균관대학교박물관(1984~85)
21	김해 퇴래리 소업Ⅰ유적	무덤	강산문화연구원(2015)
22	김해 퇴래리 788-7번지 유적	무덤	부경문물연구원(2013)
23	김해 퇴래리 793번지 유적	무덤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24	김해 퇴래리 소업Ⅱ유적	생활	강산문화연구원(2015)
25	김해 안양리고분군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2)
26	김해 우계리유적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건설 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9~10)
27	김해봉황동유적	생활, 산업·생산, 정치·국방	부산대학교박물관(1992~93)
28	김해 회현리패총	생활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1998) 삼강문화재연구원(2005)
29	전 금관가야궁허지	생활	부산대학교박물관(1999~2000)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30	김해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03)
31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5)
32	김해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 119-1·22-6번지 일원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동양문물연구원(2012)
33	김해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4)
34	김해 회현동 13·14·15통 소방도로 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02)
35	김해 봉황동 176-2·16·17번지 유적	생활	대성동고분박물관(2005)
36	김해 봉황동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생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2004)
37	김해 봉황동 229-1·4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대성동고분박물관(2006)
38	김해 봉황동 40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3)
39	김해 봉황동 126-12번지 단독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생활	한화문물연구원(2017)
40	김해 봉황동 295-18번지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6)
41	김해 봉황동 303-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강산문화연구원(2017)
42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3~14)
43	김해 봉황동 380-24번지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3~04)
44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생활	부산대학교박물관(2001)
45	김해 봉황동 412-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화재재단(2015)
46	김해 봉황동 413-4번지 일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47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한옥생활체험관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4~05)
48	김해 봉황동 442-7번지 유적	생활,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99)
49	김해 부원동유적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80)
50	김해 부원동 626-1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11)
51	김해 대성동 85-8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15)
52	김해 대성동 89-18번지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4~15)
53	김해 대성동 320번지 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6)
54	김해 어방동 분산 유적 -김해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06~07)
55	김해 유하패총	생활	국립김해박물관(2015~16)
56	김해 유하리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7)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57	김해 부곡동 유적 -신김해~진영 송전선로 건설공사 부지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4)
58	김해 무계동 213-3번지 일대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6)
59	김해 신문동 663-2번지 율하이엘센트럴시티 신축부지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7)
60	김해 신문리유적	생활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1~12)
61	김해 대청유적	생활,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96~97)
62	김해 장유리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9)
63	김해 관동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5~17)
64	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	생활, 무덤, 교통·통신	삼강문화재연구원(2005~07)
65	김해 아랫덕정유적 -김해 장유 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생활,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7)
66	김해 하계리、내룡리 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3~15)
67	김해 여래리유적	생활, 무덤, 산업·생산,	우리문화재연구원(2007)
68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79번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화재연구원(2013)
69	김해 진영 신용리 579-1번지 외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4)
70	김해 망덕리·신문리 생활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11)
71	김해 농소리유적 -김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5)
72	김해 농소리유적 -김해 국도대체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1~02)
73	김해 송정리유적 -김해 진례 도예촌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7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6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3)
75	김해 산본리 창고 신축 예정지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1)
76	김해 진례 송현리유적 -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05~06)
77	김해 퇴래리 841-2번지 유적	생활	강산문화연구원(2016)
78	김해 퇴래리 875번지 유적	생활	강산문화연구원(2015)
79	경남 김해 퇴래리 1015-1번지 유적	생활	강산문화연구원(2016)
80	김해 안하리 1345-2·3번지 근생시설 및 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생활	한화문물연구원(2017)
81	김해 생철리 61-4번지 유적	산업·생산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5)
82	경남 김해 초정리 655번지 일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생활	강산문화연구원(2017)
83	김해 대성동 소성유적	산업·생산, 무덤	부경대학교박물관(1994~95)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84	김해건설공고 운동장 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무덤	강산문화연구원(2017)
85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산업·생산,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9)
86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경남문화재연구원(2013)
87	김해 송현리유적 -김해 송현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9~10)
88	김해 장방리유적 -김해 장방리 875번지 일대 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동서문물연구원(2013)
89	김해 봉황토성		
89-1	봉황토성 -김해 회현동사무소~분성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정치·국방,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3)
89-2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정치·국방,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3~14)
89-3	봉황토성 -김해시 서상동 331-2번지 건물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정치·국방,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4)
90	신기산성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3)
91	김해 나전리토루	정치·국방	동서문물연구원(2009)

부산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부산 복천동고분군		
01-1	부산 복천동고분군 -긴급수습조사 유적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69~71) 부산대학교박물관(1974)
01-2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80~81)
01-3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86)
01-4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3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박물관(1989)
01-5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	무덤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9)
01-6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4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91)
01-7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부산광역시립박물관(1993~95) 부산대학교박물관(1983)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8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6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복천박물관(1998)
01-9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7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복천박물관(2002)
01-10	복천동고분군 동편 정비지역 시굴조사 유적	무덤	복천박물관(2002)
01-11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8차 발굴조사 유적(160~166호)	무덤	복천박물관(2006)
01-12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8차 발굴조사 유적(167~174호)	무덤	복천박물관(2008)
02	부산 연산동고분군		
02-1	부산 연산동 4호분	무덤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1987~88)
02-2	연산동 -M8호분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1987~88)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9)
02-3	부산 연산동유적	무덤	복천박물관(2000)
02-4	부산 연산동고분군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7)
02-5	연산동고분군	무덤	부산박물관(2009~10)
02-6	연산동 M3호분	무덤	부산박물관(2011~12)
02-7	연산동 M7·M10호분	무덤	부산박물관(2012~13)
03	부산 노포동고분군	무덤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4~86) 부산대학교박물관(1985~86)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2005) 부산박물관(2017)
04	부산 생곡동 가달고분군	무덤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9~90) 동양문물연구원(2012) 부산박물관(2012)
05	부산 당감동고분군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81)
06	부산 덕천동고분군	무덤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1)
07	구포 덕천동유적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2002~04)
08	부산 반여동유적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86~88)
09	부산 괴정동고분군	무덤	한성여자초급대학박물관(1975)
10	부산 두구동 임석유적	무덤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7)
11	부산 오륜대고분군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71) 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 (1996~97)
12	부산 미음동 1180번지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9)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0~11)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3	구랑동고분군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 복천박물관(2009) 부산박물관(2010~11)
14	부산 지사동유적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2003~05)
15	기장 청강리고분군	무덤	부산광역시립박물관(1997) 복천박물관(2001~02) 경남문화재연구원(2006~08)
16	기장 반룡리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7) 경남문화재연구원(2008~09)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4)
17	기장 방곡리유적	무덤	울산대학교박물관(2002~05)
18	기장 가동고분군	무덤	울산대학교박물관(2003~05) 부경문물연구원(2012)
19	기장 연구리고분군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7~08)
20	부산 동래패총		
20-1	동래 낙민동패총	생활, 산업·생산	국립중앙박물관(1967~70)
20-2	동래패총	생활	부산박물관(1993)
20-3	동래 수안동 다세대주택건설지 내 유적	생활	복천박물관(2002)
20-4	동래 낙민동 패총 -동래 낙민동 133-2번지 건설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중앙문화재연구원(2002~03)
20-5	동래 낙민동 303번지 유적 -부산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10~11)
20-6	부산 낙민동 100번지 내 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5)
20-7	부산 낙민동 215-4번지 유적 -부산 낙민동 세화약품 창고증축 부지 내 유적	생활	부경문물연구원(2016)
21	부산 연지동유적	생활, 산업·생산	동양문물연구원(2011)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1)
22	부산 낙민동유적		
22-1	부산 낙민동 56-1번지 유적	생활, 교통·통신	동양문물연구원(2013~14)
22-2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생활	동양문물연구원(2015~17)
23	동래 온천동유적	생활	부산시립박물관(2010~11)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24	부산 화명동 918-2번지 유적 -부산 북구 화명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부경문물연구원(2013)
25	부산 두구동유적 -부산시 두구동 노포분기 손전선로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09)
26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내 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3~15)
27	부산 노포동 91-6번지 유적	생활	동양문물연구원(2013~15)
28	부산 분절패총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9~10)
29	기장 청강·대라리유적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5~08)
30	기장 두명리유적 -부산 기장 두명마을 이주단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9)
31	기장 가동유적	생활	울산대학교박물관(2002~05)
32	기장 동백리유적 -기장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9~11)
33	기장 임기리유적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2004) 경남문화재연구원(2004~05) 부경문물연구원(2014)
34	고촌유적	생활, 산업·생산, 교통·통신	경남문화재연구원(2004~0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8) 부경문물연구원(2011~12)
35	부산 회동동유적 -부산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유적	산업·생산, 생활	동양문물연구원(2011) 삼강문화재연구원(2011)
36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산업·생산	중앙문화재연구원(2004)

양산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양산 북정리고분군		
01-1	양산 북정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90)
01-2	양산 금조총·부부총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90)
01-3	양산 하북정유적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91)
01-4	양산 북정동유적 683번지 유적	무덤	한국문물연구원(2008)
02	양산 신기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90)
03	양산 중부동고분군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16~17)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4	양산 용당동 산80-5·80-4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3~14)
05	양산 가촌리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9~10)
06	양산 소토리고분군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07	양산 상삼리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10~13)
08	양산 다방리패총	생활	국립중앙박물관(1967)
09	양산 호계·산막동 및 대석리 유적	생활, 무덤, 산업·생산,	우리문화재연구원(2008~11)
10	양산 명동 유적	생활	부경문물연구원(2011~12)
11	양산 평산리유적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96)
12	양산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13	양산 소토리 유적 -양산 소토리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동서문물연구원(2006)

밀양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밀양 교동유적	무덤	밀양대학교박물관(2002)
02	밀양 임천、금곡 유적	무덤, 산업·생산	두류문화연구원(2012)
03	밀양 귀명리 삼국시대 무덤군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2005)
04	밀양 양동리고분군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4~15)
05	밀양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국보학술문화연구원(2014~15)
06	밀양 용지리 유적 -밀양 교정시설 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6~07)
07	밀양 사포리유적 -밀양 사포 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08)
08	밀양 제대리유적 -밀양 제대지구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8)
09	밀양 월산리분묘군	무덤	밀양대학교박물관(2000)
10	밀양 봉의리 30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4)
11	밀양 살내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1)
12	밀양 미전리 복합유적	생활,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12)
13	밀양 원서리 유적 -밀양 산내~상북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0)
14	밀양 삼문동 670번지 나노교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7)
15	밀양 임천리 금곡제철유적	산업·생산	삼강문화재연구원(2012)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6	가인리유적	교통·통신	밀양대학교박물관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1999~01)
17	밀양 사촌제철유적	산업·생산	국립김해박물관(1999~00)
18	밀양 무안~내이간 도로확장공사 내 유적	산업·생산	전북문화재연구원(2017)

창원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	창원 다호리고분군		
1-1	창원 다호리유적 -1~7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중앙박물관(1988~92)
1-2	창원 다호리유적 -8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중앙박물관(1987~98)
1-3	창원 다호리유적 -9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김해박물관(2009~10)
1-4	창원 다호리유적 -10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김해박물관(2011)
1-5	창원 다호리유적 -1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2~13)
1-6	창원 다호리 55-2번지 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4)
1-7	창원 다호리 179-1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14)
1-8	창원 다호리고분군 -시굴조사(12차 조사) 유적	무덤	국립김해박물관(2014)
1-9	창원 다호리 179-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재단(2016)
1-10	창원 다호리 288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해동문화재연구원(2017)
2	창원 가음정동고분군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0~91)
3	창원 도계동고분군		
3-1	창원 도계동고분군 I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86)
3-2	창원 도계동고분군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87)
3-3	창원 도계동유적 -창원시 도계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2)
4	창원 팔용터널 연결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15~17)
5	창원 삼동동옹관묘	무덤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1982~84)
6	창원 본포리 유적 -동읍~한람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8)
7	창원 동전리고분군 -창원 도시계획도로 3-33호선 건설구간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11)
8	창원 동전리유적 -창원 동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10)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9	창원 가음정동유적 -창원대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1999~2000)
10	창원 천성동고분군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9~2000)
11	마산 현동유적		
11-1	마산 현동유적	무덤, 생활	창원대학교박물관(1985)
11-2	마산 현동유적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9~10)
11-3	마산 현동유적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부지 내 유적	무덤, 산업·생산	동서문물연구원(2009~10)
11-4	마산 현동유적 -거제~마산간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삼한문화재연구원 (2017~18)
12	마산 진동 276번지 유적 -마산~진동 인수한의원~면사무소 간 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9)
13	의창 교동리분묘	무덤	경성대학교박물관 (1989)
14	마산 진북 대평리유적 -마산~진동간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10)
15	마산 대평리고분군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1~92)
16	마산 진북 덕곡리유적 -마산~진동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09)
17	마산 근곡리유적 -마산~진동 우회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4)
18	마산 합성동유적	무덤,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5)
19	창원 석동 1-40·9-18번지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5)
20	창원 석동유적 -진해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무덤	삼강문화재연구원(2014)
21	창원 석동 복합유적	무덤,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2~14)
22	진해 마천동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8~09)
23	창원 남산유적	생활	창원대학교 박물관(1996~97)
24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4-1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3구역) 내 유적	무덤, 생활, 산업·생산	두류문화연구원(2016)
24-2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1구역)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6~17)
24-3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2구역)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6)
25	창원 중동유적 -창원 중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유적	무덤, 산업·생산	동서문물연구원(2009~10)
26	창원 반계동유적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6~97)
27	창원 차용동 산11-2번지 유적 -주한미군기지 마산AD 내 유적	생활	영남문화재연구원(2013)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28	창원 봉림동 생활유적 -창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0)
29	창원 봉림동유적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산업·생산	한국문물연구원(2008~10)
30	창원 용동 46번지 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5~16)
31	창원 사림동유적 -경전선 제3공구 구간 내 유적	교통·통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07)
32	창원 용호동유적	생활	두류문화재연구원 (2015)
33	창원 신방리 405-1·421번지 유적	생활	한국문화재재단 (2010~13)
34	창원 신방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2~1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4~15)
35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생활, 산업·생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07)
36	창원 용잠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9~10)
37	창원 봉산리유적	생활	국립김해박물관(2007~09)
38	창원 동전리 452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삼도문화재연구원(2017)
39	창원 외동유적 -창원 외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40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12)
41	창원 가음정동유적	생활	창원대학교박물관(1994)
42	창원 가음정동패총	생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0~91)
43	창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부지 내 유적		해동문화재연구원(2016~17) 경남문화재연구원(2017)
44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생활, 산업·생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09)
45	창원 창곡유적	생활, 산업·생산	경남문화재연구원(1999)
46	마산 우산동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08)
47	마산 진동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06)
48	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17)
49	진해 석동유적 -진해 석동 주택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0)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50	진해 남양동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8)
51	신항만부지 안골 일대 유적	생활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9)
52	진해 용원유적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94)
53	창원 창곡·완암동 유적 -창원 국도 2-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0~12)
54	창원 성산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정치·국방	우리문화재연구원(2016)
55	창원 마천유적 -웅동~장유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교통·통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11)

함안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	함안 말이산고분군		
1-1	함안 도항리 가야고분군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86)
1-2	함안 암각화고분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1)
1-3	함안 마갑총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2)
1-4	함안 도항리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2)
1-5	함안 도항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3)
1-6	함안 도항리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4)
1-7	함안 도항리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5)
1-8	함안 도항리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6)
1-9	도항리·말산리유적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1997~98)
1-10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2)
1-11	함안 도항리 6호분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
1-12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
1-13	함안 도항리 6-1호분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06)
1-14	함안 도항리고분군 -도항리 428-1번지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1-15	함안 말이산 100·101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4)
1-16	함안 말이산 21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4~15)
1-17	함안 말이산고분군 -제25·26호분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5)
1-18	함안 도항리 572번지 말이산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6)
2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4~15)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3	함안 오곡리유적		
3-1	함안 오곡리유적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4)
3-2	함안 오곡리유적 -함안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5)
3-3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함안 엘엔피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5~06)
3-4	함안 오곡리 28번지 유적 -함안 오곡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7~08)
4	함안 묘사리 산134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7)
5	함안 윤외리분묘군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2)
6	함안 황사리분묘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1)
7	함안 하기리유적 -함안 평기~악양간 도로확장 구간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9)
8	함안 장지리유적	무덤,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4)
9	함안 소포리유적		
9-1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태정식품 공장 증축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05)
9-2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2구역)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재연구원(2012~13)
9-3	함안 소포리 생활유적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4구역 나지구)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2~13)
9-4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6-2구간 가지구) 내 유적	교통·통신	삼강문화재연구원(2012~13)
9-5	함안 군북 ○○부대 이전사업 부지 내 5-1·2구역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12~13)
9-6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6-3구간 다지구)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13)
9-7	함안 소포리 오당골유적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1구역 가지구)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9-8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5-3구간 가지구)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3~14)
9-9	함안 군북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 ○○부대 이전부지(5-1·3구역)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13~14)
9-10	함안 소포리 생활유적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5-3구역 다지구)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3~14)
9-11	함안 소포리 가야 취락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5-3구간 라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4)
10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일대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1	함안 가야읍 가야리 190-9번지 근린주택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4)
12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8)
13	함안 가야리유적 -함안 가야리 256-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3)
14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4)
15	함안 말산리 생활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3)
16	함안 우거리 17번지 유적 -함안 우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9)
17	함안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구간 내 유적	생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6)
18	함안 묘사리유적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구간 내 유적	산업·생산	삼강문화재연구원(2009)
19	함안 묘사리 윗장명토기가마	산업·생산	경남문화재연구원(1999~2000)
20	함안 우거리 토기생산유적	산업·생산	국립김해박물관(2003~04)
21	함안 칠원산성	정치·국방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8)
22	함안 회산리 산251-2번지 안곡산봉수대	정치·국방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7)

의령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	의령 죽전리고분군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2	의령 중동리고분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3~94)
3	의령 운곡리고분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5)
4	의령 운암리유적 -의령 칠곡~가례간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7)
5	의령 천곡리고분군	무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1995~96)
6	의령 예둔리분묘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2~93)
7	의령 오천리고분군 -오천산업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2)
8	의령 유곡리고분군 2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9	의령 경산리고분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0) 극동문화재연구원(2016)
10	의령 마쌍리·산남리유적 -의령~대의 간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9~10)
11	의령 율산리토기가마 -의령 율산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 내 유적	산업·생산	해동문화재연구원(2011)
12	의령 호미산성	정치·국방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진주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	진주 옥봉고분군 -진주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 도로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2	진주 귀곡동 귀동유적	무덤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1997)
3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무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1997)
4	진주 가좌동고분군		
4-1	진주 가좌동고분군 1~4호분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8)
4-2	진주 가좌동 산39-6번지 유적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1단계-2구역) 내 유적	무덤,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4~17)
4-3	진주 가좌동고분군과 취락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1단계-1구역)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6)
5	진주 국도2호선~혁신도시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5)
6	진주 화개리고분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0~11)
7	진주 가곡고분군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9)
8	진주 무촌유적		
8-1	진양 무촌리가야묘		국립진주박물관(1993)
8-2	진주~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2001~02)
9	진주 단목리유적		
9-1	진주 단목리유적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 내 유적	무덤	해동문화재연구원(2012~14)
9-2	진주 단목리유적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추가)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14)
10	진주 안간리유적	무덤,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06)
11	우수리소가야묘군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1997)
12	진주 내촌리고분군	무덤	한양대학교 박물관(1997~98)
13	진주 평거동유적		
13-1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2지구) 내 유적	생활, 산업·생산	경남문화재연구원(2005~09)
13-2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3-1지구) 내 유적	생활, 교통·통신, 산업·생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5~09)
13-3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 -3지구 Ⅱ-2구역 내 유적	산업·생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7~08)
13-4	진주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Ⅱ구역) 내 유적	교통·통신, 산업·생산	동서문물연구원(2009~10)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3-5	진주 평거 4-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생활, 교통·통신, 산업·생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10)
14	진주 이현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생활	삼강문화재연구원(2009~10)
15	진주 가좌동유적 -진주 가좌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2) 경남문화재연구원(2002~03)
16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8~09)
17	진주 소문리유적		
17-1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 소문리 779번지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
17-2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혁신도시 건설부지(10지구)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0~11)
18	진주 창촌리유적	무덤, 생활	삼강문화재연구원(2007)
19	진주 가산리유적 -진주 진성~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2~03)
20	진주 중천리유적		
20-1	진주 중천리유적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6~07)
20-2	진주 중천리유적 -진주 중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08~09)
21	진주 월평유적 -진주~집현간 4차선도로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제의	경남문화재연구원(2000~01)
22	진주 내촌리유적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96~97)
23	진주 상평동유적	산업·생산	우리문화재연구원(2010)
24	진주 개양유적	생활, 산업·생산	삼강문화재연구원(2008~09)
25	진주 옥방유적	산업·생산	동아대학교 박물관(1999)
26	진주 상촌리유적	산업·생산	삼강문화재연구원(2007~08)

창녕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01-1	창녕 교동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92)
01-2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1~04)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2003~06)
01-3	창녕 교리유적 -창녕 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4~05)
01-4	창녕 송현동고분군 15~17호분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06~08)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5	창녕 교동고분군 -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09~10)
01-6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7호분 및 주변 고분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1~12)
01-7	창녕 교동신라묘군-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유적	무덤	삼강문화재연구원(2011)
01-8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수습조사구간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3)
01-9	창녕 교동 88호분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3~14)
01-1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Ⅱ군 39호분 및 주변 고분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4~현재)
01-1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Ⅲ군 1-1호분·8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5)
02	창녕 계성고분군		
02-1	창녕 계성리 계남 북5호분	무덤	문화재관리국(1967)
02-2	창녕 계성리고분군-계남1·4호분	무덤	영남대학교 박물관(1968~69)
02-3	창녕 계성고분군 -구마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한성여자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1976)
02-4	창녕 계성고분군 -구마고속도로 확장구간 내 유적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94)
02-5	창녕 계성고분군 -국도 5호선 확장구간(Ⅱ·Ⅳ지구) 내 유적	무덤	호암미술관(1998~99)
02-6	창녕 계성고분군 -국도 5호선 확장구간(Ⅰ·Ⅲ 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1998~1999)
02-7	창녕 계성고분군 2·3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5)
02-8	창녕 계성리고분군 -창녕 계성리 주택·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두류문화연구원(2015)
02-9	창녕 명리고분군 -창녕 명리 37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두류문화연구원(2015)
02-10	창녕 계성고분군 3호분 진입로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03	창녕 영산고분군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0~11)
04	창녕 퇴천리고분군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6~07)
05	창녕 왕산리유적 -창녕 왕산리 근린시설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1)
06	창녕 대합면 주매리 마산터고분군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8)
0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재단(2017)
08	창녕 합리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두류문화연구원(2017)
09	창녕 동리유적 -창녕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내 유적	무덤	한겨레문화연구원(2010)
10	창녕 우강리고분군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02)
11	창녕 교리 송현역사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2	창녕 합리유적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0~11)
13	창녕 사리 1119번지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4)
14	창녕 계성리유적 -창녕 골프장 예정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5~06)
15	창녕 영산 서리조선묘군	생활	삼강문화재연구원(2010)
16	창녕 일리 34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생활	한국문화재재단(2016)
17	창녕 여초리토기가마터	산업·생산	국립진주박물관(1991~94)
18	창녕 용소리유적 -창녕 사몰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 내 유적	산업·생산	부경문물연구원(2010~11)

합천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합천 옥전고분군		
01-1	합천 옥전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5~86)
01-2	합천 옥전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7~88)
01-3	합천 옥전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9)
01-4	합천 옥전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1)
01-5	합천 옥전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1~92)
01-6	합천 옥전고분군 -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4)
02	합천 삼가고분군		
02-1	합천 삼가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81)
02-2	합천 삼가고분군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Ⅰ·Ⅲ·Ⅳ지구)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9~11)
02-3	합천 삼가고분군 -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Ⅱ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11)
02-4	합천 삼가고분군 -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Ⅱ지구 2차)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4)
03	합천 합천리유적		
03-1	합천 대야성 정비복원 부지 유적	무덤	동양문물연구원(2009)
03-2	합천 합천리 218번지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3)
03-3	합천 합천리 산16-2번지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4)
04	합천 안계리고분군	무덤	해동문화재연구원(2009)
05	합천 저포리유적		
05-1	합천 저포리고분군(A지구)	무덤, 생활	영남대학교박물관(1986~87)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5-2	합천 저포리B고분군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87)
05-3	합천 저포리 C·D지구 유적	무덤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1986~87)
05-4	합천 저포리 E지구 유적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86~87)
06	합천 반계제고분군	무덤	국립진주박물관(1986~87)
07	합천 중반계분묘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6)
08	합천 봉계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85~86)
09	합천 봉계리 8번지 유적	무덤,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10	합천 문림리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3)
11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재단(2015)
12	합천 정양 관광농원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14~15)
13	합천 창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86~87)
14	합천 어전리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6~07)
15	합천 장대리도요지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9~10)
16	합천 성산리성지	정치·국방	경상대학교박물관(2009) 동서문물연구원(2013~16)

산청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산청 생초고분군		
01-1	산청 생초고분군 -조각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2)
01-2	산청 생초 M12·M13호분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4)
02	산청 묵곡리유적	무덤	경남대학교박물관(1996)
03	산청 명동유적		
03-1	산청 명동유적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Ⅰ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02)
03-2	산청 명동유적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Ⅱ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2)
03-3	산청 명동유적 -산청 신안리 휴게소 건립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7)
04	산청 중촌리고분군		
04-1	산청 중촌리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신라대학교박물관(1982)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4-2	산청 중촌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4)
04-3	산청 중촌리 산206-7번지 태양광발전소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05	산청 평촌리유적	무덤, 산업·생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3~04)
06	산청 사월리유적	무덤	동의대학교박물관(1996)
07	산청 소남리유적	생활, 무덤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1997~98)
08	산청 옥산리유적	생활,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6~97)
09	산청 갈전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08)
10	산청 하촌리유적		
10-1	산청 하촌리유적 -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6~08)
10-2	산청 하촌리유적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09)
11	산청 어서리유적	생활, 산업·생산	경남문화재연구원(2006)

거창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거창 정장리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12)
02	거창 말흘리고분군		
02-1	거창 말흘리고분	무덤	국립진주박물관(1985)
02-2	거창 말흘리고분군 -거창 마리면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03	거창 무릉리고분군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2~13)
04	주상-한기리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무덤	한성문화재연구원(2016~17)
05	거창 월평리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10)
06	거창 송정리유적	생활, 무덤	부경문물연구원(2014~15)
07	거창 양평리 생활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7~08)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8	거창 동례리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
09	거창 무릉리 월곡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10	거창 대야리유적	생활	동의대학교박물관(1987~88)
11	거창 지산리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12	거창 송변리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

함양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함양 백천리고분군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80)
02	함양 상백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72)
03	함양 도천리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
04	함양 손곡리유적		
04-1	함양 손곡리분묘군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3)
04-2	함양 손곡리유적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부지 내 유적	무덤	두류문화연구원(2015~16)
04-3	함양 손곡리유적 -임천지구 수해상습 추가 개선부지 내 유적	무덤	두류문화연구원(2017)
05	함양 공배리고분군	무덤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1997)
06	함양 백천리유적	생활,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1996)
07	함양 이은리유적	생활,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4)
08	함양 신관리유적	산업·생산	우리문화재연구원(2009)
09	함양 우명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
10	함양 화산리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05)

고령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고령 지산동고분군		
01-1	고령 지산동 44호분	무덤	경북대학교박물관(1977~78)
01-2	고령 지산동 45호분	무덤	계명대학교박물관(1977~78)
01-3	고령 지산동고분군 -32~35호분 및 주변 고분	무덤	계명대학교박물관(1978)
01-4	고령 지산동고분군 -대가야왕릉전시관부지 내 유적	무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1994~95)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5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07~08)
01-6	고령 지산동 518호분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2~13)
01-7	고령 지산동고분군 정비부지 내 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17~18)
02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무덤	서울대학교박물관(1963)
03	고령 고아2리고분	무덤	경북대학교박물관(1963)
04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령 지산지구 국도개량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영남대학교박물관(2002)
05	고령 가야대학교 교내 체육시설 예정부지 내 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16)
06	고령 지산리 447번지 고령 대가야국 국왕 추모묘 건립부지 내 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09)
07	고령 지산동고분군 -대가야역사관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1999)
08	고령 지산동유적	무덤,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
09	고령 본관동고분군	무덤	계명대학교박물관(1983)
10	고령 쾌빈동고분군	무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1995)
11	고령 중화리고분군	무덤	다온문화재연구원(2017)
12	고령 박곡리 산69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재단(2016)
13	고령 박곡리유적 -임진왜란 전적기념관 건립부지 내 유적	무덤	계명대학교박물관(2000)
14	고령 양전리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	무덤	대가야박물관(2006~07)
15	고령 양전리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09~10)
16	고령 반운리목곽묘	무덤	동양대학교박물관(2004)
17	고령 도진리고분군	무덤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18	고령 안림리 대가야·조선시대 분묘유적	무덤	성림문화재연구원(2015)
19	고령 지산리 2-4번지 유적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15)
20	고령 지산동 44-1번지 생활유적	생활	영남문화재연구원(2006~07)
21	고령 지산리 245-1번지 유적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09)
22	고령 지산리 370-8번지 생활유적	생활	삼한문화재연구원(2014~15)
23	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유적	생활	대가야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2004~05)
24	고령 쾌빈리유적	생활	대경문화재연구원(2006)
25	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생활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7)
26	고령 고아리 158-2번지 유적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08)
27	고령 연조동 전 어정	생활	계명대학교박물관(1977)
28	고령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생활	불교문화재연구소(2005~06)
29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유적	산업·생산	영남문화재연구원(2015)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30	고령 주산성	정치·국방	대동문화재연구원(2011~15)
31	고령 연조리 추정 대가야궁성지	정치·국방, 생활	경북대학교박물관(2000~01) 가온문화재연구원(2017~18)
32	고령 봉화산 봉수대 재현사업부지 내 유적	정치·국방	대동문화재연구원(2017)

달성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달성 성하리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10~11)
02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11)
03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무덤	한국문물연구원(2016)
04	대구 달성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1단계 내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1~14)
05	달성 평촌리유적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성주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성주 성산동고분군	무덤	계명대학교박물관(1986~87)
02	성주 별티유적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부지 내 유적	무덤	경북과학대학박물관(2002~04)
03	성주 시비실유적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부지 내 유적	무덤	경북과학대학박물관(2002~04)
04	성주 시비실유적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04)
05	성주 차동골유적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부지 내 유적	무덤	경북과학대학박물관(2002~04)
06	성주 성산동유적	무덤, 생활	영남문화재연구원(2015)
07	성주 백전·예산리유적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03)
08	성주 명포리유적	무덤	경산대학교박물관(1997~98)
09	성주 명포리 산20-10번지 내 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15)
10	성주 명포리 산41-1번지 공장부지 내 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17~18)
11	성주 장학리 별티유적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06)
12	성주 사곡리 산113번지 유적	무덤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박물관(2011)
13	성주 보암리 780번지 유적	무덤	동양대학교박물관(2013)
14	성주 유월리 산43-5번지 유적	무덤	덕난문화유산연구원(2011)
15	성주 예산리유적	무덤,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10~11)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6	성주 장학리유적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17	성주 상언리유적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4)
18	성주 마월리유적	생활	경산대학교박물관(1999~2000)
19	성주 가암리유적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06)
20	성주 유월리유적 -국도 33호선 성주-왜관간 확장구간 내 유적	생활	영남문화재연구원(2003)
21	성주 옥성리 350-1번지 공장신설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생활	삼한문화재연구원(2016)
22	성주 유월리 산43-5번지 유적	산업·생산, 무덤,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08~09)

고성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고성 송학동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2000~02)
02	고성 내산리고분군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7~2005)
03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	생활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0)
04	고성 기월리 1호분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1)
05	고성 율대리 2호분	무덤	국립진주박물관(1989)
06	고성 오방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72)
07	고성 연당리고분군	무덤	경남대학교박물관(1991~92)
08	고성 신용리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09	고성 동외동유적		
09-1	고성패총	생활	국립중앙박물관(1969~70)
09-2	고성 동외동패총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74)
09-3	고성 동외동유적	생활	국립진주박물관(1995)
09-4	고성 동외리유적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5)
10	고성 서외리 158-10번지 유적	생활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0)

통영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통영 안정리고분군 -통영 안정리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02	통영 남평리유적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조성 부지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거제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거제 아주동고분군		
01-1	거제 아주동유적	무덤	동아대학교 박물관(1996)
01-2	거제 아주동고분군 -거제 아주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4)
01-3	거제 아주동고분군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 내 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4~05)
01-4	거제 아주동고분군 -거제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6)
02	거제 하청 하나로마트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6~17)
03	거제 관포리유적 -거제 거가대교 건설구간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6~07)
04	거제 장목고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4)
05	거제 대금리유적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2005~07)
06	거제 구영리고분군 -거제 구영 관광농원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해동문화재연구원(2015)
07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9~10)
08	연초댐 환경개선시설공사 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06)
09	거제 농소유적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5)
10	거제 지세포리유적	생활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5)

사천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사천 향촌동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9)
02	사천 예수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77) 삼도문화재연구원(2017)
03	사천 월성리고분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6)
04	사천 용현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8~09)
05	사천 덕곡리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09)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6	사천 향촌동 61번지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1)
07	사천 구암리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1)
08	사천 월성리유적	생활,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7~08)
09	사천 봉계리 삼국시대 집락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0)

남해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남해 남산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6)
02	남해 봉황산유적 -남해 봉황산 나래숲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부경문물연구원(2015)

하동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하동 흥룡리고분군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9~10)
02	하동 흥룡리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1)
03	하동 남산리 184-9·10번지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재단(2014)
04	하동 우복리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1)
05	하동 고이리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9)
06	하동 정수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
07	하동 횡천리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0~11)
08	하동 동산리유적	생활,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09	하동~화개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산업·생산	국강고고학연구소(2016)

전남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순천 운평리유적		
01-1	순천 운평리유적 M1호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5~06)
01-2	순천 운평리유적 M2·M3호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7~08)
01-3	순천 운평리유적 M4·M5호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12)

전북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01-1	남원 두락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89)
01-2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2013)
02	장수 삼봉리고분군		
02-1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03)
02-2	장수 삼봉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2~13)
02-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5)
03	장수 동촌리고분군		
03-1	장수 동촌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02~03)
03-2	장수 동촌리고분군 1호분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2~15)
03-3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동촌리 2호분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5)
03-4	장수 동촌리고분군 30호분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7)
04	남원 월산리고분군		
04-1	남원 월산리고분군	무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1982)
04-2	남원 월산리고분군 M4·M5·M6호분	무덤	전주문화재연구원(2010)
05	남원 운봉 북천리고분군	무덤	전라문화유산연구원(2014)
06	남원 임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11)
07	남원 행정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92)
08	남원 건지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88)
09	남원 봉대고분군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10)
10	남원 입암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11)
11	완주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4~16)
12	진안 황산리고분군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유적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1996)
13	무주 대차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2018)
14	장수 노하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6)
15	장수 장계리고분군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7)
16	장수 호덕리고분군	무덤	전북대학교박물관(1999)
17	장수 삼고리고분군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1995)
18	임실 금성리고분군	무덤	전주시립박물관(1972)
19	임실 석두리유적	무덤, 생활, 산업·생산	전라문화유산연구원(2010)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20	임실 도인리유적	무덤, 생활	군산대학교박물관(2009)
21	남원 대곡리유적	생활	전북대학교박물관(2001)
22	순창 무수리유적	생활	전북문화재연구원(2011)
23	장수 합미산성	정치·국방	군산대학교박물관(2014~15)
24	임실 성미산성	정치·국방	전북문화재연구원(2007)
25	장수 침령산성	정치·국방	군산대학교박물관(2014~17)
26	완주 배매산성	정치·국방	전북대학교박물관(1999~2000) 전라문화유산연구원(2017)
27	완주 구억리산성	정치·국방	군산대학교박물관(2016)
28	진안 와정유적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유적	정치·국방, 생활	군산대학교박물관(1995~96) 전북대학교박물관(1998)
29	장수 원수봉봉수	교통·통신	군산대학교박물관(2014~15)
30	장수 영취산봉수	교통·통신	군산대학교박물관(2013~14)
31	장수 봉화산봉수	교통·통신	군산대학교박물관(2013~14)

가야 유물 출토 유적

영남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울산 중산리고분군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1~94)
02	양산 용당동 79-9번지 유적	산업·생산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03	양산 소석리 543번지 유적	생활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04	양산 물금유적	산업·생산, 생활, 교통·통신	동아대학교박물관(1997~98)
05	대구 비산동고분군	무덤	영남대학교박물관(1999)
06	대구 문양리고분군	무덤	영남문화재연구원(1999~2001)
07	포항 마산리고분군	무덤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0~11)
08	경주 구정동고분군	무덤	국립경주박물관(1982)
09	경주 안계리고분군	무덤	국립문화재연구소(1970)
10	경주 구어리고분군	무덤	영남문화재연구원(1998)
11	칠곡 심천리고분군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0)

호남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	광주 풍암동유적	생활	전남대학교박물관(1996)
2	광주 동림동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3~05)
3	광주 명화동고분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93~94)
4	광주 점등유적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12)
5	광주 하남동유적 -광주 하남1지구 택지개발지역 내 유적	생활,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05~2006)
6	여수 고락산성	정치·국방,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1999~2003)
7	여수 미평동 양지유적	무덤	전남대학교박물관(1993~94)
8	여수 화장동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0)
9	여수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동북아지석묘연구소(2017)
10	여수 둔전유적	생활, 산업·생산	전남문화재연구원(2011)
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8)
12	여수 월산리 대초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2008)
13	여수 월산리 호산유적	생활	대한문화재연구원(2010)
14	여수 화동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8)
15	순천 가곡동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6~07)
16	순천 용당동 망북유적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1998)
17	순천 왕지동고분군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7)
18	순천 덕암동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5~06)
19	순천 덕암동 구암 75-3번지 유적	생활	나라문화연구원(2017)
20	순천 쌍암유적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3~14)
21	순천 요곡리유적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5)
22	순천 요곡리 선산유적	생활	대한문화재연구원(2011)
23	주암댐 수몰지역 승주 대곡리 집자리	생활	국립광주박물관(1989)
24	순천 검단산성	정치·국방	순천대학교박물관(1998~2001)
25	순천 죽내리 성암고분	무덤	순천대학교박물관(2000)
26	순천 죽내리유적	무덤	조선대학교박물관(1996~97)
27	순천 성산리 대법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6)
28	순천 성산·송산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9)
29	순천 성산리 성산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10~11)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30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2~13)
31	광양 용장유적	생활	전남문화재연구원(2012)
32	광양 용강리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1999~2001)
33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0)
34	광양 용강리 기두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2)
35	광양 칠성리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5)
36	광양 목성리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11~12)
37	광양 인동리유적	생활	전남문화재연구원(2015~16)
38	광양 도월리유적	생활, 무덤	전남문화재연구원(2008~09)
39	광양 원적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09)
40	광양 지원리 창촌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10)
41	곡성 구성리유적	생활	가경고고학연구소(2013~14)
42	구례 용두리고분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17~18)
43	고흥 한동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4)
44	고흥 방사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4)
45	고흥 장덕리 장동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2009)
46	고흥 신촌유적	생활, 무덤	마한문화연구원(2008~09)
47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	생활	마한문화연구원(2010)
48	보성 조성리유적	생활	순천대학교박물관(2001)
49	보성 조성리 금장유적	생활, 무덤	대한문화재연구원(2011)
50	장흥 상방촌A유적	생활, 무덤	목포대학교박물관(2001~02)
51	장흥 상방촌B유적	생활,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01~02)
52	강진 양유동유적	생활	전남문화재연구원(2008)
53	해남 신금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2~03)
5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73)
55	해남 만의총 1호분	무덤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08~09)
56	영암 만수리 4호분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89)
57	영암 신연리 9호분	무덤	국립광주박물관(1991)
58	함평 국산유적	무덤	목포대학교박물관(1999)
59	함평 성남유적	무점	목포대학교박물관(1999)
60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무덤	전남대학교박물관(1994~2001)
61	장성 영천리 횡혈식석실분	무덤	전남대학교박물관(1986)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62	전주 평화동 대정Ⅱ유적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15)
63	전주 안심·암멀유적	무덤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0~12)
64	군산 산월리유적	무덤	군산대학교박물관(2002)
65	익산 동용리 백제고분군	무덤	전북문화재연구원(2007)
66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09~10)
67	순창 구미리유적	무덤, 생활	호남문화재연구원(2013)
68	고창 봉덕유적	무덤	호남문화재연구원(2000~01)
69	고창 봉덕리 1호분	무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8~09)
70	고창 자룡리·석남리유적	무덤, 생활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0~11)
71	부안 역리 옥여유적	무덤, 생활	전주문화유산연구원(2012~15)
72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생활	국립전주박물관(1991)

서울•강원•충청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1	풍납토성	생활, 정치·국방	한신대학교박물관(1999~2000)
2	몽촌토성	생활, 정치·국방	서울대학교박물관(1983~89) 한성백제박물관(2013~14)
3	청주 신봉동고분군	무덤	충북대학교박물관(1982~2003) 국립청주박물관(1990)
4	연기 송담리·송원리유적 -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1-1구역 내 유적	무덤	한국고고환경연구소(2006~08)
5	금산 음지리유적	무덤	발견매장문화재(1994)
6	금산 창평리유적	무덤	신선교 발견매장문화재(1973)
7	동해 추암동고분군	무덤	관동대학교박물관(1992~93)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V

총괄 김삼기

기획 강동석, 정인태, 민경선, 김지연, 권지현

집필 강원종, 공봉석, 곽장근, 권종호, 김진철, 박성배, 박천수, 유영춘, 유은식, 이해수, 장상갑, 전상학, 조명일, 홍보식

편집·교정 강동석, 정인태, 김태희, 김형철, 문정희, 박지연, 윤다혜, 이명훈, 이현아, 정지왕, 정진희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055-211-9000
http://nrich.go.kr/gaya

북디자인 예맥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40-01
ISBN 978-89-299-1414-1 94910
978-89-299-1408-0 (전7권)

이 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V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9 788929 914141 94910
ISBN 978-89-299-1414-1
ISBN 978-89-299-1408-0 (전7권)